

## 顧命篇

지금부터 사백 구십년 전, 조선을 가장 잘 사랑하시고 한글과 음악과 시표(時表)를 지으시기로 유명하신 세종대왕(世宗大王) 이십 삼년 칠월 이십 삼일. 이날에 경복궁 안 자선당=동궁이 거처하시던 집에서 큰 슬픔의 주인 될 이가 탄생하시니 그는 세종대왕의 맏손자님이시고, 장차 단종 대왕이 되실 아기시었다. 아기가 탄생하시기는 진시 초였다. 첫가을 아침 별이 경희루 연당의 갓 피는 연꽃에 넘칠 때에 자선당에서는 아기의 첫 울음 소리가 난 것이다.

궁녀는 이 기쁜 기별을 일각이 바쁘게 대전마마께 아뢴 양으로 김소매 남치마를 펄펄 날리며 달음질로 경희루로 달려 왔다. 이때에 왕께서는 매양 하시던 습관으로 집현전(集賢殿)에 입직(入直)하는 학사들을 데리시고 경희루 밑에서 연꽃을 보시고 계시었다. 이날에 왕을 모신 학사는 신 숙주(申叔舟)와 성 삼문(成三問) 두 사람 이었었다.

왕은 연꽃을 보시면서도 자선당에서 기별이 오기를 고대하시었다. 세자빈(세자빈)께옵서는 지난밤 술시부터 아기를 비르지시와 밤새도록 심히 신고하시었다. 왕께서는 옷을 끄르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나인(內人)을 보내시와 물으시고 친히 내의(內醫)를 불으시와 약을 마련하시며 거의 밤을 새이시었다.

두 나인이 달려 오는 것을 먼저 본이는 왕이시었다. 아직도 젊은 두 학사는 연꽃 보기와 글 짓기에 정신이 팔리어 있었다.

나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용안에는 근심되는 긴장한 빛이 보였다.

『상감마마 세자빈께옵서 시방 순산하시어 계십니다.』 하고 앞선 늙은 상궁(尙宮)이 읊하고 허리를 굽힐 때에야 비로소 용안(龍顏)이 풀리시며 웃음이 돌았다.

『매우 신고하옵시다 옥 같은 아들 아기를 탄생하시옵고는 세자빈께옵서는 곧 잠이 들시고 아기씨는 자선당이 쨍쨍 울리도록 기운차게 우시옵니다.』

왕께서는 원손(元孫)이 나시었다는 기별에 매우 만족하시와 용안에 웃음이 가득하시어 두 학사를 돌아보시며,

『이해에 경사가 많구나. 종서가 육진(六鎭)을 진정하고 돌아오고, 또 원손이 났으니 이런 경사가 또 있느냐.』

『막비 성덕이시옵니다.』

하고 숙주, 삼문이 허리를 굽힌다.

『내 몸에 무슨 덕이 있을꼬. 막비 조종의 성덕이시라. 하늘이 큰 복을 이 나라에 내리심 이로다. 이봐라. 그래 아기가 크더냐?』

“네 크옵시오.”

하고 한 상궁이 아뢰니 다른 상궁이,

“갓 낳신 아기로 뵈옵기 어렵삽고 몸이 크옵심이나 울음 소리 웅장하옵심이나 삼칠일은 지넌신 듯하옵니다.”

왕께서는 만족하신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두 학자를 돌보시며,

“어떠할꼬? 오늘로 국내에 대사를 내리어 팔도 죄수를 다 놓아 주려 하나 어떠할꼬. 법도에 어그러짐이나 없을까?” 하심은 혹시나 그릇됨이 있을까 삼가시는 성인의 뜻이시다.

신 숙주가 나서며,

“대사를 내리심은 하해 같은 성은이시니 어찌 법도에 어그러짐이 있사오리까. 또 국가에 원자 원손이 나옵시면 죄인을 대사하옵고 환과고독(鰥寡孤獨)을 진휼(賑恤)하옵심은 열성조(列聖祖)의 유범(遺範)이신 줄로 아뢰오.”

한즉 왕은 다시 성 삼문을 보신다. 무슨 다른 의견이 있는가 하심이다.

삼문도 왕의 뜻을 살피고 국궁하며,

“하해 같으신 성은으로 대사를 내리시웁고 환과고독을 진흙하웁심이 지당하온 줄로 아뢰오.”

한다. 왕은 두 학사의 말이 일치함을 기꺼하시어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왕은 오늘 조회(朝會)에 어떤 모양으로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고 어떤 모양으로 팔도 죄수에게 일제히 대사령을 내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기쁨을 가지시고 연당 가으로 옥보를 옮기신다.

수는 같은 이슬 방울을 엮고 밝은 가을 물 위에 뜬 연잎과 금시에 아침 하늘에서 내려 온 듯한 우뚝우뚝한 향기로운 분홍 꽃, 다 핀 꽃, 덜 핀 꽃, 있다가 필 봉오리 이따금 꿈틀꿈틀 물결 일으키는 물고기. 늙은 손나무와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불어 오는 첫가을 아침나절의 서늘한 바람, 그것에 날려 오는 새소리. 연당 가으로 걸어 돌아 가는 대로 눈에 뜨이는 중남산(終南山), 인왕산(仁旺山), 백악(白嶽). 파랗게 맑은 하늘에 활짝 날아 오를듯한 근정전(勤政殿)의 가초 끝. 어느 것이나 태평 성대의 기쁨을 아뢰지 아니함이 없었다.

게다가 보산(寶算)이 겨우 사십 오세 밖에 아니 되신 영기와 총명이 겸비한 임금과 그를 모신 이십 칠팔세 되는 충성 있고 재주 있는 두 신하.

왕은 문득 거니시던 발을 멈추신다. 두 학사는 무슨 말씀이 계실 것을 살피고 왕의 좌우로 한 걸음쯤 뒤떨어 지어 선다.

왕은 몸을 돌리어 두 학사를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경들에게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 나를 섬기던 너의 충성으로 이 어린 손자를 섬겨 다고.”

하신다. 그 어성은 심히 무겁고도 슬픈 빛을 띠었다. 왕의 두 눈에는 눈물까지 빛나는 듯하였다.

젊은 두 학사는 왕의 말씀에 전신이 찌르르하여 굽힌 허리를 오려 들지 못할 뿐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왕은 두 신하의 분명한 대답을 들으려 하였다.

『숙주야.』

하고 왕은 숙주를 먼저 돌아 보시었다. 숙주는 삼문보다 나이 위이므로 왕은 언제나 삼문보다 숙주를 먼저 하신다. 그것도 장유(長幼)의 차례를 소홀히 아니하시는 깊으신 뜻이었다.

“네.”

하고 숙주는 더욱 감격하여 왕의 앞에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렸다.

“어린 손자를 부탁한다. 내가 천추 만세한 후에라도 내 부탁을 잊지 말아라.”

숙주는 이마를 조아리며,

“상감마마. 성상을 섬기웁고 남는 목숨이 있사웁거던 백 번 고쳐 죽사와도 원손께 견마의 역을 다하웁기를 천지 신명 전에 맹세하옵나이다.

이렇게 아뢰는 숙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 었디인 박석(薄石)을 적시었다.

왕은 다시 삼문을 향하여 같은 부탁을 하시니, 삼문은 다만 땅에 엎드려 느껴울 따름이요, 대답이 없다.

왕은 두 학사의 충성된 맹세를 들으시고 만족하시나 용안에는 추연한 빛이 맴히어 풀리지를 아니하였다.

“일어나거라. 진시 중이 되었을 듯하니 조회가 늦어서야 되겠느냐. 오늘 일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여라.”

하시고 걸음을 내전으로 옮기시었다.

왕께서 내전에 들심을 허리 굽히어 지송하고 숙주, 삼문 두 사람은 서로 눈물에 젖은 얼굴 바라보며 맥맥히 말이 없었다. 살이 죽이 되고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새로 나신 아기에게 충성을 다하리라고 천지 신명에게 속으로 거듭거듭 맹세한 것은 무론이다.

땅땅하는 쇠 소리가 들리는 것은 벌써 내불당(內佛堂)에서 아기의 수명 장수를 축원하는 발원을 함인가.

왕께서 이렇게 아기의 전도를 근심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자궁(世子宮)께서 병약하심이다. 세자궁은 이제 삼십밖에 안 도신 젊으신 몸이 시지마는 나면서부터 포유지질(蒲柳之質)이신 데다가 연전에 한 일년 동안 이름 모를 병환으로 누워 계신 뒤로부터는 더욱 몸이 연약하여서 성한 날보다 앓는 날이 항상 많으시었다.

그러한 데다가 동궁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왕이신 세종께 혼정신성을 권함이 없으심은 물론이어나와 조석 수라를 습실(잡수신다는 뜻)때에는 반드시 곁에 읊하고 서서 수라 끝나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밤에도 자리에 모시면 아무리 밤이 깊더라도 「물러가거라」는 명이 계신 뒤에야 물러나시었다.

이 모양으로 낮에 온 종일을 부왕께 모시고 나서 밤 깊어 자선당에 돌아오신 뒤에도 곧 침소에 들시는 것이 아니라, 늦게 저녁 수라를 습시기가 바쁘게 좌필선(左弼善) 정 인지(鄭麟趾)와 우문학(右文學) 최 만리(崔萬理) 두 사람을 비롯하여 신 숙주, 성 삼문, 유성원(柳誠源), 이개(李塏), 최 항(崔恒), 이 계전(李季甸), 박 팽년(朴彭年), 하 위지(河緯地)같은 젊은 어학우(御學友)들을 부르시와 삼경이 넘도록 성리(性理)를 토론하시고 민정을 들으시었다.

그 중에 정 인지는 스승으로, 신 숙주 성 삼문은 벗으로 가장 경해하시와 오경이 되도록 불드신 일이 가끔이었다. 이러한 일이 모두 세자의 건강을 해한 것은 물론이다.

세자께서 형제에 대하여 우애지경이 지극하심도 내의 가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바다.

세자께서 세종 대왕의 맏아드님이시고 같은 모후(母后)심씨(沈氏)를 어머니로, 둘째가 후일에 세조 대왕이 되실 수양 대군(首陽大君)이시고, 셋째가 풍채와 문장과 글씨로 일세를 진동한 안평 대군(安平大君)이시고, 그 밖에 후일에 단종 대왕을 회복하려다가 청주(淸州) 옥에서 돌아간 금성 대군(錦城大君), 세종께서 가장 사랑하시었던 영웅 대군(永膺大君)같은 이들이 계시어 팔 대군(八大君), 이 공주(二公主), 십 군(十君), 이 옹주(二翁主)나 동기가 있으시었다.

세자께서는 한달에 몇 번씩은 반드시 이 여러 형제들을 번갈아 부르시와 우애하는 뜻을 표하시었고 여러 아우님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형님 되시는 세자궁께 달려 와서 청하였다.

열 여덟 아우님 중에 가장 말쑥꾸러기로 부왕께 걱정을 듣는 이는 수양 대군과 안평 대군 두 분이였다. 수양은 호협하고 안평은 방탕하였다. 수양은 열 네 살에 남의 지비 유부녀의 방에서 자다가 본서방에게 들켜어 발로 뒷벽을 차서 무너뜨리고 달아나기를 십리나 하였고, 열 여섯 살 적에는 왕방산 사냥에 하루에 노루와 사슴을 스무 마리나 쏘아 잡아서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 영기(李英奇)로 하여금,

“뜻밖에 태조대왕(太祖大王)의 신무(神武)를 다시 뵈웁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세종께서는 수양 대군이 너무 날래고 날뛰는 것을 지르기 위하여 항상 소매 넓은 옷옷과

가량이 넓은 바지를 입히시고,

“너같이 날랜 사람은 넓은 옷을 입어야 쓴다.”

하여 경계하시었다.

이렇게 수양 대군은 부왕께는 걱정거리가 되고 궁중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세자께서는 그것이 가엾어서 더욱 이 아우님을 돌아보시었다. 그래서 한번은 수양 대군의 피 묻은 활에다가,

“철석기궁(鐵石其弓)이요, 벽력기시(霹靂其矢)로다. 오견기장(吾見其張)이나 미견기이(未見其弛)호라. (활은 철석 같고 살은 벽력 같도다. 내 그 켄김을 보았으나 늦춤을 보지 못하다.)”

라고 쓰시었다.

안평 대군은 소절(小節)을 돌아 보지 아니하고 주색을 즐겨하였으나 수양 대군과 같이 우락부락하고 왁살스러워 말쑥군은 아니었다. 다만 세상이 무에라거나 나는 술이나 마시려다 하는 태도였었다. 그렇지만은 안평 대군에게도 숨길 수 없는 영웅의 기상이 있는 것은 말할 수 없었다.

그 밖에 금성 대군은 사리에 밝고 의리가 있고, 영웅 대군은 얌전하고…… 이 모양으로 여덟 분 대군이 모두 한가지 특색을 가지시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성미를 가진 아우님들을 한결 같은 우애로 사랑하시는 세자에게는 성인의 도량과 인자함이 있으시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생각할 때에 세종께서 아기의 전도를 염려하심은 당연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종께서 세자를 사랑하시고 아끼느니만큼 세자의 병약하심이 더욱 가슴에 찔렸고 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세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것같이 생각키었다.

아드님 팔 형제(적지만)중에서 다른 아드님 다 건강하신 중에 세자 한 분이 가장 어지시면서 병약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욱 애처로왔다.

게다가 세자께서는 삼십이 되시도록 자녀간 새육됨이 없었다. 휘빈 김씨(徽嬪金氏)와 순빈 봉씨(純嬪峯氏)가 다 생산이 없이 폐함을 당하고 지금 아기를 낳으신 현덕 빈 권씨(顯德嬪權氏)도 열 네 살에 양제(良娣)로 동궁에 들어와 오년 전에 양원(良媛)으로 봉함이 되어 처음으로 잉태하시매 세자빈에 봉함을 받아 경혜 공주(敬惠公主)를 낳으시고는 다섯 살 터울로 이제 원손을 낳으시니 세자의 기쁨인들 어떠하며 세자빈의 기쁨이야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자를 애처롭게 생각하시는 왕께서 기뻐하심이 결코 심상할 것이 아니다.

불행히 세자는 비록 왕위에 올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가 자라면 그 뒤를 이을 것이라 하여 왕의 마음은 기쁘시었다.

그러나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수양 대군, 안평 대군 이하 「칠 대군이 강성하여」 하고 일컫는 여러 대군들이 있고, 그 중에도 수양 대군 같은 패기 만만(霸氣滿滿)한 이가 있으니, 원 천석(元天錫)의 말과 같이 장차 형님 되시는 세자를 극(克)하려는 기미도 있거든, 하물며 세자마저 돌아가시고 어린 아기가 등극하시게 되면 필시 무슨 불길한 사단이 있을 것은 누구나 상상하기 어렵지 아니한 일일뿐더러 더구나 이 아드님 저 아드님의 성미와 장쳐 단처를 잘 아시는 명철하신 부왕의 마음이라.

왕이 신 숙주, 성 삼문에게 아기를 부탁하심도 이 때문이다. 숙주, 삼문이 지금은 비록 나인 어리고 벼슬도 낮지마는 아기가 자라 왕위에 오르실 때에는 황 희(黃喜), 황보 인(皇甫仁), 정 분(鄭玢), 김 종서(金宗瑞)같은 이들은 벌써 늙어 죽거나 살아 있더라도 권세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왕께서 생각하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든든히 하기 위하여 그날 조회가 끝난 뒤에 황 회, 황보 인, 김 종서, 정 분, 정 인지 다섯 사람을 머물리시고 다시 아기의 후사를 부탁하시었다.

사흘 안에 대사의 은명이 팔도에 다 돌아 여러 천명 죄수들이 일제히 청천 백일을 바라보게 되고 전국 백성들은 국가에 원손이 탄생하시었다는 것보다도 인자하고 병약하신 세자궁께서 아드님을 얻으심을 진정으로 송축하였다.

불쌍한 환과 고독들은 넉넉히 진휼함을 받았고, 벼슬아치들은 일품씩 가자를 받았고, 전국 각 대찰에서는 일제히 새로 나신 원손의 수명장수를 축원하는 큰 재를 베풀어 중들과 거지들이 배를 불리게 되었다.

왕께서 불도를 숭상하시므로 아기 나신 날부터 칠월 이십 오일까지 사흘 동안 일체 짐승을 죽이지 말라는 전교를 내리시어 금수까지도 아기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었다. 진실로 팔도 강산에 귀신과 사람과 짐승이 한가지로 이 아기 나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축복받아 나는 이가 세상에 몇이나 되랴.

그러하건마는 아기에게는 벌써부터 슬픔이 오기 시작하였다.

아기가 나신 이튿날, 칠월 이십 사일에 아기의 어머니 되시는 세자빈 권씨는 사랑하는 아기에게 젖꼭지 한 번도 물려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신 때부터 꼭 일주야 동안 아기를 만져 보시었다. 고통이 심하고 기운이 탈진할 도저히 살지 못할 줄을 알으신 때에 세자빈께서는 그의 친정 어머니 되는 화산부 부인 최씨(花山府夫人 崔氏)와 세종 대왕께 모시어 한 남군(漢南君), (永豐君)영풍군 두 아드님을 낳고 장차 아기에게 진유(進乳)할 혜빈 양씨(惠嬪楊氏)에게 아기를 부탁하시었다.

세상에 나오신지 일주야만에 어머님을 여의신 아기는 혜빈 양씨의 젖으로 자라나시었다.

혜빈은 본래 천한 집 딸로서 인물이 아름다운 까닭으로 열 세 살에 나인으로 뽑히어 들어와 중전마마의 귀염을 받으며 궁중에서 자라났다. 십 오륙세가 되매 대단히 자색이 아름답고 또 영리하여서 점점 왕의 총애하심을 받게 되어 열 여덟 살에는 한남군(漢南君)을 낳았고 스물 네 살인 작년에는 둘째로 영풍군(永豐君)을 낳았다. 영풍군은 아직 돌을 바라보는 어린 아기로서 원손 아기와 젖을 나누어 먹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아기를 위하여 따로 유모를 구하려 하였으나 왕께서는 특별하신 처분으로 총애하시는 혜빈으로 하여금 아기에게 젖을 드리게 분부하시었다. 혜빈도 세자궁과 동갑일 뿐 아니라 혜빈이 지체가 낮다 하여 켤내에서 항상 휘둘러 지낼 때에 세자빈께서는 부왕이 사랑하시는 서모로 정답게 대접하시었음을 매양 감격하게 여기던 차라 왕의 분부가 계시기 전에도 아기에게 젖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왕의 뜻이나 혜빈의 뜻이니 비록 기출 되는 영풍군에게 다른 유모의 젖을 드리더라도 아기에게는 남의 젖을 아니 드릴 결심이었다.

그러나 우애지심이 많으신 세자께서는 아드님 되시는 아기를 위하여 아우님 되시는 영풍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젖을 잃게 하기를 차마 하지 못하시와 혜빈의 젖을 두 아기에게 같이 나누어 드리도록 분부가 계시었다. 그 때문에 따로 유모 하나를 가리어 부족한 젖을 채워 두 아기에게 드리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매 혜빈은 한 달이면 이십일은 동궁인 자선당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기는 마치 혜빈의 친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고 길러고 서삼촌 되는 영풍군과 아기와는 마치 쌍둥이와 같았다. 후일에 영풍군이 단종 대왕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도 오랜 인연이라 할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세자께서는 반드시 아기를 부르시와 안아 주시었다. 세자께서는 아기를

안으실 때마다 돌아가신 세자빈을 생각하시와 낙루하시는 일도 있었다.

세자께서 아기를 불러 안으실 때에는 반드시 영풍군도 안아 주시고 그 귀애하심이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듯하였다.

다섯 살 되는 경혜 아기는 반은 동궁에 있고, 반은 외조모 최씨를 따라 있었다.

최씨는 외마님인 세자빈이 국모(國母)라는 존칭도 못받아 보고 한창 살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여 아직 육십도 다 못되었건마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질 지경이었다. 부인은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궐내에 들어와 외손자 되시는 어린 아기를 안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세자의 특별한 주선인 것은 물론이다.

“눈 모습이, 눈 모습이……”

하고는 말이 맞지 못하여 목이 메었다. 아기의 눈 모습이 천연 그 어머니 되시는 세자빈 권씨였다.

그러나 이 아기가 자라시면 장차 세자궁이 되시고 상감마마가 되실 것을 생각하면 슬픈 중에도 희망과 기쁨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웬건 이 아기 상감님 되시는 것을 보고 죽으리?’

하고 부인은 입 밖에 말을 내지는 못하나 아기를 대할 때마다 늘 혼자 한숨을 쉬었다. 십칠년 후에 자기도 이 외손자 때문에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뜻도 못하였을 것이다.

어머니를 여윈 아기와 그 단 한 분 동기 되는 누님 경혜 아기는 남달리 인자하신 아버지와 늙은 외조모와 혜빈 양씨의 사랑 속에--- 또 조부님 되시는 왕의 특별하신 자애 속에서 모락모락 자랐다. 삼칠일, 백일 다 지내시와 아바마마께 안기실 때에는 그 기르신 수염을 잡아뜯게 되시었다.

이렇게 아기가 목을 가누고 사람을 알아보게 되신 때부터 세종 대왕께서는 가끔 아기를 데려 오라 하시와 몸소 품에 안으시고 대궐 뜰로 거니시기를 자주 하시었다.

한번은 아기를 안으신 채로 집현전으로 행차하시었더니 마침 입직하던 신 숙주와 성 삼문이 버선 발로 뛰어나와 지영하는 것을 보시고,

“이 애를 부탁한다.”

고 한 번 다시 말씀하시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희루 하교를 생각하고 황송하여 땅○ 엎드려 눈물을 흘리었다.

어느덧 십 이년이 지났다.

아기가 자라나시어 왕세손(王世孫)이 되시고 왕세자가 되시었다가 임신(壬申) 오월 십사일에 등극하시와 왕이 되시니 이 양반이 이 슬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단종대왕(端宗大王)이시다.

그렇게 조선을 위하여 큰일을 많이 하신 세종 대왕께서 경오(庚午)년 이월에 승하하신지 삼년이 지나서 지난 이월에 대상이 지나고, 그 후 석달이 못되어 임신 오월 십사일에 우리가 지금껏 세자라고 불러 오던 문종 대왕께서 승하하시어 이제 열 두 살 되시는 아기께서 왕위에 앉으신 것이다.

오년 내에 연해 세 번(오년 전에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승하) 국상이 나고 어리신 임금님 등극하시니 국내는 슬픔과 근심에 찼다. 장차 큰 폭풍우가 오려는 천지와 같이 조선 팔도는 암담한 구름에 싸였다.

처음 세종 대왕께서 승하하시매 세자께서는 부왕의 영구(靈柩) 앞에서 왕위에 오르시었다. 왕께선 애통하시는 양은 진실로 차마 뵈올 수 없었다. 때는 이월이라 중춘절후라 할 만하건마는 그해 따라 늦추위가 심하여서 세종께서 승하하신 때에는 풀리었던 한강이 다시 불

을 지경이었다.

그러하건마는 왕께서는 병약하신 옥체도 돌아 보지 아니하시고 잠시도 여막으 크떠나심이 없으시었다. 아무리 신하들이 추운 동안 방에 들시기를 청하여도 왕은 우시고 듣지 아니하시었다. 본래 병약하신 몸인 데다가 지난 일년 동안 등에 큰 종치를 앓으시와 아직 함차이 덜 된 몸이시니 가까운 신하들이 염려함은 물론이어나와 누구나 이 일을 아는 이는 인자하시고 병약하시고 효성이 출천하신 왕을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세종 대왕께서도 오십이 가까우시며부터 매양 옥체 미명하신 날이 많으시와 승하하시기 육년 전 을축년부터는 세자께 참결서무(參決庶務)하랍신 하교가 계시어, 이래 육년 간 세자께서는 부왕을 대리하시와 군국 대사로 참결하시었다. 이렇게 낮에 종일 정사를 보시고도 밤이면 부왕의 곁을 모시어 시탕의 정성을 다하시었다. 밤이 늦더라도 왕께서 두세 번 물러나라시는 분부가 계시기 전에는 물러나시는 일이 없으시었다.

더구나 세종께서 승하하시기 전 두어 달 동안은 세자께서는 거의 하루도 옷을 끄르고 편안히 쉬신 적이 없으시었다.

이리하여 왕이 되신 뒤에도 첫째는 혼전에 모시기에, 둘째는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시기에, 셋째는 학문을 연구하시고 민정을 살피시기에 잠시도 한가하신 적이 없으시었다. 그렇게 병약하신 몸으로 그렇게 번극하게 일을 보시니 건강은 갈수록 더욱 쇠약하실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판서(判書) 민신(閔伸)같은 이는 간일시사(間日視事)를 주장하였다. 자세히 말하면 왕께서 하루는 쉬시고 하루는 정사를 보시게 하자라는 뜻이다. 당시 영의정(領議政)이던 황희(黃喜)도 민 신의 뜻에 찬성하였고 다른 노신(老臣)들도 왕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속으로는 민 신의 말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가끔 왕께 간일시사하시고 이양정신(頤養精神)하시기를 간하였으나 왕은,

“임금이 게으르면 천년을 사들 무엇하리.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일년만 살아도 족하다.”

하시고 듣지 아니하시었다. 게다가 정인지(鄭麟趾) 일파는 임금이 정사를 게을리하심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하여 민 신 일파의 의견에 반대하였다. 이리되면 기운 없는 늙은 이들은 성인의 뜻을 내세우는 정 인지 일파의 의견을 반대하고 기어코 왕을 휴야하시게 할 용기가 없었다.

이래서 왕께서는 부왕의 거상을 다 벗자마자 그렇게도 지극히 사모하시던 부왕의 뒤를 따르시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하늘이 왕의 효성을 보사 삼년상을 마칠 수명을 왕에게 허하신 것이다.

현덕왕후(顯德王后)승하하신 뒤로 십년이 넘도록 문종 대왕은 다시 왕후를 책봉하신 일이 없으시고 지존의 몸으로 혼자 계시었다. 세종 대왕 승하 전에 세종께서도 세자비 책립에 대하여 근심이 계시었으나 세자께서 장남하실뿐더러 덕이 높으심을 아시므로 굳이 혼인을 하시도록 명하심도 없으시었고 혹 근신(近臣)이 그러한 뜻을 여쭙오면 왕은,

“남녀와 음식은 사람의 욕심 중에 가장 큰 것이지만은 나같이 병약한 사람은 그것이 다 긴치 앓으이.”

하고 웃으실 뿐이었다.

왕은 두 분 아기(세자와 경혜 공주)를 지극히 사랑하시었다. 정사가 끝나시고 내전에 드옵시면 두 분 아기를 부르시어 그날그날 배운 글도 외우라 하시고 온종일 무엇하고 논 것을 아뢰라 하시와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앞에 불러 세우시고 엄숙하고도 인자한 낮

빛과 말소리로 책망하시었다. 그리하되 과도히 익애(溺愛)하심도 없고 과도히 엄히 하심도 없으시었다.

아기들도 아바마마 한 분을 아버지 겸 어머니 겸으로 사모하고 따르시어 아무리 장난에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왕께서 내전으로 들어오실 시각이 되면 먼저 들어와서 부왕이 들시기를 기다리었다 .

그러다가 작년에 경혜 공주가 참판(參判) 정 충경의 아들 영양위(寧陽尉) 정 종에게로 시집 간 뒤에는 오직 세자 한 분만을 곁에 두시고 사랑하시었다.

이 모양으로 왕은 다만 병약하실 뿐 아니라 가정지락이 없으시었다. 동궁으로 계실 때에 두 번이나 세자빈을 폐하게 된 것도 무론 왕의 뜻은 아니었다.

초취이신 휘빈(徽嬪) 김씨는 상호군(上護軍) 김오문(金五文)의 딸로 심히 자색이 아름다웠다. 그때 세자의 나이 열 다섯 휘빈도 동갑이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골격이 강대하시고 얼굴이 동통하시어 이 어린 신랑 신부는 마치 빔어 놓은 듯이 아름다우시다고 근시하는 사람들이 혀를 찼었다.

두 분의 첫사랑은 자못 깊으시어 세자께서 공부를 폐하시는 난이 있고 얼굴에 핏기가 적어지신다고 수군거릴지경이었다. 가례(嘉禮) 후 이태를 지나서 두 분이 열 일곱 살이 되어 세자는 남자다운 기상이 더욱 씩씩하시고 휘빈은 아침 이슬 받은 함박꽃같이 환하게 피실 때였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는 젊은 한 쌍을 축복하는 이보다도 새우는 이가 많았으니, 그 중에 가장 심하게 새운 이가 세자의 모후(母后)이신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시었음은 물론이다. 며느리 귀애하는 시어머니 없다고 하거니와 원체 기승하시기로 호랑이같이 두려움을 받으시는 왕후께서는 아드님이신 세자를 대단하게 사랑하시느니만큼 그 아름다운 며느님을 미워하시었다. 중전께서 세자빈을 미워하시는 눈치를 본 궁녀들은 나도 나도 하고 휘빈의 있는 흉 없는 흉을 중전마마께 아뢰어 바치었고 원체 며느님이 미우신 왕비께서는 며느님을 홍보는 말이면 다 옳게 들으시었다.

문종(文宗), 세조(世祖) 두 분 대왕과 그에지지 않는 안평대군(安平大君), 금성대군(錦城大君) 같으신 영결을 낳으신 그가 결코 범상한 아낙네가 아닐 것은 물론이요, 동방의 요순(堯舜)이라고 부르는 세종 대왕을 도우실 만할진댄 덕으로도 부족하시지 아니하련마는 휘빈을 미워하실 때에는 오직 시기뿐인 범상한 아낙네시었다.

마침내 자선당에서 요기로운 것을 찾았다. 김씨가 이것으로 세자를 혹하게 하였다 하여 어떤 물건을 휘빈 방에서 집어다가 중전께 바친 궁녀가 있었다. 이것이 휘빈이 열 여덟 살 적 일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 휘빈은 폐함이 되었다.

휘빈이 세자를 호리기에 썼다는 요물이란 것은 부적이었다. 이 부적을 한 장은 몸에 지니고, 한 장은 남편의 옷속에 넣고, 한 장은 내외가 자는 방바닥에 감추고, 한 장은 땅속에 묻고, 한 장은 불에 살라 하늘로 올려 보내면 남편의 마음이 그 아내에게 혹하여 다른 계집에게로 가게를 못하는 것이라고 궁중에 출입하는 어떤 늙은 승이 중전마마께 설명을 하였다.

이러한 요기로운 부적이 휘빈의 방에서 드러났다 하여 궁중은 간 곳마다 수군거리고 휘빈에게 대한 흠담은 더욱 많아지어 그 말을 다 듣고 보면 휘빈은 마치 세상에 무서운 요물인 듯하였고, 어떤 간사한 궁녀는 휘빈이 구미호(九尾狐)의 화신이어서 밤이면은 어디를 나갔다가는 이슬에 폭 젖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년까지도 있었다.

마침내 세종께서는 중전마마와 자리를 같이 하시와 며느님인 휘빈을 부르시와 전후 시말



을 물었다. 여러 날 괴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초췌한 세자빈의 모양은 참으로 가련하였다. 시아버님 되시는 왕께서는 본래 휘빈을 귀애하시던 터이라, 마음에 측은히 여기시어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시었다.

“아가 듣거라. 네가 요기로운 부적을 몸에 지녔다 하니 그런 일이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다. 필부의 집에서도 괴변이라 하려든 후일에 일국의 국모가 될 자리에 있어서 말이 되느냐. 고래로 이런 일은 애매한 누명을 쓰는 수가 많은 것이니 네 바른 대로 아뢰어라.”

하고 마음에 느끼시는 자애지정을 억제하시고 가장 엄숙하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왕께서 휘빈을 특별한 자애가 없으시면 이만한 일이면 휘빈은 대궐 마당에서 무서운 국문(鞠問)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 되면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서서 그 부끄럽고 욕됨이 비할 데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전과 궁녀들은 물론이여니와 승정원(承政院),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말썽 좋아하는 신하들도 세자빈을 엄하게 국문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휘빈은 부왕의 물으심에 대하여 다만 느껴울 뿐이더니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한 번 일어 절하고 들릴락말락 가늘고 떨리는 소리로,

“상감마마 모두 미천한 소신이 덕이 없는 탓이옵니다.”

이 말에 중전이 펄쩍 뛰며,

“흥, 그래 네가 애매하단 말이나. 상감께옵서 인자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나 말씀 사뢰서네 죄를 면해 보려고? 천지 신명이 다 아시고 미워하시려든!”

하고 독한 눈매로 마루 위에 엎드린 휘빈을 노려보았다.

왕은 중전의 성나신 양을 보시고 잠간 양미간을 찡그리시더니,

“듣거라. 말 한 마디에 네 목숨이 달렸으니 분명히 대답을 하여라. 네 방에서 요기로운 부적이 나왔다 하니 그것이 진실로 네가 지녔던 것이냐, 아주 모르는 것이냐.”

휘빈은 입술을 물어 울음을 참고 이윽히 생각하더니 잠간 눈물 어린 눈을 들어 중전을 우러러 보고,

“신명을 그일지언정 어찌 상감마마를 그이리이까. 부적은 몸에 지닌 적이 없사옵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본 적도 없사옵니다.”

하고 느껴울었다.

이 말에 중전은 뛰어 일어서서 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펄펄 뛰며,

“오, 요망한 것이 이제는 나를 잡으려 드는구나. 내가 너를 해하려고 이 일을 꾸며 내었다는 말로구나. 상감께서 밝히 살피시오.”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사내바람이 나서 부르르 떠신다.

왕은 부적을 찾았다는 궁녀를 불러 세자빈과 대질을 시키려 하였으나 세자빈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면 도리어 벗어나지 못할 줄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휘빈의 이 태도는 부왕은 물론이여니와 세상 사람의 동정을 끌어서 중전의 비위를 맞추려는 간사한 무리들을 제하고는 대개는 휘빈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기었다.

그때 세자는 세자빈을 사랑하시는 정이 더욱 깊으시었으나 열 여덟 살 되신 세자로는 어찌할 도리도 없었다.

아버지 되시는 왕의 특별하신 처분으로 국문을 당하기를 면하고 휘빈은 영광스러운 세자빈의 지위에서 쫓겨나한 죄인 김씨가 되어 한 깊은 눈물을 뿌리고 그날 밤이 들기를 기다려

겨우 시녀 두 사람을 데리고 궁녀 타는 가마에 앉아 말 없는 무리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건춘문(建春門)을 나서 삼청동(三清洞)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친정에서도 곡성이 진동한 것을 말할 것도 없다.

휘빈이 폐함이 되어 동궁에서 쫓겨나감으로부터 세자는 며칠 동안 침식을 폐하시고 휘빈을 생각하시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얹지른 물은 다시 담을 길이 없었다.

이 일이 있는 뒤로 그렇게 쾌활하시던 세자의 용모와 태도에는 침울한 빛이 돌게 되고 매사에 비감하고 상심하시는 일이 많게 되었다. 그 뒤에 뜻을 나라 다스리는 큰일에 두시었으나 이 인생의 첫 비극의 쓰린 기억은 세자의 일생을 어둡게 하였다.

휘빈이 폐함이 된 뒤에 곧 다시 간택(揀擇)이 계시어 종부사 소운(宗簿寺少尹)봉려(奉礪)의 딸과 둘쨀번 가례를 이루시니 이 이가 순빈(純嬪)이시다.

순빈은 중전의 영지(令旨)로 고르신 재색이 아름답지 아니한 어른이었다. 얼굴만 수수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리하다 하기보다는 어리석한 편이었다. 아름답고 재주 있는 휘빈에게 대이신 까닭이다.

순빈 봉씨는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지내기는 하였으나 세자빈으로 계신지 팔년 동안에 한 번도 성태함이 없으니 이것이 큰 걱정이었다. 그래서 중전께서는 여러 번 근시하는 사람들을 시키시어 세자에게 후사(後嗣)를 구하심이 마땅하단 말씀을 사뢰고 세자빈이 성태를 못하시니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실 것을 권하며 여러 번 자색 있는 나인을 거천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원래 여색에 마음이 적으신 데다가 정실밖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함이 가도(家道)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이러한 꾀임에 응하지 아니하시었다.

마침내 중전께서는 참다 못하여 직접 세자를 부르시와 속히 다른 여자를 들이어 후사를 얻으시기를 권하실 때에 그 간절하심이 명령이나 다름이 없었다.

“동궁은 내 말도 아니 들으려나?”

하실 때에는 효성이 깊으신 세자는 더 거역할 도리가 없으시었다.

중전의 근심하심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다. 사샷집에서도 아들이 삼십을 바라보도록 손자를 못 보면 근심이 되려는 하물며 왕가이라. 더구나 세종 대왕께서 항상 미령하신 때가 많으시니 언제 세자께서 즉위하실는지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세자께서 즉위하시어 왕이 되시면 다시 세자를 책립하시어야 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궁중에 항상 불안이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떠한 음모가 일어나 어떠한 상서롭지 못한 사단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자빈이신 순빈께서 생산을 못하심은 다만 중전마마의 걱정이 될뿐더러 대전께서도 근심하시는 바가 되었다. 말하자면 내외분이 걱정하신 결과로 중전께서 동궁께 재촉하시는 것이다.

이리하여 수칙(守則) 양씨(楊氏)가 뽕히어 세자의 침식을 모시게 되었다.

양씨는 자색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양씨를 택한 것은 이유가 있다. 순빈이 너무도 자색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자께서 예전 휘빈 때 모양으로 그 방에 들시는 일이 드물다는 까닭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름다운 여자를 택하노라 한 것이 곧 수칙 양씨였다.

양씨가 동궁에 들어온 뒤로 순빈 봉씨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렇게 순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순빈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을 놀랠 만한 질투의 불이 들어 있었다.

세자께서 양씨와 자리를 같이하신 날이면 순빈은 온종일을 울음으로 지내고 좌우에 모시는 시녀들을 까닭없이 못 견디게 굴었다.

이렇게 되면 순빈과 수칙 양씨와는 아기 낳기 경쟁을 하게 된다. 순빈 편으로 보면 아무

리 자기가 지금은 세자빈이라 하더라도 후사 될 아기를 낳지 못하면 장래가 캄캄하고 아무리 시방은 종이나 다름없는 양씨라도 세자빈보다 먼저 사내 아기만 낳아 놓으면 비록 당장에 세자빈으로 승차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전 융숭한 대접을 받을뿐더러 그 아기가 자라 임금이 되시는 날에는 그의 영화가 그지없을 것이요, 잘 되면 왕후로 추송을 받을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양씨의 자색은 젊으신 세자의 마음을 끌었다. 아무리 남녀에 담박하신 세자께서도 품속에 들어온 어리고 아리따운 양씨를 떠밀어 내일 아무 까닭도 없었다. 점점 순빈께 발이 머시고 양씨에게 발이 잦으시었다.

게다가 양씨가 동궁을 모신지 일년쯤 되어 세자와 금술이 한창 좋을 때에 양씨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궁중에 퍼지었다. 이 소문은 대전마마, 중전마마께도 들리었다. 이것이 기쁜 소문인 것은 물론이다.

양씨가 입맛이 제치고 머리가 아프고 구역을 하여 눕게 된 때 상감께서는 친히 내의를 명하시와 태모에 좋은 약을 쓰게 하시고 중전마마께서는 하루 두 번씩 궁녀를 동궁으로 보내시와 보약을 달이게 하고 양씨에게 여러 가지로 고마우신 말씀들을 내리시었다.

이렇게 되면 세력을 따르는 동궁에 있는 궁녀들은 하나씩 둘씩 거의 다 양씨를 가까이하고 순빈은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 ‘시집 온지 팔년이 되어도 성태 못하는 사람이 인제 성태할라고’ 하는 것이 여러궁녀들의 의견이었다. 또 능하지 못하신 순빈은 평소에 궁녀들의 마음을 살 줄도 몰랐다. 고마운 말 마디, 피륙 자,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의리 없고 욕심 있는 우리와 혼까지 사는 줄을 순빈은 모르시었다.

순빈은 분한 생각과 질투에 몸이 타는 듯하였다.

이때에 순빈의 친정 어머니 되는 이씨는 옳은 말을 따님 되시는 순빈에게 가르치었다.

그 말은 이러하다---.

“성태 못하는 것도 천생 팔자지요.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더라도 여편네로 태어나서 시앗을 보는 것은 사삿집에서도 면치 못할 일이어든 하물며 궁중일까 보오리까. 국모(國母)가 되려면 삼천 궁녀를 다 시앗으로 알고 거느려 갈 도량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요. 질투는 사삿집에서도 칠거지악에 돌거든 하물며 궁중이오리요. 질투하는 빛이 드러나기만 하면 실덕(失德)이라 하여 물러날 것이니 애시에 그러한 빛도 보이지 마시오. 여편네로 태어났으면 참는 것이 일생으로 아시오.”

이렇게 우는 딸을 간곡히 권하고 나중에는,

“양씨에게 날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 보고 이따금 맛나는 음식도 만들어서 보내되 어머니가 딸에게 하듯 하시오. 그러하면 인자하신 세자께서 그 덕에 감동하시와 정을 물리실 것이요. 대전 중전께옵서도 칭찬하실 것이니 이러하면 비록 일생에 잉태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위가 위태하지 아니하오리다.”

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순빈은 이 말대로 실행할 만만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순빈의 비위를 맞추어 꺾이는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계책보다도 간사한 꾀임이 질투로 흐린 순빈의 마음에 잘 들어 왔다.

간사한 꾀임이라 함은 궁녀 수규홍씨(守闥洪氏)의 꾀임이다.

홍씨는 얼굴이 아름답기로 남도 알아 주었지니와 저도 믿었다. 열 다섯 살에 궁녀로 들어와서부터 동궁에 있었다. 그가 궁중에 들어 올 적에 그의 부모(아비는 늙은 별감이다)와 이웃은 다 얼마 아니하여 반드시 영화를 누리리라고 믿었다. 홍씨가 집에서 자라날 때에 그를

보는 사람이야 누구나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러나 동궁에 모신지 십년이 되도록 아직 좋은 운수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휘빈이 생존하신 동안에야 어느 누가 감히 세자를 눈겨어 보았으랴. 후궁 삼천을 다모아 놓더라도 휘빈의 아름다움을 당할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휘빈이 나가시고 순빈이 들어오신 때부터는 적이 아름다운 자색에 자신이 있는 동궁 궁녀들은 혹시나 세자의 눈에 들어 볼까 하고 외기러기 쪽사랑을 바치는 이도 한둘만이 아니었다. 홍씨가 그 중에서 자색으로나 세자에게 가까이 모시기로나 으뜸이었다. 그러나 세자께서는 누구에게나 다정하시면서도 누구에게나 엄정하시었다. 좌우에 모시는 어린 궁녀들을 마치 동생같이, 자식같이 귀애하시었다. 그렇지만 세자께서는 어느 궁녀의 손목 한 번 아니 잡으시기로 유명하시었다.

세종 대왕께서는 아주 색에 범연하신 양반은 아니시어서 귀여운 궁녀를 보시면 가까이 부르시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혹 손목을 만지시기도 하고, 마음에 들시면 잠자리도 모시게 하시었다. 그래 그들의 몸에 아드님 열분, 따님 두분(살아서 자란 이만)이나 두시었다. 그러나 세자께서는 영 그런 일이 없으시었다.

그래도 홍씨는 기어코 세자의 마음에 들려고 결심을 하였다. 비록 나이는 스물 다섯이나 되었건마는 아직도 처녀로 있는 그는 세 살은 넉넉히 젊어 보이었다. 여자로는 익을 대로 익은 시대였다. 피부에 기름은 오를 대로 오르고 윤택은 날대로 났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삼년만 지나면 이 꽃은 아주 쇠어버리고 만다. 홍씨는 그런 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였다.

이때에 수칙 양씨의 사촌 되는 지밀 나인 양씨가 이제 겨우 열 일곱 살이면서 왕의 귀여움을 받아 거의 밤마다 왕을 모시게 되어 단박에 상침(尙寢)이 되었다. 중년이 되신 왕께서는 남은 사랑을 은통으로 어린 양씨에게 쏟으시는 듯하였다. 중전께서는 왕이 어린 양씨에게 혹하신 것을 보고 중년된 부인의 질투로 불같이 화를 내시었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이이가 장차 우리 불쌍하신 어린 임금 단종 대왕께 젖을 드리고 마침내 그 어른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된 혜빈(惠嬪) 양씨다.

이런 것을 보면 홍씨의 심중이 자못 조급하다. ‘모두 양씨 판인가’ 이렇게 궁중에서는 수군거리었다.

그런데 수칙 양씨가 세자를 모시어 아기를 배었다. 인제는 홍씨의 운수는 영영 가버린 것이다. 홍씨는 한껏 슬프고 한껏 분하였다. 저도 상감을 모시는 궁녀만 되었더면 벌써 사랑을 받아 아들 딸도 낳고 빈(嬪)도 봉함이 되었을 것을 어찌어찌하여 자선당(資善堂) 시녀가 되어 부처님 같은 동궁을 만난 탓으로 꽃 같은 인생을 허송하게 되었다.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 가는 양씨를 곱게 둘 내가 아니다. 홍씨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마마!”

하고 홍씨는 울고 앉았는데 순빈 앞에 읊하고 섰다. 순빈은 혹시나 아침에나 세자께서 자선당으로 들어오실까 하고 몸을 꾸미고 계시다가 해가 높아도 소식이 없으시매 우시는 것이다. 홍씨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양가년이 됐잖단 기별이나 있느냐?”

하고 순빈은 눈물에 젖은 낯을 들었다. 그 눈에는 원망과 독이 가득 찬 듯하였다.

“양씨는 오늘부터 적이 입맛도 나서 아침 진지는 이제 한 주발을 다 자시고 있다가 점심에 드린다고 시방일변 곱국을 끓이고 일변 녹용을 달이노라고 눈코 뜰 새 없사옵고 상감마마, 중전마마께옵서도 여러 가지 음식을 하사하시와 마치 잔치나 벌어진 듯하옵니다.”

“잘들 하는구나. 그래 동궁마마는 또 양가년한테 계시더냐?”

“네, 마침 동궁마마께옵서는 양씨의 머리와 손을 만지고 여러 가지 정다운 말씀을 하시는 모양을 뵈오니 자연분하고 비감하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빈은 이를 뾰드득 갈았다. 그렇게 순한 순빈의 속에 어디 그러한 독이 들었던고 하고 홍씨도 놀랐다.

순빈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뛰어 나가려 하였다.

홍씨는 꿇어 앉아 순빈의 옷소매를 잡았다.

“놓아라. 왜 붙잡느냐. 내가 동궁마마 앞에서 양가년과 사생 결단을 할란다. 밤새도록 불어 자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아침에도 놓지를 못한다더냐. 인자하신 동궁마마께옵서야 그렇게 야멸치게 나를 잊으실 리가 있겠느냐마는 그 여우 같은 양가년이 동궁마마를 흐리는구나. 에라 놓아라, 내가 고년을 물어뜯어서라도 죽여버리고 말란다.

“순빈마마. 분을 참으시고 진정하시겨요. 이렇게 뛰어가시면 남이라도 웃고 옳으신 일도 그르게 됩니다. 궁중에서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진정하시겨요.”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냐. 이 터지는 가슴을 어떻게 참으란 말이냐. 고년 양가년을 살려 두고야 내가 어떻게 물인들 목에 넘긴단 말이냐.”

하고 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몸부림을 한다. 곁에서 보면 나인들은 고개를 물리어서 입을 뻐쭉댄다.

홍씨는 순빈을 뒤로 안아 일으키는 서슬에 입을 순빈의 귀에 가까이 대고 일른,

“마마. 이년이 양가년을 없이 해 드리리다.”

하였다. 홍씨는 다른 궁녀들이 다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마마. 양가년 하나를 없애기야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까짓 년 하나 소리도 없이 없애기는 여반장입니다. 소인이 팔년 동안 순빈마마를 모시와 하는 같으신 은혜를 지었사오니 마마를 위하여서야 목숨인들 아끼오리까. 만일 마마께옵서 하라고만 하옵시면 사흘 내에 양가년을 찢 소리도 못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하였다. 없엔단 말에 순빈은 깜짝 놀라며,

“없애다니? 사람을 어찌 죽이기야 하느냐.”

“양씨가 살아 있으면 마마께옵서는 앞날이 어찌 되시올지 생각만 하와도 가슴이 아프옵니다.”

“그러하기는 하다마는 사람을 죽이기야 어이하라. 그저 고년이 동궁마마를 꿈쩍 못하게 호리지만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다.”

“아기는 낳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순빈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뻔 아기를 아니 낳게 할 수야 있느냐?”

“양씨는 아들을 낳고 마마께옵서는 성태를 못하시면 어찌 되올지.”

순빈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러면 어찌할꼬?”

“양씨를 두고 동궁마마를 도로 찾으려 하심은 나무를 세워 두고 그늘만 없이 하림과 같사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여쭙기 황송하옵니다.”

“아나 무슨 말이냐 하여라. 내가 지금에 너 하나 밖에 머 믿을 데가 있느냐. 동궁마마는 양가년한테 홀리시어 저 모양이시고 중전마마께옵서는 인제는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

는 모양이시고, 내가 누구를 믿으랴. 아무 런 말이라도 하여라. 나를 살려 주려무나.”

홍씨는 일어나 옆방과 좌우를 둘러 보고 순빈 곁으로 가까이 와서 입을 순빈의 귀에 대고,

“한 범을 잡는 것과 두 범을 잡는 것과 어느 것이 쉬웁니까?

“하나 잡는 것이 쉽지.”

“그와 같습니다.”

하고 홍씨는 뜻 있게 웃었다.

순빈은 그래도 못 알아듣고,

“그와 같다니?”

하고 눈이 둥그렇다.

“양씨 속에 듂신 아기가 낄시면 마마 편이 되리까. 양씨 편이 되리까.”

“양씨 편이 되지.”

하고 그제야 홍씨의 말을 알아 들은 듯이 순빈은 입맛을 다시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홍씨는 그리 힘들이지 아니하고 비상(砒霜) 한 봉지를 구하였다.

이런 무서운 약을 구하기는 심히 어려운 것 같지마는 궁중에서 살아가는 여자로는 다 길 이 있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기어서 내 몸이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언제 내 원수 될 사 람을 죽여야 될지도 모르고 또 시녀의 몸이 되어서는 언제 자기가 직접 모시는 상전을 위하 여 남을 죽일 준비를 할지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세력 있는 어른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궁 녀일수록에 그러한 것이다.

위로서 미운 사람을 죽으려면 미친 개 잡듯이 철여의(鐵如意) 하나로 후려갈겨서 거적에 싸서 내어던지면 그만이지마는 아무 세력도 없고 미천한 목숨 하나만 가진 나인 따위로서 힘있는 사람을 죽으려면 방자질을 하거나 음식에 독약을 치거나 하는 길 밖에 없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장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 을 하여 먹고 산다. 중, 무당, 태주, 도사(道士), 의원, 방물 장사 이런 등속들.

홍씨도 이런 무리에게 많은 재물과 혹은 몸까지도 내어 주어서(이것이 여자로는 가장 유 력한 수단이다) 이 비상한 봉지를 구한 것이다. 비록 이것으로 목적을 달한다 하더라도 그 는 두고두고이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입을 틀어막을 뇌물을 끊임없이 대어주거나 이로 그것 을당해 낼 수가 없으면 이 비밀을 가진 자까지 없애버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러한일과 이러한 약은 더욱더욱 횡행하게 되는 것이다.

홍씨는 그 비상 한 봉지를 품에 품고 수척 양씨에게 먹일 기회를 엿보았다.

순빈은 그래도 사람을 죽인다면 벌벌 떨고 겁을 내어서 아무리 양씨가 밋더라도 목숨은 죽이지 말고 세자를 호리지만 못하게 하기를 원하였다. 홍씨는 속으로 픽 웃으면서도 네, 네 하였다.

“이애. 그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순빈이 물을 때에 홍씨는,

“이것을 먹으면 낮바닥과 은 몸뚱이가 푸르둥둥해진다고 합니다.”

“살빛이?”

“네.”

“그러면 미워지겠지?”

“낮바닥이 죽은 년의 낮바닥같이 되면 그년을 누가 거들떠 보거나 하겠습니까.”

순빈은 끄덕끄덕하시었다.

만일 모든 모험을 무릅쓰고 양씨 죽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 그러한 기회를 얻기는 그다지 어렵지 아니할 것이지마는 저는 살고 양씨만 죽이자니 기회를 타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다. 나 한 몸 잘 되어 보자고 하는 일이니 선불리 하여 발각이 되어 내 몸 하나만 없어지면 아무리 양씨 죽이는 일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싱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므로 홍씨는 고양이 것을 훔치려는 쥐와 같이 조심조심하여 물 부어 썰틈 없이 일을 하기로 매를 썼다.

홍씨는 양씨가 거처하는 여경당(餘慶堂)에를 하루에 한 번씩 갔다. 겉으로는 동궁빈마마의 뜻을 받아 양씨의 문안을 왔다는 것이 핑계이지마는 기실은 양씨 먹는 음식에 독약을 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저것이 왜 요새는 날마다 와?”

“무슨 낌새를 보러 온 게지. 그 여우 같은 것이.”

이렇게 여경당 시녀들이 홍씨를 보고는 눈을 흘기었다.

여경당 뒤 뒷마루에는 날마다 시녀 하나가 양씨 먹을 보약을 달이느라고 지키어 앉았다. 중전마마의 특별한 분부라 하여 약 맡은 시녀는 잠시도 탕관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홍씨가 유심하게 엿본 것은 이 약탕관이다.

열 사람이 지키어도 한 도둑을 못 당한다고 마침내 홍씨는 엿보던 틈을 얻었다.

하루는 홍씨가 여경당에를 가서 양씨에게 문안을 하고 물러 나와 뒷 뒷마루에 혼자 앉아서 약을 달이는 중전 시녀와 무심한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이야기는 요사이 어디서나 그러한 모양으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모두어 일년이 못하여 상침(尙寢)을 봉함이 된 양씨(장차 혜빈이 될)의 이야기와 한 번 궁에서 나날 때마다 한 번씩 오입을 하여, 장안에 예쁜장한 계집을 둔 사나이가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수양 대군의 이야기였다.

한참 이야기에 꽃이 피다가 약 달이던 나인이,

“약 넘지 않나 잠깐만 보아 주오.”

하고 뒷간으로 가버리었다. 여러 날 동안에 홍씨에게 대하여 여편네들 사이에 흔히 보는 알은 정이 든 것이다. 홍씨는,

“응, 얼른 오우. 내가 은지가 너무 오랫동안 간 곧 가야 하겠어. 또 제조(提調尙宮=여러 나인을 감독하는 나인)이 짹짹거리게.”

하고 홍씨는 가장 바쁜 태도를 보이었다.

홍씨는 빠른 눈으로 사방을 둘러 보았다.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홍씨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큰일을 저지른다는 생각이 천 근이나 무거운 들 모양으로 전신을 내리 눌렀으나 오랫동안 별러 오던 뜻을 갑자기 변할 힘은 없어서 그의 손은 운명적으로 허리춤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서 초록 명주 형겔에 싸인 봉지가 나와서 노르끄무레한 가루를 김이 나는 약탕관 속에 뿌리었다. 그 모든 행동이 실로 번갯불 같았다. 홍씨는 초록 형겔을 마루 구멍에 집어 넣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시치미 떼고 앉아서 약탕관에 김이 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이 가슴이 설레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약 달이던 나인이 뛰어 와서,

“에그, 오래 지체해서 미안하우. 약이 끓어 넘지는 안했수?”

하고 약탕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더니 안심한 듯이 제 자리에 앉았다.

홍씨는 후끈거리는 자기의 낮빛이 혹시나 이상해 보일까 보아,

“그럼, 난 가우.”

하고 한 번 웃어 보이고 일어섰다. 다리가 마음대로 놓이지를 아니하고 힘없이 떨리었다.

자선당(資善堂)에 다다르매 홍씨는 마음이 턱 놓이었다. 아무러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안심이 되던 옛 습관이 있는 까닭이다.

홍씨는 눈으로 ‘되었다’는 뜻을 순빈께 고하였다. 순빈의 낯빛은 갑자기 변하였다. 겁이 나신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었지른 물이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인제는 다만 던지어진 옷가락이 도가 되어 떨어지나 모가 되어 떨어지나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모질어지고진정이 되었다.

순빈은 두통이 난다는 핑계로 근시하는 나인들을 다 물리고 혼자 자리에 드러누웠다. 무슨 큰 변이 생기고 하고 순빈은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다 었들었다. 모든 발자취 소리와 말소리가 다 자기의 죄를 나토는 것만 같아서 아직도 삼월 선선한 때언마는 전신에 땀이 짝 흘렀다.

홍씨도 다른 나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건마는 그 태연한 듯한 것이 도리어 태연치 못하고조그마한 소리에도 가슴을 두근거리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는 기둥 뒤벽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는 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었다.

“아, 쉽지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한탄하였다. 일각일각마다 십년 살 목숨은 줄어드는 듯하였다.

그러나 순빈과 나인 홍씨가 오래 마음을 줄일 사이도 없이 중전께서 수칙 양씨에게 내리신 보양에 독약이 들어간 것은 곧 발각이 되었다.

양씨가 약 그릇을 당기어 마시려다가 문득 너무 뜨겁지나 아니한가 하는 생각이 나서 왼손 무명지로 약을 저어 보았다. 그러한 때에 양씨의 운수가 좋아서 그 손가락에 끼었던 은가락지에 약이 묻었다. 묻자마자 은가락지는 연빛으로 변하여버렸다.

“에그머니!”

하고 양씨는 약 그릇에 떨어뜨리었다.

“누가 내 약에 독을 쳤네.”

하고 양씨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소리를 질렀다.

결에 섰던 약 달이던 나인은 입을 버리고 사지를 떨었다. 다른 나인들도 놀래어 약 그릇 가까이로 모여 들었다. 양씨 앞에는 까만 약이 흥건히 고이어 있고 약 그릇에도 었지르고 남은 약이 말없이 번적거렸다.

“누가 나 먹는 약에다가 독을 쳤어?”

하고 양씨는 약 달이던 중전 나인을 흘겨 보았다. 다른 나인들의 눈도 그 나인한테로 모이였다.

“나는 애매하오.”

하고 중전 나인은 겨우 떨리는 입을 벌리었다. 그러나 이약에 만일 독이 든 것이 사실이라 하면 도저히 자기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줄을 깨닫고 얼른 양씨가 었지르고 남은 약을 들어 마시었다.

그러나 약을 먹어버지 아니하더라도 은가락지가 까맣게 죽는다 하면 독이 든 것은 분명하다 하여 곧 동궁마마께 이 연유를 아뢰었다.

동궁은 그때에 집현전(集賢殿)에서 여러 학자들과 글 토론을 하시다가 이 놀라운 기별을 들으시고 곧 여경당(餘慶堂) 양씨의 처소로 오시었다.

동궁은 양씨와 나인들에게서 전후 시말을 들으시고 었지른 약과 죽은 은가락지를 낱낱이 보시웁고 남은 약을 먹었다는 중전 나인을 부르시었다.



중전 나인은 이때에 벌써 복통이 난다고 괴로워하고 입술이 파랗게 되었었다.

인자하신 동궁도 이 일에는 대단히 진노하시와 높은 어성으로,

“이봐라, 인명이 지중하거든 네 무슨 연유로 약에 독을 넣었어?”

하고 중전 나인을 노려보시었다.

중전나인은 마루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소리로,

“동궁마마 살피시오. 소인이 수칙 양씨와 아무 은원이 없살거든 약에 독을 칠 리가 있사 오리카. 과연 애매하옵니다.”

하고 하소하였다.

이 일이 인명에 관계 있는 중대한 일일뿐더러 독약을 친 혐의를 받은 나인이 모후(母后) 궁에 속하였은즉 동궁이 자의로 처결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일이 동궁에서 생긴 것은 동궁의 덕이 부족하여 부모 두 분 마마께 걱정을 끼침이니 불효 막심하다 하여 우선 대전 내전에 사람을 보내어 사연을 아뢰고 뒤따라 동궁이 몸소 양전에 입시하여 석고대죄(席藁待罪)하기로 하시었다.

이렇게 되니 동궁이 크게 소동하여 다만 서로 마주 볼 뿐이요, 감히 입을 열어 말하는 이가 없었다. 이런 때에 입 한 번 잘못 놀리었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게 목이 날아가는 줄을 궁중에 살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까닭이다.

과조(罷朝) 후에 상감께서는 내전(內殿)에 들시와 중전으로 더불어 독약 사건에 대하여 이윽히 말씀이 계신 뒤에 곧 약 달이던 나인을 잡아 들이어 내전에서 친국(親鞫)하시기로 하였다.

약 달이던 나인은 독약을 먹었으나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 죽지는 아니하고 일지만 못하고 있었다. 누운 대로 널쭉이 담아다가 내전 뜰에 내려 놓았다.

양전께서는 대청 정면에 좌정하시웁고 곁에는 동궁이 읍하고 서 계시고 이십여 명 궁녀가 좌우로 웅위하고 계상에는 근시하는 내시들이 대령하고 계하에는 첩녀의 든판노 네 명이 호랑이라도 때려 잡을 듯이 버르고 갈라서 있고 뜰 한가운데 널쭉 위에는 얼추 다 죽은 나인이 엎드려 있다.

상감께서는 어성을 높이시와,

“듣거라. 네 무슨 연유로 태중에 있는 아기를 해하려고 약탕관에 독약을 넣었어?”

하시니 내전이 뜨르르 우는 듯하였다.

“상감마마, 소인(小人)이 하늘 같은 성은을 입사옵거든 무엇이 부족하여 태중에 계옵신 아기씨를 해할 생각을 하오리카. 천지신명이 내려다 보시거니와 소인은 진실로 애매하옵니다.”

목과 입이 부어 어음은 분명치 아니하나 독이 난 때라 말소리는 힘있게 들렸다.

“어쩐 말이나. 그러면 네가 치지 아니한 독이 어떻게 약에 들어간단 말이나. 바로 아뢰어라.”

하시니 계상에 선 내시들이,

“바로 아뢰어라.”

하고 소리를 길게 뽑는다.

“생각해보면 소인이 죽을 죄로 잠간 남더러 약을 보라 하옵고 자리를 떠난 일이 있사오나 그 밖에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남더러 보라 하였다니, 남이란 누구냐?”

“자선당 나인이요.”

이 말에 중전은 무릎을 치시었다. 생각하던 바와 같다는 뜻이다.

곧 내시와 관노가 자선당으로 달려가서 발이 땅에 붙지 않게 홍씨를 끌어다가 약 달이던 나인 곁에 옆드리게 하였다.

홍씨는 얼굴이 약간 상기는 하였으나 태연하였다.

상감께서는 홍씨의 아름다운 자색을 이윽히 바라보시더니,

“네가 약 달이는 것을 맡아 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었다.

“네.”

하고 홍씨의 대답은 싸늘하였다.

“그 약에다 독약을 친 일이 있느냐?”

“과연 소인이 그 약에다 비상을 탔습니다.”

양전께서는와 세자궁께서와 좌우가 다 놀라고 약 달이던 나인도 놀라서 고개를 들어 홍씨를 바라보았다. 독약을 친 것이 놀라운 것보다 췌노라고 실토하는 것이 놀랍던 것이다.

한참 동안은 서로바라보고 몸들도 꼼짝 아니하였다.

“네 무슨 연유로 약에다가 비상을 타서 인명을 해하려하였어.”

하고 왕은 얼마 뒤에야 물으시었다.

“소인이 죽사온들 하늘 같으옵신 상감마마를 어찌 그이오리까. 이실직고(以實直告)하오리다. 소인이 궁중에 들어와 동궁마마를 모시온지 십년이 되옵거니와 천한 몸이 분수를 아지 못하옵고 매양 동궁마마께옵서 돌아보시와 거두어 주시옵기를 고대하오나 동궁마마는 성인이라 일체 여색에 뜻을 두시지 아니하시오니 소인은 금생에 이루지 못할 소원을 품고 지내옵더니 천만 뜻밖에 수척 양씨가 밖으로서 들어와 동궁마마의 고이심을 받는 것을 보오니 미련한 계집의 맘이라 새우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사옵고 또 근래에 동궁마마께옵서 양씨만 귀애하시옵고 빈마마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와 빈마마께옵서 주야에 눈물로 지내시오니 이것이 다 양씨의 소위로 생각하옵고 차라리 양씨를 죽여 빈마마와 소인의 분한 마음을 풀까 하와 이런 일을 저질러 상감마마 성려(聖慮)를 끼치식 하였사오니 소인의 죄는 만사 무석(無赦)입니다.”

하는 홍씨의 어성은 아름답고도 분명하고 조금 떨리는 빛도 없었다. 그러나 말이 끝나고는 참았던 울음이 터지는 듯이 등을 들먹거리 울었다.

이 말에 상감은 중전을 보시고 웃으시며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세자궁께서도 고개를 드시와 홍씨를 바라보시고는 더욱 고개를 숙이시었다.

이리하여 독약 사건은 판명이 되었다.

그러나 중전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이 이것이 순빈이 시킨 것이라는 판명이 되기까지 알고야 말려 하였다. 예전 휘빈(徽嬪) 김씨는 너무 아름답고 영리한 것이 미웠지마는 이번 순빈(純嬪) 봉씨는 너무 못나고 어리석은 것이 미웠다. 게다가 팔년이 넘도록 잉태를 못하니 중전의 눈에 날대로 났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폐하여버릴 생각이 드신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였다. 중전은 순빈이 정직하고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불러 물어보기만 하면 곧 실토하리라고 생각하여 독약 변이 있는지 며칠 후에 순빈을 내전으로 불렀다.

순빈은 두 마디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실토를 하였다. 그러나 양씨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미워지고 남자를 혹하게 하는 재주만 없어지게 하려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

이 사실이지마는 세상에 그 말을 믿어 줄 사람이 없었다. 홍씨는 벌써 때려 죽여버렸으니 순빈의 말을 증거하여 줄 이는 이 세상에 없다.

순빈은 당연히 ‘실덕(失德)’이란 죄명으로 폐함이 되었다.

“무자(無子)함도 칠거지악(七去之惡)에 들거든 질투하고 살인하고…….”

이것은 중전의 순빈을 면책하신 말씀이다.

순빈은 울면서 모든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궁중에서 쫓겨 나간 때에는 체면불고하고 ‘아이고 아이고’ 목을 놓아 울었다. 한 번 더 동궁마마의 낯을 뵈게 해달라고 애걸하듯이 간청하였으나 이미 죄를 짓고 폐하여진 세자빈의 말을 들어 주는 이는 없었다.

이렇게 순빈 봉씨도 폐함을 당하였다. 세자궁은 이 일을 펴 슬프게 생각하였다. 그렇게 일심으로 자기를 따르던 순빈이 울고 나가는 것이 불쌍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하시는 일은 자식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다만 얼마 동안 순빈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이 날 뿐이었다.

그 후 두 달이 못하여 양원권씨(良媛權氏)를 세자빈으로 봉하니 이가 나중 경혜공주(敬惠公主)와 단종 대왕 두 분을 낳으시고 후에 현덕왕후(顯德王后)라고 추숭(追崇)을 받은 양반 이시다.

현덕빈(顯德嬪) 권씨는 한성부판윤 권 전(漢城府判尹權專)의 따님으로 열 세 살에 나인으로 도도옥〇에 뽑히어 들어와서 양반집 따님인 까닭으로 곧 승휘(承徽)로 봉함이 되고 얼마 아니하여 양원(良媛)이 되고 처음 들어온지 칠년만에 열 아홉 살에 봉씨가 폐한 뒤를 이어 세자빈이 되시고 되시자 마자 잉태하시어 경혜 공주를 낳으시고 스물 네 살 되는 해에 단종 대왕 되실 왕손을 낳으시고 그 이튿날 승하(昇遐)하신 것이다.

동궁빈으로 계신지 만 오년에 그 사나우신 심 중전계도 아무 탈을 잡히지 아니하시고 유덕하시다는 칭찬속에 지내시었다.

현덕빈 권씨가 돌아가신 뒤에 세자궁의 아까와하시고 슬퍼하심은 밖에까지 들리었다. 세자께서는 다시 여자를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경혜 공주와 왕세손(王世孫)두 분 아기를 어루만지시며 일생을 지내시었다.

수척 양씨도 순빈이 폐함을 당하던 때에 따님 경숙옹주(敬肅翁主)를 낳고는 이내 동궁을 모시어 보지 못하고 말았다.

세자는 개인으로 이만큼 행복되지 못한 어른이시었다. 남달리 감정이 예민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 많으신, 세자는 가만히 일생을 회고하면 비감이 항상 많았었다. 왕위에 오르신 후 이개년 남짓한 동안에도 심에 팔구는 병환으로 계시고 웬 일인지 민간에도 기근(饑饉)과 여역(癘疫)이 땅아 국사에도 근심되는 일만 많았다. 세자궁으로 수년간 대리(代理)하시는 동안이나 왕으로 이개년 계시는 동안이나 이러한 모든 불행을 다 당신의 ] 허물로 여기시어 슬퍼하시었다.

문종 대왕께서 부왕이신 세종 대왕의 대상(大祥)을 지내 탄상하신 임신(壬申) 이월 그믐께 왕의 병환은 심상치 아니하시었다. 정월 이래로 오후가 되면 한열이 왕래 하고 구미가 없어지고 밤에도 잠이 잘 드시지 아니하시와 신고하시던 것을 그 추운 날에 대상을 치르고 나시어 부터는 열기도 더 오르고 구미도 더욱 없어지게 되어 사오일래에 눈에 띄게 용안(龍顏)에 초췌하신 빛이 보였다.

그러나 부왕도 승하하시고 모후 되시는 심 중전은 부왕보다도 이년 전에 돌아 가시고 세자빈도 아니 계시고 경혜 공주도 작년에 하가(下嫁)하시니 나인과 내시 밖에는 가까이 왕의 기거 범절을 돌아보아 드릴 이가 없었다. 오직 혜빈 양씨가 뒤에서 나인을 시키어 간접으로

왕의 잡수시고 입으시는 것을 돌아보아 드리었을 뿐이다.

혜빈 양씨는 현덕 왕후 권씨(동궁빈으로 돌아가신)의 유족(遺屬)을 받은 이래로 어린 왕세손(王世孫=아기가 아홉 살 되시던 때에 세종 대왕께서 왕세손을 봉하시었다)을 친 기출이나 다름없이 젖을 드리고 양육하였다. 젖도 왕세손을 드리고 남는 것이 있어야 기출인 영풍군을 먹이었다. 어느 친어머님들 이에서 더 하랴 하고 그렇게 혜빈을 미워하시던 심 중전조차 승하하실 때에 특히 혜빈을 부르시와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었고 세종 대왕께서 승하하실 때에는 세자궁과 다른 여러 아드님들이 모시어 앉은 곳에서 혜빈을 앞에 부르시와,

“혜빈이 비록 친한 집에 성장하였으나 내가 사랑하던 배요, 십년 동안 왕세손을 양육하였고 또 부덕(婦德)이 있으니 왕후의 예로써 공경하여라.”

하시는데 어명(御命)까지 계시었다.

이러하므로 원래 효성이 지극하신 문종 대왕께서는 그 때부터 혜빈을 공경함이 모후를 대함과 같으시었고 혜빈도 미령하신 왕과 어리신 세자를 위하여서는 목숨을 아니 아끼기를 스스로 맹세한 것이다. 경혜 공주 하가시에도 혜빈의 어머니의 할 일을 다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왕의 환후(患候)가 더욱 침중하여 갈수록 혜빈의 근심함은 여간이 아니었으나 친근히 모실 도리가 없어 오직 심복되는 궁녀를 시켜 범절을 보살피게 하니 매양 마음 에 차지 아니하여 애를 썼다.

그렇지마는 왕은 당신의 병환을 염려하시지는 아니하는 듯하였다. 이번 병환이 심상치 아니한 줄을 모르심이 아니지마는 왕은 죽고 사는 것은 도시 천명이라 하여 사는 것을 욕심 내지도 아니하시는 동시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에 초탈하신 왕이시라도 외아드님 되시는 어린 세자궁을 위하여서는 마음을 아파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다. 더구나 당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아니함을 깨달을 때에 그러하였다. 열 두 살 되시는 어린 세자가 세상 모르고 내시들과 나인들을 따라 뛰노로 장난하는 양을 보실 때에는 장차 국왕이라는 높고 위대한 자리에 앉아 수 없는 시기와 음모의 표적이 될 것이 무한히 가엾으시었다. 귀신 아닌 바에 앞날에 일어날 모든 슬픈 일을 미리 내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은 그 아기의 전도가 험한 것만 같아서 마치 풍랑 많은 바다에 일엽주를 태워 내어보내는 것만 같았다.

며칠 밤 뜬눈으로 밝히신 끝에 이월 그믐께 어느 날 잔치를 베풀시고 집현전 여러 신하를 내전으로 부르시었다.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최항(崔恒) 이하 이십명 집현전 학사와 왕이 세자궁으로 계신 동안 날마다 번갈아 시강(侍講)하던 좌필선 정인지(左弼善鄭麟趾)우문학 최만리(右文學崔萬理)가 자리에 모시었다. 이때에 정인지는 우참찬(右參贊)이요, 최만리는 부제학(副提學)으로 다 높은 벼슬에 있었다.

와는 병환 중 초췌하시었으나 평소에 친구같이 사랑하고 믿으시는 집현전 제신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담론함을 보시고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는 듯하시었다.

그러나 일래로 병색이 더욱 중저하시던 용안을 우러러볼때에 뜻 있는 몇 신하는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하여 이 잔치가 곧 파하기를 바랐다.

이 자리에 모인 이십명 집현전 제학사(集賢殿諸學士)는 세종 대왕이 필생의 정성을 다하여 기르신 국가의 보배다. 비록 아직 사십이 못된 젊은 사람들이지마는 세종께서는 그들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시려다가도 집현전 학사가 ‘못하십니다’ 하고 간하면 아니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시니 이것은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어진 선비의 말을

쫓게 하는 본을 보이려 하심이다.

한 번은 이러한 일까지 있었다.

세종께서 불도(佛道)를 존중하시와 대내(大內)에 내불당(內佛堂)이란 것을 두고 때로 중을 부르시와 법문도 들으시고 몸소 불전에 예배도 하시었다.

집현전 학사들은 대내에 불당응근 둠이 태조 대왕의 유교입국(儒敎立國)의 뜻에 어그러진다는 이유로 내불당을 폐하고 궁중에 일체 승니(僧尼)를 들이지지 맙소서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대대로 불도를 존중하던 것이 골수에 젖어 차마 내불당을 폐하실 뜻이 없으실뿐더러 왕후 심씨가 더욱 들지 아니하시므로 세종께서는 이때 처음 집현전 제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었다.

이리하기를 세 번이나 한 뒤에 집현전 학사들은 일제히 물러나가 사흘 동안 다시 입시하지 아니하였다.

“상감께옵서 신등의 간함을 아니 쓰실진대 신등이 무엇하러 국록을 먹사오리이까. 상감께서 버리시오니 신등은 물러가나이다.”

함이었다.

이때에 세종 대왕은 수상황희(首相黃喜)를 돌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가는가.”

하고 우시었다.

이러한 집현전이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보다도 높아서 삼사(三司)의 수위(首位)에 처하였고 직접 왕의 뜻을 좌우하는 데는 정부(政府)와 정원(政院)보다도 유력한 것이니 이렇게 되도록 세종 대왕께서 만드신 것이다.

문종 대왕도 삼십년 세자로 계시어 부왕의 뜻을 뜻으로 하시게 되어 집현전 제신을 가장 존중하시와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집현전에 하사(下賜)하시고 만사에 반드시 집현전에 하문(下問)하시었다. 집현전 학사를 부르실 때에는 친구의 예로 자(字)를 부르시는 일조차 있었고 세자로 계실 때에는 때로 밤에 집현전에 미행하시와,

“근보(謹甫).”

하고 부르시어 입직하는 학사를 놀라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 근보는 성 삼문의 자이다.

그래서 입직하는 학사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서 관복(冠服)을 끄르지 못하고 입은 채로 누워 잘 지경이었다.

이러한 집현전이다.

이 집현전은 다만 정치(政治)와 도덕(道德)으로만 가장 높은 데가 아니라 모든 학문---천문학(天文學), 기상학(氣象學), 역사학(歷史學), 지리학(地理學), 문학(文學), 예술(藝術), 철학(哲學), 의학(醫學), 본초학(本草學), 농학(農學), 역학(譯學=語學)에도 최고학부(最高學部)였었다.

조선이 보배요, 자랑이 되는 훈민정음(訓民正音)도 집현전 학사들의 손으로 된 것이다 그 중에도 신 숙주, 성삼문이 자초지종으로 전력하여 세종 대왕이 승하하시기 사년 전에 발표하신 것이다.

문종 대왕은 집현전의 어느 학사보다도 학식이 많으시었다. 경사(經史)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문서화(時文書畵)에 능하시어 그림의 매화와 글씨의 초서는 당대에 으뜸이었고 학술 중에는 천문학을 가장 잘하시와 우레와 소나기가 올 방향과 시간을 예언하시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집현전 제신들은 문종 대왕께 대하여는 다만 군신지의(君臣之毅)가 있을 뿐 아니라 모두 수십년간 거의 매일 대한 벗이요, 동창이었다. 것처럼 사사 정분도 두터웠던 것

이다.

이날의 잔치는 극히 검소하였으나 좋은 벋 좋은 술, 좋은 풍악으로 십분 즐거웠다.

밖에는 봄눈이 펄펄 날리고 바람조차 불었으나 내건 대청인 사찬장(賜餐場)에는 사방에 숯불을 피워 훈훈한 것이 꽃 피는 봄날과 같았다.

정면에 옥좌(玉座)가 있고 옥좌 좌우에 늙은 상궁 한쌍, 젊은 궁녀 한쌍이 모시어 서고 그 좌우로는 반쯤 핀 매화 두 분이 담한 향기를 토하고 있다.

매화 분야에서 시작하여 옥좌의 왼편 줄에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정 인지가 앉고 오른 줄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수석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제학(大提學) 신석조(辛碩祖)와 최 만리가 앉고 그리고는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신숙주(申叔舟), 원호(元昊), 권절(權節), 성삼문(成三問), 최항(崔恒), 유성원(柳誠源), 이개(李塏)가 늘어 앉았다.

신석조, 정인지, 최만리 세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중로여니와 기타는 대개 사십 이하의 장년이였다.

비복 병중에 계시더라도 여러 신하들을 부르실 때에 왕의 위의를 갖추시기를 소홀히 아니 하시어 익선관(翼善冠)을 쓰시고 곤룡포(滾龍袍)를 입으시였다. 초췌는 하시었을망정 원래 좋으신 풍신이시라 위풍이 늠름하시고 그러면서도 웃으실 때와 말씀하실 때에는 춘풍 같은 화기를 발하시였다.

순배와 달론이 끝날 바를 몰라 벌써 날이 저물어 내시들이 분주히, 그러나 발작 소리 하나 없이 안팎에 등축을 밝히어 낮과 같이 휘황하게 되매 임금이나 신하나 흥은 밤으로 더불어 깊어 가는 듯하였다.

장식(掌食) 나인은 말없이 음식을 나르고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주변치(奏變徵), 주치(奏徵),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의 노래말은 일곱 쌍 궁녀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만세락(萬歲樂), 가빈곡(嘉賓曲)같은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고 악기 맡은 내시들은 금석관현(金石管絃)의 여러 가지 풍악을 아뢰었다.

술이 취하고 풍악이 울리더라도 과도히 질탕함이 없음이 군자의 잔치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때에 왕의 가슴 속에 있는 무거운 근심을 알아 보는 이는 없었다. 어린 세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근심---이 근심을 말씀하시려고 이 잔치를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저 즐거워하는 이가 많았다.

왕의 부르심을 받아 세자궁에서는 복건, 청포의 평복으로 두 협시(夾侍)의 부액을 받아 대청으로 들어오시와 부왕의 옥좌 곁에 읊하고 서신다. 열 두 살로는 키가 크신 편이나 몸은 호리호리하게 가느다랐다. 남아답다기보다는 아름다우신 편이였다.

일동은 일제히 일어나 국궁하여 세자를 지영하였고 왕께서도 웃음을 머금으시고 고개를 돌리시어 세자를 바라보시였다.

왕은 어탁(御榻)에서 내리시와 평좌(平坐)하시와 세자를 부르시와 앞에 앉히시고 세자의 등을 만지시며 눈을 드시와 수양 대군과 정 인지에서부터 성 삼문, 신 숙주, 박 팽년, 최 항, 하위지, 유 성원, 이 개 등을 차례로 보시와 최 만리, 신 석조와 안평 대군까지 둘 살피신 뒤에 약간 떨리는 듯한 음성으로,

“경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오.”

하시였다.

이때에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은 일제히 엎드리어 그 넓은 방안에는 먼지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는 듯 고요하고 오직 촛불만 춤을 추어 분벽에 그림자를 흔

들었다.

왕의 이 말씀에 여러 신하들은 취하였던 술이 일시에 깨는 듯하였다.

왕은 다시 말씀을 이으시와,

“내 병이 심상치 아니한 줄을 알매 오늘 경들에게 이 부탁을 한다.”

하시었다.

비장(悲壯)이라고 할 만한 엄숙한, 무거운 기운이 온 방안을 내려눌러서 사람들은 숙인 고개를 치어들 힘이 없었다. 모두 돌로 깎아 놓은 사람같이 고요하고 오직 왕의 초췌한 해쓷은 모양만이 움직이는 듯하였다. 어리신 세자궁조차 약간 고개를 숙인 대로 꼼짝하지 아니 하시었다. 궁녀들의 얼굴에는 벌써 눈물이 흐르는 이 조차 있었다. 이 인자하시고도 병약하신 임금은 궁녀들의 애뜻하게 사모하는 정을 함몰에 모으시었다. 문종 대왕이 등극하신 이래로 일찍 어느 궁녀 하나를 죽이기는커녕 때리신 일도 없으시었다. 왕은 오직 관대하시어 모든 것을 용서하시었고 더구나 불쌍한 궁녀와 내시들을 어여뵈 여기시와 그 잘한 것은 칭찬하시되 잘못된 것은 못본 채하시었다.

세종 대왕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시었다. 그 어른은 엄하심이 있어서 궁녀나 내시나 잘못된 것이 눈에 띄이면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었다. 그러므로 세종 대왕은 무서웠다. 그러나 문종 대왕은 무서운 어른은 아니시었다. 이것이 왕의 지극히 인자하신 특장도 되지마는 동시에 제왕으로는 흠점일는지도 모른다. 수양 대군의 말을 빌면 왕은 무능하시었다. 왕이 너무 위엄을 아니 부리시기 때문에 기강(紀綱)이 해이(解弛)해지는 것이다. 왕이 벽력과 같은 위엄을 부리시어 신하들이 벌벌 떨어야 나라 일이 되어 간다는 것이 수양 대군의 의견이다.

“이놈의 말에도 귀를 기웃, 저놈의 말에도 귀를 기웃, 이러니까 조정의 위엄이 없어지고 신하들이 기를 펴는 것입니다.”

하고 수양 대군은 왕께 아뢰인 일까지 있었다.

그때에는 왕은,

“경의 말이 옳다.”

하고 칭찬까지 하신일이 있었다.

오늘같이 주둥이만 꺾고 아무 힘 없는 선비(이것이 집현전 제신에게 대한 수양 대군의 의견이다)들을 모아가지고 과공이라 할만치 정중한 대우를 하는 것도 긴치 아니한 일이라고 수양 대군은 내심에 불평하였다. 진실로 궁녀로 하여금 술을 치고 가무를 하게 함은 종친(宗親)을 모은 연락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만일 이 무리들응르 시킬 것이 있거든,

“이리이리하여라, 하면 상을 주마 아니하면 죽이리라.”

한 마디면 족할 것이지 이렇게 융숭하게 저 못난 무리들을 대접할 것은 없는 것이다. 만일 어린 세자를 부탁하겠거든 수양 대군 자기에게만 부탁하면 그만인 아닌가--- 이렇게 수양 대군은 생각하고 형님 되시는 왕의 하시는 일이 모두 부질없이만 보인다.

수양 대군이 이 잔치에 불평을 품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이러하다---

형님 되시는 왕과 아우님 되는 안평 대군은 다 어느 학자에게지지 않는 문장과 학식이 있기 때문에 모인 신하들과 말이 어울리지만 유독 수양 대군은 율(律) 한 수 지을 줄 모르고 저 무리가 편 듯이 떠드는 한(漢), 당(唐), 송(宋)의 곱광내 나는 옛 이야기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들고 있자면 골치만 아파질 뿐이다. 그런 고린 소리는 목은 책 좀먹는 집현전 구석에서나 할 것이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궁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수양 대군은 본다.

“이러고 나라 일이 어찌 되나.”

하고 수양 대군은 문종 즉위 이래로 형님이신 왕의 하시는 일이 매양 불만하였다. 왕이 상제 노릇하시느라고 세월의 대부분을 허비하시는 것도 못마땅하였다. 왕이란 그런 헛된 일에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효자가 반드시 좋은 왕이 아니다---이것이 형님을 빈정대는 수양 대군의 생각이다.

“거상은 일년이면 족하다.”

이렇게 수양 대군이 주장하는 것도 형님께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형님 되시는 왕의 문약(文弱)을 불만히 여기는 수양 대군은 자연히 문학과 풍류를 좋아하는 아우님 안평 대군이 미웠다. 더구나 안평대군이 근래에 와서 명망이 크게 떨치어 그 외한강(漢江)정자인 담담정(淡淡亭)과 자하문(紫霞門)밖 무이정사(武夷精舍)에는 날마다 천하의 문장재사(文章才士)와 풍류호걸(風流豪傑)들이 모여들어 질탕히 놀므로 세상에서 안평대군 있는 줄은 알고 수양대군 있는 줄은 모르는 것이 분하였고, 더구나 형제분이 혹시 서로 대할 때면 안평이 형님 되시는 수양을 가볍게 보는 빛이 있을 때에 분하였다.

한 번은 무슨 말 끝에 안평이,

“형님이 무얼 아신다고 그러시오? 형님은 산에 가서 토끼나 잡으시오.”

하고 수양 대군이 활 쏘는 것 밖에 능이 없는 것을 빈정거릴 때에 수양은 분노하여,

“요 주둥이만 깐 것이.”

하고 벽에 걸린 활을 벗겨 든 일까지 있었다. 그후부터 수양은 안평을 만나려고 아니하다가 왕께서(세자로 계실때에)들으시고 두 아우님을 부르시어 화의를 붙이시었다. 그렇지마는 패기 만만하여 안하에 무인한 두 분이 진심으로 화합할 리는 없었다.

이 연락의 자리에서도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은 가끔 험뽀험뽀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불꽃이 이는 듯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그 눈치를 알기 때문에 이상한 흥미를 가지고 가끔 두 대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왕이 옥좌에서 내려 앉으시고 세자의 등을 만지시며 슬픈 부탁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철석 같은 수양 대군이라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일동이 엮드렸던 고개를 들기를 기다려서 왕은 한층 더 힘있는 어성으로 세자를 바라보시고,

“너는 평생에 여기 모인 여러 현인(賢人)들을 고�굉(股肱)과 감이 믿고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라. 이 사람들은 다 나의 옛 친구들이니 네게는 부집(父執)이니라. 군신지분(君臣之分)이 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수양, 안평 등 여러 숙부가 있고 이 모든 현신(賢臣)이 있으니, 비록 네가 어리더라도 염려 없을 것이다. 부디 오늘 일과 내가 한 말을 잊지 말아라.”

하고 다시 한 번 세자의 등을 만지시고 낙루하심을 금치 못하신다.

세자는 일어나 부왕의 앞에 절하고 엎드려 낭랑한 목소리로,

“아바마마, 소신이 비록 어리고 몽매하오나 하교를 지어버리지 아니하오리이다. 아바마마, 천추 만세 후에라도 수양,안평 숙부를 주공(周公)과 같이 믿삽고 집현전 모든 부집을 스승으로 공경하려 하옵니다.”

하시었다.

어린 세자의 이 말쑥은 모인 사람들이 폐부를 찌는 듯 하였다. 성 삼문 같은 이는 느낌을 겨우 억제하였고 수양 대군도 자기에게 세자를 부탁만 하면 주공이 되어 보리라 하였다.

세자가 영민하시다 함은 전부터 소문이 있는 바이어니와 오늘에 비로소 모든 사람이 목전



에 그 총명하심을 뵈옵고 감격하였다. 젊은 학사들은 ‘마정방중(磨頂方踵)을 하더라도 세자를 도와 요순 같으신 성군이 되시게 하리라.’

하고 속으로 맹세하였다.

왕은 눈물을 거두시고 잔을 올리라 하시와 친히 잔을 들어,

“오늘 내가 경들과 큰 언약을 하였으니 손수 사례의 술을 권하리라. 인생이 덧없으니, 뉘라 목숨의 조석을 알리오. 이렇게 군신이 모여 즐거움도 늘 있지 못할 성사라, 경들은 내가 권하는 술을 받아 온 밤이 맞도록 취하여 즐기지 아니하려는가.”

하고 손에 드신 잔을 먼저 수양 대군에게 주시었다.

수양 대군은 황감하여 끓어서 어전에 나아가 두 손으로 어사하시는 잔을 받자왔다. 이 모양으로 잔을 받을 때마다 장진주(將進酒) 노래가 울어났다.

술은 취하고 밤은 깊어 간다. 촛농은 흘러내리고 불꽃은 튀었다. 비단 장을 두른 대궐 안에도 찬바람이 휘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린다. 대궐 지붕과 마당에 눈이 한 뼘이나 쌓였다.

사람들의 취한 눈은 촛불 빛에 빛났다.

왕은 아무리 흥이 깊으시더라도 늙은 신하의 사정을 잊으실 리가 없다.

“학역재(學易齋), 나가오.”

하시었다. 학역재는 정 인지의 호다. 정 인지는 왕이 세자궁으로 계실 때에 좌필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스승 대접을 하여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학역재라는 호로써 하였다. 스승을 존경하시는 뜻이다.

정 인지는 이때에 벼슬이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이요, 나이 쉰 일곱이었다. 몸은 작으나 기품이 좋아서 백발은 있어도 아랫 수염이 조금 있는 얼굴에는 아직 주름이 없고 목소리가 짹짹하여 섯소리와 같았다.

위인이 하덕이 빠르고 코가 날카롭고 얼른 보기에 작고 간사한 듯하지만은 성품은 자못 호매(豪邁)하고 자부심이 많았다. 그는 일찍 술이 취하여 말하기를 자기가 만일 공자의 제자가 되었으면 안자(顔子), 증자(曾子)는 바라지 못하여도 자유(子游), 자하(子夏)만큼은 되었으리라고 장담하였다. 좀 경망스러운 흠이 있지만은 모략과 수완이 있어서 세종 대왕의 칭찬을 받았고 특별히 교제를 잘하므로 명 나라 사신이 올 때며 매양 관반(館伴)이 되었다. 그때에는 소위 천사(天使)의 접반은 어려운 일 중에도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명 나라 사신 예겸(倪謙)이가 왔을 때에도 그 관반이 되어 조금도 꾸밈없이 직분을 다하여 예겸으로 하여금 탄복케 하였으니 그의 득의를 짐작한 것이다.

그의 재주는 무서웠다. 열 아홉 살에 태종(太宗) 갑오(甲午) 문과(文科)에 장원(壯元)이 되고 서른 세 살에 중시(重試)에 또 장원이 되어 재명이 일세에 진동하였다. 글을 알기로나 짓기로나 당대 일류였으나 실제 정치에 더욱 흥미가 있었다. 그러나 세종 대왕에게 인지는 재승(才勝)하다는 비평을 받은 것처럼 그는 덕이 재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흔히 들었다.

어찌하였으나 문종 대왕이 왕자(王者)의 학을 배운 것은 정 인지에게서다. 그러므로 왕이 정 인지를 공경하시고 소중히 여기심이 진실로 극진하시었다.

인지의 늙음을 생각하시와 먼저 물러나가라는 하교를 내리심은 진실로 황송한 일이어서 모두 정 인지를 위하여 영광으로 알았다.

정 인지는 황송하신 왕명을 받자와 탐전에 엎드리어 이마를 조아리고 다시 세자궁 앞에 국궁으로 하직하는 예를 행하였다.

왕은 기립하여 정 인지의 부복례(俯伏禮)를 받으시고 세자는 정 인지의 국궁함을 읍함으

로써 대답하시며,

“선생(先生), 추우시겠소.”

하시었다. 부왕이 정 인지를 공경하는 뜻을 본받은 것이어니와 또한 세자(世子)빈객(賓客)에 대한 예도 되는 것이다.

정 인지가 왕과 세자의 융숭한 대우를 황송히 생각하면서 최 만리와 함께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정 인지가 물러난 뒤에도 수 없이 순배가 돌아 밤이 자정이 넘을 때쯤하여서는 하나씩 둘씩 칠팔인이나 상감 앞에 쓰러지었다. 겨우 쓰러지지나 아니한 사람들도 눈이 내려 감기고 혀가 얼어 이야기한다는 것이 팔과 고개만 내어 젖고 속으로는 어전인 줄 알면서도 입이 말을 아니들어 허허하고 너털웃음을 막지 못하는 이조차 있었다.

신하들이 술이 대취하여 몸을 거누지 못하여 모으로 쓰러질 때마다 왕은 궁녀를 시키어 벨 것과 덮을 것을 주라 하시었다.

몇 번 눈을 떠서는 어전인 줄 알고 황송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몸을 들먹거리다는 그만 아주 코를 골아버리는 이도 있었다.

제일 먼저 코를 곤 이는 최항(崔恒)이었다. 통통하고 키가 조그마하고 수염이 한 개도 없는 최승지(崔承旨)는 술도 사람 갑절 먹고 떠들기도 사람 갑절 떠들었으나 그 대신 맨 먼저 코를 골아버렸다.

왕은 최 항이 코 고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며,

“저 사람은 본래 잠으로 유명하거든.”

하시고 목침을 주라 하시었다.

최 항이 잠으로 유명하다는 왕의 말씀에는 이유가 있다.

선조(先祖) 세종 대왕께서 장차 과거를 보이며 하시던 어떤 날 꿈에 성균관(成均館) 서정(西亭) 잣나무 밑에 용 한 마리가 서리어 있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시어 곧 무감(武監)을 보내시어 보고 오라 하시었다. 무감이 달려가 본즉, 어떤 통통하고 작달만한 작자가 보따리를 베고 누워 자는데 한 다리를 잣나무에 뻗고 자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왕께 고하였더니 이튿날 과거에 장원한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인데 이것이 최 항이라서 유명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성균관 잣나무까지 이름이 나서 장원 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종께서 특히 최항을 사랑하시어 과거한지 몇 해가 아니하여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을 하시고 십 사년만에 정묘년 중시(重試)에 입격하매 부제학(副提學)을 삼으시어 강설(講說), 사명(詞命), 편찬(編纂), 제술(製述)을 다 주관하게 하시었고 그 중에도 명 나라에 보내는 소위 사대표전(事大表箋)은 도맡아하였다.

문종 대왕도 부왕의 사랑하시던 신하라 하여 최 항을 사랑하시와 즉위하시는 머리에 우승지(右丞旨)를 삼으시었다.

이러한 옛일을 생각하시고 ‘잠으로 유명하다’ 하신 것이다.

제신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웃었다.

평시 같으면 남보다 삼갑절 먹고 삼갑절 떠들 성 삼문이 오늘은 매우 조심하는지 꼬박꼬박하면서도 좀체로 쓰러지지 아니하였다. 눈초리가 쑥 올라간 큼직한 눈은 보기만 해도 쾌활하였다. 더구나 왕이 주시는 술을 사양할 수 없어 받아 먹고도 아니 취하려고 애를 써서 줄음이 매어달리는 커단 눈을 더욱이 크게 뜨고 두리번거리는 양은 우스울 만하였다.

결에 앉은 신 숙주는 가느단 눈으로 성 삼문을 결눈질해 보고 웃었다. 집현전 여러 학사들 중에 성 삼문과 가장 절친하기는 신 숙주였다. 성 삼문과 신 숙주와는 서로 같은 점보다

도 서로 다른 점이 더욱 많았다. 삼문은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숙주는 그와 반대로 키도 작고 눈도 작았다. 삼문은 눈초리가 봉의 눈인데 숙주는 팔자눈인 것같이 반대요, 성질로 보더라도 삼문은 서글서글하나 아무렇게나 하는 점이 있으되 숙주는 집으로 서글서글한 체하면서도 속은 매우 간간하여 이해 타산을 분명히 하였다. 삼문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일을 도모하기에는 도저히 숙주와 겨룰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삼문은 무엇에나 일에는 항상 수주역 졌다. 삼문은 속에 무엇을 하루를 숨겨 두지 못하는 성미나 숙주는 필요로만 생각하면 일생이라도 마음에 감출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삼문의 속은 숙주가 뻔히 들여다보지마는 숙주의 속을 삼문은 삼문지 일도 알지 못하였다.

“요 눈 조꼬맹이가 또 무슨 꾀를 부려.”

하고 삼문은 숙주를 노려보았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더할 수 없이 친하였다.

신 숙주, 성 삼문이 다 취하여 쓰러지되 아직도 까딱없기는 점잖기로 유명한 박 팽년과 가냘프기로 유명한 이개(李塏)다. 그렇게 근엄(謹嚴)한 하위지(河緯地)도 쓰러지고 말았건마는 핏기 한 땀도 없고 불면 넘어갈 듯한 이 개가 버티고 있는 것을 왕은 이상하게 보시고 웃으시며,

“조상의 힘으로군.”

하시었다. 이는 이 개가 이목은(李牧隱)의 증손인 것을 말씀하심이다.

마침내 이들조차 쓰러지고 말았다. 오직 왕이 홀로 깨어 취한 눈으로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시었다.

왕은 내시(內侍)를 시키어 이 사람들을 문쪽에 담아 입직청(入直廳)으로 옮겨다 누이라 하시고 침전 이불을 내어 주라 하시고 그도 부족하여 왕의 잘두루마기까지 내어 손수 덮어주시었다.

신 숙주가 잠을 깬 것은 벌써 해가 높은 때였다. 이상한 향기가 들리기로 돌아본즉 몸에 덮은 것은 상감의 잘 두루마기였다.

숙주는 벌떡 일어나 꿇어 앉아서 잘두루마기를 두 손으로 받들고 감격한 눈물을 흘리었다.

“이 임금 위하여 몸을 아니 바치면 어디다 바치리.”

하였다. 그리고 어젯밤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융숭하게 대접한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에 더욱 감격함이 깊었다.

결에 자던 성 삼문도 그 커단 눈을 뻔히 떠서 숙주의 하는 양을 보았다. 살펴 본즉 자기가 덮은 것도 왕의 갓옷이었다. 숙주보다도 감격성이 더 많은 삼문은 그 갓옷을 안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범옹(泛翁)이, 이런 일도 있는가.”

하고 삼문은 어찌할 줄 모르는 동생이 철난 형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숙주를 바라보았다. 범옹은 숙주의 자다.

삼문의 이 말에 숙주는 잠깐 고개를 들어 삼문을 바라보았다. 삼문의 얼굴에 눈물이 종횡하였다.

그러고는 말이 없이 맥맥히 마주보고만 있었다.

이것은 신 숙주, 성 삼문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니다.

정인지, 최항 같은 이도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지었다. 그 증거로는 이 일이 있는지 며칠이 아니하여 정 인지가 그의 심복되는 승지 최항을 통하여 왕께 수양 대군이 녹록한 사람이 아

니요, 근래에 사람 사귀는 모양이 수상하니 지금에 수양을 제어하는 것이 후환이 없으리란 뜻을 아뢰인 것이다.

무론 왕이 이 말을 들으실 리는 만무하다. 비록 수양 대군이 딴 뜻을 품은 줄을 정확히 알았다 하더라도 왕의 맘으로는 굴욕을 헤할 수가 없으려니와 형제간에 우애지정이 지극하신 왕으로는 도저히 수양 대군이 딴 뜻을 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상감께 사죄었나?”

“네, 그 이튿날.”

“상감께서 무에라 하시던가.”

“빙그레 웃으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상감께서 너무 마음이 약하시니까 웬 걸 들으실라고.”

이러한 담화가 며칠 뒤에 정 인지 최항 사이에 교환 되었다. 그 끝에 정 인지는 무엇을 목전에 보는 것이,

“허, 허.”

하고 한탄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웃음을 웃고는 최항더러,

“발설 말게.”

하고 당부하였다. 그 뒤부터는 정 인지는 다시는 수양 대군에 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정 인지는 이런 말을 낸 것을 깊이 후회하였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왕의 병환은 더욱 친중하시와 오월 이십 사일에 마침내 어리신 동궁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승하하시었다.

왕이 승하하시기 전날 마침내 회춘 못하실 줄 아시고 영의정 황보인(領議政皇甫仁), 우의정 김 종서(右議政金宗瑞), 좌찬성 정 분(左贊成鄭笨), 우찬성 이양(右贊成李穰), 이조 판서 이 사철(吏曹判書李思哲), 호조 판서 윤형(戶曹判書尹洞) 예조 판서 이 승손(禮曹判書李承孫)병조 판서 민 신(兵曹判書閔伸), 지신사 강 맹경(知申事姜孟卿), 집현전 제학 신 석조(集賢殿諸學辛碩祖)등을 부르시와 세자를 (輔佐)하기를 (顧命)하시었다.

왕은 경복궁(景福宮) 천추전(千秋殿)동녘 방 (지금으로 이르면 동은돌)에 누우시고 방 안에는 세자와 공주와 혜빈 양씨와 지밀나인(至密內人) 두엇이 모시고 대청에는 승정원(承政院)이 주야로 입직하고 정부와 육조(六曹)의 대관들도 때때로 입시하였다.

고명이 계신 날에 신 숙주, 성 삼문은 승지(承旨)로 입직하여 있었다.

왕은 겨우 손을 드시어 수상(首相)을 부르시와 황보인이 병석 앞에 엎드린 때에 세자의 등을 만지시면서,

“부탁하오.”

한 마디를 하시고는 기운이 없으시어 다시 말씀이 없으시었다.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듯이 입을 움직이시는 모양이나 어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왕의 입술과 눈은 움직이시어도 말씀이 없으시고 세자의 등을 만지시던 손이 두어 번 세자의 등을 가볍게 만지시고는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황보 인(皇甫仁)은 떨리는 늙은 음성으로,

“상감, 염려 부리시겨오. 소신등이 충성을 다하여 세자궁을 보좌하오리이다.”

하였다. 이 말이 들리신 모양인지 왕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시는 듯하여 그 기신 용수(龍鬚)가 가슴 위에서 흔들리었다.

김 종서, 이 양, 민 신 같은 노신들은 왕이 빼만 남고 핏기 없으신 얼굴을 우러러뵈옵고 그 곁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느껴우는 세자궁을 뵈옵고 울음을 머금고 눈물을 떨어뜨렸

다.

도승지 강 맹경, 입직 승지 신 숙주, 성 삼문은 곧 어전에 필목을 들어 이 날에 고명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정원일기(政院日記)에 기록하였다.

고명하심이 끝난 뒤에 얼마 아니하여 수양 대군과 각 대군이 입시하였다. 왕이 부르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던 아우님들을 한 번 보시려 함이다. 세자는 수양 대군이 들어옴을 보시고 일어나 수양의 소매를 잡으며,

“숙부, 어찌하오?”

하고 우시었다.

대군들이 왕의 곁에 꿇어 앉아 왕이 정신 드시기를 기다린지 이윽하여 왕은 한 번 눈을 뜨시었다. 오랜 병환에 기운은 더할 수 없이 쇠약하시었으나 정신은 끝까지 분명하시었다.

두 번째 눈을 뜨시었을 때에 왕은 적이 기운을 회복하시는 모양으로 방 안에 둘러 앉은 대군들을 돌아 보시었다. 돌아 보시던 눈이 양녕 대군에 미칠 때에 왕은 고개를 드시려는 뜻을 보이시었다. 상시에 양녕 대군이 들어오면 왕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시던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개가 움직여지지 아니한 때에 왕은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한숨을 쉬시었다.

육십이 가까운 양녕 대군(讓寧大君)은 귀 밑과 수염이 눈같이 희었다. 양녕 대군은 태종 대왕의 맏아드님이요, 세종 대왕의 형님이요 문종 대왕의 백부요 따라서 종친 중에는 가장 항렬이 높은 어른이다. 태종 대왕께서 위(位)를 셋째 아드님이신 충녕 대군(忠寧大君)에 전하실 뜻이 있으심을 보고 당시 세자로 있던 양녕 대군은 거짓술 미치광이가 되어 일생을 술에 취하지 아니하면 산수갈에 방랑하기에 보낸 양반이다. 그래서 충녕 대군이 태종 대왕의 뒤를 이어 세종 대왕이 되시고 당연히 왕이 될 양녕 대군은 지금은 한 늙은 선비로 행세를 할 뿐이다.

양녕 대군이 왕위를 피한 것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는 조부 되시는 태조 대왕과 아버지 되시는 태종 대왕과의 부자분이 보기 싫게 싸우는 것과 정종 대왕(定宗大王)과 태종 대왕 간의 왕위의 이동과 방간(芳幹)의 변과 이러한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사변을 목도하였다. 이것은 모두 왕위를위한 다툼이니 자기가 왕이 되어도 반드시 패기만만한 셋째 아우님 충녕 대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을 알았고 또 한 번 세사를 달관할진대 그까진 왕위란 그리 탐낼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좋은 산수를 찾아 경개 보기로 낙을 삼고 달 아래 꽃 아래 술이 취하여 미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인생의 낙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테면 태조 대왕의 정치의 야심과 천재를 받은 이가 세종 대왕이시오, 그 어른의 염세적(厭世的), 초세간적(超世間的)인 방면을 이은 이가 양녕 대군이라 할 것이다.

양녕 대군은 뒤편에 새뿔을 놓고 글을 배우다가도 새가 걸리는 것을 보고 새뿔으로 뛰어갔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양녕 대군이 장차 폐함이 되려 할 때에 그 바로 아우님 되는 효녕 대군(孝寧大君)이 아마 자기가 세자가 되는 줄 아로 갑자기 암전하게 되어서 글 공부하는 것을 보고 발로 그 등을 차며 ‘충녕이 성덕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웃었고 효녕은 그제야 깨닫고 책을 집어 던지고 문밖 절로 뛰어나가 복을 치고 염불을 하여 하루 새에 북가죽이 노닥노닥 떨어지었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이이기 때문에 평소에 궁중에 출입함이 없었으나 문종 대왕의 임중에 소명(召命)을 받아 들어와 천명이 장차 전하려는 왕과 그 곁에 울고 계신 세자를 대할 때에는 그의 흉중에 태조 대왕 이래의 모든 광경이 구름 일 듯 일어나와 실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다. 양녕 대군의 늙은 눈에 맺힌 한 방울 눈물 --- 그 속에 끝 없는 감회가 들어 있

었다. 강성한 대군을, 어린 임금---이렇게 생각할 때에 양녕 대군의 경험 많고 지혜 많은 생각에는 수 없는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역력히 떠올랐다.

양녕 대군은 고개를 들어 세자궁을 뵈옵고 다시 수양(首陽), 안평(安平), 광평(廣平), 금성(錦城), 평원(平原), 영웅(永膺)등 여섯 대군을 차례로 둘러 보았다.

양녕 대군이 여러 대군을 돌아보매 여러 대군은 다 근심된 얼굴로 잠간 눈을 들어 왕과 세자를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어 왕의 입이 열리어 무슨 말씀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지낸 양녕 대군의 눈은 이 여섯 대군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였다. (임영 대군은 이때에 벌써 작고하였다).

‘일은 이 속에서 나는구나.’

하고 양녕은 생각한다.

‘다만 이 중○ 어느 사람이 일의 장본인이 될지가 문제다.’

세상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을 말한다. 안평이 남호(南湖) 담담정(淡淡亭)과 자하문 밖 무이정사(武夷精舍)에 수 없는 문객을 모은다 하여 혹 판 뜻이나 품은 것이 아닌가고 어떤 사람은 의심한다. 안평을 해치는 이러한 소리는 근래에 수양 대군 궁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더욱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의 장본인은 아마도 수양 대군의 심복인 권람(權攄)이다. 비록 안평 대군에게 호의를 가진 이라도 왕자의 처지로서 문하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도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비난은 한다. 그렇지마는 양녕 대군은 안평의 뜻을 잘 안다.

“안평은 흥한 생각을 할 사람은 아니야.”

하고 지혜로운 양녕의 눈이 보는 것이다. 그 까닭은 안평 안평 대군이 반드시 대의를 중히 여기어서 그런다는 것보다도 양녕 대군 자기 모양으로 귀찮은 권세의 자리를 즐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양녕이 보기에 안평은 왕이 되라고 하면 달아날 사람이었다.

제일 마음 놓이지 아니하는 이가 수양대군(首陽大君)이다.

‘암만해도 가만히 있지 아니할 걸.’

하고 양녕 대군은 수양 대군의 어리었을 때 일을 생각한다. 원천석(元天錫)이 ‘이 아이 모습이 내조(乃祖)와 흡사하오’ 하던 말도 생각한다. 내조라는 태종 대왕은 곧 양녕 대군 자신의 아버지시어니와 태종 대왕과 같다고 한 말에는 형을 극하고 아버지를 극한 것도 포함된 것이다. 문종 대왕이 오래 사시였더라면 수양은 형을 극하였을는지 모르고 세종 대왕이 오래 사시였더라면 아버지까지라도 극하였을는지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세종도 돌아가시고 형님이신 문종도 돌아가시었으니 수양이 아비와 형을 극하였단 말은 들을 기회가 없이 되었지마는 앞에 당할 것이 어린 조카 ---열 두 살 되시는 세자---장차는 어린 임금을 순순히 섬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양녕 대군은 머리를 흔들고 속으로,

‘아니! 안될 말!’

하고 수양 대군의 붉은 광채 나는 살기등등한 눈을 한 번 더 아니 볼 수 없었다.

‘만일에 수양이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하면 또 늙은 몸이 서울을 떠나서 종적을 감추어버리는 것이 상책이겠군.’

양녕 대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신세를 웃는다. 세종 대왕께서 양녕 대군을 형님으로 극진히 대접하였건마는 그래도 양녕 대군은 세종 대왕 생전에는 아무쪼록 도성에 들기를 피하다가 세종 대왕 승하 후에는 마음 놓고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마는 궁중에 다시 무슨 변이 생긴다 하면 종실의 어른으로 간참 아니할 수 없고, 한다 하면 모두 뒤숭숭하고 위대한 일 뿐이다. ---이렇게 양녕 대군은 벌써부터 보신책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수양을 당해낼고?’

대군의 생각과 눈은 다시 육 대군 위로 돌아간다.

임영(臨瀛)이 덕이 있었으나 불행 조사하고, 광평(廣平)은 나이 지긋하였으나 수야, 안평에 비길 수가 없는 인물들이요, 평원(平原), 영웅(永膺)은 아직도 이십세 내외의 약관이니 장차 날개가 돋고 톱이 나면 몰라도 아직은 수양에 비기면 수리와 병아리 격이다. 그러면 안평이나. 안평은 명망으로나 실력으로나 적어도 수양을 누를만하지만은 그러할 뜻이 없으니 반드시 수양의 손에 없어질 것이요, 오직 하나 금성대군(錦城大君)이 아직 삼십 미만이로되 기개로나 식견으로나 수양 대군의 적수가 되려면 되겠지마는 그는 아직 나이 젊고 명망과 우익이 부족하다.

양녕 대군은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육 대군 외에도 장남한 군(君)이 여러분 되지마는 별로 뛰어나게 잘난 이도 업섯거니와 설사 잘난 이가 있다 하더라도 톱날 같은 대군들이 살아 있는 동안 군으로는 궁중에서 성명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면 종실 중에는 수양의 적수가 없다. 수양이 하려고만 들면 무슨 일이나될 형편이다.

그러면 신하 중에는 어떠한가.

양녕 대군은 신하들을 생각해 본다.

황희(黃喜)거 팔십세만 되었으면야 아무도 감히 조정을 배반하여 고개를 둔 생념을 못할 것이지마는 나이 구십이니 아무리 황 희인들 무엇하랴. 게다가 근래에는 병으로 눕고 귀가 절벽이 되어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겨우 의사를 통하는 형편이다.

다음에는 영의정(領議政) 황보인(皇甫仁)이어나와 나이 칠십이 넘어 늙기도 하였거니와 본래 세종 대왕 같은 명군(明君) 밑에서 임금이 시키는 대로 예 예 하거나 할 호인들이지 수완이 있거나 아귀통이 센 인물은 아니다. 난 대로 있는 황보 정승이란 별명은 못난이란 뜻이다. 은후 겸양의 덕은 있다 하더라도 난생 다스릴 힘은 바랄 수가 없다.

좌의정(左議政) 남지(南智)는 식견이 있으나 몸을 아끼어 국가사보다도 일신 일가의 안전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어려운 일에 믿을 수는 없다. 벌써 무슨 기미를 보았는지 남지는 병탈하고 집에 누워 있다. 그러나 그 병이란 게 얼마나한 병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안평 대군이 혼사 청하는 것을 거절하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 안평 대군이 강청하므로 부득이 그 아들 우직(友直)을 사위를 삼았다가 나중 우직이 그 아버지와 함께 죽임이 되는 통에 시호(諡號) 하나를 믿지었으나 몸은 온전함을 얻었다.

“예의 알뜰게 약은 것!”

하고 양녕 대군은 가만히 남 지를 향하여 혀를 채었다.

삼공(三公) 중에 가장 믿을 만하기는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라고 양녕은 생각하였다. 그 아래 위 뚝 자르고 가운데 토막만 남겨 놓은 듯한 조그맣고 몽록한 몸---그것은 도시 충분(忠憤)덩어리요, 달 덩어리다. 동그란 눈을 홉뜨고 소리를 지를 때에는 그 소리가 벽력 같다고 한다. ‘호랑이’ 라는 그의 별명은 어느 점으로 보거나 합당하였다. 두만강(豆萬江)가의 표한한 야인(野人)들의 무리도 이 호랑이의 벽력 같은 소리에 벌벌 떨고 달아난 것이다.

‘장차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믿을 사람은 절재(節齋) 하나야.’

하고 양녕은 생각한다. 절재는 김 종서의 당호다.

그 밖에는 늙은이는 기력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력을 따라 사제사초(事齊事楚)를 예사로 할 무리들이다. 따는 그렇기도 할 게다. 제 아버지, 한 아버지도 왕씨(王氏)의 녹을 대대로

먹다가 일시에 이씨(李氏)의 녹을 바라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변통 잘하는 정신은 처세(處世)의 비결로 자여손에게 전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녕 대군은 ‘응’ 하고 구린 것을 입에 넣었던 것같이 입맛을 다시었다.

이때에 왕은 다시 눈을 뜨시어 여러 대군들을 돌아보시었다. 돌로 깎아 놓은 듯이 가만히 있던 대군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모양으로 몸을 움직이었다.

수양 대군이 특별히 왕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있다. 만일 세자의 제숙부(諸叔父) 중에서 특별히 섭정(攝政)의 고명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수양 대군을 두고는 다시 없을 것을 아는 까닭이다. 안평 대군이 비록 명성이 있다 하나 항렬로나 정치적 수완으로나 도저히 자기를 당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할뿐더러 왕은 어려서 모양으로 자기를 신임할 것을 믿었다. 요전 집현전에서 자기에게 특별한 고명이 계실 것을 고대하다가 실망하였거니와 이번 임종의 소명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으리라고 믿은 것이다.

이것은 수양대군뿐 아니라 다른 대군들도 혹시나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어젯밤 권람(權攄)이가,

“나으리, 장차 크게 운수가 트이시오.”

하고 수양 대군을 보고 유심히 웃을 때에,

“그 무슨 말이고?”

하고 수양이 시치미를 떼었으나 속으로는 은근히 큰일을 기약하였던 것이다. 세자가 성년이 되시기까지 섭정의 고명을 받거나 그렇지 않는 못하더라도 세자를 보도(補導)하는 무슨 직함은 반드시 내리리라고 생각하여 그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낙랑부(樂浪府) 대부인(大夫人=수양 대군의 부인) 윤씨도 반드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었다. 권세에 대한 야심으로 부인이 도리어 수양 대군보다 성하였다.

‘주공(周公)과 성왕(成王)’

이것이 수양 대군이 그윽히 혼자 생각하고 자부하는 바였다. 군국대사(軍國大事)를 한 손에 쥐고 천하에 호령하는 것---이것이 수양 대군이 몽매에 잊지 못하는 야심이다. 그 야심은 바로 목전에 달하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왕은 느껴 우시는 세자의 등을 또 한 번 만지시고 들릴락 말락한 어음으로,

“이 아이를 경들에게 부탁한다.”

하고 세장게,

“제숙부(諸叔父) 있으니 무슨 염려 있느냐.”

하시고는 이내 수양 대군에게는 아무 특별한 고명도 없으시고 말았다.

이것이 왕의 마지막 말씀이시었다. 그 뒤에 몇 번 눈을 뜨시었으나 말씀은 못하시고 운명하시었다.

이날에 수양 대군의 실망이 어떻게 컸던 것은 궁에 돌아오는 길로 사모를 벗어 동태이를 치어서 모각이 부러진 것을 보아 알 것이다. 부인 윤씨도 낮빛이 변하였다.

더구나 대군들이 입시하기 전에 벌써 영의정 황보 인이하에게 보좌의 고명이 계시었음을 들은 때에 수양은시안을 치며 통분히 여기었다.

큰 기회는 가버리었다. 지금껏 마음에 그리었던 공중 누각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수양 대군 궁 사랑에서 대군이 궁중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권람(權攄)이가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에 잠을 깨어 머리맡에 놓인 냉수 그릇을 잡아당기어 벌떡 벌떡 들이켜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었다. 안으로 대군의 성난 소리가 들리었다.

“틀린 게로군.”



하고 권 람은 혼자 픽 웃었다. 그렇게 자존심 많고 성미 급한 수양 대군이 궁중에서 실망하고 분통이 터지는 양이 눈에 보이는 듯하였다. 그것이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가 나설 날이 왔다. 만일 쉽사리 권세가 수양 대군의 손에 돌아 올진댄 자기는 수양 대군에게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자기는 수양 대군에 가장 긴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권람은 혼자 기뻐하였다.

안으로서는 수양 대군이 또 한 번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린다. 아마 꽃은 어떤 궁인이 애매한 분풀이를 당하는 모양이다. 권람은 또 한 번 픽 웃고 일어나서 마른 손으로 얼굴과 목덜미를 세수하듯이 두루 비비고 망건과 갓을 바로 잡고 툇마루에 나가 앉아서 난간에 기대어 마당으로 가래침을 뚝 뺄고는 소매로 입을 씻었다. 그러고는 원장치고 앉아서 두 손으로 두 발을 만지며 몸을 흔들었다.

나이는 삼십 사오세 밖에 아니 되었으나 십 칠팔세부터 부족증이 있어서 몸에는 살이 없고 얼굴은 움에서 나온 듯이 희었다. 오직 영채 있는 두 눈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는 듯하였다. 모시 두루마기는 까마해 때가 묻고 버선 끝은 더구나 고린내가 날 듯하였다. 궁한 샌님인 것은 얼른 보아도 알았다.

그는 유명한 권근(權近)의 손자요, 권제(權制)의 아들이다. 권근은 고려조(高麗朝)의 명대부(名大夫)로서 계룡산(鷄龍山)에서 태조 대왕께 올린 송덕표 한 장으로 태조의 충신이 된 사람이다.

“공은 고려 말의 명대부라. 만일 당시에 유방(流放)으로 만족하였던들 그 문장명론(文章名論)이 어찌 목은(牧隱)같은 이들만 못하였으리요마는(계룡산에서 한 송덕표가 문득) 그를 개국충신(開國寵臣)을 만들었으니 슬프도다. 이미 항복한 뒤에도 벼슬이 삼사(三司)에 차지 못하고 나이는 육십을 넘기지 못하였으니 그 얻은 바도 적도다. 오직 그 자손이 서로 이어 벼슬이 끊이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성한 고로 사람이 다 양촌 양촌(陽村)하거니와, (권 근이)덕행이 있는 듯이 말하는 이가 있거니와, 심하다, 그 도명(盜名)함이여!”

이렇게 상촌(象村)은 말하였다.

권 근이 태조 대왕에게 절개를 변하기까지는 전국 선비들이 글을 종(宗)으로 삼아 명성이 삼은(三隱)에 내리지 아니하였다. 태조가 개국하신 뒤에도 야은(冶隱) 길재(吉再)와 목은(牧隱) 이색(李穡)같은 이와 다름없이 그의 시골인 충주(忠州)에 숨어 있어 고려를 위하여 절을 지키었다. 태조는 사림(士林)의 뜻을 거두는 것이 민심을 거두는데 심히 요긴함을 알므로 여말의 여러 문신들을 비사 후패로, 혹은 군신(君臣)의 예로 아니하고 빈례(賓禮)로까지 하여 청하였으나 목은, 야은 같은 이들은 준결하게 거절하여버리었다. 그래서 태조, 태종 두 분 대왕께서는 마침내 그네의 절을 꺾지 못할 줄을 알고 가만히 여생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상책으로 알게 되었다.

권 근도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태조는 그의 문장과 지식과 명망을 알므로 아무리 하여서라도 그를 유혹할 결심을 하고 우선 근의 아버지 회(僖)를 달래어 그가 데리고 있던 손자 즉 근위 아들인 규를 태조 대왕의 손녀되는 태종 대왕의 따님(나중에 경안 공주(慶安公主)될 이)과 혼인을 하게 하고 다시 회를 달래어근을 서울로 불러 올리게 하였다. 이는 왕의 힘으로는 근을 움직일 수 없는 줄 태조 대왕이 생각한 때문이요, 또 행여 근에게 서울○ 올 평계를 얻게 하고자 함이다. 근은 부명을 어길 수 없다 하여 마침내 서울로 올라 오게 되니 이것이 벌써 궤절의 시초다. 연로 관원의 대우가 융숭하였다. 그래도 근은 차마 바로 서울로 들어 올 면목이 없어서 이리저리로 길을 돌아 간신히 수원(水原)까지 왔을 때에 회가 사람을 수원까지 보내어 성화같이 근을 재촉하고 근은 또 부명을 거스를 수 없다

하여 곧 서울을 향하여 한강(漢江)에 다다랐다. 아비 회는 한강까지 친히 마중 나와서 권근과 함께 밀실에서 종일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권근이 곧 서울로 들어가는 만에 대궐로 향하여 빈례(賓禮)로 태조께 뵈오니 이것은 무른 첫 번째이요, 둘째부터는 조그마한 벼슬아치로 칭신하고 부름을 꿇었다. 그리고는 태조대왕이 청하시는 대로 전국 명승지에 기(記)를 지어 올리고 고려 왕조의 역사를 편술한다는 핑계로 지제교(知製敎)라는 벼슬을 받았다.

이렇게 권근은 절을 혈었다. 이 일이 있은뒤로부터 사람은 다 권근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침을 뱉었다. 그의 친구인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은 그의 훼손을 평하는 시를 지었는데 후에 그 자손이 후환을 무서워 하여 불에 던진 것이 기구만 타버리고 나머지 세 짝만 남은 것이 이리하다고 한다.

이리하여 권근은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까지 되어 태조, 태종 두 분 대왕의 충실한 대서인(代書人)이 되었다.

그러한 권근의 손자요, 권제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권제도 세종의 사랑을 받아 일생 대제학(大提學)을 내어 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권근이나 권제나 다 벼슬은 좋아도 재산은 없었다. 재산이라고는 남산 밑 비서관(秘書監) 동편에 태조 대왕께서 권근에게 하사하신 집 하나가 덩그렇게 있을 뿐이다. 이 집은 찾아 오는 사람 없기로 유명한 집이다. 권근이 한 번 절개를 굽히어 전국 선비가 고개를 돌린 뒤로부터 권근을 이 집에 찾는 사람이 없었다. 충주(忠州) 모옥(茅屋)에는 문전여시(門前如市)하더니 장안갑제(長安甲第)에는 찾는 이가 없다고 세상은 권근을 비웃었다. 아무리 왕의 세력이 커도 인심은 어찌할 수 없었다.

장안에 벼슬하는 사람들 치고 누구는 고려 왕씨의 신하 아닌 이가 있으리요마는 다른 사람 훼손한 것은 그다지 심히 책망함이 없으면서 하필 권근을 책망함이 그리심한가. 그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세상에서 평소에 권근에게 바라던 바가 큰 것이다. 비록 대세가 다변한 뒤에 그가 득려궁로 천운을 만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권세와 유흥과 위협을 물리치고 하늘은 무너지지언정 끝끝내 고절(苦節)을 지키다가 죽기를 바랐던 것이다. 둘째는 그가 예사 정치가나 관료가 아니요, 천하에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가르치던 사람인 까닭이다. ‘머리 허연 양촌(陽村)이 의리를 말한다면’ 하고 운곡(耘谷)이 빈정댄 것이 이것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연유로 남산 밑 권근의 구택인 후조당(後凋堂)은 권근의 생전에도 친구 아니 찾기로 유명하였거니와 그 아들 권제도 대제학이라는 맑은 벼슬을 하기는 하나 집현전(集賢殿)에서는 잘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세상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교제하기를 꺼려 여전히 그 집은 찾는 사람 없는 일종의 흉가가 되었었고, 또 그 아들 권람(權攄)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권람으로 말하면 권근의 손자라, 권근 때부터 삼대나 지났으니 세상이 권근의 일을 잊을 만도 하건마는 그렇지를 아니하였다. 전하고자 하는 공명은 곧 잊혀지어 도 잊어 주었으면 하는 허물은 전하는 것이다. 권람도 재주 있고 글 잘하고 하건마는 선비를 틈에 끼어 지지를 아니하여 매우 고격하게 살았다.

그뿐더러 세종께서 병환이 계시어 정사를 친히 보시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는 권람을 권근의 손자라 하여 특별히 끌어 올릴 사람도 없고 또 웬 일인지 나이 삼십 오세나 되도록 과거에는 연하여 낙제를 하게 되어 권람의 신체는 더욱 궁하게 되었다. 그 친구 서거정(徐居正)이 일찍,

“옛날 맹교(孟郊)가 낙제를 하고서 출문즉유애(出門卽有碍)하니 수위천지관(誰謂天地寬)

고 하여 몸 둘 곳이 없는 듯이 슬퍼하더니 자네 지금 신세가 꼭 그러이그려.”  
한 적이 있었다.

그 말에 권 람은 웃으며,  
“팔잔걸 어찌하나.”

하고 태연하였다.

권 람은 결코 녹록한 장부가 아니라고 서 거정이 탄복 하였다고 한다.

권 람은 결코 녹록한 장부가 아니라고 서 거정이 탄복 하였다고 한다.

권 람은 별로 찾아 오는 사람도 없고 또 찾아 갈 곳도 없어서 자기 집인 후조당 벼랑 위에다가 조그맣게 초당한 채를 짓고 소한당(所閑堂)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혼자 글 읽기로 일을 삼았다.

이 소한당은 후일에 세조 대왕이 임행한 일까지 있는 곳이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수양 대군과 사귀게 되어 저주 수양 대군 궁에 출입하게 되었다. 피차에 뜻이 맞아 수양 대군은 때때로 궁노(宮奴)를 시키어 남산골 권 생원(權生員) 댁에 시량을 보내었다. 권 생원이라 함은 물론 권 람을 가리킨 것이다.

이번 문종 대왕 임종에 소명이 내렸을 때에도 수양 대군은 권 람에게 미리 말을 하였고 권 람도 그 하회를 기다리노라고 사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것이다.

이윽고 수양 대군이 장히 불쾌한 얼굴로 사랑으로 나왔다. 원체 기골이나 몸집이나 남보다 큰이지마는 무슨 일에 성이 나서 밖으로서 들어올 때에는 몸이 더 커지어 방에 그득 차는 듯하였다.

권 람은 일어서서 읊하여 대군을 맞이하며, ‘별써 대권에서 나오이었소? 상감 환후 어떠하오시니까?’

하고 슬쩍 눈치를 살피었다.

수양 대군은 상감 환후에 대해서는 대답도 없고,

“늙은 것들한테 보좌(輔佐)의 고명(顧命)을 내립시었다네.”

하고 아랫목에 앉는다.

“늙은 것들이라시니 누구를 말씀이오니까?”

“황보인(皇甫仁), 남지(南知), 김종서(金宗瑞)이런 것들이지 누구여?”

“황보 인은 영의정이요, 남지는 좌의정이요, 김 종서는 우의정이니 삼공(三公)이 보좌의 명을 받잡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오니까.”

하고 권람은 슬쩍 한 번 수양 대군의 비위를 건드리고 하회가 어찌되는가 하고 수양의 뒤를 뒤쫓는 눈자위를 본다.

수양은 벌떡일어설 듯이 몸짓을 하며,

“이 사람, 자네마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자네 마저 그 늙은 것들의 편당이란 말인가. 그따위 귀신 다된 것들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고 소리 소리 지르며 필필 뛴다.

권 람은 수양이 자기의 놓은 덫에 걸린 것을 보고 속으로 웃으며, 그러나 겉으로는 가장 엄숙하게 무릎을 다시 꿇며,

“아니요, 소인이 황보 인의 편당이 되는 것이 아니외다마는 달리는 그만한 중임을 맡을 사람이 없길래 그리된 것이란 말씀이요.”

하고 또 한 번 단단히 수양 대군의 간을 건드리었다.

수양 대군은 그제야 권람의 말 뜻을 알아 듣는 듯이,

“이 사람아, 글썽 상감께서 그리하시는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 꼭 누그러지며 권람을 바라본다.

“글썽외다. 나으리 모르시는 일을 소인이 어찌 아오리카마는 막비 천명이니 천명을 상감께선들 어찌하오리카. 모두 어수선한 일이요, 또 소인 같은 무리가 알 바는 아니나 나으리가 작히나 잘 알으시겠소. 이런 때에 여러 말하는 것이 다 긴하지 아니한 일이요. 또 소인이 소간사도 좀 있으니, 소인 물러가요.”

하고 권람이 벌떡 일어나서 읊하고 물러나가려 한다.

권람의 말이 황당해서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수양이 모를 리가 없다. ‘천명을 상감께선들 어찌하라’ 하는 말이 수상하였다. 또 겹으로 는 아무렇게 구는 듯한 권람의 일언 일동에는 다 무슨 의미가 있는 줄을 수양 대군은 미리부터 잘 알거니와 오늘은 특별히 권람의 말이 무슨 참언(讖言)같이 들리었다.

“이 사람 앓게.”

“아니요 일후 또 오지요.”

수양 대군의 만류도 묻지 아니하고 권람이 부득부득 신을 신는 것을 보고 성급한 수양 대군이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서 권람의 소매를 끌어 당기어서,

“정경(正卿)이, 오늘 내가 꼭 자네를 붙들어야만 할 일이 있네.”

한다. 정경(正卿)은 권람의 자다.

권람은 부득이한 듯이 수양 대군에게 끌리어 들어갔다.

수양 대군은 권람을 끌고 큰 사랑을지나 안 사랑 가장 조용한 방으로 들어 갔다. 권람은 수양이 끄는 대로 끌리어 들어갔다. 권람이 말없는 술책은 생각하던 바와 같이 효과를 생하여 수양 대군의 흉중에는 자못 알 수 없이 풍량이 일어난 모양이다. 무른 이 술책은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수양 대군은 술을 내오라 명하고는 좌우를 물리고 권람과 단 둘이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마주 볼 뿐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수양 대군은 권람이 먼저 입을 열기를 바랐으나 권람은 아주 무심한 듯이 벽에 걸린 서화와 활과 전통, 검(劍) 등 속을 이것 저것 돌아 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권람이가 진실로 무심할 리는 만무하다. 다만 수양 대군의 비위를 가장 힘있게 건드리어 성급한 그의 오장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장차 조선 팔도를 흔들려는 큰 뇌성 벽력과 폭풍 광량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붐는 것이다. 벽상에 걸린 활 시위가 스르릉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사람이 헛 들음인가.

“여보게, 자네가 내게 할 말이 있지 아니한가. 있거든 하게.”

하고 수양 대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는 수양 대군의 사색은 매우 은근하였다.

권람은 무엇을 주저하는 듯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모든 것은 나으리 마음에 있사외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그러하오이다. 잘하면 된다는 말씀이외다.”

“자네가 나를 도우려는가?”

수양 대군의 이 말에 권람은 대답이 없다.

수양 대군은 초조한 듯이 권람이 손을 잡아 당기며,

“자네 오늘 나허구 맹학하려나? 나는 오직 자네르 믿으니 자네가 나를 도우려는가?”

그래도 권 람은 대답이 없다.

수양 대군은 다른 손으로 권람의 다른 손을 마주 잡으며,

“왜 대답이 없는가? 내 인물이 부족하다는가, 또는 내 정성이 못미쳐 그러함인가.”

수양 대군의 사색은 더욱 간절하여졌다. 그제야 권 람이 수양 대군 앞에서 자리를 피하여 앉으며,

“나으리께서 것처럼 소인을 믿으신다면 인생(人生)이 감의기(感義氣)라니 소인이 견마지역(犬馬之役)을 다하오리이다.”

하였다. 권 람의 허락하는 대답을 듣고 수양 대군은 극히 만족하여 다시 한 번 권 람의 손을 힘있게 잡고는 이내 주안을 대하여 술을 마시었다. 큰일을 생각하면서도 만사를 잊은 듯이 술을 마시는데 수양 대군이나 권 람은 행내기 아닌 기상이 있다.

상감이지오, 수양 대군에게는 친 형님이 되시는 이의 목숨이 정각에 있는 이때에 술을 마시고 취흥이 도도하다 함은 심히 불충부제(不忠不悌)한 일이어니와 수양 대군이나 권 람은 그런 것을 고계하도록 양심이 예민한 살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이 다 달랐다. 수양 대군은 충효(忠孝)같은 것은 남이 내게 대하여 가지기를 바랄 것이 지마는 내가 남에게 대하여 가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권 람은 충효란 것은 할 형편이 되면 하여도 좋고 못할 형편이 되면 말아도 좋은 것같이 생각한다. 이를테면 충효란 술과 같은 것이다.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권람의 생각에는 남이 내게 불충 불효를 하더라도 ‘그러면 어떠냐’ 하고 치지도외하겠지마는 수양 대군은 그렇지 아니하여 자기의 불충 불효는 용서하더라도 남이 내게 대한 불충 불효는 추호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신다기로 가슴에 큰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속까지 취할 리는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 취한 눈을 무심히 굴리는 듯하면서도 피차에 서로 저편의 눈치를 엿보고 일시의 해학(諧謔)같이 나오는 말 한 마디에서도 피차의 속을 들여다 보려고 칼날 같은 마음이 저편의 가슴 깊은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다.

“무릇 큰일을 하는 법이 선살후생(先殺後生)이요, 먼저 살(殺)하는 후에 생하는 법이외다. 죽이는 일이 첫일 이외다.”

“꼭지를 먼저 따는 것이지요.”

“나으리께서 사냥을 아시니 만사가 사냥과 같습니다. 먼저 몸을 숨기어 가만히 엿본 뒤에 분명히 겨누어 번개같이 활을 당기는 것이요. 살이 맞은 뒤에는 크게 소리를 치는 것이요.”

이러한 말을 권 람이가 수양 대군에게 한 것도 무른 취답에 섞였었다. 이런 기회 저런 기회에 지나가는 소리를 한 마디씩 권람이가 던지면 수양 대군은 듣는 체 만체하는 동안에 다 귀담아 듣는 것이다.

위선 몇 사람을 죽일 것, 죽일 때에는 꼭지 되는 큰 사람부터 먼저할 것, 죽이되 가만히 죽이고는 질풍같이 몰아 들어 갈 것---이런 뜻을 수양 대군은 권람이가 지나가는 말로 던지는 말 속에서 다 알아 들었다. 그뿐 아니라 그 먼저 죽여야 할 꼭지가 김종서(金宗瑞)인 것까지 이 자리에서 모르는 결에 말이 다 되었다. 수양 대군은 처음에는 황보인(皇甫仁)을 죽일 사람이 꼭지로 알았었다. 황보 이이 영의정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권람은 ‘양호유환(養虎遺患)’이란 말을 슬쩍 한 마디 던지었다. 김종서의 별명이 ‘호랑이’이다. 이만하면 수양 대군은 김 종서가 죽일 사람의 꼭지란 뜻을 알아 들었

다. 실상 무섭기는 김종서 하나다.

점점 이야기가 노골하게 되어 서로 꺼림이 없이 된다.

“이 일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어야 하오. 첫째는 모략(謀略)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용력(勇力)있는 사람이니, 이 두 가지 사람은 일을 이루는 데 쓰오. 그러나 일이란 이루기보다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요. 수성(守成)이 창업(創業)보다 어렵다는 것이 이를 두고 이른 것이요. 그런데 모사(謀士)와 용사(勇士)는 창업에 쓰지마는 수성지재는 따로 있는 것이요.”

하며 어떠한 사람을 구하여야 할 것도 말하였다.

“모사야 자네를 두고 달리 구하겠나마는 용사와 치평지재(治平之材)는 어떻게 구할꼬? 이것도 자네 방촌(方寸)에는 있을 것이니 아끼지 말고 말하소.”

하고 수양 대군은 다시 권람의 손을 잡았다.

수양 대군의 말에 권람은,

“나으리아시는 바에 소인 같은 썩은 선비가 무슨 모략이 있으리까. 그뿐 아니라 매양 몸이 성치 못하니 모든 일이 다 귀찮을 뿐이외다. 남산 밑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소인의 일이외다.”

이런 말로 한 번 슬쩍 몸을 빼었다.

“그 웬 말인고? 자네는 천하 호걸이 많이 교유(交遊)하니까 사람을 많이 알 것이니 내게 말을 하게. 내가 오직 자네만을 믿는 뜻을 자네가 모르겠나. 만일 사양하는 말로나 모피하면 그것은 친구에게 대한 도리가 아닐세. 자네 말이 세 가지 사람이 요긴하다고 하였으니 심중에 먹은 사람이 없을 리가 있겠나. 자네 마음에 쓸 만한 사람이면 내가 쓸 것이요, 자네가 믿는 사람이면 내가 믿을 것일세. 원체 이런 일을 시작하려는 것이 자네 말을 듣고 하는 것이니까 무엇이든 자네 말을 아니 듣겠나. 언청계종(言聽計從)할 것일세.”

권람의 목적은 수양 대군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수양 대군이 자기를 믿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양 대군 자신의 높은 지위를 더 많이 믿었었다. 그러나 이미 보좌의 고명이 황보인, 남지, 김종서 등에게 내리었으니 이제 문종 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궁이 즉위하시는 날이면 수양 대군은 일개 권세 없는 종친에 불과할 것이다. 어제부터는 수양 대군은 자기 지위르 지혜와 힘으로 획득할 길 밖에 없으니 이리되면 권람은 수양 대군에게 있어서 가일층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수양 대군의 입으로 한 번 선언하게 하는 것이 권람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나 장차 일을 하여 갈 때에 자기요 말이 수양 대군에게 큰 위력이 되기 위하여서나 긴요하다고 권람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수양 대군은 완전히 권람의 수중에 쥐어진 것이다.

이만하면 권람도 만족이다. 권람의 눈 앞에는 자기의 부귀가 번쩍번쩍 빛나는 듯하였다.

“나으리가 것처럼 소인을 믿으시니 소인도 생각하는 바를 아뢰오리다. 첫째 모략 있는 사람으로는 한명회(韓明澮)만한 이가 없소이다.”

하는 권람의 말에 수양 대군은,

“한 명회---그 뉘 아들인가?”

하고 묻는다.

“한상질(韓尙質)의 손자오이다.”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나?”

“지금 서른 여덟이외다.”

“무슨 벼슬을 하나.”

“경덕궁직(敬德宮直)이요.”

“어? 경덕궁직?”

하고 수양 대군은,

“이 사람아, 나이가 서른 여덟에 벼슬이 겨우 궁직이야? 허허허.”

하고 대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권 람은 정색하고 수양 대군이 웃기를 그치기까지 가만히 있었다. 수양 대군은 한참 웃다가 권람에게 대하여 미안한 생각이 나서 웃음을 그치고,

“그래, 그 한 무슨 흰가가 그렇기 모락이 용하단 말인가. 자네가 그만큼 칭찬하는 것을 보면 엄연하겠나마는 어떻게 출세가 늦은가?”

하고 아직도 수양 대군의 입 언저리에는 억지로 누른 웃음이 늠실거리고 남아 있다.

권 람은 그제야 말을 이어,

“한생(韓生)의 재주는 옛날 관중(管仲)에나 비길까 지금에는 비길 사람이 없소이다. 나 우리가 만일 치평대업(治平大業)을 하시려거든 한생이 아니면 불가하되다.”

하였다. 수양 대군은 곧 송도(松都)에 사람을 보내어 한명회를 불러 올리라 하고 다시 권람을 향하여,

“지금 공경(公卿)으로 있는 사람 중에는 쓸 만한 사람이 없을까?”

“우의정(右議政) 김종서(金宗瑞) 한 살마이요. 하지마는 김종서는 호랑이니까 호랑이는 길드는 법이 없소이다. 정분(鄭笨)이가 있으나 무해 무익하니 말할 것 없고, 혹 반연이 있으시거든 정인지를 끌어 보시겨오. 첫째 인지는 명(明) 나라 대관 중에 안면이 넓고 집현전에 도 최항(崔恒) 이하로 인지의 당여(黨與)가 있으니 끌어 둘 만하되다.”

인지가 내게로 끌릴까? “

하는 수양 대군의 말에 권람은 웃으며,

“인지는 절개보다도 부귀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되다.”

하였다. 수양 대군도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경덕궁직(敬德宮直) 한명회(韓明澮)는 벼슬을 미미하지마는 송도에서 아는 사람은 알았다.

“어 그 녀석한테 걸렸다가는 큰 코 떤네.”

하는 것이 송도 사람들의 한 명회 평이었다.

경덕궁 기와를 벗기어 팔아 먹는다는등, 궁 후원 나무를 찍어 팔아 먹는다는등 하는 소문도 한 명회가 궁직으로 온지 석 달이 못하여 나기 시작하였다. 그 소문이 결코 헛소문은 아니었었다. ‘탐재기주색(貪財嗜酒色)’ 이라는 그의 특색은 이때부터 드러났었다.

한 명회의 아내는 민중추대생(閔中樞大生)의 딸이다. 민 대생의 사위가 넷이나 되는 중에 셋째인 한 명회는 다른 동서들에게 업수이여김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장모 되는 민 대생 부인도 다른 사위와 같이 귀애하지를 아니하고 매양 쓴 외 보듯하였다. 명회가 이렇게 장모와 동서들에게 푸대접을 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 있거니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용모가 괴상하게 생긴 것이다.

한 명회는 그 어머니가 잉태한지 일곱 달만에 나왔다. 그 어머니가 명회를 잉태하고 그가 나기까지 일곱 달 동안을 죽도록 신고하여 말하자면 더 참을 수 없어서 일곱 달만에 지레 낳아버린 것이다.

나은 것을 보니 사람의 새끼 비슷하기는 하나 ‘사체유미형성(四體猶未形成)’이라 하도록 아직 사람 꼴이 되지를 아니하여서 그까진 것을 젖을 먹이려고 애쓸 것도 없이 내다가

버리자고 하는 것을 그 집에 있던 할멈 하나가 주워다가 솥에 싸서 더운 방 속에 두어 길러 내었다고 한다. 명신록(名臣錄)을 보면 ‘시생월수년 방시성형(始生越數年方始成形)’ 이라고 하였으니 난지 이삼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같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다.

그러하던 것이 자라서 한 명회가 되었다. 얼굴이 아래가 퍼지고 위가 빠르고 코가 크고 눈은 크나 사팔뜨기요, 머리는 뽕죽하게 잡아 뽑은 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영통사(靈通寺)에서 어느 늙은 중이 ‘광혁첨(光赫尖)’이니 귀히 될 징조라고 하였다. 어찌하였으나 날 때에는 병신스러웠고 자라매 괴물 같았지마는 제주도 있고 영كم하여 범상치 아니하게 보는 사람은 보았다. 그 종조부 한상덕(韓尙德)이가 ‘이 아이는 내 집 천리구(千里駒)야’ 하여 데려다가 양육한 것이나 중추 민 대생이 사위를 삼은 것이나 다 그를 범상하지 않게 본 까닭이다. 진실로 한 명회는 열 달을 못 채우고 지레 낳을 때에 선악을 가리는 양심 하나를 잊어버리고는 다른 것은 다 찾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리하니 장모가 귀에할 리가 없고 처남과 동서들이 비웃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명회는 그런 것들은 다 부족 패치라고 생각하는 듯이 태연하였다. 그렇게 명회는 뱃심이 있었거니와 명회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배심 좋은 것이 더욱 미웠다.

다른 동서들 중에는 옥관자르 붙인 사람까지 있어도 명회는 집을 이루지 못하여 조부 되는 문렬공(文烈公)의 자당이 있는 집도 비어버리고 아내는 처가에 갇다가 말겨두고 이따금 생각이 나면 가서 만나 보고 사기는 이 사랑 저 사랑으로 돌아 다니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가 있던 곳은 권 람의 집이었었다.

명회는 권 람의 집을 자기 집과 같이 여기어서 만일 어떤 친구와 만날 일이 있으면 권 람의 집을 지정하였고 권람의 집에서도 한 명회를 한집 식구로 알아서 아침밥은 아니하여도 저녁밥은 차려 놓았다. 그러면 흔히 명회는 밤이 깊어서 술이 잔뜩 취하여 무어라고 혼자 지껄이고 웃고는 권 람의 집으로 돌아와 밤을 찾아 먹고 아직도 기운이 남으면 권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들다가는 탈당도 아니하고 이튿날 밤이 기울도록 코를 골고 잤다. 그러면 아침 밥상은 부엌에서 그대로 늙었다.

명회가 돌아다니는 곳은 아는 살마이 없었다. 그렇게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권람도 명회가 사귀는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였다. 다만 가끔 권 람의 집 사람으로 데려 오는 사람의 꼴을 보아 그가 한량(閑良), 술객(術客) 등속과도 추측하는 줄은 알았다.

한번은 권 람이가,

“여보게 자준(子濬)이, 자네 무슨 술(術)을 배우나?”

하고 물은 일이 있다. 자준(子濬)이라 함은 명회의 자다.

명회는 너털웃음을 치며,

“왜? 내 눈에 벌써 신기로운 빛이 나타나나?”

하고 그 사팔뜨기 눈을 번득거리며 되집어 권 람에게 묻는다. 따는 그 눈이 술객의 눈과도 같다고 권 람은 생각하였다. 어찌보면 청맹인가 싶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눈에는 일종의 광채가 있었다.

권 람은 웃으며,

“과연 자네 눈에는 신기(神氣)는커녕 귀기(鬼氣)가 있네.”

“어, 거 무슨 소린고 귀기가 있다니. 내 눈이 이래보여도 천강성(天罡星) 정기를 받은 눈이야. 자네 눈보다는 나으이.”

하고 명회는 어떤 도인(道人)이라는 자가 자기의 상을 보고 하던 소리를 읊기었다.

권 람은 그래도 조부 이래로 유가서(儒家書)를 존송하는 집에서 자라났으므로 술이란 것



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명회는 사실상 잡술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어느 술객에게서 얻어 들은 소리를 가장 제가 할 줄이나 아는 듯이 흥내를 내고는 웃었다.

한 번은 명회가 어떤 술객 하나를 데리고 권 람의 집으로 달려 왔다. 그때에는 조선에 도사(道士)라는 것이 많아서 무슨 풍운 조화나 부리는 재주가 있는 듯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돌아 다니었다.

그 술객이란 자가 권 람의 상을 보더니,

“십년 내에 배상(拜相)하시겠소.”

하고 능청스럽게 일어나 권람에게 절을 하였다. 권람도 너무나 기뻐서 부지불각에 일어나 마주 절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명회는 웃었다.

술객은 불출 수년에 조선에 큰 정변(政變)이 일어난다는 말과 인명이 많이 상할 것과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한 명회, 권람 두 사람인 듯하게 말하였다. 명회를 보고는,

“귀하시기로 말하면 영의정을 삼십년은 지내시겠소마는 눈에 살기가 많으니까 인명을 많이 해하겠고 혹시 검난(劍難)이 있다 하겠지마는 생전에는 염려 없소.” 하였다.

이날에 권 람과 한명회는 회불자승하여 온종일 술을 마시고 즐기었다. 그리고 이날에 두 사람은 문경지교(勿頸之交)를 맺었다. 그리고 일생을 관중포숙(管仲鮑叔)으로 자처하였다.

“상감은 승하시면 세공은 유충(幼沖)하시어 반드시 수양(首陽)과 안평(安平)이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것일세. 그런데 안평은 지금 명성이 높지마는 의리를 아는 체하고 문하에 사람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겠나. 수양은 인물이나명망이나 안평만은 못하지마는 사람이 영악은 하니까 인정이고 의리고 얹매 사람은 아니요, 자네와 나와 우리 둘만 붙으면 반드시 성사가 될 것일세. 그리되면 우리 둘이 십년 내에 정승(政丞)이 된다는 말도 그럴 듯하지 아니한가. 문장도덕(文章道德)으로야 내가 자네를 당하겠나마는 사업을 경륜하는 데는 과히 자네만 못지 아니할 것일세. 마침 자네가 지금 수양 대군 궁에 갇혀 다니니 이것이 다 천의야. 내가 부탁 아니하기로 어련하렷나마는 기회를 잃지 말고 수양 대군을 바싹 경마를 들고 나를 천거만 하게. 내가 수양을 만난 뒤에야 만사가 다 내 장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한 명회가 월전 다니러 상경하였을 때에 권 람에게 하고 간 말이다.

명회가 말한 바와 같이 문장 도덕은 권 람이가 명회보다 승하였으나 모략으로는 명회가 권 람보다 훨씬 상수였다. 권 람이나 명회에게 도덕이란 것도 우습지마는 그래도 권람은 선악을 변별할 줄은 알았다. 어떤 것은 인정에 맞는 일이요, 어떤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 일이요, 어떤 것은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은 세상에서 마땅하지 못하게 여길 것임을 잘 알았다. 다만 그까짓 것을 그다지 요긴한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렇지마는 명회는 전혀 선악을 별별하는 양심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욕심과 그 욕심을 달하려는 한량 없는 피가 있을 뿐이었다. 어느 놈의 돈을 먹으리라 하면 반드시 먹었고 어느 계집을 내 것을 만드리라 하면 반드시 만들었다. 그래서 정보(鄭保)의 서매(庶妹)가 자색이 있는 줄을 알고는 곧 정보와 친한 체하여 마침내 그 서매를 첩으로 얻었다. 그것도 석달 안에. 그러고는 충신(忠臣) 정몽주(鄭夢周)의 손녀를 첩으로 삼았노라고 제배간에 대언 장담하였다. 썩은 선비들이 충신이라 떠들고 종사(宗師)라고 존중하는 정 몽주의 손녀를 첩으로 삼아 그 이름을 짓밟는 것이 쾌하였던 것이다.

누구나 도덕적 양심만 떼어 놓으면 상당히 피가 나오는 법이지만 한명회의 계교는 실로 무궁 무진하였다. 그는 체면이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전연히 몰아 볼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려한 것이라도 목적을 위하여서는 가리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세조 대왕이,

“한 명회는 내 자방(子房)이야.”

하고 누누이 칭찬한 것이 다 이 께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귄 때에도 그는 도덕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상놈이거나 깍정이거나 도둑놈이거나 죄인이거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욕심을 달하기에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사귀었고 필요만 하면 도덕 있는 살마이라도 사귀기를 사양하지 아니하였다. 집현전 여러 학사들 중에 후일에 가장 상저한 이는 신숙주(申叔舟)였었다. 그것은 신 숙주가 도덕지사인 까닭은 무론 아니요. 도리어 그가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와 서로 합하였던 까닭이다.

명회가 경덕궁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 다닌 사람 셋이 있다. 그것은 양정(楊汀)과 유수(柳洙)와 임운(林芸)이다. 세 사람은 다 골격이 장대하고 여력이 과인하여 모두 고향에서 사람깨나 때려 죽이고 혹은 옥을 깨뜨리고 혹은 대로변에서 행인을 엄습하여 돈을 빼앗아 먹고 살던 무리다. 그들은 한명회가 두호하여 숨겨 주는 은혜를 감격하여 죽기로써 명회의 명에 복종하기를 맹세하였다. 그중에도 임 운 한 사람은 명회의 구종이 되어 상시에 명회의 시중을 들고, 양정, 유수 두 사람도 명회가 가는 곳이면 그림자 모양으로 따라 다니다가 만일 어느 누구가 명회를 건드리려고나 하면 맹호같이 내달아서 그 사람을 반 주검을 만들었다. 송도 사람들이 명회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뿔죽한 머리카락 뜨기 눈이 아니요, 실로 명회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흉물 세 사람이었다.

명회도 세 사람에게는 극진하였다. 그렇게 궁한 신세로도 생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경덕궁직으로 받는 요도 받는 날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회가 경덕궁 기와를 벗기어 파는 것도 이렇게 자기 분에 상당하지 아니한 부하를 세 사람이나 기르는 까닭이다.

양 정과 유수는 자기네와 같은 무리를 많이 알았다. 그 무리들은 대개 귀신 모양으로 낮에는 숨고 밤에만 나와 다니는 무리들이다. 다 살마깨나 죽이고 포도청 출입을 예사로 아는 무리들이었다. 그들의 겨레는 모래판에 무뿌리 모양으로 얼키설키 끝 간 데를 몰라 조선 전국에 편만하여 있다. 그들은 일종의 도적 나라를 건설하여 신라, 고려는 바뀌되 이 나라만은 영세 불변할 듯하였다. 양정, 유수는 이 도적 나라 백성이었다.

양 정과 유수는 한 명회가 종시 곤궁한 것을 보고 도적의 굴혈에 들어가서 거기 두령이 되기를 권하고 만일 그러한 뜻만 있으면 자기네가 앞장을 서마고까지 말하였다.

“가만 있게. 경덕궁 기와나 벗겨 먹어 가며 좀 더 기다려 보세.”

하고 명회는 두 사람의 권함을 아직 거절하였다. 그렇지마는 만사가 다 불여의하면 양(讓) 양(陽)으로 들어감녀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강원도 양양 어느 산 골짜기에 도적 나라의 대두령이 있던 말을 들은 까닭이다.

그리고 자주 권 람에게 편지를 부쳐 기회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일변 임운(林芸)을 시키어 안평 대군 궁과 수양 대군 궁의 동정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것은 임 운의 일가 되는 사람이 수양 대군 궁 궁노로 있던 까닭이다. 또 양 정과 유수도 장안에 돌아 다니는 꼬나풀을 통하여 명회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을 정탐하였다. 이렇게 정탐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승도 있고 관서도 있고 집현전 문신들도 있고 수령 방백도 있었다.

명회는 손에 여러 백명 되는 사람의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는 양 정과 유수와 임운이 정탐하여 보하는 대로 각각 이름 밑에다 적어 넣었다.

“아무 달 아무 날 밤 안평 대군이 담담정(淡淡亭)에서 시회(詩會)를 열었는데 모인 것은 누구누구요, 한 이야기는 무엇무엇이요.”

“누구가 누구를 심방하였소.”

“어느 벼슬이 깔리고 누가 땅에 올랐소.”

모두 이런 것들인데 열 가지에 한 가지도 들을 만한 것이 없건마는 그대로 명회는 인일이 명부록에 깨알 같은 잔 글자로 적어 넣었다. 그 보고들 중에 종성부사(鍾成府使) 이경(李耕)유가 이번 서울 올라 오는 길에 함길도(咸吉道) 절제사(節制使) 이징옥(李澄玉)이가 우의정 김종서에게 보낸 선물 야인이 쓰던 활 하나를 가져 왔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 보고를 듣고 명회는 무슨 보물이나 얻은 듯이 기뻐하였다.

“그런 것은 다 아시어서 무얼 하시오?”

하고 양 정이나 유 수가 물으면 명회는,

“심심파적일세.”

하고 웃거나,

“내가 장차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될 터이니까 모두 알아 두는 것이야.”

하기도 하였다.

양 정이나 유 순는 힘 쓰고 날랜 것 밖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피도 없는 무부들이다. 명회가 자기네보다 모략이 많은 것을 잘 알고 반복하는 바어니와 아직도 명회가 무슨 큰일을 낼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전 번 단오날 일이다. 유수부(留守府) 벼슬아치들이 만월대(滿月臺)에다 잔치를 베풀고 하루를 즐거이 놀았다. 그 끝에 누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서울 친구로서 같이 옛 서울에 벼슬을 사는 터이니 오늘을 기회로 하여 계(契)를 모아 오래 두고 서로 사귀어 어떠한 고 하여 만좌가 다 찬성하였다. 그때에 명회도 자리에 있다가,

“그저 좋은 말이요. 나도 넣어 주시오.”

하였다. 사람들이 보니 경덕궁직 한 명회이므로 모두 입을 비죽거리고 아무도 명회를 입참 시키자는 이가 없어서 툭툭히 망신을 당하였다. 명회는 이 말을 양, 유 양인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마음에 새기어 언제 한번 이 분풀이를 하리라고 맹세할 뿐이었다.

명회가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말은 송도에 짜아하게 퍼지었다. ‘그놈 밍더니’ ‘그놈 꺾죽대더니’ 하고 모두 잘 코사니하였다. 오직 이 말을 듣고 분히 여긴 것은 양, 유, 임 세 사람이었다. 양 정은 발을 구르고 임 운은 울고 유수는 당장에 그놈들을 모두 때려 죽인다고 야료를 하였다.

명회는 웃으며,

“잠간만 참으소. 다 그럴 날이 있네.”

하고 가까스로 무마하였다.

“참기는 언제까지나 참으란 말이요. 이러다가는 밤낮 마찬가지지.”

하고 세 사람은 좀체로 불평을 거두지 아니하고 어서 양양으로 가서 도적이 되기를 조르고 만일 명회가 안 들으면 자기네는 달아날 뜻까지 보이었다.

이러한 때에 문종 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궁이 즉위하시었다는 소문이 송도에 들리었다.

명회는 이 소문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사람이 과단이 부족하여.”

하고 권 람을 원망하였다.

명회 생각에는 세자궁이 즉위하시기 전에 수양 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때나 자기가 좌명(佐命)원훈(元勳)이 되어 볼까 함이었다. 그랬는데 새 임금이 등극하였으니 큰일은 모두 틀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서울에만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되는 걸.”

하고 명회는 이를 깔았다.

세자궁이 즉위하기 전에 수양 대군을 들여 앉히기는 용이한 일이지마는 한 번 세자가 왕이 된 이상 그 왕이 승하하시기 전에 왕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명회는 차라리 도적 속에 들어가 전국에 있는 도적의 무리를 몰아 가지고 한 번 설레어 보다가 잘 되면 조선왕이라도 한 번 되어 복 못 되더라도 일신이 안락하게 살아 볼까 하고 양 정과 유 수를 불러 도적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양, 유 양인은 인제야 명회가 바른 길로 들어 가려 하는 것을 기꺼하여 자기네가 아는 대로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적의 대두목이 되면 서울 장안에 고루 거각에 앉아서 처첩, 비복 거느리고 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을 하여 명회의 비위를 끌기를 힘썼다.

그렇지마는 정승, 판서의 높은 벼슬---이를테면 이조(吏曹)판서(判書), 병조판서(兵曹判書)의 푸른, 서슬 영의정(領議政), 좌우(左右)의정(議政)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의정부(議政府) 좌우(左右)찬성(贊成)의 높고 귀함, 그 좋은 권세---이런 것을 단념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럴까 저럴까로 새우고 새벽에 편지 한 장을 닦아 임운(林芸)을 주어 성화같이 서울 권 람에게로 보내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시세 이와 같고, 안평 대군이 임금의 자리를 엿보니, 화란이 일어날 것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라. 그대 홀로이 생각을 못하는가…… 화란을 평정함엔 제세발란의 힘이 있는 임금이 아니면 불가하거늘, 수양 대군은 활달함이 한 고조와 같고, 영무하기 당 태종과 같으니, 천명이 있는 곳을 소연히 알지라. 이제 그대 가까이 모시거늘 어찌 종용히 건백하여 늦기 전에 결단케 하지 아니하나뇨.’

이 편지를 보면 명회는 분명히 조금도 꺼림도 없이 수양 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찬탈하게 하기를 권한 것이니 이것은 권 람도 감히 발설 못한 바요, 수양 대군도 감히 자주 생각하지 못한 바다.

명회는 권 람이가 이 편지를 반드시 수양 대군에게 보일 것을 알고 수양 대군이 이 편지를 보면 반드시 크게 구미가 동하고 기뻐할 줄을 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권람이가 보기 위하여 하느니보다 수양 대군이 보기 위하여 한 것이다.

얼마쯤 만시지탄이 없지 아니하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수양 대군을 충동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달하는 길이라고 믿은 것이다.

수양 대군을 한 고조와 당 태종에 비긴 것은 다만 아침뿐이라고만 할 수 없으나 안평 대군이 신기를 엿본다고 한 것은 전혀 명회가 지어낸 말이로되 수양 대군을 움직이기에 가장 큰 힘이 있는 말이다. 첫째는 수양 대군이 안평 대군을 미워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요, 둘째로는 수양 대군이 거사할 좋은 핑계를 장만하여 드린 것이다.

“안평이 신기를 엿보기로 부득이 하여.”

수양 대군이 일어나서 새 임금을 옹호하는 파를 안평 대군의 당으로 몰아 없애버리고 수양 대군이 정권을 잡는 날이면 일은 칠분이나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 후사는 더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한 명회가 이조판서 한 자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안평이 애매하지마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팔자이지.”

하고 명회는 혼자 웃었다.

이 편지를 주어 임운을 서울로 떼어 보내고 명회는 자못 신기가 불평하였다.

이 편지는 최후 수단이다. 말일 이 편지에 무슨 향기로운 회답이 없으면 자기는 영영 궁적으로 늙어 죽을 수 밖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이 벌써 삼십 팔, 사십이 근당하였으니 이

제 다시 과거를 보러 다닐 면목도 없을뿐더러 글 짓기는 본래 싫어하는 데다가 그것도 놓아버린지가 오래어서 붓대를 들면 골치부터 먼저 아프니 제 힘으로 과거(科擧)에 급제할 가망도 없고 그렇다고 조정에 자기를 알아 남행으로 원한 자리라도 시켜 줄 사람도 없으니 인제는 꼼짝 없이 일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이다.

정당한 길을 밟으려면 경덕궁직으로 그냥 있어서 어떻게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마는 그것도 지나 간사오삭에 진절머리가 나고 말았다. 기왓장 벗기어 술값을 벌고 마루창널을 뜯어 볼 때일 나무를 삼는 것이 겉으로는 웃고 하는 일이지마는 속으로는 그리 즐거울리는 만무하였다.

더구나 지난 단오에 부료(府僚)들한테 망신을 당한 뒤로는 송도(松都)라는 곳이 지긋지긋하였다. 길에 나서 다니면 모두 뒤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사실상 만월대 망신이 있는 뒤로는 송도 사람들은 명회를 미워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기까지 하여 길에서 마주칠 때에는 분명히 비웃는 눈살을 보이였다.

송도 와서 소득은 정 포은 선생의 손녀를 첩으로 삼은 것이어니와 그도 이렇게 일생을 궁하게만 산다 하면 귀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 갈 곳은 양양 밖에 없는 듯하였다. 자기만한 모략을 가지고 도적청에만 들어가면 곧 한목 매는 두목이 될 것이요, 지금 대두령이 어떤 놈인지 모르나 몇 해 동안이면 그까진 놈 하나 치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들어앉기는 땅 짚고 헤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낮에 자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까웠다.

이렇게 명회의 번뇌한 생각은 개미 체바퀴 몰 듯이 뱅뱅 돌았다.

이때에 명회의 첩 정씨가 밖으로서 황황히 들어오며,

“여보시오. 서울서 사람이 왔어요.”

한다. 정씨는 이제 열 여덟 살, 분홍 치마 연두 저고리에 계집애 모양으로 어리게 차리었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손수 아침 저녁 동자를 짓노라고 손이 거칠고 앞치마는 거뭇거뭇 때가 묻었다. 송도서 사는 명회의 가정은 실로 우스웠다. 명회, 양정, 유수, 임운 합하여 사내가 넷에 여편네라고는 정씨 모녀 뿐. 마치 막벌이군 치는 주막집 같았다.

“서울서 사람이?”

하고 명회는 대문으로 뛰어 나갔다. 거기는 낮익은 권 람의 집 종 바람쇠가 서 있다가 명회를 보고 반가운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품 속으로서 서간 한 장을 내어 명회에게 준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사랑에 있던 양정과 유수도 뛰어 나와서 멀거니 명회와 바람쇠를 번갈아 바라 본다. 바람쇠는 전에도 두어 번 편지를 가지고 왔었으므로 두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그전 편지도 별 신통이 없었으므로 이번 것도 그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실망한 듯이 혹은 방으로 들어 가고 혹은 밖으로 나가버리었다. 두 사람의 꼴은 기름장수와 같이 피죜죜 흘렀고 얼굴은 낮잠을 과히 잠인지 부석부석하였다. 혹은 즐기는 비지를 좀 과식하였는지도 모른다.

명회는 비치 방에도 들어 오기 전에 권 람의 편지를 떼었다. 처음에는 예사로 읽더니 차차 눈이 종이에 꼭 들이박히고 말이 마당에 짝 붙었다. 명회는 다시금 편지를 보아 자기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닌 줄을 확실히 안 뒤에는 편지를 한 손에다 짝 쥐고 꺾꺾꺾 웃기를 금치 못하였다. 명회는 한 번 크게 에헴하여 가래를 뱉고 마루에 올라섰다.

“무슨 좋은 기별이 있어요?”

하고 정씨도 남편이 근래에 드물게 기뻐하는 양을 보고 창으로 내다보며 물었다.

명회는 정씨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정씨더러,

“이봐, 내가 급히 상경할 일이 생겼으니 의복 내어 놓게.”

하고는 사랑으로 나가려 한다.

정씨는 놀라는 듯이 일어나 나오며,

“아니, 서울을 가시다니. 오늘 가시오?”

하고 말로 명회를 붙든다.

“옷이나 내어 놓으라면 내어 놓아. 무엇을 안다고 참견이야.”

하고 핀잔을 주고는 사랑으로 들어가버린다.

남편이 상경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는 귀하게 되어 좋은 벼슬로나 올라 가는 일이니, 그렇다 하면 작히나 좋으랴. 정씨 자기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일이지마는 궁상이 덕지덕지한 남편의 꼬락서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 하면 이번 서울 올라 가는 것은 자기 집 일로 가는 것이요, 집 일로 간다하면 본 마누라 민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민씨도 나이 사십이 되었으니 서방을 빼앗길까 보아서 겁날 것도 없지마는 그래도 여편네 마음이라 자기는 첩이고 다른 데 본 마누라가 있어서 남편이 그리로 간다면 비록 제삿날 제사 참례를 가더라도 싫었다. 그래서 정씨는 반닫이 열쇠를 든 채로 눈물을 흘리었다.

명회가 사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 정과 유수 두 사람은 장기관을 밀어 놓고 명회의 자리를 내었다.

명회의 시치미 때는 얼굴에는 아무리 하여도 숨길 수 없는기쁨이 있었다.

“서울서 무슨 기별 있소?”

하고 양 정이가 잠자코 있기가 미안한 모양으로 그러나 그다지 흥미 없는 어성으로, 이를테면 명회의 얼굴을 보아 물은 것이다. 유수는 지금까지 두던 장기 수만 생각하고 있었다.

명회는 양 정이가 묻는 말을 기회를 의기양양하게,

“나는 오늘 곧 서울로 가야 하겠네.”

하고 대단히 바쁜 듯이 벽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집은 전조 적 집이 되어서 큼직하지마는 안에는 거미줄뿐이라 벽장 문을 연대야 케케 앓은 먼지밖에 있을 것이 없고 혹 있다면 양가 유가의 발 고린내 나는 버선짝일 것이다.

명회가 서울 길을 떠나게 되었던 말에 두 사람은 좀 놀래었다. 그러면 바람쇠가 가지고 온 편지에 그래도 무슨 뜻이 있었던가 함이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해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길을 떠나신단 말이요. 옛국상이 났거든 어명(御命)이 내리실 리도 만무한데.”

이렇게 양 정이가 반쯤 빈정대어 말하는 것을 유수가 곁에서,

“어디 서울 가까운 능참봉(陵參奉)으로나 승차를 하여 가시오? 그리되면 우리도 서울 구경이나 자주 하게. 또 하늘에 올라야 별을 따고 서울을 가야 과거를 한다는 셈으로 그래도 서울 가까이 있어야 무엇이 생기는 것이 있지그려. 송도 만월대 구석에서 도깨비 모양으로 궁 기왓장이나 굴리고 있으면 백년을 갓자 신통한 구석이 있소?”

농담 절반, 신세타령 절반으로 손에 든 장기쪽을 딱딱 거린다.

명회는 이 버릇 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앉으며,

“이번에 내가 상경하는 것은 일체 발설 말게. 수양 대군이 밤도와 올라 오라고 나를 부른 것이니까 아마 무슨 큰일을 의논하실 모양인즉, 양 정이 자네는 나와같이 오늘 떠나고 유수 자네는 집에 있게. 생각하건대 내가 이번에 서울 가면 다시 송도에 오지 못할 듯 싶으

니까 임운이가 오거든 같이 가숙 데리고 서울로 올라 오게. 내가 가는 대로 또 곧 기별도 할테야.”

하고는 여전히 바쁜 듯이 안으로 들어 가버린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유 수가 장기줄을 장기판에 내어버리며,

“무슨 수가 나는가봐.”

하고 눈을 꿈쩍한다.

양 정이도 ‘흥’ 하고 코로 웃는다.

한 명회는 양 정을 데리고 그날로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하필 유 수로 하여금 집을 보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양 정은 유수보다 얼굴이 잘 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집에 혼자 두면 젊은 첩 정씨를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회는 결코 사람을 믿는 일이 없었고 특별히 첩에 대하여서는 항상 반반한 남자가 가까이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자기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더욱 풍채 좋은 양 정을 의심한 것이다.

명회가 정씨와 대화하기를 허하는 남자는 정씨의 적형(嫡兄)되는 정보(鄭保)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정보도 근래에는 서울 올라가 성 삼문, 박 팽년 같은 집 사람으로 돌아다니고 송도에는 없었다.

“대문 밖에 나지 말고 아무도 대문 안에 들이지 말어!”

하고 정씨를 단단히 노려 보고 명회는 집을 떠났다.

한 명회, 양 정 두 사람은 바람쇠를 따라 말을 탈 형세도 못되므로 터덜거리고 걸어서 성화같이 서울로 향하였다. 만일 주막이나 나룻배에서 거행이 더디면 양 정이 눈을 부라리고,

“이 양반은 어명으로 급히 가시는 양반이야.”

하고 호통을 때었다.

“이 사람아, 어명을 함부로쓰다가 목 날아나려고 그러나?”

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에 명회가 책망하면 양 정은 어깨를 으쓱 올리며,

“한번 그랬으면 작히나 좋소?”

하였다. 홍제원(弘濟院)에는 입 운이가 인마를 데리고 마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회야 양 정이가 오월도 다 지난 염천에 땀을 뻘뻘 흘리고 먼지 투성이가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덕거리고 오는 것을 복 입 운이가 일마장이나 마중 나아가 맞았다.

“생원님, 얼마나더우시오?”

“덥구 무엇이구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사람을 부르거든 말 탈 노수라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뉴월 염천에 이거 어디 살겠나.”

하고 명회가 길가 조그마한 나무 그늘에서 별을 피하며 연해 부채질을 한다.

임 운은 손을 들어 홍제원을 가리키며,

“저기 수양 대군 궁에서 인마가 나와서 아침부터기다리요. 말이 두 필에 안장이 어른어른하고 말잔등까지 은이요. 전배 한 쌍, 구종 한 쌍에, 수령 행차 이상이요. 소인이 다 어깨가 으쓱하오.”

하고는 편지 한 장을 내어 명회에게 준다.

때어 보니 편지는 권 람의 것인데 수야 대군께서 명회가 오기를 심히 고대한다는 말과 선비를 존중하는 예로 대군이 몸소 명회르 나와 맞을 것이로되 국상 중이라 그리 못한다는 말과 또 명회가 명색 없이 수양 대군 궁에 출입을 하면 남의 의혹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명회를 송도서 청해 오는 의원으로 대접한다는 것과 인미를 보내니 타고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곧 수양 대군 궁으로 오라는 말과 거기 오면 권 람 자기도 만날 것이란 말이 쓰여 있다.

명회는 심히 만족하였다.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뻐다. 그러나 그런 빛은 내지도 아니하고 날이 더운 것과 발이 부르튼 것만 짜증을 내었다. 그리고는 인마고 수양대군이고다 귀찮은 듯이 나무 그늘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하늘에 떠도는 구름만 바라보았다. 양정과 임운은 명회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물끄러미 보다가 껍 웃었다.

명회와 양정은 은안준마에 덩그렇게 올라앉아 사오인구종의 호위를 받아 거드럭거리고 서대문을 들어 자하골 막바지 수양대군궁으로 들어몰았다.

명회가 온다는 선문을 듣고 수양대군과 권람은 계하에 내려서 맞았다. 명회의 초초한 행색이 오늘은 땀이 배고 먼지에 젖어 더욱 초초하건마는 지어서 기고만장한 모양을 보였다.

수양대군은 명회가 권람에게 한 편지를 보고 더 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안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는 말이나 천명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단 말이나 자기를 한 고조, 당 태종에 비견 말이나 다 일생에 처음 듣는 보비위하는 말이었다. 급기야 명회를 대하매 그 머리와 눈이 미상불 우습팡스러웠으나 그것이 도리어 비범한 표인 것같이 생각되었다.

수양대군의 한 명회에게 대한 대접은 실로 융숭하였다. 처음 계하에서 서로 맞을 때에는 한 명회가 읍할 때에 같이 읍함으로써 대답하였고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정청에 올라 한 명회가 대군께 대하는 예로 절할 때에 수양대군이 마주 절한 것이다.

애초에는 수양대군이 하는 양을 보아 좀 거드름을 부리려 하던 한 명회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공손하게 하여 주는 것을 당하고는 그만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다만 권람이가 곁에서 보아두었다가 후일에 자기의 천착스러움을 비웃지 아니할이만큼 하였다.

수양대군은 국상 중에 궁중을 떠나지 못할 계제이지마는 궁중에 들어 간대야 황보인, 김종서 같은 고명받은 늙은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이 보기 싫고 안평, 금성 같은 아우님 되는 대군들도 수양대군을 슬슬 따돌리는 기미를 보고는 그만 상기가 되어 될 수 있는 대로 궁중에 있기를 피하였다. 더구나 오늘은 한 명회르 만났으니 시각이 바쁘게 그의 계책이 듣고 싶어서 한 명회와 권람을 밀실로 끌어 들어 두 시각이나 넘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대사가 장차 어찌될 것이요?”

하고 수양대군이 먼저 문제를 끌어 내었다.

한 명회는 이때야말로 자기 일생이 부침이 달린 큰 시험인 줄 알므로 평생의 정력을 다하여 자기의 의견과 계책을 수양대군이 묻는 대로 대답하였다.

“소인이 무엇을 알리이까마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 민심이 돌아 가는 것을 살피옵건대 천명이 나으리께 있는 것은 소연한 일인가 하오.”

하고 자기가 권람에게 한 편지를 수양대군이 보았을 줄은 변연히 알면서도 또 한 번 수양대군을 칭찬하여 한 고조와 당 태종을 끌어 내었다. 그러하되 그 성음과 안색이 진실로 지성스러웠다.

수양대군은 좀 낮이 간지러운 듯이 권람도 바라보고 바깥도바라보더니 명회의 송덕하는 말이 한 대문이 지나간 때를 타서,

“천명이 내게 있다니, 그게 될 말이요? 나같이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천명을 감당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은 정중한 언사로 검사를 한다.

한 명회는 수양대군의 이 말에 펄쩍 뛰며,

“아니외다.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검양지덕이 좋기는 하오나 그것은 태평 무사할 때에나



쓰는 것이외다. 천명에 대하여는 겸양이 없는 것이외다. 만일 천명을 모피한다 하면 그것은 겸양이 아니라 역천(逆天)이외다. 태조 대왕께서 창업하신 간난을 생각하시거나 창생이 대만에 운예와 같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시든지 겸양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원형리정으로 말씀하오면 대행대왕께 읍서 승하하옵시면 나으리께서 상주가 되시어야 할 것인데 그리 안되온 것이 황보 인, 김 종서 배의 간계에서 나온 것이외다.

하고 도도히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세자를 두고 수양 대군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수양 대군도 알 수 없는 이치였으나 그래도 명회의 말은 언언구구가 다 비위에 맞았다. 마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살핀 뒤에 내가 할 말을 대신하여 주는 것과 같이 마음에 꼭 맞았다. 더구나 수양 대군 자기가 상주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형리정이란 명회의 말이 이치에는 닿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에 맞았다.

그렇지마는 수양 대군은 도리어 송구하는 빛을 보이며,

“그것은 지나치는 말이요. 세자궁이 계옵시니 세자궁이 상주되옵심이 마땅하고 나는 오직 충성을 다하여 어리신 상감을 도움이 뿐이요. 어찌 터럭끝만큼이나 다른 뜻이 있겠소. 오직 걱정되는 것은 황보 인, 김 종서의 무리가 안평을 떠받들고 국가사르 그르치려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계책을 내게 말하오.”

하였다. 수양 대군의 이 말에 한 명회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는 것 같았다. ‘아뿔사 수양 대군에게 한 수 졌구나’ 하고 명회는 고개를 숙이었다. 잘못하다가는 이 모가지가 날아 날는지도 모른다.

명회는 수양 대군의 진의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수양 대군이 왕의 자리를 엇본다고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던가. 수양 대군은 과연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돕던 옛일을 본받으려 하는 충성 밖에 다른 뜻이 없었던가. 그렇다 하면 자기가 오늘 말한 것은 큰 실수였었다. 하고 명회는 후회도 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움츠러질 명회가 아니다. 그는 한 수를 내어 수양 대군을 걸어 볼 하였다. 첫 수는 졌지마는 둘째 수에는 자기가 이길 것을 믿었다. 그야말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결심으로 명회는 자리에서 분명히 일어나며,

“소인 물러가요.”

하고 한 번 읍하였다. 명회의 용모와 눈매에는 실로 비장한 빛이 떠돌았다.

이 뜻하지 아니한 행동에 권 람이 먼저 놀라서 일어나 명회의 소매를 잡으며,

“이 사람, 이게 웬 일인가.”

하였다. 명회는 권 람이 잡은 소매를 뿌리치며,

“아니, 나를 붙잡지 말게. 선비의 행색이 한 번 말을 내었다가 용납이 되면 머물고 용납이 아니 되면 물러가는 법이야. 나는 원래 세상 일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부귀와 공명이 내게 부운이로세. 가만히 세상에서 숨어 유유자적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의 본색이어늘 자네 말을 그릇 듣고 서울에 올라 왔다가 이제 나으리 뜻이 네가 생각던 바와 다르니까 나는 물러가는 것이 옳은 일일세.”

하고 다시 수양 대군을 향하여,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두어 걸음 문을 향하여 나갔다.

이때에 수양 대군도 장황히,

“여보, 앉으오. 나를 버리지 마오.”

하였다. 그 말은 심히 은근하였다.

권 람은 명회를 붙들어 앉히었다.

‘나를 버리지 마오’ 하는 수양 대군의 말 한 마디면 명회도 목적은 달한 것이다. 수양 대군은 마침내 내 약낭 속에 들었다고 명회는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한 명회가 다시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 대군은 단도직입으로 시국에 처할 계책을 물었다 ---.

“넌들 나라 일에 무심할 리가 있소? 근심이 되길래 이렇게 계책을 묻는 것이 아니요? 그렇지마는 내가 무슨 힘이 있소? 군국대사(軍國大事)가 모두 황보인, 김종서 배의 손에 있으니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끼지 말고 높은 계책을 말하오.”

한 명회는 수양 대군의 말하는 바가 모두 도리에 맞고 또 대인의 기상이 있음을 탄복하였다.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음을 깨달았다.

“일을 하는 데는 힘이 으뜸이니 힘을 기르시어야 하오.”

하고 명회가 대답한다.

“힘을 기르는 법이 어떠하오?”

하고 수양 대군이 다시 묻는 말에 명회는,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속한 방법은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것이요.”

하고 아뢴다.

“불평객이 누구며 불평객을 모으는 방법은 어떠하오?”

하고 수양 대군이 묻는 말은 점입가경한다.

“세상에 불평객이 없는 때가 없사외다. 세종 대왕께옵서는 요순과 같으신 성군이시옵거니와 재위하신지 삼십여 년에 문(文)을 높이시옵고 무(武)를 가버이 하시오니 태평성대에 그럴 만한 일이어니와 그 때문에 무신(武臣)의 불평은 면치 못할 일이요, 또 재야(在野)한 인재도 문장 재사는 달하기 쉬우되 궁시(弓矢)를 잘하는 사람은 일생에 달할 길이 없으니 자연 문인은 교만하여지고 무사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외다. 또 문신(文臣) 중에도 자기의 현재 처지를 불만히 여기어 매양 불만한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는 것이니 이러한무리를 가리키어 불평객이라 하는 것이외다.”

하고 한 명회는 좋은 구변으로 기운차게 말할 제, 수양 대군은, 혹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혹은 무릎을 치며 명회의 말을 탄상하는 표를 보인다.

수양 대군이 자기의 말에 탄복하는 눈치를 보매 명회는 더욱 기운이 나서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계책을 말한다---.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매양 어디어 자기네를 불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외다. 마치 목 마른 사람과 같이 어디서 물 소리만 나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외다. 이제 만일 나으리께서 세사의 불평 가진 무리를 받으신다는 소문만 나면 한 달이 못하여 팔도의 불평객은 나으리 문하에 모여들 것이외다. 사람이란 궁할 때에는 일반지덕(一飯之德)도 골수에 사무치는 것이니까 사방으로서 모여드는 불평객에게 우선 술 한 잔, 밥 한 그릇으로 그 모여온 뜻을 사례하고 후일에 각각 공로를 따라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이 있을 것을 보이면 나으리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천이요, 만뿐이리이까. 이리하면 나으리의 힘은 대적할수 없이 커지는 것이외다.”

명회의 이 말에 수양 대군은 고개를 끄떡임으로써 옳이 여긴다는 뜻을 표하다가,

“그렇지마는 그 따위로 궁하여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만명이면 무슨 일을 하겠소? 좀 큰 사람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요? 큰 사람 얻는 방략은 어떠하겠소?”

하고 새 문제를 내었다.

한 명회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마골(死馬骨)을 오백금(五百金)으로 사는 것이 천리마를 구하는 법이외다. 범상한 사람을 비사후례로 맞아들이면 걸출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외다. 천하사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외다. 나으리가 많은 사람을 문하에 모으시면 모인 사람이 비록 모두 다 하잘 것 없는 무리라 하더라도 세상이 다 나으리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외다. 한 번 나으리의 세력이 이만하게 되면 마치 천하의 물이 다 한 바다로 모여드는 모양으로 천하의 인절이 다 나으리 세력을 따라 모여들 것이외다.”

하고 한 명회는 한층 더 기운을 내고 어성을 높이어,

“지금 황보 인 같은 무리가 국정을 잡았다 하나 그까진 문신(文臣)들은 난시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외다. 난시에는 백 명의 문장지재보다도 한 명 힘쓰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외다. 이제 소인을 따라다니는 양정 한 사람에게 철여의(鐵如意)하나만 들려 내어 놓으면 만조 백관은 경각에 낀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외다. 안평 대군이 아무리 문객이 많다 하더라도 그까진 심장적구(尋章摘句)하는 무리들이야 만 명이면 쓸 데가 무엇이오니까. 하고 보면 소인이 말하는 불평객은 결코 힘 없는 무리가 아닐뿐더러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큰 힘을 내는 무리외다. 이 불평객들을 하나씩 하나씩 흠어놓으면 아무 힘이 없지요마는 위에서 거느리는 이만 있으면 무서운 힘을 발하는 것이외다. 말씀하기 황송하오나 태조 대왕께옵서 천명을 받으심도 불평객을 모으신 것이 큰 힘이 되신다고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수양 대군은 더욱 더욱 한 명회의 말에 탄복하여 마치 무엇에 취한 이와 같았다. 권 람의 말도 매우 지혜로운 데가 있거니와 이처럼 구구절절이 귀신 같지는 못하였다. 한 명회에 비기던 권 람은 예사 선비에 불과한 듯하고 한 명회는 진실로 옛날 장량(張良)이나 제갈량(諸葛亮) 같은 신통한 모략을 가지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듯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오늘에야 만났던가 하여 수양 대군은 다시금 한 명회의 괴상한 용모를 바라보고 이는 하늘이 자기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불평객들을 모을 수가 있겠소?”

하고 한 가지 새로운 문제를 또 꺼내었다.

명회는 수양 대군이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들음과 연해제출하는 문제가 모두 긍정에 맞음을 보고 더욱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외다. 광활하고 조용한 땅을 택하여 사정(射亭)을 세우고 습사장(習射場)을 베풀고 나으리가 친히 사정에 임하시어 같이 활을 쏘시고 그 날에 가장 잘 맞힌 사람에게 상금을 내리시고 나으리 친히 그 사람을 부르시어 칭찬하는 말을 주시면 팔도에 활 쏘는 사람이 다 그리로 모일 것이외다.

명회의 말은 절절이 옳았다.

수양 대군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는 드싱 손을 내어 밀어 명회의 팔을 잡으며,

“이사람, 어찌 이리 만나기가 늦었나.”

하고, 하오 하던 말을 변하여 하계를 하였다. 그만큼 수양 대군은 명회를 천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명회도 수양 대군이 이처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히 기뻐다.

이로부터 한 명회는 거의 날마다 수양 대군 궁에 출입하였다. 한 번 오면 아침이면 해가 지도록, 저녁이면 밤이 깊도록 수양 대군과 단둘이 밀실에 마주앉아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

을 하였다.

권 람이나 명회와 마주앉게 되면 수양 대군은 끼니도 잇을 지경이었었다. 부인 윤씨(후일에 정희 왕후---(貞熹王后)---가 되실 이다)가 화를 내어 흔히,

“또 국 식게 하는 사람이 왔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인도 이 국 식게 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로하여금 일국의 국모가 되게 할 모든 계책을 내는 사람인 줄은 아직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도 유위 부족하여 수양 대군은 명회에 심복되는 임운(林芸)을 궁노를 삼아 수양 대군 궁에 거처하게 하고 무시로 무슨 비밀한 일이 있거든 임운을 시키어 명회에게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궁노면서도 임 운은 상시로 수양 대군에게 불리어 마주앉아 담화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궁노들간에 임운의 세도는 대단하였다. 모두 임 운을 부러워하였다.

아무리한 한밤중에라도 수양 대군이 임운을 명회의 집에 보내어 명회를 부르는 일도 있고 또 명회가 칫닭 울 때에 수양 대군 구에 올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을 알리지 않고 무상 출입하기 위하여 임 운의 팔에 줄을 매어 들창 밖으로 한 끝을 늘어놓았다. 그래서 어느 때에나 그 줄만 잡아당기면 임 운은 명회가 온 줄을 알고 곧 일어나 소리 나지 않게 대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거, 유부녀 보러 다니는 셈인걸.”

하고 명회가 소리 아니 나게 어깨로 대문을 사르르 밀고 들어서면 임 운은,

“원체 많이 해보시었거든.”

하고 웃었다. 그러나 한 명회는 만족하였다. 자기가 세종 대왕의 아드님인 당당한 수양 대군 궁에를 무상 출입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기뻐다. 그래서 밝는 날 아침에라도 늦지 아니할 일이언마는 야인 밤 중에 도적같이 살근살근 걸어 와서 임 운의 방 들창으로 늘어진 줄 끝을 톡톡 당기고 그것을 더할 수 없이 낙으로 알았다.

명회의 집은 수양 대군 궁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있었다. 무론 수양 대군이 청해 준 집이다. 그리 크지 아니하나 안채 있고 사랑 있고 행랑 잇고 비록 평대문일망정 이십 간은 넘는 집이었다. 명회 평생에 이만한 집에 살아 본 일은 없었다. 비복까지도 두어 사람 수양 대군 궁에서 얻어 왔다. 양식과 나무와 찬수도 부족함이 없고 안방에는 큰마누라 민씨, 건넌방에는 애첩 정씨를 두고 거드럭거리고 살게 되었다.

사랑에는 예나 이제나 다름 없이 양 정과 유수가 문객 모양으로 유숙하며 낮잠과 장기로 세월을 보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눈매 불량한 무리들이 모이어 수군거리었다. 후에 홍달손(洪達孫)이가 더 와 있었다. 송도서 강목을 칠 때와 달라서 명회의 사랑에서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었고 양정, 유 수도 동정에 때묻은 웃은 걸지 아니하게 되었다.

명회의 사랑에 출입하는 무리는 갈수록 늘었다. 사거리 반찬 가게에서도 한 생원 댁에 웬 사람이 저리 다니느냐고 수군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어도 의관이 제법 똑똑한 위인은 하나도 없고 옷에 기름이 묻지 아니하였으면 갓모자가 쭈그러지거나 망건 편자가 뚫어지거나 하였다. 유시호 동저고릿바람에 갓만 엮고 꿈무늬에 목달이 버선 한 켤레 찬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땅군 같은 사람도 왕래를 하였다. 국상이 났어야 백림하나 변변히 쓴 사람 없고 백이면 백이 다 갓모자에다가 백지 조각을 오려 붙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군들이 살마들이 일년이 못하여 좌명(佐命)공신(功臣)이니 익대공신(翊戴功臣)이니 하여 무슨 부원군(府院君), 무슨 부원군하는 대감들이 될 줄을 알았으랴.

문종 대왕이 승하하신지가 벌써 다섯 달이나 지내어 백악으로서 낙엽 날리는 찬바람 부는 시월이 되었다.

명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사고면(賜誥冕)을 사례하여야 한다는 의론이 조정에 일어났다. 그때에는 명 나라 조정에 안면을 익히는 것은 조선에서 세력을 잡는 데 매우 요긴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 사신으로 갈까 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다.

어리신 새 왕은 정전에 출어(出御)하시고 삼공육경(三公六卿), 삼사장관(三司長官) 이하 여러 대관이 모이고 수양, 안평, 금성 등 여러 대군들도 참여하여 정부와 종친과 서로 겨루다가 마침내 종친 편이 이기어 수양 대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종친이 세력을 얻게 된 데는 내력이 있다.

애초에 새왕이 등극하신 처음에 대사헌 기건(大司憲奇虔)이 상소하여 여러 대군이 권내에 출입하면서 정원(政院)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정에 대하여 용훼하기와 문하에 사람을 모아 정치를 의논하기를 금하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임금의 어리신 것을 이용하여 강성한 숙부들이 국정을 휘두를 염려가 있는 때문이니 대사헌 기건의 의견은 뜻 있는 이는 다 옳게 여기었다. 이현로(李賢老)같은 이도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영의정 황보 인, 좌의정 김 종서, 우의정 정 분을 보고 직접 헌책을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 뜻대로 확정될 뻔하였다.

만일 그리되었다면 수양 대군 이하 여러 대군들은 다만 궁중에 들어와 어린 임금을 휘두르지 못할뿐더러 자기 집에 있어도 정치적 의미로 당파를 모으거나 정권 잡은 사람과 서로 왕래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적더라도 왕이 어리신 동안에는 이래야만 될 것이라고 황보 인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황보 인 노인은 이것을 끝끝내 실행할 기력이 없어서 그만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에게 위협을 당하고는 맥 없이 쭈그러지고 말았다. 그 일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수양 대군에게 밀고한 것은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이었다.

수양 대군이 대사헌 기건의 ‘금분경안(禁奔競案)’을 듣고는 곧 권 람과 한 명회를 불렀다. 한 명회는 필썩떠며,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것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건의 말대로 된다면 종친은 수족을 엮어매어 가두어 놓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외다.

하고 수양 대군의 성미를 돋우었다.

“그러면 어찌하나. 기건의 말을 다들 옳게 여기는 모양이요, 벌써 정부에서도 뇌정(牢定)이 된 모양이니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나. 지금 형편에 내가 말한대야 그 말이 설 리도 만무하고---어허, 괴이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 대군은 한탄하였다.

한 명회는 한 번 웃으며,

“그리 염려하실 것은 없는 것 같사외다.

하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는 다 처리할 묘책이 있는 자신을 보이었다---

“이 일이 심히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안 될 일은 아니외다. 기건의 말을 막아낼 기미가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을 나으리가 이용하시오.”

“그래, 어찌하면 막아낼까. 세상이 다 기건의 말을 옳게 여기는 모양이니까 선불리 반대하다가는 일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신만 할는지 모르니 차라리 내버려 두고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지 몰라.”

수양 대군은 기건을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실로 기건의 명성은 자못 높았었다. 기건이

대사헌이 된지 일년이 못하여 부정한 생각을 가진 대관들이 전전공공하게 되었다. 것처럼 기 건은 끈고임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린 임금의 위에 계신 이때에 강기(綱紀)를 숙정(肅正)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함을 자각하여 목숨으로써 대사헌의 중한 직무를 다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번 ‘금분경안’은 그가 가장 큰 결심을 가지고 내어놓은 것이니 세력 없는 수양 대군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 명회는 또 한 번 웃으며,

“두 기미는 무엇이고 하니, 첫째로는 안평 대군을 움직이는 것이외다. 지금 형편으로 나으리 혼자서는 정부를 움직이기가 어려우실는지 모르지만은 안평 대군과 협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듯하외다. 또 듣건데 안평 대군과 김 종서와는 서로 친밀히 내왕이 있다 하니 더욱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안평 대군의 친당(親黨)은 정부와 각사(各司)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안평 대군과 협력을 하시거우.”

하고 가만히 수양 대군의 눈치를 엿보았다.

수양 대군은 안평 대군이란 말만 들어도 와락 상기가 되었다. 형님인 자기를 보면 늘 비웃는 듯 불쌍히 여기는 듯하는 그 태도도 밍거니와 문하에 천하 명사를 다 모아 놓고 서슬이 푸른 아우님 안평 대군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분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안평 대군과 협력하라는 한 명회의 말은 욕과 같았다. 안평 대군과 협력하라 함은 곧 안평 대군에게 불어서 힘을 빌란 말과 얼마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 대군은 눈살을 찌푸리었다.

한 명회는 무른 그것을 다 보아 알았다. 자기의 말에 수양 대군의 혼중이 자못 불평하게 될 줄을 알았으나 그것이 일일 되는 조짐이라고 보기 때문에 명회는 속으로 웃는다.

이윽히 침음하다가 수양 대군이,

“안평이 내 말을 들을 듯 싶은가?”

하고 억지로 얼굴에 화기를 보인다.

“그것은 염려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나으리가 안평 대군더러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면 자존심이 많으신 안평 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 아니하외다마는 기건의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안평 대군의 자존심을 한 번 건드려 두면 그만일 것이외다. 기 건이가 종친의 분경(奔競)을 금한다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는 것이요, 특별히 종친중에 가장 세력이 있는 안평 대군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으리가 안평 대군께 한 번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안평 대군이 가만히 있지 아니한 것이외다. 그래서 만일 안평 대군이 분해 하시거든 나으리가 안평 대군을 데리시고 황보 인 이하 여러 집정(執政)이 모인 곳에 가시어 종실을 의심함은 무슨 까닭이냐고, 이것은 필경 우리를 옥보이려하는 것이니 우리는 상감께 상서(上書)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면 못난 황보 인이가 반드시 겁을 내어 수그러질 것이외다. 그렇게 수그러지는 것을 보시거든 한 번 더 크게 책망을 하시어 그 무리들의 예기를 질러버리시면 후일에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니 이야말로 일거 양득이외다. 아무 때라도 나으리께서 한 번 위령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인데, 이번이 마치 좋은 기회니 잘하면 차소위 전화 위복이 될 것이외다.”

하는 명회으이 계책을 듣고 수양 대군은 비로소 얼굴에 화기가 돌며,

“자준(子濬)이는 과연 장자방(張子房)이 재생이로세. 과연 자네 말이 묘책일세. 안 그런가.”

하고 권 람을 돌아 본다. 자준(子濬)은 명회의 자다.

“한 명회 말이 그럴 듯하외다.”

하고 권 람도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다.

수양 대군은 곧 사람을 보내어 안평 대군을 불렀다. 안평 대군은 일찍 형님인 수양 대군에게서 불러 본 일이 없으므로처음에는 이상히 여기었다.

“형님이 나를 불러?”

하고 안평 대군은 수상스러운 듯이 좌우를 돌아 보았다.

문객 중에 어떤 사람은 수양 대군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칭병하고 가지 말기를 권하였다. 안평 대군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 우애지정이 부족하여 매양 한이더니 형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아니 갈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안평 대군은 심히 강개한 안색으로 곧 수레를 내어 수양 대군 궁으로 향하였다.

수양 대군은 반가운 얼굴로 안평 대군을 맞아 대사헌(大司憲) 기건(寄虔)의 금분경안 이야기를 하고 한 명회의 말대로 이것은 결국 안평 대군을 의심하는 일이요, 또 기 건 자신의 생각이 이니라 모두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만일 이대로 둔다 함녀 종실의 큰 욕이니, 곧 황보 인 이하 여러 집정을 보고 항의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안평 대군은,

“그것이 종실에 그리 욕도리 것이 있습니까. 분경을 금하자는 것은 선조(先朝)부터도 말 있어 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인가 합니다.”

하고 수양 대군의 뜻에 찬동은 아니하였으나, 면에 끌리어 굳이 반대도 못하였다.

안평 대군이야 수양 대군과 뜻이 같거나 말거나 함께 황보인한테로 가지만 하면 수양 대군의 목적은 달한 것이다. 안평과 같이 가서 안평은 곁에 앉히어 놓고 수양 대군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함니 결국안평도 같은 뜻인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에 마침 황보 인은 의정부에 앉아 우의정(右議政) 정분과 국사를 말하고 있었다. 좌의정(左議政) 김종서(金宗瑞)는 이날 자리에 없었다.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이 왔단 말을 듣고 두 대신은 놀라서 계하에 내리어 맞았다.

서로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 대군은 노기를 띤 어성으로 황보 인을 대하여,

“대감은 무슨 연유로 종실을 의심하시오?”

하고 들이댔다.

황보 인은 수양 대군의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시치미 떼고,

“나으리, 그게 어인 말씀이시오? 소인이 종실을 의심 할 리가 있소?”

하였다. 수양 대군은 황보 인의 말에 힘이 부족함을 알고 한층 어성을 높이어,

“그 어쩐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분경을 금한다 하니 그것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나선단 말이요?”

하고 수양 대군은 아까 안평 대군이 하던 말을 들어 안평 대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대체 분경이란 세종 대왕께서와 대행 대왕께서 불가하다고 하신 것이지마는 이제 금상 즉위 초에 먼저 종실을 의심하여 이것을 금하신다 하면 성덕(聖德)에 누가 되심이 아니며 또 고립무조(孤立無助)하게 되심이 아니겠소? 이는 스스로 우익(羽翼)을 자르심과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나라와 휴척(休戚)을 같이 하거든 어찌 가만 있을 수가 있소? 우리 형제로 말하면 이 위난지시(危難之時)를 당하여 심력을 다하여 대신제공(大臣諸公)으로 더불어 공제간난(共濟艱難)하자는 것 밖에 다른 뜻이 없거든 도리어 우리가 의심을 받는단 말이요?

어디 그럴 수가 있소? 우리 형제는 상감께 상서(上書)하여서 진소(陳訴)할 것이지마는 혹 유사(有司)의 잘못이나 아닌가하여 먼저 대감께 말하는 것이요.”

하였다. 실로 그 위풍이 무서웠다.

황보 인은 본래 난 대로 있는 노인이라 수양 대군의 호통에 칠분이나 겁이 나서,

“어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외다.”

하고 정 분을 바라본다.

정 분 역시 마음은 착하나 황보 인과 별로 다른 없는 호호야(好好爺)다. 태평 시대에 명군 밑에서 허물 없는 대신 노릇하기에는 맞추임이지마는 수양 대군 같은 이가 한 번 눈을 부라리면 앓은 대로 비슬비슬 뒷걸음 칠 노인이다.

“그렇다뿐이오니까. 아마 사헌부(司憲府)에서 첼 없이 그런 소리를 냈나 보외다.”

하고 정 분이가 땀 흘리는 영의정을 구원한다. 그러고는 살려 달라는 듯이 안평 대군을 바라본다.

곁에 있던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 역시,

“아아, 대사헌 기 건이가 그런 말을 내었나 보외다.”

하여 승정원(承政院)에서도 그 일은 알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여 겁난 무 대신을 두호한다. 기실 분경 금한단 말을 먼저 수양 대군에게 일러 바친 이가 강 맹경 자신이면서.

“그렇다면 모르되.”

하고 수양 대군은 적이 노기가 풀리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소. 그러기에 먼저 대감을 보고 말한 것이요.”

하고 크게 뽐내고 돌아 왔다. 안평 대군이 형님이 말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오는 길에 수양 대군을 보고,

“형님, 사랑에 있던 사람이 그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응, 그 사람. 한 서방이라고저 의원이야.”

하고 수양 대군은 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안평 대군이 물은 뜻은 오늘 수양 대군이 의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어느 책사가 있음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응, 그것이 수상지인이로군.’

하고 안평 대군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수양 대군을 무서워하는 생각이 황보 인 이하 모든 집정의 머리 속에 들어 가고 수양 대군은 아무 꺼리는 것 없이 일변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일변 사랑에 많은 문객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도 아무도 감히 논의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영의정 황보 인이가 무능하였던 까닭이다. 황보 인만 아귀통이 세어서 대사헌 기 건의 금분경안을 시행하게 되었다면 종실은 다시 거두를 못하였을는지 모른다. 후에 좌의정 김 종서가 그 말을 듣고 서안을 치며 통탄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일 김 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수양 대군의 한 번 호통에 움츠러질 리가 만무하였다.

이 일 뒤에 대사헌 기 건만 책임을 지고 대사헌이라는 중임에서 연안부사(延安府使)로 폄(貶)되고 말았다.

이번 명 나라에 사사고면(謝賜誥免)하는 사신을 보내는 의론에 대하여도 정부와 육조와 삼사의 장관이 상관할 것이요, 수양, 안평 등 대군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언마는 저번 일이 있기 때문에 수양 대군은 아우님되는 각 대군을 다 몰아 가지고 들어 와서 참석을 한 것이



다.

“그저 무슨 일이나 바짝바짝 대드시어.”

하는 한 명회의 현책도 있거니와 수양 대군 자신도 무슨 일이나 참예하고 말썽을 부리는 것이 세력을 잡는 비결인 줄을 안 까닭이다.

어리신 상감께서는 거의 본능적으로 제숙부(諸叔父), 그 중에도 수양 대군을 싫어하시지 마는 부득부득 들어오는 것을 나가라고 내밀 수도 없었다.

“이번 명 나라에 사례사(謝禮使)로 누구를 보낼꼬?”

하고 왕이 물으실 때에 제신들은 묵묵히 있어 대답이 없다. 수양 대군이 가고 싶이 하는 줄을 아는 까닭에 선불리 다른 사람을 거천하였다가 수양 대군의 미움을 받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상감이 싫어하시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 또 자기네들도 싫어하면서도 수양 대군을 거천하기도 싫은 까닭이다.

원래 이런 중대한 일에 명 나라에 사신으로 갈 자격은 삼공(三公)이나 대군(大君)이라야 할 것이니, 삼공 중에서 택한다 하면 황보 인은 수상일뿐더러 나이 팔십이니 갈 수 없을즉 좌의정 김 종서나 우의정 정 분이나 중에서 택할 것이요, 그렇다 하면 인물로나 이력으로나 김 종서가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군 중에 택한다 하면 문장으로나 식견으로나 안평 대군이 가는 것이 원형이정(元亨利貞)이다. 만일 황보 인이 한 마디,

“김 종서가 가감한 줄 아뢰오.”

한다든가,

“안평 대군이 합당한 줄 아뢰오.”

한다 하면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요, 영의정의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보 인은 저번 의정부에서 수양 대군에게 혼나던 것이 아직도 무서워서 감히 다시 수양 대군의 비위를 거스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았는 것이다.

영의정이 이러하거든 다른 사람은 더구나 수양 대군이 무서울 것이다. 어찌될 줄 모르는 세상에---수양 대군의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쉬, 쉬, 입을 닫혀 두는 것이 상책이다.---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다.

김 종서는 수상 황보 인이 자기를 거천하지 아니하는---아니 함이 아니라 못하는 심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남의 눈치만 엿보고 감히 개구를 못하는 심리를 알았다. 이러다가는 결국 수양 대군에게 빼앗길 것이요, 수양 대군이 한 번 명 나라에를 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명 나라 대관을 친하여 후일에 한 세력을 이룰 것을 생각하였다. 수양 대군이 가느니보다는 차라리 안평 대군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 종서는,

“이번 사신으로는 안평 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로 아뢰오.”

하고 왕께 고하였다.

김 종서의 말에 황보 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 듯이 한숨을 쉬었다. 위태한 일을 김 종서가 대신 하여 준 까닭이다.

김 종서의 말대로 상감이,

“그러면 숙부가 다녀오시오.”

하고 안평을 향하여 말씀이 계시었다면 일은 그대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매부 되는 남녕위(南寧尉) 정종(鄭宗)을 이번 사신으로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왕은 어리신 마음에 동기지정으로 그 누님 되는 경혜공주(敬惠公主)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시고 따라서 그 매부 되는 남녕위 정 종을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부왕이 승하하

시고 궁중 아무 혈족 한 분도 없이 전혀 남들 속에 외로이 계신 어린 왕은 마음과 정이 가는 곳에 누님 부부 뿐이었다. 비록 왕의 어머님되시는 현덕왕후(顯德王后)와 유촉(遺囑)을 받아 왕께 젖을 드리고 친어머니의 다름 없는 자애지정으로 왕을 양육한 혜빈(惠嬪)양씨가 있지마는 그래도 동기지정에 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중(喪中)임도 불구하고 벌써 사오차나 남녕위 궁에 거동하시었다. 열두 살 되신 어린 왕으로 허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명 나라에 사신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은 알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을 말고 꼭 정 종을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 종을 천하는 이는 없었다. 정 종이 비록 공주부마(公主駙馬)로 지위로 말하면 영의정에 비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십세가 넘지 못한 소년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이력도 없는 사람을 중대한 왕명을 받드는 사신으로 외국에 보낸다는 것은 아무도 보아도 말이 아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의정 김 종서가 안평 대군을 거천할때에 왕은 묵연히 대답이 없으신 것이다.

이윽히 왕이 대답이 없으심을 보고 사람들은 왕의 어린 심중을 살피었다.

이때에 수양 대군이 탕전에 나서며,

“신이 다녀오리다.”

하고 자천하였다.

왕은 옥좌 위에서 놀라는 듯이 작으신 몸을 움직이시었다. 제일 무섭고 싫은 숙부를 명 나라에 보내기는 참으로 원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왕은 역시 묵연히 대답이 없으시었다. 왕이 말씀이 없으므로 수양 대군은 잠간 머쓱하여 탕전에서 물러 나왔다.

왕은 이때를 놓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신을 돌아보시며,

“남녕위 정 종이 어떠하오?”

하고 낭랑한 어성으로 물으시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왕은 용안을 붉히시었다.

왕의 말씀에 제신은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 말이 없었다. 수양 대군의 관자놀이에는 붉은 핏대가 불끈하였다. 전내(殿內)에는 찬바람이 도는 듯하였다.

이때에 영의정 황보 인이가 나서서 결정적으로 한 말만 하면 일은 순순히 귀정이 될 것이 지마는 그는 왕의 편을 들자니 수양 대군의 뜻을 거스르겠고 수양 대군의 편을 들자니 왕의 뜻을 거스르겠고 그래서 조는 듯이 생각하는 듯이 가만히 있을 뿐이다.

우의정 정 분 역시 영의정과 마찬가지로 심사요, 좌의정 김 종서는 한 번 안평 대군을 거천 하였으니 다시 이 일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에 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는 민첩하게 일되어 가는 형세를 살피고 수양 대군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줄을 보아,

“우참찬 정 인지 아뢰오, 대저 이번 사고면(賜誥旻) 사례사(謝禮使)는 상감께옵서 즉위 하신 뒤에 처음으로 보냅시는 사신이은즉 식견과 이력이 구비한 사람을 보냅시는 것이 지당 하오며 남녕위 정 종으로 말씀하오면 아직 연천하옵고 또 일찍 사신으로 갔던 이력이 없사 오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후일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어떠할까 하오며 수양 대군은 대행 대 왕 즉위시에도 황조(皇朝)에 간 일이 있사옵고 또 종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사온즉 수양 대 군을 보냅심이 가장 옳은 줄로 아뢰오.”

하였다. 인지의 말에 용안은 주홍빛이 되고 수양 대군은 한 번 인지를 바라보았다.

정 인지의 말은 당당하였다. 정 인지는 앞뒤를 다 헤아려서 꼭 설 말이 아니면 아니한다. 아무도 인지의 말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듯하였다.

왕은 심히 초조한 듯이 좌우를 둘러보시고 울음이 터질듯 싶었다.

이때에 좌참찬(左參贊) 허후(許誦)가 수양 대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수양 대군이 명 나라에 사신으로 가신다는 것은 안될 말씀이요. 방금 재궁(梓宮)이 빈전(殯殿)에 계시거든 수양 대군이 나라에 종신(宗臣)이 되어 나라를 떠나신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와다.”

허 후의 반대도 당연한 말이었으나 아무도 허 후를 돕는 이가 없어 결국 정 인지의 말대로 수양 대군이 명 나라에 가기로 되었다.

수양 대군은 이날에 정 인지가 자기를 도와 말하여 준 것을 심히 덕으로 여겨서 그날 밤에 대군이 미행(微行)으로 정 인지의 집에 가서 다짜고짜로 안으로 들어가 인지의 손을 잡고,

“대감, 나하고 혼인합시다.”

하였다. 이때에 수양 대군은 아드님이 두 분이나 있었지마는 인지는 당혼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양 대군의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잠간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뜻을 알고,

“네, 그러하오리다.”

하고 허락하였다.

수양 대군은 예전 권 람이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정 인지를 막하에 끌어들인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정 인지도 판이 뒤집히어 이 세상이 수양 대군의 세상이 될 것을 보았으므로 수양 대군에게 허락한 것이다. 혼인이라 함은 정말 혼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이다.

수양 대군은 공조판서(工曹判書) 이사철(李思哲)로 부사(副使)를 삼고 집현교리(集賢校理) 신숙주(申叔舟)로 종사(從事)를 삼아가지고 연경 삼천리 길을 떠나게 되었다. 종사로 신 숙주를 택한 것은 이번 길에 이 재주 있는 집현 학사를 내 것을 만들리라는 생각을 가진 까닭이다.

이 밖에 영의정 황보 인의 아들 황보석(皇甫錫)과 좌의정 김 종서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도 수원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까닭이 있다.

권 람은 수양 대군이 명 나라에 가게 된 것을 알고 놀라며,

“나으리, 지금 황보 인, 김 종서 패가 잔뜩 나으리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이제 만일 나라를 떠나시면 대사가 틀어지지 아니하겠소?”

하고 수양 대군을 만류하였다.

수양 대군은 웃으며,

“걱정 없어. 안평(安平)은 내 적수가 아니요, 인이나 종서도 호걸지사(豪傑之士)는 아니야. 종서를 세상이 범이라고 하지마는 요새에는 이도 톱도 다 빠진 모양인데. 그것들이 무얼 하겠나. 또 내가 황보 석이, 김 승규를 데리고 가니까 저희들이 더구나 못 움직일 것일세.” 하였다.

실상 황보 인, 김 종서는 이듬해 계유년 이월 수양 대군이 의기양양하게 명 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수양 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리고 모악원(母岳院--명 나라를 존숭하는 사람들이 ‘홍길동’으로 이름을 고치었다)까지 나아가 맞았다.

명 나라에 다녀온 뒤로 수양 대군의 세력은 흔들 수 없이 되었다. 황보 인, 김 종서 정  
분은 명색은 삼공이나 수양 대군이 두려워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적이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승지를 수양 대군에게로 보내어 그 뜻을 묻도록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수양 대군이 날마다 궐내에 들어와 무론모사하고 아니 참여하는 것이 없었다. 왕도 이를 어  
찌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수양 대군의 세력 밑으로 가만가만히 돌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수양 대군  
의 횡포를 분개하는 사람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 두령되는 이는 그래도 좌의정 김 종  
서였다. 김 종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수군 수군 수양 대군의 횡포를 제어할 꾀를 말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 대군은 실로 서슬이 푸르렀다. 권람, 한 명회는 거의 수양 대군  
궁에서 살아서 세상엔 이 두 사람이 수양 대군의 척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국상 중임도 꺼리지 아니하고 한 달에도 사오 차씩이나 모악원과 훈련원(訓練院)에 습사  
장(習射場)을 베풀고 크게 주연을 배설하여 모여든 무사를 먹이고 특별히 용력이 있거나 무  
예(武藝)가 있는 사람이면 수양 대군이 친히 불러 술을 주고 상을 주었다.

자하골 수양 대군 궁 후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습사가 있었다. 여기는 모악원과 훈련원에  
서 뽑아온 무사들을 모아 놓고 활쏘기와 칼 쓰기를 익히는 곳이다. 무사를 택하는 것은 한  
명회가 맡아 하였고, 한 명회는 양 정과 유 수와 홍달손(洪達孫)을 시켜서 하였다. 천하 잡  
놈과 팔도 망나니는 다 수양 대군 궁으로 모인다는 동요까지 날만하였다.

힘 쓰는 사람, 키 큰 사람, 달음질 잘하는 사람, 담넘기 잘하는 사람, 사람 잘 치는 이,  
거짓말 잘하는 이, 활 잘 쏘는 놈, 칼 잘 쓰는 놈, 말 잘 타는 놈, 돌팔매 잘 치는 작자,  
도적질 잘하는 작자, 목소리 큰 사람, 무엇이든 한 가지 재주 있는 무리들, 부모한테도 쫓  
겨나고 동네에서도 물려난 무리들, 꿈무늬에 방매이 하나를 차고 심심하면 사람깨나 때리고  
다니는 무리들, 노름판, 색주가, 선술집으로 다니는 무리들.

한 명회 집 사랑에 어슬렁어슬렁 출입하던 무리는 모두 수양 대군 궁에 상객이 되어 출입  
하였다.

수양 대군이 무사를 모은다는 소문은 팔도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힘깨나 쓰는 사람은 다  
투어 수양 대군 궁에 궁에 출입할 길을 찾았다.

인왕산을 등진 수양 대군 궁 후원은 대단히 넓었다. 활터만 있지 아니하고 말달리는 터까  
지도 있었다. 마장(馬場)에는 항상 좋은 말 사오필이 매어 있었고, 활터에는 여러 가지 재  
료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의 활과 화살이 걸리어 있었다.

습사를 한다는 날은 대개 사오 십명이 모였으나 어떤 때에는 백명이나 모이는 때도 있었  
다. 수양 대군도 권 람, 한 명회, 홍 달손, 양 정, 유 수 들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와 앉았  
고 흥이 나면 손수 활을 당기어 쏘기도 하였다. 수양 대군의 활은 백발 백중이라 할 만큼  
유명하였었다. 태조 대왕 이래에 처음이라고까지 수양 대군께 아첨하는 이는 찬사를 올리었  
다. 수양 대군이 열 여섯 살적에 형님 되시는 문종 대왕이 대군의 활 잘 쏘는 것을 칭찬하  
여 활에 써 주신 것을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것처럼 수양 대군은 활에 이름이 높았다. 그렇  
기 때문에 더구나 무사들이 수양 대군을 숭배하게 되었다.

습사가 있는 날에는 수양 대군이 친히 임할 뿐 아니라 대군의 부인 되시는 낙랑부 대부인  
윤씨는 몸소 궁인들을 감독하여 무사들을 공개할 음식을 차리고 그것이 끝나면 후원 별당에  
임하여 발을 드리우고 활 쏘는 구경을 하였다.

윤씨 부인도 무사들을 좋아하였다.

“오늘은 무사들이 온다.”

하고 습사가 있다는 날에는 마치 명절이나 당한 듯이 기뻐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윤씨도 남편의 야심을 대강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날마다 이바지하는 무사들이 오늘은 비록 어중이떠중이라 하더라도 장차는 남편의 대사를 도울 사람들인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후원에서 습사하고 난 끝에는 반드시 한 명회 이하 심복 되는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수양 대군이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그 비밀한 의논의 대부분은 어찌하면 황보 인, 김종서, 안평 대군 같은 무리를 몰아낼까, 무슨 죄명을 씌울까, 암살을 하여 버릴까, 아니다 당당하게 무사들로 대오를 편성하여 서울 장안을 점령할까, 그리한다 하면 어떤 모양으로 할까---이런 제목들이다, 그 중에도 목하의 중대한 문제는 황보 인, 김종서가 수양 대군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안평대군 궁에 어떤 사람이 출입하며 무슨 일을 의논하는가, 안평 대군과 황보 인, 김 종서 등, 문종 대왕의 고명을 받은 집정들 사이에 어떠한 연락과 내왕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염탐하여 들이는 것도 한 명회가 맡아서 양 정, 유 수등을 시키어서 하였다. 장안에 늘어 놓인 꼬나폴들은 각색 정보를 염탐해 들어왔다.

계유년 시월 십일. 첫겨울이지마는 별 잘 나는 따뜻한 날이었다.

인왕산 밑 수양 대군 궁에는 이른 아침부터 문객이 모여들었다. 이 문객들은 수양 대군 궁에서는 ‘무사’라고 통칭하는 사람들이다.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하나씩 둘씩 아무쪼록 사람의 눈에 띄이지 않도록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중에 굼직굼직한 사람들은 그 얼굴과 눈매를 이 무슨 심상치 아니한 일이 있는 것을 보이었다.

이날에 수양 대군 궁에 모인 사람은 강곤(康袞), 홍윤성(洪允成), 임자번(林自蕃), 최윤(崔潤), 안경손(安慶孫), 홍순로(洪純老), 홍귀동(洪貴童), 유형(劉亨), 민발(閔發), 곽연성(郭漣城) 등이었다. 권람(權攄), 한명회(韓明澮), 양정(楊汀), 유(柳)수(洙)등은 전날 밤을 수양 대군 궁에서 새운 것이다. 임운(林芸)은 수양 대군 궁에 궁노로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날도 후원에서 습사(習射)를 한다 하여 이상에 말한 중요 인물 외에 훈련원 모악원에서 모아 들인 무사란 것들이 백여 명이나 모여 왔다. 이래서 수양 대군 궁은 이날 따라 심히 흥성흥성하였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근래에 흔히 있는 일이지마는 이날은 결판을 내는 날이다. 황보 인, 김 종서 이하 집정들을 없애버리고 수양 대군이 정난(靖難)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한 손에 총괄하기로 정한 날이다.

후원에서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무사들이 술먹고 활쏘고 즐기었다. 이날에는 특별히 술도 많고 안주도 좋았다. 큰 소 한 마리를 통으로 삶은 것이었다. 궁한 무사들은 웬 떡이고 하고 마시고 먹었다. 무슨 일이 있으려니 하면서도 오늘이 그날인 줄은 어중이떠중이 무사들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어렴풋이 ‘얼마 아니하여 우리는 장안 대도상으로 거드러거리고 다니느니라.’고 속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후원에서 무사들은 먹고 마시고 활 소고 하지를 해가낮이 기울어도 수양 대군이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한 명회도 잠깐 잠깐 빛을 보이고는 들어가버리었다.

“웬 일이어? 오늘은 도무지 나으리가 아니 납시니.”

하고 의심하는 축도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나 보이.”

하고 가장 아는 체하고 눈을 끔적하는 자도 있었다.

실상 요새 서울 장안에는 유언비어가 성행하여 간 곳마다,

“세상이 뒤집힌대.”

“보기만 해도. 해를 못 넘길테니.”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는 데가 없고 그러면 누가 들어 앉느냐고 물으면 혹은 수양 대군이 라고도 하고 혹은 안평 대군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고려 왕씨의 후손이 다시 들어왔다고 도 수군대었다.

정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다.

황보 인, 김 종서도 수양 대군의 행동을 의심하는지는 어제 오늘부터가 아니다. 근래에 와서 무뢰지배(수양 대군 궁에서 무사라고 일컫는 무리를 세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관들은 무뢰지배라고 일컬어 웃어버린다)를 모아 자주 활을 익히고 술을 먹이고 하는 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 원, 승한 일이야.”

“설마 어찌할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하노?”

이것이 늙은 집정(執政)들이 혹시나 모이어 앉으면 하는 소리였다.

“그래도 설마.”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고식적인 그들의 공통한 심리였던 것이다.

오직 김 종서가 이 일을 중대하게 보아 좌참찬(左參贊) 이양(李穰),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이조판서(吏曹判書) 조극관(趙克寬), 내시 김연(金衍), 한승(韓崧)등으로 더불어 수양 대군의 행동을 감시할 것과 만일 불우지변이 있더라도 어떻게 막을 것과 그보다도 만일 분명히 수양 대군이 역모를 하는 눈치만 보이거든 상감계 주달하여 아주 수양 대군을 처치하여버릴 것까지 의논하였다.

원래 김 종서는 정 인지의 심사를 수상하게 알았다. 그것은 수양 대군을 눌러야 한다는 의논이 날 때마다 정 인지는 말이 없음을 본 까닭이다. 그래서 요전번 중대한 비밀 회의에는 정 인지를 부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김 종서도 차마 여러 사람을 대하여 정 인지는 믿을 수가 없으니 부르지 아니하였단 말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체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호인 이양(태조 대왕의 서형의 아들)이 그만 이 의논을 정 인지에게다 누설하여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정 인지는 곧 도승지 강맹경(姜孟卿)을 시키어서 수양 대군에게 통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내력으로 수양 대군에게 일어날 핑계를 준 것이다. 황보 인, 김 종서 배가 수양 대군을 배척하려고 한 대서는 핑계가 아니 되지마는 어리신 주상(主上)을 시역(弑逆)하고 안평 대군을 옹립(擁立)하려 함이라 하면 천하에 내어 놓기에 가장 번뜻한 핑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시월 초 열흘날 거사하기로 계교를 세운 것이다.

무사들이 후원에서 해가 늦도록 술 먹고 떠드는 동안에 수양 대군 궁 안방에서는 한 명회, 권람, 홍달손, 송석손 등 주요 인물들이 모여 비밀한 의논을 한다. 그 의논에 제목은 이 계획이 대강 누설이 된 듯 싶으니 어찌할까 하는 것이다.

“무어, 누설되었기로 무서울 것 있나. 저놈들이야 다 합한대야 아홉 놈 밖에 없으니까. 아홉 놈이라야 그 중에 김 종서 한 놈이 좀 무섭지 그놈 한 놈만 없이 하면 다른 놈들은 손도 대일 것이 없을 것일세.”

이 모양으로 수양 대군은 뽐내었다. 여간해서 흥분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은 술이 반이나 취한 듯이 붉었다. 아홉 놈이라 함은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 이양(李穰), 민신

(閔伸), 조극관(趙克寬), 윤처공(尹處恭), 이명민(李命敏), 원구(元矩), 조번(趙蕃)을 가리킨 것이다.

“그까진 김 종서놈이기로 이 주머귀 하나면 늙은 것을 만두 속을 만들고 말지요. 소인 지금 가서 죽여버리고 오리까?”

하고 나시는 것은 홍윤성(洪允成)이란 궐자다.

“아니외다. 나으리, 일이 그러하지를 아니하외다. 저놈들도 말씀하오면 비록 힘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감마말르 등집니다. 그런데다가 만일 우리 께를 알아채었다 하면 반드시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니까 선불리 하다가는 일은 안 되고 공연히 역적 득명이나 하고 신수이처(身首異處)를 머지 못할 것이외다. 하니까…….”

하는 송석손(宋碩孫)의 말이 끝나기 전에 홍 윤성이가 거무데데한 얼굴에 핏대를 돋히고 팔을 뻗내며,

“아니 여보, 송 생원, 어떤 말ियो? 대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역적 득명이니 신수이처니 고런 방정맞인 말법을 어디서 한단 말ियो. 역적이라니 황보 인, 김 종서놈들이 역적이디 그러. 누가 역적이란 말ियो? 그래 나으리가 역적이시란 말ियो? 응, 어떤 말ियो? 어디 말 좀 해 봅시다.”

하고 송 석손을 먹살이라도 추켜들 듯이 덤비는 것을 유형(柳亨)과 민발(閔發)이 붙들며,

“이봐, 홍 선달, 그런 것이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인가자 참으로, 참아.”

하고 홍 윤성을 뒤로 물러 앉히고 나서,

“홍선달 기개도 장하오마는 송석사의 말도 이치가 없지 아니한 줄 아오. 협천자이령제후(挾天子以令諸侯)란 셈으로 저놈들이 취할 길이 상감께 매어달리는 길 밖에 없으니 그놈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나으리가 먼저 상감께 저놈들이 역모를 한단 말을 삶고 왕명을 받아 가지고 당당하게 저놈들을 토벌하는 것이 좋을 듯하외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송 석사의 말도 이 뜻인가 합니다.”

한다. 유형, 민발의 말은 언성이 순하였다.

홍 윤성의 호통에 분을 참고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하던 송 석손은 유형, 민 발의 말에 겨우 살아나서 고개를 들며,

“누구는 나으리께 향한 충성이 누구만 못한 것이 아니오.”

하고 한 번 홍 윤성을 노려본 뒤에,

“예, 그러하외다. 지금 유 참봉, 민 진사의 말이 바로 소인이 하려던 말이외다. 소인이 어디 역적 득명을 무서워하거나 모가지를 아낄 리가 있사오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내 모가지를 내어놓으라 하시면 선뜻 내어놓을 소인이외다. 어, 홍 선달, 사람을 그리 노지 마소.”

하고 송 석손은 끝으로 한 번 더 홍 윤성을 노려보았다.

홍 윤성은 더하고 싶은 말을 참노라고 넓적한 코만 썰룩거리고 있었다.

홍 윤성의 생각에는 땃국이 피죄죄 흐르는 좀선비들이 무에라고 쪼고 까불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다. 그저 손에 맞는 철여의 하나를 들고 나서서 황보 인, 김 종서의 무리를 모조리 바서 죽이고 모든 공명을 저 혼자서만 가지고 싶었다.

유 형, 민 발의 말에 수양 대군도 마음이 솔깃하였다. 곧 궐내로 들어가서 상감께 황보 인, 김 종서의 무리가 역모를 한다는 말을 삶고 당당히 왕명을 받아가지고 천하에 호령한다는 것이 진실로 번듯하였던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땅 짚고 헤엄하는 것이외다.”

하고 송 석손이가 자기 말을 세우려고 한 번 더 다진다.

이렇게 되면 일등의 마음은 자연 움츠러진다. 아무쪼록 위험을 무릎쓰지 말고 공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다.

홍순로(洪純老)가 나서며,

“그게, 일이 그러하지 아니하되다. 만일 이 일이 누설되었다 하면 성사하기는 어려운 일 이요, 또 관군이 올 의심도 있으니 아직 북문 밖으로 나가서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엄청난 소극론(消極論)을 끄집어내어 입좌를 아연(啞然)케 한다.

이 말을 모두 다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겁들도 났다. 그래서 이 양, 홍 윤성으로도 아까 모양으로 뵈내지를 못하고 큰 눈을 뒤룩거리고 수양 대군과 한 명희의 눈을 본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역시 그리로 모인다.

한 명희는 사기저상(士氣沮喪)하는 눈치가 있음을 보고 수양 대군을 바라보며,

“이거, 이러다가는 안되겠소이다. 작사도방(作舍道傍)에 삼년불성(三年不成)이라고 이러다가는 해만 다 지고 말 터이니 나으리가 뜻대로 결정하시오.”

하고 만좌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의 눈은 수양 대군에게로 모였다. 수양 대군이 눈은 호공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숨소리가 점점 힘있게 되었다. 수양 대군도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자저함이 있는 것이다. 한 명희의 말에 홍 윤성은 죽었던 기운이 다시 나며,

“이게 다 일이 아니이다. 용병지도(用兵之道)는 최기유예(最忌猶豫)라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될 것이외다. 해보는게지 여기 앉아서 해가 지도록 이렇구 저렇구 말만 하다가는 그야말로 역적 득명만 하고 신수이처가 될 것이외다. 다들 싫거든 소인이 혼자 나가서 그 늙은 놈들을 모조리 해낼라오.”

하고기고 만장하여 일등을 노려보고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안에 살기가 돌아왔다.

이 통에 수양 대군도 벌떡 일어났다.

“가자. 활 시위를 떠난 살이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다.”

하고 수양 대군은 소리치었다.

“나으리, 아니 됩니다. 이러시다가는 대사는 안되고 봉면만 할 것입니다.”

하고 송 석순, 유 형, 민 발이 수양 대군의 소매를 붙들어 만류하였다.

수양 대군은 마침내 흥분이 극도에 달하였다. 평소에 저마다 앞장 설 듯이 큰소리 하던 자들이 정작 일을 시작할 때를 당하여서는 모두 겁들이 나서 슬슬 꿈무늬를 빼는 것이 심히 밍고 분하였다.

“비켜라! 너희들일랑 가서 관사(官司)에 일러바치어라. 내가억지로 너희들더러 따르라는 것은 아니어. 나를 따르기 싫은 놈들은 가. 대장부가 죽으면 나라를 위함 죽는 것이야, 나 혼자 갈테니 놓아라 놓아!”

하고 수양 대군은 벽에 걸린 활을 떼어 어깨에 매고 칼자루에 손을 대며,

“어느놈이나 집미오기(執迷誤機)하는 놈이면 당선참지(當先斬之)할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옷을 붙드는 송 석순, 유 형, 민 발 등을 발길로 차 제치고 노기가 뚱뚱하여 중문으로 뛰어 나갔다.

이때에 부인 윤씨는 조금도 겁냄이 없을뿐더러 도리어가기를 원하는 듯이 손수 갑옷을 내



어다가 입혀드리었다.

수양 대군이 부인이 입히는 갑옷을 받아 입고 임운(林芸)한 사람을 데리고 대문을 향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드른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중에서도 한 명회가 분별을 하여,

“나으리가 혼자 가시니 가만 있을 수가 있나 누가 뒤를 따라야지.”

하고 홍 윤성더러는 먼저 김 종서 집으로가서 김 종서의 행동을 염탐하라 하고 권언(權僊), 권람(權擘), 한서(韓瑞)귀, 한명진(韓明潛)더러는 돈의문(敦義門) 위에 매복하였다가 수양 대군을 돕게 하고 감순(監巡) 홍달손(洪澹孫)더러는 밤이 들더라도 순군(巡軍)을 헤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 지휘를 기다리게 하고 양정(楊汀), 유수(柳洙), 홍순손(洪順孫)더러는 미복으로 수양 대군을 따라 김 종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고 한 명회 자기는 수양 대군 궁에 남아서 후원에서 무사들을 교련하고 비밀히 감추어 두었던 철여의와 비수와 독 바른 살 같은 것을 나누어 주고 오늘 밤으로 거사할 터이니 각각 힘을 다하여 싸우라. 공을 따라서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을 주리라는 뜻을 말하고 또 만일 영을 여기거나 겁내어 달아나거나 적당(賊黨)에게 밀통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처참한다는 엄한 명령까지 내렸다.

한 명회의 말을 듣고 어중이 떠중이 무사들 중에는 시호시호 부재래라고 기뻐하는 자도 더러 있지만은 대부분은 눈이 둥글하고 무릎이 덜덜 떨렸다.

‘아이고, 이것이 역적 놈의 소굴이었구나.’

하고 혼비백산하여,

“엄마 엄마.”

하고 우는 사람조차 있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일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술 먹는 맛에, 옷가지나, 용켓냥이나 얻어 쓰는 맛에, 수양 대군 궁에 문객이라고 자세하는 맛에 왔던 것이다 하고 슬며시 꿈무늬를 빼고 달아나려는 작자도 있었다.

한 명회는 이 오합지졸이 겁이 나서 달아날 구멍만 찾는 눈치를 보고 각 문을 굳이 달아 일체 출입을 금하고 만일 담을 넘거나 기타 수단으로 도망하려는 자가 있거든 물어볼 것 없이 죽여버리라고 문을 지키는 심복 되는 무사에게 분부하였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엄 속에 무사들은 먹고 즐기던 흥도 다 깨어져서 이 구석 저 구석 들쭉 셋쭉 모여 앉아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아니하여 한 명회는 백여 명 무사의 명부를 들고 돌아가며 일일이 수결을 무게 하였다. 수결 두는 손들은 떨렸다. 그러나 감히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일 거절한다 하면 당장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라도 모가지를 몸에 붙여둘 생각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두는 것이다.

수결 두는 것이 끝난 뒤에 명회는 여러 무사를 향하여,

“인제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게 되었소. 성사가 되면 원훈(元勳)이 될 것이요, 패하면 이 명부록은 역적의 명부록이 될 것이요. 지금 왕자(王子)께서 역적괴수(逆賊魁首) 김 종서를 잡으러 가시었으니 무사하게 돌아오시면 우리 일은 팔분이나 성사가 된 것이요. 이로부터 성사가 되기까지는 군법을 시행할 것이니 그리 아오.”

하고 격려 겸, 위협 겸 일장의 훈시를 하였다.

사람이란 죽을 죄라도 저지르기 전이 무섭지 저질러 놓으면 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겁이 나서 허둥지둥, 쫄쫄 매던 무사들도명부록에 수결까지 두어 놓고 나서는 다들 죽었

던 기운이 다시 살아서 얼굴에 푸른 빛이 스러지고 그와 반대로 도리어 기고 만장하여 저절 대는 자조차 있었다.

수양 대군 부인 윤씨는 이 무사들을 위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저녁을 공케하였다. 한 명회가 이런 무사들에게 전하매 무사들 중에는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죽기로써 은혜를 갚는다고 맹세하는 자까지 있었다.

해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시월 초 열흘 달은 송편보다도 조금 더 배가 불러서 큰 변이 일러는 서울을 비추고 있었다.

서대문 밖 김종서(金宗瑞) 집에는 어느 날이나 문객이 떠날 날이 없었다. 의정부(議政府) 좌의정(左議政)이라는 서슬이 푸른 정승인 까닭도 있거니와 삼척동자나 병문 막별잇군더러 물어도 지금 우리 조선에 첫째 가는 양반은 김 종서였다. 영의정 황보 인은 이름 뿐이요, 사실 영의정은 김 종서라고 다들 말하였고 호랑이 김 정승이 살아 있는 동안 아무 놈도 감히 거두를 못한다고 우부우부(愚夫愚婦)들도 다들 이야기하였다.

안평 대군도 절재(節齋)라면 항상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몸소 김 종서 집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이것이 수양 대군에게 김 종서가 안평 대군을 추대하여 사직을 위태하게 한다는 구실을 줄 연유다.

김종서는 그야말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였다. 두만강 가의 야인(野人)을 물리치어 육진(六鎭)을 완성한 공로는 조선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도 좀것들은 김 종서이 공을 시기하여 여러 가지로 육진 개척이 불가함을 말하여 김 종서를 나라를 위태케 하는 무리로 몰아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세종 대왕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면하고 공을 온전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김 종서가 육진성 쌓기를 끝내고 개선하는 날 (그날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어린 임금이 나시기 바로 전이다)에 세종 대왕은 내전에 잔치를 베풀어 김 종서의 공로를 위로하시며,

“내가 아니면 종서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종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칭찬하시었다. 문종 대왕이 승하하실 때에 어린 세자를 부탁하시며 가장 크게 믿기도 김 종서였고 유충재상(幼沖在相)이라 하여 어린 임금이 위에 계신 이 어려운 판국을 진정할 이도 김 종서라고 상하가 다 믿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회가 가장 큰 적으로 수양 대군에게 일러바치는 이도 김 종서였다. 그 동안 근 일년을 두고 계획한 것이 말하자면 김종서 하나를 어찌하면 가장 잘 없이할까 함이었다.

수양 대군이 송석손(宋碩孫), 유형(柳亨), 민발(閔發)을 발길로 차고 대장부 죽으면 사직을 위하여 죽는다고 뛰어나선 것도 가는 곳이 김 종서의 집이었다.

근일에는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김 종서 집에 출입하던 문객들도 발을 끊어버리었다. 옷이 날지 모가 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선불리 어느 권문 세가에 출입하느니보다는 가만히 숨어서 시세를 엿보다가 이길 듯한 편으로 가서 달라 붙는 것이 가장 약은 수였다. 더구나 수양 일파가 못 먹어하는 호랑이 김 정승 집 같은 데를 요새 같은 때에 바빠 다니다가는 큰 코 땔 줄을 다들 아는 것이다. 인정은 바람개비 같았다.

이 날에도 대궐에서 물러나온 후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이 김 종서는 안에 있어서 어린 자손들을 데리고 회롱하고 있었다.

아들 승규(承珪)가 승규의 심복 되는 신사면(辛思勉), 윤광은(尹匡殷)으로 더불어 사랑마당과 대문 안팎으로 거닐며 혹 자객 같은 것이나 오지 아니하는가 하여 살피고 있었다.

해가 금화산(金華山) 위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하여 홍윤성(洪允成)이가 터덜거리고 찾

아 왔다.

승규는 윤성이가 수양 대군 문하에 다닌단말을 들었으므로 이놈 수상한 놈이다 하고 윤성을 노려보았다.

신사면(辛思勉), 윤광은(尹匡殷) 두 사람도 한껏 흥윤성이가 쑥 나선 것이 이상도 하고 또 한껏 온종일 짐승하나 못 보던 사냥군이 처음으로 무엇을 본 듯한 호기심도 있어서 흥윤성을 에워쌌다.

윤성은 그 눈치를 모름이 아니다. 시치미 떼고 가장 호기있게,

“춘부 대감 계시오?”

하고 승규더러 물었다.

“계시어요.”

하고 승규는 데면데면하게 대답하였다. 이 불량하게 생긴 놈이 왜 왔는고 하고 한 번 더 승규는 윤성을 노려보았다.

“내가 춘부 대감을 뵈고 여쭙 말이 있으니 춘부 대감께 그렇게 여쭙시오.”

하고 윤성은 태연하였다.

조금만 수상한 눈치가 보이더라도 흥 윤성 따위 한두두름은 미친 개 치듯 때려 죽일 결심으로 있던 승규도 흥윤성의 태도가 하도 태연한데 기운이 질리었다.

“가친이 안에 누워 계신 모양이요 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거니와 내게 말하십시오. 내가 대신 여쭙어 드리오리다.”

하고 아까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흥 윤성을 바라보았다.

결에 있는 신 사면, 윤 광은 두 사람도 ‘이놈이 힘쓰는 놈이라는데’ 하고 꿈무늬에 숨겨 찬 첩편을 옷 속으로 만져 보아 아무 때에나 내어 두를 준비를 하였다.

흥 윤성이가 양화도(楊花渡) 나루에서 배 잘 건너 주지 아니한다고 나룻배에 뛰어오르는 길로 팔따지같이 굵은 사얏대를 엇가락 분지르듯 세 마디에 분질러 배 위에 있는 네 사람을 뺏사공 아울러 순식간에 육장(肉醬)을 만들어 강물에 집어 동태이를 치고 제 손으로 배를 저어 건너온 까닭에 마침 양화도에서 뺏놀이 하던 수양 대군의 눈에 들어 살인한 대죄도 흐지부지 면하고 도리어 수양 대군 궁에 갇힌 식객이 되었다는 흥 윤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검고 왁살스러운 얼굴에 불량한 눈방울만 보아도 여간 사람은 가슴이 서늘한 것이다.

“아니오.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꼭 대감을 뵈고야 할말이길래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대감을 뵈려고 할 리가 있소? 또 내가 이렇게 대감을 뵈려고 하는 것은 권문세가에 무슨 청이나 하러 온 것이라고 알지 마시오. 사내 대장부가 영시언정 구구스러이 청을 해서 베풀거나 얻어 하겠소? 그럴 내가 아니오. 지금 국가와 대감의 몸에 큰일이 일어날 기미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일개 포외지마는 그런 일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것이요. 그 밖에는 아무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니깐 만일 대감을 뵈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지요. 그태여 뵈려는 것도 아니오.”

하는 윤성의 말은 넉넉히 승규를 움직이였다.

승규는 윤성을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되는 김 종서 앞에서,

“흥 윤성이란 자가 아버지를 뵈고 긴히 여쭙 말씀이 있다고 와 셧습니다.” 하였다.

종서는 어깨에 매어달리는 손자의 불기썩을 만지며,

“흥, 흥 윤성? 그 힘 쓴다는 자 말이나.”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듯이 웃는다. 나이는 칠십이 가깝지마는 백발 동안에 이빨 하나 뺏지

지 아니하도록 정정하고 몸은 작지마는 어성은 쇳소리같이 짹짹하다.

“네, 양화도에서 뱃사공 죽인 자입니다.”

“그자가 수양 대군 궁에 다닌다는데 어찌 왔어?”

“글썄올시다. 수상합니다. 그래도 국가대사요, 또 아버지 몸에 큰일이 나겠기로 그 말을 하러 왔노라고 합니다. 아주 태연하고 몸에 무슨 흥기를 지닌가 싶지는 아니합니다.”

“흥기를 가지었기로 제기 어찌하겠느냐마는, 불려 들이려무나. 어디 그놈이 얼마나 힘을 쓰나 한 번 시험이나 해보자. 어디 우리 만동(萬同)이허고 한 번 힘을 겨루어 볼까.”

하고 유쾌한 뜻이 꺾꺾 소리를 내어 웃는다. 만동(萬同)이라 함은 지금 네 살 먹는 승규의 둘째 아들이다. 만아들은 조동(祖同)이다.

중서는 수양 대군이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아는 줄을 모름이 아니요,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엿보는 사람이 가까이 올 줄도 모름이 아니나 그런 것은 호랑이 김 정승을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빛기 들고

긴 바란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한 노래를 부른 김 중서의 작은 몸뚱이는 일신이 도시의기요, 담이었다.

“만동아, 너 인제 장사가 하나 들어올테니 대들어서 네 한 번 그 따귀를 붙이어라. 그럴래? 그러면 활 주마.”

하고 늙은 영웅은 어린 손자의 등을 만진다.

윤성은 다만 김 중서의 행동---김 중서가 수양 대군의 계곡에 아는 모양인가 아닌가, 신변을 경계하고 있는가 아닌가르 보러 온 것이 목적이지만 평생에 처음 당대 영웅을 대하는 것이니 한 번 사내다움을 보이리라는 야심이 있어서 있는 용기와 위엄을 모두 주워 모아 가지고 승규의 뒤를 따라 들어 갔다.

윤성은 초면이요, 의심스러운 자기를 안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아니 놀랄 수가 없어서 혹 자기를 없애버리려고 어디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나 아닌가 잠간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절재 김 중서는 그렇게 사람을 속일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다시 기운과 위의를 수습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는데 말에 윤성의 눈은 샅별과 같이 광채 나는 중서의 눈과 마주쳤다. 윤성은 그만 호랑이 눈살 맞은 토끼 모양으로 전신에 힘이 빠지어 그 자리에 엎드리어 절을 하였다. 연치로 보나 지위로 보나 절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은 것처럼 문지방을 채 넘지도 못하여서 당황하게 엎드리지는 아니하여도 좋았을 것을 하고 얼마 뒤에야 윤성은 혼자 부끄러웠다. 이처럼 중서의 눈은 무서웠던 것이다.

“자네가 힘을 쓴다지?”

이것이 중서의 첫말이었다.

“황송한 말씀이외다.”

하고 꿇어앉는 윤성의 망건 편자에 땀방울이 맺히었다.

이때에 중서이 어깨에 매달려서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던 만동(萬同)이가 쏜살같이 윤성에게로 달려가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윤성의 왼편 따귀를 한 개 떨고는,

“이놈!”

하고 호령을 한다.

윤서는 하도 의외 일에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러나 둘째 순간에는 숨이 막히도록 분통이 가슴에 북받치어 올랐다.

“요것을 원통으로 아작아작 씹어버렸으면.”

하고 만동을 훑어보고 득하고 이를 갈았다. 윤성의 이 분한 마음은 바로 그 이튿날 풀 수가 있었다. 손수 만동을 거꾸로 쳐들고 요녀석! 하고 두 다리를 잡아 찢어 죽여버렸다.

종서는 꺄꺄 웃으며,

“자네 이런 때에 이기는 법을 아는가.”

하고 만동은 책망도 아니하고 도리어 윤성을 가르치는 듯이 묻는다.

윤성은 분을 참노라고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말이 없었다.

종서는 한 번 더 눈을 들어 윤성을 바라보더니 윤성의 낮빛이 푸르락누르락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개를 끄떡끄떡하고는 다시 벽에 걸린 활 들을 내어놓으며,

“어디 이거 T당기어 보게.”

하였다. 윤성은 분김에 한 활을 들어 힘껏 당기었다. 활짝 뿔아쥐었을 때에 와지끈 소리가 나며 활이 부러지었다. 윤성은 부러진 활을 방바닥에 내어던진다.

종서는 웃으며,

“어, 과연 장사로세.”

하고다른 활을 집어 주며,

“어디 이것도 분질러보게. 못 분지르면 별주를 줄테고 분지르면 상으로 술을 줌세.”

하고 꺄꺄 웃었다. 그러고는 술을 내오라고 분부를 하였다.

윤성은 둘째 활을 받아 지그시 당기어 보았다. 윤성의 팔은 떨리고 낮에는 핏대가 섰다. 활은 거의 타원형을 이루도록 벌어지고는 다시는 꿈쩍도 아니하였다. 윤성은 두 무릎을 세우고 있는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었다. 그러나 팔이 떨리고 관자놀이에 핏대만 터질 듯이 불뚝불뚝 일어설 뿐이요, 활은 그 이상 꿈쩍도 아니하고 도리어 주춤주춤 뒤로 물러 오려하였다.

마침내 윤성은 참다 못하여 활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시생 별주 먹겠습니다.”

하고 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어, 장살세.”

하고 종서는 웃었다.

종서는 사랑하는 어린 첩 도(都)림(林)나(拿)를 나오라 하여 윤성에게 술을 치라 하였다. 도림나는 종서가 야화라고도 부른다.

야화란 두만강(豆滿江)가에서 생장한 야인(野人)외추장(酋長)외 딸로서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威吉道節制使 李澄玉)이가 야인과 싸울 때에 포로로 잡아온 것을 윤성이가 꺄으려던 활과 함께 자기의 은인 되는 김 종서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다. 야인의 딸이요, 둘에서 주워왔다 하여 야화라고 종서 스스로 부르거니와 절재(節齋)가 애첩을 두었다는 말은 당시 여러 사람의 호기심을 일으키었고 근엄을 숭상하는 선비들에게는 일국의 재상으로 하지 못할 일이라는 비난도 받았던 것이다.

야화는 술을 쳐서 윤성에게 권하였다. 윤성도 야화의 말은 들었던 터이라 감히 정시는 못하더라도 술을 마시노라고고개를 드는 체하고 두세 번 야화를 바라보았다. 그 눈같이 흰

살, 칠같이 검은 눈, 주홍으로 그은 듯한 입——윤성은 뼈가 저림을 깨달았다. 일이 성사가 되어 종서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종서의 집과 처첩을 직물(織物)할 때에 첫째로 만동(萬同)이놈을 찢어 죽이고 둘째로 야화를 첩으로 데려오리라 하였다.

“애 장사가 작은 잔으로야 양에 차겠느냐. 네 주발을 갖다가 열잔만 가뜩가뜩 권하리라.”

종서는 이 모양으로 흥 윤성에게 술을 권하고 기뻐하였다.

윤성도 사양 아니하고 주는 술과 안주를 다 받아 먹었다.

“어, 장사다!”

하고 종서는 한 번 더 윤성을 칭찬하였다.

윤성은 종서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였으나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가버렸다. 종서도 그런 말에는 관심도 아니하는 듯 그저 윤성이가 장사인 것만 무수히 칭찬하고 돌려보내었다. 어린 첩 야화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고는 아니하는 일이다. 종서는 윤성을 극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대접하였던 것이다.

“거, 숭한 일입니다. 그녀석이 아버지한테 긴히 여쭙 말에 있다고 하더니 아무 말도 아니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라면 그 놈을 없애버릴걸 그랬습니다.”

하고 헹실에서 가만히 엳들고 있던 승(承)규(圭)가 분히 여기었다.

“네가 윤성이를 없앨 근력이 있더냐. 이것 봐라 이 야인의 활을 대궐에 분질렀어. 이거는 못 분지르더라마는.”

하고 종서는 윤성이가 분지른 활을 물어 승규를 보인다.

“그놈만 못해요? 그놈이 못 분질렀다는 것을 제가 분질러 보겠습니다.”

하고 승규는 분개하였다.

종서는 꽤히 윤성이가 가까스로 밟던 활을 승규에게 내어주며,

“어디 분질러 보아라!”

하고 소리치었다.

승규는 활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두어번 통통 줄을 울려 보고 어깨를 슬쩍 뒤로 제치며 활짝 밟았다. 원형이 되고 타원형이 되고 마침내 탕소리가 내고 활 시위가 끊어지고 요란한 소리를 내어 활동이 제 자리로 돌아왔다. 야화는 놀라서 한참동안은 눈이 움직이지를 아니하였다. 이 활은 야화의 고향에서도 강하기로 유명한 활이다. 이 활으 ㄴ밟기만 하여도 힘 있다 하거든 하물며 양의 창자로 한 활 시위를 끊는 이는 야화의 아버지 밖에 없었다.

종서는 너무도장쾌하여 파안 일소하며,

“집안에 장사를 두고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야화를 돌아보며,

“인제도 우리 조선에 장사가 없다고 하느냐.”

하고 술을 내오라 하여 승규에게 상으로 석 잔을 주었다.

야화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종서는 한량없다. 그러나 김 종서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야인을 치는 통에 두 영웅은 조그마한 사사 원협을 버리고 서로 화친하여 동맹군을 이루어서 조선 군사를 막아내었다. 그 때에는 야화와 우발라는 아직도 젖 떨어진지 얼마 아니 되는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두 영웅이 중심이 되어 야인들이 큰 단결을 이루어 죽기로써 저항하기 때문에 김 종서도 두만강 저쪽에 건너가기를 중지하고 때문에 김 종서도 두만강 저쪽에 건너가기를 중지하

고 이쪽에나 야인이 더 침입하지 못하도록 육진(六鎭)을 두고 성을 쌓고 돌아온 것이다.

그 후 십년간 조선과 야인 사이에는 평화가 계속하였다. 조선 군사도 두만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야인도 감히 조선 지경으로 건너오지 아니하였다. 그 동안에 우발라와 야화는 평화로운 속에서 모락모락 자라났다.

그러나 야인들은 조선을 믿지 아니하였다. 김 종서는 서울로 가버리었으나 김 종서 대신으로 절제사가 되어 온 이징옥(李澄玉)은 야인들이 보기에 김종서만 못지 아니한 영웅이었다.

그래서 야인들은 말없이 자제들에게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를 가르치고 언제든지 조선 군사가 쳐들어오거든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인의 젊은 사람들은 대개 조선 군사의 손에 죽은 자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조카였다. 그들은 살아 남은 어른들에게 조선 군사에게 오래 지키고 살던 고국 강도를 빼앗기고 여러 번 싸움에 김 종서 군사에게 도록을 당하던 말을 듣고는 언제나 한 번 조선에 원수를 갚는다고 하고 이를 갈고 두만강 남쪽을 노려보았다. 우발라도 그런 젊은 사람 중에 하나다.

우발라의 아버지와 야화의 아버지는 더욱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우발라와 야화와 서로 혼인하기를 약속하였다. 우발라를 모르는 처녀는 있고 야화를 모르는 총각은 있었으랴. 이를테면 가장 잘난 왕자와 가장 아름다운 왕녀와 결혼을 하는 셈이었다.

일년 농사도 다 끝나서 별판에 술 취한 늙은이 모양으로 고개 숙인 수수도다 걷어들이고 멧가에 쿵 먹어 기름진 꿩들이 길 때에 서늘하고달 밝은 날을 받아 우발라와 야화의 혼인 잔치를 한다 하여 두 부락에서는 큰 명절이 두 개나 세 개가 한꺼번에 닥친 것처럼 술이야 떡이야, 잔치에 쓸 날짐승, 길짐승의 사냥이야 하고 법석들이 났었다.

“인제 다섯 밤 남고.”

“인제 세밤 남고.”

이 모양으로 손꼽아 그날을 기다린 것은 야화의 뛰는 가슴만이 아니었다. 그날에 밤이 맞도록 좋은 술, 좋은 떡, 좋은 고기, 마냥으로 먹고 마시고 북 치고, 제금 치고 처녀들 총각들이 엉클어지어 춤을 출 것을 생각하면 팔다리 못 쓰는 늙은이와 병신들까지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야화는 지금도 혼자 가만히 앉았노라면 생각이 난다.---

그날 밤에 달도 밝았거니. 달이 너무 밝아서 향내 나는 화롯불도 빛이 없었다. 야화 집 넓은 마당에는 온부락의 남녀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밤이 깊은 줄을 모르고 즐기었다.

신랑인 우발라는 그날 따라 더욱 씩씩하고 아름다웠다. 신랑과 신부는 기쁨과 부끄러움으로 야인 풍속대로 교배를 마치고, 신랑, 신부가 첫날의 즐거움을 누릴 신방에는 쌍촛불이 커져 신랑, 신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었다.

그러나 이때에 밖으로부터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진동하였다. ‘조선 군사야! 조선 군사야!’ 하고 외치고 우짚는 소리가 들렸다. 즐겁던 연락은 갑자기 수라장으로 이루어버리었다. 술 마시고 춤 추고 노닐던 야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칼과 활을 들고 조선 군사와 싸우려고 나섰다.

야화의 아버지와 이날에 아들을 데리고 왔던 우발라의 아버지도 곧 무장을 하고 말 고삐를 잡았다.

“너희들은 아직 몸을 피하여라. 오늘 밤에는 큰 화단이 올 듯 싶으니 너희마저 죽어서야 되겠느냐. 너희랑 먼 곳으로 피신하였다가 언제든지 조선놈의 원수를 갚아라.”

하고 야화의 아버지 독목한(禿木汗)은 사위와 딸을 향하여 자애가 가득한 늙은 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야화는 백전백승하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우발라의 아버지 몽극도(蒙克圖)도 독목한과 같은 말로 아들과 며느리더러 피신하기를 명하였다.

그러나 우발라는 굳세게 고개를 흔들었다.

“이 징옥이놈의 간을 내어 들고야 돌아 오겠습니다.”

하고는 아버지와 야화를 한 번 바라보고 말에 올랐다. 그의 눈은 샅별과 같이 빛났다.

밖으로서는 점점 더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아버지 두 사람도 젊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나갔다. 야화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문을 굳이 닫고 숨었다.

이날 밤에 야인은 조선 군사에게 거의 몰살을 당하고 야인 부락은 전부 노략을 당하였다. 남자는 눈에 띄는 대로 죽여버리고 젊은 계집만 모두 팔을 묶어서 두만강으로 끌고 건넜다.

야화도 삼백여 명 다른 여자들과 같이 이통에 조선 군중으로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갔다. 그래서 나이와 용모를 따라 혹은 장수의 첩이 되고, 혹은 질병의 아내가 되고 그만도 못한 것들은 종이 되었다.

야화도 이 징옥의 눈에 들어 김 종서에게 선물 첩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야화는 그 아버지와 남편이던 우발라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 어떤 때에는 죽었으려니 하고 울고, 어떤 때에는 살았으려니 하고 혹시 금생에 만날 때나 있을까 하고 멀리 북방을 바라본다.

그러나 야화는 일찍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한 일이 없었다. 그의 슬픔은 오직 그가 혼자만 아는 슬픔이었다.

“내가 죽거든 젊은 남편 얻어 가거라.”

이렇게 종서는 야화를 위로하였다. 그것은 종서가 야화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인 것 같았다.

홍 윤성이가 돌아간 뒤에 종서는 이상하게 비감함을 깨달았다. 청춘의 기운참을 보고 자기의 노쇠함을 슬퍼함인가, 그것도 있었다. 야화가 윤성과 승규의 힘쓰고 남아다움을 유심히 봄을 본 때에 질투에 가까운 일종의 불쾌를 느낌인가, 그것도 있었다. 시국의 뒤숭숭함을 혼자 힘으로 수습하기 어려움을 한탄함인가, 그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요, 무엇인지 형언할 수 없는 비감이었다.

“야화야, 오늘 하루 나를 즐겁게 해라고.”

하고 늙은 소나무 가지와 같은 손을 내어 밀어 부드럽고 흰 야화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이렇게 종서는 야화더러 술을 치라 하여 평일보다도 술을 많이 마시었다. 그리고는 평일보다도 더욱 다정하게 은근하게 야화를 어루만지었다. 벌써 방 안이 어두워 야화의 얼굴이 취한 종서의 늙은 눈에 어른어른 켜다 작았다 하게 되었건마는 불을 켜려고도 아니하였다. 야화는 종서를 모신지 반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이처럼 종서가 취태를 부리는 양을 보지 못하였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눕거나 기대는 일이 없고 야화를 보고도 취담을 하는 일도 별로 없었거든 오늘은 야화의 무릎을 베고 허리를 안고 손을 잡고 취담을 하였다.

바로 저녁상을 받았을 때에 문 밖에 인기척이 있는 것을 보고 야화가,

“누가 왔나보아요.”

할 때에 비로소 종서는 야화의 무릎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아버지.”



승규는 아버지가 야화와 같이 있는 줄을 알고 밖에서 두어 소리 불렀다. 승규의 마음에도 늙은 아버지의 심사가 펴 쳐량하였다. 인력으로 할 수만 있으면 야화의 마음을 움직이어서 좀 더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새가 있을까 하고 승규는 한숨을 한번 쉬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었다.

“오, 왜 그러느냐?”

하는 종서의 소리가 어두운 방에서 들린다.

“아버지, 수양 대군이 오시었습니다.”

“무엇이? 누가 왔어?”

하고 종서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안평 대군은 여러 번 찾아왔지마는 수양 대군은 올 까닭이 없는 것이다.

“수양 대군이 오시었습니다.”

하고 승규는 창 밖으로 더 가까이 온다.

“수양 대군이 오시었어? 안평 대군이 아니요, 수양 대군이?”

하고 종서는 승규더러 방으로 들어오라 하였다.

“수양 대군이야요. 대궐에서 나오는 길인지 관복을 입고 오시었어요. 웬 수상한 놈을 이 삼인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눈망울하고 험상스런 놈들입니다. 사랑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여도 날이 저물었으니 들어갈 새는 없다고, 아버지께 무슨 긴급히 하실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밖으로 나오시라고…… 어째 모두 행동이 수상합니다. 아까 윤성잉놈 왔던 것하고 다 수상하니 아버지 오늘 조심하세요.”

하고 승규는 야화와 함께 종서에게 관복을 입힌다.

“그, 왜 오시었을까. 그래 무슨 일이라고는 말이 없더냐?”

하고 저녁상도 밀어 놓고 승규의 부액을 받아 종서는 안중문을 나서서 대문 안 넓은 마당으로 나왔다.

바깥은 아직 것처럼 어둡지는 아니하였다. 수양 대군은 양 정, 유수, 임 운을 뒤 세우고 우두커니 대문 안에 서 있었다.

종서는 국궁하여 수양 대군에게 예하고 수양 대군은 읍하여 대신에게 답례하였다.

종서의 좌우에는 승규와 신 사면, 윤광은이 웅위하고 서서 마치 서로 대진한 것 같았다.

“나으리가 이렇게 누옥에 왕립하시니 소인의 생광이 비길 데 없사외다. 대단 황송하오나 잠깐들어오시지요.”

하고 종서가 수양 대군을 사랑으로 인도하려 하나 수양 대군은 손을 흔들어 막고,

“이렇게 늦게 찾아 미안하오. 날이 저물어 성문을 닫을 때가 되었으니 들어 앉을 수는 없소. 어, 대감 집 좋으시오. 집은 후일 와서 다시 보려니와 잠간 대감에게 물어 볼 말이 있어서 왔소. 아니 여기 서서 한 마디만 물어 보면 고만이요.”

하고 수양 대군은 어째 말이 두서를 잃었다.

종서가 굳이 원하는 것을 아기지 못하여 사랑 마당에까지 들어왔으나 방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수양 대군은 겨우 말머리를 찾는 듯이,

“그, 저, 영웅부인(永膺夫人)일 말이요. 영웅 부인이 동래온정(東來溫井)에 갔다고 해서 종부사(宗婦寺)에서 말들이 되는 모양인데 대감 의향은 어떠시오?”

하고 좀 싱거운 듯이 승규와 좌우에 선 사람들을 바라본다.

영웅대군(永膺大君)은 세종 대왕의 아드님 팔 대군 중에 끝의 아드님이요, 또 가장 사랑하던 아드님이다. 영웅 대군의 부인 송씨가 성태를 못한다 하여 나인을 데리고 동래 온정에

목욕을 갔다고 해서 대간(臺諫)이 시비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수양 대군이 이 일로 나온 것처럼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수양 대군이 이 일만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 종서는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잠간 머뭇머뭇하였다.

수양 대군도 자기 말이 우스운 듯하여,

“그래, 마침 췌내에서 그 말이 났기로 대감의 의향을 먼저 듣는 것이 옳을 듯 싶어서 나오는 길에 잠간 들르노라고 이렇게 늦었소이다.”

하여 자기의 말을 증거하는 모양으로 관복과 사모를 만진다. 애초에 수양 대군은 부인이 중문까지 내다가 입히는 투구, 갑옷에 활을 들고 말을 타고 궁을 떠나려 하였으나 한 명희의 말을 따라 홍 윤성이가, 김 종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종서의 집에 여러 사람이 없는 것과 종서가 오늘에 무슨 일 있을 것을 짐작 못하는 모양이라는 보고를 듣고 군복을 벗고 관복을 입고 갔던 것이다. 군복을 입고 가면 노상에서 수상히 알뿐더러 김 종서의 집에서도 반드시 의심을 더욱 깊이하여 방비를 하게 할 것인즉 방금 췌내에서 나온 모양으로 차리는 것이 가장 그런 듯하다고 명희가 아뢴 것이다.

수양 대군은 손을 들어 사모를 바로 쓰려는 듯이 뒤통수를 만지는 서슬에 오른 편 사모뿔에 쏙은 대목이 부러지어 땅에 떨어지었다.

“아차, 이게 웬 일이고? 이게 왜 부러진단 말이고. 어고이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 대군은 부러진 사모뿔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

기실 고이할 것은 조금도 없다. 이것이 다 한 명희가 수양 대군에게준 꾀다. 만일 승규가 종서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거든 사모뿔을 멀어 뜨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종서가 승규를 시켜 가져오게 하리라, 이렇게 꾀를 정한 것이다. 승규가 종서의 곁에 있고는 비록 양 정, 유 수, 임 운이 합력을 하더라도 종서를 당하기 어려울 줄 안 것이다.

종서는 물론 그 꾀를 알았을 리가 없다. 그렇지마는 왕자(王子)가 내 집에서 사모뿔을 분지렀으니 일각이라도 주저할 수가 없어서 곧 자기의 것을 매어서,

“그게, 원, 웬일입니까. 엇습니다. 황송하오나 이것을 쏙으시겨요.”

하고 두 손으로 수양 대군에게 드리었다.

수양 대군은 계교가 틀어짐을 보았다. 이렇게 종서가 제 머리에 쏙았던 것을 빼어 주면 승규는 곁을 떠나지 않고 말모양이니 이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수양 대군은 종서가 받들어 드리는 사모뿔을 받아 들고,

“그 원, 미안하외다.”

하며 사모에 쏙아 보더니,

“허, 이것이 맞지를 얹는군 좀 굵은 걸. 원, 들어가야지.”

하고 아무리 쏙으려 하여도 아니 쏙아지는 모양으로 얼굴을 찡그린다.

종서는 이 광경을 보고,

“애, 네 들어가서 다른 것을 하나 내다 드려라. 원, 그게 왜 그리 굵단 말이고.”

하고 종서는 수양 대군의 손에서 자기의 사모뿔을 받아들고 원망스러운 듯이 끝을 만진다.

승규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을 마치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듯하였다.

‘사모뿔이면 다 마찬가지지. 그렇게 굵어서 안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담.’

하고 승규는 수양 대군과 그 좌우에 모시고 섰는 불량한 작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버지 말을 못 들은 듯이 발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곁에 있는 신 사면, 윤 광은 두 사람을

눈질하여 바라보았다.

종서는 승규가 자저하는 양을 보고 그 뜻을 모름이 아니나 이러한 경우에라도 안 돌아보지 못할 것은 체면이다. 더구나 아버지의 명령이 아들에게 시행되지 않는단 말은 죽을지언정 차마 듣지 못할 것이다.

“어서 내어다가 드리려무나. 있는 대로 여러 개를 가져오너라. 그 중에는 맞는 것도 있겠지.”

하고 종서는 승규를 재촉하였다.

승규는 심히 난처한 경우를 당하였다. 수양 대군이 온 것이 결코 심상한 일이 아니다. 아까 윤성이가 다녀간 것이나 또 지금 수양 대군이 불량하게 생긴 위인을 데리고 와서 들어왔지도 아니하고 게다가 사모뿔을 분지로는 것이나 어느 것이 수상치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부명을 어길 수가 없다. 승규는 사면, 광은 두 사람에게 한 번 더 뜻 있는 눈을 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면, 광은 두 사람은 승규의 뜻이 자기네더러 종서의 결을 떠나지 말라는 것임을 알고 전보다 한 걸음을 다가들어 종서를 옹위하고 섰다.

“글쎄외다. 영웅 대군 부인이 동래 온정에 가신 일은 소인도 들었소이다마는 종실 일이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처단할 수도 없어서 그렇지 아니하여도 나으리께 여쭙려고 하였습시다.”

하고 종서는 잠시 대답할 기회를 놓지 아니하려는 듯이 말한다.

이러는 동안에도 수양 대군은 연해 기회를 엿본다. 승규가 도로 나오기 전에 해버려야 할 텐데 종서가 그 셋별같은 눈으로 자기의 눈을 마주보는 동안에는 아무리 효용무쌍하다는 수양 대군으로도 수족을 놀릴 수가 없었다. 것처럼 종서의 안광은 사람의 폐부르 꿰뚫는 듯하고 겹하여 그 눈은 매 눈과 사람의 폐부를 꿰뚫는 듯하고 겹하여 그 눈은 매 눈과 같이 잠시도 방심함이 없이 사방을 살피는 듯하였다. 수양 대군은 일생에 이때처럼 어떤 사람의 위엄에 놀려 본 일이 없었다. 저번 명 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는 코끼리들이 수양 대군의 위엄에 놀리어 일제히 부릐를 꿇었다 하거니와 이처럼 위풍이 늠름한 수양 대군도 김 종서의 안광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무엇으로 내려 눌리는 듯한 압박을 깨달았다.

그 압박은 다만 종서의 안광과 위풍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옳지 못한 것이 옳은 것을 대할 때에 당하는 꿀림이 수양 대군을 겹하게 한 것도 적지 아니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죄 없는 사람---지극히 옳은 사람을 해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수양 대군의 마음 속에 번개같이 지나갈 때에는 수양 대군의 등골에 식은 땀이 짹짹 흘렀다.

‘대사에, 대사에.’

하고 수양 대군은 구부러지려는 마음의 허리를 억지로 펴고 신 사면, 윤 광은을 향하여,

“대감께 은밀히 할 말이 있으니 자네네들은 잠간 저리로 가게.”

하고 최후의 결심을 하였다.

신, 윤 양인은 할 수 없이 물러섰으나 서너 걸음 밖에 더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뚝 섰다.

수양 대군은 소매에서 편지 한 장을 내어 종서 앞에 내밀며,

“여기 편지 한 장이 있으니 이것을 좀 보아 주시오.”

한다.

“그건 무슨 편지오니까?”

하고 종서가 받아 드는 것을 보고 수양 대군은,

“보시면 자연 알지요. 대감께 오는 편지면 청하는 편지 밖에 있겠소?”

하고 꺾꺾 웃는다.

수양 대군의 우렁찬 웃음 소리는 고요한 밤을 흔든다.

종서는 의심없이 편지를 떼어 달빛에 비치어 읽었다. 시원 초 열흘 달빛은 촛불에지지 않게 밝았다. 왼편으로 돌린 종서의 얼굴에 찬 달빛이 가득히 차고 사모 테가 번쩍번쩍하였다. 실로 가늠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수양 대군은 달빛에 비치인 종서의 모양의 아름다움을 완상할 여유가 없었다. 수양 대군은 오른 손을 들었다. 이것은 군호다.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오른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임운(林芸)은 옷 속에 숨기었던 철여의(鐵如意)를 뽑아 번개같이 김종서(金宗瑞)의 뒤통수를 내려 갈기었다.

김종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머리를 가리우려 하였으나 임운이 둘째번 치는 바람에 사모 아울러 머리가 갈라지어 붉은 피를 쏟고,

“나으리, 이런 법이 없소.”

하며 수양 대군을 한 번 흘겨보고는 땅에 거꾸러진다.

임 운은 한 발로 종서의 허리를 밟고 동과 머리를 난타할 때에 승규가 안으로 뛰어 나왔다.

승규가 나오는 길로 손을 들어 임운의 목덜미를 잡아 한 번 내어두르니 땅바닥에 코를 박고 서너 걸음이나 미끄러진다.

“이놈!”

하고 승규의 발이 한 번 번쩍 들리었다가 임 운의 등을 밟을 때에 임운은 쿵 하는 한 소리와 함께 피거품을 부구국 물고는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러는 동안에 신사면(辛思勉), 윤광은(尹匡殷)은 양정(楊汀)과 유수(柳洙)에게 모두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죽어버리었다. 유 수는 꿈지럭거리고 일어나려 하는 김 종서를 마저 죽여버리려고 달려들 때에 승규는 임운을 버리고 임 운의 손에 들리었던 철여의를 들고 유 수를 엄습하였다.

“역적놈아. 너도 고 자리에 꿈쩍 말고 가만히 섰어!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한 줄을 알아라.!”

하고 한번 수양 대군을 흘겨 보고는 승규는 대드는 유수의 칼을 슬쩍 몸을 비키어 피하는 서슬에 철여의를 들어 유 수의 칼든 팔을 갈기니 어썩죽지 바로 밑에서 유 수의 팔이 부러지어 축 늘어지고 칼은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떨어진다.

승규와 유 수가 겨루는 틈을 타서 양 정은 종서를 엄습한다. 승규가 유 수의 팔을 분지른 때는 바로 양 정의 칼이 종서의 목을 향하고 내려오는 때다. 승규는 오직 한 길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길을 취하였다---그것은 몸으로 아버지를 덮는 것이다.

승규는 손에 들었던 철여의를 양 정을 향하여 내어던 지고 몸으로 종서의 몸을 덮으며,

“이 역적놈아.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그냥 두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양 정의 칼이 승규의 허리를 잘라버리었다. 이 역적놈아 하고 승규가 원수 갚기를 맹세한 것은 수양 대군이였다.

승규의 독이 오른 상모와 말에 수양 대군도 잠간 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그러나 양 정의 칼이 승규를 마저 죽여버림을 볼 때에 수양 대군은 만족한 웃음을 빙그레 웃었다. 김 조서, 김 승규, 신사면, 윤광은의 시체가 피에 떠서 가로 세로 넘어지고 유 수도 한 팔이 부러져 옆고리를 승규에게 채여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을 수도 없이 비비 꼬고 꿈틀거리는 양을 한 번 더 돌려보고는,

“어, 되었네. 가세.”

하고 수양 대군은 몸을 날려 말에 오른다. 하얀 관복 자락이 달빛에 펄럭인다.

양 정은 승규의 옷자락에 두어 번 칼에 묻은 피를 씻어 칼집에 꽂고 수양 대군의 뒤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황망히 말게 올라 말 발굽소리를 내며 대문으로 나간다.

“나를 어찌하고 나들 가오?”

하는 유 수의 죽어가는 소리가 수양 대군의 귀에 들리었다. 대사를 앞에 두고 팔 부러진 유 수 따위 하늘을 위하여 무서운 곳에서 어름더듬할 수는 없었다. 양 정은 유 수를 두고 가는 것이 좀 더 마오에 걸리었지마는 이 판에 잠시라도 수양 대군을 떨어지었다가는 전공이 가석되고 말는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서대문을 향하고 말을 달리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 죽인 자들이 달아난지 이숙한 뒤에야 종서 집 노복들의 빠지었던 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혹은 마루 밑에서, 혹은 아궁이 속에서 엉기엉기 기어나왔다. 그제야 온 식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그러고도 벼락맞은 사람들 모양으로 얼마 동안 어안이 병병하였다.

맨 먼저 종서의 시체 곁에 달려온 것은 야화라는 도림나(都林拿)였다.

종서 부자가 수양 대군의 손에 참살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종서의 가족들은 오직 입을 벌리고 덜덜 떨 뿐이요,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였다. 아이들까지도 꿈쩍 아니하고 어른이 하는 양만 보았다. 오직 종서의 맏아들인 승벽(承璧)의 맏아들 석대(石臺)가 열 여덟 살이어서 이 모든 일의 뜻을 아는 듯 싶었다. 석대는 곧 편지를 TJN 해주에 감사로 가 있는 아버지 승벽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다.

부인네들이 모두 덜덜 떠는 판에 오직 하나 태연히 중문으로 튀어나온 것은 야화다. 그는 고국에 있는 동안에 친족과 이웃 사람이 전장에서 죽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그뿐더러 자기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려 나가는 양을 목격한 사람인 까닭에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하여도 눈썹 한 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야화의 뒤를 따라 야화의 시비가 따르고 다시 그 뒤에 승규의 부인이 따랐다. 이 광경을 보고는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비복들이 모두 황황하게 뒤를 따랐다.

야화는 종서의 가슴 위에 었힌 승규의 시체를 손수 제치어 놓았다. 야인의 딸인 야화에게는 그만한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치맛자락으로 종서의 얼굴의 피를 씻었다. 종서의 얼굴에는 종서의 머리에서 흐른 피와 승규의 목과허리에서 뿜은 피가 엉기어 달빛에 번쩍거리었다. 야화의 치맛자락이 한참이나 왔다갔다 한 뒤에야 종서의 눈과 코와 입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한 뒤에 야화는 손을 종서의 코에 대었다. 숨이 없는 듯하다. 얼른 종서의 앞가슴을 훑치고 왼편 젖가슴에 귀를 대어 본다. 심장 뛰는 소리가 아주죽지는 아니한 모양이다. 야화는 다시 종서의 코에 손을 대어본다. 숨도 있다!

야화는 물을 가져오라고 외치고 종서의 몸을 안으로 옮기라고 소리질렀다. 사람들은 야화가 명하는 대로 하였다.

야화는 시비가 떠온 냉수를 종서의 얼굴에 끼얹었다. 소식이 없다. 두 번째 끼얹었다. 그제는 종서가 깜짝 놀라며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기운없이 도로 감았다. 야화가 눈에 띄었을 것은 말할 것 없다.

종서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을 보고 야화는 놀라는 듯이 뒤로 물러 앉았다.

종서는 야화의 원수다. 야화 개인의 원수는 아니나 야화의 동족인 야인 전체이 원수다. 종서만 아니더면 야인들은 수백년 누리던 옛 땅을 도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수만명 목숨이

전장에서 쓰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징옥(李澄玉)이가 두만강에 오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징옥이가 아니 왔더라면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과(그들이 살았나? 죽었나?) 동족들이 그처럼 악착한 살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김 종서는 도림나의 원수다.

도림나의 딸들은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혹은 부모를 위하여, 혹은 형제를 위하여, 혹은 남편을 위하여 원수 갚을 의무가 있다. 만일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혹은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혹은 벌레로 태어나서 천 만 겁을 지나더라도 그 원수를 갚고야 갈 데로 가는 것이다---이렇게 야인의 딸들은 생각한다.

아버지와 남편이 분명히 죽었으면 야화도 이 징옥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 김 종서에게도 원수를 갚아야 한다.

누가 김 종서를 죽였다 하면 도림나에게 한 원수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김 종서는 자기가 반년간 섬기던 남편이다. 김 종서는 지나간 반년간에 자기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원수인 것을 잊어버리리 만큼 극진하게 사랑하였다.

그렇다 하면 야인의 법대로 야화는 김 종서의 몸에 박힌 칼이나 화살을 땀 먼저 뽑아야 하고 상처에 흐르는 피를 땀 먼저 씻어야 하고 만일 아직도 숨이 남았으면 마지막 물 한 모금을 손수 떠 넣어 주어야 하고 또 이 남편의 원수도 생전에 갚아야만 하는 것이다.

야인의 딸인 야화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는 대로 태연하게 거침없이 행한 것이다.

김종서의 하회가 어찌된 것은 뒤에 말하기로하자.

수양 대군은 김 종서 부자를 죽이고 의기 양양하여 서대문으로 말을 달리었다. 벌써 성문을 닫힐 때언마는 권람(權攄) 일파가 문 지키는 군관을 위협하여 수양 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김 정승 집에 갔다는 것을 이유로 문 닫기를 방해하고 있었다. 비록 아직 이조(李朝)의 기강(紀綱)이 해이(解弛)하지 아니한 때문이지마는 이르납 팔대군이 강성한 때라, 대군이라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일이 많았다. 하물며 근래에 갑자기 서슬이 푸른 수양 대군이라. 수양 대군이 어명을 받들고 호랑이 김 정승 집으로 가시었다니 아무리 강직(剛直)하기 그지 없다는 성승(成勝)의 군사라 하더라도 수그러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양 대군의 탄 말이 서대문을 들어설 때에는 수양 대군의 의기는 마치 개신 장군의 그것과 같았다. 아까 이문을 나설 때에는 미상불 근심이 많았다. 그것은 실로 호랑이 잡으려 가는 포수의 근심이였다. 김 종서, 김 승규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과 겨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던 아니 될 줄 아는 때였었다. 비록 불의에 암살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까딱잘못하면 호랑이를 잡으려던 포수는 호랑이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다! 마침내 수양 대군은 큰 호랑이를 잡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 앞은 무인지경이다. 아무도 감히 수양 대군과 겨룰 놈은 없는 것이다.

‘좀 굶직굶직한 놈들은 오늘 밤으로 조처를 해버리고 좀것들은 내일 하루에 쓸어내이면 고만이지. 그러고나면 내 세상이다. 다시는 내어놓지 아니할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양 대군은 아무리 참으려 하여도 웃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줄인 돌이 목마른 듯이 구하는 수양 대군의 권력욕(權力慾)이다.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은 김 종서 집에 누가 빠져 나가서 이 일을 황보 인에게 벌써 말하지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면 황보 인은 군사를 풀어 먼저 서대문을 막고 자기를 방어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마는 순군(巡軍)이 내 손에 있으니---이렇게 기뻐다 근심했다 하면서 수양 대군은 서대문에 다다랐다.

서대문이 환하게 열리었다!

일은 되었다!

서대문에서 기다리던 권람(權攄), 권언(權偃), 한서귀(韓瑞龜), 한명진(韓明潛)이 수양 대군을 나와 맞는다.

수양 대군은 마상에서,

“애쨌네.”

한마디를 권 람이하 네 사람씩 던지고는 이때에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기운차게 말을 달려 간다. 양 정도 네 사람을 잠간바라보고 빙긋 한 번 웃고는 수양 대군의 뒤를 따랐다. 오늘의 큰 공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양 정으로 하여금 모에 날개가 돋히어 공중에 후러후러 날아 오르는 듯이 생각게 하였다. 여덟 말발굽 소리가 초어스름의 장안 대도를 울리며 서궐(西闕)앞을 지나 야주개를 지나 자하골로 올라갔다.

종침교(琮琛橋) 다리에는 등불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가 보면 그것은 분명히 궁(宮)에서만 쓰는 사초롱이었다. 수양 대군 궁에서 누가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한명회(韓明澮)였다. 한 명회는 사 오인의 활 메고 창 든 무사를 데리고 자기는 중추막 백림의 예사 차림으로 마상에 올라 앉아 있었다. 그때에는 아직도 태조 건국 시대의 무풍(武風)이 많이 남아서 자력으로 말 타는 것이 성풍하였던 것이다.

예정한 시각보다 수양 대군이 아니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명회는 적이 염려가 되어서 이처럼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에 좀 더 기다려보아도 수양 대군이 아니 돌아온다 하면 일은 패한 것이니, 그런 줄만 알면 명회는 이 길로 강원도 양양(江原道襄陽)으로 달아나려 한 것이다. 말을 탄 것은 이러한 연유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발굽 소리요.”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던 무사 하나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다.

과연 멀리서 들리는 다듬이 소리와 같은 소리가 야주개 편으로 들리는 것도 같았다.

“이 소리도 그 소리가 아니면 큰일이다!”

이것은 다만 명회만의 근심이 아니었다.

“투드락 투드락!”

그것은 진실로 말발굽 소리였다.

달빛에 어른어른 이리로 오는 그림자가 보인다.

명회의 눈은 그 그림자에 박혀었다.

“나으리시오.”

하고 한 무사가 나직한 소리로 외친다.

“나으리 같으면 네 사람일텐데.”

하고 명회가 바라본다.

분명히 수양 대군이다. 수양 대군의 흰 관복과 한편 사모뿐 없는 것까지 분명히 보인다. 수양 대군의 말은 탄 주인의 기운을 아는 듯이 네 굵을 안아 뛰었다. 성공한 기쁨으로 땀인가, 실패하여 도망함인가. 등불 앞에서 말이 우뚝 선다.

한 명회는,

“나으리!”

하고 등불 빛에 비치인 수양 대군의 얼굴을 근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빙그레 웃는 낯이었다.

“그놈을 잡았네.”

하고 수양 대군은 의기양양하여,

“새끼까지 잡았네.”

하고 양 정을 돌아본다.

양 정은 이때로다 하는 듯이,

“그까진 놈 여남은 놈 더 있더라도이 칼로 다 잡을 것어요.”

하고 찔던 칼을 쏙 뺀다. 칼에는 아직도 거뭇거뭇한 피가 보인다.

수양 대군은 양 정의 마음을 만족케 하려고,

“오늘 수공(首功)은 양 정이야.”

하고 명회를 보고 웃었다.

명회는,

“그것 보시오. 무사를 데리고가서 엄습한 것보다 일이 수월하지 아니하오니까.”

하고 자기의 계교가 맞은 것을 내어 세운다.

“암, 그렇고 말고. 자네 계교가 여합부절이야. 사모뿔 만으로 안 되어서 그 편지를 내어 주었네.”

하고 수양 대군은 명회를 기쁘게 한다.

“그래, 놈이 그 편지를 붙더니까?”

“응, 모두 자네 계교대로야. 달빛에 비추어 보데그려. 그러는 것을 임 윤이가…….”

하다가 수양 대군은 이렇게 한담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로 불현 듯 깨달은 듯, 말을 뚝 끊어놓았다.

“시각이 바쁘니 자넨랑 무사들을 데리고 바로 교동(校洞)으로 가게. 나는 순청(巡廳)으로 가서 순군을 데리고 감세.”

하고 수양 대군은 말을 채치어 서십자각을 향하여 달린다. 양 정이 그 뒤를 따르고 명회가 데리고 왔던 무사중에 두 사람이 역시 그 뒤를 따랐다.

수양 대군의 그림자가 아니 보이게 된 때에 명회는 달을 향하여 한 번 빙그레 웃었다 이제 강원도 양양으로 아니가도 된다. 그의 계교는 귀신 같은 듯하였다. 명회는 자기의 계교가 하도신통한 것을 스스로 찬탄하였다. 자기는 장량(張良), 제갈량(諸葛亮)에 지지 않는 모사라고 스스로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요셋달로 하면 자기도취(自己陶醉)의 쾌미를 보면서 명회는 수양 대군 궁으로 말을 달렸다.

“큰일은 이제부터다. 닭 울기 전에 조선은 한 번 뒤집히는 것이다.”

하고 명회는 마상에서 손을 품 속에 넣어 깊이 간직한 조그마한 책 한 권을 만져보았다. 그 책은 생살부(生殺簿)다. 명회가 일년내 두고 꾸민 생살부다. 몇 번이나 명회는 이 생살부를 펴보고 언제나 이것을 시행할 날이 올까하고 기다리었던고. 그런데 그날이 왔다. 오늘 밤이 그 날이다. 죽을 사람의 허두에 이름이 적힌 김 종서는 벌써 죽었다. 나머지는 닭 울기 전에 끝장이 나는 것이다.

명회는 별 많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끝없이 높고 끝없이 오랜 하늘. 자하문으로 북풍이 내려 분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명회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오직 피흘리고죽는 대관들의 모양---그것이 유쾌하였다. 그 대관들인 그놈들은 내게 원 한 자리 아니 준 놈들이다.

시월 십일은 왕의 누님 되는 경혜공주(敬惠公主)의 생신이다. 왕보다 사년 위가 되는 경혜 공주는 지금 열일곱 살이다. 공주의 남편이 영양(淸陽)위 정종(鄭宗)인 것은 독자도 기억



할 것이다. 정 좋은 수양 대군으로 더불어 명 나라에 가기를 겨루다가 수양 대군에게 진 사람이 아닌가.

왕은 이날을 기억하시어 영양위궁에 거동하시기로 하였다.

열 세 살 먹은 어리신 몸으로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고 그러하고 마음껏 장난을 같이 할 동무도 없는 궁중 생활은 왕에게는 지긋지긋한 멀미가 났다.

열 세 살이면 항상 장난할 때가 아닌가. 내시나 궁녀들을 데리고 간혹 술래잡기도 하고 윗놀이도하며 일시 즐겁게 웃고 뛰놀 때도 있지마는 혹 늙은 신하들의 눈에나 뜨이면 ‘임금의 몸으로 더구나 거상 중의 몸으로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하고매양 파혼을 시키었다. 그러고 글만 읽으라고 아빙고를 매워 날마다 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가 들어와서는 보기도 싫은 좌전(左傳)을 펴놓고 제환공(齊桓公)이니 진문공(晉文公)이니 하는 이야기만 하였다. 그 중에는 재미 있는 이야기도 많으나 재미 없는 것, 알아듣지 못할 것이 더욱 많았다. 아무리 재미있다 하여도 궁녀 시켜 이야기책 보게 하는 데 비길 수는 없었다.

왕이 장난에 미치어젊은 내시들과 나인들과 가택질을 하고 즐겁게 놀 때에 김연(金衍), 한송(韓崧) 같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신는 그것이 물이든지 흙이든지 왕의 앞에 꿇어 엎디어,

“상감 마마, 이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마를 조아리었다.

그러면 왕은 머쓱하여 장난을 그치고 같이 놀던 내시와 궁녀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내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일부러 소리를 높이어 웅웅 글을 외었다.

글을 싫어하심은 아니었다. 아직 나이 어리시지마는 오언(五言), 칠언(七言)으로 고풍(古風)은 물론이어나와 절귀(絶句) 같은 것도 지으시어 여러 문신(文臣)들의 찬탄을 받았다. 그렇지만 글도 잠시 잠시다. 언제나 하고 싶은 것은 장난이었다.

파조(罷朝)후에 왕은 지긋지긋한 늙은이들의 이야기판을 벗어난 것만 기뻐서 편전(便殿)으로 나오시어서는,

“누가 웃 안 노느냐. 나고 놀자. 나를 이기거든 상주마.”

하고 나인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나인들은 왕을 기쁘시게 하노라고 나도 하고 왕의 앞에 가서 앉는다.

“상감마마께오서 지시면 상을 주시려니와소인이 지면 어찌하오리까?”

하고 나인이 웃으며 묻는다.

“네가 지면 이야기를 하나 하여라.”

“이야기를 있는 델 다 상감께 아뢰었으니 어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따, 그러면 이야기책이라도 보려무나.”

이리하여 웃판이 벌어지면 저녁 수라가 오를 때까지 희희낙락한다.

이런 줄을 또 어떻게 듣고 정 인지나 기타 명 나라 사람 다 된, 어진 체하는 노신들이 절반 이상이나 한문 문자를 섞어가며,

“전하께서는 일방의 인군이 되시었으니 소의간식(宵衣旰食)하시웁고, 여한이 있으시웁거든 성경현전(聖經賢傳)이나 상고하실 것이요, 내시나 궁녀로 더불어 희롱하심이 만만 불가하시외다.”

하고 말썽을 하면 왕은 어떤 때에는 시끄러운 듯이,

“나도 그런 줄 아오마는 편전에서 좀 놀기로 어떻소.”

하시느 일도 있었다.

이러한 때에는 맨 먼저 생각되는 것이 누님되는 경혜공주다. 교동(校洞) 영양위 궁에만 가면 아주는 마음을 놓지 못하여도 궁중보다는 적d 마음을 놓고놀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동기와 한 자리에 모여 왕이 영양위 궁에 거동하시는 때면 반성(班城)위 강자순(姜子順)에게 하가(下嫁)한 수칙양씨(守則楊氏)의 몸에 난 경숙옹주(敬肅翁主)도 반드시 영양위 궁으로 온다--- 노니는 것이 어린 왕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물며 이날은 경혜 공주의 생신까지 되니 왕의 기쁨이야 비할 데가 없었다.

왕은 경혜 공주의 생신을 버르고 별리 이날(시월 십일)과조 후에 영양위 궁으로 거동을 남시켰다.

왕의 성미가 원체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미복으로 남녀(藍輿)를 타고 다니시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기도 명번 하였지만은 대간(臺諫)이 그 불가함을 누누이 말한 뒤로는 그렇게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미행(微行)은 있었다.

대간이 이렇게 왕의 미행을 불가하다 한 것은 무론 옳은 줄 알고,

“지도(知道).”

라고 매양 전교를 내리시켰다.

그러나 대간이 왕의 미행을 그렇게도 성화하게, 더구나 근래에 와서 불가하다고 상소질을 하고 말썽을 부리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충성된 동기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이 누님되는 경혜 공주와 영양위를 사랑하시고 임하시는 줄을 알므로 왕o게 가까이 하려는 자, 왕에게 무슨 뜻을 통하려는 자들은 많이 교동 영양위 궁에 출입하였다. 그래서 영양위는 공주 부마라는 것 밖에 아무 경력도 없는 연천한 사람이언마는 당시 정계에 일종의 세력을 이루었다. 영양위가 북경에 가려다가 못 간 것이 반드시 그 세력을 감하지도 아니하였다.

왕은 아직도 어리시지 아니하나, 비록 이씨 계통이 수를 못한다 하더라도앞으로 삼사십 년은 왕으로 계실 터이요, 이 양반이 왕으로 계신 동안에는 영양위 궁 세도는 떨어질 리가 없을 듯하였던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왕을 위하는 좋은 동기로나 자기의 벼슬다리 올라가기를 위하는 개인적 동기로나 왕께 가까이 하려는 자도 먼저 영양위 궁에 출입하였던 것이다.

이리되면 자연 영양위 궁에 가까운 패와 가깝지 못한 패가 생기는 것이요, 그리되면 세력 있는 곳에 가깝지 못한 패는 가까운 패를 시기하는 것이 인정이다. 저도 가까이 하고싶건마는 그러할 계제가 되지 못할 때에 가깝지할 계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도록 미운 것이다.

이 미운 무리들을 없이하는 한 방편으로 왕이 영양위궁에 가시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도 간판 중에 어떠한 사람의 동기는 되었던 것이다. 차라리 그 편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영양위에 자주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되다.’할 수는 없으니<sup>ㄱ</sup> 예(禮)에 <sup>ㄴ</sup>니, 선왕지법(先王之法)에 어떠하니 하여서 왕이 대궐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반론을 첫 조건으로 하고 만일 부득이 거동을 하실 때면 반드시 왕의 위의(威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둘째 조건으로 하고어리신 왕을 성가시게 하므로소기한 목적을 달하려 한 것이다.

이리하여 왕이 영양위 궁에 가시는 것을 아주 막을 도리는 없었으나 심히 불편하게는 만들었다. 내시와 나인들 중에도 왕이 영양위 궁에 내왕하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이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의 두 편으로 갈리게 되어 좋지 않게 생각하는 편은 가끔 왕께,

“상감께 아뢰오. 그렇게 자주 민가(民家)에 거동하시는 것이 옳지 아니하되다.

하고 간(諫)하는 자가 있으면,

“구찮다. 너희들까지 나를 못견디게 구느냐.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거든 너희가물러나

서 보지를 말려무나!”

하고 왕이 발연 변색하여 책망하시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나 하지 아니하면 그 충신인 체하는 작자들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날 영양위 궁 거동에도 너무 굉장하리만큼 거동의 노부(盧賻)가 컸다. 그리고 영양위 궁에 오신 뒤에도 승지(承旨) 최항(崔恒), 선전관(宣傳官) 한회(韓賄), 내금위(內禁衛) 봉석주(奉石柱) 등이 각각 부서를 정하여 입직하고 금군(禁軍) 오십 명은 안에, 순군(巡軍) 오십 명은 밖에 옹위하여 새 새끼, 쥐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존(至尊)이 계시니 이만함도 당연하거니와 이것이 반드시 지존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이날에 왕께 근시하는 내시와 궁녀는 왕의 마음대로 택하신 것이니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金衍), 한송(韓崧)이든지 지밀 나인 윤연화(尹蓮華), 이월담(李月潭)이든지 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이다.

왕은 잠시라도 쓸쓸하고 뒤숭숭한 궁중 생활을 떠나서 하루 저녁으로 사랑하는 동기들과 같이 유쾌히 지낼 양으로 내시들까지도 물리고 극히 조용하게 웃도 놀고 이야기도하고 과일 등속도 잡수시고 혹은 안석에 기대기도 하고 혹은 베개도 말고 팔굽이를 베고 누워서다리도 버둥거리었다. 왕은 이날에 심히 유쾌하신 모양이었다. 경혜 공주, 경숙 옹주 두 분 누님도 왕이 기뻐하심을 만족히 여기어 아무쪼록 흥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로 장난할 것을 장만하였다.

왕이 등극하시면서 곧 왕과 동갑이거나 한두 살 위아래 되는 계집아이 넷을 나인으로 택하여 항상 왕의 곁에 있어서 시종하고 장난 동무도 하게 하였다. 나인이라 하지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큰 세력이 따라다니므로 그 네아이 중에는 양반 집 딸이 둘이나 있었다. 어리신 왕이 장차 왕후를 채립하실 때에 다행히 간택에 들면 그 딸의 아버지는 국구(國舅)로 한 번 세도를 하여 볼 수 있는 까닭이다. 그 양반 집 두 딸이란 것은 하나는 판돈녕 부사 송 현수(判敦寧府事宋玘壽)의 딸이요, 하나는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의 질녀였다. 둘이 다 상감보다 한 살 위이어서 열 네 살이요, 덕은 자라난 뒤에야 알겠지마는 재색이 겸비하였었다.

이렇게 지체 높고 세력 있는 집에서 딸을 궁녀로 들여 보내는 것은 그리 흔치 아니한 일이지마는 이때에 있어서는 기실은 왕후 후보자였던 것이다.

이 네 아가씨들은 국상 중이라 비록 채색 옷은 못 입는다. 하더라도 온 장안을 떨어서 골라낸 인물이라 몸가짐일지 목소릴지 꽃송아리와 같이 아름다웠다. 아직 남녀의 정을 알 까닭도 없고 권세도 알 까닭이 없지마는 그래도 저마다 어리고 아름답고 인자하고다정하신 왕에게 깊이 정이 들어 다투어 왕께 가까이하려 하였다.

왕도 이 어린 궁녀들을 사랑하였다. 아름답다든지, 얹전하다든지, 영리한 것도다 제치어 놓더라도 동갑 사이의 어린 동무로도 깊이 정이 들 것은 자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도 왕은 송씨와 장씨(張氏) 두 사람을 더욱 사랑하였다. 정씨는 특별히 미워함은 아니나 까다롭고 쌀쌀한 정 인지를 생각한 때에는 그의 질녀 되는 정씨도 정이 떨어지었던 것이다.

이 네 아기 궁녀도 무론 왕을 따라 영양위 궁에 왔다. 왕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 네 계집아이가 따랐다. 이 네 계집아이(송씨, 정씨, 장씨하고 또 하나는 한씨)는 왕에게 가장 친근한 이로 모든 사람의 부러워함을 받았다. 이날도 왕께 대하여 끝 없는 사랑을 가진 경혜 공주는 아무리 동기라 하더라도 군신지분(君臣之分)이 있으니 그 애정을 직접 왕께 표하지는 못하고 어린 아기 궁녀들에게 대신으로 주는 듯하였다.

이렇게 이날 밤 영양위 궁 안방에는 기쁨과 정다움과 웃음이 차고 넘치어 밤이 깊을수록

더욱 그 즐거움이 깊어가는 듯하였다. 혹시 피차에 몸에 입은 상복을 바라보고는 승하하긴 부왕을 생각하여 잠시 눈물이 고이는 때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은 쫓대 휘황하게 밝은 촛불 빛에는 눈물조차 한숨조차 아름답고 즐겁게 되고야 마는가 싶었다.

현실에 멀리 모시고 있는 늙은 상궁들과 내시들도 모두 마음 놓고 하사하시는 술과 음식에 취하고 배불리 가느란 눈으로 어리신 성상(聖上)의 만수 무강하시기를 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평한 시간은 오래 가지를 못하였다. 영양위 궁 대문 밖에는 난데 없는 말발굽 소리가 울리었다. 수양 대군이 감순 홍달손(監巡洪滄孫)의 부하인 순군(巡軍) 이백 명과 한 명 회가 거느린 무사(武士) 백명의 용위를 받아 상감의 행재소(行在所)인 영양위 궁으로 달려온 것이다.

이 삼백여 명 군사의 둘레는 소리는 영양위 궁 안방에 까지 들리었다. 방금 어린 데 궁녀가 손을 마주잡고 돌아가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노던 달아.”

를 부르던 때다. 왕은 놀라는 듯이 손으 르들어 궁녀들의 노래를 막으며,

“바깥이 왜 이리 소란하냐?”하시었다.

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만 가지는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이게 웬 인마의 소린고?”하신다.

공주들도 놀라서 왕과 같이 귀를 기울이고 어린 궁녀들도 노래를 그치고 눈이 둥그래서 왕고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마 순군들이 순 도는 소린가 보오.”

하는 지밀 나인 윤 연화가 아뢰인다.

“그렇기로 저렇게 요란할까. 승정원(承政院)에 알아올리라 하여라.”

하고 왕은 안심을 못하시는 모양이었다.

나인은 내시에게로 달려가고 내시는 사랑에 임시로 있는 승정원으로 달려갔다.

이때에 수양 대군은 영양위 궁 대문에 와서 시급히 상감께 주달할 일이 있으니 정원을 부르라 하여 입직승지(入直承旨) 최항(崔恒)이 뛰어나왔다 그러나 밤이 깊은 지라 문을 열지 아니하고 문 틈으로 서로 말을 주고 받고 하였다.

최 항은 입직하기 전에 벌써 정 인지에게서 오늘 일의 계교를 들었으므로 내심으로는 수양 대군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었던 터이다. 만일 최 항이가 아니하려면 이 밤에 수양 대군이 상감께 뵈옵지 못할 것이요, 상감께 뵈옵기 전에 김 종서 죽인 소문이 영의정 황보 인이나 병조 판서 민 신의 귀에 들어가면 수양 대군의 일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되면 지금 거느리고 온 삼백 명 군사로 영양위 궁을 들이치고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敗則逆賊)의 최후 수단을 써야만 될 것인 즉 아직 여기까지는 나아갈 용기도 없고 준비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이날 최항 한 사람의 향배(向背)는 수양 대군에게는 대단히 큰일이었다.

최 항도 비록 정 인지의 부탁도 받았고 또 이번 일이 잘만 되면 일신의 부귀도 얻을 줄은 알지마는 그래도 정작 수양 대군을 대하고 보니, 곧 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만일 수양 대군을 들였다가 일은 틀리고 상감의 노여심만 받으면 어느 귀신이 집어가는지도 모르게 모가지가 날아갈 것이다. 최 항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주저하였다.

수양 대군이 문 열라는 재촉이 성화 같을수록 최 항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수양 대군은 최 항이가 주저하는 뜻을 짐작하였다. 만일 김 종서가 이미 죽은 줄만 알면 최항도 안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 대군은 대문 틈에 입을 대고 들릴락 말락한 음성으로,

“적괴(賊魁)는 벌써 없애버렸네.”

하고는 다시 소리를 높이어,

“긴급히 친계(親啓)할 일이 있으니 정원은 바빠 문을 열라.”

하고 외치었다.

그제야 최 항은 문 지키는 군사를 시키어 문을 열게 하였다.

내금위(內禁衛) 봉석주(奉石柱)도 벌써 정 인지의 부탁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빠격하고 문이 열리며 문 안에 들어서는 길로 수양 대군은 최항의 손을 잡았다. 최항은 황공하여 두 손으로 수양 대군의 손을 받들어 잡고 허리를 굽히었다.

법대로 하면 입직 승지가 먼저 상감께 여짜와 알현(謁見)을 허하심을 받는 것이 옳지마는 수양 대군은 최 항의 손목을 잡아 끌고 자기가 앞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에는 밖에서 무엇이 요란하나 알아 올리라는 왕명을 받들고 승지한테 나왔던 내시가 뛰어들어가서 수양 대군이 무슨 긴급히 주달할 말씀이 있으니 문을 열라고 한다는 뜻을 아뢰인 후였다.

“이 밤중에 무슨 긴급한 일이 있담. 그렇기로 왜 군사는 그리 많이 데리고 다녀.”

하고 왕은 더욱 의심스러운 듯이 늙은 내시를 바라보았다. 늙은 내시의 낮빛에도 안심 못 되는 빛이 있었다.

왕은 벗어 놓았던 의관을 정제하려 하였다.무서운 숙부를 이렇게 풀어 해친 모양대로 대할 수는 없던 것이다. 공주들과 영양위 정 종과 나인들 모두 옷깃을 바르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에 흩어지었던 옷가락과 밤, 잣 같은 것을 다 치우기도 전에 퐁퐁하는 소리가 나며 수양 대군이 썩 들어섰다.

왕은 수양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사모를 바로 쓰며 한 손으로 띠를 바로 잡았다.

수양 대군은 살기 있는 눈으로 방안을 한 번 둘러 보고 왕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기다려 그 앞에 꿇어 엎드리었다---

“인(仁), 종서(宗瑞) 놈들이 모반을 하옵기로 일이 급하와 미처 여쭙지 못하옵고 적괴 중서를 베이옵고 그 연유를 상감께 아뢰오.”

하였다. 수양 대군의 말에 왕이 깜짝 놀라며,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하여?”

하고 소리를 높이지었다.

“그러하외다. 인, 종서가 겉으로는 충성이 있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안평대군옹(安平大君 瑬)과 왕래하옵고 광식친당(廣植親黨)하와 분거중외(分據中外)하옵고 음양사사(陰養死士)하여 비사 후패로 힘쓰고 무예 있는 잡류를 모아들이옵고 변읍(邊邑) 병기를 가만히 서울로 실어들이어 불궤(不軌)를 도모한지 오래외다. 신(臣)은 그 눈치를 안지 오래오나 미리 발설하면 도리어 상감께 위태하심이 있을까 하와 가만히 그놈들의 형세를 살피옵더니 오늘 시월 십일에 상감께서 영양위 궁에 거동하시는 기회를 타서 밤 오경에 영양위 궁을 엄습하려는 피를 세운 줄을 아옵고 신이 몸소 종서의 집에 가서 종서를 죽이고 오는 길이오나 아직 여당(餘黨)이 남아 있사오니 형세가 잠못 위급하옵니다.”

하고 수양 대군이 아뢰었다.

왕은 더욱 놀라시며,

“아니, 그럴 수가 있겠소. 인과 종서가 무엇이 부족하여 역모를 하다니. 그럴 수가 있겠소?”

“늙은 것들이 심히 음흉하외다. 상감께서 어리신 것을 타서 안평 대군을 세우려 함이외다.”

“안평 대군이라니? 안평 숙부가 나를 반한단 말이요?”

하고 왕은 수양 대군을 바라보았다.

수양 대군은 차마 왕의 눈을 바로바라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며,

“안평이 담담정(淡淡亭)과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이룩하고 천하의 선비를 모아들이는 것이외다 까닭이 있는 것이외다.

하고 왕의 주의를 안평 대군에게로 끌려고만 하였다.

수양 대군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 왕의 생각에 또 그럴듯도 하였다. 더구나 이 밤으로 자기를 해하려 올 계획을 하였다 하니 열 세 살 된 왕에게 겁이 앞설 것도 자연한 일이다. 수양 대군이 이처럼 자기 앞에 부복한 것을 보면 당장 수양 대군이 자기를 해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 하면 이 처지에 있어서 왕이 믿을 곳은 수양 대군 밖에 없는 것 같았다. 더욱이 수양 대군의 용모에 부왕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은 숙부인 수양 대군을 의지하는 생각이 더 나는 듯하였다.

“그러면 인, 종서와 같이 역모(逆謀)에 참여한 놈이 몇 놈이나 된단 말이요?”

하고 왕은 어린 아이답지 아니한 말을 물으시었다.

수양 대군은 옳다구나 하는 듯이,

“좌찬성 이양(左贊成李穰)허옵고.”

하고 꼽기를 시작한다.

“이 양이라니? 이 양이면 종실 아니요?”

하고 왕은 한 번 더 놀라고 의심하는 빛을 표하였다. 이 양은 태조 대왕의 서형의 아들이다.

“그러하외다. 이 양도 안평의 패외다.”

“또.”

하고 왕이 재촉하신다.

“병조판서 민신(兵曹判書閔伸)허옵고, 이조판서 조극관(吏曹判書趙克寬)허옵고…….”

“어, 병조 판서 이조 판서도?”

“예, 그러하외다. 민신, 조극관이 본래 종서의 무리외다.

“그러면 정부와 육조가 다 역모에 들었던 말이요?”

“윤처공(尹處恭), 이명민(李命敏), 원구(元矩), 조번(趙蕃) 등은 안에서 응하옵고 함길도 절제사 이 정옥(咸吉道節制使李澄玉)은 종서의 심복이옵고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경유는 이 정옥의 명을 받아 병기(兵器)를 종서의 집으로 실어왔삽고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조수량(趙遂良), 충청도(忠淸道) 관찰사(觀察使) 안완경(安完慶)은 다 이 무리외다.”

수양 대군이 역적이라고 꼽는 사람을 보니 대개가 부왕이신 문종 대왕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다 역모를 하였던 말이요? 아바마마의 고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왕은 진실로 무서움에 놀리어 몸이 떨림을 깨달았다.

황보 인, 김 종서, 이 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신, 조극관도 어린 생각에나마 왕이 잘 알고 믿더 나바다. 선조께서도 왕의 등을 만지시며 그 사람들의 충성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참소를 하더라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유훈이 계시었다. 아바마마를 가장 믿으시는 왕은 아바마마의 유훈을 한 마디라도 의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늙고 충성스러운 내시 김연(金衍)과 한승(韓崐)두 사람도 매양 황보 인과 김 종서 등의 충성을 일컬었다. 태종 대왕 때부터 충성으로 신임을 받아오는 이 두 늙은이가여러 대관들의 성질을 잘못 알 리가 없고 또 왕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목전에 친숙부 되는 수양 대군이 있지 아니한가. 오늘 밤으로 나를 해하려고 역모를 하는 것을 이 숙부가 알았다고 하지 않는가. 아무리 신하들이 충성되기로 부자나 다름 없는 혈족의 친함에 비기랴.

와은 무서움과 의심됨, 놀라움의 엉클어진 정서(情緒)에 얽히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에 늘 하던 습관으로 방 한편 구석에 읍하고 섰는 김연, 한 승 두 내시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너희들이 충신이라고 일컫던 인과 종서가 역모를 한다는구나.”

하시었다. 두 내시는 수양 대군이 들어온 뒤에 얼마 있다가 들어왔으므로 왕은 그들에게 일변 사정을 알리고 일변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이었다.

늙은 내시들은 김 종서가 수양 대군의 손에 죽은 줄을 알았고 그렇다 하면 이것이 모두 수양 대군의 음모인 줄도 알았다. 다만 모르는 것은 수양 대군의 야심이 어디까지나 가서 그칠까 함이었다. 만일 황보 인, 김 종서나 치어버리고 만다 하면 참을 수도 있으려니와 수양 대군이 어리었을 때부터 길러내나 다름이 없는 김, 한 두 내시는 수양 대군의 야심이 거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용상(龍床)에 올라 앉는 것임을 짐작한다. 그렇다 하면 늙은 목숨이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할 때가 이때다. 천하고 늙은 몸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오직 물 불도가리지 아니하는 한 조각 충성된 마음과 부월로도 능히 굽히지 못할 굳은 혀가 있을 뿐이다.

김연은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씻으려 하지 아니하고 두어 걸음 왕의 앞으로 기어 나와 엎드려,

“소인 김연(金衍)이 아뢰오. 소인이 비록 천한 놈이 오나 태종 대왕마마 때부터 지존(至尊)께 가까이 모시와 금상(今上)마마까지 사조(四朝)로 모시오니 이래 사십년이 넘었사옵고 그 동안에 들고 난 문무제신(文武諸臣)을 모르는 이가 없사옵거니와 문장 도덕이라든지 경국제세지재는 소인 같은 천한 놈이 알배 아니오나 지약 충성하와는 황보 인, 김 종서를 따를 사람이 없사온 줄을 벌레 같은 소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오라, 동방 요순이옵신 성주(聖主) 세종 대왕께옵서도 매양 칭찬하옵시었고 선조께서도 특히 그 충성을 일컬으시와 주상 전하를 보좌하옵도록 고명이 계시오니 상전이 벽해가 되옵고 한강에 물이 마를 날이 있사옵더라도 인과 종서 두 대신이 모반을 하리라고는 비단 소인뿐 아니라 천지신명도 생각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오. 수양 대군 나으리께서 상팔 무엇을 잘못알고하심인 듯하오니 복원 성상께옵서는 밝히 살피시와 뿌리 없는 참소를 가며이 믿으시고 국가의 동량이 되는 충신들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고 금시에 피라도 날 듯이 이마를 조아리니 뒤에 엎드리었던 늙은 내시 한 승도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연(衍)의 말이 지당하오.”한다.

실내에는 처참한 기운이 돈다.

수양 대군은 살기 있는 눈을 들어 김 연을 노려 보았다.

왕은 수양 대군과 늙은 내시 연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끄덕하시었다.

연은 이 기회를 타서 한번 더 힘 있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저 역모란 것은 국가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품는 자가 하는 일이외다. 인은 벼슬이 영의정이옵고 종서는 좌의정이옵고 그밖에 이양, 민 신, 조 극관 같은 사람들이 벼슬이 공경에 달하여 영화가 극하옵거든 무엇을 더 바라고 천벌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역모를 하오리이까. 이로 보아도 인과 종서가 모반을 한다 하옵은 말이 되지 아니하는 말인가 하오. 또…….”

하고 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승은 이마를 조아리며,

“상감마마, 과연 연의 아뢰는 말씀이 지당한 줄 아뢰오. 만일 참소를 들으시옵고 충신을 해하옵시면 스스로 우익(羽翼)을 자르심과 다름이 없사외다. 황보 인이가 역심을 품는다고 하면 누가 곧이 들겠소이까. 하물며 김 종서의 충성을 의심하옵신다 하면 백세(百世)에 웃음을 끼치실 줄로 아뢰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수양 대군 나리께옵서는 어느 간사한 무리의 거짓말을 믿으시고 경동하심인가 하오니 복원 성상은 밝히 살피시오.”

한다. 그 말이 마디 마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듯하였다.

“수양 대군은 참다 못하여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대었다.

“네,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상감이 어리신 것을 기화로 여겨 역적놈들과 내통한 죄만 하여도 만 번 죽어 아까움이 없거든 하물며 주상 전하 앞에서 무엄한 입을 놀리고 또 나를 잡으니 네, 이 요망한 늙은 것들이 모가지 아까운 줄을 모르느냐.”

하고 수양 대군은 왕을 향하여,

“상감, 이 두 늙은 이 적괴(賊魁) 종서 놈의 심복이외다. 이 능구리 같은 놈들이 또 무슨 흥계를 할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두 놈을 신에게, 내어주소.”

하고는 왕이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칼을 빼어 들고 김연, 한승 두 늙은 내시를 어르며,

“냉큼 물러나거라!”

하고 호령을 한다.

김 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수양 대군을 노려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나으리가 아무리 나라의 숙부시기로 군신 지분이 지엄하거든 감히 성상 앞에서 무엄히 칼을 빼니 이것도 차마 하거든 무엇이 못하겠소? 나으리가 먼저 물러나가 계하에 대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늙은 김 연이 살아서는 상감마마 곁을 아니 떠날 줄 아시오.”

하는 소리에는 마디 마디 서리가 날린다.

“이 요망한 천한 것이!”

하고 수양 대군의 칼은 촛불에 번쩍하며 김 연의 늙은 목을 내려 치었다. 목은 방바닥에 떨어지어 굴고 피는 솟아 상감의 옷자락을 붉게 물들였다.

“나으리, 눈을 보니 충신의 피를 많이 흘리게 생겼소. 나으리 손에 죽는 사람이면 충신 아닐 이 없으니 엇소, 나도 죽이시오. 내 늙은 목은 마음대로 베이더라도 부디 외람된 마음을 랑 먹지 마시오. 충신의 피가 어느 때에나 소리를 치는 것이외다.”

하는 한 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양 대군의 칼은 한 승의 왼편 어깨에서 비스듬히 가슴을 내려 베었다.

경혜 공주와 경숙 옹주는 기색하여 쓰러지고 궁녀들은 방구석에 달라붙어서 발발 떨었다. 승지 최 향도 무릎이 덜덜 떨리고 이가 딱딱 마주치었다.

오직 늙은 궁녀 윤연화(尹蓮華)가 두 팔을 짹 벌리고 왕과 수양 대군 사이에 썩 나서서



몸으로 왕을 가리우며,

“나으리, 너무 무엄하지 않소?”

하고 소리를 질렀다.

수양 대군의 칼이 늙은 궁녀를 범하려 할 때에 왕은 황망히 수양 대군의 칼 든 팔에 매어 달리시며,

“숙부, 날 살리오!”

하고 소리를 내어 울으시었다.

수양 대군은 왕의 우는 얼굴을 굽어보았다. 비록 심히 숙성하신 왕이라 하더라도 우는 얼굴은 더욱이 어리시게 보이였다. 수양 대군은 피묻은 칼을 옷자락으로 찢어 칼집에 넣었다.

수양 대군은 왕께 대하여 잠시 측은한 마음이 생기었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두 늙은 내시를 베이던 칼로 왕을 해하였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수양 대군 자신도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되다. 역적 놈의 피수는 벌써 죽었으니 다른 놈들을 없애기는 여반장이되다. 신이 잘 처치할 것이니 상감은 주무시오.”

하고 승지 최 항을 시키어 명패(命牌)를 내어 영의정 황보 인, 좌찬성 이양, 이조판서 조 극 관 이하 요로 대관을 부르라 하였다. 좌의정 김 종서는 이미 죽었고 우의정 정분(鄭笨)은 전경도(全慶都)체찰사(體察使)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은 현능비석소(顯陵碑石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밤에는 아니 불렀다.

이렇게 수양 대군이 섭정이나 된 듯이 자행 자지하는 것을 보고도 인제는 말 한 마디 할 사람도 없었다. 최항 은 인제는 수양 대군이 세력을 잡을 것이 분명한 것을 보고 안심하여 족불 부지하게 정원인 사랑으로 뛰어나가 선전관 한 회에게 명패를 내어 주어 제재(諸宰)더러 즉각으로 입내(入內)하랍시는 어명을 전하였다.

상감은 목전에 김연, 한 승 두 내시의 피묻은 시체가 놓인 것을 보고 또 수양 대군의 허리에 피묻은 칼이 있는 것을 보니 이 자리에 잠시도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환궁하실 뜻을 말씀하시었으나 수양 대군은 적도(敵徒)를 다 소멸하기까지는 환궁하시는 길이 위태하다는 핑계로 왕을 붙들었다. 수양 대군이 ‘못하오’하면 왕은 다시 두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수양 대군은 영양위와 공주를 불러 상감을 조용한 다른 방으로 옮겨 모시어 주무시게 하기를 부탁하였다. 영양위도 일각이라도 바빠 수양 대군 앞을 떠나기만 원하였으므로 수양 대군의 말대로 왕을 부액하여 별당으로 모시고 공주와 경숙 웅주와 나인들도 뒤를 따랐다.

수양 대군도 왕을 호위하여 침소까지 이르러 다시 왕께 안심하고 주무실 것을 말하고 물러나올 할 때에,

“군사를 시켜 밖을 지키게 할것이니 무서우실 것 없습니다. 적도(敵徒)들은 신이 다 처치 하겠으니 상감은 안심하시고 주무시오.”

하고 한 번 더 안심하시기르 청하였다.

왕은 겨우 눈물을 거두시며,

“숙부, 황보 인은 선조중신(先朝重臣)이니 죽이지는 마오.”

하시었다. 수양 대군은 못 마땅한 듯이 왕을 한 번 노려 보고 물러나갔다.

수양 대군이 물러나간지 얼마 아니하여 군사들이 별당을 에워싸는 소리가 들리고 창부리를 언 땅에 울리는 소리가 사람의 몸에 소름이 기치게 하였다.

그러한 소리가 날 때마다 왕은 깜짝깜짝 놀라시는 모양을 보이시었다. 아까까지는 나라의 모든 군사들은 다 왕 자기만을 위하고 지키는 듯하더니 이제는 그들은 모두 수양 대군의 편

이 되어 사방으로서 왕을 해하려는 것만 같았다.

영양위 정 종의 왕의 침소에서 물러나가려고 하직 인사를 할 때에 왕은 그 팔을 붙들며,  
“어디를 가요? 여기 같이 이어서 어찌되는 양을 봅시다.”

하고 붙들어 앉히고 누님들과 궁녀더러도,

“아무러기로 오늘 밤 잠 자기는 틀렸으니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세상이 어찌되나 보자.”

하시고 물러가지 말라 하시었다.

이 말씀에 모두 소매로 낮을 가리웠다.

왕은 정 종의 말을 들어 훈련(訓練)도감(島監) 성승(成勝)에게 밀서를 내리시려 하였으나 나인 하나만 마당에 나서도 군사가 내달아 어디로 가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하여 두 손을 펴 보아라 하고 몸을 뒤지며 안 중문 밖으로는 고양이 하나 얼씬 못하게 하니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성 승은 성 삼문의 아버지다.)

왕의 침소에서는 왕 이하로 칠판 이 나사람들이 마치 갇힌 새 모양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맥맥히 서로 바라보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만 기울이었다.

이따금 경혜 공주와 경숙 응주의 참다 못하여 터지는 울음 소리가 방안에 울려 사람들의 분함과 슬픔을 자아내었다.

“그놈 최항 이놈도!”

하고 정 종은 이를 갈았다.

수양 대군은 감순(監巡) 홍달손(洪達孫)의 군사로 대문과 뒷문과 담 밖을 에워싸 제일문을 삼고 내금위(內禁衛) 봉석주(奉石柱)의 군사로 첫 중문을 지키게 하여 제이문을 삼고 수양 대군 궁에서 사사로 기른 소위 무사로 안 중문을 지키어 제삼문을 만들어 쥐 한 마리, 물 한 방울 쉼 틈 없이 철통감이 짜놓고 다른 일대 군사로는 상감을 시위한다는 명목으로 별당인 상감의 침소를 에워싸 아무도 뒷간 출입 외에는 들고 나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홍 달손이 첫문에 지키어 있어 대관이 부르심을 받아 들어오는 대로 첫 문에서 종자(從者)를 떼게 하고, 봉석주가 둘째 문을 지키어 들어오는 대관의 벼슬과 이름을 큰소리로 외우리고 하고 그리하면 문 안에는 한 명회(生殺簿)를 들고 앉았다가 봉 석주가 부르는 이름이 사부(死簿)에 있는 자면 일어나 맞는 체하고 손을 들어 죽이라는 군호를 하고 그리하면 문 뒤에 숨어 섰던 홍윤성(洪允成), 양정(楊汀) 및 함귀(咸貴)등의 역사가 철여의를 들어 단간에 박살하도록 하고 만일 이름이 생부에 오른 자면 인도하여 제삼문을 들어가 수양 대군이 입직 승지 최항을 데리고 앉은 대청으로 불러 들리어 황보 인, 김 종서 등이 과연 역모를 하였다는 다짐 책에 이름을 두게 하고, 만일 듣지 아니하면 문밖으로 내치어 철여의로 끝장을 내도록 작정하여 놓았다.

밤은 점점 깊어 가는데 영양위 궁 안 마당과 바깥 마당과 후원은 조롱불로 마치 불난 집 같고 그 불빛에 군사들의 든 창 끝이 무섭게 번쩍번쩍하였다.

“이게 어디 오나. 어느 놈이 먼저 내 철여의 말을 보려는고.”

하고 손으로 시커먼 철여의를 한 번 만지는 것은 양 정이다.

“압다 이 사람, 자네는 벌써 종서 놈을 하나 잡지 아니하였다. 생각하면 분하이. 내가 아까 그놈의 집애를 갔다가 왜 그저 돌아온담. 그놈은 꼭 내 손으로 잡았어야 할 게야.”

하고 홍윤성은 목전에 누구를 보는 듯이 무섭게 노려보며,

“이놈! 하고 그놈을……그놈을…….”

하며 이를 득 간다. 윤성은 종서의 손자에게 뺨을 얻어 맞던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 살마, 사람 다치리.자네 따위가 종서 앞에 가면 고양이 본 쥐같이 기운을 못 켜줄 것

일세. 지금 여기서나 큰소리를 하지.”

하고 빈정대는 것은 구치관이다.

한 명희는 이 작자들의 말은 들은 체 만 체하고 갓을 폭 수그러 쓰고 초롱불에 생살부를 펴놓고 책장을 넘기며 어떤 이름을 사부에 옮기기도한다. 오늘 밤으로 대관의 죽고 살기는 전혀 한 명희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명희는 과연 소원대로 염라 대왕이 된 것이다.

“한놈 들어왔으면 좋을텐데.”

하고 홍윤성이 철여의를 번쩍 들어 사람 치는 연습을 하는 모양으로 한번 허공을 내려친다.

명희도 어서 그 쟈 체하는 고관 대작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군호 한 번으로 미친 개 맞아 죽 듯이 맞아 거꾸러지는 양을 보고 싶었다.

“흥, 그 아니꼬운---조가놈. 이놈 내가그만치 청을 했건만 원한 자리도 아니 주고 이놈이 오늘 나를 보고 살려달라는 꼴을 보았으면 속이 다 시워하겠다.”

하고 철여의 든 세 사람을 향하여,

“자네네들 중에 누가 그 조가 놈을 아나?”

하고 그 사팔뜨기 눈을 부릅뜬다.

“조가라니. 장안에 조가가 한 사람뿐인가.”

하고 홍 윤성이가 웃는다.

“아, 그 이조판서(吏曹判書) 조극관(趙克寬)이놈 말이야.”

명희의 이 말에 윤성과 양 정은 서로 바라본다. 시골서 올라와서 벼슬도 못하는 놈들이 이조 판서의 얼굴을 먼발치 우러러 볼 기회라도 있었을 리가 없었다. 그중에 오직 구치관이 벼슬은 아직 전적(典籍)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과거한지 이십년이나 되도록 각 마을로 미관 말직을 다니었기 때문에 대관들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벼슬 아니 올려 준다고 평생에 미워하던 조극관. 황보 인의 얼굴을 그믐 밤에라도 못 알아낼 리가 없었다. 오늘 밤 이 중임을 맡은 것도 그 덕이었다.

“구전적(具典籍) 나으리가 중방 밑 귀뚜라미니까 잘알겠군.”

하고 홍 윤성이가 웃는다.

구치관(具致寬)도 한 명희의 이른 바 불평객 중의 하나다. 그가 수십년 환로(宦路) 옥(玉)관자(貫子)하나 못 얻어 붙이고 매양 불평한 눈치를 보고 명희가 수양 대군의 이름을 팔아서 끌어온 것이다. 구 치관은 신 숙주, 박팽년, 성삼문등과 거의 동시에 즉 세종 갑인에 문과에 오른 사람이다.

수양 대군 휘하에 들어가서는 각 마을의 내정과 대관들의 언동을 염탐하는 일을 맡았고 오늘 밤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직분을 맡은 것이다. 구치관이가 보기에 저보다 벼슬이 높은 놈은 다 자기의 원수연마는 그중에도 미운 것은 황보 인과 김 종서와 민시노가 조 극관이였었다.

“이놈들이 나를 괘시하고…….”

이렇게 그는 대관들을 원망하였다. 황보 인, 김 종서가 특별히 구 치관을 괘시한 것도 아니 었건마는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여 원한 자리도 아니 시키어 주는 것은 곧 자기를 괘시함이 었다. 오늘 밤에 그는 이십년래에 쌓이어온 분풀이를 한 번 실컷 하게 되었다. 이점으로 구 치관은 한 명희와 동지였다.

“조 극관이면 내가 길러내었네.”

하고 치관은 명희를 보고 웃었다.

“응,자네가 잘 알겠네그러. 자네도 어지간히 그놈한터 청도 해보았을 터이지.”

하고 명회가 붓대를 서안에 던진다.

“군자(君子)가 그만 애자지원(睚眦之怨)을 염두에 두겠나.”

하고 치관은 소매를 들어 콧물을 씻는다.

“군자!”

하고 홍 윤성이 꺾꺾 웃으며,

“군자 다 집어치워라 애. 쇠몽둥이로 사람 잡는 놈이 군자는 무슨 빌어먹다 죽을 군자야, 군자.”

하고 아니꼬운 듯이 땅에 침을 뱉 뺀고는 발로 쓱쓱 비빈다.

윤성의 말에 치관은 부끄러운 듯이 머쓱하고 명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코웃음을 한다. 명회도 윤성의 말이 좀 듣기가 거북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명회는 무엇이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 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얼른 한 손으로 망건 편자를 만지고 한 손으로는 붓을 들어 생살부 꺾데기에다가 되는데로 글자를 그적거렸다. 그 글자 중에는 공경 경자와 도올 양자가 많이 있었다. 무심히 그적거리는 중에도 경덕궁(敬德宮)이란 것과 양양(襄陽)이란 것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많이 죽이어서라도 일신의 부귀 영광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겨연꿈에 궁직으로 기왓장이나벗겨 팔아 먹고 사는 것이, 또는 양양에 도적 두목의 편지나 써 주고 얻어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할걸 하고 명회도 모르는 사이에 명회의 마음이 뉘우치는 것이나 아닌가.

명회만 아니라, 그렇게도 팔을 뺐내던 홍 윤성, 양 정도 담 밑에 착 달라 붙어서 눈이 멀 뚱뚱하고 구 치관은 더구나 안절부절을 못하는 듯이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무릎이 떨리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잘하지 아니하면 일생 영화는 아주 달아나고 마는 것이다. 그저 눈 꼭 감아라! 쓴 약 먹는 모양으로 눈 꼭 감고 꿀떡 삼켜라! 이렇게 스스로 편달하면서 구 치관은 정말 무엇을 삼키는 듯이 눈을 꼭 감고 꿀떡 삼키었다. 그렇게 마음을 맵게 먹으면 적이 무릎 떨리는 것이 덜 하는 듯하였다.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이양(李穰)! ”

하고 봉 석주가 홀기(笏記)부르듯이 길게 부르는 소리가 나자 백발이 성성하고 키꿀 큰 점잖은 늙은 대관 한분이 사모 관복에 손을 읊하고머리를 약간 숙이고 바로 상감 앞에 있는 듯한 조심하는 태도로 중문 안으로 들어선다. 유덕하기로, 근엄하기로 이름 높은 이 양이다.

이 양이면 명회의 손에 있는 사부(死簿)에 셋째로 이름이 오른 사람이다. 첫째가 김 종서, 둘째가 황보 인, 셋째가 우의정 정 문이라야 옳을 것이언마는 정문은 전경도 도체찰사로 밖에 있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중요하게도 보지 아니한 것이다.

한명회는 손에 들었던 붓으로 이 양이란 이름 위에 점 하나를 치고는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다.

그제야 이 양도 좀 수상하게 생각하였다. 행재소(行在所)면 변시 궁중이어늘 중문 안에 웬 불량스러운 선비 같기도 하고 한량 같기도한 것들이 현 망건 때문에 중추막으로 구석구석이 들어서고 게다가 웬 괴물 같은 작자가 사팔뜨기 눈을 번쩍거리며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번쩍 드니 이것이 수상하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양은 잠깐 거룻목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려 하였다.

‘이것이 분명히 이야기이다.’

하는 뜻이다. 치만은 관복을 입었다.

이 양은 치만을 어렵듯이 알아보고 적이 의혹을 품 듯이 다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 양이 두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홍 윤성과 양정의 철여의가 이 양의 머리와 등을 동시에 내려치었다.

이 양은 소리도 없이 땅에 거꾸러지어 입으로 피를 토하였다.

치만도 가만히 있어서는 공이 깎일 것 같아서 눈을 뜨고 피거품 문 입을 움직이려 하는 이 양의 양미간을 철여의로 내려 부수었다. 얼굴은 알아 보지도 못하게 으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점잖고 엄숙하던 이양은 피투성이 송장이 되어 누웠다. 진실로 “아이고”소리 한 마디 아니 나고 사람의 목숨 하나가 끊어지었다.

“이사람.”

하고 윤성이가,

“한림학사 사람 치는 법은 그리한가. 그렇게 낮바닥을 바싹버리면 누군지 알 수가 있나.”

하고 우 치만을 보고 픽 웃는다.

‘이놈이, 이 종의 자식 놈이 인제는 사뭇 허계를 하려 드는구나.’

하고 치만은 분하였다. 그래서 한 번 윤성을 흘려 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은 우참찬정인지(右參贊鄭麟趾)다. 집현전(集賢殿) 교리(敎理) 신숙주(申叔舟)가 뒤를 따랐다.

명회는 일어나 공손히 인지에게 읊하였다. 인지는 곁에 놓인 시체를 보고,

“누군가?”

하고 명회에게 묻는다.

“이 양이오.”

하고 명회와 치만이 일제히 대답한다. 서로 대답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인제 겨우 하나야?”

하고 인지는 불만한 듯하였다. 그러나 명회를 위로하는 듯이 한 번 웃어 보이고 이 양의 흘린 피를 아니 밟을 양으로 사뭇사뭇 골라 디디며 안으로 걸어들어간다.

숙주는 명회는 본 체 만 체하고 치만이다더러 웃음을 바꾼다. 그리고는 명회와 윤성, 양정을 경멸하는 눈으로 한 번 슬쩍둘러보고는 역시 땅바닥에 고인 이 양의 피를 피하여 피 없는 데를 골라 디디면서 인지의 뒤를 따른다.

“주리를 할 녀석.”

하고 명회가 숙주의 뒤를 흘려본다.

“홍, 이녀석 모든 일은 다 네가 하는 것 같지. 홍, 모두 내님의 계교야. 네까진 놈 백 놈 있어 보아라. 김 종서 발가락 하나나 건드리나.’

이렇게 명회는 숙주를 원망하였다. 명 나라에 종사(從事)로 데리고 갔다 온 이래로 수양 대군은 신 숙주를 사랑할뿐더러 신복을 만들었다. 정 인지를 완전히 수양 대군 편을 만든 것도 신 숙주의 공이 많은 것이다. 숙주는 수양 대군과 정인지 사이의 혀와 같았다.

그렇지마는 한 명회가 보기에는 신 숙주는 자기가 세운 공을가로 채어 먹는 도적놈같이만 보였다. 가만히 앉아서 오늘 일이 패하면 나는 모르오 하고 여전히 벼슬을 다니고, 만일 성사가 되면 남보다 먼저 나서서,

“이 일은 모두 내 공이요.”

하려는 것만 같았다.

“홍, 국밥 다 지어 놓으니까 먹으러만 살랑살랑.”

하고 명회는 인지와 숙주가 문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일 때까지 노려 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이 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다.

마당에 흥건한 피를 보고 깜짝 놀라 땅에 발이 붙은 듯이 우뚝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피 있는 곳에서 사 오보동쪽으로 허영게 엎어 놓은 이 양의 시체가 등불의 춤추는 빛을 받아 마치 들먹들먹 움직이는 것 같다.

천생 감격성이 많은 허 후는 좌우에 벌리어 있는 것이 누군 줄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웬 일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역적 이양이요.”

하고 치만이가 읊한다.

허 후는 보니 평소에 아는 우 치만이다. 허 후는 치만의 위 아래를 훑어보더니,

“역적 이 양이라니? 이 양이가 언제 역적이 되었던가.”

치만은 더 할 말이 없었고 명회는 나른 데를 돌아보고 픽 웃었다.

허 후도 당연히 죽을 것이지마는 작년 시월 수양 대군이 명 나라에 간다고 할 때에,

“지금 재공이 빈전에 계시고 백성이 의심 속에 있거든 나으리가 나라에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시다니 될 말이오.”

한 것이 수양 대군의 비위에 맞아서 이름이 사부에 오르기를 면한 것이다.

허 후는 장히 못마땅한 듯이 서너 번 고개를 흔들더니 한 명회, 홍 윤성 등을 한 번 노려보고 도로 나갈까들어갈까를 결정하지 못하는 듯이 잠간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간다. 허후의 그림자가 수양 대군 있는 대청 앞에 다다르려 할 때에,

“이조판서(吏曹判書) 조극관(趙克寬)!”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허 후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하고 획 돌아섰다.

중문을 통하여 우 치만이가 조극관 앞에 읊한 모양과 한 명회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는 양이 불빛에 비치어마치 귀신과 같았다.

허 후는 발을 돌려 안 중문까지 나와서 가만히 내다보았다.

그 중에 한 놈이 길다란 그림자를 끌고 어두운 속에서 내달으며 철퇴를 들어 조극관의 뒤 통수를 갈기는 모양이다. ‘아이쿠’소리도 들리는 듯 마는 듯 조극관의 관복 자락이 펄럭거리며 땅에 거꾸러지는 것이 보이고, 그러자, 우 치만이가 발을 들어 극관의 가슴을 서너 번 차는 양이 보이고 그 중에 한 놈이 허리를 굽히어서 극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몸을 흔들며 끼득끼득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또 한 놈이 철여의를들어서 조극관의 면상을 내려치는 것이 보이고는 다른 두 놈이 달려들어 극관의 몸(아마 시체일 것이다)을 발길로 굴리어서 이양의 시체 있는 곳에 밀어다 놓고 그 중 한놈이 극관의 발목을 잡아 한 편 구석으로 획 내어던지고는미친 놈의 웃음 모양으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도로 아까 모양으로 조용해지고 여러 놈의 그림자는 그늘 속으로 사라져어버리고 만다.

허 후는 이 광경을 다 보고 나서 “응 짹짹”하고 입맛을 두어 번 다시더니 모든 의미를 알았다는 듯이 대청을 향하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김중서 부자가 수양 대군의 손에 맞아죽었다는 소식은 성문이 열리기 전에는 장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또 서대문, 남대문, 서소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미 수양대군 편이 되어버린 홍달손의 군사고보니 더구나 김 중서 피해된 소식을 문안에 들여보낼 리가 없었다.

김 중서가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원구(元矩)를 시키어서 대신이 암살을 당할 번하였단 뜻과 상처가 중하니 내의를 하송하실 것을 상감께 아뢰려 하였으나 서대문, 남대문이

다 굳이 닫히고 아무리 하여도 열어 주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의정 황보 인은 김 종서 집에 생긴 일도 알지 못하고 저녁 후에 사랑에 앉아 한담하고 있었다.

이때에 선전관 한 회가 와서 즉각으로 입시하라는 명을 전하고는 다른 데 갈 길이 바쁘다 하여 당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말을 달리어 가버리었다.

이 뜻하지 아니한 부르심에 황보 인 집은 내외가 다 놀래었다. 황보 인도 방○ 들어가려고도 아니하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았다. 회고 길다란 수염이 가슴에 빛난다.

“초헌(軺軒) 내어라.”

하고 인은 마침내 명령하였다.

“아버지 들어가십니까?”

하고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한 걸음쯤 인의 뒤에 모시고 섰던 석(錫)이 한 걸음 나서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인은 잠간 아들을 보고는 그 시선을 피하는 듯이 고개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시니 아니 들어가겠느냐. 내가 오래 국운을 입고 한 일이 없으되 또 큰 허물도 없나니라.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낭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초헌에 올랐다.

인의 이 말은 최후의 유언같이 들리어 석, 흠(欽) 이하로 오지 꼬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인은 이 밤중에 위로서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대문을 나서매 자연히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인 것같이 생각되어서 비감함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까지 해로하여 온 부인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어린 손자들도 한 번 만지고 싶었다. 그러나 인은 왕명(王命)을 받아서 감을 생각하고 다만 사당을 향하여 잠간 읍하여 혹 영결이 될는지 모르는 하직을 고하였다. 그러나 초헌에 흔들리는 인의 허연 수염에는 눈물이 굴러 내렸다.

뒤에는 인의 아들 석이 종자 두어 사람을 데리고 머리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석은 이 밤에 부르시는 것이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의심하였고 그 의심 속에는 수양 대군의 모양이 번쩍 나타났다. 석은 작년에 종서의 아들 승규와 같이 수양 대군을 따라 명 나라에 갔었다. 신 숙주를 심목으로 사랑하면서도 승규와 자기와를 누구나 알아보게 미워하던 것을 기억한다.---그 수양 대군의 살기 있는 눈이 석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의심스러우니 가지 말라고 만일 자기가 아버지를 만류하면,

“신자(臣子)로서 군부(君父)의 명을 의심하는 법이 없나니라.”

하고 자기를 책망하여버리고 말 것을 석은 잘 알았다. 그러므로 감히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다만 뒤만 따라올 뿐이었다.

종묘(宗廟) 앞을 당도하여 사인(舍人) 이예장(李禮長)을 만났다. 그는 황황히 황보 인의 초헌을 붙들고 말한다.

“대감,가시지 마시오. 지금 영양위 궁에는 안팎으로 순군과 금군으로 들러섰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지마는 수양 대군 궁 무사란 것들이 들락날락하고안마당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아이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을 부르는 것이 다 수양의 농간인 듯하니 이 편에서도 막아낼 도리를 하는 것이 옳을 듯하외다.”

사인 이 예장이 황보 인의 초헌을 붙들고 만류하는 사이에 뒤를 따르던 황보 석도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와서 이 예장의 말을 듣고석은 인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가 먼저 영양위 궁에 가서 보고 올 것이니 아버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시오. 암만해도일이 수상하외다.”하였다.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임금이 부르시거든 어찌 일각인들 지체할 수가 있느냐. 설사 무슨 흥계가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가기이방이니라.”

하고 예장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나고야 마는 모양이니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야 대순가마는 만일 수양 대군이 무슨 흥계를 꾸민다 하면 선조(先朝) 고명 받은 사람을 다 없애버릴 모양이니 그리 되면 어리신 상감께서 어찌하시나. 모두 내가 어두워 이리 된 것이니 지하에 영묘(英廟)와 선조를 뵈올 면목이 없는 죄인일세.”

하고는 눈을 감아 눈을 흐리게 하는 눈물을 떨어뜨리고나서,

“자네는 이 길로 절재(節齋)한테 가 보게. 다행히 만나거든 종고별써 들어왔으면 무가내 하지. 만일 절재를 못 만나거든 성승(成勝)과 유응부(兪應孚)를 보고 후사를 부탁한다고 하게. 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듯하니까.”

하고는 아들 석을 보고,

“따라올 것 없으니 너는 집으로 가거라.”

하고 두어 걸음 가다가 초헌을 멈추고,

“병조 판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

석이 달려 가서,

“어저께 비석소(碑石所)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는,

“오, 아직도 비석소에 있느냐. 어서 집으로 가거라. 남 웃기지 말아라.”

하고 종묘 앞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살같이 영양위 궁을 향하여 달려간다. 초롱 불이 가물 가물하는 것도 아들에게는 슬펐다.

이러한 말을 아들 석에게는 부탁하지 아니한 것은 아들의 목숨도 내일을 지내기 어려울 듯한 까닭이다.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 남 웃기지 말라는 것이다. 온 집안이 도륙을 당하더라도 비겁한 빛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태연하게 당하라는 뜻인가.

영의정 황보 인이 영양위 궁 문전에 다다른 때에는 그래도 다른 때와 달랐다. 군사들은 더욱 정숙하고 홍달손은 이마가 땅에 닿으리만큼 허리를 굽히고 대문은 활짝 열리었다.

그러나 황보 인은 대문 밖에서 초헌을 내리었다.그리고 유심하게 좌우를 돌아보았다.

“좌상(左相)들어왔느냐?”

하는 어성은 높지 아니하나 그래도 일국을 호령하던 수상(首相)다운 힘과 무게움이 있었다.

“아직 아니 오시었소.”

하는 홍 달손의 등에는 자연 물이 흘렀다. 그리고 김 종서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철여의 바람에 두 골이 으스러지어 죽을 줄도 모르는 늙은 영의정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수양 대군 들시었느냐?”

하고 인이 다시 물으 때에는 달손은 대단히 거북하였다.

“예 별써부터 들시어 계시외다. ”

하면서도 달손은 까닭 모를 위압(威壓)을 깨달았다.

“그 밖에 누구 누구 와 있느냐?”



달손은 잠간 말문이 막히었다.

대문에 영의정 황보 인이 온 줄은 곧 둘째 문 셋째 문까지 알려지었고 인이 달손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수양 대군이 앉았던 안방에까지 알려지었다.

“인이가 왔어?”

하고 수양 대군도 놀라는 빛을 보이고 정인지, 이사철 한확(韓確), 신 숙주의 무리는 얼굴빛이 해쓱하여지는 듯하였다.

그 중에 태연한 이는, 오직 허후(許詡)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주름 많은 얼굴에는 우는 듯 비웃는 듯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떠올랐다.

후는 인지를 이윽히 보더니,

“이 살마, 저 늙은이야 무슨 죄 있나. 자네젠들 무슨 원협 있나. 앓게, 죽이질랑 말게.

한다. 후가 황보 인 죽이지 말자는 말을 수양 대군에게 하지 아니하고 인지에게 하는 것은 은연중 인지가 이 일에 깊이 관계된 것을 빈정대는 것이다.

인지는 후의 말에 미상불 낮에 쥐가 나는 듯하였다. 허 후는 좌참찬이요, 인지는 우참찬으로 가깝다 하면 심히 가까워야 옳은 일이요, 또 죽마고우로, 글벗으로 수십년간 친지다. 황부 인으로 말하던 두 사람에게는 다 절친하다 할 만한 존장이요, 선배다. 비록 인지가 수양 대군의 수하가 되어 이번 정란계획(靖亂計劃)에 가장 중요하게 (무론 남 모르게) 관계는 하였다 하더라도 대 해놓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얼굴에 쥐가 아니 날 리가 없다. 더구나 다소 여자다운 편심을 가진 인지는 소금로 허 후의 오늘 욕보임을 단단히 치부하여 둔 것이다.

“거 원 무슨 말인가. 날더러, 내가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인가.”

하고 인지가 그 가느단 눈으로 허 후를 노려본다. 신 숙주, 최항, 이계전 등 젊은 무리들은 면난한 듯이 인지와 후를 번갈아 본다.

수양 대군은 못마땅한 눈으로 후를 노려보나 후는 못본 체하고,

“나으리, 김 종서 하나만 죽이면 고만 아니요. 글썽 이 양은 무엇하러 죽이며 또 황보 인은 무엇하러 죽이시오. 뜻에 아니 맞거든 어디 먼 곳으로 귀양이나 보내시지. 죽이지는 마시오. 역사삼세(歷事三世)한 노신이 아니오니까. 그리 마시거요.”

하고 인지를 노려본다.

수양 대군은 후의 말을 안 들으려는 듯이 몸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더니,

“어, 웬 여러 말이요?”

하고 후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버린다. 대대 충효가 자손으로 더구나 그 부모상에 효성이 지극하다는 명성이 높은 허 후는 과히 귀찮게만 아니 굴면 살려 두어 자기가 어떻게 충효를 존중하는가를 세상에 보이는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것이 수양 대군의 생각이었다. 허 후는 정치적 수완으로 그리 용할 것도 없었고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극히 야심히 없었다. 그것이 수양 대군이 허 후를 살려 두려는 또 한 가지 이유도 된다. 그는 살려 두어야 해될 것은 없는 까닭이다. 오직 그의 어리석다 하리만큼 곧은 입이 염려였으나 그것이야 못 참으랴 하였다.

수양 대군이 주는 편잔을 후는 꿀떡 삼키었으나 자기의 힘이 도저히 황보 인은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린다. 황보 인이 둘째 문을 들어오는 모양이다. 허 후는 참다 못하여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는 것을 보고 수양 대군은 너털웃음을 치며,

“허 참찬, 황보 인의 감참(監斬)이나 잘하오.”

하고 허 후가 들으리만큼 큰 소리로 외친다.

인지는 이맛전만 썰룩거리나 다른 사람들은 수양 대군의 비위를 맞추어서 다 웃었다. 그렇게 웃음으로 밖에서 노재상 황보 인이 첩퇴에 맞아 시방 피를 흘리려니 하는 생각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살인죄에 관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무시무시함을 약간 잊어버리려는 생각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그늘에 방안 구석구석이 혹은 김 종서의 키 작은 모양이, 혹은 이 양의 부대한 몸이, 혹은 황보 인의 허연 수염이 보이었다. 스러지었다 하는 듯하여 황보 인의 ‘아이쿠’ 소리를 이젠가 저젠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양 대군 이하 여러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허 후가 안 중문에서 내다볼 때에는 바로 황보 인이 한 명회 앉았는 둘째 문을 들어설 때였다. 감격성 많은 허 후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황보 인을 구해내어야 할 것같이 생각하여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가 간대야 죽을 황보 인을 살릴 수 없는 줄을 미처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 명회의 옷 소매가 들리고 그들 속에서 철여의 든 놈들이 뛰어나서는 양이 보이었다.

“낮바닥을랑 성하게 두어라!”

하는 한 명회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자 뚱뚱한 홍윤성의 철여의가 황보 인의 뒤통수를 향하고 내려오는 것을 후가 보았다. 그때에 황보 인은,

“오, 그러더냐. 다 알았다.”

하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서 한 명회를 노려보며,

“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웬 잡인들이냐.”

하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 호령이 끝나기 전에 홍윤성의 첩퇴에 맞아 황보 인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어서 넘어지는 모양으로 땅 위에 쓰러지었다. 영의정 잡은 공로에 나도 나도 참여하겠다고 좌우에 벌려 섰던 무사들이 우르르 뛰어 나선다. 그 중에는 강곤(康袞), 민발(閔發), 유형(柳亨), 곽연성(郭連城), 홍귀동(洪貴童), 홍순로(洪純老), 송석손(宋碩孫)등도 있었다.

황보 인이 땅에 쓰러지자 좌우로서 어중이 떠중이가 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허 후는 억제할 수 없는 의분을 느끼어,

“이놈들아, 글썸 이 도적놈들아,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누냐. 이놈들아, 그 양반께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웬 일이고 하고 잠깐 물러섰다.

명회는 허 후를 노려보았다. 사람들이 잠깐 물러선 동안에 허 후는 땅에 쓰러진 황보 인의 곁에 앉아 두 손을 피 흐르는 황보 인의 머리 밑에 넣어 머리를 좀 들고,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후외다. 허 후이요. 글썸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이고. 뒤통수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살아날 수가 있나.……날 좀 보시오. 대감, 좀 보시오. 눈은 떴는데……정신을 못차리시나 이게 원 무슨 일이람.”

하고 소매를 들어 앞을 가리우는 눈물을 씻는다. 씻고는 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보고는 또 씻고 하는 동안에 후는 우후후 하고 소리를 내어 운다.

“글썸, 무슨 인의 눈이 움직이는 듯하더니,

“오, 자넨가. 자네는 아직 안 죽었나?”

하고 반가운 듯한 표정까지 보인다.

“예, 웬일인지 나는 아직 살았소이다. 정신이 좀 나시오?”

하고 후가 자기 얼굴을 더욱 인에게 가까이 댄다.

“좌상 어찌 되었누?”

인은 김 종서의 말을 묻는 것이다.

“좌상은 벌써 죽었어요. 이 양도 죽고요. 조 극관도 죽고 웬만한 사람은 다 죽겠지요.”

“인지(麟趾)는 살았나?”

인은 정인지(鄭麟趾) 말을 묻는 것이다.

“살아도 잘 살았나 봉외다. 머리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사실 수야 있나. 무슨 부락하실 말씀은 없으시오? 원 낸들 언제 죽을지 아나. 그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하시오. 어, 고만 정신을 못차리시나보군.”

황보 인은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에 생기가 없어진다.

허 후는 두어 번 인의 머리를 흔들며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인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놓으며,

“어쩔사, 고만 운명을 하시는군. 이 사람들아, 자네네들이 더 때리지 아니하여도 벌써 운명하였네. 일생에 아무 죄 없는 양반을 시체나 성하게 가만 두 소.”

하고 오른 손을 들어 인의 눈을 감긴다.

명회는 황보 인이 완전히 절명한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수양 대군 이하 여러 사람이 마치 무슨 무서운 기별을 기다리는 듯이 명회를 바라보았다.

명회는 그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방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다. 내 얼굴을 잘 익혀 두어라 하는 듯하다. 그리고 난 뒤에 수양 대군을 향하여,

“나으리, 인(仁)을 잡았소.”

하고 한 번 웃어 보인다.

수양 대군은 명회의 이 보고가 아니라도 황보 인이 지금 죽는고나 하고 이미 알고 있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래도 영의정 황보 인까지 그렇게 쉽사리 자기 뜻대로 잡아 질 것 같지 아니하여 마치 어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어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걱정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명회의 보고를 들으며 인제는 황보 인을 잡은 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였다.

“어, 인(仁)이놈을 마저 잡았어?”

하고 수양 대군은 성공의 기쁨으로 다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입 근육이 쉴룩쉴룩 움직일 뿐이었다. 수양 대군뿐 아니라 정 인지, 신 숙주, 이 계전, 최 항 이하 이 일에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무리들도 가슴을 저질러 놓았던 무거운 바둑돌이 금시에 제치어진 모양으로 부지불각에 휘유 한숨을 쉬고 또 부지불각에 인제는 되었다 하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입 가으로 떠돌았다. 그 중에도 정 인지, 신 숙주가 회불자승하는 태도가 더욱 눈에 띄었다.

“우스운 일이 있소이다.”

하고 명회가,

“허 참찬이 인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이놈들아 죄 없는 양반을 왜 죽이느냐고 소인을 보고 호령을 하고 울고 불고 야단이외다. 어찌 하오리까, 그냥 두오리까. 좀 아픈 맛을 보이오리까.”

하고 웃는다. 아까 당장에는 허 후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장 공이 커서 장차 허 후보다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허 후가 가엾고 우습기만 하였다.

“응, 사람이 어깨 그모양이야. 아무리 일러도 그모양이람.”

하고 정 인지가 귀찮은 듯이 고개를 흔든다.

“워낙 피벽하니까.”

하고 수양 대군이 웃는다.

“아니외다. 피벽이 아니외라 졸해서 그러외다.”

하고 신 숙주가 책망하는 듯이 말한다.

“그래도 사람은 진국이어.”

하고 수양 대군이 아낀다.

저 편 구석에서 눈을 깜작깜작하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노라고 몸을 움썽움썽하던 이계전(李季甸)이가 상큼나 앉으며,

“아니외다. 일이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아무리 허 후라 하더라도 역적 인을 두호한다 하면 변시 역적이니까 가만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마땅히 내어 베어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높이고 낮에 핏대를 돋히며 외친다. 이 계전은 고려 충신목은 이색의 손자다.

이 계전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서운 기운이 돌고 눈들은 수양 대군을 향하였다.

수양 대군의 낮빛도 긴장이 되며 이 계전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니, 그럴 수 없어.”

하고 허 후 죽이자는 이 계전의 발론을 물리친다. 그러나 마음에 이 계전의 자기에게 대한 충성은 만족하게 여기었다. 이러하면 계전의 목적도 달한 것이다. 허 후를 살려두면 선비들의 뜻을 살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수양 대군이 허 후를 살리려는 뜻을 보고 인지는 얼른 판 문제를 끌어내었다.

“나으리, 이미 밤이 늦었으나 국가 대사온즉 지금 곧 황보 인의 수급(首級)을 가지시고 나으리께서 상감께 정란수말(靖亂首末)을 주달하는 것이 옳을 듯하외다.”

황보 인의 머리를 가지고 상감께 정란 수말을 주달하여야 한다는 인지의 말이 수양 대군에게 무척 기뻐다. 적장(賊將)의 머리를 베어 들고 탑전(榻前)에 공을 아뢰는 장쾌한 맛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수줍기도 하였다.

“그래야 할까?”

수양 대군은 탄식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기를 두 말씀이오니까. 이번 정란(靖亂)은 막비나으리의 공이온즉, 적괴의 수급을 가지고 주공(奏功)하심이 마땅하올뿐더러 또 그러하심이 성려(聖慮)를 덜으심인가 하오.”

하는 인지의 말은 정히 수양 대군의 비위에 맞았다.

이미 다 죽은 인의 머리를 베는 것이지마는 이것을 베는 절차를 어찌할까 하는 것이 꽤 문제가 되었다. 워낙 조 찾기와 말쟁 많기로 세종 대왕 시절부터 유명한 이 계전은 적괴를 참(斬)하는 모든 형식과 위의를 메물기를 주장하였으나 만사에 그리 흥미를 가지지 않는 이 사철(李思哲)은,

“그것은 그래 무엇하나. 이왕 다 죽은 것이니 아무렇게나 목을 자르면 그만이지그려.”

하고 시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었다.

이 계전은 자기가 황보 인 감참(監斬)하는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명예보다도 공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체 수양 대군이 무슨 정당한 직임을 가지고 이를테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공식(非公公式)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연 서투르다. 조를 찾자 하니 찾을 조가 없고 찾자 하니 너무 싱거워서 얼마동안 예문 토론을 하다가 마침내 정 인지의

발외로 자기가 임시로 판의금(判義禁) 격이 되고 신 숙주가 동의금(同義禁) 격이 되어 황보 인, 이양, 조극관 이하 오늘 밤에 죽은 사람 십여 명의 목을 베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정이 되매 이 계전은 실망하였으나 한확(韓確), 이사철(李思哲), 최항(崔恒)의 무리는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다. 대개 사람의 목 자르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마는 더욱이나 오늘 아침까지 자기네 상판으로, 동료로, 또 사정으로 보면 세외의 어른으로, 친구로 웃고 대하던 황보 인 이하 여러 사람들의 죄 없는 목을 자르는 ---그것도 철여의에 맞아 으스러진 시체의 목을 자르는 직책을 맡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닌 까닭이었다.

인지와 숙주는 명회를 따라 황보 인의 시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때까지 황보 인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울고 앉았던 허 후는 인지와 숙주가 오는 것을 보고 소매로 눈물을 씻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글세, 이 살마,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아까 방에서 하던 말과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인지는 귀찮은 듯이 낮을 찡그리며,

“일어나게. 이게 무슨 꼴이람.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아서, 시체는 우리가 처리할테니 자넨랑 일어나 들어가게. 대군께서 기다리시네.”

하고 허 후의 소매를 들어 일으킨다. 허 후를 이 자리에 두어 황보 인의 목 베는 광경을 보게 하면 또 무슨 말썽이 생길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시체를 처치하다니 어떻게 처치한단 말인가. 설마 효수(梟首)는 아니할테지?”

하고 후는 인지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아니하고 애원하고 눈으로 묻는다.

“어서 일어나게.”

하고 인지는 후가 반항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여기어 한번 더 후의 소매를 끌며,

“지금 나으리가 자네를 찾으시니까 아마 그런 일을 의논하시려는 모양이니 얼른 가 보게.”

하는 말을 믿고 후는 그래도 의심스러운 듯이 인지와 숙주와 명회와 기타 둘러선 무사의 무리들을 한 번 둘러보고는,

“이놈들,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

하고 한 번 눈을 흘기고 안으로 들어간다. 가서 수양 대군에게 황보 인 이하 오늘 밤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온전히 자손에게 내어 주어 장사하게 하도록 청하려 한 것이다.

후가 안 중문을 들어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기를 기다려서 인지는 좌우를 시켜 쟁반에 백지 한 장을 깔아 오라고 명하였다. 이윽고 영양위 궁 종이 쟁반을 들고 나와서 이 광경을 보고 ‘아마니!’하고 쟁반을 동태이를 친다. 텅그렁텅그렁 소리를 내며 쟁반이 땅 바닥에 떨어져 구른다. 그것이 무시무시했다.

양 정은 굴러가는 쟁반을 발로 막아 붙들어 땅에 떨어진 백지를 집어 깔아서 두 손으로 들어다가 인지 앞에 놓았다.

인지는 아무쪼록 인의 시체를 아니 보려 하면서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치 아니하게,

“인의 목을 베어라.”

하고 명을 내렸다. 인지의 어성은 약간 떨리는 듯하였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당은 잠잠하였다. 윤성, 정조차 서로 바라만 보고 머뭇머뭇하였다.

“어찌항 베지 아니하느냐?”

하고 인지는 위엄있게 소리를 질렀다.

“소인이 베오리다.”

하고 칼을 빼어 들고 나서는 것은 흥 윤성이었다.

윤성은 소매를 걷고 나와 발길로 황보 인의 가슴패기를 한 번 탁 차서 반듯이 누인 뒤에 양 정더러 두 귀를 잡아 인의 머리를 땅에서 좀 들리게 하게 하고 칼날을 한 번 손으로 쓸어 만지고 나서 인지와 숙주와 좌우를 돌아보며 왼편 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 손으로 칼을 머리 위에 높이 들고 이윽히 인의 목을 내려다 본 뒤에 ‘에익’하는 소리도 기운차게 허리가 잠깐 굽으며 번개같이 칼이 내려온다. 어느덧에 찍히었는지 소리도 났는지 말았는지 모르건마는 인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서 양 정외 손에 두 귀를 붙들려 공중에 달려 있다.

양 정은 인제는 제가 나설 차례라 하는 듯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의 머리를 한 번 내어 두르고는 쟁반 위에 올려 놓아 인지의 앞으로 밀어 놓았다. 인지의 붉은 빛나는 얼굴은 해쓱하게 되고 그 조그마한 눈을 아무리 인의 머리에서 피하려 하여도 인의 허연 수염이 눈에 달리어서 인지를 따르는 듯하였다.

이 양 이하의 머리는 명회더러 말아 조처하라고 분부하고 인지는 윤성으로 하여금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게 하고 무서운 곳에서 도망하는 사람 모양으로 숙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윤성은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어 수양 대군 앞에 바짝 갖다가 놓았다.

허 후가 감기었던 인의 눈이 저절로 떠지어 수양 대군을 바라보는 듯하였다. 수양 대군은 무서운 생각이 아니 나도록 담력을 모으려 하였으나 인의 눈이 춤추는 촛불 빛에 번쩍번쩍 할 때에는 전신에 찬 기운을 깨닫고 머리가 멍한 것 같았다.

“이래서 될 수 있나.”

하고 수양 대군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편달하여 눈 앞에 밀려 들어오는 무서움을 쓸어버리는 듯이 손을 내어 두르며,

“이것을 여기 놓아 두면 어찌하느냐. 아직 어디 안 보이는 데 갖다 두려무나.”

하고 안 보려면서도 안이 머리를 한 번 더 보았다. 보고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나 눈이 인의 머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아니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만히 인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 앉았노라면 그 허연 수염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머리가 쫓다 작았다 하는 것도 같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응, 보기 흉한 것이로군!’

하고 수양 대군은 속으로 중얼거리고 등골에 찬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허 후는 마치 기색한 사람 모양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눈으로는 수양 대군을 바라본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인지도 전신에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손 끝과 발이 싸늘하게 얼어 들어움을 깨달았다. 말 많은 이 계전도 아무 말 없이 작은 몸을 좌우로 흔들고 겁난 듯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 사철은 천정을 바라보고, 신 숙주는 붓을 들고 종이에 무엇을 그적거리고, 최 항은 자리를 못 잡고 대청으로 들락날락하였다. 오직 가만히 있는 것은 피투성이 된 황보 인의 머리뿐이었다.

“어찌된 모양이냐?”

하고 왕은 바깥 형편을 엿보고 들어오는 궁녀더러 애타는 듯이 물으신다.---

“아직 사람을 죽이는 모양이냐? 대관절 몇 사람이나 죽였어?”

“인제는 아이구구 하는 소리가 좀 뜸한 모양이요. 벌써 닭이 울었으니 아마 고만 죽이려

는가보오. 또 그만하면 죽일 만한 사람은 다 죽였을 것이니 더 죽일 사람도 없을 것이요.” 하는 것은 역시 밖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사정을 염탐하고 들어오는 영양위 정 종의 말이다.

“그래 황보인(皇甫仁)도 분명히 죽었소?”

하고 왕은 근심스럽게 종에게 묻는다.

“아마 분명한가보오.”

“죽을 뿐 아니라,”

하고 늙은 궁녀가,

“황보 정승의 목까지 잘랐다 하오.”

하고 몸서리 치는 듯이 몸을 한 번 떠든다.

“목을 잘려? 죽었으면 고만이지 목은 무엇하러 잘려.”

하고 왕은 혼잣말 모양을 하시고 낮을 쟁그리신다. 이

“입직승지 최 항이 아뢰오.”

하고 최 항이 왕의 앞에 들어와 부복한다.

왕도 놀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다. 입직승지가 들어온다고 놀란 것도 없지마는 오늘 저녁에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의 목숨을 엿보는 원수와만 같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왕은 곧 위의를 수습하여,

“무슨 일이냐?”

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야심하옵거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군(首陽大君) 유와 우참찬(右參贊) 정인지(鄭麟趾)가 적괴 인(仁), 양(穰)등을 국문한 전후 수말을 탐전에 주달하올줄로 계하에 대령하였소.”

하고 최 승지가 아뢰었다.

왕은 주저하는 듯이 눈을 들어 잠간 영양위를 바라보았으나 곧 결심한 듯이,

“들라 하여라.”

하고 수양 대군과 정 인지의 알현을 허하시었다.

늙은 궁녀들의 주선으로 왕의 자리를 방의 정면으로 옮기고 몇 사람 안되는 근시하는 궁녀들이 왕을 옹위하는 듯이 좌우로 늘어섰다. 힘껏은 왕의 위의를 갖추자는 늙은 궁녀의 정성이다. 그리고 영양위 부처는 현실로 물러나갔다.

이렇게 자리가 정돈되기를 기다려 수양 대군이 정 인지와 최 항을 뒤에 달고 들어와 왕의 앞에 부복하여 예한 후에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꿇어 앉고 그 뒤에는 정 인지, 최 항이 역시 팔을 짚고 꿇어 앉았다.

“적괴 종서를 제하온 것은 벌써 상주하였사옵거니와 신이 아까 어명을 받자와 남은 적괴도 일일이 불러 국문 하온 바 개개 실토하였소.”

하고 수양 대군은 잠간 고개를 들어 왕을 우러러 본다.

“실토하였소?”

하고 왕은 놀라는 듯이 묻는다.

“실토하였소. 인, 종서 등이 안평 대군 용을 받들어 유충하옵신 상감을 폐하려고 흥계를 꾸몄고 오늘 상감계옵서 영양위 궁 거동 게 오실 때를 타서 거사하기로 하였더라 말을 개개 실토하였소.”

이러한 수양 대군의 말을 이어,

“우참찬 정 인지 아뢰오.”

하고 정 인지가 슬행(膝行)으로 한 걸음 왕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거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엎디어 아뢰다---.

“진실로 수양 대군의 충성과 공로는 옛날 주공(周公)에 비길 것인 줄로 아뢰오. 만일 수양 대군이 아니었던들 저 흉악한 적도를 누 있어 제하였사오리까. 인, 종서의 무리가 선조의 황송하옵신 고명을 받았으니 국궁진책하여 충성으로 성상을 보좌하옵이 지당하오려든 한갓 세도를 믿어 감히 불쾌한 뜻을 품었사오니 신인공노(神人共怒)할 일인 줄 아뢰오. 그러하오나 수양 대군의 충성으로 대난을 미연에 방지하였사온즉 막비 성덕인가 하옵거니와 논공행상(論功行賞)을 밝히 하시와 수양 대군의 충성과 공로를 표창하심이 지당한 줄로 아뢰오.”

이렇게 정 인지가 수양 대군의 공을 칭송하고나서 앉은 대로 고개를 돌리어뒤를 돌아보며 최 항더러 귓속말로,

“그것 들어 오게”

한다. 최 항은,

“제가요?”

하고 원치 않는 뜻을 보인다.

“달리 누구 있나.”

하고 인지가 재촉한다.

최 항은 이런 일까지 왜 날더러 하라는고 하고 마음에 심히 불평하였으나 인지의 말을 어길 수도 없어서 일어나 나아갔다.

최 항이 늦 쟁반에 담긴 황보 인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들어다가 인지의 앞에 놓으려 하였으나 인지가 손가락으로 수양 대군을 가리키므로 무릎 걸음으로 수양 대군의 머리 앞에 놓았다. 수양 대군의 앞이면 곧 왕의 앞이었다. 놓고 나서 백지를 걷었다. 하얀 백지, 붉은 피, 해쓱한 얼굴. 아무리 하여도 감기지 아니하는 눈, 망건도 벗기고 풀어 헤친 백발.

왕은 벌떡 일어나시며,

“이게 무에야?”

하고 놀라는 소리를 치시었다. 누군들 이런 광경을 가끔 보라마는 열 세 살 되신 어린 왕은 일찍 이런 것을 생각하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상감, 놀라실 것 없소. 역적 괴수 황보 인의 머리요.”

하고 수양 대군도 따라 일어나서 읊하였다.

왕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쟁반에 놓인 황보 인의 머리를 이윽히 보시었다.

이때에 정 인지가,

“상감께 아뢰오.”

하고 그 여무진 목소리로 아뢰다. ---.

“이제 역적 괴수는 다 멸하였사온즉 국가에 큰 근심을 덜었사오나 군국 대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사온즉 가장 충성 있고 어진 사람을 택하시와 정사를 맡기심이 지당합신 줄 아뢰오. 그러하온데 수양 대군 유는 종실에 머리뿔더러 이번 인, 종서의 무리를 토멸하는데 원훈이 온즉 복결 성명께오서는 수양 대군 유로 영의정(領議政) 부사(腐史)판 이병조 겸 내외(內外)명마도통사를 하이시와 군국 중사를 맡기심이 옳을 줄로 아뢰오. 이것은 유독 노신의 뜻만 아니옵고 백관의 뜻이다 그러한 줄 아뢰오.”



이것은 무른 오래 전부터 수양 대군과 정 인지와 서로 의논하고 짜 놓았던 계획이다. 이래 보아서 만일 왕이 옹하시지 아니하거든 위협을 하여 보고위협으로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거든 왕이야 어찌 생각하시든지 어린 아이로 제치어 놓고 수양 대군과 정 인지 뜻대로 국사를 맡아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필요는 없었다. 왕은 어리시지마는 그 총명으로 대세가 어찌할 수 없음을 통찰하시었다. 그래서 제왕의 특유한 지혜와 권위로 웃는 낯을 지으며,

“숙부 공로를 내가 아오. 앞으로는 군국 대사에 어린 나를 갈 도우오.” 하시었다.

이리하여 즉석에서 수양 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 판서 겸 내외병 마도통사라는 전무 후무한 겸직으로 일국에 중요한 권세를 혼자 맡게 되었으니 이것은 또한 정인지의 공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수양 대군은 즉석에서 왕께 청하여 정 인지로 좌의정(左議定), 한확(韓確)으로 우의정(右議政)을 삼고, 허후(許誦)로 좌찬성(左贊成)을 삼고, 최항(崔恒)으로 도승지(都承旨)로 삼았다.

이리하여 밤새도록에 국가의 정권을 전혀 수양 대군과 정 인지 일파의 손에 거두어버리고 밝는 날 아침에 일변 소위 적도(賊徒)여당(餘黨)을 잡아 들이며, 일변 육조(六曹), 삼사(三司)와 수령 방백 중에 황보 인, 김 종서 계통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잡고 정 인지 계통인 자와 수양 대군의 문객들을 동용하였다.

이날에 좌의정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수양 대군을 포양하자는 뜻으로 상소를 하였다. 수양 대군을 포양하는 요지의 그 공이 주공(周公)과 같다고 함이었다.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成王)을 잘 도와서 성인(聖人)이란 존치를 듣거니와 수양대군도 어린 조카되는 왕을 충성으로 도움이 주공과 같다는 것이다.

수양 대군의 공과 덕이 주공과 같고 아니 같은 것은 어찌 되었든지 우선 왕의 이름으로 수양 대군이 한 일을 옳게 여긴다. 합법(合法)하게 여긴다는 뜻을 중외에 선포하는 것은 가장 긴하고 가장 급한 일이다. 왜 그런고하면 수양 대군이 황보 인, 김 종서 이하 선조(先朝)의 고명(顧命)받은 중신(重臣)들을 일일지내에 죽여버리었다 하면 이것은 큰 충신이 되거나 큰 역적이 되거나 둘중에 하나일 것이니, 이 일에 대하여 최후의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민중의 양심이라니와 당장에 가부를 결정할 이는 오직 왕이 있을 뿐인 까닭이다. 왕이 수양 대군의 일을 옳다 하고 말하면 수양 대군은 옳고 그의 손에 죽은 자들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그 집과 자녀들까지도 적몰을 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 인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수양 대군의 공을 포양하기 위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뜻을 알 것이다.

왕이 이것을 거절할 리가 없다.

인지는 왕께 청하여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교서(敎書)를 기초(起草)하게 하였다. 이것은 곧 집현전이 수양 대군의 공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이었다.

집현전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마침 입직한 유성원(柳誠源)이 있다가 이 교서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 유성원은 이 교서를 짓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통곡하였다 한다.

그 교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 교서의 대의를 우리 말로 쓰면 이러하다.

“숙부(叔父)는 천성이 충효롭고 기운과 날램이 세상에 으뜸이며 부귀 성색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한다.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니 편안하나 험하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찌 그 절조를 변할 줄이 있으랴.……내 어린 사람으로서 집안이 불행하여 용(瑑=안평 대군)이 지친의

자리에 있으면서 외람된 마음으로 품고 황보 인, 김 종서, 이 양, 민신, 조극관, 윤처공, 이 명민 같은 무리가 그윽히 한 패가 되니 내가 외로이 서서 어찌할 수 있으랴. 숙부가 용단과 의용을 분발하여 번개같이 대번에 쏘아 버리고 말았거니와 숙부가 아니런들 내가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을까.……옛날 주공이 관채를 메고 왕가를 편안히 하였거니와 이번 숙부의 일이 그와 같다. ……경은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게다가 주공의 큰 공까지 겸하였으며 나는 성왕과 같이 어린 데다가 또 성왕과 같이 어려운 판국을 당하였으니 나는 성왕이 숙부를 믿던 듯이 하려니와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돕던 듯이 나를 도우라…….”

이 교서는 무론 수양 대군에게 내린 것이다. 수양 대군의 지극히 가혹하고 높은 공을 왕께서 가상히 여기심을 표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교서에는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뜻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 안평대군 용(安平大君瑢)을 역적의 괴소루 몬 것이요, 둘째 황보 인, 김 종서 이하 문종의 고명을 받아 섭정하던 제신이 다 안평대군의 당이 되었다 함이요, 셋째는 이번 수양 대군이 질풍신뢰적으로 김 종서, 황보 인 등을 암살한 것이 가장 충성되고 가혹한 공이라 하는 것이요, 나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니까 수양 대군에게 군국 대사를 들어 맡긴다는 것이었다.

이 교서는 쓰기는 유 성원이 하였으나 글의 내용과 요점은 정 인지가 불러 준 것이다.

“어떠하오니까?”

하고 인지는 이 교서 초를 수양 대군에게 보이었다. 수양 대군은 그것을 받아서 읽다가 잠간 얼굴을 붉히며,

“과하지 아니하오?”하였다.

왕은 근정전에 출어하시와 문무 백관의 하례(이번 정란에 대하여)를 받으시고 손수 이 교서로 수양 대군에게 내리시고 도승지 최 항은 탑전에 서서 이 교서를 낭독하였다. 그리하는 동안에 수양 대군은 부복하여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백관들은 과연 그 교서의 뜻이 지당하외다하는 듯이 가만히 한 번씩 고개를 끄떡이는 듯하였다. 이제부터 수양 대군이 세도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수양 대군을 한 번 가까이 할까 하고 속으로 인아 친척의 반연을 찾아 보았고 그보다도 어찌하면 고명 받은 제신이 다 죽는 판에 정 인지 하나는 죽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우참찬에서 경충 뛰어 좌의정이 되었는고 하고 다시금 인지의 조그마한 몸과 꺾 있을 듯한 얼굴을 치어다보며 부리워하는 침을 삼켰다.

수양 대군이 이렇게 정식으로 영의정이 되매 궐내에는 하례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 날에 하례 받는 주인은 무론 수양 대군이지마는 버금으로 하례를 받을 이는 우참찬으로대번에 좌의정에 올라뵈는 정 인지와 예조 판서로서 대번에 우의정에 올라 뵈는 한 학과 집현 교리로서 대번에 좌찬성(左贊成)에 올라 뵈는 신 숙주, 경덕궁 궁직으로서 군기사(軍器寺) 녹사(錄事)가 된 한명회(韓明澮) 등일 것이다. 그뿐일까, 면칠만 지나면 정란 공신으로 군(君)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날에 가장 기쁜 빛을 보이는 이도 정 인지, 한 혹, 신 숙주, 이계전 등이었다. 어제까지 모르는 체하던 사람들도 오늘에는 다투어 그들에게 요공의 말과공의 잔을 권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그 요공의 말과 술을 당연히 받을 것으로 받았다. 술이 얼근하게 취하매 모두 무릎을 치고 소리를 내어 웃고 떠들었다. 태평 성대가 일시에 임한 듯하였다. 수양 대군도 거의 체면을 차리지 못하리만치 회불자승하였다. 만인의 우러럴보는 시선이 일신에 모임을 깨달은 때에 그는 전신이 가려운 듯한 기쁨을 깨달아서 웃고 웃고또 웃었다.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양 대군이 웃으면 웃고 무릎을 치면 같이 치고 애써 그의 비위를 맞추는 이는 물어 볼 것도 없이 이계전(李季甸)이었다. 신 숙주는 과도하게 기쁜 빛을 보이지 아니

하였다. 그는 그 속에 든 글 구절이 창자를 곱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듯하다.

이 때에 한편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 술도 아니 먹고 고기도아니 먹고 말도 아니하고 웃지도아니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허후(許詡)다. 허 후는 이번 통에 목숨을 부지하였을뿐더러 좌참찬이란 벼슬 자리도 메우지는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수양 대군의 특별한 생각이다. 자기의 차석이던 정 인지가 좌의정이 되어 까맣게 위로 뛰어 올라간 때에 좌참찬이라는 옛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다지 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처지에서는 허 후 같은 사람으로는 목숨과 벼슬을 아울러 때우리 아니한 것만 다행일 것이다.

“그런데 이 기쁜 잔치에 그는 또 무슨 궁상을 피우노라고 저 모양을 하고.

그렇지마는 이 기쁜 판에 한 편 구석에 허 후 한 사람이 똥판지로 있는 것을 알아볼 사람은 없었다. 더구나 자부심이 강한 수양 대군은 오늘 같은 날에 이 자리에 감히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목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계전의 눈이 자주 허 후에게로 쏠렸다. 이 계전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자기 수양 대군에게 긴하게 보이는데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니다.

“나으리!”

하고 이 계전은 수양 대군의 소매를 끌었다.

“저기를 보시오. 저 허 참찬을 보시오.”

하고 그는 결눈으로 허 후 앉은 곳을 한 번 흘겨보며 손가락으로 허 후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수양 대군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몽롱한 취안으로 계전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 는 허 후가 잔뜩 양미간에 내천자를 쓰고 앉아서 좌중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광경이 눈에 뜨일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몸을 좌우로 흔들고 앉았는데 양이 보인다.

“응, 또 저러는군.”

하고 수양 대군은 한 번 허 후를 노려보고는 그거 내버려 두어라 하는 듯이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소하더니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듯이 다시 허 후를 바라보며,

“여보 허 참찬, 왜 술도 안 자시고 그렇게 찌푸리고만 앉았소? 거 원, 무어란 말이요?”

하고 술 치는 기녀(妓女)를 가리키며,

“이애, 저기 저 대감께 잔 가득 부어 드리되 잡수시게 하지 못하면 네가벌을 쓸 테다. ……자, 그 잔을 받으시오. 오늘같이 국가에 경사가 있는 날에 그 이맛살이 무엇이란 말요. 거 원.”

하고 꺾꺾 웃는다. 만좌의 시선은 허 후에게로 모인다.

허 후는 술잔을 들고 결으로 오는 기녀를 무서운 것이나 막는 듯이 손을 들어 막으며,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조부 기일(忌日)이 있어서 재계를 하는 것이요.”

하고 머리를 흔든다.

“그러면 몰라도.”

하고 수양 대군은 더 추구하려고도 아니한다.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취할이만큼 술도취하고 부를이만큼 배도 불러 화재는 황보 인, 김종서 등의 머리를 효시하고 그 자손들을 죽이고 가산을 적몰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돌아갔다.

“아, 효수를 하다 뿐이요? 신인(神人)이 공노(共怒)할 대역부도(大逆不道)여늘 단불용대(斷不容貸)하고 외물처단할 것이지. 다시 여러 말이 있을 리가 있소? 안 그렇소오니까.”

하고 계전은 좌중을 한 번 둘러보고는 나중에는 수양 대군과 정 인지를 번갈아 본다.

수양 대군과 정 인지는 다만 들을 뿐이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한다는 듯이 웃음을 머금은 눈으로 좌중을 둘러볼 뿐이다.

이 눈치를 보고는 저마다 제 의견을 세워볼 양으로, 제 의견을 세워본다는 것보다도 수양 대군과 정 인지의 원하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려고, 그래서 자기가 가장 긴히 보이려고 한마디씩 의견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의견들은 마치 어떻게 하면 황보 인, 김 종서들의 죄를 가장 크고 흉악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경쟁하는 듯하였다.

“그제야 원亨利정(元亨利貞)이 아니요. 그놈들을 그놈들을.”

할 뿐이요, 누구도 감히 황보 인, 김 종서 등의 죄를 고만하고 말자는 이는 없었다.

“그럴 것은 없어. 이미 저희들이 제 죄에 죽었고 또 일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하였으니까 그렇게 자손까지 죽일 것이야 있나.”

하는 것은 수양 대군이다.

“어, 안될 말씀이요.”

하고 이 계전은 가슴을 떡 벌리고 어성을 가다듬어,

“나리께서는 비록 성인의 마음으로 궁핍 극악한 그놈들의 자손까지도 어여뻐 여기심이거니와 어디 국법을 문란 할 수야 있소오니까. 인, 종서 등 이번 역모에 참여하였던 놈들은 효수노륙(梟首孥戮)하여 만세 난신적자에게 경계를 삼는 것이 지당한 줄 아뢰오.”

하고 요두 전목한다.

계전이 수양 대군을 가리키어 성인(聖人)이라 한 때는 정 인지도 속으로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누가 감히 반대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람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가장 잘 수양 대군의 마음을 알아맞춘 것인 까닭이다.

수양 대군도 계전의 말에 마음이 흡족하였다.

‘오, 네 소원대로 병조 판서 한 자리 주마.’

하고 수양 대군은 속으로 웃으면서 계전을 본다.

‘잘고 잔망하고 경망하건마는 비위를 잘 맞추거든. 보기를 시킨단 말야.’

하는 생각으로 수양 대군은 계전의 조그마한 몸을 본다.

계전은 의기 양양하여 ‘오늘 수훈은 내다’ 하는 듯이 일좌를 한 번 둘러본다. 그러다가 눈이 한편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에 계전의 얼굴에는 발끈하는 불쾌한 빛이 보인다. 그것은 그의 조카 이개(李塏)와 이 개의 매부 허조를 본 까닭이다. 허 조는 허 후의 아들이요, 집현전 학사요, 수찬(修撰)이다.

“아니꼬운 놈들이!”

하고 계전은 자기를 천착스럽게 부정한 수단으로 공명을 탐한다고 공격한 조카와 조카 사위를 흘려본다.

‘너희 놈들이 미워서라도 후(誦)란 놈은 없애고야 말걸.’

하고 통쾌한 듯이 한 번 웃는다.

“그러면.”

하고 마침내 인지가 수양 대군을 향하여,

“백관의 뜻이 다 저러하니 무가내하외다.”

하여 황보 인과 김 종서 이하 이번 사건에 관계된 자는 효수하고 자손을 멸하는 죄를 아니 쓸 수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수양 대군이 장히 마음에 대견하여 그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려 할 때 허 후가 나왔으며,

“글세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철여의로 때려죽이고도 유위부족항 효수노륙(梟首孥戮)을 한단 말ियो? 종서는 소인이 친분이 없으니까 그 심지를 잘 안다고 할 수가 없소마는, 지어 인(仁)하여는 소인이 그 위인을 잘 알거니와 다른 일은 몰라도 역모를 할 리는 만무한 것이요. 황보 인의 위인이 어떠한 것은 천하가 다 알겠지마는 오래 그 권고(眷顧)를 받은 좌의정 정 정승이 소인보다 잘 알 것이요. 하니까……”

하고 정 인지를 정정승이라고 부를 때에는 정정승의 얼굴은 주홍같이 빨갭게 되었다.

그러나 정 정승의 이마에 찬 땀방울이 맺히기 전에 수상(首相)인 수양 대군의 눈에는 살기가 서며 눈초리가 쪽 위로 올라뻗고 관자놀이가 들먹들먹한다. 폭풍이 일어나려고 검은 구름이 뭉개뭉개 수양 대군의 눈에서 일어나는 듯하였다. 만좌는 다 자기가 무슨 벼락을 당하는 듯하여 귀밑으로 찬바람이 휙휙 지나감을 깨달았다.

“그래 네가.”

하고 수양 대군의 흉중 같은 소리가 터지며 불을 뿜는 듯한 눈살이 바로 허 후를 쏜다. 존장이 넘는 허 후를 보고 ‘너’라고 나오는 것이 벌써 여간한 진노가 아니다.

“그래 네가 오늘 고기를 아니 먹는 것이 이 때문이로구나. 응?”

“그러하오. 조정원로(朝廷元老)가 한날에 다 죽었거든 허후(許詡) 홀로 살아난 것만 끔찍하지. 차마 고기야 먹을 수가 있소.”

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콧물 흐른다.

‘이놈을, 이놈을, 이놈을 내어 베어라!’

하는 말이 목까지 나오는 것을 수양 대군은 꿀떡 참고,

“어, 궤이한 손 같으니. 물러가요. 보기 싫의.”

하였다. 어제부터 허 후의 하는 언행이 일일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이언마는 수양 대군은 그의 재덕을 아끼어 기어코 자기 사람을 만들고야 말려 한 것이다.

사람들은 허 후의 목이 몸에 붙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도 생각하였다.

이렇게 쥘내에서는 연락이 떨어진 때에 밖에서는 이번에 수난한 제신의 자손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하였다. 여자는 목숨은 살려 관비(官婢)를 삼고, 남자로 생긴 이는 찢먹이 어린것 까지도 목을 잘라 죽이었다.

이날에 죽은 사람을 어찌 이루 헤아리랴마는 그 중에 중요한 몇만 꺾자면---

황보인(皇甫仁)의 아들 석(錫), 흠(欽) 형제와 손자 갓난이, 경근(京斤)들.

김종서(金宗瑞)의 손자 석대(石臺), 대대(大臺), 조동(祖同), 만동(萬同)(승벽(承壁)은 수일 뒤에 해주에서 죽었다),

이양의 아들 승윤(承胤), 승효(承孝)와 손자 계조(繼祖), 소조(紹祖), 장군(將軍).

민신(閔伸)의 아들 보창(甫昌), 보해(甫諧), 보석(甫釋)과 손자 돌이(石伊).

윤처공(尹處恭)의 아들 경(逕), 위(渭), 탁(濁), 식(湜)과 손자 갓동(畝同), 효동(孝同).

이 모양이다. 이렇게 죽은 사람 중에는 삼십, 사십된 어른도 있거니와 두 살, 세 살 되는 찢먹이도 있고 난지백날이 못 찬 핏덩어리도 있었다.

어른들은 잔뜩 뒷짐 결박을 지우고 상투를 풀어 입이 하늘로 향하도록 잔뜩 고개를 뒤로 제쳐 붙들어매어 수레에 싣고 역적 아무의 아들 또는 손자 아무개라고 대서특서한 패를 달고 장안 대도상으로 끌고 돌아다닌 뒤에 남대문 밖 새남터에서 목을 베어 죽이고, 어린 아

이들은 어떤 이는 어른 탄 한 수레에 실어 어미를 아니 떨어진다 울고, 어떤 이는 바로 그 집에서, 그 부도의 앞에서 혹은 모가지를 비틀어서도 죽이고, 혹은 밭목을 들어 댕돌 위에 던지어서도 죽이고 금부 나졸의 마음대로 장난삼아 죽여버렸다.

민신(閔伸)은 현릉(顯陵) 비석소(碑石所)에 가 있는 것을 새벽에 양정(楊汀)을 보내어 세수하는 것을 뒤로 살살 돌아 목을 베어 죽이고 윤처공(尹處恭)은 집에 누워 앓는 것을 달려들어 병석에서 죽여버렸다.

이야기가 좀 뒤로 돌아간다.

김 종서는 수양 대구이 돌아간 뒤에 식경이나 있다가 도로 살아나서 사랑하는 야화의 손에 물을 받아 먹었다.

종서는 정신이 들때 곧 일이 어떻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내가 지금 켈내에 들어가야 할 터이니, 보고를 하나 불러라.”

하여 가족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못하십니다 하고 만류하는 이가 없었다.

이보다 먼저 원구(元矩)가 종서의 집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곧 성문에 다다라,

“정부(政府)에 아뢰어라, 정승이 야래(夜來)에 자객에게 맞아 기지사경이니 상감께 주달하여 약을 내리시게 하라!”

하고 소리를 치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벌써 한 명회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못 들은 체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래서 원 구는 돈의(敦義), 소덕(昭德), 숭례(崇禮) 삼문을 다 돌아도 대답이 없으므로 황망히 종서의 집에 돌아오니 이때에 마침 종서가 소생하여 머리의 상처를 싸매고 부인네 타는 가마를 타고 성내로 들어가려고 집을 떠나는 길이었다.

“대감, 어디로 가시오?”

하고 원구는 놀라서 가마채를 붙들었다.

“오, 자넨가.”

하고 종서는 가마 문으로 손을 내밀어 원구의 손을 잡으며,

“지금 수양(首陽)이 작란(作亂)을 하는 모양이니 아무리 하여서라도 내가 입궐을 해야겠네. 국가에 대변이 날 모양이니 모두 내 불찰일세. 자네게 뒷일을 맡기네. 시각이 바쁘니 지체할 수는 없네……어서 가자.”

하고 교군을 돌아 나간다.

그러나 원 구의 말과 같이, 또 원구가 당한 바와 같이 처음에 돈의문에, 다음에 소덕문에 나중에는 숭례문에 가서 문을 열어 달라 하여도 대답이 없어서 하릴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종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었다. 야화와 승규의 처 허씨(許氏)는 밤을 새워 애통과 정성으로 종서를 간호하였다. 야화의 정성도 끔찍하거니와 승규의 처 허씨는 죽은 남편도 잊어버린 듯이 오직 시아버니를 위하여 애를 썼다. 그는 잠깐 잠깐 승규의 시체를 누인 방에 다녀와서는 시아버니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종서는 혹시 눈을 떠서 야화와 며느리를 바라도 보고 혹시 헛소리도 하거니와 대부분은 혼수 상태에 있었다.

두골이 그렇게 갈라지고도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승규 있느냐?”

하고 종서는 흥동 중에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승규는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다.

“초헌 내오너라. 상감께서 부르신다.”

이러한 말도 하고는 아마 눈 앞에 상감의 모양을 보는지 두 손을 들어서 읊하였다.

“내가 죽거든 야화를 제 나라로 돌려보내 주어라.”

이런 말도 하였다.

“이애들 불러라.”

하여 손자 넷을 불러 세우고 (제일 어린 만동이는 네 살, 제일 위 되는 석대가 열 여덟 살)

“내가 죽은 뒤에 아마 나를 역적으로 몰고 너희들을 다 자아 죽일지도 모르니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대장부답게 웃고 죽을지언정 아녀자와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빛을 보이지 말아라.”

하고 훈계도 하였다.

아직 채 밝기도 전에 이흥상(李興商)이 군사 수신인을 거느리고 종서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 흥상은 김 종서 집 사랑에 다니다가 수양 대군 궁으로 옮겨간 무뢰한이니, 흥 달손 부하의 군관이다. 수양 대군이 황보 인까지 때려 죽인 뒤에 생각난 것이 김 종서가 다시 살아나 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것이었다. 김 종서를 가리우는 승규를 죽인 것은 분명하지마는 김 종서는 임 윤의 첩퇴에 머리를 맞고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확실하나 꼭 죽었는지 아니 죽었는지는 분명치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낸 것이 이 흥상이다.

“가 보고 아직도 살았거든 끌어오고 죽었거든 모가지만 잘라 오라.”

하는 명을 받아가지고 이 흥삼은 자기의 은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길을 떠난 것이다.

대문이 부서지어라 하고 두드리며,

“문 열어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보고 허씨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황망한 빛도 없이 손수 종서의 몸을 안아 종서의 침실에서 승규의 방으로 옮기어 승규의 시체와 가지런히 눕히고 홀이 불로 얼굴까지 가리워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하고 소병풍을 둘러 놓았다.

흥상은 군졸들로 사방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칼 베어 든 장사 삼사인과 함께 종서의 방으로 달려들었다.

“이놈 종서야, 나오너라.”

하고 흥상은 때를 만난 듯이 날뛰었다.

흥상은 종서가 평상시에 거처하는 방에 없음을 보고 방방이 문을 열어 제치고 ‘이놈 종서야!’하고 날뛰다가 마침내 승규의 방 앞에 다다라 문 고리를 잡아채며,

“문 열어라.”

하고 소리를 치었다. 집에 있던 개와 닭들이 모두 부쩍할 곳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종서의 손자, 손녀 되는 아이들은 마치 무슨 구경 터에나 있는 듯이 가만히 그들이 날뛰는 양만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어떤 놈들이완대 대신 택 내정에 돌입하여 이 야료란 말이냐. 이놈들 목숨이 아깝거든 냉큼 물러나 가거라.”

하고 승규의 처 허씨가 방 안에서 호령을 한다. 이 의외의 호령에 흥상 이하로 여러 군졸들은 어안이 빙빙하여 말문이 막히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이 흥상이 기운을 내어,

“허, 이년 보아라. 호령하는 구나.”

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가 달려드는 허씨와 야화를 머리채를 끌어 문 밖에 끌어내고 나중에 종서를 끌어내어 마당에 굴리고,

“이놈, 일어나서 가자.”

하고 발길로 수없이 냅다 질렀다.

종서는 눈을 번쩍 떠서 홍상을 보더니,  
“내가 걸어갈 수 있느냐. 초헌을 들려라.”

하고 곁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쓰러진 야화와 먼리를 바라보았다.

“흥, 초헌. 에라 귀찮다.”

하고 이 홍상은 칼을 들어 종서의 목을 잘랐다.

종서이 목을 베어가지고 홍상의 무리가 종서 집 안팎을 뒤져 값기는 물건을 노략하고 돌아간 뒤에 승규의 처 허씨는 마당에서 일어나 야화와 함께 종서의 목 없는 시체를 들어 안방으로 모시고 전부터 준비하였던 수의를 내어 서투른 솜씨로, 그러나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슬프게 엄습을 하였다.

야화도 허씨를 도와 가장 침착한 태도로 이 모든 일을 하였다.

허씨는 오늘 안으로가문이 멸망할 줄은 잘 알았다(허씨는 허후(許詡)의 당질녀다). 시아버니가 손자들을 불러 놓고 한 유훈이 없더라도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알만한 허씨였다. 어떻게 이날은 사랑하는 아들들까지도 모두 죽어버리고 딸들은 관비의 천역을 하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가장 태연하였다. 허씨 부인은 아들 딸의 머리를 풀리고 무색 옷을 벗기고 만일에 어쩔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할 것을 분부하고 또 아직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집에 남아 있는 비복들을 불러 종 문서와 아울러 약간 재물을 분급하여 속량을 시키고 만일 뜻이 있거든 후일에 선대감 이하 가족들의 해골이 가는 곳이나 알아서 흙이나 깊이 묻어 달라 하였다.

비복들은 다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어떤 늙은이는 상전 댁이 대대로 적공 적덕을 하였거든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통곡하다가 땀물에 머리를 부딪쳐 기진하였다.

그리고 허씨 부인은 늙은 종 충남(忠男)이 내외를 불러 약간의 금은 패물을 주며 그것을 팔아 노자를 삼아가지고 야화를 야인의 나라에 데려다 주라는 뜻을 말하였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선대감 유언이시니 부디 그대로 해라.”

이렇게 허씨 부인은 충직한 충남이 부처에게 야화를 부탁하였다.

비복들 중에는 젓먹이 도련님들은 감추어 기르기를 원한다는 이도 있고, 혹은 자기네 지식과 바꾸어 죽게 하기를 원하는 이조차 있었다.

이러한 모든 분부를 하는 동안에 야화는 별로 슬퍼하는 빛도 없고 가장 태연하게 아주 무심한 사람 모양으로 우두커니 종서의 시체 곁에 앉아 있었다. 언제까지라도 그 곁을 떠날 뜻이 없는 사람같이.

그러나 오래지 아니하여 금부도사(禁府都事)가 십여명 부하를 거느리고 종서 집에 달려들었다. 나졸들은 도망할 근심 있는 짐승들이나 불들려는 듯이 불량한 눈방울을 굴리고 말 소리를 유난히 쿵쿵 울리면서,

“이놈들아, 꿈쩍말고 있던 자리에 죽은 듯이 있으려다. 연이나 늙이나 꿈쩍만 하거든 모가지나 허리나 두동강 날 줄 알아라.”

하고 소리소리 외치며 방망이로 이문 저문 두들겨 부순다.

무론 아무도 도망하려는 사람도 없었다. 식구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시체 있는 방에 모여 있어서 지극히 고요하게 모든 생기는 일을 기다렸다.

금부 나졸들은 시체 있는 방으로 달려들어 석대(石臺), 대대(大臺), 같은 큰 남자들과 조동(祖同), 만동(萬同) 같은 세 살, 네 살 된 아이들까지도 머리채를 끌어내어 잔뜩 잔뜩 곁



박을 지우고 그리고도 유위 부족하여 공연히 밭길로 차고 굴리었다.

“엄마, 엄마.”

하고 목이 매어 우는 세 살 먹은 만동을 어떤 나졸 하나가 마당에서 흙 한 줌을 쥐어 우는 그 입에 틀어막아버리니 꺾꺾하고 숨이 막히어 울지를 못하였다. 이것을 보고 나졸들은 좋아하고 웃었다.

“앗게, 돼지리. 고것은 흥 윤성이가 통으로 아작아작 먹는다고 산 채로 가져오라데.”

한 놈은 이렇게 말하였다.

“고고 이쁜데. 내나 주었으면.”

이 모양으로 무지한 나졸들은 야화와 승규의 딸 소저를 보고 희롱하였다. 그리고 달려들어 결박하려 할 때에 허씨 부인과 소저는 나는 듯이 품에서 비수를 끄내어 새파란 그 끝을 물고 땅에 얹어지었다. 야화도 그보다 더디지 않게 품에서 칼을 내어 허씨 부인의 뒤를 따랐다.

죽일 사람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이고 시골 있는 사람은 비밀한 명령을 댄 사람들이 떠나가고 귀양 갈 사람들은 귀양 길을 떠나고 귀양 보낸다 칭하고 뒤로 자객을 보내어 길에서 없이해 버릴 사람은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되었다.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무슨 장막이나 치려는 듯이 드문드문하게 둥그렇게 둘러 박아 놓은 길 반씩이나 잔뜩넘는 소나무 말뚝 끝에는 이번 정난 통에 역적으로 물려죽은 이들의 머리가 눈을 부릅뜨고 데롱데롱 매달려 있고 그 밑에는 말뚝이 패를 달아 희게 만들고는 그 모가지 입자의 죄명과 성명을 대자로 썼다---.

“대역부도(大逆不道)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讎) 적괴(賊魁) 황보인(皇甫仁)”

“내역간흉 김종서(金宗瑞)”

이 모양으로 사람 따라 조금씩 직함이 다르고 또 인물의 대소문 따라 직함이 장단이 있었다. 김 종서는 황보인과 같이 직함이 길어야 할 것이지만는 아마 미운 것이 지나치어서 ‘대역간흉’ 녀 자만으로 그친 모양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앞을 지날 때에 눈을 감았고 더러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이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이다. 안평대군은 독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 대왕의 셋째 아드님(대군으로)이요, 금상의 숙부요, 수양 대군과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또 항렬로 바로 다음 되는 아우님이다. 그러하건마는 황보 인, 김 종서를 역적을 만들자면 어느 세력 있는 대군(큰 뜻을 품으려면 품을 수 있는 대군) 하나는 희생하지 아니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전국의 선비의 숭앙을 받는 안평 대군을 두고는 달리 구할 이가 없을 것이다. 이래서 안평 대군은 자기도 영문도 알지 못하는 동안에 그만 조카님 되시는 금상마마를 없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불쾌한 뜻을 가지고 역모를 하던 괴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안평 대군은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서강 담담정에서 시를 읊고 술을 마시는 동안에 소위 정란이 끝나고,

“간신 황보 인, 김 종서등이 안평 대군 용과 어울어지어 널리 당파를 모아 안과 밖에 나누어 응거케 하고 그윽히 결사대를 양성하며 몰래 번읍 병기를 실어 들여 역모를 하는도다. 간악한 무리들이 이제 다 죽음을 당하였거니와 안평 대군 용은 지친인지라 차마 법대로 할 수 없이 밖에 안치(安置)하노라.”

는 전교(傳敎)가 내리어 그 아들 우직(友直)과 함께 집을 쫓겨나고 서울을 쫓겨나서 강화(江

華)로 귀양 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 인지는 후환을 끊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안평 대군을 죽여버리기를 주장하였으나 수양 대군은 형제지정에 차마 죽이기까지 할 수는 없다 하여 안평 대군 부자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안평 대군의 죄를 결정하는 교서는 정 인지가 부르고 권 람이 붓을 들어 이 계전, 최항이 도와서 지은 것이니, 밤이 깊도록 이것을 지은 것이 수고롭다 하여 수양 대군은 왕께 여짜와 내관을 시키어 술상을 내리시게 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금부도사(禁府都事) 신선경(愼先庚)이 십여 명 나졸을 대동하고 안평 대군 궁을 엄습하여 아직 침실에 있는 안평 대군에게 대역죄로 강화로 귀양하게 되었으니 시각을 지체 말고 곧 발정하라는 명령을 진하였다. 아무리 금왕의 숙부되는 귀한 이라도 역적이라면 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 청천 벽력에 안평 대군 궁은 일시에 울음 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안평 대군은 아무리하여도 믿기지 아니하였다. 자기도 모르는 죄를 누가 지어 주었는가.

“그래, 이 일을 좌상(左相)도 아오?”

하고 도사에게 물었다---

“좌상이 알면서 나를 이 지경을 말들 수가 있나.”

하고 안평 대군은 종서가 아직도 살아 있는 줄만 알고 혹시나 자기를 구해 줄까 한 것이다.

안평 대군은 굵게 제복에 방립 하나를 쓰고 짚신을 신고 첫째로 대궐을 향하여 세 번 절하고 다음에 양부되는 성녕대군(誠寧大君) 사당에 하직하고 나중으로 양모되는 성녕 대군 부인에게 하직하고올며 따라나오는 부인과 가권들을 한 번 둘러본 뒤에,

“왕명이어든 지체해서 쓰겠느냐. 어서 가자.”

하고 같은 죄로 가는 아들 우직과 금부 도사 일행을 재촉하였다.

금부 도사 신 선경은 정 인지에게 친히 받은 명령이 있다---

안평 대군은 문객도 많을뿐더러 그 문하에는 부용이 과인하는 사람도 있으니 아무쪼록 안평 대군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또 안평 대군이라면 무지한 백성들까지도 사모하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 비록 길 가는 행인이나 길가 주막 사람에게라도 그가 안평 대군이라는 눈치를 채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 대군을 강화 적소까지 데리고 가기까지는 극히 조심하되 만일 무슨 일이 생기어서 놓치어버릴 근심이 있거든 마음 대로 처치해 버리라는 것이다.

이 마지막 부탁을 할 때에 인지는 신 선경을 보고 유심하게 웃었다. 신 선경도 알아차리었다. 인지가 웃는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가는 도중에서 핑계를 얻어서 안평 대군을 없애 버리라, 그리하면 네 공로는 알아주마 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 신 선경이 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다.

추운 아침. 남대문을 나서매 안평 대군은 다시 돌아올 길 망연한 장안을 다시금 한 번 돌아보고 독수리 같은 형님과 병아리 같은 조카님을 생각하매 삼연히 눈물이 흘렀다. 마치 뒤에서 무엇이 마음을 잡아 끄는 듯하여 몸은 끌리어 나와도 마음은 남대문 안에서 헤매는 듯하였다. 본래 호탕한 천품이어서 부귀 영욕을 뜯 구름같이 보건마는 오늘은 울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숭례문(崇禮門)’이라고 남대문 현판 글씨는 안평 대군이 부왕이신 세종 대왕의 명을 받자와 쓴 것이다. 천하 명필로 조자앙, 왕우군(王友軍)보다도 승하다는 칭찬을 받는 아드님의 글씨를 사랑하여 조선 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보는 남대문 현판을 쓰게 하신 아버지 뜻이

다. 수양 대군의 활에 찬하는 글을 써 주신 문종 대왕은 당시 동궁으로 세종 대왕 곁에 모시어 안평 대군이 글 쓰는 것을 보다가 손수 먹을 갈아 주시고,

“참 천하 명필이다.”

하고 칭찬하시었다.

그러한 승례문 석자 다. 안평 대군은,

“흥, 이것이 내가 세상에 왔던 표더냐.”

하고 빙그레 웃었다.

육로로 가면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양화도(楊花渡)에서 배를 잡아 타고 수로로 한강을 흘러지어 강화로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평 대군을 시골로 내어 쫓기는 하였으나 그를 살려 두어서는 후일에 근심이 된다 하여 정 인지는 아무리하여서라도 안평 대군이 천하 인심을 수습할 새가 없이 하루바빠 없애려 하였다.

그래서 즉일로 자기의 심복되는 권준(權蹲)으로 대사헌(大司憲)을 삼고 이 계전으로 대사간을 삼아 그들로 하여금,

“용은 역적 괴수라 불공대천지수오니 어찌 한 나라에 같이 처하오리까. 청컨대 죄를 나로 아 베이소서.”

라는 장계(狀啓)를 하게 하였다. 이 글은 상소 잘하기로 유명한 이 계전이가 지었다. 안평 대군의 죄를 올리는 도도 수천 언의 대문장이었다.

이 장계가 오르매 도승지 최 항은 인지의 뜻을 왕께 그 장계대로 허락하시도록 말씀하였으나 왕은 노기를 띠시어,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죽인단 말이냐.”

하시고 붓을 당기시어 커단 글자로 “불윤(不允)=안된다”이라고 쓰시어 밀어 던지시었다.

곁에 모시었던 수양 대군과 최 항은 얼굴 빛이 흙빛이 되어 물러나왔다.

“어떻게 하시려오?”

하고 좌의정 정 인지가 영의정 수양 대군을 향하여 묻는다. 여태껏 말하여 오던 문제를 재촉하는 모양이다. 곁에는 좌찬성 신 숙주, 도승지 최 항, 대사간 이 계전이 있다. 문제는 무론 안평 대군에 관한 것이다.

“어?”

하고 수양 대군은 어떤 상소를 읽다가 고개를 들어 인지를 보며 귀찮은 듯이,

“서울서 내어쫓았으면 고만이지 더 무엇을 한단 말이요?”

하고 도리어 불쾌한 빛을 보인다.

정 인지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하고 신 숙주가 정 인지를 도와서 나선다---

“안평 대군의 명성으로 어디를 있든지 반드시 인심이 따를 것이외다. 천하 인심이 안평 대군에게로 돌아가 놓으면 그때에야말로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외다. 화단을 미연에 방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큰일이 생길까 저어합니다. 지금 한 사람을 살려 두면 나중에는 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될 터이니 이것은 국가에 큰 불행이외다. 비록 나으리께서 인자하신 마음에 골육의 정을 차마 못하여 그러시는 일이지마는 대의멸친(大義滅親)이외다---. 국가 대사를 위하여는 사정을 못 돌아보는 것이외다.

“신 찬성 말씀이 지당하외다.”

하고 대사간 이 계전이 무슨 말을 끄내려는 것을 다 듣지 아니하고 수양 대군은,

“그렇기로서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이야.”

하고 괴로워하는 빛을 보인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다.

“죄가 없길래 죽여야 하는 것이외다.”

하고 정 인지가 감았던 눈을 뜬다. 감았던 눈을 뜰 때마다 정 인지의 입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피가 나오는 것이다---

“안평 대군이 진실로 죄가 있다 하면 백성의 마음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니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소오리까마는 죄가 없는지라, 죄가 없이 누명을 쓴지라, 백성의 마음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백성의 마음이 안평 대군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나으리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외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안평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화근을 끊어버리는 것이 지당한가 하오.”

“과연 그러하외다. 좌의정 말씀이 지당하외다.”

“과연 지당하외다.”

“그렇기를 두 말씀이오니까.”

이 모양으로 우의정 한 확, 도승지 최 항 등이 한 마디씩 찬성하는 말을 할 때에 이 계전이 아까 말 끝 맺지 못한 무안을 회복하려고 어성을 높이어,

“좌의정 말씀이 지당하외다. 도리어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불구하외다. 나으리께서는 안평 대군이 죄없는 것을 말씀하시거니와 어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소오리까. 아우가 되어 형의 뜻을 순종치 않는 것이 첫째 큰죄요, 또 왕자로 앉아서 많이 문객을 양성하면 조정을 비뚤하는 것이 둘째 큰 죄요, 또……”

하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을 참는 듯이 잠간 참았다가 빙긋 웃고,

“그 밖에 죄를 꼽으려면 부지기수일 것이요. 죽을 죄를 꼽더라도 죄목이 부족할 것은 아니외다. 무죄하기로 말하면야 황보 인, 종서는 무슨 죄 있었던가요. 그렇지마는 다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니까 안평 대군도 죽을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외다.

이 계전의 말에 정 인지 이하로 다 픽 웃었다. 수양 대군도 입술에 잠간 웃음이 들다가 얼른 괴로운 빛으로 변한다.

수양 대군은 뜻을 결정치 못하는 듯이 벌떡 일어서며,

“모두 상감 처분이시지.”

하고 유심하게 정 인지 이하 여러 사람을 한 번 바라보고 밖으로 나간다. 상감의 입으로 안평 대군을 죽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는 뜻인 줄을 정 인지는 알아차리었다.

정 인지는 수양 대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곧 도승지 최 항과 대사간 이 계전을 데리고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며 우의정 한 확더러는 대사헌 권 준을 불러가지고 뒤 따라 들어오라 하였다. 이리하면 의정부와 사헌부와 사간원과 또 인지 자신, 이 계전, 최 항 등이 집현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현전과---다시 말하면 정부와 삼사(三司)와 아울러 상감께 조르는 셈이다. 여기다가 육조 판서만 가하면 소위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형식이 될 것이니 오늘 만일 왕이 안평 대군 죽이기를 윤허하지 아니하시면 내일은 정 인지가 술백관하고 조를 작정이다.

왕은 날이 따뜻함을 택하시와 경희루에 남시었다. 어린 임금이니 어려운 판국을 당하여 지나간 동안을 지낸 것이 마치 이십년이나 지낸 듯이 지긋지긋하였다. 누구하나 정답게 말할 사람이나 있나, 들어가나 나오나 쓸쓸한 빈 집. 시끄러울이만큼 안팎에 수종 드는 나인

들과 내시들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아서 줄 정도 없고 받을 정도 없었다. 어머니같이 정든 혜빈 양씨도 동궁으로 계실때와 달라 왕이 되신 뒤에는 명절이라든지 탄신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자유로 만나기가 어려웠다.

‘심심해’, ‘쓸쓸해’, ‘귀찮아’---이것이 어린 왕의 심중이었다.

“아이구 지긋지긋해.”

이제 오늘 무시로 수양 대군, 정 인지, 최항의 무리가 무상 출입으로 쑥쑥 들어올 때마다 왕은 이렇게 부르짖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방에 앉았으면 또 누가 들어와서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할는지 아나. 경회루로 가자.”

이리하여서 왕은 두어 궁녀를 데리고 경회루로 나오신 것이다.

내려치는 서리에 연 잎사귀는 다 말라서 찬물 위에 떠있는 것이 슬펐다. 헤엄치는 잉어의 몸에 흔들리어 아깝지도 않게 수없는 진주를 굴러 떨구던 여름 이슬이 어디 남았나. 그 한 아름 되는 불그레한 꽃송아리, 전 세계를 다 덮을 듯하던 향기, 다시 찾을 곳이 없다.

왕의 어리신 마음에는 까닭 모를 슬픔이 솟아올랐다.

“이애, 너희들은 기쁘냐?”

하고 불현 듯 왕은 젊은 궁녀들을 돌아보시었다. 궁녀들의 얼굴은 꽃같이 젊고 아름다웠다. 궁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 여쭙 바를 몰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얼음이 얼거든 핑구나 돌릴까.”

하고 왕은 핑구채를 두르는 시늉을 하며 웃으시었다. 웃음이 스러지려 할 때의 왕의 옥같이 흰 얼굴은 과연 아름답다우시었다.

왕이 연당 곁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계실 때에 좌의정 정 인지가 왕의 교의 뒤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섰다.

“좌의정 정 인지 아뢰오.”

왕은 꿈이나 깨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숨을 지시었다. 정 인지를 보면 웬 일인지 뺨을 볼 때와 같이 몸에 소름이 끼치시었다.

그러나 왕은 대신을 공경하는 예로 일어나 자리를 돌리어 놓게 하시고 인지와 정면으로 대하시어 앉으시었다.

“삼감께 아뢰오. 안평 대군 용은 지친이면서 불궤(不軌)한 뜻을 품어 수양 대군의 충성이 아니더면 그 대역부도하고 흉악한 손이 하마터면 성상을 범할 뻔하였사오니, 이런 대죄인을 살려 두옵시면 장차 난신적자를 어떻게 다스리오며 또 안평 대군 용은 사당(私黨)이 많사온즉 목숨이 있는 날까지는 또 무슨 흉계를 꾸미어 나라를 어지럽게 할지 모르오니 아직 뿌리가 생기지 아니하여서 제하는 것이 지당한가 하오.”

하고 정 인지가 아뢰다.

왕은 인지를 흘겨 보시며,

“그러면 어찌하란 말이요?”

하고 떨리는 어성으로 소리를 치시었다.

“안평 대군 용은 죽음이 마땅하오.”

하고 정 인지는 조금도 서슴치 아니하고 힘있게 말한다.

왕은 인지의 수그린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 보시었다. 인지는 왕의 시선이 닿는 편 뺨이 간질간질함을 깨달았으나 아무리하여서라도 안평 대군은 없애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줄을 깊이 믿는다. 안평 대군을 살려 두었다가는 그 손에 정 인지 자기 목이 날아갈 날이 멀지 아니하리라고 그가 믿는 까닭이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설혹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숙부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소.”

하고 왕은 준절하게 인지의 청을 거절하였다.

“좌완성 신 숙주 아뢰오. 지친을 차마 법에 두지 못하심은 성덕이시오나 사정은 사정이요, 국사는 국사오니 사정이로써 국사를 그릇하지 아니하심이 더욱 크신 성덕 인가 하오. 안평 대군 용은 신인이 공노하는 대죄인이옵고 지금 천하가 다 가살 이라 하옵거든 지친의 사정에 거리끼시와 이러한 국가의 대죄인을 살려두시면 장차 국가에 큰 화단이 있을뿐더러 또한 성덕에 누가 될까 저어하오.”

하고 신 숙주가 안평 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아뢰었다. 신 숙주도 정 인지의 생각과 똑같다. 숙주와 인지와는 과연 동지였다. 숙주 없이 인지 되지 못하고 인지 없이 숙주 되지 못하였다. 인지, 숙주, 람, 명회는 수양 대군의 팔 다리다---네 기둥이다.

숙주의 말은 조리가 꼭 닿았다. 그러나 왕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죄없는 숙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고 또 성덕이 될 것 같지도 아니하였다.

“내 숙부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나는 생각지 아니하오.

내가 안평 숙부를 사모하고 믿으니 안평 숙부도 나를 위하리라고 믿소. 경들은 뉘 말을 잘못 듣고 염려하는 모양이나 내가 다 알아 할 테니 더 염려 마오. 공연히 이 일로만 성화하지 말고 나아가 다른 일이나 보오.”

하고 왕은 귀찮은 듯이 고개를 돌리시어 연당 물을 바라보신다.

인지 이하로 여러 사람들은 왕의 말씀에 놀랐다. 그 말씀이 노성함이 열 세 살되는 어린 사람의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인지의 눈은 한번 빛난다. 그는 왕의 뒤에 이러한 말을 가르쳐 드리는 누가 있는가고 의심한 것이다. 그러고는 물러나가는 길로 왕께 가까이 모시는 나인이나 내시나 중에 말마디나 할 만한 사람은 모두 골라서 내어쫓기로 작정하고 또 아무리 지친이라도 함부로 궤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길을 꼭 막아야 할 것이라고도 작정하였다.

‘양씨가 미워’

인지는 왕의 말씀에서 받은 부끄러움과 분함에 가슴이 자못 불평하여 헤빈 양씨에게 그 분풀이를 한다.

‘양씨도 치어버려야.’

하고 인지 혼자 결심한다. 왕의 헤빈 양씨를 믿고 존경하심을 알므로 그 양씨가 인지의 마음에 미운 것이다.

‘양씨가 왕께 여러 가지 죄를 일러바치는지 모른다.’

왕이 불쾌하신 빛으로 고개를 돌리시니 아무리 인지라도 더 말할 수가 없어서 마치 물러가라는 처분이나 가디리는 듯이 멋없이 읊하고 서 있었다.

이때에 우의정 한 확이 이조 판서 정 창손과 대사헌 권준을 데리고 들어와 왕께 보인다. 인지와 숙주는 이 기회를 타서 한 번 더 줄라 보려 하여 한 확과 권 준에게 결눈질을 하였다.

한 확이 무슨 말씀을 아뢰려 할 때에 왕이 먼저 선수를 쓰시어,

“안평 숙부 일을 다들 잘못 듣고 경들이 공연히 염려하는 모양이나 숙질간의 일은 숙질간에 서로 잘 알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엿소.”

하고 한 확의 말을 막아버리신다.

이때에 대사헌 권준과 대사간 이 계전이 땅바닥에 뺨적 엎디어 이마를 조아리며 우는 소리로,

“임금이 잘못하심이 있으시거든 신하된 자 죽기로써 간함이 마땅하오. 대역부도 안평 대군 용을 죽이랴시는 전교가 내리실 때까지 소신 등은 아니 물러나겠사오니 안평 대군 용을 아니 죽이시려거든 이 자리에서 소신 등을 죽여 줍소서.” 한다.

권준, 이 계전이 이렇게 지성으로 안평 대군의 목숨을 꿰고 하는 것은 수양 대군과 정 인지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계전은 불일간에 병조 판서를 시켜 준다는 내약을 수양 대군에게서 얻었었고 사실상 오늘 일 때문에 이튿날 곧 병조 판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왕은 권준, 이계전의 엄살에 겁내지 아니하시고 더리어 조롱하는 듯이 웃으시며, “안평 숙부도 죽을 죄가 없거니와 경 등인들 무슨 죽을 죄가 있나. 물러나라.” 하시었다. 이것은 무론 권 준, 이 계전 두 사람에게 내리시는 처분이다.

정 인지, 한 확이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었으나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 오늘은 이 이상 더 말해야 무익할 줄 깨닫고 정 인지 이하로 다 물러나가 버리었다.

정 인지는 이날에 매우 심사가 불쾌하였다. 둘러나온 길에 이 계전을 은밀한 데로 불러, “자네 이 길로 수양 대군 궁에 가 보게. 가서 오늘 상감께서 하시던 말씀 하고 우리 말만 가지고는 상감의 뜻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듯하니 나으리가 한 번 단단히 서두르시어야 한다고 그러게. 어, 고이한 일이로군.”

하고 입맛을 다신다. 어린 왕에게 욕을 당한 것 같아서 아무리하여도 분한 생각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계전도 정 인지의 마음 속을 알고 분해서 못견디는 듯이 조그마한 몸을 풀 곳이 없는 듯이 팔팔 뛰었다.

이 계전은 곧 수양 대군 궁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긴하고 은밀한 일에 자기가 참견하는 것이 계전에게는 크게 만족하였다. 며칠이 안 지나면 병조 판서가 아니냐. 정경(正卿)이 아니냐. 대감이 아니냐. 상감도 하오 하는 지위가 아니냐. 생각하면 금시에 날개가 돋치어서 공중으로 날아 오를 듯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다 수양 대군의 은혜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하여서라도 수양 대군이 가장 미워하는 안평 대군을 하루바삐 없애드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수양 대군 궁을 향하여 마음으로 수없이 절을 하였다.

이 계전은 첫째로 좌의정 정 인지와 자기가 어떻게 간절하게 안평 대군을 죽여야 할 것을 상감께 말한 것이며 자기는 죽여 줍소서까지 한 것이며, 그러나 상감은 ‘안평 숙부가 무슨 죄가 있나’ 하여 안평 대군이 죄 없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시던 것을 말한 뒤에 이 계전 자기의 의견으로,

“그러면 말씀이요, 안평 대군이 무죄하다 하면 나으리가 죄인이 되신단 말씀이요. 안 그렇소오니까. 하니까 소인은 죽더라도 안평을 없애고야 말려요.”

하고 자못 자기 말에 스스로 흥분이 되어 얼굴이 붉고 어성이 높아진다.

그러다가 비로소 자기가 정 인지에게 받아가지고 온 사명이 생각이 나서 제 말만 하노라고 심부름 온 것도 잊어버리었던 자기의 경망을 스스로 웃고,

“하니까, 나으리께서 몸소 상감께 뵈옵고 안평 대군의 죄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말씀 하여 놓으시면---오늘 안으로 말씀이야요---그리 하시며 내일은 좌의정이 솔백관(率百官)하고 안평 대군 용의 목을 줍소서하고 상소를 할 것이니까, 그리만 되면 안평 대군의 목이 쇠로 되었기로 견딜 장사 있소오니까.”

하고 한 번 웃어 보인다.

수양 대군은 계전의 말을 듣고 불쾌한 빛을 보인다. 수양 대군의 진정은 동기 되는 안평

대군을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이나. 상감 말씀따라나 안평 대군이 무슨 죄 있나. 한 명회 말과 같이 여러 형제 중에 뛰어나게 잘난 죄 밖에 없는 것이다. 안평 대군이 미운 것도 사실이요, 누가 죽여 주었으면 다행일 것도 진정이지마는 형되는 자기 손으로 아우를 죽여서 후세에라도 동기를 죽이었다는 누명을 듣기는 그리 원치 아니하는 바였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상감 앞에 가서 자기 입으로 안평 대군을 죽여 줍소사 하는 말은 하기사 싫었다.

수양 대군의 생각에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는 안평 대군 죽이는 일에서는 발을 빼고 싶었다. 다만 발을 뺄 뿐 아니라 수양 대군은 어디까지든지 지친의 정리에 안평 대군을 죽일 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싶었다.

“어, 안되지. 안평이 아무리 죄가 있기로 죽이다니 말이 되나.”

이렇게 한 번 힘있게 말하고 싶었다. 수양 대군의 본심은 이렇게 말하기를 즐겼으나 수양 대군의 욕심이 궤방을 놀았다.

‘안평을 살려 두고 내 뜻을 이룰까.’

하고 수양 대군은 눈을 감는다. 뜻을 이룬다 힘은 일극의 정권을 내 손에 잡는 욕심을 채운다는 말이다.

수양 대군이 아무리 안평 대군을 못 죽인다고 뻔대더라도 정 인지가 죽여 주었으면 고런 맞추임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마는 만일 수양 대군이 안평 대군을 살리고 싶어 하는 빛을 조금만 보이고 말면 정 인지도 그것이 한 면치레인 줄 알고 ‘어 안되오. 죽여야 하오’하겠지마는 그 부량이 조금 지나치었다가는 정 인지로 하여금 ‘에키’하고 물러서게 할 것인즉 그랬다가는 안평 대군은 살아나고 말 것이다.

수양 대군의 마음은 잠간 괴로웠다.

“그렇지마는 내 말은 사정이요, 제상(諸相)의 말은 공론이니까 만일 공론이 그렇다 하면 나도 공론을 막을 바는 아니어.”

하고 한참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 계전을 바로 보며,

“다 상감 처분에 달렸지. 내야 알겠나. 알아 하소.”

하고 더 말하기 거북한 빛을 보인다.

이 계전은 수양 대군의 그 심사를 못 알아볼 사람이 아니다. 아무렇게 하든지 왕의 입으로 안평 대군을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는 뜻이다.

“소인 물러가요. 염려 마시겨요.”

하고 이 계전은 수양 대군 궁에서 나와 곧 정 인지에게로 갔다.

정 인지는 아직도 아까 경회루에서 상감의 말씀으로 생긴 분함이 가라앉지 아니하여 어찌 하면 안평 대군을 죽이는 목적을 달하고 또 어찌하면 왕으로 하여금 정 인지가 무서운 사람인 줄을 알게 할까 하는 생각에 애를 쓰고 있었다.

계전이 돌아와 전하는 말을 듣고 인지는 자기가 예기 하였던 생각과 같았다는 듯이 눈을 사르르 감고 입을 한일자로 다물고 소리없이 웃는다. 이것은 무슨 계획을 얻어가지고 되었다 하는 뜻이다.

인지는 곧 사인(舍人)을 불러 내일 아침에는 술배관계(率百官啓)할 일이 있으니 정부(政府), 정(政)원(院), 삼사(三司), 육조(六曹)할 것 없이 육품(六品) 이상은 한 사람 빠지지 말고 근정전에 모이라고 분부를 내렸다.

때는 신시초(申時初)나 되어 각 마을 대소 관인들은 그날 사무를 끝내고 사퇴하려 하는 때다. 이때에 술배관계라는 말을 듣고 모두 무슨 큰일이나 보는 듯이 서로 바라보며 두런두런하였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한다는 것은 과연 큰일이다. 여간한 국가 대사가 아니고는 못하는 일일뿐더러 만일 이렇게까지 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면 대신은 백관을 거느리고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물러나오는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이니 여간 대사가 아니다. 이를테면 왕에게 대한 시위 운동이요, 최후 통첩이다.

수양 대군의 의향을 안 정 인지는 이 어마어마한 최후수단을 가지고 어리신 왕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실상 왕은 아니지지 못할 것이다. 정 인지의 입에는 쾌한 승리의 웃음이 떠돌았다.

비록 상소할 내용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이 안평 대군의 생명에 관한 것인 줄은 다들 짐작하였다. 누구나 안평 대군이 살아 있고는 수양 대군의 세상이 얼마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이다. 그런데 백관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안평 대군 궁에 출입하던 사람도 적지 아니하고 또 설사 직접으로는 안평 대군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으로 안평 대군을 사모하던 이는 부지기수요, 그뿐더러 안평 대군이 아무 죄도 없이 아주 애매한 것은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들은 장차 이 일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는지고.

원동 성총관(成總管)집 사람이다. 성 총관이라 함은 성삼문(成三問)의 아버지 오위(五衛)도총부(都總府) 도총관(都總管) 성승(成勝)의 말이다. 주인 대감은 도총관이요, 만아들 삼문은 집현전 학사로 승정원(承政院) 우승지(右承旨) 곧 예방(禮房)승지(承旨)요, 삼문의 아우되는 삼고(三顧), 삼빙(三聘), 삼성(三省)도 다 진사(進士) 대과(大科)로 한림(翰林), 검상(檢詳)의 청관(淸官)을 지내고 있다. 비록 세도하는 집은 못된다 하더라도 인물이나 문한(文翰)으로는 당시 일류로 일세가 부러워하는 바였었다.

그 중에도 성 삼문이라면 집현전 학사 중에도 가장 이름이 높은 사람중에 하나였었다. 그와 비견할 만한 이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 신숙주(申叔舟)등이 있었을 뿐이다.

세종 대왕께서 말년에 피부병이 계시어 누차 온천에 행행(行幸)하실 때에도 성 삼문은 이개, 신 숙주 등으로 더불어 평복으로 왕의 곁에 모시어 무시로 왕의 구문을 받았다. 이처럼 성 삼문과 신 숙주는 세종 대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지을 때에도 성 삼문, 신 숙주가 중심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 바이다.

세종 대왕이 승하하시고 문종 대왕이 즉위하신 뒤에도 성 삼문은 집현전 모든 학사 중에 가장 왕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 삼문이 입직하는 날 밤이면 가끔 왕이 ‘근보(謹甫)’하고 부르시며 입직청에 무시로 찾아 오시기 때문에 밤이 깊어 왕이 취침하심이 확실하다고 생각된 뒤가 아니면 성 삼문은 관복을 벗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한 말이다.

당시 이름 높던 집현전 팔 학사 중에서 경학(經學)과 인격으로는 박팽년(朴彭年)이 으뜸이요, 책론(策論)으로는 하위지(河緯地)가 으뜸이요, 시로는 이개(李塏)가 으뜸이요, 사학(史學)으로는 유성원(柳誠源)이 으뜸이요, 이학과 교제(交際)와 모략으로는 신 숙주가 으뜸이요---이 모양으로 다 각기 특색이 있는 중에 찬란한 문장과 풍류해학(風流諧謔)으로는 성 삼문이 으뜸이었다.

술 잘 먹고 잘 떠들고 웃은 소리 잘하고 세상 이면 경계 같은 것은 돌아볼 줄 몰랐다. 그러하면서도 그에게는 추상열일(秋霜烈日)과 같은 엄연한 절개(節概)가 있었다.

그가 북경 가던 길에 백이숙제묘(伯夷叔齊廟)에 써 붙이였다는 시---  
를 보든지, 또 그가 지은 단가(시조)---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하리라.“

한 것을 보든지, 다 그의 열사적 반면을 보이는 것이다.

아니다, 열사적 반면이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파탈하고 웃고 떠든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무엇으로도 곱힐 수 없는 송죽 같은 맑고 매운 절개가 있던 것이다.

또 성 삼문이 북경 갔던 길에 어떤 사람이 조선 문장 성삼문이 온다는 말을 듣고 묵화(墨畵) 백로도(白鷺圖) 한폭을 가지고 와서 화제를 청하였다. 삼문은 그림을 보자마자,  
라고 불러서 명 나라 사람들을 놀래었다고 한다. 아무리 성 삼문이 시는 잘못 짓는다 하더라도이만큼은 그도 시인이다.

성 삼문은 이번 수양 대군의 1소위 정란에 의분을 금하지 못하나 일개 승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내일은 안평 대군을 죽이기 위하여 좌의정 정 인지가 술백관계한단 말을 듣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하여 그 아버지 승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평소부터 믿던 집현전 친구들을 모아 명일에 할 대책을 토론태기로 하였다.

삼문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시회를 빙자로 박 췌년, 하위지, 유 성원, 이개, 이석형(李石亨),기건(奇虔)등을 청하였다. 신 숙주, 최 항을 청하고 아니 청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인 뒤에 의논하기로 하였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대로 비분강개한 언론이 나왔다. 이번 수양 대군의 정란이 생긴 뒤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기는 처음인 까닭이다.

“당초에 어찌된 셈을 알 수 없어---자네는 정원에 있으니잘 아나?”

이것은 하 위지가 성 삼문에게 묻은 말이다. 하 위지의 이때 벼슬은 집의(執義)다. 청천벽력이어서 어찌된 셈을 모르는 것은 하 위지뿐이 아니었다. 수양 대군이 이상한 뜻을 품었다는 것은 문종 대왕 승하 이래로 소문난 일이지마는 설마 이렇게도 벼락같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 정부에서는 감감히 몰랐더람. 지봉(芝峯)은 몰랐다 하더라도 절재(節齋)까지라도 몰랐더람. 다들 낮잠만 자고 있었더람.”

하고 주인 되는 성 삼문이 도리어 먼저 분개하였다. 지봉이란 황보 인의 당호요, 절재란 김종서의 당호다.

다른 사람들 모두 정부의 무능을 문개하게 여겼다.

그런게 아니라, 절재가 수양 대군의 흥계를 먼저 알기는 알았으나 저편이 수양 대군이고 보니 일이 생기기도 전에 잡아 가둘 수도 없어서 기회를 기다리기로 다 계획을 정하였더라. 그런걸 지봉이란 양반이 정가에게 말을 했더라네그러. 그래서 모두 이 꼴이 된게래.“

하고 이 개가 꺾 웃는다.

황보 인이 정 인지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잘못 안 말이다. 수양 대군이 조금만 꿈쩍하면 사정없이 처치한다는 계획을 정 인지에게 누설한 것은 황보 인이 아니라 이양이었다.

“응, 자네 말이 그럴 듯한 말일세.”

하고 박 췌년이,

“그러면 정가는 애초부터 수양의 편이더라 말인가.”

하고 놀라는 빛을 보인다.

“참말 오환한 선빌세 그러.”

하고 하 위지가 박 팽년을 보고 웃으면서,

“그럼 무엇으로우참찬에서 경충 뛰어서 좌의정이야? 정가의 눈에 아비 죽일 살이 있다더니 이제 그 눈이 큰일 낼걸.”

정가라 함은 무론 정 인지다.

“벌써 큰일을 내지 아니하였나. 그놈이 사실 전부터 수양허구 통하였다 하면 그놈 살려 두겠다고. 그놈이 지봉에게 수학(受學)을 하였다네.”

하는 것은 박 팽년이다.

“무부무군(無父無君)한 이 세상에 스승인들 있겠나. 뭐 이것,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아나. 아직 시초 일세 시초여.”

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뜻을 보이는 것은 하 위지다. 과연 하 위지의 얼굴에는 상심하는 빛이 보이었다.

“그런데 이 살마이 왜 아니 와.”

하고 성 삼문은 유 성원을 기다린다.

“그 반교문(頒敎文)을 지어 놓고는 여태 밤도 아니 먹는데.”

하는 것은 김질(金叱)이다. 김질은 정창손(鄭昌孫)의 사위요, 장차 육신의 계획을 세조 대왕에게 일러바칠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양 대군의 일에 분개하는 지사(志士)다.

한 번 더 유 성원 집에 사람을 보내어 어서 오기르 재촉하였다.

유 성원은 ‘내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대들을 애하라’ 하고 여러 번 거절하다가 마침내 마지못하여 왔다. 원래 뚱뚱한 편이던 그 얼굴이 그렇게 보는 탓인지는 몰라도 하루 사이에 눈에 뜨이게 초췌한 듯하였다.

유 성원은 방에 들어서서 성 삼문, 박 팽년 이하 여러 친구들을 대하는 길로 눈물을 흘리며 느껴 울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제공(諸公)을 대하겠나.”

하고 말 끝을 맺지 못하였다.

성 삼문 이하로 모인 사람들이 다 삼연히 눈물을 머금고 유 성원의 손을 잡아 위로하였다.

“자네가 죄라면 우리가 다 동죄(同罪)야.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 남지 아니하면 대의(大義)를 뉘 있어 지키겠나.”

하고 성 삼문이 특별히 유 성원을 위로하였다.

유 성원의 눈물은 여러 동지(同志)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유 성원이가 수양 대군에게 내리는 교서를 지은 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유한이 아닐 리가 없고 또 가장 공평하게 말하더라도 유 성원의 일생에 큰 오점(汚點)이 아닐 리가 없다. 만일 유 성원으로 하여금 절개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그로 하여금 교서 짓기를 거절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수양 대군의 노함을 사서 목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마는 그것이 의기 남아가 밝을 가장 옳은 길일 것이다.

유 성원에게는 칠십이 넘은 병석에 누운 노모가 있었다. 자기는 결코 목숨을 아낀 것이 노모를 위한 것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나 성 삼문, 바 팽년등 지기지우들은 그의 충성과 효성을 잘 알았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정인지가 불러주다시피 교서에 쓸 요령을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충의가 일월과 같은 황보 인, 김 종서 등을 궁흉극악한 역적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하면 천지 일월이 부끄럽고 금수 초목이 부끄럽고자기 그림자가 부끄러웠던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과도히 슬퍼 말게. 우리 목숨이 열이라도 장차 다 쓰고도 부족한 날이 있을 것 일세. 아직은 억지로라도 살아야 해. 못 참을 것을 참더라도 살아야 하네.

자네 진정을 천지심명이 알고 우리 몇 친구가 아니 무슨 걱정인가.“

하고 손을 잡고 유 성원을 위로하는 것은 박 췈녕이다.

“그렇기를 두 말인가. 자네 이번 일이 잘한 일은 아니지. 실수는 실수지마는 장차 벗을 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은 하 위지다. 하 위지는 앞 일을 내다보는 듯이 말하였다.

친구들의 진정으로 하는 말이 일변 가슴을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하고 일변 고맙기도 하였다.

유 성원 때문에 좌중에는 말할 수 없이 비창한 기운이 충만하였다.

“자, 이 말은 고만하고내일 일을 의논하세.”

하고 화제를 돌리려는 것은 성 삼문이다.

“내일 술백관하고 상소를 한다니 그게 무슨 일이겠나. 생각건대 안평 대군 일인 듯하여.”

하고 성 삼문은 정원에 있으므로가장 이런 일에 기미를 알아야 할 처지이므로 먼저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최항(崔恒)이는 그 일을 알 듯하기로 물어보았지마는 잡아테어. 도승지가 되었다고 교가 났는지, 우리를 대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지 나를 보면 피해.”

“영양위 궁에서 수양 대군을 불러들이고 제신들을 속이어서 불러들이고 상감을 속이고 한 것이 모두 최 항이 놈의 농간이야.”

하고 격하기 쉬운 이 개의 핏기 없는, 연약해 보이는, 병색있는 얼굴이 감정으로 빨개진다.

“최 항이가 정 인지 문하에 갇혀 다니느니. 사람이 재승박덕해. 재주는 있지마는 원체 의 리가 박하고물욕이 있어.”

하는 것은 전 대사헌(大司憲) 기건(寄虔)의 말이다. 기건은 수양 대군 이하 왕자들이 궁중에 분경(奔競)하는 것을 탄핵(彈劾)하다가 수양 대군에게 밀리어 쫓겨난 사람이다.

“최항이 아니기로 모르겠나. 내일 상소야 뻥하지. 수양 대군이 안평 대군을 싫어하는 줄 아니까 안평을 아주 죽여버려서 수양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는 정 정승의 충성에서 나온 일 이겠지.”

하는 것은 하 위지다.

문제의 중심은 내일 아침 정 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근정전에서 상감께 안평 대군 죽여 야 할 것을 아릴 때에 그 옳지 못함으로 한 번 다투어 볼까 함이다.

“간신(奸臣)의 무리가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죽이는 것을 볼때에 묘당(廟堂)에 한 사람도 다투는 이가 없다. 하면 의(義)를 어디 가서 찾는단 말인가. 또 이때에 한 번 수양과 정가의 예기를 지르지 아니하면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이니까 이때에 우리가 불가 불 목숨을 내어놓고 다투어야 할 것일세.”

하고 강경론을 하는 것은 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이개의 심중에 항상 수양 대군과 정 인지의 주구(走狗)가 되어 꺾죽대는 그 숙부 계전의 모양이 보이었다.

이 개의 강경론에 성 삼문, 김 질도 찬성하였다. 어전에서 한 번 정 인지와 흑백을 다툰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아니하면 누가 한단 말인가. 만약 이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 소불위할 것이 니까, 우리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연명을 하여가지고 한 js 정가에게 하늘 높은 양을 보 여야 하네.”

하고 김 질은 연명상소라는 구체안까지 내어 놓았다. 김질의 말에 여러 사람은 그럴 듯이, 그러나 결정 못한느 듯이 서로 바라보고 앉았다.

김질은 풍세가 좋은 듯하면 더욱 기운을 내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견이 설 듯한 눈치를 보고는 더욱 기운을 내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일 조회에 정 인지가 말을 낼 때까지는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거든. 정 인지가 의기 양양해서 안평 대군 죽여야 한다는 뜻을 상감께 상주하고 물러나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어든. 그러면 정 인지의 득의가 오죽하겠나. 그때에 우리가 나선단 말이야. 우리가, ‘상감께 아뢰오. 좌의정 정인지의 말이 옳지 아니하외다.’ 하고 나서는날이면 제가 간담이 스늘하지 않고 배기겠나. 이것도(하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우뚝 내세운다. 수양 대군을 가리키는 뜻이다) 예끼하고 가슴이 꿈쩍할 것일세. 그렇다구 우리가 무서워서 하려면 일을 못하지는 않겠지마는 설사 우리 본 뜻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한 번 크게 예기는 질러 놓는단 말이야. 망신도 한 번 툭툭히 시키고, 안 그런가?”

김질의 눈가에는 회심의 웃음이 돈다.

박 쟁년, 하 위지같이 마음이 무거운 패는 김질의 말을 듣고,

“응, 왜 그리 말이 교묘하고 자리할꼬.”

하여 김질의 태도가 군자답지 못함을 불쾌하게 여기었으나 성 삼문, 이 개와 같이 외분이 앞서는 사람들은 수양 대군, 정 인지 등을 한번 망신을 시키는 것만 해도 어떻게나 통쾌한지 몰랐다.

“됐네 됐어. 꼭 됐어.”

하고 성 삼문은 무릎을 치며 김질의 꾀를 칭찬하였다.

유 성원은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앉았다.

이렇게까지 하여서라도 안평 대군을 위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결코 안평 대군이 무죄한 사람이란 이유만은 아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판에 무죄한 목숨○르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다들 여유가 있을까?---없다. 안평 대군을 살려야만 할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첫째로 가는 것은 안평 대군이 살아 있지 않고는 감히 수양 대군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안평 대군마저 죽어버리면 수양 대군 일파에 대하여서는 정히 무인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보아서 아무리하여서라도 안평 대군은 죽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안평 대군을 살려야 할 둘째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도덕적 이유다. 성 삼문등이 생각하기에 수양 대군은 불의를 대표한 세력강요, 안평 대군은 의를 대표한 세력이었다.

안평 대군이 밤낮에 시와 술과 풍류에 묻히어서 비록 적극적으로 하여 놓은 일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알아보고 옳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므로 천하 옳은 사람의 돌아가는 박 되어 은연중 천하 인인지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 대군이 죽는 것은 안평 대군 개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의를 대표하는 세력이 죽는 것이다. 이므로안평 대군은 아니 살리지 못할 것이다.

안평 대군을 아니 살리지 못할 셋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어리신 상감을 위하여서다. 고명 받은 유력한 제신이 다 죽어버린 이때에 어리신 왕을 보호할 가장 큰 힘은 안평 대군이다. 성 삼문 일파의 눈에 수양 대군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의 목적이 성왕에게 대한 주공이 됨에 있는 것을 누누이 성언한다 하더라도 상감에게 호의를 가진 보호

자가 아닌 줄로 보이었따. 그러므로 왕을 안전하게 함---그것은 성 삼문 일과 자기네의 문명 고명에 대한 최대한 의무다---에는 안평 대군을 살리는 수 밖에 없었다. 안평 대군에게 개인적으로 받은 지우(知遇)에 대한 정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편으로 보든지 안평 대군을 살려내는 것은 현하시국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하려면 그 가장 첩경은 수양 대군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지마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남은 길은 여론을 일으켜서 수양 대군으로 하여금 체면에 안평 대군 죽이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정 인지는 이것을 ---여론이 일어나면 이롭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극비밀리에, 질풍신뢰적으로 해버리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술백관하고 왕을 위협해 왕께서 부득이 수양 대군에게 물으시어, 수양 대군이 가장 부득이한 듯이 백관의 의향을 막을 수 없다고 상주를 하여, 그리하면 아마 일주야가 지나지 못하여 안평 대군의 목숨은 벌써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을 살리려는 편에서는 어떻게 조수족할 여유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인제는 김 질의 말과 같이 내일 아침 묘당에서 한바탕 풍파를 일으켜 보는 수 밖에는 아무 도리도 없다.

감정에 격한 이개, 성삼문 등은 전후를 돌아볼 새 없이 김질 의 말에 찬동하였으나 비교적 냉정하고 이지적인 하위지, 박 팽년 같은 이는 또 그 결과액까지 생각이 미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일은 안되고 목숨은 잃고 그렇지마는 의리상 아니 그러할 수는 없고……”

실로 난처한 딜렘마( 경우)다.

“이번에도 목숨은 하나 내어놓아 하겠고 또 후일을 위하여서도 목숨은 하나 남겨 두어야 하겠고.”

하고 마침내 박 팽년이 탄식하는 소리를 발하게 되었다.

사실상 그러하였다. 수양 대군이 정권을 잡은지 사흘이 다 되지 못하여서 벌써 벼슬하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 돌아가 붙으려고 애를 썼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의리와 임금에게 충성되기보다 권세 잡은 수양 대군, 정인지에게 충성도기를 힘쓸 것이다. 만일 이번 안평 대군일로 하여 ‘우리네’가 다 죽어버리면 뒷 일은 누구에게 부탁하랴 하는 것이 오늘 밤 모인 몇 사람의 진정의 근심이였다.

이 때에 성 삼문이 신 숙주 문제를 끌어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청하려다가 또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아니 청하였다. 이번에 갑자기 벼슬이 높이 오른 것을 보면 수양이나 정가에게 간히 보이기도 한 모양이지마는 그런들 설마 아주 환장이야 하였겠나. 설사 환장이 되었기로니 우리 말이야 제가 안 들겠나. 또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네 중에 신 숙주가 가장 수월한 듯하니까 아마 그 마음을 사노라고 높은 벼슬을 주었는지도 알 수 없어. 아무리 세상이 뒤집혔기로 설마 신 숙주가 어디 그럴리야 있을라고.”

신 숙주는 이른바 집현전 팔 학자 중에 하나로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어느 누구와는 친하지 아니하라마는 특히 성 삼문과는 성이 다를 뿐이지 죽마고우요, 동문수학이요, 동포형제나 다름이 없이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남들은 닷 신 숙주를 의심하여도 성 삼문만은 아직도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아니하였다.

“아니야 아니야.”

하고 성 삼문의 말에 이 개가 손을 내어두르며 굳세게 부인하였다---

“신 숙주가 이번 일에는 제일 가는 모사래. 첫째 한 명회, 둘째 신 숙주라네. 내 삼촌 말

을 들으니까 신 숙주는 벌써부터 수양 대군과 통한 모양이요, 정 인지를 수양 대군에게 갖다가 붙인 것도 신 숙주라나보데. 내 삼촌은 수양 대군 문하에 밤낮 다니거나 하지마는 신 숙주는 수양 대군 궁에 한 번 발도 안 들여놓고도 내 삼촌보다는 더 긴했던 모양이니 알아볼 것 아닌가.”

사람들의 눈은 성 삼문에게로 옮았다. 그러나 삼문도 이 개의 말을 반박할 아무 재료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래도 신 숙주가 나서면 혹시 안평 대군을 살려낼지도 모르니 한 번 말이나 해볼까.”

“안될 말이야! 안평 대군을 죽여야 한다는 꾀도 신 숙주 놈의 속에서 나왔기가 십상 팔굴세. 내 삼촌의 말 눈치가 신 숙주 놈부터 때려죽일 놈이야.”

하고 이 개는 흥분을 못이겨 그 가냘픈 몸이 떨린다. 이 개가 삼촌이라는 것은 무론 이 계전이다.

명일 조회에 한 풍파 일으키기로 마침내 작정이 되었다. 의리소재에 주저할 바가 아니라고 보았다.

“뒷 일을 생각해서 목숨을 아껴 둔다는 것은 의가 아니어. 보지 못하는 장래를 위하여 목전에 다닥친 대의를 저버리다니 말이 되나. 우리네가 이번 의에 죽으면 후일에 그때 의에 죽을 사람이 자연 또 있을 것이어.”

하는 이 개의 말은 여러 사람의 뜻을 결정하는데 가장 힘이 있었다. 이석형(李石亨), 기건(奇虔)의 자중론(自重論)은 이 대의를 앞에 자연히 소면되고 말았다.

오륙인 이관말직의 의롭고 약한 힘으로 일국 정권을 마음대로 놀리는 수양 대군과 정 인지를 대항한다는 것은 실로 당량거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함 죽는다’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였다.

술이 나왔다. 아마이 세상에서 마지막인지 모를 주회다. 권커니 잡거니 여러 순배에 이르러도 내일 일이 관심이 되어 술이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누구 유력한 사람을 하나 장두(狀頭)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네 미관말직만이 나서는 것보다 그래도 재털에 참여한 사람이 한둘 있었으면 더 소리가 크지 않겠나.”

하고 하 위지가 술잔을 놓고 말을 낸다.

“그래, 내 뜻도 그러이.”

하는 것은 박 팽년이다.

박 팽년이 예조참의(禮曹參議), 성 삼문이 우승지(右承旨), 이 개가 직제학(直提學), 유성원이 사예(司藝), 김 질도 유성원과 같이 사예, 이 석형이 교리, 그중에 기건이가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니 가장 벼슬자라거 높다 하려니와 현직은 없고 그 나머지는 조정에 나서서 힘있게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 이가 없다. 현재 대사헌 권준(權蹲), 대사간 이계전(李季甸)이 동지였으면 대단히 소리가 클 것이언마는 이 두사람은 수양 대군의 심복이다. 그런즉 내일 조정에서 정 인지와 다룰 때에는 적어도 정경(正卿)의 지위는 가진 사람이 두목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한 번 말을 낸 뒤에는 아무나 나서서 말할 수가 있겠지마는 처음 말을 낼 사람은 지위나 명망이 족히 정 인지와 비동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좋을까 하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한 사람을 택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은 독자도 벌써 짐작할 것이니 그것은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 허후(許詡)다.

허 후 집에 가는 교섭 위원은 성 삼문과 이 개 두 사람으로 정하였다. 이 개와 허 후와는 관계가 있다. 허 후의 아들 교리 허조가 이 개의 매부였다. 이렇게 이 개와 허 조와는 다만 남매의 분의가 있을뿐더러 또한 자기상적하는 동지였다.

성 삼문, 이 개가 잣골 허 후 집에 다다랐을 때에는 벌써 야심하였었다. 그러나 인제 어떠한 벼락이 내릴지 모르는 허 후 집에서는 내외가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개만 짖어도 금부 도사나 아닌가 하고 마음을 조리고 있었다.

성 삼문, 이 개는 우선 허 조와 만나서 내일 일을 말하였다. 허 조는 대번에 승낙하였다.

“그런데 여보게.”

하고 성 삼문은 허조더러,

“춘부 대감께서 앞장을 서시어야 하겠네. 우리네 미관말직배들만으로써 무슨 말이 설 수 있겠나. 그래서 춘부 대감을 우리 두령으로 추대하기로 의논들이 되었네.”

하고 허 후가 두목으로 나서지 아니하면 안될 뜻을 말하였다.

허 조는 아버지의 명운이 실로 절박한 것을 깨닫고 한참이나 침음하더니,

“잠간 기다리게. 내 아버지한테 자네 말은 전함세. 자식된 도리에 늙은 아버지를 죽을 길로 들어가시라고 권하기는 차마 못하겠네그려.”

학 큰사랑으로 올라갔다.

허 후는 이때까지도 옷도 끄르지 아니하고 편지축을 내어놓고는 이번에 순난(殉難)한 여러 친구들에게서 받은 필적들을 골라서 끓어 앉아서 두 손으로 받들고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내려는 뜻을 보인다.

허 후는 아들 허 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 너 잘 왔다. 이리 오너라.”

하고 서안 위에 골라 놓은 몇 몽텅이 종이를 가리키며,

“이것이 지봉(芝峯), 이것이 절재(節齋) 관적이야. 충신 열사의 필적은 분향 단좌하여 보는 법이야. 이것은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하고 또 다른 몽텅이 하나를 내어놓으며,

“이것은 안평 대군 필적이야. 다 잘 두어라.”

한다. 아무리 의에 대하여는 자기 목숨을 초개같이 아는 허 후라도 불출일년에 아들 손자가 다 도륙을 당하고 허 후의 집이 영원히 멸망해 버리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의 눈 앞에는 둘째 손자 구령(九齡)이 할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아랫목에 곤하게 자는 양이 보인다. 큰 손자 연령(延齡)은 명춘에 과거를 보려는 나이다.

허 조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예’ ‘예’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은 슬펐다. 그렇게도 좋은 아버지---좀 괴벽하다고 할 만은 하지마는 일찍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 몸이나 제 집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거나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별로 능력은 없으나 나라 일만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해하던 아버지---그러한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금부 도사를 기다리게 된 정경을 생각하면 전래 효서를 타고난 허 조의 가슴은 메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성 삼문, 이 개가 청하는 대로 한다면 아마도 이 늙고 좋은 아버지의 생명은 내일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부르고는 허 조는말문이 막히었다. 죽고 사는데 대하여 무서워하거나 슬퍼할 허 조가 아니언마는 모든 사정이 허 조의 슬픔을 폭발하게 한 것이다.

허 후는 안평 대군의 편지 한 장을 들고 보다가 아들의 말에 놀라는 듯이 고개를 들어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본다.

“아버지!”

하고 허 조는 남아의 의기로 복받치어 오르는 울음을 눌러버리고,



“성 삼문이가 왔습니다.”

하고 말문을 열었다.

“성 삼문이가 왔어? 혼자?”

“이 개허구요.”

“응, 어찌해 이 밤중에?”

하고 허 후는 손에 들었던 안평 대군의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내일 아침에 술백관계한다고 아니 합니까.”

“응, 그렇지. 정가가.”

허 조는 방 안에 누가 듣지나 않나 하는 듯이 휘 한번 둘러보고는 소리를 낮추어,

“오늘 저녁에 성 삼문의 집에 몇 사람이 모였더래요.”

“누구 누구?”

“그 사람들이지요---박 팽년, 하 위지, 이 석형, 기건, 유 성원…….”

하고 말도 끝나기 전에 허 후가 눈을 크게 뜨며,

“무어? 유 성원이 무슨 낮을 들고 나와 텅겨?”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제야 협박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유 성원이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어요?”

하고 허 조는 유 성원을 두남둔다.

“협박만 받으면 아무런 것이라도 한단 말이나.”

하고 허 후의 소리는 더욱 커진다.

허 조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잠간 잠자코 앉았다.

허 후는 유 성원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잊었던 것을 생각하고 성난 것을 거두고,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찌했던 말이나?”

“내일 아침 정 인지가 안평 대군 죽여야 할 것을 주장하거든 안평 대군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크게 박론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하는 허 조의 말에 허 후의 고개가 저절로 번쩍 들리고 눈이 크게 떠지더니 숨길 수 없이 기쁜 빛이 드러나며,

“그렇기로 작정을 했어? 조정에서 정 인지와 한바탕 다투기로?”

하고 참을 수 없는 듯이 빙그레 웃는다---

“어, 장하다. 아직도 의가 살았구나.”

허 후는 유 성원 때문에 일어났던 분한 마음도 다 스러지고 가장 유쾌한 듯이,

“왜 이리 들어오라고 아니한단 말이나. 귀한 손님들이로구나. 이리 들어오라고 하여라.”

하고 서안 위에 늘어 놓인 종이 몽텅이를 주섬주섬 주워서 문갑 속에 집어 넣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앞장을 서라고요.”

하고 허 조가 아버지를 우러러본다.

“내가 나서라고? 나서기를 두 말이나. 하늘이 도와서 인제 내가 죽을 곳을 얻었다. 어서 다들 이리 들어오라고 하려무나.”

하고 허 후는 마치 오래 그리워하던, 대단히 반가운 사람이나 만나려는 듯이 기뻐하였다. 처네를 들어 손자 구령의 곤히 자는 몸을 덮어 주었다.

이리하여 허 후와 내일 일을 다 짜 놓고 허 후 집에서 나오는 길에 성 삼문은 이 개더러,

“여보게, 우리 범옹(泛翁)이한테 들러 가세.”

하였다. 범옹은 신 숙주의 자다.

“그건 무엇하러?”

하고 이 개는 냉랭하였다.

“가서 그 사람이 환장을 했나 아니했나 보세그려. 보아서 정말 환장을 했거든, 한바탕 호령이나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예전 신 숙주대로 있거든 안고여 대군 위해 힘을 좀 쓰라고 해보세그려. 사리 여보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친구르 버린다는 것이 어디 친구의 도린가.”

하고 삼문은 이 개를 끌었다.

성 삼문의 말은 이치에 합당하였다. 이 개는 마음으로는 싫지마는 성 삼문의 말을 그렇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신 숙주 집이라야 허 후 집과 같이 잣골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얼마 돌지도 아니하겠기로 성 삼문을 따라 섰다.

신 숙주 집 대문은 굳이 잠겨 있었다. 문을 열 때에는 전에 보지 못하던 관노(官奴)같은 자 사오인이 성 삼문, 이 개에게 대하여 교만한 태도로 수하(誰何)하였다. 이 개는 대토하여,

“이놈들! 눈이 빠졌느냐. 우리를 몰라보고 웬 버르장머리야.”

하고 호령을 하였다.

이 개가 하도 툭툭히 호령하는 바람에 관노 같은 놈들은 뒤로 물러섰다. 이 소리에 뛰어 나온 종 하나가 성 삼문을 알아보고 허리를 굽신하며,

“원골 영감마님입시오.” 한다.

“오, 영감 계시냐?”

하고 성 삼문의 말에 종이,

“네, 대감 마님 계시오.”

하고 곁에 무엇이 있으면 둘러치기라도 할 드이 잔뜩 성이 난 이 개를 힐끗 본다.

“오, 따는 영감이 아니라 대감이시로구나.”

하고 성 삼문은 신 숙주 집 기구가 갑자기 변하였구나 하면서 사랑으로 들어갔다.

“범옹이!”

하고 길게 부르는 성 삼문의 소리---그것은 거의 날마다 귀에 익히 들던 옛 친구의 소리나---에 신 숙주는,

“어, 근보(謹甫)인가.”

하고 전보다 더욱 반가운 듯이 뛰어나와 맞았다. 숙주의 등 뒤로 흘러나오는 불 빛에 전에 보던 커다랗고 넓적한 옥관자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그마한 환옥관자를 붙인 것이 눈에 띄었다.

“소인 문안 아뢰오.”

하고 성 삼문이가 시치미 떼고 신 숙주 앞에서 읊하는 것으 르신 숙주가 한 손으로 성 삼문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이 개의 팔을 잡으면서,

“이 사람 미치었다. 이건 다 무슨 짓이야.”

하고 픽 웃고,

“이리 들어오게.”

하며 두 사람을 방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그런데 이게 웬 일이야? 이 밤중에?”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방 한 편 구석에 피석하여 앉은 사람을 바라본다. 성 삼문, 이 개의 눈도 그리로 향하였다. 거기는 사팔뜨기 눈에 광대를 쭉 내쫓고 허위대 큰 작자 하나가 있다.

‘저게 웬 것이야?’

하고 성 삼문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 괴상하게 생긴 작자는,

“대감 안녕히 주무시오.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일어나 나갔다.

한 명희가 사팔뜨기라더니 저것이 한 명희라는 것인가 하고 성 삼문은 일어나 나가는 한 명희의 뒷모양을 흘겨보고 한 명희 유가 이 야심한테 신 숙주와 단둘이 무슨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마땅치 못하였다.

“이사람 그것 웬 작잔가?”

하고 삼문은 한 명희가 마당에 내려설까 말까 한 때에 듣겠거든 들어라 하는 듯이 큰소리로 물었다. 이 개도 책망하는 듯한 눈으로 이 질문을 받는 신 숙주를 바라보았다.

“응, 그 사람, 저 뉘 심부름 온 사람이야.”

하고 숙주의 어음은 분명치 못하였다. 숙주는 어찌해 등에다가 모닥불을 퍼붓는 듯함을 느끼었다.

여태껏 한 명희에게 또박또박 대감을 바치고 경대함을 받을 때에는 자기의 지위가 높음을 깨달아 만족한 기쁨이 있더니 성 삼문, 이 개 두 친구의 들여다보는 눈을 볼 때에는 몸이 무엇에 놀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음을 깨달았다.

“뉘 심부름 온 사람이라니 그 눈꺾하고 흉악하게 생겨먹은 품이 수양 대군 궁에 드나든다는 한가 아닌가. 이번에 영양위 궁 사람 죽이는 일에는 원훈이라지?”

하고 이 개가 칼날같이 날카로운 말로 숙주를 쏘았다.

숙주는 웃고 손으로 턱을 만질 뿐이요, 대답이 없다.

“그런가, 그것이 한 명희가.”

하고 삼문도 곁에서 재촉한다.

“그래, 한 명희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닐세. 외양은 그렇지마는 마음은 그닥지는 아니한 모양이야. 저민 대생의 사위 아닌가.”

하고 우리네가 사귀어도 관계치 않다는 듯이 숙주가 억지로 쾌활한 빛을 보인다.

숙주가 한 명희의 변명을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에는 더욱 불쾌하였다. 더구나 이 개는 당장에 숙주의 낮에 가래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도록 명희를 변명하는 숙주의 낮이 뻔뻔하였다. 오직 숙주를 가장 믿고 사랑하는, 본래 친구를 믿으면 거짓말까지도 믿으려 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는 성 삼문만이 어떻게 하여서도 숙주가 변심하지 아니한 것을 이 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단도직입으로,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야심한테 온 것은 자네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 온 것이야. 세상에서 말하기를 자네가 변심하였다네그려---우리네를 버리고 정 인지 편이 되었다니 그런가. 정 인지라고 본래부터 그리된 것은 아니겠지마는 정 인지야말로 단단히 변심을 하였어. 세상이 다 지붕, 절재를 배반한다기로니 정 인지야 어디 그럴 수가 있겠나. 저는 그럴 수가 없지. 그런데 듣는 바로 보면 지붕, 절재를 죽이게 한 것이 한 명희, 정 인지의 소위라 하니 정 인지가 환장이 안되었으면 그러 수가 있겠나. 그런데 자네는 이 계전, 최 향과 함께 정 인지 패가 되었다고 하니 그게 있을 말인가. 어디 자네 입으로 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여보게. 이번 자네 벼슬이 갑자기 뛰어 오른 것이 수상하다고들 하지마는 그것이 혹 자네를 환장시키려는 정 인지의 계책인지 몰라. 그렇지만 어디 세상에서야 그렇게 생각해 주나. 다 자네가 정 인지 편이 되었다고 그러지. 아무려나 자네가 청백한 것을 보이려거든 우선 자네 입으로 이 자리에서 시원히 말을 해보게.”

하고 숙주를 바라보았다.

숙주의 관자놀이는 철새 없이 들떡 거리었다---.

“어디 변심이고 말고가 있나.”

하고 숙주는 겨우 불분명한 외마디 대답을 한다.

“아니, 이 사람.”

하고 이 개가 고개를 숙주에게 내어밀고 살기 있는 눈으로 숙주의 옥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노려보며 묻는다---.

“그러면 자네는 이번 수양 대군의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집현전에서 영묘(英廟)와 현릉(顯陵)의 고명을 받던 신 숙주 고대로 있단 말인가. 그렇거든 그렇다고 분명히 말을 하게.”

성 삼문, 이 개의 말은 구구절절이 신 숙주의 폐부를 찔렀다. 신 숙주는 ‘죽을 죄로 잘못 했으니 살려 줍시오’

하고 그만 방바닥에 엎드리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리할 수가 있을까---그리할 수는 없다.

숙주는 얼음같이 차디찬 욕심의 들로 설레는 양심의 병아리를 짹 눌러 질식을 시키고,

“글세, 이 사람들이 오늘 웬 일인가. 자네네들까지야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쓰겠나.”

하고 슬쩍 농치어 버린다.

이때에 종이 주안상을 들고 나왔다.

이 주안상은 숙주를 살리었다. 숙주에게 잠시 피신할 곳을 준 셈이다.

“자, 한 잔 먹세.”

하고 숙주는 예쁜 종으로 하여금 술을 치게 하였다. 이 젊은 종은 삼문이나 이 개가 일찍 숙주의 집에서 보지못한 바다. 그렇기로 벼슬이 오른지 사흘이 다 못되어 이대도록 숙주 집 기구가 굉장하게 변할까.

신 숙주 아버지는 참판 신장(申樞)이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되지 못한다. 아버지 신 참판이 치산하는 재주가 있는 덕에 가난치는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을 둘 처지가 못 되는 줄은 성 삼문이 가장 잘 아는 바다. 이 종은 수양 대군한테서 선물 받은 종이다. 술도 수양 대군 궁에서 온 술이다. 그런 줄을 알았더라면 성 삼문, 이 개는 아니 먹었을는지 모르거니와 그들은 출출한 김, 흥분한 김, 으스스 추운 김에 이 따뜻하게 데운 달고 매운 향긋한 청주를 따라 놓는 대로 아니 마실 수가 없었다. 이리하는 동안에 신 숙주는 두 친구의 무형한 단근질에 부대끼던 몸을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이 술에 대하여 신 숙주의 부인 윤씨(尹氏)에게 감사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윤씨는 채와 색과 덕이 겸비하기로 동배간에 유명한 부인이다. 그는 남편의 친구가 사랑에 오면 가만히 종을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를 탐지하여서 적당하게 대접을 한다. 그것은 남편과의 친 불친을 표준으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결코 그 뿐은 아니다. 덕행과 명성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판단하여서 대접할 만한이는 하고 못할 이는 아니한다. 윤씨의 이 총명에 대하여서는 신 숙주도 신임하고 간복하는 터이다.

윤씨 부인은 한 명회가 왔을 때에는 아무 대접도 아니하였다.

“왜 그런 소인을 사귀시오?”

하고 직접 남편에게 말한 적까지 있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소인은 아닌걸.”

하고 그때에도 숙주는 아내에게 어물어물해버리었다.

성 삼문이 윤씨 부인의 가장 환영하는 손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성 삼문 올 때에 나

오는 술상이 가장 좋다. 좋은 안주가 생긴 때에는 윤씨는 성 삼문 오기를 기다려서 다락 속에 감추어 둔다. 오래 감추어 둘 것 없이 성 삼문이 찾아온다. 아내의 이 뜻을 신 숙주도 기뻐한다. 아내 윤씨는 남편 신 숙주의 뜻을 다 알아 두고는 남편이 말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바를 다하여 준다. 참알뜰한 며느리요, 아내라고 칭찬 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면 자네 뜻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단 말인가?”

하고 성 삼문은 한 번 더 숙주에게 묻는다.

“두 말인가. 신 숙주가 설마 권세를 따라서 마음 변할 사람이겠나. 자네들한테 이러한 의심을 받는 것이 내가 박덕한 탓일세마는 내 마음은 그렇지를 앓아.”

하고 숙주는 잠깐 휴양하는 동안에 새 기운을 얻어서 서슴치 않고 대답하여버린다.

“글세, 그러면 그렇지. 우리 범옹이가 설마 절개를 팔아 먹을리야 있나. 여보게 백고(伯高) 안 그런가.”

하고 성 삼문은 그만 마음이 탁 풀려서 좋아라고 무릎을 치며 이 개를 바라본다. 숙주가 무죄한 것이 그렇게 기뻐던 것이다. 백고(伯高) 안 그런가.“

하고 성 삼문은 그만 마음이 탁 풀려서 좋아라고 무릎을 치며 이 개를 바라본다. 숙주가 무죄한 것이 그렇게 기뻐던 것이다. 백고(伯高)는 이 개의 자다.

그러나 이 개는 그러해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맵고 맺힌 사람이다. 숙주의 말이 그대로 믿어지지를 아니하였나.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하고 이 개는 폐간을 꿰뚫어보는 듯한 무서운 눈으로신 숙주를 들여다보며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들이세운다---

“진실로 자네가 청청백백할 것 같으면 그러한 표를 보이게.”

하고 이 개가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그 표를 보이는 것인가.”

하고 신 숙주도 청백한 표를 보이고 싶은 태도를 보인다.

“첫째도 자네 벼슬을 내어 놓게. 자네 벼슬이 너무 엽등이야. 까닭이 없는 엽등에는 바르지 못한 속살이 있는 짓이라고 남이 말한들 자네가 무엇이라고 발명할 터인가. 자네가 아무리 청청백백하다고 하더라도 일개 승지로서 일약에 좌참찬이 되었다 하면 아무도 자네를 이번 일에 가장 공이 큰 사람으로 아니 볼 수가 있나. 정 인지가 우참찬에서 좌의정으로 뛰어 오르고 한 명희가 백면으로서 군기사(軍器寺) 녹사(綠事)된지 이틀만에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된 것 이상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진실로 청백하거든 내일 아침으로 자네 벼슬을 내어놓게.”

이 개의 이 말은 참으로 신 숙주에게는 아픈 말이었다. 일년내로 친구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양심까지 속이고 애를 쓴 것이 무엇 때문인데? 권세 때문인데. 이 개의 말은 큰일날 소리였다.

“자네 말이 옳기느 옳의. 그렇지마는 너무 서생론(書生論)이야.”

하고 신 숙주는 이제는 조금도 면난한 빛이 없고 도리어 이 개를 지도하는 태도다.

“어찌해 자네 말이 서생론인고 하니 우리가 다 청렴한 듯이 발을 빼고 물러나오면 나라 일은 어찌한단 말인가. 영릉, 현릉께서 고명하신 것도 결코 물러나와서 독선기신이나 하라고 하신 뜻은 아닐 것일세. 자네들이나 내나 다 같이 이 몸과 목숨을 나라에 바치지 아니하였나. 한 번 바친 몸과 목숨을 늙어서 폐인이 되거나 죽어서 해골이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가 있나. 그것은 도리가 아니야. 하물며 오늘날같이 국가 다사한 날에 우리가 일심의 명

예나 안락을 위해서 몸을 피하다니 될 말인가. 백고(伯高)!자네가 잘못 생각한 말일세. 안 그런가 이 사람 근보(權甫)?”

신 숙주의 말은 과연 당당하다. 과연 충신의 말이요, 국사(國士)의 말이었다.

“옳의, 범옹(泛翁)이, 자네 말이 옳의. 우리가 물러나와서 쓰겠다. 우리가 나오면 그야말로 권 람이 한 명회같은 유의 판이 되게. 안 그런가 백고?”

하고 성 삼문은 의심이 다 풀리었다 하는 만족한 표정으로 이 개이 동의를 구한다.

그러나 이 개도 성 삼문 모양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신숙주의 말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도리어 이 그럴 듯한 신 숙주의 말 속에 더욱 가증한 속임이 있는 듯이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것을 폭로하여 뻔뻔한 신 숙주가 부끄러워 죽도록 억박지를 방법이 없는 것이 분하였다. 이 개의 해쓱한 얼굴은더 해쓱하고 여자의 손가락같이 가늘고 흰 손가락들은 흥분으로 떨리었다. 숙주가 싸워 이긴 기쁨으로 빙그레 웃는 낮으로 이 개를 보는 것이 더욱 가증하고 분하였다.

“자네 속은 시위학 알았네.”

하고 성 삼문은 기쁜 듯이,

“언제는 내가 자네를 의심하였겠나마는 하도 세상에서들 자네가 이번 일에 원흥(元兇)이라고 그러니까 자네 입으로 한 마디 안 그렇단 말을 시원히 들어 보려고 왔더니……어, 속이 다 트이는 걸. 안 그런가 백고.”

하고 이 개의 팔을 잡아 끌며,

“자, 한 잔 더 먹게.”

하고는 자기부터 혼자 잔을 들어 마신다.

“그러며 자네는 벼슬을 내어 놓을 수 없단 말일세 그러?”

하고 이개가 다시 채찍을 들어 신 숙주의 피나는 양심을 후려갈긴다.

곤경이 다 풀리었거니 하였든 숙주는 가슴이 꿈쩍하였다. 이 사람이 내가 죽는 양을 보고야 말려는가 하고 잠깐 망연자실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사람, 그만하게. 더 말할 것이야 있나.”

하고 성 삼문이 민망한 듯이 손으로 이 개를 막는 모양을 한다.

이 개가 다시 다지는 바람에 신 숙주는 몸에 소름이 끼치고 등골에 땀이 흘렀다. 그리고 결코 뜻이 변하지 아니한 것을 중언부언 말하였으나 그 말에는 도시 힘이 없었다. 성 삼문이 새에 나서서 이 개를 무마하여가지고 신 숙주 집을 나섰다. 그날 밤 신 숙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개의 말과 같이 벼슬을 내어 놓을 생각은 없었다.

이튿날 조회다. 영의정 수양 대군 유, 좌의정 정 인지, 우의정 한확, 좌찬성 신 숙주, 좌참찬 허후 이하로 정부,삼사,육조의 백관이 품질 찾아 근정전에 보이었다.

이날 조회에 첫째로 한 일은 수양 대군 궁을 호위하는 일이다. 정 인지의 상주대로 금군진무(禁軍鎭撫)두 사람이 갑사(甲士) 오십, 별시위(別侍衛) 오십, 총통(銃筒) 이십 방패(防牌) 이십으로 수양 대군 궁을 호위하기로 되었다. 이것은 황보 인, 김 종서 등 역적의 잔당(殘黨)이혹시 수양 대군을 엿볼까 하는 근심이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기실은 정 인지의 수양 대군에 대한 충성을 표한 것이다.

둘째 일은 이번 일에 공 있는 사람들을 정란(靖亂)공신(功臣)이라 하여 정 인지 이하 삼십육인에게 일등훈(一等勳),이등훈(二等勳), 삼등훈(三等勳)으로 나누어 군(君)을 봉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몇을 들면,

하동부원군(河東府院君) 정인지(鄭麟趾)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  
고령부원군(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람(權攄)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澹孫)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한성부원군(韓城府院君) 이계전(李季甸)  
강성부원군(江城府院君) 봉석주(奉石柱)  
서 부원군(西 府院君) 양정(楊汀)

여기 적힌 이름들은 독자도 벌써 다 아시는 바다. 한 명회, 홍 윤성, 양 정도 인제부터는 부원군 대감이 되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박 팽년, 성 삼문 두 사람이 그날 밤에 집현전 입직을 하였다 하여 정란공신 삼등훈에 들어 군을 봉함을 받은 것이다. 무론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군 행세를 한 일이 없었고, 또 공신들이 돌아가며 한턱씩 낼 때에는 두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을 핑계로 내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천벽력으로 한 명회, 홍 윤성 등과 같이 정란공신 명부에 이름이 오른 것을 볼 때에는 두사람은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아니하였다.

성 삼문, 박 팽년 두사람을 정란공신에 집어넣은 것이 수양 대군, 정 인지 등의 고등 정책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될 수 있으면 집현전 학사들 중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을 다라도 정란공신 속에 집어넣고 싶었다. 이러하므로 이번 소위 란난의 누명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가 있고 적어도 말쑥 많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핑계가 없었고 성 삼문, 박팽년은 그날 밤에 입직했다는 핑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 이 두 사람을 공신에 넣는데 신 숙주가 정 인지에게 많이 힘을 쓴 것은 사실이다.

삼십 육인 정란공신이 탕전에 사은숙배한 뒤에 정 인지는 안평 대군 용과 전(前) 우의정(右議政) 전(全)경(慶)도(道) 도체찰사(都體察使) 정분에게 사사(賜死)하여야 할 것을 백관의 뜻이라 칭하여 탕전에 아뢰었다. 그 요지는 이러하다---

안평 대군 용은 수악(首惡)이라 종사(宗社)의 대죄인인즉, 비록 지친(至親)이라 할지라도 단정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요, 또 백관과 민심이 다 이 불공대천지수를 살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니 왕은 사정을 버리시고 공론을 좇아 단연히 안평 대군을 죽이소서 함이요, 또 전 우의정 정 분에 대하여는 정 분이 비록 도체찰사로 밖에 있었었으나 황보 인, 김 종서와 같은 봉당인 것이 의심 없은즉, 그도 죽임이 마땅하다 함이다.

정 인지가 충성을 다하는 듯, 죽음을 무릅쓰는 듯, 어린 왕을 효유하는 듯, 위협하는 듯 도도 수천언을 늘어 놓을 때에 백관 중에는 숨소리도 없는 듯하였고, 왕은다만 어찌할 줄 모르는 듯이 좌우를 돌아보시었다.

안평 대군의 목숨이 쇠줄로 되었더라도 견디어날 것 같지 아니하였다. 어리신 왕은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한사코 안평 대군을 죽이고야 말려는고 하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으시었다. 왕은 정 인지를 바라보고 다시 마치 동정을 청하는 듯이 수양 대군을 바라보았다.

이 경우에 왕이 취할 길이 셋이다. ‘윤(允)’이라 하거나, 그와 반대로 ‘불윤(不允)’이라 하거나, 또 ‘영유보정 군국(軍國)중사(重事) 실위총치(總治) 이(以)테여(余)친(親)정(政)지(之)일(日)’이라 함과 같이 나라 일은 모두 수양 대군에게 위임해 버리었으니 안평 대군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을 수양 대군에게 밀어버리든지. 실로 위기 일발이다.

이때에 허 후가 나섰다.

“좌참찬 허 후 아뢰오.”

하는 힘있는 늙은 음성이 조용하던 절내에 울릴 땡 사라들의 귀와 눈이 다 허 후에게로 향하였다.

“저것이 또 무슨 객담을 하려고 나서.”

하고 수양 대군은 허 후를 흘겨보았다. 아무리 하여도 길들일 수 없는 허 후가 미웠다.

왕도 눈을 허 후에게 돌렸다.

허 후는 탑전에 부복하였다.

성 삼문, 이개, 박 췌년, 유성원, 김질, 하 위지 등은 언제나 나설 차비를 하고 뒷 줄에서 허 후와 함께 가슴으 따게 한다.

“상감께옵서 좌의정 정 인지를 파직하시와 금부(禁府)로 내려 가루시오!”

이것이 허 후의 말 허두다. 누구는 이 말에 놀라지 아니하였으라마는 그 중에도 정 인지는 낮빛이 종잇장같이되었다.

“안평 대군 용은 종실의 지친이어늘 정 인지는 신자가 되어 지친을 모하하여 골육지변을 일으키려 하니 기죄가 살이웁고, 그 뿐 아니라 ‘안평은 지친이라 불인지법이라 하옵신 전교를 내리신 것이 어저께 일이어늘 이러한 전교가 계실지 하루가 못하여서 또 솔백관계한다 칭하고 지존(至尊)을 번기로 우시게 하니 이는 지존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제 사사로운 뜻을 이루려고 지존을 위협함이오니 더욱 기죄가살(基罪可殺)이웁고, 또 영의정이 자제하거든 좌의정의 몸으로 솔백관계를 한다 하니 이는 관기(官紀)를 문란(紊亂)하는 것이라 역시 기죄가 살이외다. 만일 지금 정 인지를 엄벌하시와그 화근을 끊지 아니하옵시면 위로는 지존과 종실을 엄수이 여기고, 아래로는 백관을 농락하여 무수부지할 염려가 있사 오니 당장에 삭탈관직(削奪官職)하옵시고 금부에 내리어 가두게 하심이 지당한가 하오.”

허 후의 말은 실로 청천벽력이었다. 사람들은 너무도그 말이 의외인데 아연하여 다른 자기네의 귀를 의심하였다.

정 인지는 돌로 깎아 세운 듯이 가만히 있었다.오직 그 입술과 손가락이 분한 것으로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아무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윽히 있다가 왕은,

“안평 대군을 죽이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반렬 밖에 나서라.”

하시었다. 성 삼문, 박 췌년, 이 개, 유 성원, 하 위지, 김질, 기 건, 이 석형, 권절(權節)등 삼십여 인이었다. 애초에 짤 사람은 칠팔 인 밖에 아니 되지마는 나머지 이십여 인은 불기 이동으로 의사를 같이한 사람들이다. 허 후의 말이 그들을 움직이는데 가장 힘있는 것은 무론이다.

이렇게 삼십여 인이 정 인지를 반대하고 나서보니 조정에는 불온한 기운이 돌았다.이대로 가다가는 더욱 불온한 일이 생길까 하여 수양 대군은 상감 앞으로 가까이 나와,

“고만 파조(罷朝)하시웁고 정 인지와 허 후가 아뢰 말씀은 파조 후에 재결하심이 지당할까 하오.”

하였다. 왕은 이 자리에서 좀더 두 파로 하여금 흑백을 다투게 하고 싶으시었으나 군국대사를 전부 위임하신 영의정 수양 대군의 말을 모른다 할 수 없으시어 곧 파조 하시고 편전으로 입어하시었다.

이리하여 어찌하였으나 정 인지의 솔백관계를 복주머니를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이날에,

“안평 대군 용을 강화(江華)에서 교동(郊棟)으로 옮기라.”



하시느 전교가 계시었다.

안평 대군 부자를 교동(喬棟)으로 옮긴다는 것은 한구실에 지나지 못하였다. 허 후의 야단이 있는 날 정 인지는 수양 대군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 뜻을 말하였다. 그 뜻은 이리하다.

지금 수양 대군의 신정부(新政府)가들어선지 날이 알고 또 이번 정란에 대하여 민간에 시비가 많을뿐더러 일반 민심은 도리어 황보 인, 김 종서를 옳게 여기고 안평 대군이 그릇도니 세상을 바로 잡을 유일한 사람인 것같이 생각하니 이때를 당하여 한 가지 믿을 것은 오직 위력뿐이라 무엇이나 한 번 말을 내면 그대로 하고 터럭끝만치라도 어기는 자는 단불용대고 엄벌함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무서워서 감히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함이 아니면 이구석 저 구석에서 쑥쑥 나오는 수없는 허 후를 낚날이 접응할 수 없다 함이다.

“그러면 어떡헌단 말이요?”

수양 대군도 오늘 허 후의 변에는 두통이 났다.

“단정코 안평 대군에게 사사(賜死)를 하여야지요. 그리고 우선 허 후와 그 연루자를 일변 엄벌하고 또 성화같이 내외에 퍼지어 있는 황보 인, 김 종서의 잔당을 사실(查實)하여서 모조리 소멸(消滅)하여야 하지요. 지금에 순을 자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큰 나무를 꺾어야 하게 될 것이외다.

이렇게 정 인지의 의견은 심히 고압적 무단적이었다.

“그렇지마는 상감께 윤허가 아니 계시니 어찌하오. 내 생각에는 아직 그대로 두고 후일에 인심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을까 하오.”

하는 수양 대군은 정 인지에게 비기어 온건한 의견을 가지었다.

그러나 마침내 정인지의 의견이 채용되어 ‘군국중사를 다 위임한다’는 구절을 적용하여 재래에 하던 모양으로 일일이 왕에게 묻거나 조정에서 말할 것 없이 수양대군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독단하여 행하고 난 뒤에 왕께 그 연유를 아뢰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허 후 같은 자가 말썽 부릴 기회가 많을 것이요, 또 어리신 왕이 못하리라 하시면 억지로 할 수 없을 것이니 차라리 말썽 생길 근본을 끊어버리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금부진무 이백순(李伯淳)을 보내어 안평 대군에게 약을 내리고 그 아들 의춘군 우직(宜春君友直)을 멀리 진도(珍島)로 보내게 하고, 전 우의정(右議政) 정분(鄭策)을 낙안(樂安)에, 지정(池淨)은 영암(靈巖)에, 조수량(趙遂良)은 고성(固城)에, 이석정(李石貞)은 연일(延日)에, 안완경(安完慶)은 양산(梁山)에, 유중문(柳仲門)은 거제(巨濟)에, 혹은 유배(流配)하고 혹은 안치(安置)하고 파직(把直)을 당하고 충주(忠州)에 돌아가 있는 교리(敎理) 이현로(李賢老)는 사람을 보내어 죽이고 그 아들 건옥(乾玉), 건철(乾鐵), 건금(乾金) 삼형제를 연좌(緣坐)하고 가족과 가산을 적몰(籍沒)하였다. 이는 독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맨처음 대사헌 기건과 함께 수양 대군의 말호를 막으려던 죄에 인함이다. 또 동의금(同義禁)구치관(具致寬)을 보내어 종성부사 이경유(鍾城府使李耕蹂)와 그 아들 물금(勿金), 수동(秀同) 형제를 죽이고 또 박(朴)호(好)문(問)으로 함길도 절제사(咸吉道節制使)를 삼아 본래부터 함길도 절제사로 있던 이정옥(李澄玉)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이 정옥의 난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정옥은 김 종서가 세종 대왕께 거천하여 십 팔세에 함길도 절제사가 된 명장이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조의(朝議)에 묻거나 왕의 재가를 받음이 없이 모두 수양 대군이 정 인지, 한 확, 신 숙주, 권 람, 한 명희 등 심복파만 상의하여 치결하고 혹 그 후에 왕이물으시는 일이면 대강 대강 상주할 뿐이었다.

안평 대군을 죽인 죄목 중에 양모를 붙였다는 무섭고 더러운 죄목이 들어 있었다. 안평 대군은 그 삼촌, 즉 세종 대왕의 아우님 되는 성녕대군(誠寧大君)의 양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성녕 대군 부인 성씨(成氏)가 대군의 후실이 되어 안평 대군과 연치가 상적하고 또 자색이 있으므로 이러한 죄목이 생긴 것이니, 안평 대군은 오직 ‘하늘이 내리다 보소서’, 한 마디를 부르짖고 죽었다 한다. 이 일에 대하여 왕이 수양 대군에게 그 증거를 물으실 때 더 수양 대군은 말이 막혀었다.

정 인지는 허 후 이하 삼십여 인을 엄벌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수양 대군은 이에 반대하여 허후 한 사람은 거제(巨濟)로 귀양보내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여 죄를 묻지 않기로 하였다. 이 일은 수양 대군의 명성을 대단히 높게 하였다.

안평 대군이 더러운 죄를 쓰고 죽었다. 말을 듣고 그 양모되는 성녕 대군 부인도 목을 매어 자진하였다. 안평 대군에게 이렇게 말 못할 누명을 씌운 것은 백성들이 누구나 이를 알고 분하게 여기었다.

안평 대군도 죽고 이 징옥, 이 경유도 죽었으니 이제는 천하 태평이었다. 아무도 감히 수양 대군의 신정부에 거역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매 수양 대군은 정란 사건으로 하여 잃어버렸던 명성을 회복하기로 힘을 썼다. 관기진숙(官記振肅)과 제정쇄신(諸政刷新)---이것은 수양 대군이 새로 정사하려는 첫 목표였다. 세종 대왕 어우 삼십년, 태종과 문종 대왕 삼년간의 거상과 병약으로 미상불 중앙 지방을 물론하고 기강이 해이하고 저우가 직제하여 일대 쇄신을 요구함이 컸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수양 대군은 자기의 할 일이 어느 곳에 있는 줄을 알았고, 또 정인지, 신숙주가 다 제도(制度)와 행정(行政)에 대하여는 귀재라 할 만한 재주있는 사람들이었다. 수양 대군의 무단적용단력과 정 인지, 신 숙주의 행정적 재능과 수완과 또 권람, 한 명회 등의 고등 정책적 모략과 이렇게 삼함이 갖추므로 불출 삼월에 내외 정치의 면목이 일신하였다. 만일 김 종서 여당이라, 안평 대군 여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을 무시로 죽이는 일만 없었던면 전국 백성은 수양 대군의 선정을 칭송하고 태평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 대군에게는 자기가 한 일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는 다 냉정하고 공평하려 하면서도 안평 대군이나 황보 인, 김 종서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만 눈이 뒤집혀 전후를 돌아보지 못하여 반드시 그를 죽여버린 뒤에야 비위가 가라앉았다.

수양 대군은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 밖에 아무쪼록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수양 대군은 조카님되시는 왕께 대항 근래에 깊은 애정까지도 깨달았다. 왕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왕까지도 미웠거니와 이제 자기 수중에 있게 된 때에는 왕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어떻게 이 어리신 왕을 잘 보좌하여서 자기가 진실로 주공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수양 대군은 왕의 뜻을 생각하여 혜빈양씨(惠嬪楊氏)로 하여금 무시로 궁중에 들어와 왕의 곁에 있기를 허하였다(그 동안은 임시 혜빈 양씨의 궁중 출입을 금하였었다). 이것은 외로우신 왕에게는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다.

둘째로 수양 대군은 군국 대사를 자기가 다 맡아 하기 때문에 왕에게는 실제 정치의 1번 거로움과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공부나 하고 마음대로 노시도록 하였다. 어리신 왕에게는 그것도 기쁜 일이었다. 근래에는 왕이 정전에 출어하는 일저차 별로 없으시었다. 그래서 수양 대군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도 훨씬 줄었다.

전에는 수양 대군이 좋지 아니한 뜻을 품었다는 말과 결코 그를 믿지 말라는 말을 왕에게 은밀히 아뢰는 이도 있었으나 지금은 왕의 주위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양 대

군 정란 후에 제일착으로 궁금을 숙청할 때에 수양 대군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자는 궁녀나 내시를 물론하고 다 내어쫓은 까닭이다. 혜빈 양씨도 그때 통에 출입 금지를 받았다가 이번에 정 인지, 한 명회 등의 반대함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출입을 허하였으니 왕의 귀에 수양 대군을 반대하는 말이 돌아갈 기회가 있다 하면 그것은 혜빈 양씨를 통하여서일 것이다.

셋째로, 수양 대군이 왕을 위하여 하려는 일은 왕후를 택하는 것이다. 비록 아직 양암(諒闇)중이라도 왕이 궁중에 외로이 계신 것이 딱하고 또 하루라도 속히 후사를 얻음이 ㄹ르요 하다 하여 이 역시 정 인지, 한 명회 등의 반대함도 불구하고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같으면 국혼(國婚) 문제 같은 큰 문제요, 겹하여 옛법을 무시하고 양암 중에 하자는 것이니 마땅히 조정의 공의에 내어 놓아야 할 것이요, 그리하면 갑론 을박으로 해가 늦도록 다투어 여러 날이 되어도 끝날 줄을 모를 것이요, 그러한 끝에는 조정은 가부 양편으로 잘리어 일종의 정치적, 사상적 당파를 이루어 심각한 싸움을 계수 할 것이다. 수양 대군은 국인(國人)의 이 흠점을 잘 알기도 하고 목격해 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더구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심지어 좌우 대신에게도 미리 의논함이 없이 다만 혜빈 양씨에게 알리고는 독단적으로 다 정해버렸다. ‘조정에서 왕비 책립하기를 여러 날 하여 마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실록(實錄)에 있지마는 그것은 다 그럴 듯하게 쓴말에서 지나지 못한다.

갑술년 정월, 왕의 나이 열 네 살. 풍저창(豐儲倉) 부사(副使) 송현수(宋玪讐)의 딸을 왕비로, 김사우(金師禹)의 딸과 권완(權完)의 딸을 후궁(後宮)으로 간택하여 놓았다. 송 현수의 딸은 왕보다 한 살이 많아 열다섯 살이었다. 왕비 간택은 수양 대군의 부대부인 윤씨가 주장하여 하고 후궁 인선은 혜빈 양씨가 주장하였다.

내일같이 왕(王)후 책립(冊立)의 의를 행하기로 다작정해 놓은 뒤에야 수양 대군이 사인(舍人) 황효원(黃孝源)을 좌의정 정 인지에게 보내어, ‘명일 왕후를 세울 터이니 일찍 들어 오라’는 뜻을 전하였다.

정 인지도 이 일을 몰랐을 까닭이 없다. 전하는 말로 누구누구를 간택하였단 말까지 들어서 알았지마는 설마 사전에 자기에게야 의논하지 아니하랴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양으로 다 작정해 놓은 뒤에 ‘일찍 오라’ 하고 부름을 받으니 그는 아니 노할수 없었다.---

“거상 중에 혼인하는 법이 어디 있어? 자네도 유자(儒者)면서 내게 그런 소리를 전하려 다닌단 말인가.”

하고 소리소리 질러서 다시 입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정 인지가 어떻게 노한 데는 자기를 무시하였다는 것 밖에 또 한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기 손녀로 왕후를 삼도록 평소에 생각도 하여 왔고 직접 수양 대군에게 말은 못하여도 그러한 눈치는 넉넉히 비추어 두었었다.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들어 주리라고 생각 하였던 것이다. 수양 대군 편에서도 정 인지의 뜻을 잘 알았으나 그에게 국구(國舅)의 권세를 주는 것이 싫어서 모른 채하고 아무쪼록 세력도 없고 또 장차 세력을 잡을 근심도 없는 사람을 택하노라고 송 현수의 딸을 택한 것이다.

사인 황 효원은 정 인지에게 호령을 받고 돌아가서 차마 정 인지가 하던 말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다만,

“좌상(左相)이 채신지우(採薪之憂)가 있는가 보아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전하였다.

수양 대군은 정 인지의 뜻을 알고 속으로 웃은 뒤에,

“사재명일(事在明日)이어든 불가불급(不可不急)이야. 자네 다시 가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혜빈도 어서 납비(納妃)하기를 청하니 아니 좇을 수가 없다고.”

하고 다시 황 효원을 정 인지에게로 보내었다.

효원은 인지에게 수양 대군이 시키던 대로 말하고 또 혜빈이 재촉하니 아니 좇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혜빈이란 말에 인지는 낯을 붉히고 노하였다. 자기가 주장항서 대궐 밖으로 내어쫓았던 것을 수양 대군이 자외로 다시 불러들은 것이 분한 까닭이다. 혜빈이 수양 대군은 고맙게 생각하리라, 자기만을 원망하리라, 하면 더욱 분하였다. 근래에 수양 대군이 매사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분하였다. 정 인지는 사랑이 떠나갈 듯한 음성으로,

“혜빈이란 다 무엇이야. 양씨로 말하면 비록 세종께서 봉빈(封嬪)을 하시었다 하더라도 고시천녀(固是賤女) 여든 제가 무엇이라고 국가사에 입을 놀린단 말이야. 양씨 말이 나라 일이란 말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벼락맞은 황 효원을 물러나 꿇어 앉으며,

“소인 가서 무슨 말씀으로 회계(回啓)하오리까.”

하고 울려고 들었다.

“내일 일찍 예궐한다고 그러게.”

하고 인지는 씩 웃었다.

정 인지도 정 인지어니와 제일 걱정이 왕이다. 내일로 날짜까지 정한 뒤에 수양 대군은 왕께, ‘종권납비’하실 것을 아뢰었다. 수양 대군의 이 말에 왕은 펄쩍 뛰며,

“숙부, 웬 말이요? 거상 중에 납비가 말이 되요?”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오월이면 탈상을 할 터인데 무엇이 급하여서.”

하고 왕은 거절하시었다.

수양 대군은 혜빈과 힘을 합하여 가까스로 왕의 뜻을 움직이였다. 왕은 비록 어리시지마는 효성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이리하여 정월 갑술일---이틀테면 갑술년 갑술일이다---에 왕은 거상 중이건마는 길복으로 근정전에 출어하시와 왕에게는 종조부되는 효녕 대군보(孝寧大君補=이 양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위에 한번 나온 일이 있다)와 호조판서(戶曹判書) 조혜(曹惠)를 풍저창(豐儲倉) 부사(副使) 송현수(宋琰壽)의 집에 보내어 그 딸로 왕비를 책립한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하고 옥책문(玉冊門)을 내리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다---.

“하늘과 땅이 덕을 합하여 만물을 생성하나니 왕된 이는 하늘을 법받아 반드시 원비를 세우나니 씨 종통을 받들고 풍화를 터잡는 바니라. 내 어린 나이로 나라를 이으매 경계함으로 서로 이룰지니 마땅히 내조를 힘 입을지라. 이에 널리 좋은 가문을 찾고 두루 아름다운 사람을 구하더니 자(咨)롭다, 너 송씨! 성품이 은유하고 덕이 유한하여 진실로 정위중곤(正位中壺)이라 한 나라의 어미될 만한지라. 이제 사자를 보내어 옥책보장을 주어써 왕비를 삼노니 오히려 몸이 합하고 즐거움을 같이하여써 종묘를 받들고 관저의 화와 종사의 경이 다 오늘부터 비롯도다. 삼가지 아니할소나.

이러하여 왕비 책림이 끝나고 후궁으로 택함이 된 권완(權完)의 딸 권씨와 김사우(金師禹)의 딸 김씨도 동시에 궁중에 들어오게 되어 혈혈단신이던 왕은 갑자기 두 가족을 가지게 되고 대군 중에도 외숙되는 예조판서(禮曹判書) 권자진(權自眞) 외에 이번에 지돈녕(知敦寧)이

된 장인 송 현수가 왕의 받드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왕비 책립과 동시에 문제가 된 것은 ‘단상(短喪)’ 문제다. 단상이라 함은 거상하는 기간을 줄여버리자는 것이다. 상중에 혼인하였으니 벌써 거상은 그만둔 것이라, 이제 다시 거상한다는 것도 더리어 우스우리 아누 탈상 해버리고 길복을 입는 것이 옳다 함이다. 문종의 거상이 오월 십사일인즉 아직 다섯 달이 남은 상기를 잘라버리자는 것이다.

이 주장의 중심은 무론 수양 대군이다. 수양 대군은 형님되시는 문종 대왕의 삼년 거상에 너무도 효도의 노예가 되어 국정까지도 돌아보지 아니하신 것에 반감을 가지어 일년 거상이면 족하다는 의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이 의견을 실행하려 한 것이다.

여기 항의한 것이 예조참의(禮曹參議) 어효첨(魚孝瞻)이다. 그의 항의하는 요점은,

“왕비를 세움은 종사 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여 할지언정 무슨 부득이함이 있어서 단상을 구태여 하랴.”

함이었다.

어 효첨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는 많으나 수양 대군의 위권이 두려워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이는 없고, 상중 납비를 그렇게 반대하던 정 인지조차 부질없음을 알고 입을 단치어버리었다. 그 뿐더러 어 효첨이가 감히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은 그의 상장관되는 예조 판서 권 자진이 시킨 것이나 아닌가. 왕의 외숙되는 권 자진이 어 효첨을 시키어서 이 문제를 내어 은연히 수양 대군과 자기와 한 번 겨루어 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여러 번 항의함이 있음도 불구하고 어 효첨의 말은 마침내 채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런 뒤, 한 반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이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었다.

수양 대군은 그렇게도 소원이요, 무엇보다도 즐기던 정권을 잡아 마음대로 자기의 수완을 두르되 거칠 것이 없었고, 한 명회, 권 람, 신 숙주, 홍 윤성, 이 계전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정란공신으로 지위와 재산과 노비를 받아 갑자기 부자가 된 가난뱅이 모양으로 영화와 교만을 마음대로 누리게 되었다. 그 중에도 한 명회는 반년이 못되어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고 홍 윤성도 병조참의(兵曹參議)가 되고 이 계전은 소원대로 병조 판서가 되었다.

그러되 누구 하나 감히 정부를 비방하지 못하고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남은 문제, 소위 ‘청제용여당(淸除瑑餘黨)’이란 것이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는 밤낮에 생각하는 일이 어찌하면 안평 대군의 여당을 찾아내어---찾아낸다는 것보다도 만들어내어 청제용여당이라는 문제로 상소를 할까 함인 듯하였다. 어제는 무슨 장령(掌令), 오늘은 무슨 사간(司諫)하는 작자들이 배운 글재주를 다 짜내어서 ‘청제용여당’을 부르짖었다. 오직 이 일에 참여하기를 수양 대군, 정 인지 등이 바라건마는 참여 아니하는 것은 집현전 학사 패들이다. 그들 중에도 ‘청제용여당’이라는 염불만 부르면 수가 날 줄을 알고 침을 삼키는 자가 없지도 아니하지마는 원체 박 팽년, 성 삼문, 하 위지, 이개, 유 서원등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놀리어서 꿈쩍을 못한 것이다.

안평 대군 여당이라 하면 낙안(樂安)에 있는 정분(鄭笨) 거제(巨濟)에 있는 허후(許詡). 진도(珍島)에 있는 의(宜)춘(春)군(君) 우직(友直)이다. 허 후를 못먹어 애절을 하는 이는 정 인지, 이 계전이요, 정 분을 없애려고 하는 이는 권 람, 한 명회요, 안평 대군의 아들되는 우직을 살려 두어서 마음이 아니 놓이는 이는 수양 대군 자신이다.

허 후에 대하여 수양 대군은 까닭 모를 일종의 애착심을 품고 있었다. 원체 수양 eornsd 인재를 자기 수하에 넣으려는 욕심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별히 허 후에게 대하여서는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그를 살려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정 인지는 본디 허 후를 미워하였을뿐더러 허 후에게 큰 망신을 당한 뒤로부터는 더욱 허 후를 하루라도 살려 둘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허 후의 배소(配所)인 거제에 염탐군을 보내어 허 후의 일언일동을 염탐케 하고 진즉 허 후와 가까이 사귀게 하여 허 후의 입에서 수양 대군을 원망하거나 모욕하는 말이 나오게 만들기를 힘쓰고 또 시사를 비방하는 시나 편지나 이러한 필적을 얻어 내어 그를 죽일 새 증거를 얻으려 하였다.

이리하여 염탐군에게서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허 후의 목숨에 관계를 보고가 정 인지와 이 계전의 손에 들어오고 두어 자, 서너 자 그적거려 버린 꼬깃꼬깃한 수지까지도 허 후의 필적이라면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이 싸서 거제에서 오는 관문서와 같이 소중하게 정 인지, 이 계전에게로 보냄이 되었다.

그렇게 원체 근엄한 허 후는 남에게 책잡힐 말이나 글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예기한 수확이 없었다.

정 분을 죽여야 한다고 권람, 한 명희가 주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고명 중신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정 분 일뿐더러 정 분은 당시의 우의정이였었고 또 정란 당시에 전경도 도체찰사로 밖에 있었은즉, 설사 황보 인, 김중서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정 분은 애매하다 하는 민간의 동정을 받을뿐더러 안평 대군까지 죽은 오늘날에는 정분은 수양 대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받들 중심 인물 될 것이 분명한즉 미리 죽여버려서 후환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정 분은 최근 삼사개월래로 민간에 불일 듯하는 동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처지에도 말미암음이어니와 또한 그의 덕행과 절개에도 말미암음이 있다. 그는 수완 있는 사람은 아니다. 덕은 있는 사람이요, 또 마음이 변할 사람은 아니다. 그가 조금만 수양 대군에게 호의를 표하면 수양 대군은 기쁘게 그를 중용 할 것이지마는 그는 그것을 아 니한다. 이런 것이 다 그의 명성과 동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 정 분이 전경도 도체찰사로 전라도, 경상도로 순회하고 회로에 충주(忠州) 지경에 이르러 전 교리 이현로(李賢老)를 만나 서울서 일어난 소식을 자세히 듣고 오늘인가 내일인가 자기의 죽을 날이 앞에 다닥치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현로와 동행하여 서울을 향하고 말을 몰았다. 비록 죽음이 앞에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기의 할 일은 께하에 복명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종로에서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이 현로도 물론 자기의 생명이 남으리라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평소에 안평 대군과 절재 김 중서 문하에 다닌 것으로 보든지, 또 수양 대군이 궁중에 무상 출입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극언한 것으로 보든지, 수양 대군이 세도만 잡으면 자기의 생명은 없어질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있는 터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두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이다. 한 고개 넘고 한 굽이 돌아 두 사람은 말없이 말없이 간다. 멀리 앞에 말 탄 사람만 번뜻 보여도 경관(京官)인가 경관인가 하면서.

충주(忠州)에 이르러 황보 인, 김 중서 등의 머리를 만났다. 마음 같아서는 이 좋은 친구요, 동류요, 또 충신들의 머리를 안고 울기라도 하고 싶건마는 그러할 수도 없어 오직 고개를 돌리고 늙은 눈에 눈물을 씻을 뿐이었다. 이 현로는 소리를 내어 통곡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벼슬을 버린 자유의 몸이니 그러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 사람, 이런 일도 있나?”

하고 사람 없는 데를 당도하여서 정 분은 이 현로를 돌아 보았다.

“대감마저 돌아가시면 어리신 상감을 뉘 있어 도움니까?”

하고 이 현로는 다른 말로 대답하였다.

용안역(用安驛) 조금 못 미쳐서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산굽이로 말을 달리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저것이 경관 아닌가?”

하고 정 분이 물었다.

“이번에는 짜장 경관인가 보외다.”

하고 이 현로는 밤을 멈추려 하고 앞을 바라보았다. 검은 전복을 입은 모양이 금부 관원인 듯한 것이다.

“어서 말을 몰아라.”

하고 정 분은 관노를 재촉하였다. 정분에게는 이 현로외에 사인(舍人), 서리(書吏), 영리(營吏)등 사오인의 종자(從者)가 있었다. 그들도 다 말없이 앞에 달려오는 인마만 바라보았다. 경관이다 금부도사다 하는 생각들이 번개같이 사람들의 머리로 지나갔다.

이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일 만하게 가까이 온 때 그 말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내달아,

“전지(傳旨)야!”

하고 오른 손을 높이 들었다. 보니 그 사람은 전에 정분이 이조 판서로 있을 때에 정랑(正郎)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정 분은 곧 말에서 내려 전지를 받든 관원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노중에서 죽는 것이 모양이 송하니 역관(驛館)에 가도 관계치 아니하오?”

하고 물었다. 정 분은 자기가 죽음을 받을 줄 믿었던 것이다.

“아니요, 소인은 전지를 받아 대감을 적소(謫所)로 압송하러 왔소이다.”

하고 그 말이 매우 공손하였다.

정 분은 다시 두 번 절하며,

“그러면 나를 살리시는 것이요?”

하고 말에 올라 말머리를 들이키어 낙안(樂安)으로 향하였다.

경관은 가장 정 분에게 친절한 체하고 심복인 체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로 조정 일과 수양 대군에 관한 말을 물었다. 그 묻는 말이 다 정 분의 처지로는 심히 대답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이것은 무론 정 분의 마음을 떠 볼고, 또는 그를 죽일 구실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다.

낙안에 온 뒤에도 십여 일 동안이나 경관이 기거를 같이 하면서 교언 영색으로 정 분에게 여러 말을 물어도 정분은 한 번도 개구를 아니하였다.

이현로(李賢老)는 용안역(用安驛)에서 교살(絞殺)을 당하고 정 분만 낙안으로 압송되었다. 낙안서 정 분과 같이 기거하기 십여 일에 마침내 경관은 아무 소득이 없이 서울로 떠나버렸다.

정 분은 낙안 배소(配所)에 있는 동안 독서로 소원을 삼았다. 얼마 뒤부터는 탄선(坦鮮)이라는 늙은 중이 와서 동무를 하고 있었다. 이 중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므로 처음에는 서울서 보낸 염탐군인가 하고 의심하였으나 얼마 아니하여 정 분은 그를 믿게 되었다. 정 분 내외가 다 칠십이 가까운 노인이요, 또 귀양살이에 노복이 있을 리도 없어서 흔히 탄 선이가 물을 길고 부엌일을 하였다. 정 분의 부인은 정경 부인의 귀한 몸이지마는 가난한 살림에는 결코 힘있는 주부가 될 수 없었다.

혹시 지방 사람들이 정 분의 처지에 동정하여 생선깨나 닭마리나 가져오는 이도 있고 또 명절이나 잔치가 있을 때에는 동네 늙은이에게 하는 예로 술과 안주로 찾아오는 일도 있으나 그것도 감시하는 관원의 눈에 띄어 군수(郡守)가 알게 되면 재미 없는 까닭에 매우 어려

왔다. 중 탄선도 행색을 숨기고 머슴 모양으로 있었다.

군수는 아무쪼록 정 분을 못 건디게 구는 것이 직책인줄로 아는 듯하였다. 사흘에 한 번씩 수형리(首刑吏)를 시켜서 정 분의 거처하는 곳을 적간(摘奸)하였다. 이것은 정 분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그리고 무시로 사령이 들락날락하였다. 이렇게 정 분에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 상관의 비위를 맞추는 줄을 아는 까닭이다.

정 분은 배소에 있는 동안에도 조상의 신주를 만들어 두고 반드시 제사를 꺾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니 효성과 충성은 지극하였다. 헌 소반에 밥 한 그릇, 나물국 한 그릇, 술 한 잔, 이러한 재물로라도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삭망에도 반드시 분향하고 문종 대왕의 영연을 향하여 요배하며, 또 국기일(國忌日)에도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종묘에서 제향 잡술시각을 보아 복향하여 절하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는 불평도 없이, 원망은 물론 없이 근 일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러한 생활이 도리어 사림(士林)과 일반 민중의 존경과 동정을 끌어서 정 분의 명성은 정승으로 있을 때보다도 더욱 높아지었다. 이 명성이 정분의 목숨을 재촉한 것이다.

팔월 어느 날, 정경부인의 유일한 말동무 되는 이웃집 노파(그는 기실 정 분을 감시하는 사령의 어미다)가 와서 경관(京官)이 내려왔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것은 그 아들이 정 분에게 동정하여 그 어미를 시켜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미리 안애야 무엇하랴마는 그래도 호의다.

이때에 정 분은 동네 코 흘리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좋은 늙은이를 즐겨하여 식전부터 이 ‘서울 영감’의 오막살이에 모여들었다.

정 분은 일이 있으니 있다가 오라 하여 아이들을 돌려 보내고 탄선더러 밥을 지으라 하고 목욕하고 관대를 갖추고 조상에게 하직하는 제사를 지내 뒤에 손수 신주를 다 불살라 버리고 그러한 뒤에는 관음복 벗고 부인더러 우장(雨裝)을 내어라 하여 갈모를 쓰고 유삼을 입고 수건을 들고 단정히 앉아서 관차(官次)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비도 아니 오는데 우장은 왜 하는가 하고 부인은 수상히 여기었으나 다 무슨 생각하심이 있음이려니 하여 감히 묻지 아니하고 다만 눈물을 머금을 뿐이었다.

이윽고 관차 사오인이,

“정 분이 나서라!”

하고 소리를 치며 달려들어 한 놈은 정 분의 바른 팔을 잡고 한 놈은 왼팔을 잡고 한 놈은 등을 밀고 한 놈은 앞을 서고 한 놈은 뒤를 지키어서, 가자 빨리 가자 하고 버릇없이 덜렁 거렸다.

부인은 참다 못하여 정 분의 옷소매를 잡고 울며,

“대감 어디로가시오? 칠십 평생에 해로하다가 나를 두고 어디로 가시오?”하였다.

“조명(朝命)이니 할 수 있소? 나 죽은 뒷일은 부인이 다 알아 하시오.”

하고 태연히 말을 하나, 부인의 울음소리가 뒤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니 아플 수가 없었다.

정 분이 사령들에게 끌려갈 때에 동네 아이들이 어디를 가느냐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정 분 친구, ‘서울 영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다.

“언제 와요?”

하고 아이들은 정분이 다시 돌아올 줄만 믿었다.

정 정승이라고 부를 줄 아는 동네 사람들도 문밖에 나와서 허위대가 커다란 노인이 이 별난 날에 우장을 하고 사령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먼 발치에 바라보고 아깝게 여기었다.



“경관이 내려왔대.”

“정 정승이 역적에 물려 죽는대.”

이 만큼은 낙안 백성치고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까지도 알았다. 또 정 정승이 흉악한 사람이 아니요, 도리어 충신이란 것도 누구의 선전인지는 모르나 다들 생각하게 되었다.

“정 정승은 아무 죄도 없대. 김 정승 모양으로 간신한테 물려서 죽는게래.”

김 정승이란 김 종서를 이름이다.

충신이 간신한테 물려서 죽는다는 것은 전제 군주시대의 공식(公式)이어서 무식한 백성들 사이에도 용이하게 이해함이 되었다.

조그마한 고장이라 정 정승이 객사 앞 장터에서 오늘 죽는다는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낙안 읍내와 금촌에 들리자 수백 명 사람이 객사 앞 장터로 모여들었다. 감히 큰 소리로는 말은 못하나 숙덕숙덕하는 소리는 아니 들리는 데가 없었다.

우장을 입은 정 분이 사령들에게 끌려 장터 한복판으로 와서 우뚝 섰다. 미시(未時)를 기다리는 것이다.

“정 정승이다!”

“갈모 쓴이가 정 정승이다, 충신이다.”

“충신을 죽이고 천벌이 없을까.”

이러한 소박한 분개와 비평이 민중 사이를 돌아간다. 이 백성들은 지난 동짓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황보 인, 김 종서 등의 순수(循首)를 보았다. 그때에는 창졸간이라 아마 황보 인, 김 종서가 역적질을 하였나 보다 하였으나 정 분이 이 고을에 와 있는 뒤로 각처 선비들이 많이 출입하고 또 민간에서 수양 대군 정란 사실의 내용을 어지간히 자세히 알게 되매 백성들의 동정은 황보 인, 김종서 등에게로 물려 그들을 충신으로 추앙하고 수양 대군과 정 인지에게 대하여 격렬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정 분에게 향하는 존경과 동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일 이 민중의 감정을 알아 보아 그들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 백성은 폭동을 일으켜 정 분을 빼앗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할 줄 모르는 백성이었다.

형벌을 행한다는 미시(未時)가 가까우매 사람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었다. 정 분은 내려찍이는 별 밑에 나무로 깎아 새운 사람 모양으로 갈모를 쓰고 가만히 서 있었다.

군수와 감형관도 백성들 중에 불온한 기운이 있는 줄을 알아 행형(行刑)을 명일로 밀려고 하였다. 겁이 난 것이다. 그러나 정 분은 준절하게 거절하였다.

“거 무슨 말이요. 조명(朝命)이 지엄하시거든 어찌 마음대로 기한을 변할 수가 있소. 나는 죽으러 여기 나선 사람이니까 관에 들어가 무엇한단 말이요?”

하루 동안 관에 머물기를 감형관이 청한 까닭이다.

정분의 사색은 추상 같았다.

감형관(監刑官)은 하릴없이 울개미를 손에 들어 정 분의 목에 씌우려 할 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하라.”

하고 정 분에게 여유를 주었다.

정 분은 감형관의 허락을 얻어 가지고 북으로 서울을 향하여 어리신 상감께 하직하는 절을 하고 다시 눈앞에 지봉(芝峯), 절재(節齋) 같은 먼저 죽은 친구들을 바라보며 한 번 읊하고 난 뒤에 인제는 할 일을 다하였다는 듯이 두 팔을 넓이며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다 ---.

“자, 그 울개미를 이 목에 씌우라. 죽는 것은 같지마는 절개는 다른 법이야. 내가 만일 이

심이 있었거든 하늘이 맑은 대로 있으려니와 하늘이 만일 내 충성을 알거든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야.”

정 분의 숨이 끊기자 보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 소나기가 퍼부어 감형관과 군수가 우산을 받고 뛰어들어갔다.

허후(許詡)와 의춘군 우직(宜春君友直)이 죽음을 받은 모양도 정 분과 대동소이하였다. 다만 의춘군 우직은 원통하게 죽은 안평 대군의 아들인만큼, 또 인제 겨우 열 다섯 살 밖에 아니 도니 어린 소년인만큼 그가 초립을 쓰고 형장에 나설 때에 보던 사람들이 측은한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었다.

정 분과 허 후와 우직까지 죽으니 인제는 수양 대군이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다. 이제 수양 대군은 왕께 청하여,

“다시는 적도(賊徒)에 관하여 말을 말라.”

하는 전교르 내리시게 하였다. 지평, 장령패들이 칭찬 받으려는 상소가 귀찮은 까닭도 있거니와 또 금도(襟度)가 넓은 것을 보이려는 수양 대군의 정책도 있는 것이다. 아무려나 이 전교가 내리기 때문에 아직 목이 붙어 있는 사람은 제 목이 한참은 건딜 줄을 믿게는 되었다.

이번 수양 대군의 정란 통에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아는 대로 적어 보자---.

안평대군(安平大君)용(瑬)

의춘군 우직(宜春君友直)

황보인(皇甫仁)

황보(皇甫)석(錫)

황보(皇甫)흠(欽)

황보(皇甫)갓난이

황보(皇甫)경(京)근(斤)

김종서(金宗瑞)

김(金)승벽(勝癖)

김(金)승규(僧規)

김석대(金石臺)

김(金)목대(木臺)

김(金)조동(粗銅)

김만동(金萬同)

이양(李穰)

이승윤(李承胤)

이계조(李繼祖)

이소조(李紹祖)

이장군(李將軍)

이승효(李承孝)

허후(許詡)

정분(鄭策)

민신(閔伸)

민보창(閔甫昌)

민보해(閔甫諧)

민보흥(閔甫興)  
민석보(閔釋甫)  
민(閔)들이(伊)  
조극관(趙克寬)  
조수량  
윤처공(尹處恭)  
윤경(尹經)  
윤위(尹渭)  
윤탁(尹濁)  
윤식(尹湜)  
윤갯동  
윤효동(尹孝同)  
이명민(李命敏)  
이현로(李賢老)  
이건금(李乾金)  
이건옥(李乾玉)  
이건철(李乾鐵)  
이경(李耕)유  
이물금(李勿金)  
이수동(李秀同)  
원구  
조번(蕃)  
조연동  
조향동  
조귀동  
김연(金衍)--내시  
김(金)대(大)정(丁)  
한승(韓崧)--내시  
이석정(李石貞)  
이정옥(李澄玉)  
이자원(李滋源)  
이윤원(李潤源)  
이철동(李鐵同)  
이성동(李成同)  
안완경(安完慶)  
지정(池淨)  
지신화(池信和)  
하석(河碩)  
이보인(李保仁)--이 양의 종제  
화성군 해(花城君諧)  
화산군(火山群) 심(諡)

화능군모(花陵君謀)  
화남군 사문(花南君沙門)  
화평군 주명(花平君住命)  
한산군 이의산(韓山君李義山)  
해녕군 우경(海寧君友璵)  
김말생(金末生)  
    김산호(金珊瑚)  
김정(金晶)  
    김갯동(金龕同)  
박이녕(朴以寧)  
    박하(朴夏)  
    이차(李差)  
    최로(崔老)  
    김상충(金尙忠)  
    김득천(金得千)  
    김복천(金福千)  
양옥(梁玉)  
조석강(趙石崗)  
황귀존(黃貴存)  
안막동(安寔同)  
    안장손(安長孫)  
    안경손(安敬孫)  
조완규(趙完奎)  
    조순생(調馴生)  
    조불련(趙佛連--안평 대군의 사위)  
고덕칭(高德稱)  
황의현(黃義軒)  
    황석동(黃石同)  
이식배(李植培)  
이귀진(李貴珍)  
이은중(李銀仲)  
김유덕(金有德)  
    김죽(金竹)  
김신례(金信禮)  
유세(劉世)  
강막동(姜寔同)  
정효강(鄭孝康)  
    정백지(鄭白池)  
정효전(鄭孝全)  
    정원석(鄭元碩)  
박계우(朴季愚)

이름에 한 자 떨어뜨려 쓴 것은 자손을 표한 것이다.

#### 忠義제

상지 삼년 을해(上之三年乙亥). 이해는 단종 대왕이 그 숙부 수양 대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내어 주지 아니치 못하던 슬픈 일이 있던 해다.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는 삼년 전 계유년 모양으로,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등이 때를 지어 살육을 당하던 해 모양으로 대단히 일이 많고 끔찍끔찍한 해도 있고 또 한 해가 천년 같아서 볼 만한 아무 일도 없이 하품만 나는 심심한 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심한 해와 바쁜 해가 새끼 오라기두 가닥 모양으로 서로 꼬여서 세월이라는 인생의 역사 바탕을 이루거니와 금년 을해년과 오는 해 병자년은 조선 역사에서 연거푸 윤달이 드는 셈으로 일 많고, 끔찍끔찍하고,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하고,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데 살년(殺年)이 되었던 것이다.

불과 나무들의 본성은 가을 서리 내릴 때를 당하여서야 분명히 알게 된다. 갈대는 말라버리고 참대는 더욱 푸르다. 돌피는 태워버리고 벼 알갱이는 건어 들인다. 서리치는 모진 바람이 밤을 새어 냅다 볼 때에는 떨어질 잎은 다 떨어지고 소나무, 잣나무만 까닥없이 청청하다. 이리하여 가을 철은 천지의 대좌기(大坐起)로 일년간 지내온 초목에도 마감(磨勘)을 보는 심판 날이 된다.

개인의 일생에도, 또 어떤 민족의 일생에도 몇 십년에 한 번씩 또는 몇 백년에 한 번씩 이러한 마감 날이 온다. 평상시에는 다 비슷비슷하여 별로 차별이 없는 듯하던 이들(개인이나 민족이나)도 이날 우레 같은 운명의 호령과 형무, 곤장 같은 자작열(自作孽)의 아픈 매가 벗은 몸뚱이를 후려 갈길 때에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탈바가지도 다 집어던지고 대변에 개개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좌기를 겪고 난 뒤에야 그가 갈대인지, 참대인지, 무쇠인지, 강철인지가 판명이 되는 것이다 .

지나간 계유년도 그러하였거니와 금년, 을해, 내년 병자 양년도 조선 민족적으로 보거나 단종 대왕 때에 살아 있던---특히 조정에 벼슬하던 여러 개인들로 보거나 큰 심판 날 중에 하나다.

그날에 여러 조선 사람들은 가지가지의 본색을 탄로하였다. 혹은 끝 간 데를 모르는 욕심꾸러기가 되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는 못할 일이 없는 성품을 보이고, 혹은 금일동, 명일 서로 해바라기가 햇빛을 따라 고개를 숙이듯이 부귀 공명을 따라 어제는 이 임금의 충신이 되고, 내일은 그 임금을 박차고 다른 저 임금의 충신이 되는 변통성 많은 채를 보이고, 그러나 또 혹은 의리를 위하여서는 부귀는커녕 생명까지도 초개같이 버리는 충성을 보이는 이도 있고, 또 혹은 충성을 보이기에는 너무도 겁이 많고 세도를 따르기에는 양심이 덜 무디어 무가무불가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도회술(韜晦術)도 보이고, 성안에 앉아서 천하를 한 입에 삼킬 듯이 큰 소리를 하다가 성문 밖에 나서서적을 대하자마자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의 맥이 풀리는 겁쟁이,저는 아무 것도 아니하면서 주둥이만 살아서 남의 일을 이러쿵 저러쿵 흉만 보고 휘방만 놓는 얄미운, 마땅히 한바탕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이유와 분격지심이 있으면서도남이 대신하여 주었으면 하고 명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앉았는 못난이.....이러한 본색들이 아침을 받는 산봉우리들 모양으로 크게 작게 제 모양대로 제 빛깔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오백년 전에 있던 우리 조상들의 장치 단치는 오늘날 우리 중에도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도 유사하게 드러나는구나. 그 성질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

까지도 펴으나 오백년을 새에 두고 서로 같구나. 우리가 역사를 읽는 재미가 여기 있는지도 모른다.

수양 대군은 단연히 왕의 자리를 도모할 결심을 하였다. 득룡망축(得隴望蜀)이란 셈으로 바라던 자리를 얻으면 한층 더 높은 자리를 또 바라는 법이다. 이리하여 사람은 한없는 욕심의 층층대를 허덕거리며 오르다가 마침내 끝 간 데를 보지 못하고 현기증이 나서 굴러 떨어지어 머리가 부서져 죽는 법이다. 더구나 수양 대군 같은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한 층을 남겨 두고 마음을 잡을 리가 없다. 일국 정권을 한손에 거두어 쥐고 보면 부족한 것이 오직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인 듯하였다.

부대 부인 윤씨(府大夫人尹氏)가 침석간에 수양 대군에게 그러한 뜻(임금 되라는)을 비추이는 것(이 일은 진실로 여러 번 있었다)도 수양 대군의 뜻을 정하게 한, 한 가지 원인이 되고 권람(權攄), 한 명회(韓明澮)가 무시로 권한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된다.

미상불 권람의 말이 옳다. 왕이 아직은 나이 어리시어 수양 대군의 마음대로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지마는 차차 나이 많아지어 국정을 몸소 보시게 만 되는 날이면 족히 수양 대군을 물리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물며 세종 대왕의 만아드님 되는 화의군 영(和議君璵)을 비롯하여 금성대군유(錦城大君瑜), 평원(平原)대군(大君) 임, 한남(漢南)군(君) 어 같은 종친들이 겹으로 드러내어 맡은 아니하지마는 속으로는 수양 대군의 야심을 미워하고 어리신 왕께 동정을 가지는 것이 사실임에랴.

그 밖에도 왕의 편이라고 볼 많나 유력자로는 세종 대왕의 후궁이요, 어리신 왕을 양육한 혜빈양씨(惠嬪楊氏)가 있고 왕의 외숙 되는 권자신(權自愼=이때에 벼슬이 예조 판서), 국구(國舅) 되는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瑗壽), 왕의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시는 누님 경혜 공주(敬惠公主)의 남편 되는 영양위(寧陽尉) 정종(鄭棕)같은 이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은 수양 대군의 권세 놀려서 아무러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왕이 성년 되어 권세를 찾으실 만하게 되면 반드시 왕의 팔다리가 되어 수양 대군에게 대항할 것은 권람, 한 명회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분명한 일이다.

만일 수양 대군이 마치 그가 항상 사람을 대하면 말하는 모양으로 왕이 성년이 되시어 정사를 친히 잡으실 만하기를 기다리어 공성신뢰한다 하면 만사가 다 구순하게 되었을 것이다. 왕은 일생을 두고 수양 대군을 고맙게 알았을 것이요, 백성은 진실로 주공의 덕으로써 수양 대군을 비기었을 것이요, 그 술한 사람은 원통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수양 대군 당신도 만년에 꿈자리 사납지 않게 지내었을 것이다. 그러하건마는 운명은 수양 대군의 가슴 속에 한 움큼 욕심의 불을 던지어 커다란 비극을 만들어 내게 한 것이다.

수양 대군은 일변 궁금(宮禁)을 숙청(肅淸)한다고 칭하여 혜빈 양씨에게 엄중한 견책(譴責)을 주어 일체 궁중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또 문종 대왕 시절부터 왕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여 왕의 동무요, 보호자이던 늙은 내시 엄자치(嚴自治)에게 없는 죄명을 씌워 금부(禁府)에 가두었다가 멀리 제주(濟州)에 안치(安置)할 차로 보내던 중로에 사람을 보내어 주막에서 죽여버리고, 금성 대군이하 종친들도 수상(首相)인 수양 대군의 허락이 없이는 일체 궁중에 출입하기를 금하여버리고, 또 왕의 숙부 중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왕을 생각하는 화의군을 아우님 되는 평원 대군의 첩 초요섬(楚腰纖)과 통간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외방으로 내어쫓고, 안평 대군이 돌아간 뒤에 가장 수양 대군에게 듣기 싫은 바른 말을 하는 금성 대군은 화의군과 좋아한다 하여 그의 집인 금성궁 밖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여 갑사(甲士)로 대문에 과수를 보게 하고, 국구되는 송 현수는 소시부터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회유하

기를 힘쓰고 왕의 의숙 권 자신도 그 환심을 사노라고 예조 판서를 주었다. 그러나 송 현수, 권 자신은 언제 죽어도 죽을 사람이다. 수양 대군의 눈에 매양 걸리는 것이 송, 권 두사람이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었으면 하는 생각도 무단적인 수양 대군의 마음에 안 떠오름도 아니지마는 그것은 최후 수단이다. 될 수만 있으면 피 한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이란 살아 있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던 이라도 죽여버리면 꿈자리 사나운 것임을 황보 인, 김 종서 등에 경험한 수양 대군이다. 이 때문에 생긴 것이 수양 대군의 인재방문(人材訪問)이다.

충명한 수양 대군은 인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권람과 한 명희의 지혜는 수양 대군의 충명을 돕고도 남았다. 만일 이 충명과 지혜(그것은 진실로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를 가진 이들이 사육에 빠짐이 없이 오직 정의로 나라만을 위하는 일을 하였던들 역사에 드문 큰 공적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고그들은 만대에 사모함을 받았을 것이다. ‘부정한 욕심과 부정한 음모’---이것이 그 좋은 충명과 지혜를 망쳐버리었다.

수양 대군은 사람을 세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위엄으로 놀려 버릴 종류의 사람이니, 이것은 가장 수 많은 서민들과 가장 수 많은 벼슬아치들이다. 이 종류 사람은 권세를 보이기만 하면 다 머리를 숙이고 모여드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이 종류 사람도 노상 안심할 수가 없다. 그것은 본래 위엄으로 놀리었던 무리기 때문에 더 큰 위엄이 오는 날이면 곧 예전 주인을 배반하고 새 위엄 밑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더구나 이 무리들은 자기의 주장이 굳게 서지 못하고 또 항상 현재 자기네를 누르는 권세에 대하여 원망과 의혹과 미움을 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흔히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권세를 약속하는 자의 선동을 받기 쉬운 것이다. 권세 가진 자의 눈으로 보면 소위 난화지맹(難化之氓)이다. 그러나 그까짓 것은 수양 대군에게 대하여 그리 주요한 일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런 무리가 근심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시초가 아니요, 옛 권력이 쇠할 만한 때인 까닭이다. 수양 대군의 눈앞에는 끝없는 영화가 있다. 천추 만세에 연면부절하는 권세가 있다(왕의 자리만 얻고 보면 말이다).인사(人事)의 무상(無常)을 깨닫기에는 수양 대군은 너무도 젊고 너무도 순경이다. 건강하고 젊고(사십이면 한창이 아닌가) 뜻하는 바를 못 이루어 본 적이 없는 바에 순풍에 돛을 달고 물결 없는 한 바다로 선유하는 것만을 밖에는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수양 대군에게 반성(反省)이 있을 리가 없고, 후회(後悔)가 있을 리가 없고, 무상(無常)이 있을 리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그는 얼마 더 인생의 어리석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원컨대 그가 이 쓰라린 무상의 술잔을 아니마시었과져, 그러나 십년이 얼마 더 넘지 못하여 그는 마침내 이 술잔을 집어 마시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러할 권세를 수양 대군은 영원한 것으로만 여기었다. 그리고는 전력을 다하여 못할 것 없이 이것을 추구하였다.

수양 대군이 보는 둘째 종류 사람은 이름과 이로 달래어 영구히 노예적 복종을 맹세시킬 수 있는 무리다. 벼슬이라는 것, 울긋불긋하고너덜너덜한 옷과띠와망건, 관자와 한 해에 쌀 몇 섬되는 녹이란 것으로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계급은 현재 조정에 벼슬하는 무리의 대부분과 태학관을 머리로 하여 전국 수없는 서원(書院), 서당(書堂),사정(射亭)에 공부하는 무리와 과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이른바 양반의 무리---줄여 말하면 사회의 상층인 계급이다.

이 무리의 마음을 건어 쥐는 것이 일국의 권세를 누리는 데는 대단히---아마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이 무리는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을 도맡아 파는 도가(都家)일뿐더러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의 ‘도편수’로 자처하는 무리들이다. 기실 정사를 하

는 일군은 아전들이요, 이 무리는 주먹심도, 다릿심도, 의리의 힘도 없는 무리지마는 세습적(世襲的)인 양반권(兩班權)---이런 말을 쓸 수 있다 하면---과 역시 유전적이라 할 만한 뱃심과 입심만을 가지고 놀고 먹고 대접 받는 명을 잡는 것이다.

지금 이 무리의 두목은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다. 정 인지의 말 한 마디면 이 무리의 머리는 마치 바람 맞은 풀 모양으로 이리로 굽실, 저리로 굽실거리는 것이다. 정 인지가 이미 수양 대군의 심복이 되었으니 정 인지의 뒤를 따라 수양 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할 사람이 많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닭을 천을 기르면 그 중에도 봉이 난다는 셈으로 이렇게 덩리를 따라 동으로 가고 서으로 가는 무리들 중에도 굽혀지지 아니하는, 곧은 무리가 있으니 이러한 무리들이 비록 수효는 적을망정 자연히 한 세력을 이루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기치를 내세우고 호령을 함이 없더라도 충의(忠義)가 있는 곳에 반드시 따르는 천연의 위엄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정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몇 사람 안되는 무리가 곧 수양 대군이 이른바 셋째 종류 사람이다.

수양 대군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 무리의 마음을 사려 한다.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올라 한 나라를 누리는 데는 이 무리의 마음을 사는 것이 필요함을 아는 까닭이다. 명리지배 백명을 얻음보다는 이러한 충의지사 하나를 얻는 것이 더욱 힘있음을 수양 대군은 잘 안다. 옳은 선비 한 사람의 뜻이 십만 강병보다도 힘있는 줄을 잘 안다.

이 무리는 위엄으로 내려 누를수 없다. 그네는 의를 위하여서는 시퍼런 칼날을 우습게 보고 한 몸의 목숨을 터럭같이 여긴다. 몸을 열 토막에 내이고 목숨을 백 번 다시 끊더라도 그만 것을 두려워할 그네가 아니다. 박제상(朴堤上), 정몽주(鄭夢周)의 몸에 흐르던 충의의 피는 한강에 물이 마를 때까지 이 땅에 나는 사람의 핏줄에 흐른다. 외인의 피와 살이 땅속에 스며들어 이 땅을 의의 땅을 만들고 그 무덤에 나는 풀이 의인의 기운을 뿜어 이 나라의 초목까지도 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런 이들이 아니면 이 땅에 의는 죽어버리고 만다. 죽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무리들이야말로 수양 대군의 큰 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죽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거나 하물며 명리라. 그가 이름을 싫어함이 아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천하에 돌리고 천추에 돌리움이 그의 욕심이언마는 의가 아닌 때에 그는 이름 보기를 초개같이 여긴다. 그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수치와 고통은 하루라도 불의의 부귀를 누리는 것이다. 불의의 부귀를 누림으론 차라리 당장에 죽어버리기를 택한다.

비록 몸에 치국 평천하의 큰 경륜과 큰 재주를 품었다 하더라도 의에 맞음이 아니면 차라리 이 경륜, 이 재주를 초토에 썩혀버린다.

위무(威武)로 굴(屈)할 수 없고 부귀(富貴)로 음(淫) 할수 없는 이 의인의 무리는 고왕금래에 불의의 권세를 탐하는 자들이 두통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수효로는 비록 몇 백명, 그보다도 더 적게 몇 십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의의 불씨를 천추 만세의 후손에게 전하는 거룩하고도 고마운 직분을 맡아 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전 인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수양 대군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의를 알고 의인을 알고 불의를 알고 불의한 사람을 안다. 그는 임금 중에도 가장 총명한 임금인 세종 대왕의 아드님이요, 임금 중에도 가장 인자한 임금인 문종 대왕의 아우님이다. 총명이 뛰어난 그가 무엇인들 모를 리가 없건마는 다만 그의 억제할 수 없는 욕심이 모든 덕과 모든 총명을 눌러 버린 것이다. 후일에 그의 인자함과 총명함이 다시 바로 서려 할 때는 벌써 만고에 씻어 버릴 수 없는 불의를 행한 뒤였다. 일생으로써, 생명으로써 그의 지나간 허물을 씻어버리려고 나라를 위하여 많



은 좋은 일을 하노라고 무진 애를 썼으나 그의 양심의 가책은 그의 공로로 갚아버리기에는 너무 컸고 게다가 그러한 공로로 지나간 죄를 벗으라고 목숨이 오래 허하여지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후회하는 피눈물로 눈을 감아별린 것이다.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급극의 주인공이 되게 한 그의 억제할 수 없는 패기는 실로 그의 숙명이었다. 이 성격의 결함(특징이라면 특징)은 총명한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이 패기의 날랜 말에 올라앉아 그 뛰어난 총명과 예지로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도 안되겠다 안되겠다 하고 연해 후회하면서도 견잡을 수 없이 그가 마침내 굴러 떨어진 절벽 끝으로 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수양 대군은 옳은사람에게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모와 존경을 품고 있었다. 허후(許誦)에 대하여 취한 태도도 이것을 표하는 것이다. 그는 옳은 뜻을 가진 선비에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대단히 괴롭게 여기었다. 외인의 무리의 칭찬을 받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가 후년에 일변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통감(東國通鑑) 같은 서적을 편찬하게 하고, 일변 유가서(儒家書), 불가서(佛家書)를 언해(諺解)하게 한 것이 그의 문화사업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은 물론이지마는 자기가의를 사모하는 자인 것을 외인의 무리에게 인정하게 하자는 뜻이 또한 적지 아니한 동기가 된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는 의인이 되려는 간절한 소원과 권세를 잡으려는 불 같은 패기와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이 두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는 어렵없는 큰 욕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애인하사(愛人下土)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권력 잡은 자가 누구나 하는 말이다. 한(漢) 나라 유현덕(劉玄德)이 제갈공명(諸葛孔明)을 세 번이나 남양(南陽)이라는 시골 구석에 찾아본 것을 삼고초려(三顧草廬)라 하여 후세 제왕의 모범이 되었다.

수양 대군이 그의 야심을 달하는 수단으로 택한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선비를 찾아보는 일이다.

최항(崔恒)을 새에 내세워 집현전(集賢殿)에 관계한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이들을 혹은 수양 대군 궁으로 불러 보고, 혹은 수양 대군이 몸소 찾아 갔다. 여간한 사람들은 상감의 숙부요, 영의정으로 군국대사를 한 손에 건어 쥔 수양 대군이 만나기를 원한다 하면 신을 거꾸로 끌고달려와서 수양 대군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수양 대군 편에서 조금도 힘들이지 아니하고 제 편에서 덜덜 굴러와 붙는 사람들을 수양 대군은 대견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냥을 즐겨하는 수양 대군은 힘안 들이고 잡힌 짐승을 즐겨하지 아니한다. 아침부터 온종일 산을넘고 골짜기를 건너 따르고 따라도 잡히지 아니하는 짐승이 도리어 몇 갑절이나 더 그의 마음을 끌었다. 사람을 구하는 데도 그와 같은 맛이 있었다. 단 한마디에 주르르 따라오는 사람은 비록 쓸 데는 있더라도 재미는 없었다. 아무리 끌어도 아니 끌리는 사람이야말로 끝 재미가 있었다.

전 대사헌(大司憲) 기건(寄虔)이나 집현전(集賢殿) 교리(校理) 권절(權節),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題學) 조상치(曹尙治)같은 이들이 다 그런 이들이다.

기 건에 관하여는 위에 말한 일이 있다. 교리 이현로(李賢老)와 함께 종친분경(宗親奔競)을 금하라고 상소를 하여 수양 대군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연안부사(延安府使)로 좌천(左遷)이 되었다가 시사에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사랑문조차 닫아버리고 숨어 있는 사람이다.

수양 대군은 기 건의 명망과 재주를 사랑하여서아무리 하여서라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였다.그래서 세력이 당당한 수양 대군으로서 세 번이나 빈한한 기 건의 집을 찾았다. 교리 따위 작은 벼슬아치가 집에 앉아서 영의정을 불러본다는 것은 진실로 놀라운 일이다. 하

물며 기 건은 세종조의 포의(布衣)로서 지평(持平)이 된 사람임에라.

그리고 기 건은 자기가 청맹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한다 칭하고 수양 대군이 벼슬에 나오라는 청을 거절하였다.

수양 대군은 기 건의 거절을 당하고 기 건의 집에서 나올 때마다 기 건의 팔목을 잡고 차마 놓지 못하는 듯이 머뭇머뭇하며 앞을 보지 못하느니가 계하에 내리기가 어려울 터이니 방에서 작별하지 하여 기 건을 아끼었다.

“그놈이 어디 그럴 수가 있사오리까.”

하고 친근하 사람들이 수양 대군에게 기 건의 무례함을 꾸짖었으나 수양 대군은 아무 말 없이 또 한 번 기 건의 집으로 기 건을 찾아갔다. 이것이 세 번째다.

“나라를 보아서 기참판(寄參判)이 나서야 하지 아니하겠소?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탁하는 정성을 보아서라도 일어나서야 아니하겠소?”

하고 수양 대군은 권하다 못해 이렇게 말을 하였다.

“이처럼 세 번이나 누옥에 왕립하시니 황송하외다마는 소인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것이 기 건의 대답이다.

수양 대군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컫는 기 건의 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손에 감추어 들었던 바늘 끝으로 기 건의 눈을 찌를 듯이 하였으나 기 건의 눈은 조금도 움직이지를 아니하고 멀뚱멀뚱 세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양 대군은 마침내 기 건의 뜻을 움직이지 못할 줄 알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기건이 성날 청맹인가?”

하는 것은 수양 대군에게만 의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ㅇ게도 의문이요, 그 집 식구들까지도 의문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나 그가 정말 청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하시어서는 체면을 손상하십니다. 말을 아니 듣는 놈이면 없애버리시면 고만이지. 어디 그렇게 하시어서 될 수가 있사오리까.”

하고 이계전(李季甸), 홍윤성(洪允成)의 무리가 수양 대군을 보고 분개하였다.

기 건에게 세 번이나 거절을 받을 때에 수양 대군도 분이 치밀어 올라 오지 않음이 아니었다. 홍윤성의 말대로 그런 놈은 주먹으로 버릇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다. 자다가 말고도 가끔 그것이 분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대사를 위하여 꼭 참았다. 그리고 여전히 방문 정책을 써서 뜻 굳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정력을 다하였다.

수양 대군은 교리(校理)권절(權節)에게 또 한번 땀을 빼었다.

권 절은 자를 단조(端操)라 하고 호를 동정(東亭)이라 한다. 세종 정묘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교리가 되었다. 연조로 말하면 박팽년, 성삼문 같은 이보다도 훨씬 후배지마는 덕으로나 학으로나 시문으로나 명성이 쟁쟁하였다. 이 때문에 수양 대군이 그를 끌려 한 것이다.

수양 대군이 권 절의 집에 찾아가면 그는 예를 갖추어 영접하지마는 수양 대군이 하는 말, 묻는 말에는 일체 대답을 아니하였다. 수양 대군은 여러 가지로 국가이 형편과 자기의 뜻을 말하나 권 절은 한 마디도 대답함이 없고 오직 손을 들어 귓가를 흔들며,

“소인 귀가 먹어 나으리 하시는 말씀은 한 마디도 들을 수가 없소이다.”

할 뿐이었다. 수양 대군은 혹은 우스운 말도 하여보고 혹은 권 절이가 들으면 성낼 말도 하여보고 혹은 불의에 무슨 말을 물어 무심 중에 권 절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려고도 하여 보았으나 권 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는 듯이 창만 바라보고 탄청을 하였다.

수양 대군은 그래도 기 건이가 청맹과니가 아닌 모양으로 권 절이가 귀머거리가 아닌 줄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여러 번 권 절을 찾았으나 마침내 대답을 듣지 못하고는 나중에는 한 계교를 내어 종이에다가 자기가 할 말과 권 절에게 물을 말을 써가지고 권절의 집에 찾아가서 그 눈 앞에 펴놓고 대답하기를 요구하였다. 권절도 여기는 질색하였다. 식자우환이란 이를 두고 이름이라고 땅을 빼고 난 뒤에 그 조카 권안(權晏)과 의논하고 서울에 있다가는 마침내 몸과 집을 안보하지 못하리라 하여 고향인 안동(安東)에 숨어 출입을 끊고 말았다. 후일에 수양 대군이 왕이 된 뒤에 지중추(知中樞)라는 벼슬로 불렸으나 미친 모양을 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조상치(曹尙治)의 집에도 수양 대군은 여러 번 찾아갔다.

조 상치의 자는 치숙(治叔)이요, 호는 정재(淨齋)라고도 하고 단고(丹臯)라고 한다. 세종 대왕 기해년에 생원문과(生員文科)에 장원(壯元)을 하여 집현전 부제학이 되었다. 젊어서 길야은(吉治隱)에게 수학하여 성리학(性理學)에 공부가 깊어 일세의 추존을 받는 터이다. 태종 대왕 때에 현량시(賢良試)에 으뜸으로 뽑히었을 적에 태종 대왕이 그를 불러 보시고,

“네가 왕씨 신하 조신충(曹信忠)의 아들이냐?”

하고 기특하게 여기심을 받음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조 상치는 벌써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수양 대군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나으리가 주공의 덕을 본받으시오.”

하였다. 수양 대군이 무슨 말을 하거나 그의 대답은 오직 이 한 마디에 그치었다. 이 한 마디 속에는 외람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뜻이 품겨 있는 것을 수양 대군이 모를 리가 없다.

수양 대군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을 말하고 이러한 난국에 처하려면 큰 사람이 필요한 것을 말하여 은연히 시국이 이대로 갈 수가 없는 것과 그 시국을 처리할 사람이 자기 밖에 없는 것과 그러므로 나라에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야 할 것을 비추면, 조 상치는 엄연히,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고 국가가 큰 사람을 기다리거니와 그 큰 사람은 의리를 으뜸으로 하는 사람이외다.”

하고 듣기에는 비록 부드럽지마는 속에는 추상 열일 같은 무서움을 품은 대답을 하였다.

조 상치의 말은 실로 사람을 감동케 할 힘이 있었다.

수양 대군도 그 외 점잖고도 겸손하고도, 정당하고도, 엄숙한 태도와 말에 옷깃을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비록 거절은 당하였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깊었다. 부왕 되시는 세종 대왕의 지우를 받던 이라 하여 선생의 예로써 대접하였다. 도저히 그의 뜻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을 알고 다시는 찾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조 상치는 수양 대군의 야심과 대세가 기울어지는 양을 살피고 시골에 돌아가 숨으려 할 즈음에 세조가 즉위하게 되었다. 조상치는 한 걸음 늦은 것을 한탄하였으나 병이라 칭하고 새로 즉위한 임금을 치하하는 하반(賀班)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곧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고 행장을 수습하여 영천(永川)을 향하여 서울을 떠나게 되었다.

세조는 조 상치가 하반에 참여 아니한 것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호조(戶曹)분 명을 내리어 동대문 밖에 조석(祖席, 송별연)을 베풀게 하고 조신을 명하여 이 늙은 지사를 정송케 하였다.

이것이 무론 세조의 진정도 되려니와 그 밖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개 조 정재라 하면 명성이 전국에 높을뿐더러 집현전 관계자들에게는 혹은 수십년 오랜 친구요, 혹은 스승

이라 할 만한 선비다. 이러한 조 상치가 서울을 떠난다 하면 전별하고 싶은 이도 많을 것이나 단종 대왕을 사모하여 금상을 아니 섬길 뜻으로 산수간에 종적을 감추는 이번 길에 누가 감히 내놓고 그를 전송하랴. 세조는 사람들의 이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 함이다. 우리 임금의 이처럼 인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인심을 수렴하는데 여간 큰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는 이만한 효과를 얻었다. 권세 잡은 이가 하는 일은 권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기가 쉽다. 콧 끝에 붙은 파리를 잊어버리고 아니 날리더라도 그것이 보통 사람인 때에는 신경이 둔한 놈이라 하려니와 높은 사람인 때에는 호생지덕이라 하여 마치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할 일같이 높이는 것이다.

조 상치가 영천으로 들어갈 때에 세조 대왕이 송별연을 베풀게 한데는 이만한 효과가 있었다. 조 상치를 평소에 경양하던 사람들을 마음을 놓고 동대문 밖으로 나아가 송별연에 참여하였다. 이 송별연에 모인 사람들은 왕을 무서워하는 생각을 떼어버리고 가장 유쾌하게 마시고 말하고 읊조렸다. 조상치의 높은 명성도 더욱 높으려니와 왕의 아름다운 뜻도 더욱 빛나는 듯이 생각되었다.

나중에 지필을 내어 전송하는 시와 글을 쓸 때에도 사람들은 꺼림없이 각기 자기 생각하는 바를 썼다. 그 중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이라 한 것은 박팽년(朴彭年)의 말이요,

‘ ’.

이라 한 것은 성삼문(成三問)의 말이다. 이 두 사람의 글 구절 중에 우리는 오는 날에 있을 일을 짐작할 것이다.

수양 대군의 준비는 날로 갖추어 갔다.

어리신 왕의 좌우에는 왕의 심복이 될 만한 이는 하나도 없어지고 말았다. 왕이 오래 만나지 못한 혜빈을 사모하여 자개(者介)라는 궁녀를 은밀히 혜빈에게로 보내었더니 그것이 탄로가 되어 자개는 박살을 당하고 말았다. 왕의 외갓댁인 화성부원군(花城府院君) 덕과 처가 되는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덕과도 전혀 내왕이 끊이고 말았다. 더구나 혜빈 궁에 갔던 죄로 자개가 박살을 당한 뒤로는 궁녀들은 모두 전전궁궁하여 왕께서 무슨 말씀을 내리시면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겁부터 먼저 집어먹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어느 구석에 어느 궁녀가, 또는 어느 내시가 수양 대군 궁에서 요화를 받아먹는지 모른다. 그저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들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궁중은 음산하고적막하고 무시무시하였다. 열 여섯 살 되시는 상감과 열 일곱 살 되시는 왕후와 두 분이 호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 속에 외로이 마주 앉으시었다.

왕도 울울불락하시어 내전에 남시는 일이 별로 없으시고 매양 무엇을 생각하시는 듯하시다가는 간혹 눈물을 떨구시는 일도 있었다.

왕은 소년 시대에 마땅히 있을 쾌활한 기운을 잃어버리고 말으시었다.

열 여섯 살이던 종달새의 봄철과 같이 즐거운 때연마는 왕은 그러한 소년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시었다. 계유(癸酉)년 번(수양 대군이 황보 인, 김 종서 등을 죽인, 소위 계유 정난)이 있는 뒤로부터 이 년이 못되는 동안이언마는 그 짧은 동안에 왕은 나이를 열 살은 더 지내신 듯이 노성하시었다.

독자는 다 아시거니와 왕은 결코 침울하신 천성을 타고 나신 어른은 아니시다. 비록 나서며서 어머니(처음에는 현빈이다가 돌아가신 뒤에 현덕 왕후라 추송을 받으신 권씨)를 여의시어 사랑 중에도 가장 큰 사랑이란 어머니의 사랑은 맛보시지 못하였지마는 조부 되시는

세종 대왕께서는 항상 팔에 안으시고 무릎에 놓으시어 곁을 떠나게 아니하시도록 귀애하시었고 부왕 되시는 문종 대왕의 인자하신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세종의 후궁이요, 왕의 양육을 맡아서 한 혜빈은 기출이나 다름없이 어머니다운 사랑을 드렸다. 이러한 동궁은 은궁중의 사랑과 위함의 중심이 되시지 아니하였던가. 그 양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며, 그 양반이 싫다 하신 것으로 직각에 치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던가?

그때에 왕은 오직 놀고 즐거우시었고 오직 뜻대로 뛰시었다. 참 어떻게나 귀하게 소중하게 나고 자라신 어른이신가. 그렇지만은 삼년 내에 할아버님과 아버님을 다 여의시고 이제 는 어머니를 대신하던 혜빈마저 만나기를 금함이 되시었다. 사모하시는 누님 경혜 공주며, 매부 되는 영양위 정 종도 무슨 큰일 때가 아니고는 만나심을 금함이 되었고 지금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 중에 왕께 대하여 가장 자애가 지극할 외조모되는 화산부원군 부인 최씨(花山府院君夫人崔氏)와 만난지도 벌써 일년이 넘는다. 외숙 되는 권자신(權自愼)도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번씩 조회에서 얼굴을 대할 뿐이요, 정답게 말 한 마디 붙일 수 없었다. 왕은 당신이 친근하게 말 한 마디라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큰 위함이 될 줄을 아신다.

나이가 열 여섯 살이면 가장 그리운 것이 할머니, 아주머니, 누이 같은 정다운 친족들인 것은 임금이나 못 사람이나 다를 리가 없다. 그 아버님의 성품을 받아 애정이 자별하신 왕은 더구나 골육지정이 작별하시었건마는 이 소원조차 풀지 못하였다.

왕의 일언 일동은 하나 빠지 아니하고 도리어 좋지 아니한 편으로 보태어서 수양 대군과 정인지에게 소소하게 일러바치어지었다. 그래서는 대수롭지 아니한 일을 가지고 혹시는 수양 대군에게, 혹시는 정인지에게 간한다고 말은 좋게, 듣기 싫은 책망을 받았다. 수양 대군이나 정 인지의 말대로 하면 왕은 문밖에 나가지도 말고 누구르 불러 보지도 말고 내시나 궁녀까지라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등신 모양으로 온종일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임금의 체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음 펴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시는 왕은 마치 사나운 계모 밑에 사는 며느리 모양으로 앓되고 쏘된 기운이 사라지고 부자연스럽게 노성한 빛이 올랐다. 왕이 무슨 근심이 계시어(흔히는 수양 대군이나 정 인지에서 불쾌한 소리를 들으신 뒤에)문지방에 가슴을 대시고 멀거니 하늘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 얼굴이 마치 삼십이나 넘은 사람의 태를 보이시었다. 혜빈이 아직 궁중에서 쫓겨나기 전에 왕의 이러한 모양을 뵈옵고 비감함을 이기지 못하여 목을 놓아 울었다고 한다.

외양에만 노성한 태가 도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시는 데나 마음을 쓰시는 데는 더욱 그러하였다. 마음이 그러하시므로 외양에 나타나는 것이다. 얼굴은 마음의 목록이라고 한다.

오월 십 사일은 문종 대왕의 첫 번 기신이다. 작년까지는 상복이나 입고 있었건마는 금년에는 벌써 길복이다. 이것이 다 회구적인 왕에게는 슬픈 일이다. 그만큼 아버님은 더욱 멀어가는구나 하고 왕은 제복 소매가 젖도록 우시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니 운 이는 수양 대군, 정 인지가 목석 같은 간장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다.

제사가 끝난 뒤에 왕은 오래간만에 경혜 공주와 경숙옹주 두 분 동기를 만나 체면 돌아볼 새 없이 우시었다. 경혜, 경숙 두 분 누님도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돌아 가신 아버님을 우는 것보다도 외로우신 오라버님을 위하여 운 것이다. 궁녀 중에도 복바치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는 이가 몇 사람 있었다. 이 일이 또 후환의 비밀 중에 하나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일이 있는 뒤로부터 왕은 더욱 슬픈 마음을 가지시었다.

유월도 다 지나고 윤 유월 초생 어느 날, 왕은 더위를 피하시와 경회루(慶會樓)에 오르시었다. 이해에 날이 가물고 더위가 심하여 대단히 민정이 오오하였다.

왕은 난간 가으로 거니시며 흙 타는 연기라고 할 만한 까만 기운이 안개와 같이 돌린 하늘 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가물어서 백성이 어찌 산단 말이나.”

하고 한탄을 하신다.

“그러하오. 민정이 오오하오이다.”

하는 것은 왕의 곁에 모신 내시 이귀(李貴)다. 이 귀는 같은 내시 김충(金忠), 김인평(金印平)과 같이 항상 왕의 곁에 모시도록 수양 대군의 명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이 본래 아무 세력없이 궁중에서 늙은 성명 없는 내시들이다. 본래 세종 대왕 때부터 왕께 친근하던 내시들은 다 쫓겨나고 아무 능력 없는 내시들을 골라 왕을 모시게 한 것이다. 그러한 십여 명 내시 중에 이 귀, 김충, 김 인평 세 사람은 가장 왕께 충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랫녘에는 비가 왔다고 아니하느냐.”

어저께 전라 감사의 장계(狀啓)가 오른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내시들은 대답할 바를 모르고 다만 허리를 굽힐 뿐이었다.

“이렇게 가무는 것이 임금의 죄라 하니 예로부터 그러한 말이 있느냐?”

황송하옵신 말씀이오나 어디 전하께 죄라 함이 당하오리이까. 천종지성이시고…….”

김 인평의 말이 끝도 나기 전에 왕은,

“너는 글을 모르는구나. 옛날에 대한칠년 적에 탕 임금이 신영백도하고 이신위휘생하사 도우상림지야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깊이 탄식하시는 어조로,

“이 몸에 죄가 많아 음양이 불화하고 풍우가 불순하며 민생이 오오하니 어찌할꼬. 세종 대왕 어우에는 이러한 일은 없었다고하시지 아니하느냐. 모두 불초한 이 몸의 탓이로구나.”

모신 내시들과 궁녀들은 다만 황송하여 허리를 굽힐 뿐이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윽고 내시 김 충이가,

“젓삽기 황송하오나 소인이 듣사오니 이 음양순사시는 재상이 할 일이라 하오니 이것이 모두 대신의 죄인가 하오.”

하고 이마가 마루청에 닿도록 한 번 허리를 굽힌다.

“소인도 그러한가 하오.”

하고 이 귀와 김 인평도 말한다.

왕은 눈을 돌리어 내시들을 한 번 흘겨보시고 웃으시며,

“그런 소리를 하고 그 목이 몸에 붙어 있을까.”

하고는 달리 엇듣는 자나 없는가 살피시는 듯 얼른 사방을 둘러보신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내시도 염탐군인지 알 수 없고 또 저 궁녀들 중에도 왕께 가장 친근한체하는 자가 한 명희의 꼬나풀이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소인의 모가지가 열 번 떨어지더라도…….”

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는 김 충을 본 체 만 체 심서를 진정하기 어려우신 듯이 걸음을 옮기시니 연당을 바로 내려다보는 서향 난간 앞에 와 발을 멈추시며,

“세종께옵서 여기 앉으시기를 즐겨하시었거든.”

하고 추연한 빛을 띠운다.

“그러하오.”

하는 것은 이 귀의 대답이다.

“이맘때면 소인이 상가마마를 안아 받드옵고 세종 대왕마마를 모시어 이곳에 있었사외다.”

하고 늙은 궁녀 하석(河石)이가 눈물을 머금는다.

왕은 감개무량한 듯이 하석의 주름 잡힌 낯을 바라보시며,

“그랬더냐. 내가 울지나 았더냐.”

하시고 웃으신다. 적막한 웃음이다.

“진하게옵서는 어리신 적에도 성덕을 갖추시와 아프신 때가 아니면 보채실 일이 없었사외다.”

“그랬으면 다행이다. 유모도 잠을 잤겠구나.”

“황송하오.”

왕의 유모 되는 궁비(宮婢) 아가지(阿加之)와 그의 남편 이오(李午)도 혜빈과 함께 궁중에서 쫓겨난 사람 중의 하나다.

“참으로 인자하옵시고.”

“인정이 많으시와 누구 하나 책망하신일도 없으시옵고.”

이러한 늙은 궁녀 고염석(高廉石)의 말이나 젊은 궁녀 김수동(金壽同), 이막산(李漠山)의 말은 결코 왕께 요공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였다.

왕은 더욱 비감이 새로워지는 모양이였다. 손을 들어 기둥과 난간을 어루만지며,

“세종께서는 여기 거니시기를 즐겨하시더니. 지금 계시더면 오죽이나 나를 귀애하시랴.”

하시며 눈물을 떨구시였다. 그 말씀의 비참함이 듣는 사람의 창자를 끊는 듯하였다.

늙은 내시 김충은 어린 아이 모야으로 두 소매를 눈에 대고 훌쩍 느껴 울었다. 다른 내시들과 궁녀들도 울었다.

이때에 내전 편으로서 사람들이 오는 모양이 보인다.

어떤 궁녀가 가만히 ‘쉬’하는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오는 것을 알래매 내시들과 궁녀들은 얼른 고개를 돌리어서 눈물을 씻어버리고 가장 태연스러운 태를 보이였다. 왕도 눈물을 거두시고 인왕산 가으로 떠도는 구름 조각을 바라보았다. 한 나라의 임금의 몸으로 궁중에 있으면서도 바싹만 하여도 깜짝깜짝 놀라고 궁녀나 내시만 보아도 눈치를 슬슬 보지 아니하면 아니될 당신의 가없는 신세를 생각하면 하늘에 떠도는 구름조각이 부러웠다.

경희루로 왕을 찾아오는 이는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다.

인지는 공손히 손을 읍하여 눈 앞에 돌고 추보(趨步)로 왕의 앞에 나아와,

“좌의정 정 인○지 아뢰오.”

하고 허리를 굽혔다.

왕은 난간을 잡았던 손을 떼고 돌아서시였다. 왕은 미간을 잠간 찡그리였다. 또 무슨 귀찮은 소리를 하러 왔는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잘못했다는 잔소리를 하러 왔는고. 정 인지가 와서 좋은 말이야 무엇이 있으랴 하여 인지를보시기만 하여도 지긋지긋하시였다.

“좌상(左相)은 답지 아니하오?”

하는 것이 인지에게 대한 왕의 첫 말씀이다. 이 고열에 듣기 싫은 소리는 말라시는 듯하였다. 인지도 이 외의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간 머뭇거리다가,

“황송하외다.”

할 뿐이었다.

“삼남(三南)에는 비가 왔다 하오?”

하고 왕이 물으신다. 마치 인지의 입에서 말이 나올 새가 없이 미리 막아 놓으시려는 듯하다. 이것도 인지에게는 의외의 물으심이다. 실상 요사이 수양 대군이나 정인지는 삼남에 비가 오고 아니 오는 것 같은 것으 생각해 볼 〇가도 없었다. 그들은 요사이 야이계일로 어떤 중대한 일을 의논하노라고 나라 정사까지도 잊어버린지가 오래다. 과연 금년 같은 한재는 국가에 큰일이다. 그러나 사육에 골몰한 자들은 국가를 생각할 새도 없었다.

“황송하오나 아직 아무 장계도 오르지 아니하였소.”

하고 인지는 등골과 이마에 구슬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총명하고 가련한 어린 임금’ 이러한 생각이 인지의 마음 속에 떠올랐다.

“비 온다는 소식이나 있다고?”

하고 왕은 실심한 듯이 또 앞에 굽으리고 선 신하를 떨시나 하는 듯이 몸을 돌리어 인왕산 위에 뜬 구름장을 바라보시었다.

이윽고 다시 고개를 돌리시며,

“양서(兩西) 각 읍에는 비가 온다 하오?”

하고 둘째번 물음을 인지에게 던지신다.

인지는 한번 더 등과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지 아니치 못하였다.

“황송하오.”

할 뿐이었다.

“황송 할 것 있소? 좌상같이 명철한 사람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하고 왕은 다시 인왕산 구름장을 바라보신다. 구름장은 점점 높이 떠올라 삼각산(三角山)을 향하고 흘러간다.

“또 서풍이 부니 비가 올 리가 있나. 여름에 왜 서풍만 불어.”

하고 뒤에 선 대신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신 듯이 멀거니 가는 구름만 바라보신다.

왕의 이러하신 태도는 결코 심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왕이 정 인지에게 대한 적개심을 분명히 발로하는 표적이었다. 왕이 부왕과 조부께 대한 효성은 골육지친에도 뻗치어 누가 무어라고하더라도 수양 대군을 미워할 지경까지는 감정을 끌여가지 못하였다. 비록 수양 대군이 당시에 대해 자애심이 부족한 숙부라 하더라도 충의의 절개가 부족한 신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아니하시었다. 아니하시었다는 것보다 그의 천품으로는 못하신 것이다.

왕의 인자하신 성품이, 게다가 어리신 마음이 누구든지 의심하거나 미워하는 법을 배우기는 심히 어려운 공부다. 그러나 지나간 삼년 간에 왕은 이 공부를 조금은 배우시어 근래에는 좌의정 정 인지의 심사를 의심도 하고 미워도 하게 되시었다. 실상 왕에게서 모든 친한 사람과 편안한 마음을 빼앗아 간 것이 정 인지의 손이 아니냐. 숙부인 수양 대군을 참미워 못하시는 왕은 그의 수족인 인지를 원망 아니할 수 없었다.

정 인지가 근래에 더욱 왕을 괴로우시게 하는 말을 아뢰고 가끔 일부러 왕의 화를 돋우는 말, 심지어는 왕을 떨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심하게 되어 아무리 하여도 왕은 정 인지에게 대하여 호의를 가질 수가 없으시었다.

인지의 말에 왕이 못 들은 체하고 고개를 돌리시어 다른 데를 보시거나 좌우를 돌아보시고 다른 말쑈를 하시거나 혹은 탑전에 부복한 그를 본체 만체 하고 일어나 나오시거나 하시면(근래에 이러한 일이 수차 있었다) 그것이 또 임금의 덕이 아니라 하여 이른바 직간(直諫)의 거리가 되었다.



왕은 한 번은,

“늙은이의 객적은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 임금의 도리에 어그러진다 하면 임금의 귀에 거슬리는 객적은 소리만 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에는 어그러지지 아니하오? 내가 나이 어리고 덕이 비록 박하지마는 선생의 가르치심을 글로 읽었고 선왕의 말씀을 이 귀로 들어서 말의 옳고 그른 것과 사람이 충성되고 아니 된 것을 가릴 줄은 아오.”

하시었다. ‘좌상의 말에 터럭끝만한 충성이 있다 하면 내 마음은 스승에게 대한 공손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들겠소’하는 말이 복받치어 오르는 것을 그야말로 임금이 신하에 대한 체모에 어그러지는가 하여 꼭 눌러 참으시었다.

이 일이 있었지가 삼사일 되었다. 그 동안 인지는 한번도 왕께 무슨 말씀이든지 주달한 일이 없었다.

“오늘은 어찌 정가가 아니 오는고.”

하고 저녁때마다 왕은 혼자 웃으시었다. 즉위하신 처음에는 왕은 지극한 존경과 신뢰로 정인지를 대하였다. 그는 정 인지가 조부 세종 대왕이 사랑하시던 신하일뿐더러 아버님 문종 대왕이 스승으로 대접하여 당신을 부탁하신 사람인 까닭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지의 귀 거슬리는 말도 충성을 쓸 말로만 여기었으나 임금의 총명하심은 인지의 품은 악의를 간파하여버렸다. 입으로는 이 소리를 하고 마음으로는 저 생각을 하는 줄을 간파하였고, 귀찮게 하는 소리가 모두 왕의 마음을 떠보거나 왕을 못견디게 하려는 간계라고만 생각하시게 되었다.

삼사일이나 말이 없다가 오늘 이렇게 늦게 미복으로 경회루에 납신 때연만도 들어온 것을 보면 필시 대단히 듣기싫은 말이 있는 모양이라고 왕은 생각하시었다. 왕의 눈과 궁녀들의 낮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으면 그것이 또 이 충신의 말거리가 되리라 하고 처음에는 끔찍끔찍하고 지긋지긋하시었으나 몇 마디로 인지를 욕을 보이고 나시니 ‘제까진 것이’하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태연한 마음이 생긴다. 늙고 학식 많고 경험 많고 말솜씨나 일솜씨가 다 노련한 정 인지라 하더라도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학문 토론을 하거나 피 거름을 한다면 몰라도 총명이나 예지나 말에 네게 질 내가 아니라 하고 왕은 혼자 마음 속에 정 인지는 땅바닥에 기는 조그마한 벌레같이 생각하신다.

정 인지 역시 처음에는 군신지분과 때때로 무심 중에, 무사한 때에 발로되는 사람인 양심으로 등과 이마에 땀도 흘리었으나 왕에게 이만큼 수모를 하고 나면 그의 악할 수 있는 정 인지의 마음은 매맞은 독사와 같이 뿔뿔하게 토라지었다.

좌의정 정 인지는 흠어지려던 용기를 수습하여 아무리 한 감동할 만한 일에도 감동하지 아니하도록 피 흐르는 것을 보더라도 그 조그마한 눈을 깜짝도 아니하도록 굳게 결심하고 소리를 가다듬어,

“전하께 아뢰오.”

하고 외치었다.

왕이 깜짝 놀라리만큼 그 소리가 여무지었다. 마치 갑자기 치는 쇠 소리와도 같았다. 왕은 인제 시작으로구나 하고 몸은 여전히 인왕산을 향하고 고개만 뒤로 돌리어 정 인지를 보시었다.

“은밀하게 아뢰올 말씀 있사오니 청컨대 좌우를 물리시오.”

하고 인지가 다시 아뢴다.

“은밀한 말?”

하고 왕이 반문하신다.

“은밀한 말이 무슨 은밀한 말이란 말이요? 또 내가 무어 잘못된 것이 있소? 내가 덕이 없어서 날마다 좌상에게 잔소리---아차 잔소리가 아니라 충간이라더라. 충간을 듣는 것은 세 소공지어든 곁에 사람이 있기로 어떠하오? 할 말이 있거든 하오.”

하시며 왕은 몸을 돌리시어 곁에 놓인 교의에 걸터 앉으신다. 건디기 어려운 일이라도 당하자구나. 아무려면 내게야 일 있겠느냐 하시느 태다.

인지는 딱한 듯이 약간 고개를 들어 좌우에 있는 궁녀와 내시들을 힐끗 본다. 그들은 상감님보다도 무서운 정정승의 눈살에 몸에 소름이 끼치어 왕이 명하심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서너 걸음씩 비슬빗슬 뒤로 물러서다가는 그 후에는 좀더 걸음을 빨리하여 기둥 뒤로 슬슬 몸을 감추어 버린다. 그 중에 오직 김충(金忠)이가 까딱없이 본래 섰던 자리에 서서 좌의정 같은 것은 안하에도 두지 않는 듯이 태연하다.

인지는 참다 못하여,

“너는 어찌하여 물러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어전인 것도 꺼리지 않고 독이 있는 어성으로 김 충을 꾸짖었다.

“어전에서 무엄하오.”

하고 김충은 엄숙하게 인지를 흘겨보았다.

인지의 눈초리는 노염으로 빨강게 상기가 된다. 이 순간에 김 충의 목숨이 어찌될 것은 결정이 되었다.

살기가 찬바람 모양으로 돈다. 조선 천하에 누가 감히 호랑이 같은 좌의정 정 인지의 비위를 극적거릴자랴. 그의 비위를 거스리다가는 임금이라도 자리를 쫓겨날 그러한 세도 재상의 비위를 거스리는 김 충의 이 순간의 행위는 무슨 큰 변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인지의 전신에는 찬 기운이 한 번 돌았다. 그 기운은 마치 서리를 몰아오는 갈바람 모양으로 천지를 숙살할 기운이다. 인지의 이 기운과 김 충의 저 기운과 그만 마주치어 버렸다. 그것은 큰 싸움의 시작이어나와 다 늙어빠진, 마치 벌레와 같이 천한, 한낱 내시 김 충과 수양 대군의 심복이 되어 군국 대권을 마음대로 잡아 흔드는 좌의정 정 인지와와 씨름은 우습기를 지내서 기막히다고 할만한 말되지 않는 씨름이다. 옳은 것은 언제나 연약한 광대로 차리고 무대에 뛰어나와서 옳지 아니한 힘에게 찬혹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꾸러지어 구경군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조물의 뜻이다---심술궂은 뜻이다.

왕은 김 충을 향하여,

“물러 있거라.”

하고 명을 내리시었다. 그제서야 김 충은 약간 허리 굽은 몸을 끌고 비틀걸음으로 십수 보 밖에 물러섰다. 그러나 그의 꺾꺾꺾하는 눈은 항상 왕의 몸에 있었다. 제 따위가 그리한 대야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라마는 오직 억제할 수 없는 충성이 그러하게 함이다.

“은밀한 말이라니 무슨 말이요?”

하고 왕은 김 충이 물러나는 양을 물끄러미 보시고 그의 앞에 반드시 참혹한 죽음이 있을을 가없이 여기던 뒤에 인지를 향하여 물으시었다.

김충은 왕의 앞에서 물러나와 궁녀들 모이며 섰는 곳을 지나가며 누구더러 말하는지 모르게,

“엇들어 보아야지.”

하였다. 늙은 상궁하석(尙宮河石)이 얼른 김 충의 말을 알아듣고 젊은 궁녀 수동(壽同)과 막산(漠山)을 눈짓하여 앞으로 가까이 불러 정 인지 눈에 띄이지 아니하게 몸을 숨기어 그 하는 말을 엿들을 것을 말하였다.

영리한 두 공녀는 늙은 상궁의 뜻을 알았다. 만일 정정승에게 들켰다가는 철여의 모듬매에 빠다귀 하나 온전치 못할 줄을 모름이 아니지마는 평소에 사모하던 왕을 위하여 몸의 위험을 무릎쓰고 하여드릴 일이 생기는 것이 도리어 기뻐다. 두 공녀는 작은 가슴을 두군거리고 기둥 그늘에 몸을 숨기어 사랑살랑 정 인지의 뒤로 가까이 들어갔다. 가는 길에 왕의 눈이 두 공녀를 보았으나 그들의 뜻을 아시는 듯이 못 보신 채하였다.

왕은 비록 정 인지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태연자약할 결심은 하시었으면서도 그래도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고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태연 자약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이 산란함을 깨달으시었다.

정 인지도 차마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듯이 입술이 열리려다가는 닫히고 열리려다가는 또 닫히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 국보간난(國步艱難)하와 내외다사(內外多事)하옵고 민심이 돌아갈 바를 몰라 유어넘어가 향간에 성행하올뿐더러 간신 인(仁), 종서(宗瑞)의 여당이 아직도 경향에 출몰하와 불궤(不軌)를 도모하는 모양이오니 이리다간는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역성지변(易姓之變)이 있을까 저어하오며 그러하오면 위로 태조 대왕과 열성조(列聖朝)의 위엄이 일조에 오유(烏有)가 될뿐더러 무고한 창생이 도탄에 빠질 것이온즉 지인지효(至仁至孝)하옵신 전하께옵서 이 일을 어찌 차마하시리이까…….”

정 인지는 가장 지성측달한 어조로 이렇게 지금 나라 일이 위태한 뜻을 아뢰다가 말이 막히었다. 그것이 마치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듯하였다.

왕은 인지가 아뢰는 말씀을 들으시며 용안에 근심하는 빛이 가득하시어 하시다가 인지가 말을 끊으매 왕은 옥좌에서 일어나시어 두 손을 가슴에 들어 읍하시며,

“내가 부덕(不德)한 탓이요. 좌상이 이러한 충성된 말씀을 하거든 내가 앉아서 들을 수가 있소?내가 부덕하고 또 유충(幼冲)하여 조종의 유업을 위태하게 하고 창생으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한다 하니 내 지금 찬땀이 등에 흐르오. 그러나 다행히 숙부 충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좌상이 또한 경국 제세지재가 있으니 부덕한 나를 보도(輔導)하여 대과(大過)가 없도록 하오.”

하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다.

어리고 감격성이 많으신 왕은 정 인지가 나라로 근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시고는 지금껏 의심하고 미워하시던 생각도 버리고 도리어 인지의 충성에 감동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대신을 모만하신 생각을 후회하신 것이다.

인지도 왕의 말씀에 숨이 짝 막히었다. 왕이 자기를 미워하시는 때에는 아무러한 말이라도 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나 자기를 신입하시는 양을 비웃고는 그 어른의 가슴을 아프시게 할 말씀을 사뢰기가 매우 거북하였다.

그러나 요마한 인정(인지는 그것을 요마하다고 생각한다)에 구애하여 대공을 세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왕에게 왕위를 내어 놓으라는 첫 마디는 꼭 자기 입으로 나오게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에게 그 공을 빼앗길 근심이 있다.

본래 수양 대군이 정 인지더러 왕께 퇴위하시기를 권하라는 부탁을 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수양 대군이 왕위에 야심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탁을 자기 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치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하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모양으로 왕께 물러나시기를 청해 달라는 말도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는 다 그 뜻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어서 당자는 겉으로 싫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나서서 국가를 위하여 이리이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서둘러야 하는 것이니 정

인지가 곧 이 사람이다.

입 밖에 내어서 말은 아니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심 전심으로 수양 대군이 왕위에 야심이 있는 것을 그의 심복이 되는 총명된 부하가 알아차리었다. 그것은 권람(權攄)과 한명회(韓明澮) 두 사람이다. 하루의 반 이상을 수양 대군 궁 밀실에서 살고 수양 대군의 심중을 취찰하기로 직업을 삼는 이 두 사람이 아니고야 어떻게 주공(周公)의 마음 속에 성왕(成王)의 자리를 빼앗을 뜻이 있는줄을 분명히 알아보라.

수양 대군이 왕이 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이롭지 못하다 하면 두 사람은 그 뜻을 알고도 모르는 체할 것이지마는 그것이 자기네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서서 설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알아본 표를 보일 때까지는 수양 대군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였을 것은 진실로 동정할 일이다.

권람, 한 명회가 수양 대군의 야심을 화직히 안 뒤에 첫째로 할 일은 이 뜻을 두 대신 ---좌의정 정 인지와 우의정 한 확에게 전하는 것이어니와 이 일도 어려우려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마는 쉬우려면 또 무척 쉬운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 이 일이 어렵겠는가 하면 그것을 전함을 받을 사람이 이(利)로 움직이지 아니할 사람인 경우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휘어 넣으려면 그 일에 의리의 가면을 씌워야 하거니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마는 저편이 이에 움직이는 줄만 알면 거저 먹기다. 마치 음탕한 계집을 유혹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슬쩍 눈치만 보이면 그만이다. 오직 한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입 밖에 내어 말할 수도없고 더구나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뒤에 남길 수도 없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서 모가지가 날아날 일이다. 권람, 한명회는 이런 일을 목이 날아나게 할 사람이 아니다.

권 람은 그 조부 권근(權近)의 반연으로 소시로부터 정 인지와는 교분이 있었고 또 우의정 한 확은 수양 대군과도 친척간이어서두 사람에게 수양 대군이 속에 먹은 뜻을 전하기에는 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 인지나 한 확이나 다 이를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권 람과 한 명회의 계획은 정 인지, 한 확 두 사람으로 하여금 공을 다투게 함이었다. 누구든 먼저 왕께 퇴위를 권하는 사람이 수공(首功)이 될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리 그들이라도 심히 어려운 일이었다. 아무리 그들이기로 인정이 없을 리가 없다. 어리신 임금을 생각하고 문종 대왕의 고명하신 것을 생각하면 측은한 생각이 아니 날 리가 없다---의리라는 생각도 아니 날 리가 없다. 의리라는 생각을떠어버리기는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을 발로 뺏아버리기는 그들이라도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런 못할 일은 아니하였으면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소원이다.

그렇지마는 수양 대군의 뜻은 변할 리가 없는 즉, 내가 아니하면 반드시 다른 사라이 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시키느니보다도 내가 하리라, 내생의 지옥을 누가 보았더냐 하는 것이 정 인지, 한확 두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심리였다. 이러한 결론으로 정 인○지가 한 확보다 먼저 왕께 ‘물러납시오’말씀을 아뢰려 들어온 것이다. 이윽히 잠잠하다가 마침내 좌의정 정인지는 입을 열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열성조의 위업을 보시와.....”

인지는 또 열성조를 팔았다.

왕은 인지가 머뭇머뭇 어물어물하는 태도에 한참 동안 스러지었던 의심을 다시 품으시게 되었다. 변변치 못한 말은 아무리 꾸며도 당당한 기운이 없었다.

“이렇게 국보가 간난하옵고 또 전하께옵서는 비록 천종지성이시와도 춘추 어리시오니 국

사로 보옵든지 전하께옵서 옥체를 한가히 하시기로 보옵든지 이때에 군국 대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고 전하께옵서는 편안히 즐거우신 일생을 보내심이 옳을까 하오.”

인지의 이 말을 왕이 차마 들을 수 있으랴. 왕은 인지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듯이 실신한 사람 모양으로 물끄러미 인지의 조그마한 몸뚱이를 바라보실 뿐이었다.

인지는 말하던 김에 단단히 따질 필요를 느끼고,

“그뿐 아니옵고 만일 이대로 가오면 옥체에도 무슨 불측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사오니 신자의 도리에 어찌 차마 보오리까. 그리하옵기 소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왕은 인제야 인지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듯하였다. 그러나 설마 그 뜻이라 하였다. 왕이 아니시라도 아무라도 설마 그 뜻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마는 좌이정 정인지가 신자의 도리에 차마 앉아 볼 수 없어서 죽기를 무릅쓰고 사퇴는 충성된 말의 뜻은 결국 그 뜻이 요, 다른 뜻은 아니었다.

“군국 대사를 숙봉게 맡기었으니 이제 날더러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주란 말이요?”

하고 왕은 인지의 참뜻을 알아보실 마지막 길로 이렇게 물으시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보위(寶位)를 수양 대군에게 사양하시오.”

하고 인지는 무서운 곳을 지나가는 사람 모양으로 눈을 꼭 감았다. 어디서 벼락이 떨어질 듯한 무서움도 있으나 대단히 어리운 곳을 지나온 듯한 안심도 있었다. ‘왕이 대노하시기로 제 나를 어찌하랴’---인지의 머리 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지나간다. ‘이제는 왕은 벌써 거추장거리는 한 어린 아이다. 왕은 벌써 수양 대군이 아니냐’--- 인지는 이렇게도 생각하여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이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려 한다. 그리고 자기의 충명과 용기와 행운을 스스로 치하한다. 이러하는 동안이 실로 순식간이다.

“좌상이 나더러 왕위에서 물러나란 말이야.”

하시고 왕은 옥좌에 벌떡 일어나시었다.

“나더러 부왕께서 전하여 주신 왕위를 버리란 말이야? 그것이 대신이 할 말이야. 그것이 어느 성경 현전에 있는 신하의 도리야? 정 인지의 목에는 칼이 들이갈 줄을 몰라?”

왕은 용안이 주홍 빛이 되시고 발을 구르시었다.

“숙부가 있거든 정 인지를 시켜 이런 말을 하게 한단 말이냐. 누구 없느냐. 이리오너라! 역신 정 인지를 금부로 내려 가두고 전교를 기다리라 하여라! 난신 적자를 하륜들 살려 둔단 말이냐. 요망한 늙은 것이 오늘따라 가장 충성이 있는 듯하기로 무슨 소릴를 하시고 하였더니 언감 생심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이놈 네가 선조의 녹을 먹고 고명하심을 받았거든 이제 이심을 품으니 천의가 없으리란 말이냐. 누구 없느냐. 이 역신을 끌어내는 놈이 없단 말이냐.”

하시니 왕의 두 눈에서는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왕이 부르시매 궁녀들과 내시들이 모여 왔으나 아무도 감히 정 인지에게 손을 대는 이가 없었다. 답나 눈들이 둥글하여 벌벌 떨 뿐이었다. 정 인지에게 손을 대는 것은 마치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림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정 인지도 왕이 진노하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좀더 어성을 높이어,

“옛날로 말씀하여도 요, 순, 우의 상(相)전(傳)이 있었사옵고 우리 나라로 말씀하더라도 태조대왕(太祖大王)께옵서 정종대왕(定宗大王)께 선위(禪位)를 하시왔고 정종 대왕께옵서는 또 태종 대왕께 선위하시었사오며 또 황조(皇朝)로 말씀하와도 건문황제(建文皇帝)께옵서…….”

하고 왕으로 하여금 선위하는 일이 결코 전에 없는 일도 아니요, 또 흉한 일도 아닌 것을

해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왕은 인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조 고명 받은 충신 정인지가 나를 요, 순을 만들려는가.”

하시었다. 인지에게는 실패는 없었다. 먼저 말만 떼었으면 벌써 성공이여니와 한번 인지가 내어놓은 말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인지의 힘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지가 시세의 그러한 기미를 용하게 빨리 살피고 미첩하게 그 기미를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용한 것이다.

인지가 할 말을 다 하고 물려나간 뒤에 왕을 응위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목을 놓아 울었다. 경희루가 한바탕 울음터가 되기는 실로 개구 아래에 처음이다.

왕은 인지의 말을 들으시고 인지를 질책하실 때에는 노성한 어른이시었으나 인지가 물려나가고 좌우가 우는 것을 보신 때에는 도로 열 여섯 살 먹은 어린 고아시었다. 그래서 왕은 훌쩍 느껴우시다가 궁녀들의 부축으로 정신 잃은 이와 같이 내전으로 돌아오시었다.

내정에서도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는 양을 보고 모두 무슨 일이 생긴고 하여 황황하였다. 궁녀들은 섰던 자나 걸어오던 자나 다 발이 붙은 것같이 우뚝 서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근래에 궁중에는 불원간에 무슨 큰 변이 생기리라는 예감이 돌았다. 그 변이 무엇인지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저마다 아는 듯하였으니 그것은 곧 어리신 왕의 몸에 관한 불길한 일이었었다.

“웬 일인지 상가마마께옵서는 낙루하시며 드옵시오.”

하고 지밀 나인이 아뢰는 말에 왕후 송씨께서도 깜짝 놀라시와,

“낙루라니? 상감마마께옵서 어찌 낙루를 하옵신단 말이냐.”

고 계하로 뛰어 내리시었다.

왕은 내전에 들어오시는 길로 몸이 불편하다 하시고 좌우를 물리시고 자리에 누우시었다. 왕후는 뒤에 남아 왕이 비감하시는 까닭을 알려 하시었으나 아직 어리시고 혼인하신지 일년 밖에 아니 뒤 내외분이시라 왕후는 아직도 왕의 앞에서 수줍을 떼지 못하시어 직접으로 왕께 연유를 여쭙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왕후는 상궁 하석에서 오늘 경희루에서 일어난 일을 대강 들으시고또 기둥 뒤에서 엿듣던 김 수동, 이막산 두 궁녀를 부르시와 좌의정 정 인지가 왕께 아뢰던 말과 왕께서 인지에게하시던 말씀을 낱낱이 들어 기절 하실 듯이 괴로워하시었다.

그러나 왕후는 궁중이 어떠한 곳인 줄을 아시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곳이어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는 곳인 줄을 여자이니만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왕후는 눈물을 거두시고 좌우를 물리신 뒤에 지금 이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 것같이 처지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에 힘을 쓰시었다. 그렇게 태연하기를 힘 쓰시었으나,

“세상에 이런 말도 듣는 법이 있느냐.”하시고 왕후는 마침내 무릎에 엎드리어 우시었다. 그 슬픔은 구천에 사무치고 영원히 끝날 줄을 모르는 듯하였다. 왕의 자리를 물려남도 슬픔이려니와 남편 되시는 왕의 몸에 만일의 변이 미칠 것을 생각하면 천지가 캄캄해지는 듯하였다.

여자는 아무리 급한 때에라도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고 반드시 이해 타산을 할 여유를 가진다고 한다. 어리신 왕비로 이러한 때에 생각나시는 것은 친정 부모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친정 부모에게만 알리면 무슨 도리가 있을 듯하였다. 부모라 함은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琰壽) 내외다.

그러나 송 현수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궁녀가 대궐 밖으로 나가는 것이나 밖의 여자가 궁중에 들어오는 것이 급록 절대로 금함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더라도

거의 무망이었고 선불리 하다가는 목이 날아나는 판이다.

그렇다고 하루라도 지체할 수는 없다. 왕후는 첫째 어느 나인을 붙들고 부탁할까 애를 쓰시었다. 평소에 보면 다 심복 같지마는 이런 중대한 일을 당하고 보면 다 의심스러웠다.

“설마 막산이야 어떨라고. 막산이보다 염석(廉石)이가 낫까. 이런 때에 자개(者介)가 있으면 작히나 좋을까.”하고 혜빙 궁에 출입한다고 박살을 당한 자개를 생각하시었다. 염석은 하석(河石)과 같이 세종 대왕 시절부터, 왕이 왕세손(王世孫)이라고 일컬을 때부터 왕의 곁에 모시는 늙은 상궁이요, 막산(漠山)은 수동(壽同)과 같이 금상이 즉위하시며부터 왕께 친근히 모시는 젊은 궁녀다. 왕의 곁에 근시하는 궁녀들이 다 쫓겨나는 판에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눈에 뜨일 만하지 아니한 덕으로 이를테면 잘나지 못한 덕으로 오늘날까지 왕의 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양전마마께서 보시면 가장 오래 낮 익은 궁녀들이어서 특별히 귀애하심을 받았다. 그렇지마는 그들을 곧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래도 이 사람들 밖에 더 믿을 사람이 없다.

왕후는 마침내 여러 사람이 눈에 뜨이지 아니하게 막산을 부르시어,

“막산이, 너 어려운 일 하나 들어 주련?”

하고 은근히 물으시었다.

막산은 왕후의 이렇게 은근하신 태도에 너무나 황송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곤전마마께옵서 하라 하옵시면 소인이 물엔들 아니 들어가며 불엔들 아니 들어가오리까. 머리를 베어 신을 삼아 바친들 양전마마 태산 같으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수동은 아까 경회루에서 생긴 감격이 아직 스러지지 아니하였다가 왕후의 심상치 아니하신 태도에 다시 불길이 일어난 것이다. 아직 왕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직 못하거니와 그것이대단히 중대한 것인 줄은 짐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일을 부원군 궁에 통할 수가 있겠느냐? 믿고 하는 말이니 네가 무슨 도리를 생각하여라.” 하시는 왕후의 말씀을 듣고 수동은 이윽히 생각하더니,

“소인이 할 도리가 있으니 곤전마마는 염려를 부리시오. 오늘 밤으로 이 말씀을 부원군 궁에 통하도록 하오리이다.” 한다.

“그러면 작히나 좋으랴. 그러하면 상감마마께 아뢰와 네 공은 후히 갚으려니와 너도아다시피 이 일이 심히 큰일이니 만일 탄로되었다가는 필시 큰 변이 날 것이다. 네 목숨도 위태하려니와 잘못하면 부원군 궁에도 화가 미칠까 하니 무디 조심하여라.”

하고 왕후는 적이 마음을 놓으시는 중에도 여자다운 자상한 걱정을 하신다.

“곤전마마, 염려 부리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하오리다.”

“다행한 말이다마는 무슨 피가 있느냐. 어찌할 생각이냐. 그러고 오늘 밤에는 꼭 되겠느냐. 나는 새라도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거든 네가 무슨 재주로 이 기별을 통하려 하느냐.”

하고 그래도 왕후는 염려를 놓지 못하신다.

“그것은 염려 없사외다. 별시위(別侍衛) 댕기는 사람에 소인의 오라비의 친구 형제가 있사외다. 이 사람들만 만나서 부탁을 하오려 하오.”

하고 막산은 왕후를 안심시키려고 여량부원군 집에 기별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였다.

왕후는 펄쩍 뛰신다---.

“그것이 될 말이냐. 네 오라비 친구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부탁을 한단 말이냐. 별시위나 댕기는 것들을 어떻게 믿고…….”

“그렇지 아니하오이다. 그 사람네 형제로 말씀하오면 비록 벌레와 같이 천한 태생이오나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아옵고 한 번 허락한 말씀이면 물불이 앞을 가리워도 변하지를 아니

하오. 요새 정승, 판서님네는 사재사초(事齎事楚)를 당연히 알아도 소인네 천한 무리는 그럴 줄을 모르오.”

하고 막산은 기를 내어 자기네 계급이 충성됨을 변호한다.

“옛날에는 그러한 사람들도 살았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도 있을까?”

하고 왕후는 반신 반의하시었으나 막산의 충성을 믿고 만사를 맡겨버리고 말했다.

김득상(金得祥)은 아직 삼십이 다 차지 못한 젊은 별시위다. 키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나 구간(軀幹)과 사지가 모두 힘있게 어울리게 붙고, 빛은 검을지언정 얼굴과 이목구비가 다 바로 박히어 날래고 굳센 기운이 미우에 가득하였다. 일신이 도시 양기 덩어리 듯이 항상 유쾌하였다. 그는 동무들에게와 아는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나, 또 여간해서는 성을 내는 일이 없이 한 마디 ‘이런!’하고 참아버리거니와 한 번 성이 나는 날이면 벼락 감고 호랑이 같았다. 아는 사람은 그를 독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궁녀 막산이가 이 김 득상의 가장 절친한 친구 김덕산(金德山)의 누이로 이 용사 득상과 봉 내외하고 다닌 동안에 깊이 사랑의 정이 들게 된 것은 가장 자연한 일이다. 궁녀된 막산이가 시집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득상이도 아직 장가도 들지 아니하고 궁중 으스스한 그들에서 때때로 막산을 만나 보는 것으로마족히 여기었다.

이러한 사람의 친구는 몇 사람 되지 아니하나 사귄 사람은 다 형제와 같았다.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는 저요, 나는 나지.”

하여 내어버리고,

“여보게 동관--”

하고 우뚝조로, 혹은 왕심릿조로 한 번 반갑게 부른 뒤에 손으로 아프리만큼 어깨를 툭 치는 사이만 되면,

“어, 그럼세.”

하고, 한 번 허락한 것이면 다시 두 말이 없고 어떤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일 내어 놓고 나서서 보아 준다. 친구가 어느 놈한테 매를 맞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는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이런 제길. 그놈의 정강이가 성해!”

하고 뛰어나선다. 그러는 날이면 저놈의 정강이나 내 정강이나 간에 하나는 부러지고야 만다.

만일 어느 친구가 친환이 나거나, 내환이 있거나, 아환이 있거나 하여 돈이 없어 곤란한 것을 보아? 그는 곧 아내의 비녀, 속옷이라도 잡혀다가 도와 준다.

그들에게는 왕께 대한 충성이 있다. 그러나 막산이 말마따나 별레같이 미친한 계급에 태어난 그들로는 충성이 있어야 그것을 보일 기회가 없었다. 쥐가 사자에게 충성을 보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고 돈에도 팔리고 이름에도 팔리고 아침에는 왕가, 저녁에는 이가를 섬기는 무리들만이 충신 열사는 도말아 가지고 있다. 마치 소경이 보기를 맡은 것과 같다.

그날 밤은 마침 별시위 김 득상이 대궐에 번드는 날이다. 밤 자정에 번을 들어 이튿날 오정에 나가게 되었다. 득상이 맡은 직책은 철여의를 들고 사정전(思政殿) 뒷마당을 지키는 일이었다. 사정전은 왕이 낮에 거처하시는 편전이어서 밤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 곳이지마는 그래도 군사 네 명이 전후 좌우 사방을 밤새도록 지키게 되었다.



윤 유월 날은 밤에도 더웠다. 대궐 마당에도 모기가 앉았고 경희루 가초 끝에는 북두성 자루가 걸려 있다.

득상은 사정전 뒤뜰을 동에서 서으로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가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크나큰 대궐은 어두움 속에 보면 하늘에 솟은 괴물 같았다. 득상의 발자취 소리는 저벅저벅 전각에 울린다.

“어느 새 반딧불이 났네.”

하고 득상은 발을 멈추고 귀신의 등불 모양으로 파란 불을 켜다 켜다 하며 뒷담을 넘어 사정전 추녀 밑으로 날아 가는 반딧불을 때리거나 하려는 듯이 손에 든 철여의를 내어둘러 보고는 또 걷기를 시작한다. 걷다가는 한 걸음 멈추는 것은 무엇이 들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밤에 대궐 안에서 궁녀와 밀회한다는 것은 목숨을 하나만 가지고는 못할 일이다. 한 번 들키는 날이면 그 목숨은 간 곳을 모른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 사람의 사랑은 죽음보다 힘이 있다. 그래서 한 해에도 몇 사람씩 죽는 양을 보면서도 궁녀는 사랑의 뒤를 따른다. 크나큰 대궐 안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감출 만한 으스스한 담 모퉁이와 나무 그늘도 많다. 두어 마디 속삭거리 보고 손 한 번 마주잡아 보고 이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목숨 하나 내어댈 만한 값은 넉넉하다.

득상이와 막산이도 이렇게 만난다. 이틀에 한 번 드는 번이 삼주보다도 오랜 듯하였고, 또 번들 때마다 반드시 만나지는 것도 아니었다. 혹시 내전에서 (막산은 내전에 있는 궁녀니깐) 먼 곳에 번을 들게 되어도 만나기 어렵고 또 혼자가 아니요, 이삼인이 같이 있게 되어도 만날 기회는 적었다. 그런데 오늘 저녁 같은 때는 비교적 좋은 기회다. 득상은 혼자서 조용한 곳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윽고 담 밖에서 자박자박하는 발자취가 들린다. 득상은 우뚝 선다.

“왔다! 왔다!”

하고 득상은 그 발자취 소리가 그리운 막산의 것인 줄을 안다.

득상은 가만히 뒷문을 나서서 담 그늘에서 몸이 호리호리한 여자의 팔목을 잡을 수가 있었다. 득상의 손바닥은 불같이 덥다.

“아무도 없소?”

하는 것은 어두운 속으로 앞 뒤를 바라보는 막산의 말이다.

“그럼 없지. 누가 있어? 마마님 행차에 어느 놈이 얼썩했다봐. 내님이 가만 두어?”

하고 득상은 막산이나 겨우 들을 말로 호통을 빼고는 씩 웃는다. 그러고는 자기도 안심이 아니 되어 서너 걸음씩이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어두움 속을 살피고 나서는,

“아무도 없어. 원 이렇게 어두운 데가 세상에 어디 있담. 요렇게 내 곁에 섰건만도 우리 마누라 얼굴이 다 보이지를 앓는걸. 어디 정말 우리 막산 아씨신가 어디 줌!”

하고 팔을 막산의 목에 걸어 잡아 끌며 자기 얼굴을 막산에게로 가까이 대며,

“하하 분명히야. 분명히 우리 정경 부인이신걸. 왜 우리 마누라는 정경 부인이 못되라는 법 있나?”

하고 그 무서운 용사가 마치 어리광하는 어린아이 모양으로 혼자 좋아라고 한다.

그래도 막산은 말이 없이 다만 색색 숨결만 빠르다.

“웬 일이야? 말이 없어? 왜 무슨 걱정이 있나?”

하고 득상은 파홍이 되는 듯이 막산의 목을 팔에서 내어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막산은 가슴을 두근거리다가 마침내 말을 내었다---.

“무엔지 큰일 났소. 오빠한테 어려운 청이 있어.”

“거 무슨 청이람. 말을 해 보아. 내 힘에 할 일이면야 동생 청 안 듣겠나.”

친구의 누이라 하여 동생이라 하고 오라보니의 친구라 하여 오빠라 부르는 것이다. 득상이 농담삼아 ‘마누라’ 라고 불려도 막산은 노여하지 아니한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고 깊어 내외나 다름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막산이가 구실을 물러나와 득상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그만이지마는 그들의 일이 그렇게 뜻대로 되기도 어렵다.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언제까지든지 어두운 구석에서 몰래 만나는 사랑의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 처하여진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반항적인 노력을 할 생각이 나지 아니한다. 그들은 마치 식물과 같이 누가 어느 곳에 갖다 심으면 일생 그 자리에서 늙는다. 이렇게 평탄의 운명의 물결에 순종하는 백성도 이따금 험한 물굽이를 만나 바위 뿌다구니에 부딪치어 피거품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득상과 막산도 지금 그러한 경우를 당한 것이다.

“꼭 내 청을 들어 주지?”

하고 막산은 애원하는 듯이 득상을 바라본다.

득상은 의심스러운 듯이 좌우를 돌아보며,

“누구 엇듣는 사람 없을까?”

“엇듣기는, 우리네 따위의 말을 밑을 들어서는 무엇을 얻어 먹겠다고.”

하고 득상은 웃는다.

막산은 오늘 낮에 왕이 경회루에 납시었을 때에 일어난 일---정인지가 들어오던 일, 좌우를 돌리라던 일, 내시 김 충이가 아니 물러나던 일, 자기가 수동이와 함께 기둥 뒤에 숨어서 엇듣던 일, 정 인지가 왕께 여쭙던 말, 왕께서 진노하시던 일, 우시던 일, 자기네도 올랐던 말. 그런 뒤에 왕후께서 막산이를 부르시와 여량부원군택에 기별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 그러고는 자기가 염려 없다고 장담한 말까지 여자다운 자세함으로 내려 말을 한 뒤에,

“그러니 내야 무슨 힘 있소? 그래서 오빠 말씀을 아뢰었지. 소인의 오라비의 절친한 친구에 김 아무라는 별시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고, 그 사람은 의리를 보고는 사생을 불구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께 말하면 오늘 밤으로 부원군께 기별이 갈 터이니 염려 놓읍소서고. 그랬더니 곧전마마 말씀이 그러면 부디 그 사람에게 잘 몰하라고, 그러면 후히 상을 주시마고 그러신단 말씀이야요. 내가 잘못했지 오빠를 위태한 일에 천거해서 안 되었지?”

하고 정말 미안한 표정을 하였다.

“아니, 무어? 그놈이, 그 정가 놈이 상감마마께 어찌고 어찌고? 이놈을 당장에 때려 죽여야.”

하고 득상은 은밀한 말인 것도 잊어버린 듯 소리를 냅다 지르며 철여의를 어두운 허공 중에 내어 두르고 금방 어디로 달려 가기나 할 듯한 기세를 보인다.

“아이 여보!”

하고 막산은 잠든 사람을 깨우는 모양으로 득상의 팔을 힘껏 잡아 흔들었다.

이때에 고루(鼓樓)에서 사경을 아뢰는 북 소리가 뚝뚝 울려 온다.

왕후의 친정인 여량부원군 송 현수 집에서는 이런 줄은 알 까닭도 없이 상하 내외가 고요히 잠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때에 별시위 득상이 대문을 두드리었다.

만일 왕께서 나라의 실권을 잡으시었을 양이면 국구되는 여량부원군 집이 이렇게 소조하지는 아니하련마는 모든 권세를 수양 대군에게 맡겨버리신 왕으로는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없어서 그 처가택 대문이 명색이 솟을 대문이지 줄행랑이라고는 대문 좌우에 단 한간씩 밖에 없었다.

내시 이귀(李貴), 김인평(金印平), 김충(金忠) 세 사람은 경회루에서 나오는 길로 각각 기회를 엿보아서 정 인지가 오늘 왕께 아뢴 불충, 무엄한 말을 금성대군(錦城大君), 한남군(漢南君), 영풍군(永豐君)께 전하고 또 지중추 조유례(趙由禮), 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에게도 김 충이가 평소에 친밀하던 까닭에 이 일을 알리고 일이 심히 급하니 곧 무슨 조치가 있기를 청하였다.

궁녀 하석(河石), 고염석(高廉石) 등도 곧 사람을 놓아 혜빈 양씨(惠嬪楊氏)에게 이 기별을 전하였다.

혜빈 양씨는 이 기별을 받는 대로 곧 왕의 외숙되는 예조판서(禮曹判書) 권자신(權自愼)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이러한 위태한 심부름을 한 이는 다 영민한, 충성된 여자들이었다. 혜빈의 심복으로 심부름을 한 이는 관노(官奴) 이오(李午)의 처 아가지(阿加知)다. 아가지는 왕이 어리신 적에 젖을 드린 연고로 줄곧 궁중에 있다가 수양 대군에게 혜빈이 쫓겨나는 통에 같이 쫓겨나와서 혜빈궁에 붙이어 살며 밤낮에 왕을 생각하고는 울고 혜빈과 함께 후원에 칠성단을 모으고 왕의 만세를 빌고 있다.

왕의 외조모 화산부원군 부인 최씨(花山府院君夫人崔氏)의 심복으로 이번 일에 심부름을 한 이는 아지(阿只)와 불덕(佛德)이라는 두 비자요, 왕의 장모 되는 여량부원군 부인의 심부름을 한 이는 내근내(乃斤乃)라는 아직 열 여덟 살 된 비자였다. 그리고 궁중과 외간에 연락하는 일을 많이 하기는 내은(內隱), 덕비(德非), 용안(龍眼) 등 무당이였다. 세종 대왕 시절에 내불당(內佛堂)을 폐한 뒤로는 궁중에 여승의 출입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무당이 출입하게 되었다. 혜빈도 무당을 믿는 이였었다. 혜빈이 궁중으로부터 쫓겨난 것이 무당들에게도 타격이 있으나, 그래도 궁녀들이 사는 곳에 무당은 언제나 필요하였고 비록 혜빈이 궁중에서 쫓겨나 아무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은, 덕비, 용안 같은 무당들은 오랫동안 혜빈의 비호를 받은 옛 정, 옛 은혜를 저바리지 아니하였다.

이 어려운 처지에서 왕을 구하여 내는 길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곧 수양 대군을 치어바리는 것이라 함은 누구나 생각할 바다. 금성 대군이나, 송 현수나, 권 자신이나 또는 혜빈이나 정 인지가 왕에게 선위하시기를 권하였다는 소식은 그리 놀라울 것도 없었다. 차라리 기다리는 일이 올 만한 때에 온 것처럼 심상하게 생각하였다. 그러할뿐더러 설사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군국 대권을 한 손에 잡은 수양 대군을 저항할 아무 준비도 없었다. 금성 대군, 한남군, 영풍군 세 분은 친형제연마는 아직은 서로 의심하는 처지다. 한남군, 영풍군 두 분은 다 혜빈의 아드님이요, 따라서 왕과는 숙질인 동시에 형제와 같이 자라났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생각하든지 왕의 여러 분 숙부 중에 왕께 대하여 가장 큰 동정을 가질 이는 이 두 분이다. 이 점으로 보아서 이 귀 등은 곧 이 두 분에게 정 인지가 왕께 선위하시기를 간하였던 말을 전한 것이다.

또 금성 대군으로 말하면 왕의 여러 숙부 중에 가장 대의 명분을 지키는 이일뿐더러 바로 석달 전인 지나간 삼월에 금성 대군궁에서 화의군(和義君), 최영손(崔永孫), 김옥겸(金玉謙) 등이 모이며 사연(射宴)을 베풀었다 하여 금성 대군이 수양 대군의 말로 고신(告身)을 당한 것으로 보더라도 수양 대군과는 서로 대적이요, 왕께는 충성과 동정을 가진 줄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외사가 일치하면서도 금성 대군과 한남군, 두 분과는 서로 의사가 통할 지경은 아니다. 비록 형제라도 대군과 군과는 지위가 다르고 그럴뿐더러 왕의 집형제들은 우리네 형제와 같이 친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로 저편이 수양 대군 편이나 아

닌가 하고 의심하는 처지다.

송 현수, 권 자신, 금성 대군, 한남군, 영풍군, 혜빈, 조 유례, 성 문치, 영양위 정 종--- 이러한 왕의 편이 될 만한 이들은 아무 연락 없이 모래 알알이 흩어진 힘이다. 이 흩어진 힘이 얼마나한 일을 할까.

송현수(宋玆壽), 권자신(權自愼) 두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 송 현수는 왕의 장인이나 수양 대군하고는 소시부터 친한 사이다. 그러기나 하길래 수양 대군이 그딸로 왕후를 삼은 것이다. 지금도 송 현수는 수양 대군에게 친근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하기 때문에 금성 대군이나 권 자신 편에서 보면 송 현수는 수양 대군을 없이 할 의논을 함께 할 사람은 아닌 듯 하였다. 또 사실상 송현수는 그렇게 야심이 있고 수완이 있는 사라이 못되고 또 살신성인(殺身成仁)할 만한 충의의 열정이나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득상(得祥)에게서 왕후의 전갈을 듣고도,

“으응?”

하고 쓴 입맛을 다시었을 뿐이다.

“대감, 이 일을 어찌하시려요? 글썄 이런 변도 있을까. 곧전마마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 아이, 가엾으시어라. 글썄, 대감 어찌하시려요? 그 정 인지가 하는 놈을 가만 두신단 말요?”

하고 부인이 발을 굴러도 현수는,

“여보, 하인을 듣겠소.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오?”

하고 시끄러운 듯이 팔을 내어두른다.

“어느 세상이면 누가 어찌할 텐가. 정 인지가 제가 아무리 세도를 하기로 우리를 어찌한단 말씀이요?”

하고 그래도 부인은 호기 있는 소리를 한다.

“누가 정 인지가 무섭다나?”

하는 현수의 말에 부인은,

“그럼 누가 무섭소?”

하고 약간 성을 내며,

“수양 대군인들 무서울 것이 무엇이요? 다른 사람들은 부원군이 되면 무서운 사람이 없다던데. 대감은 왜 그리 못나시었소? 그래, 그러면 중전(中殿)께서 저렇게 대감이 도와드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데도 수양 대군이 무서워서 가만히 계실 작정이요? 아버지 정리에 어떻게 그러신단 말씀이요?”

하고 현수를 몰아세웠다.

“그러니 어떻게 한담. 수양 대군이 내 말 들을 사람인가. 공연히 설불리 그런 소리 하다가는 봉변이나 했지 무슨 소용 있나. 다 운수지 운수야, 천운이 수양 대군께로 돌아가는 것을 어찌하나. 설마 목숨이야 어떠하겠소. 비 전하한테도 가만히 계시기만 하라고, 수양 대군 눈밖에 났다가는 그야말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멸문지환을 당한다고 말씀이나 하구려.”

하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 눈을 감는다.

부인은 애가 타서 공 튀듯 하였다.파님의 장래를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였다. 남편이 어찌면 저렇게 못났는고 하고 원망스러웠다.

“아이구, 이 일을 어찌하리. 대감이 아니하면 누가 이 일을 막아내리. 멸문지환? 그래 금상마마가 선위를 하시고 수양이 들어 앉으면 대감 덕은 멸문지환을 안 당할 줄 아시오? 그

때야말로 멸문지환을 당한다나.……대감같이 무골충이가 어디 있단 말ियो? 사내가 왜 한번 나서서 수양의 역모를 막아내지를 못하고 무서워! 무서워! 가, 다 무엇이요? 부원군이 되어도 세도 한 번 못 부려 보고 무서워, 무서워하다가 멸문지환만 당하게 되니 이런 기막힐 데가 어디 있소?”

하고 발을 뚱뚱 구른다.

“허허, 글썄 이게 무슨 요망이람. 이 밤중에 울기는 왜 울어? 멸문지환이란 소리는 왜 자꾸 외워? 방정맞게.”

이렇게 내의 싸움만 벌어지고 말았다. 송현수는 아무책동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한다.

송 현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부인도 어찌할 수 없을 줄을 알고 기운이 줄었다.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비자 내근내(乃斤乃)를 부려 돈과 쌀을 주어 소경 나갈두(羅袈豆)에게로 문복을 보내었다. 한 번 신명의 뜻이나 알아보고 나서 일이 될 듯하다면 그 점괘를 가지고 한 번 더 대감을 줄라 보자는 뜻이다.

“아직 밟지도 아니하였는덟시오?”

하고 내근내는 부인의 명령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밤은 아직 오경도 아니 친 때다.

내근내근 부원군 부인의 말을 들어 이 일이 지극히 크고 은밀한 일인 줄을 알고는 자기가 그러한 일에 관계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가마를 타고 뒷문으로 나아가 늙은 아버를 따라 사직골 나갈두의 집으로 간다.

나갈두는 당시 명복으로 모든 상류 가정의 부인들의 신임을 받아 문복하는 사람이 접중하는 판이었다.여량부원군 송 현수 부인도 나갈두의 단골 되는 귀부인 중의 하나다. 내근내근 어리어서부터 부인의 심부름으로 이 집에를 다니었다.

소경 나갈두는 깊이 든 잠을 깨어서 내근내를 불러들였다.

“어디서 오시어소?”

하고 소경은 의심스러운 듯이 내객에게 물었다.

“아니 저 부원군 댁에서 왔는데.”

하는 것은 소경의 아내다.

“오, 내근내야?”

하고 나갈두는 반가운 듯이 웃으며 소경이 흔히 하는 버릇으로 손을 내어 밀어 저편의 몸을 만지려 든다.

내근내는 나갈두의 손을 피하면서,

“부원군 부인 마님께서 보내시어서 급한 일로 왔으니 어서 소재나 하세요.”

하고 책망하는 듯한 어조다.

“무슨 문복하실 일이 있나?”

하고 소경은 약간 겸연쩍어한다.

“그저 젊은 여편네 소리만 나면 사족을 못쓰지. 아이 흥해라, 병신 고운 데 없다고.”

하고 마누라가 내근내를 향하여 눈을 실쭙하며 비가지를 굽는다. 나갈두의 아내는 좀 자색이 있고 천성이 음탕하여 소경 남편에게는 결코 충성된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본래 안평대군 궁 비자로서 안평 대군의 온 집안이 멸망하는 통에 어떻게 빠져서 나와서 돈 잘 번다는 장님 나갈두의 마누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귀한 가문에서 성장하였다 하여 마치 제가 귀한 사람이나 되는 듯이 남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교만을 부리었다. 이 음탕한 계집에게는 항상 한둘씩 간부가 있어 남편이 앞 못보는 것을 기회로 여기고 다만 몸만 훑치어 주는 것뿐 아니라 나갈두가 벌어들이는 전곡도 훑치어 내었다. 그래도 노래에 혹은

젊은 계집 앞에 나갈두는 정신이 없었다.

갈두는 소세하고 아내를 시켜 써서 매달았던 돛자리를 내어 깔게 하였다. 이 돛자리는 어느 대가에서 문복하려 올 때에만 내어 까는 것이다. 그리고 수양 대군 부인이 해주었다 자랑하는 화류 점상과 궁중에서 나왔다는(하사하신 것은 아니나 어찌어찌 굴러나온 것이다. 오동 향로 향합과 자주 명주 주머니에 넣은 거북.

상은 남향하여 놓고 소경은 상을 앞에 놓고 앉아서 거북을 두 손에 받들어 들었다 향로에서 향연이 피어 올라서 상 위에 양푼에 가득 담은, 내근내가 가지고 온 얼음 같은 백미와 그 앞에 은빛같이 닦아 놓은 돛종발 청수 그릇 위에 구름같이 안개같이, 어리어 신령을 청하여 내린다.

천지신명에 묻는 말씀은 이것이다.

지금 조정에 세도 잡은 간신이 있어서 신기(神器)를 엿보오니 장차 어디로서 어떠한 충신 열사가 일어나서 외로우신 왕과 왕후를 돕사오리까 함이다.

“은밀히 은밀히.”

라고 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비자에게 통하고 노방에서 매복하는 소경과, 그 소경의 마누라에게까지 통하는 것은 진실로 여자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따님이신 왕후를 생각하기에 골돌한 송 현수의 부인은 남편인 대감을 믿을 수 없게 된 때에 천지신명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갈두는 이 심상치 아니한 큰 점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할꼬 하고 거북을 두 손으로 움켜져 받들어서 피어오르는 향연 위에 이윽히 머물게 하였다. 향불 연기는 점점 더 많이 거북을 싸고 올랐다.

내근내는 거북을 향하여 경건하게 일어나서 네 번 절 하였다.

나갈두는 이윽히 거북을 공중에 흔들더니 문득 한 손으로 점상을 땅 하고 치며,

“사흘 안으로 거사를 하여야 한다. 사흘이 지나면 객성(客星)이 자미성(紫微星)을 범하는 패라, 궁중에 곡성이 진동하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리라 하는 것인데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국척(國戚)인들 무사할 리가 있다. 상감 외갓택인 화산 부원군 덕과 곤전마마 친정되는 여량부원군 덕에 큰 화가 미쳤다 하는 패요.”

하고 나갈두는 신명의 뜻을 전하는 어조를 끊고 보통 어조로,

“나라에 큰 일이 있는 때에는 신하가 점을 이니하는 법이야. 점해서 쓸 데가 없거든, 정말 임금께 충성이 있으면야 오는 일을 미리 알아 보아 무엇하나. 수인사(修人事) 대천명(待天命)으로 죽든지 살든지 할 일을랑 하고 보는 법이야. 일이 될까 아니 될까 점을 한다는 것이 말이되나. 어, 세상도 말세로군.”

하고는 입맛을 다시며 거북을 손으로 두어 번 쓸어 보고 자주 명주 주머니에 집어 넣는다.

금성대군(錦城大君)은 내시들의 내통으로 정 인지가 왕에게 한 말을 들어 알았다. 그러고는 주먹을 들어서 서안을 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집이 망하는구나!”

금성 대군은 독자가 이미 아시거니와 왕의 숙부요, 수양 대군의 친 아우님이다. 불행히 충의(忠義)와 강직(剛直)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 가슴 끊지 아니할 날이 없다. 왕께 충성을 다하려면 골육의 형을 원수로 삼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안평 대군이 돌아간 뒤로 종일 중에 그래도 수양 대군과 겨룰 사람은 비록 나이는 어리나 금성 대군 한 분 밖에 없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양 대군은 벌써부터 금성 대군을 미워하

여 가만히 사람을 놓아 그 행동을 살피어 안평 대군 모양으로 처치해 버릴 기회만 엿보았다. 요전에 금성 대군 궁에서 화의군(和義君)이며 누구누구와 사연(射宴)을 배풀었다 하여 처벌을 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늘 들은 말과 같은 말이 있을 줄을 금성 대군은 미리 짐작하였었다. 만일 진실로 이러한 일이 있다 하면 금성 대군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금성 대군은 신전에 아침도 아니 먹고 수양 대군 궁으로 달려 갔다. 금성 대군이 수양 대군 궁에 가기는 설에 세배 간 뒤로는 처음이다. 그래서 금성 대군이 단신으로 말을 타고 여를 해가 아직 뜨기 전에 달려 드는 것을 보고 수양 대군 궁 사람들은 놀랐다.

금성 대군은 형님인 수양 대군의 불들어 앉히고,

“형님, 어저께 정 인지란 놈이 상감께 선위하시기를 청하였다. 하니 이것이 정가 놈의 생각이요? 형님이 시키신 게요?”

하고 단도직입으로 질문을 발하였다.

수양 대군은 안색을 변하며,

“네가 미쳤느냐. 그게 웬 소리냐.”

하고 툭 잡아떼었다.

“그렇거든 오늘로 정가를 삭탈 관직하고 내어 베이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정가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형님이 시키신 것으로 알 것이요. 워낙 정가란 할 수 없는 소인(小人)이요, 간신이요. 그놈을 살려 두었다가는 형님까지도 누명을 쓰시리다. 어떡허실테요? 형님의 대답을 듣고야 가겠소이다.”

하고 금성 대군은 따지었다.

“상감 처분이지. 정인지가 대신이어든 낸들 어찌하나.”

하고 수양 대군은 어디까지든지 모르는 체한다.

금성 대군은 형님의 진의를 의심하는 듯하는 눈으로 수양 대군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형님이 그런 간신 놈들의 꾀에 넘어서 외람한 뜻을 두면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요. 금왕의 숙부로서 군국 대권을 다 잡으시었으니 무엇이 부족하단 말씀이요? 형님이 만일 잘못된 뜻을 품으시면 천하가 명고이공지할 것이요. 나부터도 형님의 목에 칼을 겨눌 것이외다.” 하였다. 금성 대군은 수양 대군이 잡아떼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이상 더 말해야 쓸 데 없을 줄 알고 다만,

“형님, 매양 주공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시오? 부디 주공이 되시오. 그리고 충의를 모르는 간신백랑 모두 물리 치어 버리시오.”

하고 물러 나왔다.

금성 대군이 다녀간 뒤에 수양 대군은 대단히 불쾌하였을뿐더러 또 놀래었다. 왜 불쾌한고 하면 안평 대군이 없어진 뒤로 누가 감히 자기의 비위를 거스르지 못하더니 나이로 말하면 십 사오년이나 어린 금성 대군이 얼러대는 품이 안평 대군 이상인 까닭이다. 패썹한 것을 보아서는 다장 한 마디로 호령하여 버리겠지마는 금성 대군의 말이 옳고 보니 옳은 말의 힘에는 수양 대군의 패기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다.

“히,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겠는걸!”

하고 수양 대군은 나가는 친 아우 금성 대군의 뒷모양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안평 대군을 죽이자고 정 인지, 권람, 한 명희의 무리가 진언할 때에는 골육의 정도 생각하고 세상의 물도 염려가 되었으나, 한 번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은 뒤인 오늘날에는 그것다 우스웠다. ‘제왕가(帝王家)에서는 그러한 일은 예사요’하고 권가, 한가들의 말이 과연 그

털 듯하게 돌리었다.

그것은 그렇다 하고라도 정 인지가 어저께 경회루에서 벽좌우하고 왕께 아뢰었다는 말이 이렇게 빨리 외간에 흠어진 것이 놀랍지 아니할 수 없다.

“원, 누가 말을 내었담.”

하고 수양 대군은 매우 초조한 빛을 보인다. 왕이 사람을 시키어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에게 정 인지의 말을 전하였는가. 그렇다 하면 그 심부름은 누가 하였을까. 이 일을 금성 대군 외에 또 누가 아는가. 수양 대군은 이 생각 저 생각에 매우 신기가 불평하여 조반도 자시는 듯 말 듯하였다.

부인 윤씨가 수양 대군이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나으리 무슨 근심이시오? 천운이 나으리께 돌아 왔거든 무슨 근심이시오? 대사를 하시는 양반이 소소한 걱정을 버리시오.”

이것은 수양 대군이 무슨 근심을 할 때마다 그 부인이 격려하는 말이다. 더구나 ‘천운이 나으리께 돌아 왔거든’ 하는 것은 입버릇 모양으로 반드시 하는 말이다. 부인의 이 말은 미상불 수양 대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수양 대군은 그렇게 굳굳한 사람이면서도 어느 한편 구석에는 내약한 데가 있었다. 때로 그는 냉혹하기 철석 같아도 때로는 또 더운 눈물을 흘리는 이였다. 윤씨 부인이며 정가, 한가, 권가 같은 이들이 돕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제왕의 사업을 할 생각은 아니하고 외로운 조카님을 도와 주공을 본받았을지도 모른다.

“벌써 누설이 되었구려.”

하고 수양 대군은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도 잠간은 놀란다.

수양 대군은 금성 대군이 와서 하던 말을 하였다.

“그거 누설되었기로 걱정하실 것 있소? 성사하면 더 말할 것 없거니와 만일 일이 틀어지면 정 정승이 한 말이니 정 정승께 밀으시오그려.”

하고 부인은 태연하다.

수양 대군은 부인의 바르지 못한 생각이 불쾌하여 입을 다물어버리었다.

식후에는 한남군과 영풍군이 와서 금성 대군 모양으로 정 인지를 엄벌하고 수양 대군은 어디까지든지 주공이 되어서 어리신 상감의 몸과 자리를 옹호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다음에는 또 송 현수가 와서 그와 같은 뜻으로 수양 대군에게 간청을 하였다. 송 현수는 부인의 조름을 못이기에 우선 수양 대군한테 한 번 말이나 하여 보자고 오기 싫은 길을 온 것이다.

수양 대군의 화는 상투 끝까지 올랐다. 은밀하게 한다는 노릇이 이렇게 그날 밤으로 누설이 되니 화가 아니 날 수 없다. 오늘 안으로 몇 놈의 모가지가 날아나고야 말 것을 수양 대군은 생각하였다. 그 눈에는 살기가 있다.

한남군, 영풍군도 수양 대군을 만나 보고 나서는 분개 하기는 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왕의 외숙 권 자신도 속수 무책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이 되어 가는 양을 볼 수 밖에 없었다.

나이 많고 부인의 지혜를 가진 혜빈도 선불리 이 사람 저 사람과 뜻을 통하다가 발각이 되면 한남군, 영풍군 두분 아울러 자기 삼 모자가 화를 면하지 못할뿐더러 왕께까지도 누가 미칠 것을 알았다.

오직 따님을 생각하고 여량부원군 부인이 밖에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궁중에서는 내시 김 충 등과 궁녀 막산 등이 발을 동동 굴러 애를 썼다. 그러나 경제가 엄중하고



염탐이 많아서 비록 뜻이 같다 하더라도 서로 의사를 통할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여편네들이 새에 나서서 입으로 말을 전하였으나 힘 있는 대감네들이 겁을 집어먹고 쉬쉬 하니 수양 대군을 반대하여 왕을 옹호하는 큰 운동을 일으킬 가망은 없었다.

이래서 온 하루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던 끝에 세워진 계획이란 것이 무당을 시키어서 수양 대군과 정 인지가 죽어버리도록 예방을 하는 것, 인왕산에 사람을 보내어 칠성과 산천에 왕과 왕후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것 등이요, 가장 유력한 계획이라 할 것이 지중추 조유례(知中樞趙由禮), 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변 장사를 사서 수양 대군과 정 인지 등을 습격하고 일변 격문을 돌리어 천하에 민심을 일으키자는 것인데 금성 대군을 머리에 떠받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다 준비도 되기 전에 김득상(金得祥)이 어제 밤 밖에 나갔던 것이 발각이 되고 경희루에서 정 인지가 왕께 선위를 청하는 말씀을 아뢰는 때에 먼 발채 모시고 있던 내시들과 궁녀들이 왕과 왕후의 목숨을 해하려 음모를 하였다는 혐의로 엄형 국문을 당하게 되었다. 김 득상은 대장부라 뼈가 부러지어도 실토할 리가 없지마는 젊은 궁녀 막산이가 매에 못이기어서 왕후의 명으로 김 득상에게 말 전한 이야기며, 늙은 상궁 하석, 고렴석의 명으로 궁녀 수동과 함께 기둥 뒤에 숨어 정 인지의 말을 엿들었던 말이며, 그 밖에 인왕산에서 기도하는 말, 수양 대군과 정 인지를 저주한다는 말까지 다일러 바치어버렸다. 다만 왕께서 시키더니 하여 시키시었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그것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또 조 유례, 성 문치 등이 하는 계획은 막산이가 몰랐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막산이가 실토하는 중에 든 사람들은 모조리 붙들려버렸다.

사건은 이만하고 말았을 것을 소경 나갈두(羅訖豆)의 처 변씨(邊氏)가 그 남편을 없애버릴 생각으로 그 정부요, 금부(禁府)에 나졸(邏卒) 다니는 홍갑룡(洪甲龍)에게 여량부원군 댁에서 이러이러한 일로 점치려 왔더라는 말을 고하여서 내근내(乃斤乃)가 붙들리게 되고, 왕의 유모 아가지(阿加之), 권자신의 비자 아지(阿只), 불덕(佛德), 무녀 내은(內隱), 덕비(德非), 용안(龍眼) 등이 인왕산 기도소에서 붙들리게 되었다.

조유례, 성문치(成文治) 등은 일이 탄로될 줄을 알고 조유례는 장사 김득성(金得誠)을 구종 모양으로 복색을 시키어 데리고 수양 대군을 찾아가고, 성문치는 장사 윤갯동(尹佺同)을 데리고 정 인지를 찾아 갔다. 이것은 기회를 엿보아 각각 하나씩 때려 죽이자는 꾀다.

수양 대군은 조 유례가 금성 대군 문객인 줄을 알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고 궁노를 시키어 그가 데리고 온 구종으로 차린 김 득성을 묶어서 죽도록 때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조 유례를 욕 보이며 금성 대군으로 하여금 분통이 터지게 하려는 뜻이다.

그러나 무예와 여력이 파인한 김 득성은 감추었던 철여의를 내어둘러 달려드는 수양 대군 궁노들을 수십명이나 두들겨 누이고,

“역적 수양 대군 나서라!”

소리를 치며 안으로 달려 들어 갔다.

김 득성이는 임금의 원수와 아우(김 득상)의 원수를 한꺼번에 갚으려는 듯이 성난 범 모양으로 철여의를 두르며 수양 대군 궁 안마당으로 뛰어 들어 간다. 만일 수양 대군이 득성의 눈에 번뜻 보이기만 하였던들 득성의 성난 철퇴에 가루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 대군은 벌써 뒷문으로 도망하고 부인과 두 아들과 만며느리 한씨(우의정 한 확의 딸)와 여러 비복이 크게 놀래어 좁은 구석을 찾았다.

그래도 부대 부인 윤씨가 태연히 대청에 나서서,

“이놈! 어떤 놈이완데 어디라고 무엄하게시리……이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단개에 때려

죽이지를 못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른다.

“어머님! 어머님!”

하고 열 아홉 살 되는 만아드님(이름은 숭(崇)---후에 왕세자 된 뒤에 이름은 장(璋)---이니, 후에 덕종대왕(德宗大王)--이라는 추숭을 받았다)은 황황하게 어머니 윤씨의 소매를 끌어 만류하고 일곱 살 되는 둘째 아드님(이름은 평보(平甫)--아버지 수양 대군이 왕이 되신 뒤에 이름은 황(晳)--세조 대왕의 뒤를 이어 예종대왕(睿宗大王)--이 되시었다.)은 어머니의 치마에 매어달리어 득성을 바라보며 울었다.

부인은 두 팔로 두 아들을 안으며,

“이놈 어디 한 걸음만 올라서 보아라 천벌이 내릴 터이니!”

하는 소리에 득성은 기운이 꺾이었다. 어차피 인제는 죽는 몸이니 닥치는 대로 수양 대군 식구를 때려 죽이리라 하였던니 부대 부인 위풍에 놀리어서 수양 대군을 찾는 모양으로 뒤꼍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젓먹이 (나중에 월산대군(月山大君))를 안은 수양 대군 만며느님 한씨를 만나 첼퇴를 들었으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그는 미처 뒷문을 다 나서서 못하여서 밖에 매복하고 섰던 수양 대군 궁 호위하는 삼십여 명 갑사(甲士) 한 떼의 포위를 받아 반이나 죽도록 얻어맞고 잔뜩 결박을 지웠다. 조 유례는 벌써 수족을 묶이어 문 밖에 넘어서어 있다가 득성이가 갑사들에게 끌리어 나오는 것을 보고,

“수양은 잡았지?”

하고 물었다.

득성은못잡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흔들며 보인다. 흔들 때에 이마며 두 귀 밑에서 흐르는 피가 빗방울 모양으로 좌우로 흘러진다.

“으으응! 역적을 놓치었구나!”

하고 으쩍 깨문 것이 조 유례 자기의 헛바닥이다. 수양 대군을 못 죽이었으니 자기는 죽는 몸이어나와 죽기 전에 국문을 받으면 혹시나 정신 없는 소리라도 금성 대군을 부를까 겁이 나서 차라리 말으 못하도록 혀를 끊어버린 것이다. 나이 오십이 넘어 빈발이 반백이나 된 조 유례, 그는 결코 국은을 많이 받아 영달한 사람은 아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내려 반백인 수염을 적시고도 땅바닥을 물들이는 피는 그의 임금께 대한 충성이다.

정인지가 왕께 선위를 청한 것보다는 조 유례가 수양 대군 궁에 야료한 것이 큰 변이다. 입으로 피를 흘리는 조 유례와 전신이 도시 피투성이가 된 김 득성은 반은 끌리고 반은 채워서 야주개와 황토마루를 지나 의금부(義禁府)로 왔다. 끌려 가는 그들의 다리는 두 마디 세 마디로 부러진 듯하여 바로 서지를 못하였다. 아이들이 구경 삼아 뒤를 따랐다.

금부에는 벌써 성문치(成文治)와 윤갯동(尹龔同)이 역시 반생 반사가 되어 분들려 와 있다가 조 유례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실망한 듯이 고개를 숙여버렸다. 성문치도 장사 윤갯동을 데리고 정 인지를 찾아 갔으나 정 인지 집 대문과 사랑에는 수십명 갑사가 웅위하고 있어 사람을 들이지를 아니하므로 성 문치는 윤 갯동을 데리고 병문 어귀에 숨어 있다가 정 인지가 평교자를 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달려 들었으나 정 인지는 얼른 뛰어 내려 길가집 행랑으로 뛰어 들어 가고 중과부적하여 붙들려온 것이다.

이튿날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 좌찬성 이사철(左贊成李思哲), 우찬성(右贊成) 이계린,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이 비청에 모여 이번 사건을 의논할제 영의정 수양 대군과 좌의정 정 인지는 일부러 의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직접 사건 관계자인

까닭인 것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어저께 당한 일이 자못 창피한 까닭이기도 하다. 뒷문으로 도망한수양 대군이나 길갓집 행랑에 숨은 정인지나 결코 남기기 부끄럽지 않지 아니하였다.

수양 대군과 정인지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여기 모인 자가 다 그들의 심복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직 한 확이 정 인지와 공명을 다투는 일은 있으나.

수양 대군과 정 인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왕과 왕후에게까지 돌리고 싶었으나 왕은 사실상 이번 일을 아시지도 못할뿐더러 아직 일반의 물론을 두려워하여 동지(同知) 중추(中樞)원사(院事) 조유례(趙由禮), 호군(護軍) 성문치(成文治)를 역적으로 몰고 그들이 한남군(漢南君) 어, 영풍군 선(永豐君璇) 등과 부동하여 금성대군(錦城大君) 유(瑜)를 왕위에 올리려고 한 것같이 꾸미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수양 대군과 정 인지가 옥을 당하였다는 소문은 번개같이 퍼져서 ‘고소하다’ ‘통쾌하다’는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만일 이제 조 유례, 성 문치를 대신할 습격한 죄로 다스린다 하면 세상의 동정은 도리어 조, 성 동에게로 돌아가고 수양 대군과 정인지는 불이익한 처지에 서게 된다. 그러나 조, 성을 역적으로 몰면(그렇게 백성의 눈을 속일 수가 있을까)몰지 못할 것도 없을뿐더러 자기네는 도리어 왕을 옹호하는 충성으로서 왕을 위하여 조, 성의 옥을 당한 것으로 볼수가 있을 것이니,이야말로 저편의 화살로 저편을 쏘는 격이다 하는 것이 권람, 한명회의 헌책이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럴 듯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리하여 조유례, 성 문치는 고만이야 왕을 해하려던 음모자로 몰리고 해빈 양씨, 금성 대군, 한남군, 영풍군등은 수양 대군한테 찾아 갔던 죄로 조, 성의 머리라 하여 삼남 각처로 귀양을 보내었다. 전혀 애매한 사람을 차마 죽이지는 못한 것이다.

윤궤동(尹龜同), 김득성(金得誠), 김득상(金得祥), 왕의 유모, 이오(李午)의 처 아가지(阿加之), 궁녀 하석(河石), 고염석(高廉石), 김수동(金壽同), 김막산(金漠山),내시 이귀(李貴), 김인평(金印平), 김충(金忠), 소경 나갈두(羅訖豆), 송현수(宋玟壽)의 비자 내근내(乃斤乃), 권자신(權自慎), 비자 아지(阿只), 불덕(佛德), 무당 내은(內隱), 덕비(德非), 용안(龍眼) 등은 다 사형을 받았다.

이번 통에 요행으로 벗어난 것은 송현수와 권자신이니 이것은부득이하여 면하여진 것이다. 왕이나 왕후가 수양 대군을 없이하기 위한 일이면 왕의 외숙과 장인이 참예도 하려니와 금성 대군의 무리가 왕을 없이하려고 하는 일에 그들이 관계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하나 알 수 없는 일은 이번 통에 영양위 정종(零陽尉鄭棕)을 유배(流配)한 일이다. 어느 편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는 이번 사건에 관계한 형적도 없고 또 관계할 리도 없건마는 청천벽력으로 순천부(順天府)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 정 종이 귀양길을 떠나기 전에 경혜공주(敬惠公主)는 오라버님이신 왕께 마지막으로 하직이나 사죄려 하였으나 국가의 죄인(?)으로는 그러한 특전을 허함이 될 리가 없었다. 그래서 한 어머니의 피를 나눈 단두 동기인 왕과 공주는 남북 천리에 이별하게 되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와은 윤패(幽閉)되나 다름이 없었다. 궐내에서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하시고 어느한 전각에 계시라는 강제를 받아 왕은 항상 사모하옵는 조부 세종 대왕께서 즐겨 거처하시던 자미당(紫薇堂)에 숨으시와 왕후와 마주 보시고 우시는 세월을 보내시게 되었다---그러한 세월도 며칠이 없었다.

금성 대군은 순흥부(順興府)에, 영양위는 순천부(順天府)에……이 모양으로 왕의 편이 될 만한 이들은 다 먼곳으로 치어버림이 되었다. 왕의 곁에 모시던 낮 익은 내시와 궁녀들조차 다 비평에 죽어버리니 궁중은 왕과 왕후에게는 지옥보다도 더욱 적막하였다.

“상감마마, 모두 소인이 경술하와……”

하고 왕후 송씨는 당신이 이번 일을 저지르신 것을 왕의 앞에 후회하고 운다.

“이만만 하고 말겠소? 이보다 더한 일이 올 터이지.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되겠소.마음을 철석같이 가지고도 견디어내이기가 어려울걸. 그렇지마는 불서(佛書)에도 인생은 헛된 것이라 하였고, 또 속담에도 우리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 하였으니 꿈이 오래면 얼마나 오래요? 그저 가위 눌린 줄 알고 지납시다그려.”

왕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마치 인생의 쓴 맛 단맛을 다 보고난 노성한 사람 모양으로.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태연한 생각으로 계실 수는 없었다. 원래 인자하신 성품에 왕후가 슬퍼하시는 것을 보실 때에는 웃는 얼굴을 지으시고 불경 생각도 하시어 태연하신 태도로 위로 하는 말씀도 하시지마는 그것도 한때지, 혼자 촛불을 대하실 때나 어원(御苑)에 새 소리를 들으실 때에도 눈물이 앞을 가리움을 금하실 수가 없었다. 조부님 생각, 아버님 생각, 용모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불쌍하신 어머니 생각, 남편따라 죄없이 먼 시골에 귀양간 누님 생각, 애매한 원혼이 된 근시하던 내시와 궁녀들 생각, 믿던 숙부 수양 대군 생각, 막막한 앞길, 가엾은 왕후의 신세, 모두 불길한 생각, 피눈물을 자아내는 생각뿐이다. 밤에 주무시다가도 경희루에서 정 인지를 꾸짖으시던 꿈을 꾸시고는,

“이놈! 늙은 놈이! 그것이 임금 섬기는 도리냐.”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목으 ㄹ놓아 우시었다.

“상감, 꿈이시오, 꿈이시오.”

하시고 왕의 옥체를 흔들어 깨우시는 왕후도 울음을 참으시노라고 입술을 물으시었다.

“내가칼을 빼어서 인지놈을 치려는 서슬에 나를 깨우시었구려.”

하시고 왕은 아까운 듯이 입맛을 다시었다.

잠을 깨어서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노라면 죽어버린 늙은 김충, 김 인평, 이귀 같은 내시들이며 수동, 막산 같은 젊은 궁녀들의 모양이 방안에 어른거리는 듯하여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으신다. 그러다가는 수양 대군과 정인지가 횃불을 돌리고 칼 빼어 든 군사를 데리고 두분이 주무시는 침전으로 들어와 두분의 목에 칼을 겨누는 모양도 보인다.

왕은 이러한 불쾌한 환상(幻像)을 떼어버리려고 베개 위에서 머리를 흔드시고, 혹은 잠드신 왕후를 흔들어,

“마마 마마, 자오!”

하고 깨우시기도 한다.

그러한 때에는 두 분 사이에 무서운 생각이 나지 아니 할 만한 말씀, 어리신 때에 지내시던 일, 혼인하신 후에 생긴일 중에도 유쾌하던 일을 골라서 말씀하시나 어느 덧 차고 무서운 현실 문제에 이야기 끝이 돌아와서는 눈물과 한숨으로, 그리고는 서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는 피차에 저편이 먼저 잠드시기를 기다리시었다.

한 번 왕께서 어떤 산 밑, 강가에 정결한 초당을 지으시고 농가 생활을 하신다는 꿈을 꾸시다가 깨어서 왕후를 깨워 그 꿈 말씀을 하시고는,

“그런데 꿈에 그 집에 마마는 아니 왔거든. 그 어째 아니 왔을까. 내가 있는데 마마가 아니 올 리가 있소?”

하고 웃으신다.

“새로 집을 짓는 꿈을 꾸면 흉하다는데.”

하고 왕후는 민간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였으나 그런 말을 아뢰지 아니하고,

“김씨는 꿈에도 상감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하시고 잠깐 질투하시는 생각을 발하였다. 김씨라 함은 왕후와 동시에 권완(權完)의 딸과 함께 후궁으로 들어온 이니 김사우(金師禹)의 딸이다. 왕은 김씨를 특히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김씨는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웠던 까닭이다.

“마마, 내가 왕위를 버리고 일개 농부가 된다면 마마는 어찌하려오?”

하고 왕은 더욱 잠이 달아나시는 모양으로 왕후께 농담 삼아 말씀하신다.

“상감께서 농부가 되옵시면 소인은 지어미가 되지 아니하오리까……그런데 왜 그러한 흥한 말씀을 하옵시는지.”

왕후는 심히 염려되시는 모양이다.

“농부 된다는 것이 흥한 말일까. 나는 왕가에 태어나지 말고 농부의 집에 태어났으면 하오. 농부들 속에는 수양 숙부와 같이 무정하고 정 인지 모양으로 고약한 사람이 있을라고. 산에고 들에고 마음대로 다니고 백반종탕이라도 마음 편히 끓여 먹고 앉았는데 도리어 살찔 것 같단 말이요.”

왕의 말 끝은 흐린다.

“그야 상감께서는 인자하시와 백성을 생각하시기에 그러하시거니와……어찌하여 그런 슬픈 말씀만 하옵시는지.”

하시고 왕후는 지극히 슬퍼하시는 모양으로 몸을 상감 무릎 위에 엎드리신다.

왕은 손을 들어 왕후의 등을 만지시며,

“농담이요. 부러 하는 말이요.”

하고 위로하시나 왕후의 등을 만지시는 손은 떨린다.

왕은 일래에 심히 수척하시었다. 밤에 잠을 잘못 주무시고 수라도 원체 많이 잡수시는 편은 아니시지마는 요새 며칠 동안에 술으 르드시는 듯 마는 듯하시었다. 그래야 왕후 밖에는 왕이 이러하심을 근심하여 드리는 이조차 없다.

내시나 나인이나 모두 권람, 한 명희가 고르고 골라서 드린 것들이니 왕이나 왕후를 편안하시게 모신다는 것보다는 두 분의 동정을 염탐하고(설마 그렇기야 하라마는)도리어 일부러 두 분의 심사를 불편하시게 하는 듯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니 간다 하여도 지밀(至密)에 있는 이로는 두 분께 대하여 정성을 가지는 이— 극히 적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리 빛을 드러내는 것은 생명이 위태한 일이었다.

이렇게 불쾌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괴로운 세월을 보내시는 왕에게는 날마다 정 인지, 신 숙주(申叔舟), 이계전(李季甸), 권람(權攄), 이사철(李思哲)의 무리가 번갈아 들어와서, 혹은 달래고, 혹은 타이르고, 혹은 가장 충신인 체하고 울며 간하고, 혹은 위협하여 수양 대군에게 선위하시는 길 밖에 없는 것을 귀찮게 아뢰인다

“또 그 말이야?”

하고 왕은 마침내 화를 내시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저 무리는 예정한 계획이라 화를 내시거나, 말거나 진노하시거나 말거나 그것을 교계할 바가 아니다. 돈 왕을 귀찮으시게 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시게만 하면 그만인 듯하였다.

왕으로 하여금 선위하시게 한 공을 어떤 사람 하나에게만 돌리는 것이 못할 일이니 나도 나도 mr 공에 한몫 끼이자 하는 것이 이 충신들의 심리다. 이대로 오래 감내 칼을 품고 달려 들어 왕의 목을 베어두고 수양 대군앞에 공 자랑을 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남보다 뛰어난 공을 세우려다가 자칫하여 모가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바로 전 사람이 왕께 여쭙 말씀정도보다 한 걸음만큼 더 나가게 하는 것이 약은 것이었다. 그래서 감보다는 울이 더 들으시기 어려운 말씀을 왕의 앞에 아뢰면 병은 울보다 한

층 더 심하게 하고 다시 갑은 병보다 더 심하게 하여 이렇게 끝없이 들락날락 점점 더 무엄하게 되었다.

왕께서는 처음에는 패썹하게도 무섭게도 생각하시었으나, 나중에는 그 무리가 모두 파리 떼와 같고 모기 떼와도 같아서 귀찮고 성가시기만 하시었다.

저놈들도 사람인가. 인형은 썼지마는 모두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다. 모두 더럽고 염치 없고 음흉하고 간교하고 은혜 모르고 야멸치고……평소에 그렇게 번드름하게 공자, 맹자 다 된 듯이, 이윤(伊尹), 주공(周公) 다 된 듯이 글던 놈들이 일조에---일조에---일조에 똥물은 개가 다 된 것을 생각하시면 도리어 우스꽝스럽고 통쾌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큼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도 하시었다.

아무리 여러 신하들이 성가시게 선위하시기를 아뢰어도 왕께서는 한결같이 물리치시었다.

그러나 하루는 정 인지가 왕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것은 왕께서 만일 자진하여 선위하시지 아니하시면 ‘국가를 위하여’ 강제로라도 선위하시도록 할 터이니 생각하시라는 것이다. 이때에 정 인지는 몸소 들어오지 아니하고 신 숙주를 시키어서 말씀하게 하였다. 정 인지가 몸소 예궐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시킨 것은 실로 무례하였으나 그는 병탈을 하였고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제는 왕께서 그런 것을 책하실 힘이 없으시었다.

신숙주(申叔舟)는 정 인지의 뜻을 아뢰고 나서는 자기 뜻으로 선위하심이 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장 온편한 계책임을 아뢰었다. 다년 외교관으로 났은 변설로 신 숙주는 어리신 왕의 뜻을 움직임이 컸다. 그의 말은 마치 충성된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부득이한 처분을 청하는 은근한 태도를 가지었다. 은근한 태도만 하여도 왕께는 한없이 고마웠다. 그동안 왕께 진언(進言)한 대관들은 군신의 분의를 지키는 것은 처음뿐이요, 왕께서 자기네 말을 거절하실 때에는 가장 무엄한 태도와 말로 지존을 위협하였다. 인정 반복이 어찌하면 이대도록 심하랴 하고 왕은 우시었다. 그런데 신 숙주는 그래도 눈에 거슬리는 모야,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아니하였다.

“저놈인들 내게 무슨 충성이 있으랴.”

하시면서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가리지 아니하는 모양으로 은근한 태도만이 고마웠다.

이때에는 왕은 신 숙주의 아뢰는 말씀에 화도 아니 내시고 가만히 듣기만 하시었다. 신 숙주도 왕께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근심에 잠기신 것을 뵈을 때에 가슴에 측은한 생각이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숙주의 청량한 기억 속에는 왕께서 왕손으로 계실 때에 세종께서 품에 안으시고 집현전으로 오시와 자기와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등을 바라보시고,

“이 어린 것을 부탁한다.”

하시던 것이며 또 문종 대왕께서(문종 대왕은 신 숙주의 무리와는 군신지의가 있을 뿐 아니라 죽마고우라 할 만한 친구였다. 문종이 동궁으로 계실 때에 얼마나 신 숙주의 무리를 애경하시었다. 공부를 같이 하시고 사업을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었던가)승하하시기 얼마 전에 그때 동궁이신 왕의 등을 만지며 눈물겨운 말씀으로,

“부탁한다.”

하시던 것이 역력히 생각난다. 그날 밤에 술이 대취하여 입직청에서 잘 때에 문종 대왕은 손수 어의로 숙주의 무리를 덮어 주시지 아니하였던가. 이것이 얼마나한 은혜며, 얼마나한 우정인고. 그때에 숙주는 잠이 깨어 눈물을 흘리며,

“이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안 버리고 어이하리.”

하고 성 삼문과 함께 맹세하지 아니하였던가. 그것이 겨우 삼년 전 일이다. 그런데 신 숙주는 수양 대군의 수족이 되어 선왕에게 고명받아 도와야 할 왕을 보좌에서 떠밀어 내는 것으

로 갇으려 한다.

“나도 뜻을 정하였으니 다시는 성가시게 굴지 말라고 수상(首相)과 좌상(左相)에게 말하오.”

하시고 신 숙주를 내어 보내시었다.

신 숙주가 나간 뒤에 왕은 목을 놓아 통곡하시었다. 자미당 첩문을 나서다가 신 숙주는 왕의 곡성을 듣고 추연히 배회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세가 이미 어리된 바에 부질 없이 왕께 동정하는 양을 보이다가 장래에 화를 사는 것이 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걸음을 옮기어 무서운 데서 달아나는 사람과 같았다. 이날 이때의 말할 수 없이 슬픈 인상은 일생 신 숙주의 가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임종(그는 오래 살지도 못하였다)에 가장 괴로움 받은 것이 이때 생각이었다.

왕후는 불시의 곡성에 놀라시었다. 이날에 두 분은 마주보고 마음놓고 우시었다. 자미당에서는 느껴우시는 소리가 온종일을 두고 때때로 울려 나왔다. 비록 무심한 내시들과 궁녀들도 비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날에 왕은 마침내 큰 결심을 하시었다---

하룻밤을 울음으로 지내신 왕이 잠을 이루시기는 짧은 여름 밤이 다 지나고 흰하게 먼동이 뜰 때였다. 왕은 옷도 끄르지 아니하시고 안식에 비스듬히 기대신 체 그만 잠이 들어버리신 것이다. 왕께서 잠 드시는 것을 보고야 왕후께서도 눈을 붙이시려 하였다.

그러나 왕후는 마침내 잠이 드시지를 못하시었다. 그것은 왕께서 슬퍼하심의 심한 것이 염려될뿐더러 또 왕께서 어떠한 결심을 하시었는지 조금도 발설치 아니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 어떠한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으시기도 어렵고다만 한 마디 한 마디 눈치만 떠보려 하나 왕께서는 털끝만치도 왕후에게까지도 뜻을 보이심이 없으시었다. 그것이 왕후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다만 왕후에게 한 가지 대견한 것은 이러한 큰 슬픔이 생긴 뒤로부터 왕이 왕후께 대한 애정이 눈에 뜨이게 깊어짐이다. 어리어서 혼인하신 까닭도 있지만 왕과 왕후는 그리 정다우신 내외분은 아니시었다. 왕후가 다소 샘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후궁 김씨에게 대한 애정이 더 많으시었다. 그러하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눈물겹도록 왕후를 측은히 여기시었다.

심상 왕에게 이때에 애정이니 무엇이니 할 여유가 없으시었지마는 이러한 인생의 어려운 일, 아픈 일을 당하시매 본래 인정을 통찰하는 밝은 마음을 가지신 왕은 임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위를 뛰어나서 별거벗은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경계를 터득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정 인지 같은 사람까지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는 양반이시기 때문에 왕은 남보다 갑절 인생의 슬픔을 맛보시는 것이다.

왕은 인정이 많으심으로나 인생을 속 깊이 통찰하심으로나 시인(詩人)이시었다. 그러나 시인만 되시었던들 다행일 것을 시인의 상상력으로 지어내기 어려운 큰 비극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되시었다. 그래서 왕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생의 슬픔을 감수할 여가가 없이 당신 스스로의 아픔과 쓰림을 감수하시게 되었다. 그 어리고 연연하고 인자하고 깨끗하고 죄없는 몸이---마음이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수난(受難)을 하심은 너무 애연한 일이다.

윤 유월 초 십일. 가름은 아직도 끝날 바를 몰라서 대궐 마당에 풀 입사귀도 노릇노릇 시들 지경이다. 대궐 추녀 끝에 지저귀는 참새들도 더위를 못이기어 입을 벌리고 할딱거리고 먹을 것을 찾으려 나갔던 왜가리, 따오기도 헛걸음을 하고 어원 수풀로 돌아갔다. 더구나 날개도 흔들지 아니하고 마치 날개를 잊어버린 듯이 휘 공중에 떠도는 소리개의 백년 풍상

에 다 떨어진 거무데데한 날갯죽지가 숨이 막히는 더위를 내어뿜은 듯하다. 경희루 연당에 비추이는 흰 구름 조각, 그 그림자에 흔들리는 가는 물결 그것조차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듯하거든 몇 천년에 두 번도 있기 어려운 큰 슬픔은 --- 왕의 가슴이야 오죽이나 답답하지었으랴. 돌아보는 이 하나도 없는---참으로 하나도 없는 외로운 처지---잡아먹으려는 흉물에게 에워싸인 처지---그것은 백날 가무는 여름날보다도 더욱 숨막히는 일이다.

그러한 윤 유월 초 십일 오정이 지나서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이 왕께 알현하였다. 사흘만에 뵈옵거니와 왕은 몰라보게 수척하시어 진실로 차마 뵈기 어려웠다. 왕과 연배가 같은 자녀들을 둔 한 확은 왕의 이렇게 초췌하신 양을 뵈옵고 측은한 정이 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용안이 초췌하옵시니 옥체 미련하옵시니까.”

하고 한 확은 진정으로 왕을 동정하였다. 실상 이번 선위 문제에 대하여 공이 정 인지에게 돌아가 장차 세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 확은 그윽히 불쾌하게 여기었다. 될 수만 있으면 이번 정 인지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선위 문제를 방해하여 정의 세력을 때려 누인 뒤에 서서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왜 그런고 하면 한 확은 성격으로 보든지, 수양 대군과 인척 관계로 보든지 그보다도 그 딸을 명 나라 황제의 후궁에 넣어 광록사(光祿寺) 소경(少卿)이라는 명 나라 벼슬을 가진 것(이것은 당시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으로 보든지 한 확은 정 인지의 하품에 서기를 달게 여기지 아니한다.

“몸보다 마음이 아프오. 마는 나 같은 사람이 아프거나 쓰리거나 경 같은 사람에게 무슨 상관 있소?”

하고 왕은 전에 없이 한 확의 말을 빈정거리었다.

“황송하오.”

하고 한 확은 허리를 굽힌다.

“우상은 명 나라에도 다녔고 명 나라 벼슬도 하였으니 알 만하오마는 그 나라에서는 대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소?”

하고 왕은 이상한 말씀을 물으신다.

“하문합시는 뜻을 소신이 알지 못하오나 황조(皇朝)기로 신하의 도리에야 국조(國朝)나 다름이 있사오리까.”

“같은 말요?”

“예, 같은가 하옵니다.”

하는 한 확은 어떻게 아될 바,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당황하였다.

“그러면 명 나라에서도 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번갈아 돌며 나며 임금더러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기로 일을 삼소?”

하시고 낭랑하게 웃으신다.

“소신이 지존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사온지?”

하고 한 확은 울고 싶도록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에게는 그만큼 내약한 구석도 있었거니와 또 왕이 이상하게 태연하신 태도로, 마치 노성한 사람 모양으로 풍자를 하시는 것이 모두 심상치 아니하여 그 태연하신 위엄하고 열일곱 살답지 아니하신 지혜에 놀린 것이다.

“우상이 무슨 죄가 있겠소? 세울 공을 못 세웠으니까 오늘 그 공을 세우려 왔나 보오.”

“소신이 세울 공이 무엇이든지, 만일 소신더러 하라시는 일이 있다 하면 소신이 분골쇄신을 하옵기로 견마지역을 다하려 하옵거니와 어리석은 소신이 무슨 일을 하올 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왕은 한 확의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듯이 눈을 들어 이글이글 불길이 일어난 듯한 뜰에 까치와 참새가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시다가 한 확에게로 얼굴도 돌리지 아니하시고,

“흥, 내게 견마지역을 하여서 공될 것이 있소? 좌의정 본을 받아서 새 임금 밑으로 돌아가야지…….”

이때에 마당에 앉아서 무엇을 주워먹던 참새 두 마리가 물고 차고 오르락내리락 서로 싸우는 것을 보시고,

“어, 조놈들이 왜 싸울까. 넓은 천지에 조그만 몸둥이가 무엇이 부족해서 서로 싸울까. 요놈, 고안놈들로고.”

하시고 궁녀를 시키어 싸우는 참새를 날려버리라고 분부하신다.

한 확도 고개를 들어 뜰을 바라보았다. 궁녀의 ‘후어! 후어!’하는 소리에 싸우던 참새들은 싸움도 원수도 다 잊어버리고 날아서 지붕을 넘어버린다.

“새 임금이라 하옵시니 어떤 말씀이시옵는지?”

하고 한 확이 왕께 여쭙는다.

왕은 참새들이 날아가는 양, 붉은 잠자리가 오고 가는 양, 하늘의 구름, 모두 무상을 아뢰는 듯한 자연을 바라보시매 인생 만사가 다 귀찮은 것만 같이 생각이 되어 아까보다도 더욱 냉정하신 어조로,

“우상, 내가 만기(萬機)를 수양 숙부에게 맡기려오. 놓은 일이 있소. 정인지가 나를 내어 쫓은 공을 혼자 차지할 터이니 경이 가서 내 다짐을 받고 왔노라고 하오.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오?”

하시고 또 하하 웃으신다.

한 확은 엄연히 위엄을 갖추어,

“상감께 아뢰오. 아까 정 인지가 새 임금 밑으로 돌아갔다 하옵시고 이제 또 만기를 수양 대군에게 맡기신다 하옵시니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옵신지? 수양 대군은 이미 군국 대사를 다 맡았사온즉 다시 더 맡기옵실 것은 무엇이오리까. 수양 대군이 매양 주공되기로 자처하오니 혈마 이지를 품을 리 없사온즉, 모르옵거니와 좌의정 정 인지가 무슨 무엄한 말씀을 아뢰는 것이나 아니온지 도무지 소신은 어찌 아뢴 바를 알지 못하옵니다. 설사 조정에 탄 뜻을 품는 자가 있다 하오면 목을 베어 천하에 보이심이 지당하옵거든 만기를 맡기옵신다 하옵심은 어떠한 성의(聖意) 이옵는지?”

하고 한 확은 음성에는 충분(忠憤)이 떨리는 듯하다.

이튿날 왕은 정식으로 내시 전균(田鈞)을 우의정(右議政) 한확(韓確)에게 보내어, 이라는 뜻을 전하였다.

한 확은 어제 아뢰는 대로 그러시지 마시기를 전 균을 통하여 계청하였다.

그러나 왕의 뜻은 굳었다---

“내 전일부터 이 뜻을 가지었노라. 계교 이미 정하였으니 가히 고치지 못할지라. 속히 모든 절차를 차비할지어다.”

하시느 교지를 다시 내리시었다.

이날은 단종 대왕 삼년 을해(乙亥) 윤 유월 심 일일 이다.

이왕 선위를 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면 정 인지 배에게 위협을 당하여 창피한 꼴을 당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정정 당당하게 내 편에서 내어던지리라 한 것이 왕의 생각이었다. 이 생각

을 내시는라고 왕은 지난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몇 번을 우시었다. 우의정 한 확에게 선위하신다는 전교를 내리신 뒤에는 부랴사랴 간략한 노부(盧簿)로 종묘에 하직까지 하시었다.

신시(申時)!

정원(政院), 정부(政府), 육조(六曹)할 것 없이 대신으로부터 아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난리를 당한 모야으로 끓었다.

신시!

백관은 경회루(慶會樓) 아래로 모였다. 아무도 가슴만 두근거릴 뿐이요, 입도 병긋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큰일이 생기지 아니하느냐, 발가락만 달싹하여도 무슨 큰 변이 날 것만 같았다.

부슬부슬 안개비가 온다. 음산한 바람이 이따금 연당에 마르나 남은 물에 가는 물결을 일으킨다.

승지(承旨) 성삼문(成三問)은 명을 받아가지고 내시 전균(田鈞)을 데리고 대보(大寶)를 가지러 상서원(尙瑞院)으로 달려간다.

삼문이 대보를 내시 전 균에게 돌리고 경회루로 돌아 올 때에 사정전(思政殿) 뒷문 밖에서 도총부(都摠府) 관노(官奴)를 만났다. 관노는 삼문에게 절하고 종이 조각 하나를 전한다. 도총부(都摠府) 도총관(都摠管)으로 입직(入直)한 삼문의 부친 성승(成勝)의 필적이다. 다른 말 아무 것도 없고,

“참인가.”

하는 두 자뿐이었다. 무론 오늘 왕께서 선위하신다 하니 참이나 하는 뜻이다.

경회루 밑 박석 위에 아무 것도 깔지도 아니하고 남향으로 옥좌를 설치하고 앞에는 정원(政院), 정부(政府), 육조(六曹), 집현전(集賢殿),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중요한 대관들이 모였다. 그들 중에도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분명히 아는 이는 몇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왕께서 급히 부르신다고만 들었을 뿐이다. 무론 무슨 일인지 속으로는 다 알았다. 것처럼 창졸간에 이 일이 생겼다.

나중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좌의정(左議政) 정인지(鄭麟趾)를 데리고 위풍이 늠름하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 왔다. 수양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관들은 모두 약간 허리를 굽히어 경의를 표하였다. 모두 마음이 그를 무서워하는 생각이 났다. 수양 대군은 일동을 휘둘러보고 옥좌에서 땃 걸음 앞에 읊하고 섰다.

이렇게 기다리기 한참. 음산한 바람만 이슬비를 돌아 연당 위로 오락가락한다.

이윽고 왕이 사정전 뒷문을 남시와 초철히옵신 용안이 경회루를 향하시고 옥보를 옮기시었다. 상감으로는 마지막 걸음을 걸으시는 것이다.

왕은 익선관(翼蟬冠), 곤룡포(袞龍袍)를 갖추시었다. 감개무량하신 모양으로 경회루와 연당과 인왕산을 한 번 돌아보신 뒤에 약간 걸음을 빠르게 하시어 권설한 옥좌에 좌정하신다. 수양 대군, 정 인지, 한확을 비롯하여 대소 관리가 다 이마가 땅에 닿으리만큼 허리를 굽힌다.

승지(承旨) 성삼문(成三問)은 대보를 안고 옥좌에서 두어 걸음 오른편에 시립하였다.

이날에 문관만을 부르고 무관을 부르지 아니한 것은 수양 대군의 의사다. 무신의 곧고 굳센 성정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떤 변을 일으킬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도총관 성승(成勝)이나, 훈련도감(訓練都監) 유응부(兪應孚)나, 용양위 대호군 송석동 같은 이는 수양 대군이 이날에 꺼리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요, 금영대장(禁營大將) 봉석주(奉石柱)도 반드시 수양

대군의 심복이라고 할 수 없었다.

권람(權攄)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한명회(韓明澮)는 어느덧 병조판서(兵曹判書)로 모두 불차(不次)로 엮등하여 의기양양하게 수양 대군 텅 서 있다.

우찬선 강맹경(右贊成姜孟卿)은 계유 사변에 도승지(都承旨)로서 수양 대군에게 황보인(皇甫仁), 김종서(金宗瑞)의 계획을 일러 바친 사람ियो, 그 밖에 옥좌앞에 늘어선 대소 관인들은 다 수양 대군이나 정 인지와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신숙주(申叔舟)가 온 것은 물론이요, 승지(承旨), 사관(史官)이 시립하고 박팽년(朴彭年)도 집현전(集賢殿)에 입직하였다가 불리웠다.

박 팽년은 성 삼문, 하위지(河緯地)등과 아울러 수양 대군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왕은 태연하려 하시나 그래도 흥분한 빛을 감추지 못하여 손을 가만 두지 못하시었다. 사람들은 무슨 처분이 내리는가 하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왕은 일어나신다. 그 아름다우신 얼굴가 빛나는 눈!

“영의정!”

하고 낭랑한 음성으로 부르시니 수양 대군은 서너 걸음을 추보(趨步)로 옥좌 앞으로 나와 부복한다.

“오늘 대임(大任)을 숙부께 맡기오.”

하시고 예방 승지 성 삼문을 향하여 국새(國璽)를 올리라는 뜻을 보이신다.

성 삼문은 두 팔로 받들었던 옥새를 힘껏 부둥켜 안고 그만 실성 통곡한다.

수양 대군은 부복하여 있다가 머리를 들어 성 삼문을 흘겨본다.

삼문은 두 눈에 눈물을 거들 수도 없이 왕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슬행(膝行)하여 국새를 받들어 왕께 드린다.

왕은 삼문에게서 국새를 받으시와 수양 대군에게 전하신다.

시립한 사람들 중에서는 느껴우는 소리가 들린다. 한 확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비록 밖에서는 왕의 선위를 주장하던 무리라도 손에 옥새를 들고 서 계신 왕을 우러러뵈옵고 그 심사를 미루어 볼 때에는 눈물이 아니 흐를 수가 없었다.

수양 대군은 이마를 조아려 세 번 사양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일어나 옥좌 앞에 꿇어앉아 왕의 손에서 국새를 받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부복하였다. 수양 대군도 마음이 설레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었으나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였다. 손에 오랫동안 바라고 바라던 옥새가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꿈이 아니라야 한다.

왕은 명하여 수양 대군을 부축하여 나가게 하라 하시고 당신도 모든 시름,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은 듯이, 그러나 열빠진 사람 모양으로 옥좌에서 일어나시어 왕이 위기도 다 끝났다 하는 듯이 걸어 나가신다.

박 팽년은 억새강여 안색이 죽은 사람 같더니 와이---인제는 왕이 아니시다---듭신뒤에 경희루 연못에 빠져 죽으려 하였다. 그러다가 성 삼문에게 붙들린 바 되었다.

“이 사람, 참으소. 비록 신기(神器)는 옮기었다 하더라도 상감께서는 아직 상왕(上王)으로 계옵시니 우리네는 아직 죽지 말고 할 일이 있지 아니한가. 그리다가 성사가 아니되면 그때에 죽더라도 늦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이 사람아 참으소.”

하고 손을 마주잡고 통곡하였다.

남산과 낙산에 무지개가 서고 인왕산 머리에 걸린 햇빛이 구름 틈으로 흘러 경희루와 울고 섰는 두 사람을 비추인다.

수양 대군은 곧 근정전(勤政殿)으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고 대군청(大君廳)으로 나왔다. 이때에는 벌써 수양 대군이 아니요, 상감마마시어서 백관이 좌우에 시립하고 군사가 겹겹이 시위하였다.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 일변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蒙)을 시켜 선위(禪位), 즉위(卽位)의 교서(敎書)를 봉하게 하고 일변 유사(有司)를 시켜 근정전(勤政殿)에 헌가(軒架)를 베풀어 즉위식 차비를 시켰다. 그 동안이 실로 순식간이다.

수양 대군은 미리 준비하였던 익(翼)선(蟬)관(冠), 곤룡포(袞龍袍)를 갖추고 위의 엄숙하게 백관의 옹위를 받아 근정전 뜰로 돌아가 수선(受禪)하는 의식을 마치고는 정전에 올라가 옥좌에 앉아 백관의 하례를 받고 이내 사정전(思政殿)에 들어가 상왕(上王)께 뵈오려 하였으나 상왕은 받지 아니하시었다.

그날 밤으로 왕(수양 대군)은 근정전에 대연을 배설하고 백관을 불러 질탕하게 노시었다.

오늘 밤에는 군신지분을 파탈하고 놀자.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노래하고 마음대로 춤추라, 무슨 일이나 허물치 아니하리라 하시었다. 그리고 왕이 친히 잔을 들어 정인지, 신숙주, 강맹경, 한확 같은 공신들에게 ntf를 권하고 좀 더 취하게 되매 몸소 무릎을 치고 노래를 부르시었다.

신하들도 한없이 기쁜 듯하였다. 아까까지는 영의정이요, 같은 신하였지마는 지금은 삼감이 되신 수양 대군이 손수 권하시는 술잔을 받을 때에 황송하고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고, 우리 성주(城主)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술취하여 어눌한 음조로 맹세하는 것은 저마다였다.

질탕한 풍악이 울려올 때에 사정전(思政殿)에 계옵시던 상왕(上王)께서는 왕대를 돌아보시고 말없이 낙루하시었다. 새 임금을 모시고 질탕하게 노니는 옛 신하들은 흥겨 옛 주인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어떻게 하여서라도 새 임금의 마음에 들자, 어떻게 하여서라도 옛 임금을 사모하는 표를 보이지 말자 하고 그들은 없는 취흥도 돋우었다. 더구나 정인지, 강맹경 같은 사람들은 회색이 만면하여 새 임금의 성덕을 칭양하였다.

권람과 한확 같은 무리는 여러 사람들 새에 끼어앉아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체하면서도 누가 불편한 기색을 가지는가 하고 속으로 치부하여 두었다. 그 중에 성 삼문, 박팽년의 무리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만일 이 자리에 허후(許詡)나 살아 있었던들 한바탕 풍파를 일으켰을 것이나 그러한 노인은 이미 씨를 끊었다. 오직 청년 학사들 중에 비분강개한 눈물을 머금고 끓어 오르는 창자를 들 곳을 몰라 할 뿐이다.

잔치가 더욱 질탕하고 군신 간에 취흥이 더욱 무르녹았을 때에 성 삼문은 참다 못하여 뒷가에 간다 핑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이개(李垧)도 나오고, 유성원(柳誠源)도 나왔다. 나중에 박팽년(朴彭年)도 나와서 뜰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울었다. 그러나 말을 없었다.

오직 김예몽(金禮夢)이 이번 선위, 즉위의 교서를 짓는 사람으로 뽑힌 것을 자랑삼아 의기양양하고 홍윤성(洪允成), 양정(楊汀) 같은 무리가 호기 당당하여 공신의 머리인 것을 자랑하였다.

“숙부!”

하고 왕은 연해 양녕대군(讓寧大君)을 돌아보고 마치 그의 승인을 얻으려는 듯이 환심을 사려 하였다. 양녕 대군은 오래 산 것과 공연히 서울에 돌아온 것을 후회하고 내일로 금강산을 향하여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태평 건곤이 열린 한 편 구석에 거의 아무도 모르게 상왕은 왕대비와 함께 대궐을

빠져 나시어 수강궁(壽康宮)으로 몸을 피하시었다.

왕은 이날 밤을 이 대궐 안에서 지내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었다. 조부님, 아버님이 계시던 곳이라 떠나기도 어렵지마는 지나간 삼년 동안 지낸 일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기 그지 없는 곳이다. 무엇하리 한 시각인들 이곳에 있으랴. 더구나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니냐.

“마마, 우리는 나갑시다.”

하고 상왕은 왕대비를 향하여 마치 이사 가자는 예사 사람 모양으로 말씀하신다.

“나가다니 어디를 나가시오?”

하고 대비도 놀라신다.

“기왕 쫓겨나는 몸이 내어쫓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있소? 나라라기 전에 먼저 나갑시다. 수강궁(壽康宮)은 선조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에 오래 계시었으니 그리로 갑시다. 또 혜빈이 바로 얼마 전까지 거기 계시었으니 아직 퇴락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요.”

이 말씀에 대비는 새로운 슬픔이 또 솟아오르시오 그만 방송통곡하시었다.

상왕은 내시 전균(田鈞)을 부르시와,

“내가 지금 수강궁으로 갈 터이니 차비하라.”

하시는 명을 내리신다.

전 균은 황궁하여,

“것잡기 황송하오나 지금 상감께서 잔치를 베푸시와 백관이 다 근정전에 입시하오니 차비를 하라 하옵신들 누구를 불러 하오리이까. 밤도 깊었사온즉 명일로 하심이 어떠하올지.”

“그럴 수 없다. 오늘 밤에 여기서 지날 수가 있느냐. 어서 수강궁으로 갈 차비를 하여라. 차비라야 별 것 있느냐. 네 사람이 타고 갈 것이나 장만하려무나. 아무리 쫓겨나가는 임금 이기로 이 밤에 장안 대도상으로 걸어갈 수야 있느냐. 또 탈 것이라 하여도 나는 이미 서인(庶人)이라 무엇인들 계관하라. 너희들 타고 다니던 것이라도 냇만 내려무나.”

“그러하와도…….”

하고 전 균은 차마 못할 듯이 주자한다. 전 균은 실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아까까지 왕으로 계시던 양반이 이 밤중에 초초하시게 대궐에서 나가신다는 것도말이 아니요, 또 그냥 나가시게 하였다가는 새 왕에게 어떠한 변을 당할는지도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왕의 재촉하심이 심하시므로 부득이 궁녀를 타고 다니는 보교 냇을 준비하여 사정전(思政殿) 앞 뜰에 들어 대었다.

상왕은 무엇을 아까와하시는 빛도 없이 대비와 후궁 권씨, 후궁 김씨 두분을 데리시고 초초한 보교에 오르신다.

전 균 이하로 내시 몇 사람과 저번 통에 갈아들여 지척에 모시던 궁녀 칠팔인이 울며 네가마 뒤를 따르고 뒤에 떨어지는 내시와 궁녀들은 울고 땅에 엎드리어 배송 한다.

“광화문(光化門)으로 가오리이까?”

하고 여씨온즉 상왕은 침음양구하시다가,

“진춘문(建春文)으로 나가자.”

하신다. 이 말씀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슬펐다.

윤 유월 열 하루. 송편 개보다도배가 불룩한 달이 비오다가 개인 하늘에 떠 있다. 근정전 전정에 불빛 조용한 것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인다.

네 분이 타신 가마는 동관과 통안으로 마치 반우 들어오는 행렬같이 소리도 없이 수강궁(壽康宮) 대문에 다다랐다.

텅텅 빈 수강궁은 대문이 열리었을 리가 없다. 본래 수강궁은 창덕궁 각까이 있어서 별궁

모양으로 쓰던 조그마한 대궐이다. 궁을 지키는 군사들도 다 잠이 들어서 한참이나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아니하였다.

“누구야?”

하는 줄리운 소리는 마치 사삿집 행랑 아범 소리나 다름이 없었다.

“쉬! 상감마마 거동이다.”

하고문 두드리던 관노(官奴)가 열리는 대문을 좌우로 활짝 열어 채친다.

쉴쉴한 수강궁에는 번드는 군사의 방 밖에는 불 켜놓은 방도 없다. 우거질 대로 우거진 뜰, 뜰에서 제 세상으로 알고 우짚던 늦은 여름 벌레 소리가 난데없는 사람의 발자취와 등을 빛에 놀라 끓이락 이으락 한다. 달빛이 뻥뻥 그렇게 빈 대청들과 방들을 더욱 캄캄하게 만든다.

대비와 두 분 후궁은 두 걸음도 서로 멀어지지 아니하고 상왕의 뒤를 따라서 곰팡 냄새 나는 장마 지낸 방으로 들어가신다. 몇 번을 거미줄이 얼굴에 걸리었고 날아나는 박쥐에게 놀람이 되시었다. 방에는 먼지가 커커이 앉았다. 이러한 황량한 곳에 길 잃은 사람들 모양으로 한 줄로 늘어선 사람들의 그림자가 초롱불 빛에 어른어른 춤을 추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같지도 아니하다.

“이거 어디 사람 앉겠느냐. 방을 좀 훑치어라!”

대비는 이러한 말쯤까지 하시게 되시었다. 남치마 입은 궁녀들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방을 치운다.

초를 사오려 하나 돈이 없다. 한 나라의 왕으로 주머니에 돈을 지니라. 내시들이나 궁녀들도 궁중에서 돈 쓸 일이 없었다. 관노의 돈을 꾸어서 초를 사왔다. 대관절 이것이 웬 일이고, 이런 법도 있나 하고 군사들과 관노들도 어찌된 영문을 몰랐다.

새 왕이 상왕께서 수강궁으로 옮아가신 줄을 안 것은 상왕과 대비가 수강궁에 마주앉으시어 새로운 눈물을 흘리실 때였다. 왕은 상왕이 이렇게 하신 것을 불쾌히 여기었으나 더 어찌할 수 없어서 급히 명하여 상왕이 쓰실 것을 넉넉하게 수강궁으로 보내라 하시었다.

이튿날 윤 유월 십 이일은 수양 대군이 왕으로 첫 번 조회를 받고 정사를 하시는 날이다. 차마 그날로 집을 옮기어 대궐로 들어올 수는 없어서 아직 며칠 동안은 수양 대군 궁에 계시기로 하고 아침마다 위의를 갖추어 경복궁으로 오시되 기치와 창검이 황토마루에서 광화문까지 닿았다.

이날에 상왕의 이름으로 이러한 교서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집현전(集賢殿) 부제학(副提學) 김예몽(金禮夢)이가 지은 것이다. 이번에도 유성원(柳誠源)더러 지으라 하였으나 그는 굳이 사양하였다. 손을 끊기로 맹세한 것이다.

이 교서로 보건대 상왕은 나이 어리시고 일을 모르시므로 jerakd이 망고 국가에 공로가 큰 숙부 수양 대군께 무거운 짐을 옮기신다는 뜻이다. 어리신 왕이 그대로 가시면 흉악한 무리들 때문에 장차 종묘와 사직이 위태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종묘와 사직을 안보할 사람은 수양 대군 밖에 없다 하여 스스로 마음이 나시어 선위하신 것 같다. 그렇지만은 실상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선위가 있을 리가 없다. 또 이 교서라는 것은 정 인지가 앉아서 시키고 수양 대군이 한 번 읽어 본 것이요, 왕(상왕)은 한 번 보신 일도 없는 것이다. 만일 상왕이 보시었던들 반드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으랴.”

하고 찢어버리시었을 것이다.

후에 왕(수양 대군)은 상왕을 창덕궁(昌德宮)으로 옮기고 공의온문(恭懿溫文) 태상왕(太上

王)이라고 존호를 받들고 대비 송씨는 의덕(懿德) 왕대비(王大妃)라고 하였다. 그리고 매삭 삼 차 일일, 심 이일, 이십 이일에 왕이 친히 창덕궁에 나아가 상왕과 대비께 문안을 드리기로 하고 칠월에 처음으로 면복(冕服)을 갖추시고 왕후 윤씨(본래 수양 대군 부대부인)와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크게 위의를 갖추어 창덕궁에 뵈오러 가시었으나 상왕과 대비는 받지 아니하시었다.

왕(수양 대군)이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에 진안하실 때에 상왕이,  
“마땅치 아니하오.”

하고 거절하신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첫째로 창덕궁 든화문 밖에서 왕후와 왕자들과 백관을 거느리고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것이 더할 수 없이 창피한 일일뿐더러, 둘째로 이번에 상왕이 왕의 진알을 거절함으로 하여 민간에서 상왕의 마음에 동정하는 것이 더욱 간절하게 되었다. 아무리 상왕이 자진하여 금상에서 선위를 하시었다고 선전하더라도 이 사실이 있는 뒤에 그 선전은 아무 효과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 누가 상왕의 이런 꾀를 아뢰었는가. 이것이 반드시 어리신 상왕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니 응당 책략을 아뢴 자가 있으리라는 것이 왕과 한 명희의 추측이었다. 그렇지마는 이 말은 상왕께 여쭙어볼 수도 없는 일인즉 다만 많이 사람을 놓아 염탐할 뿐이었다.

상왕이 왕의 알현을 물리친 뒤로 뜻있는 사람들의 불평이 더욱 높아진다. 성승(成勝),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유응부(兪應孚), 박(朴)정(靖), 이개(李塏), 하위지(河緯地), 유성원(柳誠源), 윤영손(尹鈴孫), 김질(金質), 권자신(權自愼), 송석동(宋石同), 이휘(李徽), 성희(成熹) 등이 금상을 폐하고 상왕을 복위하도록 맹약한 것도 이때 일이다.

이상에 적힌 사람들 중에 성승(成勝)은 도총관(都摠管)으로 성삼문의 아버지요, 성희(成熹)는 당숙이요, 박정, 유 응부, 송 석동은 다 장신(將臣)으로 병권을 가지었고, 권 자신은 상왕의 외숙으로, 윤 영손은 상왕의 이모부로 창덕궁에 출입할 수가 있고 나중에 동지를 팔아서 공명을 산 김 질과 이 휘는 다 성 삼문, 박 팽년 등과 막연한 친구일뿐더러 그 중에도 김 질은 그 장인 되는 정창손(鄭昌孫)과 함께 상왕 복위에 대하여 가장 열렬한 패다.

애초에 윤 유월 열 하루 상왕께서 선위하시던 날에 성승이 몇 십 차례나 정원에 사람을 보내어 아들 삼문에게 선위 여부를 묻다가 마침내 삼문이 양천낙루하더라 말을 듣고는 그는 곧 병을 일컫고 집에 돌아와 사랑 문을 굳이 닫고 집안 사람도 들이지 아니하였다. 밤에 삼문이 돌아온 뒤에야 삼문을 불러놓고,

“네 어찌 살아 있느냐?”

하고 꾸짖었다---

“후설지관(喉舌之官)이 되어 상감 지척에 모시었을뿐더러 네가 선조의 고명을 받았거든 이제 네 손으로 수양(首陽)에게 국보를 전하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냐. 내 평소에 너를 절의 있는 사람으로 여기었더니 내 집에 불행이로구나.” 하고 피눈물로써 엄히 꾸짖었다.

삼문은 그 아버지가 죽기를 결심한 줄을 알아차리고 머리맡에 놓인 칼을 보았다. 이 칼은 일찍 세종 대왕께서 하사하신 것이요, 성 승이 평소에 사랑하던 칼이다. 그는 반드시 칼로 자문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굶어서 죽을 결심한 줄을 알았다. 성 승은 그러한 사람이다.

삼문은 아버지 앞에 엎디어 느껴올다가 아버지의 꾸짖음이 끝나기를 기다려,

“소자가 구차히 목숨을 아끼는 것이 아니요 죽을 곳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기는 쉽거니와 상왕을 도와 보위를 회복하기는 뉘 있어 하오리이까. 다행히 우리 사형제 다

무엇이나 할 만하고 또 밖에도 충의지사가 없지 아니할 것이오니 오늘 구차한 목숨을 살려 가지고 돌아온 것은 이 까닭이옵니다.”

하고 경회루 밑에서 박팽년과 서로 맹약한 이야기도 하였다.

삼문의 말에 성승은 주먹으로 서안을 치고 기뻐하였다.

“그러하더냐. 진실로 그러할진댄 나도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는 일에 한 몫 참여하리라.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큰일 그르칠라.”

백발이 성성한 성승의 눈에서는 대장부의 피눈물이 흘렀다.

왕은 무슨 변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루바삐 그 지의를 굳건히 하기를 힘썼다. 이러하기 위하여서 첫째로 한 일은 요새 말로 하면 선전이다. 왕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되신 것이 아니라 상왕이 사양하심과 국가의 사정이 부득이 하므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다. 왕은 첫째로 이러한 즉위 교서를 내리시었다---

이것 역시 국가 다사한이때에 이런 임금으로는 종사를 지켜 나갈 수 없다 하여 상왕이 굳이 사양하시고 또 종친과 대신들이 ‘다 말하기를’ 종사 대계를 사양하는 것이 의리에 어그러진다고 하므로부득이 여론을 좇은 것이라 한 것이다.

둘째로 할 일은 이때에 있어서는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어서 속히 받는 것이다. 이러할 때의 준비로 상왕이 즉위하실 때에도 당시 수양대군으로 명나라에 가시기를 전력을 다하신 것이다. 또 명나라 황제의 후궁의 아버지 되는 한확도 유력한 사람이다. 비록 이번 선위에 대하여 한확이 속으로 반대하는 뜻을 가지었으나 일이 이렇게 된 뒤에야 보신책으로 하더라도 새 왕께 요공할 수 밖에 없이 되었다.

왕은 곧 예조 판서 권자신(상왕의 외숙)을 파면하고 김하(金何)로 대신하여 정사(正使)를 삼고, 형조 참판 우효강(禹孝剛)으로 부사(副使)를 삼아 명나라로 보내었다. 예조 판서 권자신을 보낼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번 사신은 상왕이 선위하시기 전에 이를테면 조선 왕이라는 벼슬을 사면한다는 사면청원을 하는 사신이다. 이것이 절차로도 당연하거니와 또 새 왕에게도 편한 일이 많다. 첫째 이번 선위가 상왕이 자진하여 하신 것이요, 결코 새 왕이 찬역(篡逆)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이는데 편하고, 둘째로는 이번 기회에 황보인, 김종서의 죄를 역설하여 어디까지든지 새 왕이 옳으신 것을 발명하기에 편한 것이다. 미상불 계유정란(癸酉靖亂)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계유사변은 명나라에서는 매우 시비거리가 되었다. 누구나 이 일은 당시 수양대군이 자기의 야심을 펴려는 준비로 생각하였고 더구나 이번 선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증명된 것같이 알게 되었다.

재래의 관례로 보더라도 명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한 일은 없었으므로 이번 상왕이 선위하신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명나라 조정에서 간섭을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나, 명나라 조정에서 조금이라도 새 왕의 행동을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곧 조선 민심에 반향이 되어 새 왕께는 적지 아니한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청사위(請辭位) 주문(奏文)의 필자가 문제가 되었다. 가장 글 잘하는 사람, 가장 명성 높은 사람의 손으로 이 글을 짓게 하는 것이 또한 왕에게 유리한 일이요, 될 수만 있으면 문종 대왕의 고명을 받은 집현전 학사들 중에서 택하고 싶었다. 이래서 망에 오른 것이 사헌부집의 하위지(河緯地), 승정원 좌부승지 성삼문(成三問), 성균관 사예 유성원(柳誠源)과 및 상왕의 선위 교서를 지은 김예몽이었다. 박팽년도 망에 올랐으나 그때 병탈하고 집에 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하위지, 성 삼문, 유 성원은 심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준결히 거절한다 하면 우스운 일에 생명 문제이므로 이번 일에 붓을 들 사람이다 하여 김예몽을 천하였다. 왕은 세 사람의 뜻을 모름이 아니나 그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돌리기를 힘쓰시기 때문에 더 강잉하지도 아니하시고 김 예몽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고 정인지가 지휘하게 하시었다.

그 소위 청사위 주문(奏文)이란 것은 이러하다---

이 글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되었다. 첫째는 왕이 어려서부터 항상 몸이 약하고 병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건강으로 보아 왕될 자격이 없는 것을 말하고, 둘째로 이러한 몸을 가지고 열 두 살에 왕이 되어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일을 신하들께 맡기었다는 것을 말하고, 셋째로 그랬더니 간신이 역모를 하는 것을 수양 대군이 먼저 왕께 고하여서 그 공로로 나라를 안보하였다는 것, 넷째로 그런데 아직도 흉한 무리가 남아 있고 왕 자기는 왕될 자격이 없고 숙부 수양 대군이 학문이 도저하고 덕이 높고 공이 많고 만민의 숭앙을 받으니 그가 아니면 안되겠기로 지나간 윤 유월 십 일일에 명 나라 황제의 윤허도 없이 벌써 왕의 자리를 수양 대군에게 물려 줄었다는 것, 그러하니 자발 허하여 달라는 것이다.

“과연 일대 문장이다!”

하고 왕은 이 글을 보시고는 격절탄상하시었다.

이 글로 보건대 과연 상왕은 선위 아니하실 수가 없고 수양 대군은 왕이 아니 되실 수가 없었다. 아무 억지도 없이 일이 순순히 된 것 같다. 이 주문에 대한 대명 황제의 조칙은 반년이 넘어도 오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주의를 쓴다 하더라도 명 나라 조정에는 이론이 있었던 까닭이다. 첫째는 상왕이 결코 병약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이다. 상왕이 비록 수양 대군과 같이 장골은아니시고 의탁을 하시와 몸이 작으시고 여자 모양으로 용모가 단아하시와 약질이신 듯하지마는 별로 병환은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뿐더러 근년에 와서는 혼인하신 뒤로 도리어 건강이 증진하시는 형편이시었다.

명 나라 조정에서 또 한 가지 이번 선위에 의심을 낸 것은 상왕께서 명철하시다는 것이다. 비록 교통이 불편한 당시라 하더라도 명 나라에서는 결코 조선 사정을 알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상왕이 왕손으로 계실 때부터 장차 명군이 되실 자질을 가지시었다는 정보가 명 나라 조정에 아니 들어갔을 리가 없다.

셋째로 이 사위 주문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황보 인, 김 종서 등이 역모를 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보인은 명 나라 대관들도 많이 아는 이다. 그들이 수모가 되어서 역모를 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이 지체된 것이다.

명 나라 조정에 이러한 이론이 있는 것이 얼마쯤 걱정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렇다고 그다지 크게 걱정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새 왕은 식구를 데리고 당당하게 경복궁으로 들어와 부인 윤씨는 곤전마마, 열 아홉 살 된 만아드님 도원군(桃源君)은 왕세자, 여섯 살 되는 둘째 아드님 (장래 예종 대왕)은 해양대군(海陽大君)을 봉하시어 왕의 영화를 누리시고 정인지, 한 명회, 권람, 신숙주 이하 사십 일인은 좌익공신(左翼功臣)이라 하여 모두 작록을 받아 갑자기 부귀를 누리게 되었다.

다만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는 것은 상왕의 일이다. 아직도 민심은 상왕에 있고 상왕이 왕께 대하여 품으신 노여움과 원망하심은 풀리지를 아니하시어 선위 후 첫 번 원조인 병자년 설날에 왕이 또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에 세배차로 오시었을 때에도 상왕과 대비는 단연히 거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었다.

왕은 도저히 상왕의 마음을 풀 수 없는 줄을 깨달으시고 심히 걱정하시었다.

상왕을 현재의 지위에 계시게 하고는 도저히 화근을 끊을 수가 없었다. 크나큰 창덕궁 대

곁에 수백명 사람이 왕을 시위하고 또 외척과 상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출입하니 그것도도리어 전에 상왕이 왕으로 계실 때보다도 금하기가 국난하였다, 상왕이 선위하신지 반년이 넘도록 이다지도 왕을 두려워하시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 상왕을 충동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혹시 상왕을 받들어 복위시키려는 반란이 일어날 지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왕은 상왕을 창덕궁에서 어디 조그마한 곳으로 옮겨 모시고 아주 교통과 통신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하였다.

이때에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가 육조 참판 이상을 거느리고 왕께 아뢰었다---.

“소신등이 전부터 매양 아뢰옵는 바이옵거니와 상왕을 지금과 같은 지위에 모시오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 분명하오니 복원 전하는 속결무류(速決無留)하옵시오.”

정 인지의 주장은 상왕의 지위를 왕보다도 높이하여 창덕궁에 거처하시게 하지 말고 상왕의 지위를 낮추어 군(君)으로 강봉(降封)하여서 어느 먼 시골에 계시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면 첫째로는 민심도 상왕에서 떨어질 것이요, 둘째로는 흉악한무리들이 상왕을 끼고 흉모를 할 수 없으리라 함이다.

정 인지는 두어 번이나 왕께 상왕의 생명을 없이하여 아주 화근을 끊어버릴 것을 진언한 일도 있었으나 왕은 말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민간에 상왕을 사모하는 생각이 점점 간절하여지고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문도 들리어 정 인지의 뜻이 자못 편치 못하였다. 만일 상왕이 다시 정권을 잡으시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가 상왕을 복위하시게 할 도모를 한다 하면 반드시 정 인지 자기가 미움의 관력이 될 것을 잘 안다. 향간에 전하는 말에도 ‘정가’를 좋지 못하게 말하는 일이 많았다. ‘정가’라 하면 곧 정 인지를 가리키었다. 이러한 줄을 밝은 정 인지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죽기를 한하고 상왕을 제거하고 새왕의 업을 왕성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동성 정 인지 개인의 보신지책이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 인지뿐이 아니다. 정란공신(靖亂功臣)이니, 좌익공신(左翼功臣)이 하는 수양 대군의 뒤를 따라 부귀를 누리는 측들은 다 정인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 모양으로 이해가 상동하므로 한데 뭉칠 수가 있어서 그들의 독한 눈매는 밤낮으로 창덕궁을 향하였다. 원컨대 무슨 급한 병으로 상왕이 돌아가시었으면 하는 이도 불소하였다.

후환을 두려워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사람을 때려서 채 죽이지 아니하고 돌아선 사람이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따라올까 따라올까 겁이 나는 모양으로 또는 옳은 사람을 모해한 무리들이 하늘 어느 구석에서 이제나 무슨 천벌이 떨어질 듯한 불안이 있는 모양으로 이 정란공신들과 좌익 공신들이 창덕궁에 계옵신 상왕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겁과 불안이 있었다.

이래서 그들은 하루라도 바빠 상왕을 제거하기를 도모하였다. 그러자면 왕의 뜻을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왕은 상왕에 대한 말이 날 때마다 항상 말없이 고개를 돌리시었다.

왕도 상왕이 후환의 근원이 되실 줄을 모름이 아니나 골육의 친 조카에게서 이미 나라를 빼앗고 이제 다시 목숨을 빼앗을 뜻은 없으시었다. 될 수만 있으면 현상대로 영원히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었다.

이에 정 인지는 상왕을 제거할 정당한 이유를 발견할 필요를 느끼었고 또 그것은 어렵지 아니한 일이었다. 그러면 그 이유란 무엇인가. ‘ 첫째는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서요, 둘째는 상왕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서’라 함이었다.

국가를 위하여서 상왕을 서울 밖에 계시게 함이 좋다. 상왕이 일생을 편히 지내시기 위하

여 높은 상왕의 지위를 때고 군으로 강봉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인제는 왕께 요공하는 백관의 말투가 되었다. 정인지가 상왕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를 진언하는 때에는 그것은 극히 은밀한 때의 꾀속이요, 큰 소리로 하는 말은 역시 이것이었다.

이번에 육조 참판 이상을 거느리고 왕의 최후의 결심을 재촉한 때에도 그 내용은 상왕의 지위를 낮추고 상왕을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가두어버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경들의 말이 옳거니와 자고로 제왕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천명이니 내가 일어난 것도 천명이어든 간사한 놈들이 있더라도 어찌 상왕을 힘입어 못된 도모를 할 수가 있나. 망진자 호야(亡秦者胡也)라 하였거니와 천명을 어찌할 수가 있나.”

하시었다. 왕이 천명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믿으신 것도 사실이다. 그는 본래 자부심이 많은 이신 까닭에, 그러나 이렇게 천명에 미루고 태연하심을 보이심에는 다른 정책이 있는 것이 물론이다. 그 정책은 무엇인가. 정인지 등 신료로 하여금 더욱더욱 상왕 처치할 것을 발론케 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의 왕자의 경동하지 아니하고 태연한 태도와 상왕께 대한 골육지정이 깊음을 보이려 하심이다. 그렇지마는 왕의 속은 그렇게 편안하실 수가 없었다. 정인지, 한 명회 무리보다도 더 조급하신 것이 사실이다.

정인지, 한 명회의 무리도 왕의 이러하신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왕께서 거절할수록 더욱 졸랐다---

“전하 일어나옵심이 천명인 것이야 다시 말씀 하오리이까 마는 천명에만 맡길 수 없사옵고 마땅히 인사를 다할 것인가 하오. 상왕은 밖에 나아가 계시게 하여 혐의를 피함이 마땅한가 하오. 만일 늦으면 후회막급이 되올까 하오.”

하고 정 인지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다시 아뢰다. 지극히 충성을 보임이다.

왕은 지필을 올리라 하시와 이렇게 적어 정 인지를 보이시었다---

왕에게는 이러한 결심이 벌써 있었던 것이다. 지금 비어 있는 금성 대군 궁을 수리하고 그리로 상왕을 옮겨 모시자는 것이다 창덕궁에서 금성 대군 궁에 옮겨 모신다는 것은 안방에서 행랑으로 내어모신다는 것보다 더한 일이다. 게다가---바깥과 통하지를 못하시게 하고 모시는 사람을 부쩍 줄이자는 것이다.

만일 상왕의 지위를 낮추어 군을 봉하고 어느 시골로 귀양살이를 시킨다 하면 민심을 경동할뿐더러 왕의 성덕에 하자가 될 근심이 있거니와 서울 안에서 거처만 바꾸면 그다지 눈에 거슬리지 아니할 듯함이다.

이튿날 영의정 정 인지는 다시 술백관(率百官)하고 상왕출외(上王出外)를 청하였으나 왕은 다시 붓을 드시와,

라 하고 쓰시었다. 이 일에 관하여 말씀으로 하시기는 펴 불편하시었던 까닭이다. 하기 싫은 말인 까닭이다.

이 일에 양녕대군(讓寧大君) 제(祔)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는 종친의 어른으로서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정 인지와 함께 상왕 출외를 주청하지 아니치 못할 사세가 된 까닭이다.

왕은 이에 제종(諸宗)과 백관(百官)의 뜻을 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상왕을 금성 대군 집으로 옮겨 모시었다. 금성 대군은 벌써 순흥(順興)에 귀양 가 있는 것은 독자가 기억하실 바이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 대군 집으로 옮겨 모시는 일도 크게 슬픈 일 중에 하나였었다. 상왕과 대비 두 분이 창덕궁에 오신지 거의 일년이 되어 집과 동상에 다 낮이 익고 마음을

불이실 때쯤하여 한 번 상왕께 여쭙어 보지도 아니하고벼란간 거마를 보내어 두 분을 모시  
어 내었다. 그것은 마치 잡아내는 것과 같았다. 쓰시던 물건 하나도마음대로 못 나르시고  
부리시던 사람들조차 마지막으로 불러 보실 사이도 없으시었다. 그러나 왕은 반항 하실 길  
도 없어 오직 분을 참고 금성 대군 집으로 끌려 오시었다. 금성 대군 집이 바로 원골이기  
때문에 궁장 밑을 돌아 초초하게 행차하시니 백성들도 누구신지 알아 뵈지 못하였다. 그러  
기에 상왕과 대비 두 분께서 금성 대군 궁궐로 오신 뒤에도 얼마동안 백성들은 두 분이  
창덕궁에 계시거니 하였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 대군 집으로 옮겨 모시고는 왕은 상왕의 거처 범절에 관하여 이  
렇게 규정하시었다---.

첫째 삼군진무(三軍鎭撫) 두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軍士) 열씩을 거느리고 번갈아 과수하  
여 잣나무의 출입을 금지할 것.상왕전(上王殿)두 사람, 차비수 고적 네사람, 별감(別監) 네  
사람을 두되 반씩 잘라 번갈게 하고 시녀(侍女) 열 두 사람, 수사 다섯 사람, 복지 두 사람,  
수모(水母) 두 사람, 방자(房子) 각 두 사람, 수사 각 한 사람을 두고 각 색장(色掌) 십 이인  
은 둘에 갈라 번갈게 하고 덕녕부(德寧府) 관원이 차례로 낮에 입직하기로 하고 대비 한  
분, 별실 두 분 본택에서 내왕하는 환관, 시녀의 출입이며, 무슨 물건 진납은 사흘에 한 번  
씩 덕녕부에서 승정원에 고하여 허가를 얻은 뒤에야 하도록 명하시었다.

이렇게 되니 존호는 비록 상왕이라 하여도 갇힌 죄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귀찮고 눈칫밥  
잡숫는 식구가 되시었다.

성 삼문 부자는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더구나 야심 후면 마주앉아 통곡하였다.

“저렇게 해놓고 어떤 짓을 할는지 알 수 있느냐.”

하는 성승의 말은 옳은 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상왕을 가두어 놓은 것은 다른 뜻이 있음  
이라고 수군거린다. 혹시나 음식에 독을 넣어드리지나 아니할는지, 독약은커녕 아무렇게 죽  
이더라도 그 속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뒤에 어떠한 병환으로 승하하시었다고 하면 그만이 아닐까 하였다.

성 승이나 기타 상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염려 한 것은 이것이다. 상왕이 살아 계  
시고야 보복도 하고 어떠한 날에 흑백을 가리어 통분한 것을 씻기도 하려니와 상왕 한 분이  
돌아 가시고만 보면 만사가 수포에 돌아가고 불의의 무리들은 제 세상이라고 발을 뺀고 누  
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들--- 황보 인, 김 종서 이하로 장차 죽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 이 영영 누명을 쓰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성 삼문의 무리는 매우 초조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왕이 이들의 음모를 알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마음 놓이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  
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울에 모여 있지 못하게 하는 방책으로 박 팽년을 전라 감사로  
보내고 하 위지를 경상 감사로 보내고, 그 밖에도 다 상당히 높은 벼슬을 주어 하나씩 하나  
씩 외방으로 보낼 경륜을 하였다. 제일작으로 박 팽년은 전라 감사로 갔으나, 하 위지는 비  
록 권도라 하여도 수양 대군 조정에 벼슬을 아니 받는다 하여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라  
는 상왕 때의 직함을 띤 채로 고향인 선산(善山)으로돌아 가 자제들을 데리고 농사 일에 숨  
어버리고 말았다.

그러하는 동안에 한 기회가 온다. 그것은 상왕이 선위하고 수양 대군이 즉위하신 문제에  
대한 명 나라 조정의 의논이 정하여 수양 대군 아무로 조선 왕 됄을 승인한다는 조칙을 가  
지고 명 나라 사신이 서울에 오게 된 것이다.

명 나라 사신이 온다는 것은 유월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등이 갔던 일---상

왕이 선위하시는 것을 승인한다는 명 나라 조서(詔書)가 온 것은 두달 전인 사월이다. 김 하가 명 나라에 갔던 것이 지난해 윤 유월이니까 거의 열 달이나 넘은 셈이다. 비록 말쑥되던 일이지마는 명 나라 조정은 마침내 새 왕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왕이 상왕을 창덕궁에서 옮기어 금성 대군 집에 가둘 용기를 내신 것도 이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소위 천사(天使)라는 명 나라 사신이 오는 것은 정식으로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때 명 나라 사신은 윤봉(尹鳳)이었다.

윤 봉은 의주(義州)에 건너서는 날, 조선 조정에서 마주 간 접반원 신 숙주를 보고,  
“신왕(新王)이 상왕을 유폐(幽閉)하였다 하니 참인가.”

하고 책망다운 질문을 하였다.

그 접반원은 땀을 흘렸다. 대개 명 나라 황제가 지난 사월에 왕께 보낸 조서 중에, 이라 한 구절이 있는 까닭이다. 왕은 항상 상왕을 우대하되 모름지기 소홀히 함이 없으라 한, 이를테면 명령이다. 그런데 창덕궁에 계시던 상왕을 금성 대군 궁으로 옮겨 모신 것은 결코 우대가 아니었다.

이 시절에 명 나라 사신의 말이라면 실로 하늘 말과 같이 무서웠다. 실상 윤 봉이가 이런 말을 끌어낸 것은 한 번 트집을 잡아 보자는 속이요, 왕도 이러한 어려운 트집이 나올 줄 짐작하였길래 신 숙주 같은 중신을 국경까지 관반(館伴)으로 파견하시었던 것이었다.

“아니, 왕이 상왕을 유폐하신 것이 아니요. 상왕이 가끔 궁에서 나오시기를 즐겨하시기로 나오신 때 거처하실 곳을 권정(權定)한 것이 아마 간인(奸人)의 입으로 천조(天朝)에 오전된 가 보오.”

하고 말 부족한 신 숙주가 아니라 극력하여 변명하였다.

그러고는 사람을 달리어 서울에 이 뜻을 급보하였다.

의주에서 신 숙주가 올린 장계는 일천 백리 길을 밤 사흘, 낮 사흘에 땀 흐르는 파발말편에 실리어 서울에 올라 왔다.

이 편지에 왕의 놀라심도 적지 아니하였다. 명 나라 사신이 그만한 트집을 잡는다고 대세에 무슨 변동이 있을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에게 책을 잡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될 수 없었다.

이에 왕은 일변 사람을 명하여 창덕궁을 정하게 수리하게 하고, 일변 친히 금성 대군 궁에 상왕을 뵈오러 가시었다.

왕이 마지막 상왕을 뵈오러 가신 것은 지나간 설날이니 벌써 반년 전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상왕을 뵈옵지는 못하였으니 정말 서로 대면하시기는 작년 윤 유월 열 하루, 경희루에서 선위하시고 나서 사정전에 들시었을 때다. 그 동안이 일년이 되었다.

왕이 상왕을 뵈오러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상왕은 놀라시었다. 상왕 따위는 다 잊어버리었을 만한 때에 왕이 몸소 온다는 것이 웬일인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다.

실상 그 동안 두어 달---금성궁에 이이하신 뒤로 말하면 상왕의 지위는 어느 대군 하나만도 못하였다.

상왕은 거절하실 것을 생각하시었다. 그러나 이 처지에 상왕은 거절하실 힘이 없으시다. 비록 오너라 하고 부른다든지 관노를 보내어 불들어 가더라도 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왕은 왕을 만나시었다. 일년 동안에 두 분의 용모는 무척도 변하시었다. 상왕은 수양 숙부의얼굴이 과연 왕자답게, 더욱 위엄과 윤택한 빛이 생긴 것을 놀라시고, 왕은 상왕의 얼굴에서 소년다운 빛이 전혀 사라지고 마치 인생의 고초를 다 겪은 중년 남자의 얼굴과 같이 노성하고도 초췌한 빛을 띤 것을 놀라시었다. 마음의 한 편 구석에 심히 감동되기

쉬운 인정을 가지신 왕은 기구한 인생의 행로에 감개가 아니 일어 날 수가 없었다.

왕은 상왕을 위로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튿날부터 다시 창덕궁으로 이어하실 것과 지금 계신 집이 창덕궁과 연장하여 있으니 어느 때에나 소창하러 나오실 것도 권하시었다.

상왕은 창덕궁으로 다시 가라는 것도 귀찮게 생각하시고 또 이집에 가끔 소창하러 나오라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시었다. 이집---숙부 되는 금성 대군이 상왕 당신을 위해서 쫓겨난 집이 잠시인들 상왕의 마음을 편안하시게 할 리가 없다.

그렇지마는 상왕께서는 입 밖에 내어 반대도 아니하시고 그저 들을 만하실 뿐이었다.

“여기도 좋소.”

하신 것이 유일한 대답이시었다.

마지막으로 왕은 명 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말과 그때에는 상왕께서도 왕과 함께 태평관(太平館)에 천사를 방문하실 것을 말씀하시었다.

“내가 무엇하러 가요?”

하고 상왕은 거절하시었으나 마침내 왕이 오늘 찾아오신 일이 이 일 때문이요, 창덕궁으로도 가시라고 하시는 것도 다 이 때문인 줄을 상왕도 대강 짐작하시었다.

왕은 상왕이 태평관에 명 나라 사신 방문하기를 거절 하시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신다. 새 왕이 상왕을 홀대한다. 두 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이 거짓 선전이요, 도리어 상왕과 왕과의 사이가 극히 친밀하신 것이 사실인 것을 명 나라 사신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까닭이다. 이것은 오직 명 나라 조정의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서보다 조선 내의 민심을 완화하기 위하여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은 잊어버림이 되시었던 상왕궁예를 품소 찾아오시었고 상왕께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드린 것이다.

상왕은 마침내 왕의 청을 들으시어 왕과 함께 명사를 태평관에 방문하시었다. 그러할뿐더러 상왕이 결코 창덕궁에서 쫓기어나신 것이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심일 후에는 상왕이 주인이 되어 창덕궁에 명사를 환영하는 어연을 배설할 것까지도 상왕이 허락하시었다. 실로 이 일이 성공된다 하면 왕이 상왕에게서 무리하게 왕위를 찬탈하고 또 그 후에도 상왕께 대하여 우대함이 부족하다는 시비를 명 나라에게서나 본국에서나 덜 듣게 될 것이다. 일거양득이란이를 두고이른 말이다. 왕은 매사가뜻대로 되는 것을 생각하고 혼자 빙그레 웃으시었다.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과 훈련(訓練)도감(都監) 유응부(兪應孚)가 이날에 운검(雲劔)으로 뽑히게 된 것은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등의 계략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대개 운검이라 하면 검을 빼어 들고 왕의 뒤에서 왕을 호위하고 섰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운검으로 섰는 사람이 왕을 죽으려면 그야말로 일거수로 될 것이 아닌가. 이날에 왕이 동구를 곁에 앉히고 명 나라 사신을 대하실 예정이니 실로 왕과 동궁과의 생명을 성승과 유응부 두 사람의 칼날 밑에 있다 할 것이다.

“수양 부자는 응부가 담당할 것이니 다른 놈들을 군동이 맡으소.”

하고 장담한 유응부의 말은 조금도 보탬 없는 가장 확실한 말이다.

“그 답에 죽일 놈은 신숙주(申叔舟)야. 숙주는 나와 평생지교마는 죄가 중하니까 불가부주(不可不誅)야.”

한 것은 성 삼문이다.

“그렇고 말고. 숙주의 죄는 인지(麟趾), 명회(明濟)보다도 가중한 바 있어.”

하고 자리에 있던 동지들이 웅성하였다. 대개 명 나라와 본국 민간에 대하여 선위 사건의 거짓 선전을 맡은 자가 신 숙주인 까닭이다.

“신 숙주는 내가 맡으리라. 그놈의 모가지는 내가 베리다.”

하고 나서는 것이 형조정랑(刑曹正郎)이요, 상왕의 이모부 되는 윤영손(尹鈴孫)이다.

“정인지(鄭麟趾)의 늙은 모가지는 내가 맡았소.”

팔을 뻗내고 나서는 것은 김질이다. 그는 이번 모사에 가장 열렬한 급진주의자였다.

“가안(可安)인가. 이번 성사하면 수상(首相)은 자네 장인이 되어야 할 것일세.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하는 것은 성 삼문이다. 가안(可安)은 김 질의 자다. 그의 장인이라 함은 우찬성(右贊成) 정창손(鄭昌孫)을 이른다. 대관 중에 이 일에 내통한 이는 정 창손 뿐이다.

---이러한 의논을 할 것은 창덕궁에 어연이 있을 전날 밤이다.

이 밖에 장신(將臣) 박정(朴靖), 송석동(宋石同)이 각각 밖에서 창덕궁과 경복궁을 엿보아 안으로서 무슨 군호만 있으면 동하기로 하고 궁내에서는 잔치 중간에 일제히 일을 일으키어 왕과 세자와 정 인지, 신 숙주 등의 중신을 죽이고 명 나라 사신이 증인으로 앉은 자리에서 상왕을 복위하게 하시고 왕의 죄를 성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반장이야.”

하고 그들은 맹세하는 술을 마시었다.

“한명회(韓明澮), 권람(權攄) 두 놈은 내가 담당하마.”

하고 늙은 성 승의 눈에 불이 난다. 삼문은 정다운 듯이 아버지의 주름 잡힌 얼굴을 바라본다.

이튿날 창덕궁 광연전(昌德宮廣延殿)에는 명나라 사신을 맞는 큰 잔치가 벌어지었다. 대청 동쪽이 주인측의 자리가 되어 남으로부터 북에 차례로 처음에 상왕, 다음이 왕, 그 다음이 동궁의 자리가 되고 서쪽이 객의 자리가 되어 역시 남으로부터 북에 차례로 윤봉(尹鳳) 이하부사 아울러 명 나라 사신 세 사람이 늘어 앉게 되고 북벽과 주, 책석 좌우로는 본국 대관과 명 나라 사신의 수원이 벌여 서게 되었다.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 이조판서(吏曹判書) 권람(權攄),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 병조판서(兵曹判書) 양정(楊汀) 명 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현 공조판서(工曹判書) 김하(金何),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지내고 나서 도리어 도승지(都承旨)가 된 한명회(韓明澮), 좌승지(左承旨) 박원형(朴元亨),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質), 좌부승지(左副承旨) 성삼문(成三問) 명 나라 사신과 글 짓는 접반이 되기 위하여 전라감사(全羅監司) 박팽년(朴彭年)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이개(李垕) 등이 주인편 좌우에 입시하게 되고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 훈련도감(訓練都監) 유응부(兪應孚)는 명예로운 운검(雲劍)으로 왕의 뒤에 칼을 빼어 들고 모시게 되었다.

광연전 마당에는 차일을 치고 풍악과 춤을 아뢰게 될 것임 삼천 궁녀 중에서고르고 고른 꽃같이 아름다운 궁녀들은 비단 소매를 너털거리며 배반 사이에 주선할 것이다. 어찌하였으나 조선의 힘으로 차릴 수 있는 대로 아름답게 차린 잔치다.

왕은 미상불 다소의 근심이 없지 아니하시었다. 연락하는 석상에서 명 나라 사신한테 상왕의 선위에 대하여 무슨 책이나 잡히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걱정이라니와 그보다도 이 자리에서 상왕이나 또는 상왕을 사모하는자 중에서 누가 상왕의 선위하시지 아니치 못하게 된 내막---즉 왕이 정 인지의 무리를 시키어서 하신 음모를 발설이나 아니할까 하는 것도 염려요, 그보다도 한 층더 나아가서 이 기화---명 나라 사신이 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민심이 흥분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아니하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타서 왕

의 목숨을 엿보는 일이나 아니할까 하는 것도 근심이 되시었다. 본래는 무서움이 없던 왕도 왕이 되신 뒤에는 겁이 많이 늘으시어 주무실 때면 사벽에서 칼날이나 아니 나오는가 하시고 의심 내실 때도 있었다. 그 중에도 상왕(왕이실적에도)을 없이 할 말씀을 정 인지, 한명회 같은 무리에게서 들으신 때나,또는 혼자서 그러한 생각을 하신날 그러한 의심이 더하여 잠이 들지 아니하시었다. 비록 심복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때에는 의심이 난다. 어느 신하는 문종 대왕이나 상왕의신하가 아니던가. 상왕을 배반하고 돌아선 정인지, 신 숙주의무리는 지금 왕을 배반하고 돌아 서지 말라는 법이 있나---이렇게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를 아니하였다. 왕이란 결코 마음놓이는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달았다.

“상감, 내일 운검을 폐하시겨요.”

하는 한 명회의 말에는 깊은 뜻이 있는 듯이 왕에게 들리었다. 등 뒤에 칼 빼어 들고 섰을 두 장수---분명히 속을 믿기 어려운 성 승과 유 응부---왕은 생각만 하여도 전신에 찬 기운이 돌았다.

“또 동궁께옵서는 명일 본궁을 지키심이 옳은가 하오.”

한명회는 이런 말씀도 아뢰었다.

왕은 밤을 잠 없이 지내시와 매우 신기가 불편하신 대로 경복궁을 남시어 운종가를 지내시와 창덕궁으로 거동하시었다. 동궁은 명회 말대로 경복궁에 있으라 하시었으나 운검을 폐하라는 명회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었다. 대개 그것은 예에 어 그러질뿐더러 또한 세상에 너무 비겁하다는 치소를 들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성 승, 유 응부, 제가 감히 나를 어찌하랴. 천명이 내 잊지 아니하냐---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은 진정 하시려 하시었다.

예정대로 상왕이 수석에 앉으시고 다음에 왕이 앉으시고 그 다음 동궁이 앉을 자리는 비이기로 되었다. 성 삼문은 그 빈 자리를 힐끗힐끗 바라보고 침을 삼킨다.

운검 성 승이 칼을 차고 바야흐로 전에 오르려 할 때에 도승지 한 명회가 문을 막아서며, “운검 들지 말라 하옵시오.”

한다. 명회의 그 태도가 심히 오만무례하였다.

성 승은 분김에 칼 자루에 손을 대었으나 명회 뒤에 서있는 삼문이 눈짓하는 것으 보고 말없이 계하로 내려서서 뒷문 밖으로 물러 나왔다. 뒤를 따라 삼문이 나온다.

“명회놈부터 먼저 죽일란다.운검을 안 들이는 것을 보면 무슨 김새를 쟈 모양이니 닥치는 대로 한 놈이라도 죽이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성 승이 삼문을 보고 하는 말이다. 성 승의 목에는 핏줄이 볼록거린다.

“아니올시다.”

하고 삼문은 손을 들어 아버지를 막는 모양을 하며,

“세자가 아니 왔으니 명회를 죽이면 무엇합니까. 오늘 일은 틀리었습니다. 후일 다시 기회를 보지요.”

한다. 이때에 유 응부가 역시 칼을 들고 들어온다.

삼문이 유 응부를 막으며,

“아니되다. 세자가 본궁에 있고 또 운검을 들이지 아니하니 하늘이 시키는 것이되다. 만일 여기서 거사를 하더라도 세자가 경복궁에서 기병을 하면 승패는 미가지니까 다른 날 상감과 세자가 함께 있는 때를 타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을 까 합니다.”

한다. 유 응부가 삼문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리어 화를 내며,

“아닐세. 일은 신속해야 하는 것이야. 공연히 지연하다가가는 일이 누설이 될 염려가 있지 아니한가. 세자가 비록 본궁에 있다 하더라도 모신적자(謀臣賊子)가 다 수양(首陽)을 따라



여기 있지 아니한가. 오늘 그놈들만 다 죽여버리고, 상왕을 복위하시게 한 뒤에 무사를 시켜 일대병을 거느리고 경복궁으로 지치어 들어가면 세자가 제가 어디로 도망한단 말인가. 설사 지략있는 놈이 있다하더라도 별 수 없을 것이야. 이 천재일우를 잃어버린단 말인가 이 사람아.”

하고 발을 구른다.

전정에서는 풍악이 일어난다. 이 풍악 한 곡조가 그칠 만하면 상왕전에 계시던 상왕과 왕이 가지런히 광연전으로 납시고또 다른 전각에서 시각을 기다리던 명 나라 사신도 광연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늦네, 늦어.”

하고 유 응부가 부득부득 들어가려는 것을 박 팽년이 또 황망히,

“대감, 이게 만저지계가 아니외다.”

하고 막았다.

“만저지계? 만저지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온 때를 놓지면 또 어느 때가 있단 말인가.”

하고 한탄하고 응부는 하릴없이 물러나왔다.

이렇게 일이 중지된 줄도 모르고 신 숙주 죽일 것을 담당한 윤 영손은 편상에 앉아 망건을 다시 쓰고 있는 숙주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역시 삼문이 눈짓하여 막아버렸다.

“왜? 왜?”

하고 윤 영손은 성 삼문이 막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으나 이번 일에 주장되는 삼문의 말을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오늘 일이 모두 중지되는 것을 보고 김질은 그저부정 창손에게로 달려갔다. 이때에 정 창손은 우찬성으로 예복을 갖추고 바로 광연전으로 들어오려 하는 때였다---

“오늘 운검을 폐하시고 세자께서 수가(隨駕) 아니하신 것은 천명이요, 오늘 일은 다 틀렸으니 먼저 상감께 고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그러면 부귀가 유여할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정 창손은 잠간 주저하였으나 가만히 있다가 화를 당하는 것보다 왕께 이 일을 아뢰어 부귀를 누리는 것이 또한 전화위복하는 상책이라 하여 사위 김질을 데리고 왕이 계신 궁전으로 달려갔다.

때에 마침 왕은 곤룡포에 익석관을 벗으시고 명 나라 황제가 보낸 면류관(冕旒冠)과 황포(黃袍)를 입으시고 백옥홀을 드시고 연회장인 광연전으로 납시려 할 때였다.

정 창손이 김질을 데리고 회망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은 무슨 일인가 하여 일변 의아하고 일변 놀라운 생각으로 창손과 질을 바라보신다.

“소신 정 창손 아뢰오. 지금 성 삼문의 무리가 역모를 하오니 상감께옵서 시급히 처분 계옵시오.”

하고 정 창손이 가장 근심스러운 빛을 보인다.

“무엇이? 성 삼문이?”

하고 곁에 섰는 한 명회를 돌아보신다. 한 명회는 오래전부터 성 삼문, 박 팽년의 무리가 간흉하여 이심을 품을 염려가 있음을 누누이 왕께 아뢰었고 또 오늘도 세자를 본궁에 두고 운검을 물리라는 말썽을 아뢴 까닭이다.

한 명회는 자기의 선견지명을 자랑하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역모라 하니 그래 어떻게 삼문배가 역모할 줄을 정 찬성이 알았단 말요?”

하고 왕이 창손을 노려보신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의 사위 김 질이가 평소에 삼문, 팽년의 무리와 추측하와 이번 역모에도 참여하였다가 황천이 살피시와 제 마음을 돌리시와 소신께 말하옵기로 여기 데리고 왔사옵거니와 죄당만사요. 소신까지도 죽여줍시오.”

하고 눈물을 흘린다.

왕이 김 질을 흘겨보신다.

김 질을 무릎을 덜덜 떨고 이마로 마루 바닥을 두드리며,

“소신 죄당만사요. 죽여줍시오.”

하고 느껴운다.

“그래 분명 역모를 하였단 말이나?”

하고 왕의 음성도 흥분으로 떨린다.

“소신이 무엇을 아오리카마는 따라다니며 삼문, 팽년의 무리가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  
다.”

“그래 무어라고 하더냐? 들은 대로 말하여라.”

하시는 왕의 눈에서는 불이 나려고 한다. 역모란 말도 불쾌하거니와 더구나 오늘과 같은 날 ---조선의 만인이 기겁게 왕을 추대하는 양을 사실로 보이려 하고, 그 중에도 상왕과 왕과 사이에 왕위를 주고 받은 일이 가장 의합하게 된 것을 실지로 보이자는 오늘에 이러한 불쾌한 일로 파홍과 망신을 아울러 하게 된 것이 분하였다.

김 질은 성삼문 등이자초로 의논하던 것과 오늘 하려던 계획이며 하려다가 중지하게 된 연유를 아뢰되 극히 자세하게 아뢰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중에서 가장 열렬한 사람 중의 하나인 것은 털끝만치도 입 밖에 눈치지 아니하였다.

“그래 너도 그 역모에 참여했더란 말이지?”

하고 왕은 당장에 김 질을 죽이기라도 할 것같이 노려 보신다.

“전하,김 질이 아니면 누가 이 역모를 사전에 아뢰오리이까. 김 질의 죄는 용서하시오.”

하고 한 명희가 곁에서 김질을 변호한다.

“환궁하리라.”

하고 왕은 오늘 연회도 다 잊어버린 듯이 부랴사랴 경복궁으로 돌아오시었다. 명 나라 사신과 백관에게까지도 왕이 갑자기 미령하시어 환궁하신 줄로말하게 하시고 권 람과 한 명희와 신 숙주 등 극히 심복인 몇 중신만 따르라 하시었다. 그리고는 상왕이 주인이 되시고 제양군과 정 인지가 왕을 대표하여 사신과 수작이있었으나 흥이 날 리가 없었다. 사신은 무슨 비치를 채었는지 곧 사관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환궁하신 왕은 편전(便殿)에 좌정하시고 숙위장사(宿衛壯士) 모으신뒤에 명을 내리어 제 승지를 부르라 하시었다.

승지 구치관(具致寬), 윤자운(尹子雲), 김질등이 들어온 뒤에 성삼문(成三問)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 들어와 후보로 옥좌 앞에 나아가,

“좌부승지 성 삼문이요.”

하고 왕의 앞에 부목하려 할 때에 왕의 명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내금위(內禁衛) 조방림(趙邦霖)이 달려들어 우선 철여의로 삼문의 어깨를 한 개 후려갈기고 발을 번쩍들어 삼문의 목을 널 밟으며,

“이놈, 바로 아뢰어라.”

하고 외친다. 충분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다.

삼문은 일이 탄로가 난 것을 깨달았고 오늘 왕이 갑자기 복통이 난다고 하여 어연에 참여

도 아니하고 급거이 돌아온 연유도 알았다.

“이놈, 네가 죽을 죄를 몰라?”

하고 왕이 발을 구르신다.

조 방림은 손수 삼문의 두 팔을 잡고 발로 삼문의 뒷 가슴을 으스러지어라 하고 뱀다 차서 붉은 오라로 잔뜩 결박을 지운다.

“무슨 일인지 모르거니와 이것은 과하지 아니하오?”

하고 삼문은 고개를 들어 조 방림을 바라본다.

왕이 물으시는 말씀에는 대답이 없고 조 방림에게 말을 붙이는 삼문의 태도는 왕의 오장을 뒤집어 놓는 듯이 더욱 미웠다.

“이놈 듣거라. 네 내 녹을 먹거든 무엇이 부족하여 오늘 우리 부자를 해하려고 역모를 하였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하시는 왕의 말씀에 삼문은 이윽히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허허 하고 웃으며,

“그런 말씀은 누가 아뢰었는지 아뢰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

하고 얼굴이 핵 풀리어 태연하게 된다.

“김질아, 네 나와 삼문과 면질하여라.”

하시는 왕의 명을 받자와 김질이 덜덜 떨리는 무릎을 끌고 나와 삼문의 옆에 두어 걸음 떨어지어서 선다.

삼문이 김 질을 바라보며,

“이 사람,상감께 무슨 말씀을 아뢰었나?”

하고 빙그레 웃는다.

“자네가 그러지 아니하였나. 승정원 입직실에서 그러지 아니하였나. 그때에……근년에 혜성이 뜨고 사옹원(司饔院)에서 시루가 울었으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자네가 날더러 그러지 아니하였나.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자네같이 요새에 상왕께옵서 창덕궁 복문을 열고 유(瑜=금성 대군)의 구가에 왕래하시게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시 한 명회같은 놈들이 상왕을 좁은 골목에 드시게 하고 역사를 시켜 담을 넘어 죽이게 하려는 꾀라고---자네가 날더러 안 그랬나, 바로 승정원 대청에서.”

“그래서?”

하고 삼문은 옳다는 듯 비웃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그리고 자네가 날더러 네 장인한테 이 말을 하라고, 그래서 우선 윤사로(尹師路),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의 무리부터 없애버리고 상왕을 다시 세우면 다투지 아니하라고 그러지 아니하였나. 내 말이 다 옳지 아니한가.”

하고 김 질의 얼굴은 처음에는 붉었으나 삼문의 눈살에 전신에 피가 다 말라 버리는 듯이 점점 얼굴이 파랗게 되고 입술이 말라 경련하고 망건 편자에는 수없는 식은땀이 방울방울 맺힌다.

“그래, 그래서 자네는 자네 장인 정 창손한테 그 말을 전하였던가.”

하고 삼문은 또 한 번 웃는다.

김 질은 대답이 없다. 두 무릎이 마주친다.

“그래 그 뿐인가. 더 한 말은 없나?”

하고 성 삼문의 말은 아직도 부드럽다. 하도 어이없고 기막혀서 나오는 부드러움이다.

성삼문과 김 질의 양인 대질하는 말이 한 마디 한 마디 올려날 때마다 왕과 좌우에 입시한 신하들의 등골에는 찬 기운, 더운 기운이 번갈아 흐른다.

김 질이 아무쪼록 자기는 빼어가면서, 또 왕이 듣기 싫어하실 말씀을 빼어가면서 지루하게 모욕하려던 전말을 말하는 것을 삼문이 고개를 흔들며 막으면서,

“그만해라. 네 말이 다 옳지마는 좀 깐깐하다.”

하고 다시 왕을 바라보며,

“더 말할 것 있소. 상왕께옵서 춘추가 높으시어서 선위하신 것도 아니시옵못하심이 있어서 하신 것도 아니시오. 나으리라든가 정 인지,신 숙주,한 명회 같은 불충한 무리들에게 밀려서 선위를 하옵신 것이니까 복위를 원하는 것은 인신소당위(人臣所當爲)가 아니요? 다시 물을 것 있소. 그래서 오늘 나으리 부자를 죽여서 천하의 공분을 풀려고 하였더니 일이 뜻 같지 못하여서 이 꼴이 되었소.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왕을 삼감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으리라고 부른다.

왕은 삼문의 태연한 태도와 불공한 말에 더욱 진노하시와,

“이놈 네가 입으로 충효를 부르며 감히 나를 배반하니 저런 죽일 놈이 있느냐.”

하시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시려는 것을 삼문이 막으며,

“배반이란 말이 되어. 내가 어찌하여 배반이란 말이요? 우리네 심사는 국인(國人)이 다 아는 것이야. 나으리 같이 남의 국가를 도적하는 사람도 있거든 삼문이 인신이 되어 그 군부가 폐함이 되심을 차마 보지 못함이지 배반이란 말이 되요? 앗으시오. 나으리가 평일에 언필칭 주공(周公)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였소? 어디 주공이 이런 짓 하였읍니까. 성 삼문이 한 일은 천무이일(天無二日)이요, 민무이주(民無二主)인 연고요. 앗으오, 그리 마오.”

하고 왕을 책망한다.

왕이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시어 발을 구르시고 소리를 높이시어,

“그러하거든 네 어찌하여 수선(受禪)하는 날 막지를 못하고 오늘 와서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하신다. 명 나라 사신이 온 날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왕께는 더욱 한이 되는 까닭이다.

“힘이 못 미쳤소. 마음이 없었겠소? 내가 나서야 막지도 못할 것이요. 돌아가 죽으려 하였으나 죽기만 하면 무엇하오. 도사무익(徒死無益)이겠기로 훗일을 도모하려고 지금까지 살아 있다가 이 옥이구려.”

하고 삼문은 분과 한을 못이기는 듯 한숨을 쉬고 힘없이 고개를 숙여버린다.

“이놈, 네가 칭신(稱臣)을 아니하고 날더러 나으리라 하니 웬 말인고? 네가 내 녹을 먹었거던 녹을 먹고 배반함이 반복이 아니고 무엇인고? 상왕을 복위한다 하나 실은 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냐.”

하신다. 삼문이 고개를 번쩍 들어 노한 눈으로 왕을 노려보며 소리를 가다듬어,

“상왕이 계시거든 나으리가 어떻게 나를 신하를 삼는단 말이요? 또 나는 나으리의 녹을 먹은 일이 없소. 내 말이 못 믿거든 내 집을 적목하여다가 계량하여 보오. 나으리께 받은 것은 고대로 쌓아 두어쥔니 도로 가지어 가오. 나으리가 하는 말은 다 허망무가취(虛妄無可取)야. 그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요?”

하였다. 왕은 참다 못하여,

“이봐라 네 이놈을 불로 지지어라.”

하고 발을 구르시고 앉으락 일락 하신다.

무사(武士)는 청동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일두와 화젓 가락을 묻어서 달인다. 번쩍 빼어

드는 인두는 불핀 솥과 같이 빨갛게 달았다.

무사가 달려들어 삼문의 옷을 찢어 벗긴다. 왕은 속히 하라고 성화같이 재촉하신다.

왕은 일변 성 삼문을 인두로 지지어가며 이번 역모에 공모자가 누누 누구냐고 국문을 계속하고 일변 승지 윤자운(尹子雲)을 창덕궁으로 보내어 성 삼문 등이 상왕을 죽이려는 역모가 발각된 일과 시방 공모자를 공초 받기로 하여 국문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여 가로되,

“성 삼문이 심술이 불초하지마는 빼기 학문이 좀 있گی위 정원에 두었삽더니 근일에 ldf에 실수하는 것이 많사옵기로 예방 승지를 공방승지로 고치었삽더니 그것을 마음에 분히 여기어 말을 지어 가로되 상왕이 유의 집에 왕래하시며 그윽히 불측한 일을 도모하신다 하고 또 대신들을 다 죽이려하옵기로시방 국문하나이다.”

하시었다. 이로 보건대 성 삼문이 상왕을 해하려 하는 음모를 하기 때문에 껄뻘하여 국문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전하려 온 윤 자운에게 상왕은 술을 주시었다. 혹시 상왕은 윤 자운이가 전하는 왕의 말씀을 믿었는지도 모른다. 대개 삼문 등은 이 일을 도모할 때에 상왕께는 아시게 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만일 상왕이 이 일을 아신다 하면 불행히 일이 패한 뒤에 화가 상왕께 미칠 것을 두려워 하였음이다.

삼문의 팔과 다리에는 불같이 빨긴 인두가 번갈아 닿아지글지글 살이 타고 기름과 피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잘못하였다고 빌지도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 불지도 아니하였다. 또 불어낼 필요도 없다. 김 질이가 일러바치었으면 다 알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자기의 입으로 동지를 불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은 삼문의 입으로서 잘못했다는 말과 또 누구누구와 함께 하였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빨갛게 단 화젓가락으로 넓적다리와 장딴지를뚫기도하고두 팔과 손바닥을뚫기도 하였다. 고기 굽는 냄새와 같은 살과 기름 타는 냄새가 대궐 마당에까지 들이고방 안에는 노란 연기가 피어 오른다.

빨갛게 달았던 화젓가락과 인두는 삼문의 피와 기름으로 하여 순시간에 식어버린다.

뿌지직뿌지직하는 소리가 그칠 때마다 삼문은,

“이놈들아, 쇠가 식었구나. 더 달게 하려무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왕은 더욱 진노하여,

“이봐라, 그놈이 본시 흉악한 놈이라 불이 뜨거운 줄을 모르나보다. 네 쇠꼬창이를 불이다 되도록 달궈서 놈의 배꼽을 쭈시어라.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르고 제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보리라. 그리고 저놈이 만일 기색하거든 냉수를 뿜어서 깨워 가며 지지어라.”

하신다. 이는 성 삼문이 아픈 것을 못이گی어 가끔 꼬박하고 조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불같이 빨긴 쇠꼬창이가 삼문의 배꼽을 지진다. 기름이 보글보글 끓고 그 기름에 불길기 일어난다. 꼬박 졸던 삼문은 번쩍 눈을 떠서 자기가 당하는 것이 무언인 것을 보더니,

“성 삼문의 몸뚱이가 다 타서 없어지기로 성 삼문의 가슴에 박힌 일편 충성이야 탈 줄이 있으랴.”

하고 벽력같이 소리를 지른다.이 소리에 놀래어 쇠꼬치는 무사가 한 글음 뒤로 물러선다. 삼문의 배에서 붉은 피가 한없이 흐른다.

이때에 신 숙주가 무슨 은밀한 말씀을 아뢰려고 왕의 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삼문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른다---

“이놈 숙주야, 네가 나와 함께 집현전에 입직하였을 적에 영능께옵서 원손(元孫)을 안으

시고 뜰에서 거니시며 무어라고 하시더냐. 내가 천추 만세에 너희는 이 아이를 생각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거든 너는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나. 아무리 사람을 믿지 못한다 하기로 네가 이다지 극흥 극악하게 도니 줄은 몰랐다. 이놈아, 네가 대의를 저버렸거든 천벌이 없이 부귀를 누릴 듯 싶으냐.”

숙주의 얼굴은 흠빛이 되어 감히 삼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왕은 숙주를 명하여 전후(殿後)로 피하게 하신다.

삼문은 점점 기운이 었어진다. 힘써 몸을 바로 잡으려 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눈이 감긴다. 앞으로 고꾸라질 듯할 때에 왕이 무사를명하여 냉수를 몸에 끼얹으라 하신다. 삼문이 깜짝 정신을 차리어 옥좌에 앉으시어 숨 소리가 높으신 왕을 바라보며,

“나으리 형벌이 너무 참혹하구려.”

하고는 그만 기절하여 쓰러진다.

왕은 기절한 삼문을 한편을 비켜 다시 피어나도록 약을 쓰라 하고 다음에 박 팽년을 앞으로 불렀다.

왕은 이번 일에 잃어버릴 인재를 아끼거니와 그 중에도 박 팽년을더욱 아끼었다. 그도 그럴 만하다. 집현전 문학지사 중에 가장 이름난 사람으로 신숙주(申叔舟), 최항(崔恒), 이석형(李石亨), 정인지(鄭麟趾),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유성원(柳誠源), 이개(李垕), 하위지(河緯地)등이 있어 삼문의 문(文), 위지의 책소(策疏), 성원의 경사(經史), 개의 이모양으로 각각 특장이 있었지마는 , 그 중에도 팽년은 모든 것을 집대성(集大成)하여 경학, 문장, 필법 어느 것이나 깨나지 아니함이 없었다. 이 까닭으시 왕은 박 팽년을 아끼었다.

그뿐 아니라 세조가 정란을 마치고 영의정이 되어 부중에 대연을 베풀었을 때에 이러한시를 지은 것이 있었다.

왕은 이 시가 자기의 공업을 칭송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판에 새기어 부중에 걸게 하였다. 이 때문에도 박팽년은 아까왔다.

그래서 한 명회를 시키어 팽년더러,

“네, 내게 항복하거나 이 일을 모르노라고만 하라. 그러면 살리리라.”

하고 컷속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박 팽년은 웃었다. 그리고 마루에 흐른 성 삼문의 피를 가리키며,

“나으리, 이 피를 보시오. 이것이 충신의 피요.”

하고 무릎을 꿇어 감히 그 피를 밟지 못할 양을 보인다.

나으리란 팽년의 말에 왕의 비위는 와락 뒤집힌다.

“삼문이 나를 불러 나으리라하더니 너도 나으리라 한단 말이나. 어찌하여 네 내게 칭신을 아니한단 말이나.”

하고 무사를 tlztj 주먹으로 팽년의 입을 쥐어지르게 하신다. 그래도 팽년은 굴치 아니하고 말끝마다 왕을 불러 나으리라 하고 자기를 불러 나라고 한다.

“네가이미 내게 신을 일결었고 또 내 녹을 먹었거든 이제 와서 칭신을 아니하면 무엇한단 말이나.”

하고 왕은 팽년을 비웃으신다.

“내가 상왕의 신하요, 나으리 신하가 아니어든 나으리 앞에 칭신할 리가 있소. 죽여도 안될 말이요.”

하고 팽년이 입으로 피를 뱉는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지금까지는 칭신을 하였단 말이나.”

하고 왕의 어성은 높인다.

“칭신을 할 리가 있소. 내가 충청 감사가 되어 나으리에게 계목을 보낼 때에 일찍 신이라고 한 일이 없고, 또 나으리가 주는 쌀 한 알갱이도먹은 일이 없소. 내 말을 못 믿거든 계목을 고람이라도 하시구려. 또 나으리가 녹이라고 준 것은 딴 곳간에 꼭꼭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는 도로 가져가시오. 박 땡년이 굶어 죽을 지언정 두 임금의 녹을 먹을 사람이 아니요.”

하고 엄숙하기 추상과 같다.

“이봐라. 그놈의 입에서 나으리란 소리가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매우 때려서 저리 밀어 놓아 다시생각하여 보라 하여라.”

하시고 왕은 유응부(兪應孚)를 부르신다.

유 응부는 정이품(正二品)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위풍이 늙은 군복을 입고 투구 밑으로는 희뜩희뜩한 반백의 귀 밑 터럭이 보인다.

왕은 유 응부를 보시고,

“너는 나깨나 먹고 귀 밑이 허연 것이 의리를 아람죽하거든 저 무지한 놈들의 꼬임에 든 단 말이야? 그래 어찌할 작정이냐?”

하시고 효유하는 어조로 물으신다.

응부는 허리도 아니 굽히고 고개도 아니 숙이고 웅녀히 왕을 바라보며,

“오늘 한 칼로 임자를 없애버리고 옛 임금을 회복하려다가 불행히 간사한 놈의 꾀한 바가 되었으니 인제 하길 무엇하오. 임자는 빨리 나를 죽이오.”

하고 노한 눈을 부릅떠 왕을 흘겨본다. 왕은 응부의 눈에서 불이 번쩍함을 보고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놈, 무엇이 어찌하여? 상왕을 핑계로 사지공근 도모하고서는…….”

하시고 왕은 분을 못이기시어 주먹을 불끈 쥐시고 이를 가신다. ‘나으리’란 말도 비위가 뒤집히려는 하물며 ‘임자’라고 함이라. 당장 유 응부의 간오르 내어 찢고 싶도록 분하시었다.

“사직을 도적한 것은 수양 자넬세. 우리네는 무너진 강상을 바로잡으려다가 이렇게 자네 손에 붙들린 것일세. 잔말 말고 어서 죽이게 죽여.”

하고 응부가 발을 탕 구르니 대궐이 흔들린다. 전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실색한다. 지금이라도 손에 칼이 하나 있었으면 하였으나 인제는 결박된 몸이라 어찌할 수 없었다.

왕은 ‘자네’라는 응부의 말에 참다 못하여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입에 거품을 무시고,

“이 놈을--이 대역 무도한 놈을 세워 놓고 껌직을 벗기되 개 껌질 벗기듯이 하여라.”

하시고 발을 동동 구르신다.

무사들이 번쩍번쩍하는 식칼 같은 칼을 들고 달려들어 응부의 옷을 찢어 벗기고 세워놓은 대로 목에서부터 등과 가슴과 팔로 껌질을 내려 벗긴다. 칼이 지나간뒤를 따라 방울방울 피가 흘러내리고 껌테기 벗겨진 살은 쉴룩쉴룩 경련한다. 짹짹 하고 껌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응부는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몸도 꿈쩍 아니하고 꼳꼳이 서 있다. 응부가 삼문, 땡년 등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서생은 불가여모사라더니 과연이로구나. 아까 내가 한 번 칼을 써 보려 할 때에 너희 놈들이 굳게 막아서 천재일시를 놓치어버렸으니 이런 분할 데가 있다. 이 놈들 날더러 만전지계가 아니라고 하였지? 그래 이 꼴 되는 것이 만전지계냐. 엑끼 못생긴 놈들같이 너희 같은 놈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개 같은 놈들, 못생긴 놈들.”

하고 이를 간다.

누구누구와 함께 역모를 하였느냐고 묻는 데는 유 응부는 다만 한 마디,

“무슨 물을 말이 있거든 저 썩어진 선비 놈들한테 물으려무나.”

하고는 이내 굳게 입을 닫아버리고 만다.

왕은 더욱 노하여 단근질을 하라고 명하신다. 성 삼문을 지지던 쇠꼬창이를 뿔장게 달게 하여 응부의 불두덩을 지지니 기름이 지글지글 끓고 그 기름에 불이 붙어 번쩍번쩍 불길기 일어나고 살점이 익고 타서 문들어지어 떨어진다.

“이놈, 그래도 항복을 아니해? 그래도같이 한 사람을 안 붙어?”

하고 왕은 소리를 지르시고앉으라 일락 진정을 못하시도록 분통이 터지신다.

응부는 왕의 말은 귓등으로 듣고 대답도 아니하고 안색이 조금도 변함이 없이 꼳꼳이 서서 흥중 같은 어성으로,

“이놈들아, 쇠꼬창이가 식었구나. 더 달궈 오너라.”

하고 종시 항복을 아니한다.

왕은 하릴없이 응부르 물리라 하고 이개(李塏)를 끌어내어 단근질을 시작한다. 이 개는 서서히 왕을 바라보며,

“여보, 이게 무슨 형벌이요?”

하고 물었다. 과연 이런 형벌은 걸주 이후에는 없는 것이다. 왕은 무료하여 더 물으시지 아니하고 하위지(河緯地)를 불러낸다.

하 위지는 상왕이 선위하신 뒤에 벼슬을 버리고 선산향제로 내려갔었으나 이번에 동지들에게 불러 올라왔던 것이다.

왕은 위지를 보시고,

“이놈, 너도 저놈들과 같이 역모를 하였지?”

하고 물으신다.

“참칭왕(僭稱王)을 폐하고 상왕을 복위하시게 하려고 하였지요.”

하고 위지는 한숨을 쉰다. 불행히 실패하였다는 뜻이다.

“어찌해서 그랬어? 벼슬이 부족해서 그랬느냐?”

하고 다시 물으신다.

“벼슬? 나으리가 영의정을 주기로 받을 내요? 악을 치고 의를 붙들자는 것이요.”

하고 극히 선선하게 대답한다. 그는 본래 침묵하고 또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상왕께서 사위하신지 얼마아니 되던 어떤 날 박 팽년이 하 위지를 찾아 왔다가 비를 만나서 위지에게 우비를 빌어 입은 일이 있다. 그때에 위지는 시 한 수를 지어서 팽년을 주었다. 그 시는 이러하다---

이란 것이다. 첫 연(聯)은 남아가 예나 이제나 모름지기 의를 위하여 살고 죽을 것을 말한 것이요, 아래 연은 사생을 같이 하자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 시를 받은 팽년은 다만 눈으로 알았다는 뜻을 표하였던 것이다.

왕이 다른 사람과 같이 위지에게도 악형으로 항복을 받으려 할 때에 위지는 다만,

“내가 반역일 것 같으면 죽일 것이지, 더 물을 것이 무엇이요?”

하고 다시 말이 없다.

왕은 악형도 지리해지고 또 악형했자 신통한 것이 없을 것을 알아서 화로를 물려 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성삼문을 향하여 그 같이 한 사람이 누구누구인 것을 물었다. 일일이렇게 다 발각이 된 뒤에 숨길 것이 없다고 삼문은 선선하게 대답한다.



“지금 나으리가 다 물어보지 안했소? 박팽년, 유응부, 하위지, 이개가 다 내당이요.” 한다.

“네 아비 승이 운검으로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 하였지?”

하고 왕이 물으신다.

“그랬소. 내 아버지가 이 일에 아니 참여할 리가 있소.”

하고 삼문이 자궁하는 듯이 대답한다.

“또 그 답에는 누가 있어?”

하고 그래도 더 알아보려고 왕이 물으실 때에 삼문은,

“내 아비도 아니 숨기거든 다른 사람을 숨기겠소? 그 밖에는 더 없소. 오, 김 질이 있군.”

하고 웃는다. 김 질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때에 제학(提學) 강희안(姜希顔)이 붙들려 들어온다.

왕은 그를 고문하였으나 그는 모른다고 한다. 왕이 삼문을 보고,

“희안도 네 당이지?”

하고 물었다.

“희안은 참말 애매하오. 나으리가선조 명사를 다 죽이고 인제 이 사람 하나 남았으니 이 사람을랑 죽이지 말고 쓰시오. 현인이 멸종이 되면 나라 꼴이 되겠소? 희안은 현인이요. 또 애매하니 후일에 죽이더라도 아직은 살려 두고 쓰시오.”

하는 삼문의 말은 실로 간절하다.

왕은 삼문의 말을 옳이 여겨서 희안을 놓기로 하였다.

악형도 다 끝난 때에 공조참의(工曹參議) 이휘(李徽)가 한 편 구석에서 나서며,

“소인이 삼문 배의 역모를 아옵고 진즉 진계하려 하였사오나 사실을 더 알아보려고 늦었 사옵니다.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 송현수(宋玪壽)와 그 아내 민씨와, 또 전 예조판서(禮曹判書) 권자신(權自愼)과 그 어미 최씨가 다 이 일에 간참한 줄로 아뢰오.”

하고 일러바친다.

이휘(李徽)는 성 삼문 등과 같이 일을 의논한 사람중에 하나다. 이 일이 탄로되어 성 삼문이 국문을 당하게 되매 혹시나 자기 이름이 나오지나 아니할까 하여 전전긍긍하였으나 삼문은 이미 알려진 사람 밖에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유성원(柳誠源)도 늙은 어머니가 계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 휘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 휘도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휘는 안심이 되지를 아니하였다. 더구나 김 질이 큰 공명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 공명을 못한 것이 분할뿐더러 또 어느 때 김 질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올지도 몰랐다. 그래서 궁리해 낸 것이 송 현수, 권 자신을 걸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공조참의 이 휘는 영리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기한 바와 같은 칭찬을 이 휘는 받지 못하고 성 삼문 등의 무서운 눈질만 받아 몸에 오한이 나도록 몸서리를 치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길로 병이 나서 누웠다. 그는 악한 일을 먹고 삭일 만한 뱀의 똥집이 없었던 것이다.

왕은 송 현수, 권 자신을 이번 기회에 없이할 결심을 하였으나, 해도 이미 다 간 오늘에 계속하여 잡아다가 국문할 생각은 없었다. 그만하고 내전에 들어가 편히 쉬고 싶으시었다. 왕도 너무 격렬한 흥분과 참혹한 광경에 진저리가 나고 심신이 피곤하신 것이다. 맥이 풀리는 듯하시었다.

“이놈을 끌어내어 오차를 하여라.”

하는 명령을 도승지 한 명희에게 내리시고는 옥좌에 일어나시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내전으

로 들시었다. 성 삼문, 유 응부 등은 눈을 들어 왕이 문으로 나가시는 뒷모양을 바라본다.

여름날 기나긴 해도 인왕산에 거의 올라왔고 대궐 추녀 끝에서는 저녁 까지가 쫓는다. 구경하면 여러신하들도 모가지와 팔다리 힘줄이 들과 같이 굳어진 듯하였다.

성 삼문은 형장으로 가는 길로 무사들씩 끌려 나서고 박 팽년, 유 응부,이 개, 하 위지의 차례로 끌려 나간다.

삼문은 옛 친구들을 돌아보며,

“자네들은 현주(賢主)를 도와 나라를 태평케 하소. 삼문은 지하에 돌아가 옛 임금께 뵈으려네. 자 가자.”

하고 대궐을 나섰다. 영추문(迎秋門) 협문 밖에는 죄수를 실을 수레가 놓이고 죄수의 가족들이 죽기 전 한 번 마지막 볼 양으로 모여 섰다.

조그마한 판장문이 열리고 전신이 피투성이가 된 성 삼문이 먼저 사람들의 눈 앞에 나서서 그의 눈이 지는 별에 번쩍할 때에 가족이나 아니나 보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놓아 울었다.

이 개와 하 위지 두 사람은 제 발로 걸어나오나 성 삼문, 유 응부, 박 팽년, 성 승, 박 정 등은 모두 몸을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여 군사들에게 붙들려 나온다.

삼문은 수레에 오르며 소리 높이 시 한 수를 읊는다---

번역하면 이러하다---

“복을 쳐서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머리를 돌리니 날이 저물었구나. 황천에 주막이 없으니 오늘 밤을 뉘 집에서 잘꼬?”

다 읊고나니 삼문은 소리와 눈물이 한꺼번에 내리고 보고 듣는 자도 느껴울지 않는 자가 없다.

죽을 사람들의 수레는 빼적 소리를 내며 육조 앞 넓은 길로 나서서 천천히 나간다. 수레에 ‘역적 성 삼문’이라 이 모양으로 먹으로 대자로 쓴 기를 걸고 또 등에도 죄목과 성口여울 써 붙이었다. 길 좌우에는 장안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여 섰다.

“충신들이 죽는구나.”

하는한탄겨운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로 바람과 같이 돌아가고 그 피투성이 된 참혹한 모양이 바로 앞에 지나갈 때에는 다들 입술을 물고 고개를 돌린다.

삼문의 다섯 살 된 딸이 아버지의 수레 뒤를 따라가며,

“아버지, 아버지! 나도 가, 나도 가요!”

하고 발을 구르고 운다.

삼문이 돌아보며,

“오, 울지 말아. 네 오라비들은 다 죽어도 너는 계집애니까 살 것이다.”

하고 종이 따라 울리는 술을 허리를 굽히어 받아 마시고 또 시 한 수를 읊는다---

이개(李璲)도 수레에 오를 때에 한 시를 읊었다---

첫 연은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때에는 목숨이 우정같이 중하지마는 의를 위하여 죽을 때에는 새털같이 가볍다는 뜻이요, 아래 연은 문종 대왕의 고명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오늘의 죽음을 취하노라는 뜻이다.

일행이 황토마루를 지날 때에 왕은 김질(金質)과 금부랑(禁府郎) 김명중(金命重)을 시켜 한 번 더 성 삼문 이하 여러사람이 뜻을 돌리기를 권하였다. 뜻만 돌리면 죽기를 면할뿐더러 높은 벼슬로써 갚으리라 하심이였다.

삼문은 붓을 들어,

“이 모미 주거가서 무어시 될고 하니 삼각산 제이봉에 락락장송 되어이서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단가 한 편을 지어 쓰고,

이 개도 붓을 들어,

“가마귀 눈비 마자 희는 듯 검느미라 야광명월이야 밤인들 어두우라 님 향한 일편단심이 야 변할 주리 이시랴.”

하였고 박 팽년은,

“금생려슈라 한들 물마다 금이 나며 옥출곤강이라 한들 피마다유이나며 아모리 녀필종부라 한들 님마다 조출소냐.”

하였다. 김 명중이 팽년을 향하여,

“글세 왜 노친이 계신데 말 한 마디면 펄일 일을 이 화를 당하시오?”

하고 다시 마음 돌리기를 권할 때에 팽년은입이 아파 말은 못하고 다시 붓을 들어,

라고 써서 보였다. 김 질이 다시 무슨 말을 하려 하였으나 팽년은 더러운 말은 아니 듣는다 하는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유응부는 말이 없이 다만 눈만 한 번 흘겨볼 뿐이요, 김 질, 김 명중 등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아니한다. 성 승과 박 정도 그러하였다. 하 위지는 오직 잠잠할 뿐, 아니 움직이기 산과 같았다.

형장이 군기감(軍器監) 앞에는 상왕의 외숙 되는 권자신(權自愼)과 그 어머니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부인(夫人) 최씨(崔氏)의 김문기(金文起), 윤영손(尹鈴孫), 송석동(宋石同)등이 잡혀와 있었고 성 삼문의 아우 삼고(三顧), 삼빙(三聘), 삼성(三省), 박 팽년의 아버지 중림(仲林)과 아우 대년(大年), 기년(耆年), 영년(永年), 인년(引年)등이 벌써 결박되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원(柳誠源)과 허후(許詡)의 아들이요, 이개(李塏)의 매부인 허조는 잡히기 전에 자살하였다.

그날 유 성원은 성균관에서 여상하게 제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무론 오늘 일이 감쪽같이 되리라고 믿고 그 결과가 알아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갔던 어떤 학생 하나가 뛰어 들어와 유성원을 보고 성 삼문 등이 잡혀서 국문을 당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에 성원은 명륜당 앞 뜰 은행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성원은 학생이 전하는 말을 듣고 손에 들었던 부채를 던지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

성원은 곧 나귀를 내어 타고 집으로 달려 돌아왔다.

의아하는 부인더러 술을 내오라 하여 그 노모께 한 잔을 드리고 부인에게도 술을 권하고 귀련(貴蓮), 송련(松蓮) 두 아들을 불러 남아가 언제 죽을 때를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니 아무 때에 죽더라도 비격한 모양을 보이지 말고 태연 자약하게 죽어야할 것을 말하고는 아무도 뒤를 따르지 말라 하고 혼자 사당으로 올라가 배례한 뒤에 찻던 칼을 빼어들고,

“불효 성원이 두 번 가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죽습니다.”

하고 그 칼로 목을 찌르고 자진하였다.

오늘 남편이 하는 일이 수상하고 또 사당에 참배하고 오래 돌아 오지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여 달려갔을 때에는 성원은 벌써 피에 떠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 부인은 성원의 목에서 칼을 빼었으나 가버린 목숨은 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금부 나졸이 달려들었다. 아들 귀련, 송련 형제를 잡아 앞세우고 성원의 시체를

지우고 군기감 앞으로 돌아왔다.

유 성원의 시체가 형장에 왔을 때에는 성 삼문은 벌써 사지를 찢기고 목을 잘리어 전신이 모두 여섯 토막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 감지 못한 머리는 상투로 끈을 삼아 그의 죄명과 성명과 함께 높다랗게 새로 세워 놓은 시렁에 대롱대롱 매어달리었다.

성 삼문의 다음이 박 팽년이다. 그 다음이 이 개, 유 응부, 하위지, 성 승, 박정, 송 석동, 권자신이 차례로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상왕의 외조모인 화산 부원군 부인 최씨를 찢어 죽이고, 다음에 유 성원의 시체를 찢고 그 나머지는 날이 저물어서 내일에 죽이기로 하고 황새 죽쇄하여 금부로 옮겨 가두었다.

이 일이 있는 동안에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 이휘(李徽)등 문무 백관이 벌여 서서 형벌 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구경하였다.

밤이 들어 백관이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어디선지 모르게 돌팔매가 날아오고 ‘정 인 지야’, ‘신 숙주야’하고 부르는 소리가 드릴어서 대관들은 모든 군사와 무사의 용위를 받았다.

피비린내 나는 형장에는 창검 든 군사 수십인이 죽은 이들의 머리와 몸뚱이를 지키노라고 파수를 보았다. 여름 달빛이 피물은 머리를 비추어 감지 못한 눈이 번쩍 번쩍 할 때에는 군사들도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이튿날은 도리어 더욱 참혹하였다.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이 죽던 피물은 자리에서 육십여 명 어린 자손들과 연루자들이 죽었다. 젓 먹는 어린것까지도 죽여버리라는 엄명이요, 만일 그들의 아내 중에 잉태한 자가 있거든 해산하는 것을 지키어 나오는 대로 남자여든 죽이라 하였다.

그때에 죽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그중에서 중요한 사람들 몇을 들면 이러하다 (의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거든 거기 무슨 중요하고 중요치 아니한 차별이 있으랴마는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이를 골라서란 말이다).

첫째 성 삼문이 집안을 말하면 삼문 부자가 이번 사건에 주범으로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맹첨(孟瞻), 맹평(孟平), 맹종(孟終) 삼 형제는 그 조부 성 승과 아버지로 하여서, 현, 택(澤), 무명(無名), 금년생(今年生) 네 어린 아이들은 그 증조부 승과 조부 삼문으로 향서 참혹하게 죽었고, 삼문의 아우 되는 부사(府使) 삼빙(三聘), 정랑삼성(正郎三省), 장신삼고(將臣三顧)는 그 아버지 성 승으로 하여 주검이 되었다.

박 팽년의 집으로 말하면 그 아버지 판서중림(判書仲林)은 팽년과 같이 역모에 간련하였다 하여 죽고, 팽년의 아들 헌(憲), 순(珣), 분(奮), 삼 형제와 손자 점동(占同), 갯동(佺同), 파록대(波魯大), 산흔(山欣), 금년생(今年生) 오형제와 팽년의 아우 인년(引年), 검열(檢閱) 영년(永年), 수찬(修撰)이요 호를 동재(東齋)라 하는 기년(耆年), 박사대년(博士大年) 사 형제가 다 한 자리에 서 죽었고, 유 응부의 아들 사수(思守), 박정(朴靖)의 아들 숭문(崇文), 손자 계남(季男), 척동(則同), 권자신(權自愼)의 아들 구지(仇之), 허조의 아들 연령(延齡), 구령(九齡), 송석동(宋石同)의 아들 창(昌), 영(零), 안(安), 태산(太山)등이 다 죽고 우습고 불쌍한 것은 권 자신, 송 현수를 고발한 이휘(李徽)가 붙들려 죽은 것이다. 김질(金質)은 좌익공신을 봉함이 될 때에 이 휘는 역적으로 효수를 당한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하 위지의 가족은 선산 시골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며칠 뒤에 선산에서 죽었다.

하 위지의 집은 선산부(善山府) 영봉리(迎鳳里)에 있었다. 금부 도사가 위지의 가족을 잡아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종을 만들려고 서울서 내려왔다. 호(號), 박(珀), 연, 반(班) 사 형

제 중에 연과 반은 아직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요, 호는 장성하였으나 박은 불과 십 육칠세의 소년이었다.

금부 도사가 거느린 선산 관속이 사 형제를 잡아 앞세울 때에 박이 금부 도사더러 모친에게 마지막 한 마디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여유를 달라고 하였다. 금부 도사는 박이 연소하면서도 태연 자약하며 군자의 품이 있는 것에 감복하여 허하였다. 박은 안으로 들어가 모친 앞에 꿇어 앉았다. 모친은 흘리던 눈물로 르거둑 태연하게,

“왜 남아답지 못하게 어미를 한 번 더 보려고 들어왔느냐?”

하고 꾸짖었다.

박은 어머니 앞에 이마를 조아리며,

“소자가 죽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죽임을 당하시었거든 소자가 살 리가 있습니까. 비록 조명이 없다하더라도 소자가 마땅히 자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동기 중에 오직 누이 하나, 저도 이미 과년하였는데 적돌 되어 종이 되면 천한 몸이 부인의 의를 지키기가 극난할 것입니다. 비록 죽을지언정 반드시 한 남편을 좇고 개 돼지의 행실을 아니하도록 어머님께서 잘 훈계하십시오, 그것이 소자가 마짐낙으로 여쭙는 말씀입니다.”

하고 일어나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온다. 그때에 곁에 있던 누이가,

“소매가 아녀자지마는 하씨 집 가명을 더럽게 할 사람이 아니니 오라버님 염려 놓으시오.”

하였다. 누이는 열 다섯 살이었다.

선산부 객사 앞 넓은 마당에서 하 위지의 아들 사 형제가 일시에 교형을 당하였다. 사 형제를 가지런히 늘어 세워놓고 금부 도사와 선산 부사의 감형으로 사 형제의 목에 올개미를 씌울 때에 일곱 살 먹은 연까지도 조금도 두려워함 없이 중용히 서 있었다. 선산부에 하 위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 위지의 덕행에 감복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형장에는 수천명 부민이 모여 모두 눈물을 흘리었다.

그때에 마침 태중에 있던 이가 박 팽년의 며느리 한분과 허 조의 아들 연령의 아내였었다. 둘이 다 만일 남아만 낳은 날이면 그 아이는 죽을 운명을 가질 것이나 박 팽년 집에는 마침 종에 상전과같이 해산한 이가 있어서 상전이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을 삼고 종이 낳은 딸은 상전의 딸을 삼아 박 팽년의 후손이 살아 남았고, 허연령의 처가 낳은 아들은 자란 뒤에 죽이기로 하고 연령의 처와 함께 괴산부(槐山府)에 맡기어 두었다가 세조 대왕의 분한 마음이 풀린 뒤가 되어 아니 죽이기로 하였으니 그것은 이로부터 칠년 뒤 일이다.

이렇게 칠십여 명 사람이 죽은 것을 병자(丙子) 원옥이라고 일컫거니와 이 일이 있는 뒤에 계속하여서 죽이는 일은 한참 동안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은 혜빈양씨(惠嬪楊氏)와 그의 몸에서 난 두 아드님 한남군(漢南君) 어, 영풍군(永豐君) 천의 죽음이다.

이 세 분은 성 삼문 사건에 관계되었다고 드러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왕이 생각하시기에나 정 인지, 신 숙주, 권 람, 한 명회 등이 생각하기에 혜빈 양씨 세 모자와 세종 대왕의 아드님으로 나이 가장 높은 화의군 영(和義君璽)과 안평 대군이 돌아간 뒤에 종실에 가장 명망이 높은 금성대군(錦城大君)유(瑜)와 상왕이 가장 정다와 하시고 또 신임하시는 영양위 정 종, 여량 부원군(礪良 府院君) 송현수(宋玪壽)등은 아무렇게 죄목을 만들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죽일 죄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혜빈 삼 모자로 말하면 가장 상왕과 관계가 가까울뿐더러 매양 말썽이 되어 왔다.

독자가 이미 잘 아는 바여니와 해빈은 세종 대왕의 후궁이요, 한남군(漢南君), 수춘군(壽春君), 영풍군(永豐君) 세 분의 어머니일뿐더러 세종 대왕의 명을 받들어 상왕을 양육하였고 후에 문종 대왕 승하하실 때에는 동궁을 향하시와 해빈을 궁중의 어른으로 존경하실 것을 명하시었다. 그래서 비록 수렴 청정은 아닐지라도 군국 대사에 어리신 왕의 자문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해빈이 덕과 지혜를 갖추고 범할 수 없는 위엄이 있어 수양대군에게 대하여서는 한 큰 적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또 그의 아드님이요 수양 대군에게는 친 아우님 되는 한남, 수춘, 영풍 세 분으로 말하면 항상 대의명분론을 주장하여 수양 대군의 야심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 중에도 상왕 선위 전에 돌아간 수춘군이 더욱 충성과 우애지정이 지극하였다. 한남군은 일시 대세라 무가내하다 하여 수양 대군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찬성하는 태도까지 취하였으나 당시 아직 이십 미만 이던 수춘군이 눈물을 뿌리며 상왕께 신절을 지켜야 할 것을 극언함으로부터 다시 마음이 돌아섰다고 한다. 한남, 영풍 형제분이 선위를 전하는 날 아침에 수양 대군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수양 대군의 야심이 옳지 아니한 것을 극언한 것이 수춘군의 정성에 힘 입음이 많다고 한다.

어디로 보아도 해빈 삼 모자(수춘군이 살았더라면 사 모자)의 목숨은 부지한 길이 없었다. 성 삼문 등이 죽은지 사흘 뒤에 이 세 분은 화의군과 함께 성 삼문의 당이라 하여 사형을 받았으나 다만 종실이라 하여 곁형을 면하고 교형을 받았다. 이리하여 왕은 안평 대군과 아울러 친 동기 네 분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다.

금성 대군은 왕과 어머니가 같은 덕에 아직 죽기를 면하고 순흥부(順興府)에 안치를 당한 대로 두고 송 현수와 정종은 상왕의 극히 가까운 척분이 있다 하여 아직 목숨은 보전하여 후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종은 광주(光州)에 귀양을 보내었다.

이렇게 성 삼문등을 죽이고 난 뒤에 왕은 이러한 반교문(頒敎文)을 내리시었다. 이라 한 것이다. 이 반교문은 왕이 이번 성 삼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가를 보이는 중요한 글이니 고대로 번역하여 보자---

“저즈께 용(안평 대군)이 역적을 도모하매 널리 당파를 심거 서울과 시골에 아니 박인 데가 없더니 남은 못된 놈들이 다 죽지 아니하여 서로 이어 난을 도모하도다.”

여기까지는 사년 전에 안평 대군, 황보인, 김 종서의 무리를 죽인 이른바 계유 정란을 끌어 이번 역모도 그때 그 못 된 놈들 죽다 남은 것들이 한 일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니 이것은 한 팔매에 두 마리를 맞히자는 것이다. 즉 세상이 다 애매한 것을 아는 안평 대군, 황보인, 김종서등을 한 번 더 역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요, 이번도 계유년 역모의 계속이라 하여 이번 성 삼문등의 역모가 뿌리가 깊은 것을 말하려 함이다.

“근자에 여당 이개(李塏)가.”

하필 이 개를 중심으로 내어 세운 심사는 성 삼문을 머리라기 싫은 까닭이다.

“근자에 여당 이개가 흉악한 생각을 품어 주장하여 난을 지을 제 그의 무리 성 삼문 등이 그윽히 궁중과 통하여.”

여기가 상왕을 물고 늘어지는 데다.

“내외가 서로 옹하여 날을 정하고 일을 들어장차 내 몸을 해하고 어린이를 끼고 제 마음대로 하려 하더니.”

또 한 번 상왕을 겨들었다. 이것이 심히 중요한 일이니 이번 일의 근원을, 책임을 상왕께 돌리려 하는 것이 왕과 정인지, 신숙주, 권람, 한명회 등의 일치 협력하여 애를 쓰는 바다.

“그러나 종묘와 사직이 불들고 도우시는 힘을 입어 큰악이 스스로 나타나 죄 있는 놈들이 모두 죽었으니”

이번에 참혹하게 주근 칠십여 명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 써 신민과 정사를 같이하리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으나 이것은 역적들이 다 죽어 없어지어 국가에 이만한 경사가 없는 즉 백성에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모든 죄인에게 대사, 특사의 은전을 주자는 말이다.

이 반교문○ 내리자 과연 전국 수천의 죄수는 지옥과 같은 옥에서 나움을 얻었다.

또 이 사건 덕으로 좌익 삼등 공신이던 정창손은 이등 공신으로 올라가고 김질은 좌익 삼등의 녹훈을 받아 상락 부원군(府院君)이 되고, 나중에 좌의정으로 문정공(文情公)이란 시호까지 받도록 귀한 사람이 되었다.

이 통에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정보(鄭保)요, 하나는 이석형(李石亨)이다. 정보는 독자도 기억하시려니와 고려 말 충신 정 몽주의 손자요, 그 서매가 한 명희의 첩이 된 사람이다. 천성이 방랑하여 주색으로 일을 삼았으나 그래도 가슴에 한 점 내조(乃祖)의 기맥을 받은 것이 있어 비록 궁화되 결코 권문세가에 아부하는 일은 없었다. 그가 현감(縣監) 한 자리를 얻어 한 것이 한 명희 덕이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으니 이것만은 사실인 듯하나 궁해서 한 일이라 그리 책망할 것은 아니라고 성 삼문이나 박팽년도 용허하여 주었다. 성, 박 등과는 매우 친하게 지내었다.

성 삼문 사변이 난 날 그는 명희의 집을 찾아서 그 누이를 보고 명희가 간 곳을 물은 즉 누이는,

“대궐에서 아직 안 나오셨어요, 죄인을 국문한다나.”

하였다.

“죄인?”

하고 정 보는 손을 두르며,

“죄인이 누가 죄인이야. 대궐 돌아오거든 그래라 내가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을 죽이면 만고에 죄인이 되리라고.”

하고는 옷을 떨치고 일어나 나갔다. 정 보는 다시 이 집에 아니 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국문이 끝난 뒤에 명희가 집에 돌아와서 첩 정씨에게 정 보가 하던 말을 듣고 분이 나서 저녁상도 아니 받고 대궐로 뛰어 들어가 왕께 비옵고 정 보의 말을 아뢰었다.

왕께서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시와 곧 정 보를 잡아들 이어 친히 국문을 하시었다.

“네가 그런 말을 하였느냐?”

하시고 왕이 물으실 때에,

“네, 과연 하였습니다.”

하고 정 보는 태연히 대답하였다.

“저런 껄썩한 놈이 있단 말이냐. 어찌하여 감히 그런 난언(亂言)을 하여?”

하시고 왕이 소리를 높이신다.

“옳은 말이니 하였습니다. 상감도 이 사람들을 죽이시면 만고에 죄인이 되시오리다.”

하고 정 부는 까딱 없다.

“이놈, 그러면 성가 박가 놈들이 성인 군자란 말이야?”

“그러하오.”

이때에 곁에 섰던 정인지,신숙주,한명회등이 아뢰기를,

“제 입으로 제 죄를 자복하였사온즉 청컨대 형벌을 바로 하소서.”하였다.

“그놈을 찢어라!”

하고 왕은 노함을 누르시지 못하시었다.

정 보가무사에게 끌려 장차 형장으로 나가려 할때에 왕은 하도 정 보가 태연한 것이 심상치 아니하게 생각하시고 왕은 좌우에게 물었다---.

“그놈 뉘 자손이냐?”

한 명회는 감히 자기의첩이 형이라고대답은 못하였다. 그리다가 자기까지 봉변하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이었다.

이때에 곁에서 누가,

“정 몽주의 손자요.”

하고 아뢰었다.

왕도 정 보가 정 몽주의 자손이란 말을 들으시고는 놀라시었다. 이 사람을 죽이면 또 선비들 사이에 무에라고 말썽이 많을 것을 생각하신 까닭이다. 이때에 만일 정 보 하나는 살리면 왕이 충신의 후예를 존중한다는 칭찬을천주에 남길 것이라고생각하시고 선선히 사형을 감하여 연일현(延日縣)으로 유배하라신 처분을 내리시었다. 이리하여 정보는 목숨을 보전하여 연일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둘째로 죽을 뻔한 이는 이석형(李石亨)이다. 이석형 은 그 지조로 보든지 성 삼문, 박 팽년 등과의 교의로 보든지 반드시 죽었어야 옳은 사람이언마는 그가 병자 사변에 들지 아니한 것은 전라 감사로 외임에 있었던 까닭이다.

각 읍을순행하던 길에 익산(益山)에 들어서 비로소 성 삼문, 박 팽년 등 구우들이 다 죽었던 말을 듣고 여관 벽상에 글 한 수를 써 붙이었다---.

성 삼문, 박 팽년 등이 대와 같은 절개를 가지었으면 나도 술과 같은 절개를 가지었다.그대들과 함께죽지는 못하였을 망정 속에 품은 뜻은 같다는 말이다. 원체 글줄이나 하는 선비의 객쩍은 짓이다. 이런 글을 써 붙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 글귀가 어떻게 서울에 굴러 올라와서 대간(臺諫)의 탄핵 구실이 되었다. 이때에나 지금이나 잡아먹기를 장기로 알았다. 그러나 왕은 --라 하시고 대간의 계목을 물리치시었다.

이야기는 좀 뒤로 돌아간다.

성 삼문 등의 국문과 처형이 끝나고 무사와 갑사의 호위를 받아 신 숙주는 저물게 집에 돌아왔다. 신 숙주가 돌아오는 길은 반드시 성 삼문의 문전을 통과하였다. 이제 이 집에 누가 있나? 성 삼문은 말할 것도 없고그 아버지와 형제, 다 신 숙주의 눈 앞에서 죽어버리었다. 숙주의 교자가 삼문의 집 모퉁이를 돌아설 때에 안에서살아 남은 부녀들---삼문의 어머니와 아내와 제부들과 딸들---의 울어 지친 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 숙주의 등골에는 찬 땀이 흘렀다. 세상에 친구가 많다 하더라도 숙주와 삼문과 같은 사이는 드물었다. 소년시로부터 성부동 형제와 같이 지낸 것이다. 안에서까지도 다들 친하였다.

아까 대궐에서 삼문이 자기를 노려보던 눈을 숙주는 어두움 속에 보는 듯하여 눈을 감았다---가슴이 두근거리었다. 삼문의 원혼이 자기의 뒤를 따르거나 아니하나하는 어림없는 생각까지도 나서 소르이 끼침을 깨달았다.

숙주가 집에 다다르니 중문이 환히 열렸다. 어찌하여 중문이 열렸는고 하고 안마당에 들어서서 기침을 하여도 부인이 내다봄이 없었다. 평일 같으면 반드시 대청 마루 끝에 나서서 남편을 맞던 부인이다.

숙주는 안방에 들어왔다. 거기다 부인이 없었다. 어디를 보아도 부인의 그림자도 없었다.



“마님 어디 가시었느냐?”

하고 집사람더러 물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숙주는 다락문을 열었다. 들이쪼는 등잔 불 빛이 소복을 하고 손에 긴 베 한 폭으 르들고


울고 앉은 부인을 비추었다.

숙주는 놀랐다. 의아하였다.

“부인, 어찌하여 거기 앉았소?”

하고 숙주가 물었다.

부인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대감이 살아 돌아오실 줄은 몰랐구려. 평일에 성 승지와 대감과 얼마나 친하시었소? 어디 형제가 그런 형제가 있을 수가 있소. 그랬는데 들으니 성 학사, 박학사 여러 분의 옥사가 생기었으니 필시 대감도 함께 돌아가실 줄만 알고 돌아가시었다는 기별만 오면 나도 따라 죽을 양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감이 살아 돌아오실 줄을 뉘 알았겠소?”

하고 소리를 내어 통곡한다.

부인의 이 말에 숙주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겨우 고개를 돌며,  
“그러니 저것들을 어찌하오?”

하고 방에 늘어진 아이들을 가리킨다. 이때에 숙주와 부인과 사이에는 아들 딸 형제가 있었다. 나중에 옥새를 위조하여 벼슬을 팔다가죽임을 당한 정이 그 맏아들이었다.

그러나 숙주가 이 말을 하고 고개를 든 때에는 부인은 벌써 보국에 목을 매고 늘어지었다.

숙주가 놀래어 집 사람들과 함께 부인의 목 맨 것을 끄르고 방에 내려 눕히었으나 그렇게 순식간이언마는 어느새에 숨이 끊어지어 다시 돌아오지를 아니하였다. 부인 윤씨는 죽은 것이다.

윤씨는 성 삼문 등을 국문하노라는 기별을 전하러 상왕께 심부름 갔던 승지 윤자운(尹子薰)의 누이다. 자운 온 후에 숙주의 당이 되어 영의정까지 지내었다.

비록 윤씨가 이렇게 죽었건마는 숙주는 집사람을 신척하여 이말이 세상에 흘러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말이 나는 것은 체면에 큰 수치로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목 매어 죽은 윤씨는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고령부(高靈府) 원군(院君)의 부인으로 비단에 씌워 가장 영화로운 장례로써 땅에 묻힘이 되어다.

한편으로 죽은 사람들의 집은 어떠하였나. 오직 눈물과 분함과 욕봉뿐이라 할 수 있다. 살아 남은 부인과 딸들은 그날부터는 종이 되어 다른 집에도 가지 아니하고 정 인지, 신 숙주,김질, 한 명희, 권람, 홍 윤성, 양 정 같은 소위 공신의 집으로 분배가 되어 가게 되고 그 중에도 과년한 처자는 서로 가지기를 원하여 다투는 형편이다.

그 중에도 가장 불쌍한 이는 유 응부의 부인이었다. 유 응부는 본래 청렴하여재물을 알지 못하므로 몸이 재상의 지위에 있으되 집에 문짝이 없어 기적을 늘이고 일찍 그 밥상에 고기가 올라본 일이 없다 하며 유시호 조식 지을 양식이 떨어지는 일까지 있었고 그 부인이 욕심이 되도록 집것을 몸에 걸어보지 못하였다. 아들이 없고 오직 딸 형제가 있었으나 다 출가하고 부인 혼자 집을 지니고 있다가 가산과 몸을 적물을 당할 때에 부인은,

“생전○도 굶주리다가 죽을 때에까지 이 화를 당하다니.”

하고 통곡하였다. 이 정경을 보고 이웃과 군사들까지도 울었다.

그러나 그렇게 구차하면서도 상왕이 선위하신 뒤에 받은 녹은 곡식 한 알갱이, 피륙 한

자 건드리지 아니하고 철 찾아 내리는 부채, 체력 등속까지도 뽕뽕 모아 쌓아 두었었다. 성 삼문, 박 팽년 등도 받은 녹은 다 봉하여 두었음을 발견하고 왕이,

“독한 놈들이다.”

하고 한탄하시었다.

유 응부, 성 승, 박 정 같은 이외 부인들은 다 연로하여 아무도 욕심 내는 이가 없으므로 도리어 여생을 보내기가 그리 힘들지 아니하였으나 가장 곤경을 당한 이는 박 팽년 부인 이 씨와 성 삼문 부인 김씨다. 그들은 다 후실이어서 아직 이십 사오세의 청춘이었고 또 자색도 있었기 때문에 간 곳마다 유혹과 위협이 있었으나 죽기로써 절을 지키었다.

왕은 세종 대왕이래로 인재 양성의 기관이 된 집현전(集賢殿)을 혁파하고 거기 있던 책을 예문관(藝文館)으로 옮기었다. 왜 집현전을 혁파하였으나, 성 삼문, 박팽년, 이개, 유 성원, 하위지 등이 모두 집현전 학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놈의 집현전이라 하면 왕의 잇사이에 신물이 돌았던 것이다.

다시 상왕을 창덕궁에서 금성 대군 궁으로 옮겨 모시고 전보다 대우를 낮추고 단속을 엄하게 하여 일체로 의간과 교통하심을 금하였다. 잡수시는 것까지도 전에는 왕으로 계실 때와 같이 하였으나 지금은 보행 객주의 손님이나 다름없이 하라 하시었다.

상왕을 창덕궁에서 다시 금성 대군 궁으로 옮겨 모실 때에 정 인지는,  
---이라고 상소를 하였다.

상왕이 성 삼문 등의 도모를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인지의 멀쩡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상왕을 없이하려면 이것을 핑계로 삼는 것이 가장 편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상왕이 미리 안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 함은 어서 죽여버리자는 말이다. 상왕을 벌써 죽여버렸더라면 이번 성 삼문의 일도 아니 생기었을 것이라고 정 인지는 자기의 선견지명을 자랑한다. 이제라도 죽여버리지 그냥 살려 두면 또 제이 성 삼문 사건이 납니다. 하고 정 인지는 왕의 결심을 재촉하려 하였으나 왕은 아직도 애매한 상왕의 목숨을 끊어버릴 생각까지는 나지 아니하였다.

## 血 淚 第

서강(西江)에 김정수(金正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대가집 사랑으로 돌아다니는 자다. 의술도 아노라 하고 풍수 노릇도 하노라하고 또 삼전, 사과 점도 치노라 한다.

그의 과수 누이 하나가 여량부원군 송 현수 집에 침모로 들어가있다가 부인의 의심을 받아서 매우 창피한 꼴을 당하고 쫓겨나왔다. 그 의심이란 대감이 가까이하는 듯하다는 것이다.

누이가 나와서 그 오라버니 정수에게 서러운 사정을 할 때에 정수는,

“오냐, 속 시원하게 해주마.”

하고는 혼자 웃었다. 속 시원하게 한다 함은 무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마는 이 사람이 결코 원수만 갚고 말 작자가 아니다. 원수도 갚고 이도 보자는 생각이 났길래 그는 웃은 것이다.

김 정수는 곧 갓을 내어 쓰고 문안으로 들어왔다. 누구를 찾아가서 이 말을 할까 하고 주저하였으나 얼른 제학(提學) 윤사균(尹士均)의 집으로 발을 돌리었다. 그것은 사균이와 가장

친분도 있을뿐더러 또 그가 신 수구주와 교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김 정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균은 매양 하는 버릇으로,

“어, 김 서방인가.”

하고 반쯤 조롱하는 빛으로 맞는다.

“글세 영감,남이 사십이 되어도 밤낮 김 서방이니 그래 김 정수의 이마빼기에는 서방 두 자를 새겨붙이었던 말씀이요?”

하고 김정수는 성내는 양을 보인다.

“그럼 무어라고 부르나. 김 정승이라고나 부를까.”

하고 사균은 적이 무료하여진다. 그는 좀 못난 편이다.

“정승이야 간 대로 바라겠소마는 왜 정수의 머리에 탕건이 올라왔지를 못한답니까. 김 정수의 귀밑에는 옥관자,금관자가못 붙는답니까?”

“허, 이 사람이 오늘은 웬 일인가.”

“웬 일이라니요. 권 람은 우참찬이 되고 한 명회는 오늘 이조 판서 승차 아니하였소? 영 감 어디 나같은 사람감투 하나 얻어 씌워 보시구려.”

하고 정수가 농치어 웃는다.

윤 사균은 어른한테 놀림 받는 아이 모양으로 싱글싱글할 뿐이다.

얼마 동안 농담과 잡담을 한 뒤에 윤 사균이 혼자 있게 된 때를 타서 정수는 정색하고 ---그가 정색할 때에는 뒤로 제치어진 갓을 바로 잡는다---

“그것은 다 웃음의 말씀이고---그런데 영감 큰일이 났소이다.”

사균도 덩달아 엄숙하게 되며,

“어, 무슨 큰일?”

하고 정수를 바라본다---

“왜? 어디 또 역모나 일어났나?”

이때에 큰일이라면 상왕을 회복하려는 도모---왕의 편에서 보면 곧 역모다---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역모라는 말을들을 때에 웬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번개 같이 지나간다.나도몰려 죽지나 아니하나 또는 내가 먼저 알아다가 고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사균도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였으나 자기가 신숙주와 긴한 것을 생각하고는 첫 근심은 없어지고 둘째 희망이 남을 뿐이었다.

정수는 사균을 믿지 못하는 듯이 이윽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없이 다만 고개만 끄덕끄덕하여 보인다.

“누가? 누가?”

하고 사균은 대단히 구미가 동하는 듯이 싱겁게도 정수를 조른다.

정수는 말을 할까말까 하는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다.

“이 사람 누가? 내게야 못할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사람 누가?”

하고 사균은 정수의 소매를 잡아 끈다.

이런 경우에 호락호락하게 말해 버릴 김 정수가 아니다. 저편의 비위를 부쩍 당길수록 이익이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할 듯 할 듯하며 아니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일이다. 그 뿐더러 이런 말이라는 제 선불리하여 버리면 공은 남에게 빼앗기고 정작 자기는 헛물만 켜 뿐더러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십상 팔구다.더구나 인심이 효박하고 악착하여지어 의리보다도 이를 따르는 이대인 것을 정수는 잘 안다.

무론 윤 사균은 그렇게 살짝 남의 공을 빼앗고 그 대신에 죄를 뒤집어 씌울 사람은 아니

다. 그것은 의기남아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껍이 없어서, 정수의 생각을 빌면 못나서 그런 것이다. 허구 많은 사람에 윤사균을 김 정수가 택한 것이 이 때문이다.

“내가 영감을 의심할 리야 있소이까. 의심 아니하길래로 이런 참 대사를 의논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마는 매사는 튼튼히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니까.”

하고 또 잠간 주저하다가,

“분명 영감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실 테요?”

하고 한 번 다진다.

구미가 대단히 동한 윤 사균은,

“저버리다니 말이 되나. 어서 말을 하소. 그래 누가 또 역모를 한단 말인가.”

하고 애원하는 빛을 보인다.

그제야 정수는 사균의 귀에 입을 대고,

“송현수(宋玟壽).”

하고 한 마디를 붙어 넣는다.

“응?”

하는 사균의 눈에는 웃음이 있다.

“그래 송 현수가? 응 그럴 일이야. 그래 누구허고?”

정수는 대답이 없다.

“언제 거사하기로?”

하고사균이 재치어 물어도 정수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정수는 이 자리에서 윤 사균엑 다 말해버리는 것이 아무리하여도 공을 빼앗길 염려가 있는 까닭이다.

“영감, 그렇게 없소. 나허고 신찬성(申贊成)댁으로 가십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승정원(承政院)으로 바로 가든지 이 자리에서 영감한테 말씀해도 좋지마는 이목이 번거하지 같이 나가 시지.”

하고 정수가 먼저 일어선다.

사균은 정수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이 껄뻘하게는 생각하였으나 또한 무가내하다. 김 정수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날아 들어오는 부원군 첩지를 몰아내는 셈이라고 생각하여 사균은 정수를 따라 나섰나.

신 숙주에게로 갈까, 바로 대궐로 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내궐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왕 세울 공이면 신 숙주를 새에 내어 세울 것도 없었고 또 요사이 역모를 고발하는 일이면 당상관만 되면 아무 때에나 예궐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송 현수가 왕을 시(弑)하고 상왕을 복위하려는 음모를 한다는 말과 매양 권완(權完)이가 받들게 송현수를 찾아와서는 늦도록 있다는 말과 송 현수 부인 민씨가 상왕과 내통한다는 말과 기타 김 정수가 그럴 듯하게 지어낸 말을 입직 승지에게 고하였다.

왕은 누구든지 송 현수, 권 완의 무리를 없이할 죄목을 갖다가 바치기를 기다리던 터이라 내전으로 사균을 불러들여 자세한 말을 들으시고 누가 이 역모를 알아내었느냐고 물으실 때에 사균은 하릴없이 김 정수의 이름을 아뢰었다.

왕은 사균과 정수에게 술을 주라 하시고 즉시로 대관을 궁중으로 부르시고 일변 금부에 명하시와 판돈녕(判敦寧) 송현수(宋玟壽), 판관(判官) 권완(權完)을 잡아 오라 하시었다. 궁중에는 등불이 휘황하고 또 친국이 있다고 법석이었다.

사균과 정수는 의기 양양하여 승정원에 앉아서 떠들었다.

왕이 사정전(思政殿)에 남시와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 우의정(右議政) 정창손(鄭昌孫), 좌찬성(左贊成) 신숙주(申叔舟), 좌참찬(左參贊) 권람(權攄),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 병조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 예조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 영종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인손(李仁孫), 공조판서(工曹判書) 양정(楊汀), 이조판서(吏曹判書) 한명회(韓明澮), 도승지(都承旨) 구치관(具致寬), 우승지(右承旨) 조석문(曹錫文), 우부승지(右副承旨) 권지(權識),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들을 부르시와 송현수(宋玪壽), 권완(權完)의 역모를 말씀하시고 제신의 뜻을 물으시었다.

“송 현수가 불측한 뜻을 품었다는 말은 들은지 오래되 상왕의 낯을 보아 지금껏 붙지 아니하였으니 감격하여 마땅하거든 제가 부녀들의 말에 혹하여 상왕과 통하여 이런 불쾌를 도모한단 말인가. 가증한 일이다.”

하시고 왕은 은근히 상왕과 대비와 송 현수 부인 민씨도 동죄인 것을 비추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제신에게 암시하였다.

영의정 정 인지는 백관을 대신하여,

“송 현수, 권 완의 죄는 만사무석이요.”

하고 아뢰었다. 무론 아무도 감히 이 말에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이윽고 여량 부원군 송 현수와돈녕부 판관 권완이 들어온다. 그들은 불들려 오는 것이지 마는 관복을 갖추었고 결박도 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여기도 왕이 상왕의 친척을 존중하는 모양을 보인 것이다.

송 현수와 권완은 왕께 배례도 아니하고 읍하지도 아니하고 도승지 막 원형이 지정하는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그들은 모든 일은 다 안 것이다.

왕은 크게 진노하시와,

“네 어찌 내 앞에서 읍하지 아니하고 부복도 아니하고 뺏뺏이 섰단 말이나.”

하고두 사람을 노려보신다.

“지금까지는 후일을 바라고 나으리 앞에서 허리를 굽혔소마는 이제 상왕을 회복지도 못하고 나으리 손에 죽는 마당에 허리를 굽혀 무엇하오? 내가 살아 있고는 나으리가 잠을 편히 못잘 모양이니 잘 되었소. 어서 죽여주오.”

하고 송 현수가 왕을 바라본다.

“권 완이 너는?”

하고 왕이 권 완에게 물으시니 권 완은 소리를 가다듬어,

“나는 죽어서 지하에 선조를 대하기가 부끄럽소. 나으리 같은 무도한 역신을 진멸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앉았다가 불들려 죽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렇게 나으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면 나으리는 천주 만세에 복락이 무궁할 듯하지마는 머리 위를 보시오. 창천이 무심하실 리가 없으니 나으리가 가슴을 두드리고 죄를 뉘우칠 날이 멀지 아니하리다.”

하고 왕을 노려본다. 키가 작은 권완의 음성은 쉼소리와 같이 울리었다.

왕은 분하심을 참지 못하시와,

“두 놈을 결박하고 때리라.”

하는 영을 내리신다.

도승지 구 치관이 무사를 부르니 모두 한 명회의 심복이라 달려들어 송 현수와 권완의 사모를 벗기고 품대를 끄르고 두 손을 뒷집을 지워 결박을 한 뒤에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입을 때리니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진다. 얼마큼 때려서 두 사람이 정신없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

시고야 왕이 겨우 노하심을 진정하시었다.

“네가 역모를 할 때에는 상왕과 통모를 하였겠다?”

하고 두 사람이 다시 정신이 들 만한 때에 왕이 송 현수에게 물으신다.

“내가 역모하는 줄은 나도몰랐으니 상왕이 아실 리가 있소. 죽이려거든 내나 죽일 것이지 상왕까지 죽이려 하시오? 아스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더욱 불충일뿐더러 골육상잔이 아니요.”

하고 송 현수가 고개를 흔든다.

송 현수와 권완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전에서 발한 이 불공한 말만 하여도 걸형을 당하기에 넉넉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밤이 깊었으니 명일을 기다려서 죽이기로 하고 밤동안 그부에 내리어 가두라 하시었다. 정 인지, 신 숙주의 무리는 당장에 그 무리를 박살하지 아니하는 것이 망극한 성은이라고 칭송을 올리었다.

송 현수와 권완과 그 부인들과 자손들이 멸망을 당한지 나흘 되는 유월 이십 육일에 왕은 교지(敎旨)를 내리시와 상왕의 어머니시오, 왕자에게는 형수님이시오 문종 대왕의 왕후이신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를 폐하여 서인을 만드시었다. 현덕 왕후는 돌아가신지가 벌써 십 칠년이 되신 양반이다.

이것도 역시 정 인지, 신 숙주의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표면 이유는 현덕 왕후의 친정 어머니 되는 화산(花山) 부원군(府院君) 부인(夫人) 최씨(崔氏)가 역모에 걸려서 죽었거든 그딸 되시는 현덕 왕후가 어찌 감히 종묘에서 제향을 받으랴 함이지마는 기실은 상왕을 옥보이자는 것이 목적이요, 정가, 신가의 생각에 상왕을 옥보이는 것은 곧 금상을 기쁘게 함이었다.

이날 왕은 특별히 상왕께서 종묘에 참배하시기를 허하시었다. 무슨 영문을 모르시는 상왕과 대비께서는 첫째로 오래간만에 문 밖에 나오시는 것이 좋았고, 둘째로는 슬픔 많고 외로우신 몸이 평소에 사모하옵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위패 앞에 뵈옵 것이 기쁘시었다.

상왕이 타신 남녀(그것은 연이 아니요 남녀였다)가 종로로 지나갈 때에 그 어른이 상왕이신 줄 아는 백성들은 뒤를 우러러 뵈옵고 울었다. 그렇게 이렇게 초초하게 가시는 어른이 이전 왕이시던 상왕이시라고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아니하였다.

상왕이 종묘에 들신 때에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이 왕명을 받아가지고 문종 대왕의 위패를 모신 독에서 현덕 왕후의 위패를 메어내어 상왕이 보시는 곳에서 뜰로 뻗 내려던지니 둘러섰던 군사와 궁노들이 발길로 그 위패를 차서 굴린다.

상왕은 신도 안 신으시고 뒤에내려,

“나를 차거라, 나를 차거라.”

하시며 흙 묻은 위패를 가슴에 안고 기색하시어 땅에 쓰러지시었다.

그러나 상왕은 그 위패를 보호하실 힘이 없으시었다. 군사들은 기색하신 상왕의 품에서 그 위패를 빼앗아 도끼로 산산조각에 깨어서 아궁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튿날 이십 칠일에 왕은 마침내 상왕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한다는 교지(敎旨)를 내리시었다---

허두에 ‘성 삼문의 말이 상왕이 그 일에 참여하였다 하므로 종친과 백관이 모두 아뢰기를 상왕이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서울에 편안히 있지 못할지라 하니 하였다. 성 삼문이 그런 말 한 일은 없지마는 성 삼문의 입으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심히 필요한 일이다.

“내 어찌 차마 사사로운 은정으로써 큰 벌을 곱히며 하늘이 명하는 바와 송사의 중함을 돌아보지 아니하랴.”

하여 부득이 종친과 백관의 청을 들어 상왕을 노산군으로 하고 영월로 내려가시게 한다는

것이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여 영월로 가시게 하는 일에 대하여 종친과 백관이 함사(含辭)라 하고 개월이라 한 것은 노상 없는 말이 아니다. 종친 중에는 임영대군이 왕의 편이 되어서 종친이 나서야 할 때에는 항상 앞장을 섰다.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집안의 어른이지만 그는 성 삼문 사건을 듣고는 소리산(所利山)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서울에만 있다면야 억지로라도 이번 일에 필두가 되어야 말았을 것이다. 임영 대군은 왕의 친 아우님이요, 노산군에게는 마찬가지로 숙부다.

또 백관 중에서는 무릇 네 번 상왕을 서울에서 내어쫓자는 상서가 있었다. 그 출천한 충성을 만세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향기로운 이름을 아니 기록할 수 없다. 첫 번은 정인지(鄭麟趾), 정창손(鄭昌孫), 신숙주(申叔舟), 황수신(黃守身) 등이 의정부의 이름으로 계목한 것이니 그 글의 요지는,

---이라 한 것이나 왕은 ‘不’이라 하시었다.

둘째는 권람(權攄), 이인손(李仁孫), 박중손(朴仲孫), 홍달손(洪達孫), 성봉조(成棒組), 김하(金何), 박원형(朴元亨), 어효첨 등이 옥조 이 몸으로,

---라 한 것이니 역시 왕은 ‘不’하시었다.

셋째번은 다시 정 인지, 정 창손, 신 숙주 등이 정부 이름으로

---라 한 것이니 이것은 심히 간절한 청이다. 비록 친부자 간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내어쫓을 것이어늘 하물며 그까진 조카라. 어서 내어쫓으시와 왕의 자리를 굳히소서 함이다. 이에 대하여 왕은,

---이라고 불운하시고 또 계목하였으나 불운이라 하시었다.

다음에는 대사헌(大司憲) 안숭효(安崇孝), 좌사간(左司諫) 권개(權愷) 등이

---라 하였다. 이 계목 중에는 ‘不’라는 문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서도 왕은 불운이라 하시었다. 이만하면 왕이 상왕을 아끼시는 성덕을 보이기에 는 넉넉하였다. 아무도 감히 상왕의 존호를 폐하고 강봉하자는 말을 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왕의 생각에 꼭 답답하였다. 상왕이라는 존호를 가지신 대로 서울에서 내쫓는다 하면 듣기에 매우 좋지 못하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상왕의 존호를 잃고 목숨까지도 잃어야 옳을 것을 왕의 바다 같은 성으로 목숨 하나는 용서함을 받아서 시골로 가시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아무리 왕이 상왕에게 호의를 보이신다 하더라도 상왕의 바로 눈 앞에서 그 어머니의 위패를 욕보이시었으니 아무도 왕의 호의를 알아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러나 이리하여 왕은 첨지(僉知) 어득해(魚得海)와 금부도사(禁府都事) 왕방연(王邦衍)을 명하여 노산군을 강원도(江原道) 영월부(寧越府)로 호송하게 하시고 군자정(軍資正) 김자행(金自行), 내시부사(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을 종행하게 하시었다.

노산군(魯山君)이 서울을 떠나시는 날---병자 유월 이십 팔일, 노산군이 계시던 금성 대군 궁은 초상 난 집과 같았다. 노산군은 비록 대장부의 기개를 보이시어 울음을 참으시거니와 부인 송씨와 본래 후궁이었고 지금은 무엇이라고 부를 만한 칭호조차 잃어버린 권씨와 김씨, 세분은 기색하기를 몇 번을 하다시피 애통하였다. 그까진 국모의 지위를 잃고 대궐에서 쫓겨나시던 것 같은 것은 생각할 새도 없다. 낳아 주신 부모(송 현수 부처)가 살육을 당한지 이렛만에 남편 되시는 어른을 살아 영이별 하는 설움---인생에 이에서 더한 설움이 또 있을까.

권씨도 이번에 그 아버지 권완(權完)과 몇 일족의 도륙을 당하였다. 권씨는 송씨와 같이 노산군을 따라 영월로 가려 하였으나 왕은 이를 허하지 아니하시었다. 그 허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밖에서 전하는 말은 아이를 낳으실 것을 염려하심이라고 한다. 아이가 난다 하면 살려 두게 되더라도 후환이 있을 것이요, 죽어버릴 계제가 되더라도 귀찮을 것이니 차라리 내외 한테 있지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중사에 큰 죄인이 목숨만 부지하는 것도 어분에 과의 어든 술권이 말이 되요.”

하시는 것이 한 확의 노산군을 위한 간청에 대한 왕의 대답이었었다.

이날 왕은 내시 안로(安路)를 시키어 화양정(華陽亭)에 약간 잔치를 베풀고 노산군을 전송하게 하였다.

안 로는 노산군에게 술을 권하며,

“나으리, 이게 웬 일이시오?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으시건마는 성 삼문 때문에 애매히.”

하고 동정하는 듯이 노산군의 눈치를 보았다. 이것은 왕이 노산군의 입으로 성 삼문의 역모를 알았다는 말씀을 들어오라 하신 까닭이다.

“소인에게야 무슨 말씀은 못하시오? 성 삼문이 나으리께 그런 말씀을 아뢰입더니까?”

하고 늙고 교활한 안 로는 더욱 간전히 물었다.

지존의 지위를 아끼고 죄인의 몸이 되어 혈혈 단신으로 서울을 쫓겨나시는 노산군은 예전 당신의 신하들 중에 한 놈도 따르기는커녕 나와 뵈옵지도 아니할 때에 안로가 그래도 전별하는 정을 보이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고마워하시다가 이러한 말을 묻는 것을 보시고 패썹하여,

“이 늙은 여우놈아, 물러나거라.”

하시면서 술잔을 들어 안 로의 면상을 때리시었다. 잔이 안 로의 코허리를 치어 빨강게 피가 흘렀다.

노산군이 다 늙은 남녀를 타시고 종로를 지나 동대문으로 나가실 때에 장안 백성들은 길가 땅바닥에 엎드리어 울고 배웅을 내었다.

“우리 상감마마 어디를 가시오?”

하고 소리를 내어 외치다가 관노들의 손에 입을 얻어맞는 순박한 늙은이도 있었다.

장마는 걷었으나 무시로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별만 났다 들었다 하였다. 별만 나면 길가 풀잎이 시들도록 날이 더웠다. 말복이 엇그제 지나지 아니하였는가.

참지(僉知) 어득해(魚得海)가 앞을 서고 군사 오십명을 두 대에 갈라 앞 뒤에 서게 하고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 왕방연(王邦衍)은 날쌔 나줄 네명으로 더불어 노산군의 바로 뒤에 말을 타고 따라섰다. 군자정(軍資正) 김자행(金自行)과 내시부사(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도 항상 노산군 남녀 곁으로 말을 몰았다.

군사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또 몸에 밥과 떡을 지니어 길 가면서도 시장하면 내어먹었으나 노산군은 그저께 종묘에서 그 욕을 당하신 뒤로 거의 조식을 폐하시나 다름이 없고, 오늘도 아침에 궁을 납실 때에 부인이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미음을 잡수신 뿐이어서 해가 낮이 기울 때쯤 하여서는 시장하시고 기탈하심을 금할 수 없으시었다.

혹시 주막에 쉬어 육십명 일행이 막걸리 한 잔이라도 다 사 먹을 때에도 노산군에게는 냉수 한 모금도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도허기가 지고 목이 마르시므로 곁에 따르는 홍득경(洪得敬)을 부르시어 잡수실 것을 청하시면 그는,

“아 왜 이리 급하시오? 나으리 잡수실 것은 영월부에 가야 있지요.”

하고 말조차 버릇없이 거절하였다.

“이것도 왕명이나.”

하고 노산군이 소리를 높이면,



“명대로 아니하거든 걸려서 압송하십시요. 암말 말고 가만히 계시오.”

하고 침지 어득해가 호령을 하였다.

이 모양으로 점심 수라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기나긴 여름 햇발도 벌써 석양이 되었다. 사십리 길을 걸어 양주(楊洲) 의정부(議政府)에 거의 다다랐을 적에 어떤 사람 하나가 마주 오다가 노산군 행차를 만나 길을 피하고 있었다. 그는 곧 양성(陽城) 사는 차성복(車猩腹)이었다.

행차가 다 지나가도록 성복은 그가 누구 행차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후배더러,

“어느 행차시오?”

하고 물었다.

“노산군이요.”

하고 후배 군졸하나가 대답한다. 군사들도 더위와 먼길에 피곤하였다.

“노산군이라. 노산군이 누구시오?”

하고 성복은 의아하여 다시 물었다. 일찍 노산군이란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또 이렇게 오십 여명 군사가 따를 때에는 여간한 양반이 아닐 듯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남녀 속에 앉은 이의 의표가 비범하였음이다.

“상왕이라면 알겠나. 상왕이 인제 노산군이라오.”

하였다. 상왕이라는 말에 차 성복은 무릎을 굽히고 땅바닥에 엎드리었다. 상왕께서 마침내 높으신 지위를 잃으시고 어느 시골로 떨어지시는가 하고 성복은 황송한 생각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윽고 앞으로 지나가신 행차를 바라보고 한탄하고 있는 즈음에 어떤 행인 이삼인이 지나가며 하는 말이 들린다---

“온종일 수라를 안 올렸대.”

“온종일이 무엇인가. 영월부에 가시기까지는 일체 잡수실 것을 올리지 말라고 전교가 내려다네.”

이러한 말이다. 설마 영월부까지 가시도록 잡수실 것을 드리지 말라는 전교야 내려오라 (그것은 알 수 없는 말이다.)마는 이러한 소문은 어디서 난지 모르게 장안에도 퍼지고 행차가 지나가는 노변에도 퍼지었다. 그것은 온종일 길을 가도 군사와 나줄들까지도 다 주식을 먹건마는 노산군께 무엇을 올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증명하게도 되었다. 군자정 김 자행과 내시 홍 득경이 행차를 따르는 것은 노산군이 어떻게 대접을 잘 받으시나 하는 것을 염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학대를 받으시나 하는 것을 감독하려는 것이다. 만일 홍 침지나 왕도사나가 설혹 노산군께 좋게 하여 드리려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 두 사람의 네 눈망울이 무서워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금부 도사 왕 방연은 노산군께 대하여 그 욕한 충성과 동정을 가지고 있어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이 차마 목에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 그러나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행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복은 나귀를 돌리어 행차 뒤를 따랐다.

행차가 의정부에 들때 처음에는 백성들이 웬 일인 줄을 잘 모르다가 차차 이 양반이 어린 상감님으로서 삼촌님한테 쫓겨나서 영월로 귀양 가시는 길인 줄을 알게 되매 모두 동정하였다. 다만 군사와 관인들이 무서워 입 밖에 내어서 말을 못할 뿐이었다.

노산군 숙소는 어떤 주막 안채에 정하고 그 사랑채에는 침지(僉知) 어득해(魚得海), 도사(都事) 왕방연(王邦衍) 내시부사(內侍府事) 홍득경(洪得敬), 군자정(軍資正) 김자행(金自行)이 들었다. 주막집이란 안채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차 성복은 일행이 다 들고 남은 주막을 택하여 사처를 정하였다. 성복은 주인 노파엑 명하여 백설교 한 시루를 찌라 하였다. 그리고 성복은 행장에서 원산(元山)서 가지고 오던 대구어 수십 마리를 꺼내어 잘게 찢기를 시작하였다. 노파는 이 손님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고 하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성복은 떡과 대구어 뜯은 것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노산군 사처로 찾아갔다. 군사들도 다 피곤하여 잠이 들고 성복의 발자취 소리가 날 때마다 개들이 쿵쿵 짖는다. 여름 그믐 밤은 지척을 분별할 수 없도록 캄캄하고 벌써 가을이 가깝다고 벌레들이 울고 먼 논에 개구리 소리도 들렸다.

길가로 향한 대문은 걸었으나 개천으로 향한 뒷사립 문은 방싯 열린 대로 있다. 초저녁에는 거기도 군노 한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하더니 그들도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성복은 발자취를 숨기어 안마당으로 들어왔다. 노산군이 어느 방에 드신 것은 미리 노파를 시켜 알아도 보았거니와 그 방이 안방에는 문이 닫히고 희미하게 불이 비치었다.

성복은 문을 들어섰다.

이때에 노산군은 자리에 누우시어 부채로 모기를 날리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가 불의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 앉으시나 말씀은 없으시었다. 혹시 자객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시었다. 노산군 생각하시기에 결코 이 길을 무사히 가서 영월 구경을 할 것 같지 아니하시었다 중로 어느 주막에서 필시 살해를 당할 줄로 생각하시었던 것이다.

성복은 손에 들었던 것을 앞에 놓고 노산군 앞에 부복 하였다.

“무엄하온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오나 오늘 상감마마 노중에서 수라 못 잡수신 말씀을 듣삽고 소신이 시루떡과 대구어 자반을 바치오니 내일 가시는 길에 행리 속에 감추시었다가 내어서 잡수시옵소서.”

하는 성복의 음성은 울음으로 끝을 막았다.

노산군은 저녁을 잘 잡숫지 못하시어 정히 시장하시던 때라, 성복이 올리는 뭉치를 손수 끄르시어 아직 김이 나는 떡을 떼어입에 넣으시고 맛나게 잡수시며,

“오, 네 충성이 가상하다.”

하시고 눈물을 머금으시며,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시었다.

성복은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어,

“소신은 양성(陽城)사읍는 차 성복이요.”

하고 아뢰다.

“머리를 들어 나를 보라.”

하시는 말씀에 성복이 황송하여 약간 고개를 들어 노산군을 우러러보오니 비록 초췌하시나 용안의 아름다우심이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아니하시다고 생각하였다.

“물건은 네 붉은 정성이니 잊지 못하리라. 나는 아마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요, 또 죽어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만일 혼이 있으면 네 집에 가서 의탁할는지 어찌 아느냐.”

하시고 심히 감개가 많으시다가,

“여기 오래 있을 데가 아니니 어서 나가거라.”

하신다. 혹시 들키면 성복에게 무슨 화가 있을가봐 두려워하심이었다.

성복은 부엌을 더듬어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드리고 숙소로 물러나왔다. 후에 노산군이 죽임을 당하신 뒤에 성복의 꿈에 익선관, 곤룡포를 입으신 단종 대왕(노산군)께서 나타나시어, ‘내가 네 집에 의탁하러 왔다’하시므로 성복은 기일마다 시루떡을 쪄 놓고 제사를 드렸고 성복이 죽은 뒤에도 대대로 제사를 계속하여 숙종 대왕때 단종 대왕을 복위하신 때까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비에 젖고 별에 글어 칠월 초생달 빛에 두견성이 슬피 들릴 때에 하늘에 사무치는 한을 품으신 노산군은 마침내 영월부(寧越府) 청령포(淸伶浦) 적소에 도착하였다.

청령포는 영월부의 서쪽 서강(西江)가에 있는 조그마한 동리다. 남, 서, 북이 모두 산이요, 동으로는 서강을 건너 영월부중이 바라보였다.

삼면 산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항상 구름이 머물고 앞으로 흐르는 서강을 소리는 밤새도록 끊일 줄을 몰랐다.

노산군 계실 곳으로 정한 것이 수풀 속에 있는 촌가 서너채. 그 중에 한 집이 노산군 계신 곳이요, 다른 집들은 노산군을 지키는 군사와 궁노들의 숙소다. 군사 이십 명, 궁노 십명, 후에 따라온 궁녀 여섯 명, 내시 두명, 모두 이만하였고 또 영월부에서도 날마다중군, 천총이 거느린 십여 명 군사와 형리와호장이 나와서 다녀갔다.

노산군이 계신 집은 나무 조각으로 지붕을 인 침침한 집이었다. 뒤꼍은 바로 산에 연하여 밤에는 밤새, 낮새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었다. 부엌에 연한 이간 방에 가운데 장지가 있어 새를 막고 아랫방에 노산군이 계시고 옷방 하나에 궁녀 여섯이 살았다. 처음 노산군이 떠나 오실 때에는 궁녀도 내시도 없었으나 사 오일 후에 상왕 전에 모시던 궁녀들 중에 넷은 예전 대비, 지금 노산군 부인 송씨를 따르고 여섯은 천리 머나먼 길에 옛 주인을 따라온 것이다. 왕도 그것까지는 막지 아니하시었다. 내시 두명도 이 모양으로 온 사람이다. 뒤에 정 인지가 알고 궁녀가 따라와서 노산군을 모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누차 왕께 아뢰었으나 왕은 인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뒤에 신 숙주가 또,

“노산군이 종사의 죄인으로 천지에 용납지 못하려든 궁녀와 탄관이 수종한다. 하옵고 또 범절이 너무 호사하오니 유사에게 명하시와 자의로 따라간 궁녀와 환관을 엄벌하시고 범절을 줄이도록 하심이 마땅한가 하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성습이 되어 차차 무슨 폐단이 생길는지 알 수 없사온즉 화단을 미연에 막으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고 아뢰었으나 왕은 머리를 흔들시고,

“버려두라.”

하시었다. 아무려나 이리하여 평소에 모시던 궁녀들이 노산군의 좌우에 모시게 되었다.

노산군이 서울을 떠나시와 영월 청령포까지 오시는 오륙일 길에 노산군을 모시던 사람들은 다 노산군이 인자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계시더라도 제왕의 위덕을 조금도 손상하심이 없으신 것을 뵈옵고 깊이 감동하였다. 시장하시거나 목이 마르시거나모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새우시거나 좌우에 모시는 무지한 무리들이 무엄한 언동을 하거나 노산군은 한 번도 불쾌한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시었다. 그래서 따르는 자들은 조금이라도 이 가련하신 옛 임금의 불편하심을 덜어 드리려고 마음으로는 애를 쓰나 서로 무서워서 감히 남의 눈에 뜨이게 도와 드리지는 못하였다. 만일 노산군에게 충성된 빛을 보이었다가 그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함이다. 그래도 차차 산간의 맑고 찬 샘물을 떠다 드리는 이도 있고, 비에 젖은 뽕딸기를 따다가 드리는 이도 있고, 주막에서 밤중에 일어나 모깃불을 피워

드리는 이도 있었다. 그러면 노산군은 언제나 비록 조그마한 호의라도 가상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표를 보이시었다. 그것은 혹은 빙그레 웃으심으로, 혹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심으로 표시하였으나 일체 말씀은 하시는 일이 없으시었다.

이렇고 노산군은 따르는 군사들의 사모함을 받으시었다. 그 중에도 금부 도사 왕 방연은 가장 감동 받음이 컸다. 그는 노산군을 청령포에 모시어 가두고 사흘만에 서울로 회정할새 떠나기 전날 밤에 차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넷가에 앉아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천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이 마음 둘 데 없어  
넷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안 같도다  
울며 밤길 예노매라.”

이 날 밤에 잠 못 이룬 이는 금부 도사만이 아니었다. 방연은 아무도 듣는 줄 모르고 부른 노래언마는 이때까지 잠 못 이루고 계시던 노산군이 들으시고 곧 궁녀를 불러 이 노래 부르는 이가 누군가 알아 올리라 하시었다.

그러고 그것이 금부 도사 왕 방연인 줄을 들으시고 더욱 감개무량하시었다.

이튿날 금부 도사 왕 방연은 노산군께 뵈옵고,  
“소인 올라가요.”

하고 하직을 아뢴다. 마땅히 소신(小臣)이라고 일컬어야 옳을 처지에 소인(小人)이라고 일컫기가 왕 방연의 마음에 심히 괴로웠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노산군은 대군도 못되시고 군이시니 소인이라고 일컫는 것도 과한 대접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관인들은 다 노산군에게 칭소인하고 다만 궁녀들과 내시들만이 옛날 말대로 칭신을 하였으나 아무도 이것까지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오, 가느냐. 애썼다.”

하시느 노산군의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그러나 곧 위의를 정제하시고,

“애썼다. 상감 뵈옵거든 내 잘 왔다 아뢰고 거처가 좀 협착하나 수석이 좋으니 다행일려라고 아뢰어라.”

하시고 망연히 무엇을 잃으신 듯하시다.

“소인 물러가요.”

하고 왕 방연은 그래도 차마 떠나지 못하여 노산군 앞에 엎드린 채로 이윽히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소인 물러가요.”

하고 한 번더 하직하는 절을 드리고 물러날 때에 노산군은,

“오, 애썼다.”

하시고 궁녀를 시키어 금부 도사에게 술을 주라 하시었다. 왕 방연이 지난 밤에 부른 노래 한 머리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뒤에 남아 있는 여러 사람의 속에 맺게 하였다.

청령포에 오신지도 벌써 십여 일이 넘어 칠월 백중절을 당하였다. 이때에도 아직 신라(新羅)와 고려(高麗)에서 불도(佛道)를 숭상하던 유풍이 많이 남아서 칠월 백중이 되면 서울이나 시골이나 관가와 민가에서 열 나흘, 보름 열 엿새 사흘동안을 쉬고 새 옷을 갈아 입고 절에 가서 우란분회(盂蘭盆會)에 참여하며 혹은 집에 중을 청하여 각각 제 조상과 돌아갈

곳 없는 무연(無緣)한 혼령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제를 올리고 또 조상의 산소에 가 성묘하고 지전을 불살랐다.

노산군을 모시는 궁녀들 중에는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거니와 그들은 궁중에 있는 동안에 다 불도를 존숭하였고 또 지나간 몇 해 동안에 하도 세상의 변천과 수없는 인명이 초로같이 스러지는 것을 보아서 인생의 무상을 느낌이 심히 간절하여서 더욱 염불을 외우고 진언을 염하는 일이 성풍이 되었다. 더구나 일찍 한 나라의 지존이시던 양반이 보잘 것 없이 비참한 처지에 계시게 된 것을 뵈옵는 그들은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여 왕색극락을 하거나 그것은 못하더라도 한 번 더 인생에 태어나 금생에 맺힌 무궁 무진한 원한을 풀어보거나 할까 하는 생각이 아니 날 리가 없다. 또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옵는 ‘상감마마’(노산군)를 위하옵는 길도 내생 복락이나 빌어 드리자 하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래서 이 궁녀들은 백중을 차리기를 결심하였다. 떡가루를 빵자니 방아가 있나, 떡을 찌자니 시루가 있나, 도라지, 고비, 고사리가 산에 가득하건마는 일찍 산 것을 보아 본 사람이 궁중에 있을 리가 없으니 캐어올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늙은 궁녀가 인근 민가로 다니며 없는 기구와 물재를 빌어오기로 하였다. 민가에서 기쁘게 빌릴뿐더러 기름, 차조, 옥수수, 버섯, 송기, 열무, 땃나물, 오이, 참외, 수박, 가지, 풋고추 등속을 나도 나도 하고 들고 와서 수두룩하게 헛간에 쌓이게 되었다.

등도 많이 만들었다. 떡도 찌고 나물도 삶았다. 후원 늙은 소나무 밑에 단을 모아서 제단을 삼았다. 이 제단은 평시에는 노산군이 나와 앉으실 데라고 생각하면서 정한 황토를 깔았다.

이날 별은 났으나 몹시 무더웠다. 첫가을다운 새파란 하늘이 보이면서도 여기저기 때때로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 올랐다. 오늘 밤에 비나야니 오려나 하고 궁녀들은 들며 나며 구름머리를 바라보았다.

밤이 들어 조그마한 등들이 달리었다. 냇물에 띄워 보낼 등들도 동글동글하게 쌓이어 있었다. 환하게 달이 떠올라서 지나가는 구름장 속에 들락날락하였다.

제단에는 두를 병풍이 없어서 정면에 기둥 두 개를 세우고 거기 널빤지 하나를 가로 건너매고 커다란 종이에 다가 길게 지방을 써서 붙이었다. 이 지방은 노산군이 손수 쓰신 것이다. 첫머리에 삼생부모영가(三生父母靈駕)라고 쓰시었다. 이것을 쓰실 때에가장 간절히 생각난 이는 조부 되시는 세종 대왕과 아버지 문종 대왕이시거니와 금생에 한 번 대면해 뵈옵지도 못하시고 또 일전에 종묘에서그 위패까지도 철퇴함을 당하신 어머니 현덕 왕후 권씨를 생각할 때에는 피눈물이 솟음을 금치 못하시었다.

다음에 쓰신 이는 조모도 되고 어머니와도 같은 혜빈 양씨와 그 세 아드님. 그 다음이 안평 숙부 부자, 그 다음이 아버지 향렬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화의군(和議君) 영, 다음에 황보인, 김 종서, 정 분, 허 후 등 제유정란 때에 죽은 사람들을 쓰고 또 그 다음에는 성 승, 유 응부, 박정, 성 삼문, 박 팽년, 이 개, 하위지 등을 쓰시고 다음에 외조모와 외숙 권자신의 패를 쓰시고 다음에 장인 장모 되는 송 현수 부처를 쓰시고 나중에 노산군의 유모 이오(李午) 부처를 쓰시고 나중에 대자로 충혼원혼영가(忠魂冤魂靈駕)라고 쓰시었다.

이것을 쓰실 때에 감개가 무량하시었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정성으로 이 모든 충혼, 원혼을 부르시는 슬프신 뜻이 촛불에 어른어른 비치인 그 필적에 드러났다.

노산군은 친히 이 제사에 참여하시지는 아니하시었고 다만 궁녀들끼리만 제사를 지내었다. 그렇지마는 친필로 위패를 쓰시었으니 친제하심이나 다를 것이 없다.

노산군은 외관을 정제하시고 방에 홀로 앉으시어 지난 일 이제 일을 생각하실 제 후원에서 늙은 궁녀가 축원하는 소리가 들린다. ‘왕생극락’, ‘천추만세’ 같은 구절이 수 없이 들린다. 혼령더러는 왕생극락하라고 비는 것이요, 우리 임금(노산군)은 천추만세나 사시라고 비는 것이다. 축문을 지어 읽을 만한 한문의 힘도없고 또 푸념, 덕담을, 할 만한 무당의 구변도 없는 그들은 그저 같은 소리를 뇌고 뇌고 할 뿐이었다. 중얼중얼하다가 왕생극락, 천추만세, 상감마마 이러한 소리가 크게 들린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합창이 들리는 것은 제사가 다 끝이 나는 모양이다.

이때쯤부터 투드럭투드럭 뜰배나무 잎사귀에 굵은 비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이 순식간에 천명만마를 몰아오는 듯한 큰비가 되어 순식간에 마당에는 무릎이 잠기도록 물이 괴었다. 아뢰와 번개와 빗소리와 갑자기 불어서 미처 내려간 길을 찾지 못하는 수 없는 시냇물 소리와 실로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였다. 불을 켜서 홀리려 하였던 등은 불도 아니 켜 채로 다 떠나가버리고 말았다.

궁녀들은 노산군 좌우에 둘러서서 무슨 벌이나 당하기를 기다리는 듯이 덜덜 떨었다.

어디서 우루루 하는 소리가 난다.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다, 궁녀들은 더욱 무서워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다.

부엌 뒷벽이 무너지고 그리로서 뒷산 물이 물결을 치고 달려들었다.

위험은 가까웠다. 노산군이 앉으신 방에도 뒷문으로 물이 들어오기를 시작하였다. 번쩍하고 한 번 크게 번개하는 빛에 보면 마당은 바다와 같이 붉은 물이 편하였고 뜰가에 섰는 뜰배나무와 느릅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어 풀 잎사귀 모양으로 번쩍번쩍 뒤집힌다. 그 광경은 여자가 아니라도 사내 대장부라도 무서운 만하였다.

마침내 노산군은 궁녀들을 데리시고 집을 떠나시었다. 군사들이 유숙하는 집에도 물이 들어서 이 청령포 온 동리가 떠나갈 지경이 되어 백성들은 늙은이를 끌고 어린 것들을 업고 퍼붓는 비 속으로 갈팡질팡 하였다. 이따금 번개가 크게 번쩍할 때에는 물이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속으로 부녀들과 아이들이 울고 헤매는 모양이 보이었다. 읍내로 통하는 사강 다리가 떠버린 것이다.

노산군은 어찌할 줄 모르는 궁녀들더러 산으로 가자 나를 따르라 하시었다.노산군 말씀대로 궁녀들은 산 있는 곳으로 길을 더듬었다. 경각간에 옷이 젖어서 몸에서 물이 흐르고 바람이 후려갈기는 빗발에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산 속으로 헤매기를 얼마 하였으나 무론 인가를 찾을 길도 없었다. 군사들도 저마다 저 살 길을 찾노라고 사산하고 어디로 간 줄을 몰랐다.

그래도 태연히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더위잡고 나아 가시던 노산군은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어찌 이리 덕이 박한고.”

하고 한탄하신다. 궁녀들은 이러한 처지에서도 노산군의 한탄하심을 듣고 눈물을 씻었다. 그러고 산길을 찾기 위하여 다시 번개가 번쩍하기를 기다렸다.

과연 노산군이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심이 끝나자 마자 서북편에 온 하늘이 모두 불빛이 되는 듯한 큰 번개가 일어났다. 이 무서운 큰 빛에 어둠에 잠기었던 산과 벌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일시에 눈에 보인다. 누우락 일락하는 나무들, 철사같이 휘음하게 하늘에서 내려 뻗은 빗줄기까지 역력히 눈에 보인다.그 통에 바로 수십보 앞 낭떠러지 밑에 잔뜩 붉은 물굽이가 불빛같이 보이고 그 위에 분명히 큰나무 하나가 가로 넘어지어 다리처럼 되어 있는 양이 보인다. 그러고는 번개가 씨물씨물 동편 하늘로 흘러가버리고 도로캉캉한 밤이되고 말았다.

노산군은,

“이리로 나가자.”

하고 손을 들어 그 나무 보이던 곳을 가리키시며 앞서 가신다.

번갯불에는 그렇게 지쳐같이 보이던 곳도 걸어가면 대단히 멀었다. 그러나천신만고로 마침내 물가에 다다랐다 거기는과연 수십척 돌벽루요, 어두운 속에도 그 밑으로는 바위라도부술 듯하게 급한 물살이 좁은 목을 넘노라고 비비고 틀고 용솟음 치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그 요란한 소리가 천지가 움직이는 듯하였다.

아까 번개 빛에 노산군이 보신 바는 추호도 틀림이 없었다. 이쪽 벼루 위에 섰던 큰 소나무 하나가 뿌리가 끊어지어 가로 누워서 그 머리를 저편 벼루에 걸치어 놓았다. 밑둥이 두아름은 될 듯하였다.

“천우다. 나는 죽어도 아깝지 아니한 몸이다마는 너희야 죽어서 되겠느냐. 자 건너가거라. 여기만 건너가면 읍내가 얼마 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읍내 가기 전에 빈가가 있을 터이니 사람 사는 곳에 인정 없겠느냐. 어서 건너가거라.”

하시고 노산군은 아니건너가실 듯한 빛을 보이시었다. 노산군은 이제 이 모양을 하고살아나실 뜻이 없으시어 무고한 궁녀들---당신을 따라 불원천리 하고아무 영광도 없는 곳에 따라온 그들이나 살길을 얻어주시고는 차라리 이밤에 몸을 던지어 이 세상을 버리자고 작정하시었던 것이다.

그러나 궁녀들은 노산군 앞에 꿇어 엎디어이 다리를 건느시기를 빌고 만일 아니 건느시면 자기네가 먼저 벼루에서 몸을 던지어 죽을 것을 맹세하였다.

이리하여 노산군은 무사히 읍내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다.

이 일이 있는 뒤로부터 관에서는 노산군을 청령포에 나가 계시게 하지 아니하고 객사동헌(客舍東軒)을 수리하고 거기 계시게 하였다.

새 감사가 올 때마다, 새 부사가 올 때마다, 또 서울서 갑자기 무슨 명이 내려오면 노산군을 대우함이 혹은 후하고 혹은 박하고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으나 영월 부중에 여기 저기 다니시는 자유까지는 빼앗는 자가 없었다. 영월 부사 중에는 노산군을 너무 잘 대접한다 하여 갈린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약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는 노산군에게 동정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노산군을 학대하는 양을 보이지 아니치 못하였다. 평시에도 금부진무 한두 사람이 늘 있을뿐더러 언제 경관이 무슨 명을 가지고 올지도 몰랐고 또 관속 중에서도 노산군에 관한 무슨 죄목을 찾아내어서 서울에 밀고하여 공명을 세우려는 놈이 없지 아니하였다.

이러하기 때문에 영월 부사로 내려오는 사람은 서울을 떠날 때에 벌써 근심거리가 되었다. 감사도 그러하였다. 노산군을 학대만 하자니 양심도 괴롭거니와 민심에 거스리어지고 후대를 하자니 왕이 무서웠다. 그래서 무서운 부스럼 모양으로 노산군은 아무쪼록 건드리지 않고 모르는 체하기로만 주장을 삼았다. 한둘이 매우 노산군께 까다롭게 굴어 관풍헌(觀楓軒), 자규류(子規榴), 금강정(金剛錠)같은 데 소풍 나가시는 것조차 이 핑계 저 핑계로 말쑥을 부리었으나 그 중에 한 사사가 갈려서 올라 가는 길에 돌팔매를 얻어맞고 죽인다는 위협을 받은 뒤로는 것처럼 까다로운 자도 없었다.

노산군이 영월 오신지도 반년이 넘어 지내어서 가을이가고 겨울이 가고 정축년 봄이 된 때에는 노산군을 감시하는 것도 전보다는 많이 해이해지고 구신(舊臣)들 중에 비밀은 비밀이지마는 찾아와 뵈는 이가 있는 것도 내버려 두게 되었다. 인제야 노산군이 무엇을 하랴. 백성들인들 무얼 노산군은 더야 생각할라고---이러한 심리도 아니 섞였는지 모른다. 사실

상 그렇게 전국 민심---초동 목수까지도, 아이들까지도,여편네들까지도 이를 갈게 흥분시키던 노산군 손외(遜外)도 지금은 얼마쯤 김이 빠지어버렸다.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끊임 새 없이 뒤대어오는 이 인생에서는 한 가지 슬픔이나 분함을 오래지녀 가기도 어려운 일이다. 슬픔과 분함이 들어와서는 낡은 그것들을 아주 잊어버리게 할 지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운이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그렇지마는 한 번 민심에 깊이 박혔던 슬픔이나 분함은 결코 영영 사라지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라도---마치 생나무에 낸 생채기와 같이 세월이 갈수록 꺾질은 비록 성한데 비슷하게 되더라도 속으로는 더욱 언저리가 커 가고 깊어 가는 것이다.

노산군 손외 사건에 대한 비동하던 민론이 적이 가라앉을 때가 되면 왕이 노산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때때로 솟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조카가 무슨 죄 있다. 성 삼문 사건에 노산군이 관계 아니하였을 것을 왕이 모를 리가 없다. 아무리 성 삼문이 어리석기로 그런 말씀을 성사도 되기 전에 어리신 상왕께 여쭙었을 리가 없다---이렇게 왕은 생각하신다. 다만 노산군의 오직 하나 큰 죄는 그가 왕 당신 앞에 임금 되신 것이다.

“내가 왕이 되자 하니 불쌍한 너를 죄를 씌워 내어쫓은 것이로구나.”

만일 왕이 면류관을 벗어 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 노산군과 삼촌, 조카가 되어서 만나신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못했다, 모두 내 욕심 탓이로구나. 풀의 이슬 같은 영화를 탐내는 욕심 탓이로구나.”

하시고 조카님에게 사죄하였을 것이다. 과연 이로부터 십년이 못하여 왕은 이러한 후회를 사실로 하게 된 것이다(그렇지마는 아직 왕이 지으실 죄는 관영하지 못하였다).

왕은 영월에 계신 조카님이시오, 예전 임금이시던 노산군을 생각하실 때에 긍축한 마음이 없지 아니하시어서 강원(江原) 감사(監司) 김광수(金光粹)에게, ---라 하신 명을 내리시었다.그리고 내시부(內侍府) 우승지(右丞旨) 김정(金淨)을 영월로 보내시어 노산군께 문안을 하시었다. 이것은 노산군이 과연 어떻게나 지내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첫 목적이라 하더라도 또한 어리신 조카님의 가슴에 맺힌 원한이 무시무시하여 그것을 조금이라도 풀어 보자는 것도 목적이 아님이 아니다.

여기는 노상 이유가 없지 아니하다. 현덕 왕후를 폐하고 노산군을 영월로 내어쫓은 후로는 매양 왕의 마음이 편안치 아니하시어 무서운 원혐이 원수 같은 칼을 품고 왕의 신변을 범하는 듯한 생각이 가끔 번개같이 지나가서 머리카락이 쭈뼛거림을 깨달으시는 때가 있고, 어떤 때에는 형수님 되시는 현덕 왕후가 원망하시는 눈으로 노려보시는 꿈을 꾸시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몸이 피곤하시거나편치 아니하신 때에 그러하였다. 꿈이 무어? 죽은 사람이 무어? 귀신이 나를 어찌해? 하시고 당신의 강한 운수를 믿으시면서도 무시무시하고 쭈뼛쭈뼛한 무엇이떠나지 아니하였다. 노산군께 문안을 보내시고 또 강원 감사에게 노산군을 편안히 하여 드리라는 분부를 내리신 것이 전혀는 아니라 하여도 일부분은 이 때문도 되었다.

강원 감사 김 광수는 이 명을 받아서 명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 하고 주저하였다.대개 왕이 비록 겉치레로 이러한 명을 내리시더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노산군을 위하여(그것 잡수실 채소와 과일을 풍성히 드리는 것이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면) 드리는 것을 기뻐 아니하실 듯한 까닭이다. 그래서 얼마동안 주저하다가야 비로소 영월 부사에게 명하여 노산군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 밭 한 패기를 장만하여 그 밭에 각양 채소와 참외, 수박 등속을 심어 노산군이 마음대로 따 잡수시게 하라고 하였다.

왕의 이 명은 얼른 보면 그리 끔찍한 것도 아니었지마는그 영향은 적지 아니하였다. 노산군에게 편하게 하여 드리어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이 여간



노산군에게 큰 이익이 되었는지 모른다. 부사가 매삭일차 문안을 나오게 되고 나올 때마다 혹은 잡수실 것을 , 혹은 피륙을 갖다가 바치는 것을 보고 군사들이 버릇없던 것도 차차 들어가서 공손하게 되고 백성들도 마음 놓고 채소, 과일같은 것을 보내어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노산군에게 무슨 큰 위로가 될 리가 만무하다.봄철이 되어 초목에 새 움이 나오고 철 찾아 오는 새들이 목이 메어 우는 소리를 들으실 때면, 노산군의 흉중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이슬픔을 뉘게 다 말하랴, 말할 사람이 없었다. 심서가 자못 산란하여 진정키 어려우신 때에는 통소 부는 늙은이 하날르데리시고 관풍매죽루에 오르시어 봄달을 바라보시며 통소를 들으시었다. 밤에 통소 소리가 들리면 인근 백성들은 노산군이 관풍루에 오르신 줄 알고 다들 한숨을 쉬었다. 우는 이도 있었다. 혹시 통소 소리를 따라 관풍루 앞으로 지나가는 이도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노산군은 반드시 익선관,곤룡포를 입으시고 난간 앞에 단정히 앉으시와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시되 통소 한 곡조가 다 끝나도록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시더라고 한다.

이러하시다가 밤이 이슬한 뒤에야 숙소로 돌아오시기를 일과로 삼으시었다.

(달밝은 밤 두견 울 제 수심 품고 누 머리에 지켰으니 네 울음 슬프거든, 내 듣기 애달아라. 여보소 세상 근심 많은 분네 애어 춘삼월 자규루에 오르지 마소.)

하시는 것이나 또,

(한 번 원통한 새가 되어 임금의 궁을 남으로부터 외로운 몸, 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 속에 있도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이 깊이 아니들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한이 닿지 않는도다. 우는 소리 새벽 뿔부리에 끓이니 지낸 달이 희었고, 뿔는 피 봄 골짜기에 흐르니 지는 꽃 붉었도다. 하늘은 귀 먹어 오히려 애달은 하소연을 듣지 아니하시거늘, 어찌다 수심 많은 사람의 귀만 홀로 밝았는고.)

하시는 것이나 다 봄날 잠 아니 오는 밤에 통소를 들으시며 지으신 것이다.

영월은 산읍이라 사면이 산이어서 봄철 밤 달 질 때쯤 하여 누에 오르면 반드시 어디서나 두견의 소리가 들린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슬피 울고 새벽달에 차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도록 슬피 운다. 관풍헌(觀風軒)이나 자규루나 다 노산군이 발을 새어 자규성을 들으시던 곳이다.

지으신 시를 사람더러 읊으라 하시고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삼연히 나루하신 일이 몇 번이고. 좌우에 모시었던 사람들도 웃소매가 젖었다.

차차 날이 더워 여름이 되면 노산군은 금강정(金剛錠)에도 가끔 오르시었다. 금강정은 금강가에 있어 누에 앉았으면 물 소리 구슬피 들렸다. 이것을 노산군은 심히 사랑하시어더구나 달 밝은 밤이면 밤 깊은 줄도모르시고 여울여울 울어가는 강물 소리를 들으시었다.

천하가 다 변하는 중에도 옛 정과 옛 의를 잊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뵈옵는 구신들도 있었거니와 그네를 보신 것도 이러한 곳에서였다. 이목이 번다한 곳에서 구신들을 만나시면 누가 무슨 말을 지어낼지도 모를 것이요, 또 찾아 뵈옵는 구신들로 보더라도 밤 종용한 처소가 편하였던 것이다.

영월부에 노산군을 찾아와 뵈온 이를 다 적을 수는 없거니와 그 중에는 조상치(曹尙治), 구인문(具人文), 원호(元昊), 권절(權節), 송간(松間),박계손(朴溪孫), 유자미(柳自湄)같은 이들이 있었다. 비록 구신은 아니나 김시습(金時習)도 거사의 행색으로 두어 번 노산군께 뵈웠다. 노산군은 일찍 시습을 대면하신 적은 없었으나 그 이름을 들으시고 누구인지 알아보시었다. 이 때에는 시습이 아직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다 성명을 변하고 행색을 변하고, 혹은 거사 모양으로, 혹은 유람객 모양으로,혹은

농부 모양으로 변장을 하고 영월부에 들어와 하루 이틀 묵으면서 동정을 보다가 노산군이 자규루나 관풍루나 금강정에 낚시는 기회를 타서 무심코 그 앞으로 지나가는 행객 모양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와 노산군께 뵈옵는 목적을 말하였다. 그리고 와서 뵈옵는 이는 노산군 앞에 엎드리어 가슴과 목이 매어 오래 일어나지를 못하고 노산군도 흔히 나루하시는 일이 있었다. 이때에 낙루하심은 찾아오는 자의 정성에 감격하심이었다.

뵈워야 길게 사귄 말씀도 없거니와 또 오래 모시고 있는것도 옳지 아니할 듯하여 흔히는 맥맥히 시로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번 떠나면 다시 언제 뵈오리, 이번 마지막 이다 하는 생각이 자연히 날 때에 피차에 감회는 더욱 깊었다.

찾아왔던 이가 하직하고물러날 때에는 노산군은 반드시 일어나시와 그의 팔이나 손을 만지시고 석별하시는 뜻을 보이시었다. 가는 사람은 십보에 한 번, 이십보에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눈물이 앞을 가리어 비틀거림을 금치 못하였다.

금성 대군이 순흥부(順興府)에 귀양살이하는지가 벌써 이태나 되었다. 집을 빼앗긴 것은 이미 독자도 다 아는 바여니와 왕은 그가 처자와 함께 있기도 허락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금성 대군은 순흥부 어떤 조그마한 민가 하나를 잡고 시녀 두엇과 사내 하인 두엇과 함께 둬이 되었다. 시녀는 본래 금성 대군 궁에 있던 사람으로 상전을 따라온 사람이다.두 궁녀 중에는 금련(金蓮)이라는 나이 이십 이삼세, 자못 자색이 있는 계집이 있었다.

이 시녀 금련은 어려서부터 금성 궁에서 자라나며 십칠세 적부터는 그윽히금성 대군을 사모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려 하였고, 금성 대군도 금련이 아름답고 영리한 것을 귀히 여겨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순흥에 금성 대군을 따라온 것도 그만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성 대군은 본이 근엄한 사람인 데다가 단종 대왕이 선위하심으로부터는 더구나 주색에 뜻을 두지 아니 하였다. 이것이 금련에게는 불만이요, 또 원한이 되었다. 금성 대군은 이곳 온 뒤로 기회만 있으면 남중 인사와 사귀었다. 그는 금지 옥엽의 몸으로도 모든 존귀한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어떤 사람을 대하여 겸손하고 간담을 토진하였다. 이것이 남중 인사를 사이에 큰 칭찬과 존경을 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래 영남 사람은 의리가 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감봉하여 영월에 안치한 것을 보고는 가슴 속에 억제할 수 없는 불평을 품고 한 번 죽기로써 외를위하여 싸우리라 는 비분강개한 생각을 가진 선비도 불소하였다. 이러한 인사들은 금성 대군에게서 그 영수를 발견한 것이다.

금성 대군은 죄인의 몸이라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자유롭지를 못하였다. 부사를 따라서 그 자유는 혹 넓어도지고 좁아도지었다. 그러나 열 눈이 한 도적 못 막는다는 셈으로그러한 중에서 금성 대군이 사람 만나볼 기회는 있었다. 봄철이면 산에서,여름이면 냇가 낚시질 터에서, 또는 밤에 주석에서,어떻게든지 만나는 방법은 있었고 또 의리로 서로 사귀이 여러 번 만나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다. 관부의 눈에 필 위험을 무릎쓰고 찾아오는 것만 보아도 금성 대군 편에서는 저편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금지 옥엽 귀한 몸으로서 이름도 없는 하향 선비의 손을 잡고 차마 놓지 못하는 금성 대군의 태도만 보면 저편에서도 이편의 생각을 짐작할 것이다. 만나서말을 한 대야다만 한환을 펴 뿐이나 그것으로써 의를 맺기에 족하였다.

이렇게 한 번 금성 대군과 지기가 상함한 사람이면 또 자기의 동지를 구하여 금성 대군에게 소개하였다. 이 모양으로 순흥부에 온 뒤에 금성 대군이 사귀을 맺은 사람이 무려 수백

명에 달하였다.

마침 정축년을 당하여 이보흠(李甫欽)이 순흥 부사로 내려왔다.

보흠은 세종대왕(世宗大王) 기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集賢殿) 박사(博士)를 지낸 사람이다. 자를 경부(警部)라 하고 호를 대전(大田)이라 하여 굴하고 이재(理財)가 있고 천성이 사치한 것을 싫어하여 옷이 헤어지고 때가 묻어도 부끄러워하지를 아니하였다.

선위가 있고 성 삼문 변이 있는 뒤에 벼슬에 뜻이 없어 집에 있다가 이번 순흥 부사로 내려 온 것이다.

그는 일찍 글을 지어 길주서(吉注書)의 묘전에 제를 지내었다. 그 글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

이 글 구절을 보아도 그가 시국에 대하여 불평한 생각을 품은줄을 알 것이다. 그는 친구와 술을 나누다가도 말없이 문득 낙루하는 것은 상왕(노산군)을 생각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강개한 생각을 품은 선비요, 일군은 아니다. 그가 순흥 부사로 와서 금성대군을 만나지 아니하였던들 그는 무슨 일을 도모할 생각을 내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금성 대군의 맵고 매운 충성과 의리를 볼 때에 그만 감격하여 몸을 바치기를 맹세한 것이다.

저녁이 되면 부사 이 보흠은 미복으로 급창 하나만 데리고 금성 대군을 찾아갔다. 이 급창은 얼굴이 잘나고 또 영리하여 보흠이 됨 이래로 항상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아주 공순하고 삼삼하여 보흠의 부인까지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는 다만 보흠 내외의 사랑만 받을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믿음을 받았다.

금성 대군과 이 보흠이 마주 대하면 서로 낙루함을 금치 못하였다. 금성 대군은 보흠을 만나 뜻이 서로 맞는 것을 보고 심히 기꺼하였다. 비록 보흠이 지인지감이 부족하고 일 솜씨가 없다 하더라도 그는 순흥 부사요, 순흥부 삼백명 군사와 칠십명 관속을 부릴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맨주먹 밖에 없던 금성 대군에게 한 고을 권세라는 것이 여간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던 날 밤에---닭 울 때나 되었었다---금성 대군은 자기 갓에 달았던 산호 영자를 딱 떼어 보흠에게 주며,

“내 몸에 지닌 것이, 벗에게 줄 만한 것이 이것 밖에 없소.”

하였다. 갓 끈을 떼어서 정표로 주는 것, 그것은 실로 적은 일이 아니었다. 보흠은 일어나 절하고 받고 죽기로써 허하였다.

이렇게 순흥 부사 이 보흠이 밤이면 금성궁에 나아가서 밤이 깊도록 일을 의논하는 동안에 다른 일 하나가 생긴다. 그것은 시녀 금련과 급창과의 사람이다.

처음 급창을 볼 때로부터 금련의 마음이 그에게로 끌리지 아니함이 아니었으나 금성 대군 같은 고귀한 양반을 오래 마음에 두어오던 금련의 눈에 시골 급창 같은 것은 너무도 초라하였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고 열 번 스무 번 만나는 도수가 많아지는 동안에 그만 두 남녀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하루는 어 보흠이 금성궁에 있어서 늦도록 상의한 끝에 거사한 계책을 확실히 정하여 놓았다. 그 계책은 이러하다---

순흥부에 조련 받는 군사가 삼백명, 관속이 칠십명이요, 순흥 경내에 흩어져 있는 정병(精兵)과 기타 잡역을 모조리 징발하면 또한 삼백명이 되니 이리하여 순흥 한 고을에서 육칠백명 군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비밀히 격서를 보내어 각처에 의기남아를 모집하면 기 아래 모일 사람이 또한 많을 것이다. 그 동안 남중에서 얻은 금성 대군의 명명과 그윽히 의를 맺

아 둔 인사가 수백명에 내리지 아니한즉 한 번 격서를 보는 날이면 이 살마들이 다 향응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리하여 순흥에 넉넉한 병력과 군량을 준비해 놓고(넉넉한 병력이라 함은 인근 어느 고을 병력이라도 감히 대항하지 못할 만한 병력이라는 뜻이다. 이때에 벌써 태조, 태종 시대에 정하여 놓은 제도가 해이하기 시작하여 각 읍 군비와 군량을 실지로 전쟁을 치를 만한 데가 많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아무 때나 인근 읍을 점령할 만한 실력을 이룬 뒤에(일각 안에 이 실력은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금성 대군과 이 보흠은 생각하였다) 영월에 계신 노산군을 모시어 답선재를 넘어 순흥에 이봉하고 새재, 대재 두 길을 막아 영남과 서울과의 교통을 끊어 놓고 영남 일로를 호령하면 영남 각 읍을 손에 넣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세력이 이만큼만 되면 영남 말고도 팔도 지사가 다 향응할 것이니 서서히 경중을 찢러 장안을 점령하고 노산군을 복위하시게 하여 하늘에 사무친 불의와 원한을 한꺼번에 풀어버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두 사람은 너무도 감격하여 손을 마주 잡고 이윽히 말이 없었다.

“자, 이제 격서를 짓는 것은 대자의 재주요.”

하고 금성 대군이 서안 위에 놓인 지필을 보흠의 앞으로 밀어 놓는다.

“남아가 글을 배웠다가 이런 데 쓰게 되니 사무여한이요.”

하고 순흥 부사는 붓을 든 손으로 눈물을 씻었다. 깊은 벼루에 먹 가는 소리가 삭삭 하고 들린다.

이 보흠은 필생 정력을 다하여 격문을 지었다. 다 쓰고 붓을 던질 때에 보흠의 망건 편자에는 땀방울이 맺히었다. 그 격서는 그리 길지 아니한 것인데 대요는 수양 대군이 정 인지, 신 숙주 등 간신에게 그릇함이 되어 골육상잔하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마침내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이는 천인이 공노할 일이라, 천하 의사는 일어나 그릇된 일을 바로 잡아 상왕을 복위하시게 하자 함이었다. 그 중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다---

--또 이러한 구절도 있다---

--또 이러한 구절도 있다---

격서를 초하기가 끝난 뒤에 금성 대군은 서너 번이나 읽어보고 문구에 의혹되는 데를 토론하여 몇 군데를 교정도 하였다. 그래서 더할 수 없이 완전하다고 본 뒤에야 다시 정서하고 끝에다가 금성 대군이라고 서명하고 그보다 한 자 떨어뜨리어 순흥 부사 이 보흠이라고 썼다.

보흠이 돌아간 뒤에 금성 대군은 그 격서를 봉하여 문갑 속에 넣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늦도록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던 금성 대군은 매우 몸이 피곤하였다. 오늘 하루만 아니라 근래에 연일 노심 초사로 그의 안색은 매우 초췌하고 잠이 들면 심히 깊이 들었다. 게다가 오늘 밤에는 만사가 다 작정이 되고 격서까지 써 놓아서 마음을 툭 놓고 잠이 깊이 들어버리었다.

그 답답날이 순흥 장날이다. 장날을 이용하여 장군 모양으로 동지들이 왕래하는 것이 가장 편하였다. 더욱이 여러 사람이 남 모르게 한데 모이는 편익은 이 밖에 없었다. 이번 장에는 각처 동지가 모여들어 최후 의논을 하게 되었다. 최후의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성 대군이 이 보흠과 같이 상의한 일을 전하고 아울러 격서에 착명할 사람은 착명하고 그 격서를 돌릴 직분을 맡을 사람은 맡는 일이다.

금성 대군이 등잔 불도 끄지 아니하고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시녀들이 자는 협실(그것은 건넌방이다) 문이 방긋 열리고 금련의 모양이 나타났다. 때는 시월 초생이나 아직 가을날 같은 기후였다.

금련은 마루청 널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마치 고양이 모양으로 사뿐사뿐 발을 떼어 놓아 금성 대군의 방문 밖에 섰다 그는 귀를 기울이어 방 안에서 나오는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숨소리는 가볍게 코를 고는 소리였다.

금련은 방긋하게 문을 연다. 금성 대군의 수염 좋은 옥 같은 얼굴이 보인다. 금련이 여는 문으로 들어쏘는 바람에 불이 춤을 춘다. 금련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다. 이때에 만일 금성 대군이 눈을 떠서 금련의 자태를 보았던들 그가 아무리 지사의 철석 같은 간장을 가지었더라도 금련에게 혹하지 아니치 못하였으리만큼 불빛에 비추인 금련의 모양은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슴에 한뭉치 충성 밖에 남은 것이 없는 금성 대군은 잠결도 향락적인 마음을 아니 가지려는 사람과 같이 금련을 등지고 돌아 누워버린다.

금련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고 문 안에 쪼구리고 앉아서 숨소리를 죽인다. 도로 나올까 하고 한 손으로 문을 잡는다.

그러나 금성 대군은 돌아 누울 때에 잠간 중지하였던 가벼운 코 고는 소리를 다시 시작하였다. 금련은 불현듯 금성 대군이 원망스러운 생각이 난다. 칠팔년을 두고 사모하여도 거들떠 보아 주지 아니하는 야멸친 정든 임을 원망한 것이다.

<어디 건디어보아.>

하고 금련은 무릎으로 걸어 금성 대군 머리맡에 놓인 문갑을 열고 간지 하나를 집어내어 날쌔게 허리춤에 끼어 버린다. 문갑 열리는 소리에 금성 대군의 숨소리는 잠간 가늘어지었으나 다시 여전히 잠이 드는 모양이다.

금련은 그 일 위해서나 들어왔던 모양으로 금성 대군의 이불을 끌어 올려드리고,  
“가엾으시어라, 오죽 곤하시면,”

하고 종알거리며 나와버렸다.

금련은 마루에서 내려와 종종걸음으로 대문간으로 나온다.

대문 밖에는 웬 사내가 어정어정하다가 안마당에 발자취 소리 들릴 때에 대문 곁으로 바싹 가까이 간다.

그 사내는 말한 것 없이 순흥 부사 이 보흠의 심복 되는 급창이다. 영리한 급창은 금성 대군과 부사가 자주 상종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낚새를 알고 기회만 있으면 엿들었다.

이날도 양인이 대사를 의논하고 격문을 초할 때에는 무론 급창이나 시녀나 부르기 전에는 가까이 오지 말 것을 분부하였으나 이날 따라 더욱 엄하게 좌우를 물리는 것이 더욱 수상하여 급창은 시녀들에게도 밖에 술 사먹으러 나간다고 일컫고 뒤곁으로 들어가 뒷문을 가만히 열고 나가 금성 대군 방 반침 속에 들어가 숨어서 양인의 의논을 자초지종으로 다 듣고 나중에 금성 대군이 격문을 어디 두는 것까지 살피고 나왔다. 그리고 나와서는 금련을 불러내어 그 이야기를 하고 격문만 훑쳐 내면부귀가 돌아오고 자기네 양인이 팔자 좋게 백년해로를 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금성 대군이 역적으로 몰리는 판에 금련도 같이 적몰되어 죽을 것을 말하였다. 이래서 금련은 마침내 서방과 부귀에 미치어 십년 상전으로 섬기고 정든 입으로 사모하여 오던 금성 대군을 배반하여 죽을 물에 빠지게 할 양으로 문갑 속에 두었던 격문을 훑쳐낸 것이다.

“찾았어?”

하는 것은 밖에 선 사내의 말이다.

“응.”

하는 것은 안에 선 계집의 말이다.

“이리 주어!”

하고 급창은 문 틈으로 눈과 손을 댄다.

“가만 있어!”

하고 금련은 소리 안 나게 대문 빗장을 열려고 손을 음질음질한다.

“이러다가 나으리가 알면 모가지 날아나. 어서 그것부터 내어 보내어.”

하고 사내는 재촉한다.

이 문답이 모두 소리없는 말로 되었다.

그러나 금련은 그 보물을 문 틈으로 내어보내려고는 아니하였다. 그래서 기어이 대문을 열고야 말았다.

“이리 내어!”

하고 사내는 금련의 팔을 잡았다.

“나는 어찌할 테야. 임자한 서울로 달아나면 나는 어찌할 테야.”

하고 금련은 사내의 옷소매에 매어달린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귀히 되면 저는 귀히 되지 않나. 어서 이리 내어!”

하고 급창은 계집이야 어찌 되었든지 그 격문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빛을 보이고 금련의 품에 손을 넣으려다.

“웬 소리야. 나으리가 내일이라도 아시면 나는 죽게. 웬 소리야, 나도 같이가. 데리고 가.”

하고 금련은 가슴을 해치는 급창의 손을 뿌리친다.

급창은 금련을 달래어도 아니 듣는 것을 보고 와락 금련에게 달려들어 한 팔로 금련을 꼭 껴안고 한 손을 금련의 허리에 넣어 간지리 빼어 들고는 한 번 힘껏 금련을 떠밀어 대문 안에 비틀비틀 들어가게 하고 자기는 어두움 속에 어디로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이녀석! 이녀석!”

하고 금련이 이를 갈고 따라 나왔으나 벌써 사내는 간 곳을 모르고 동네 집 닭과 개만 놀란 듯이 소리를 높이어 쫓았다.

급창은 그 격문을 전대에 넣어 안허리에 꼭 둘러 띠고 서울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돌았고 발에 날개가 돋혀 저절로 옮겨지는 듯하였다.

이 격문이 잃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마침 어느 동지가 금성 대군을 찾아와서 그 격문을 보려 하여 문갑을 열어 본즉 격문이 간 곳이 없었다. 금성 대군은 크게 놀래어 집안을 뒤지었으나 아무리 찾아도 급창이 가지고 서울로 가니 격서가 나올 리가 없다.

“이게 웬 일이냐.”

하고 금성 대군은 절망한 듯이 한숨을 쉬었다.

금성 대군은 곧 부사 이 보흠에게 그 연유를 말하였다. 부사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급창 놈이 온종일 보이지 아니한 때문이다. 곧 나졸을 급창의 집에 보내어 급창의 어미 아버지를 잡아 들이었으나 어제 밤 나간 뒤에는 간 곳을 모른다고 잡아떼었다. 사실상 그의 부모도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급창은 공명에 탐이 나서 이것저것 돌아볼 사이가 없었다. 부사 이보흠 부처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심복으로 사랑하여 준것도 그에게 터럭끝만한 의리의 속박을 주지 못하였다. 정든 금련도 그의 마음을 끄는 힘이 되지 못하고 늙은 부모도 다 잊어버리어 마음의 어느 구석에도 생각이 남지 아니하였다. 그는 다만 서울

로 서울로 달려갔다.

마침내 금성 대군과 이 보흠은 이것이 급창 놈의 농간인 것을 짐작하였으나 그 격문을 가지고간 것은 급창이라 하더라도 훔치어낸 사람은 따로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달하였다.

“그게 누굴까. 이 문갑에 그것이 든 줄은 어찌 알았으며 또 알았기로니 그것을 누가 집어 내었을까?”

의심은 금련에게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금성 대군은 금련을 불렀다. 금련은 많이 울고난 산 사람 모양으로 해쓱하였다.

처음에는 금련이 실토하지 아니하고 뚝 잡아매었으나 마침내 이실직고하여버리고,

“살려 줍시오!”

하고 금성 대군 앞에 엎드려 있었다.

금성 대군은 부사에게 부탁하여 금련을 옥에 내리어 가두라 하고 곧 급창 따라잡을 계교를 생각하였다.

“저놈이 본래 길을 잘 걸어 하루에 족히 이백 리를 가는 놈이요.”

하는 이 보흠의 말에 금성 대군의 입술은 파랗게 되었다.

“어찌하면 저놈을 따라잡소?”

하고 금성 대군이 부사의 찡그린 얼굴을 바라본다 .

보흠은 이윽히 침음하더니,

“한 가지 길이 있소. 기천 현감(縣監) 김효흠(金孝愼)이 말을 잘 타고 또 걸음 잘하는 말을 먹이니 그 사람에게 청을 할 수 밖에 없소. 지금 곧 사람을 기천으로 보내어서 그 사람이 마침 어디를 가지 않고 기천 있기만하면, 곧 말을 타고 떠나기만 하면 급창이 그놈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대개 지경을 못 벗어나서 붙들릴 것이요.”

한다. 이 말을 듣고 금성 대군은 적이 안심하는 빛을 보이었으나 다시 미우에 근심이 떠돈다---.

“어디 기천 현감은 믿을 수가 있소?”

“그것은 염려 없을 듯하되다. 그 아버가 생전에 소인과 친분이 있었고 또 저도 조상부모하고 혈혈무의한 것을 소인의 선친이 거두어서 소인의 집에서 무여 성장하다시피 하였고 또 남행으로 출륙이나 하게 도니 것도 소인의 반연이 적지 아니하니 설마 제가 소인의 청을 아니 들겠소오리까. 그걸랑 염려 마시거요.”

하고 보흠이 안심하는 한숨을 내어쐈다. 금성 대군도 그제야 적이 안심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영리한 급창이 뒤에 따를 것을 미리 짐작하고 간도로 들어갈지도 모르고 낮에는 숨고 밤이면 갈는지도 모르는 김이다. 이러한 의심이 나면 보흠의 말도 그리 탐탁하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길 밖에는 더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흠으로하여금 기천 현감 김 효흠에게 간곡하게 통정하고 부탁하는 편지를 쓰고 금성 대군도 이번 일에 힘을 쓰기를 바란다는 말과 또 그러하면 후일에 공이 크리라는 말까지도 써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동봉하였다. 그리고 감영에 급한 차사 다니기에 쓰는 썩걸음 잘 걷는 관노 하나를 뽑아 중상을 걸고 가는 듯이 기천에 다녀올 것을 명하였다.

기천 현감(縣監) 김효흠(金孝愼)이 순흥(順興) 부사(府使) 이보흠(李甫欽)의 편지를 받은 것은 이튿날 명명이었다.

김 효흠은 좋게 말하면 꽤남이요, 좋지 못하게 말하면 건달 같은 사람이었다. 문관이면서

도 말달리기와 활 쏘기를 좋아하고 또 주색을 좋아하였다. 문하--라기도 우습지마는 기권 읍내에는 말 달리기, 활 쏘기, 노름하기, 술 먹기 좋아하는 건달패들이 현감의 휘하로 모여 들어 동헌에는 밤낮에 풍류가 질탕하였다. 이렇고도 파직을 아니 당하는 것이 이 보흠의 힘인 것은 말할 것이 없다. 이 보흠이 일개 부사에 불과하거니와 그의 문명이 높음이 대고나들 에게까지도 상당한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보흠은 김 효흡을 제 질 모양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효흡은 보흠의 편지를 받아보고 곧 말을 달리어 대재를 향하여 달리었다. 급창이 재작일 밤에 순흥부를 떠났다 하면 제 아무리 빨리걸었다 하더라도 충주(忠州)를 지내지 못하였을 것이니 역마르 갈아 타고 달리면 속함녀 장호원(長湖院), 아무리 더디더라도 이천(利川)안팎에서 따라잡을 것은 의려 없다고 생각하였다.

기천 형감은 준마를 달리어 단풍도 다 지내고 낙엽이 표요하는 대재를 단숨에 넘어 단양 육십리를 점심지를 때도 다 못되어 다다랐다.

이 모양으로 그느 바도 마상에서 먹고 밤에도 주막에서 눈을 붙이는등 마는등 또 길을 떠나서 사흘만에 급창을 장호원과 음죽(陰竹)새에서 따라잡았다.

김 효흡이 한 달에도 한두 번은 반드시 순흥에 이 보흠을 찾아보는 관계로 급창을 잘 알았다.

“이놈아, 게 쏘거라!”

하고 김 효흡은 말을 달리어 소로로 피하려 하는 급창을 꼭 붙들었다. 여러 날 길에 놔도 더 쫓는 근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놈아, 그 편지 내어!”

하고 손으로 급창의 몸을 뒤지어 격문이 든 전대를 빼앗았다.

“허 요놈, 발칙한 놈 같으니. 그렇게 너의 사또 신세를 지었거든 그래 요것이야.”

하고 말채적으로 급창의 잔등을 한 개 후려갈기고 격문을 내어서 본다.

급창은 분함을 금할 수 없었다. 손에 잡았던 금덩어리를 그만 떨어뜨린 셈이 되었다. 처음에 김 효흡을 좀 저항하여 보려고도 하였으나 아무리 보더라도 견딜 도리가 없어서 이만 뽕드득뽕드득 갈고 길가에 서서 있다.

효흡이 이것을 다 보고나서,

“허 고놈, 네 이제 무엇인 줄 알고 훔쳐가지고 어디로 간단 말이나.”

하고 그 격문을 찢으려고 두 끝을 잡는 것을 급창이 달려들어 효흡의 팔을 붙들며,

“사또 잠깐만 참읍쇼. 소인 말씀할 한 마디만 들읍쇼.”

하고 막는다.

이 쪼 많고 구변 좋은 급창이 좀 어리석한 기천 현감을 휘어 넘기려는 것이다.

“그래 무슨 말이니? 요놈 때려죽일 놈 같으니. 어디 말해 봐!”

하고 효흡도 격서 찢기를 잠깐 정지한다.

“사또, 경상 감사 한자리 안 버시렵쇼? 지금 경상 감사 궐인텝쇼. 사또만하신 양반이 기천 현감이 당할쇼.”

“요놈, 웬 소리야?”

하고 효흡은 급창의 말에 놀라면서도 경상 감사란 말이 노상 듣기 싫지는 아니하다.

“사또, 이 격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갑쇼. 그러시면 내려오실 때에는 경상 감사는 떼어 놓은 당상이넵쇼. 경상 감사 하시거든 소인 부르시와 두둑한 구실이나 한 자리 줍쇼.”

하고 급창이 당장 경상 감사 앞에 청이나 하는 듯이 허리를 굽신굽신한다.



기천 현감 김 효흡은 잠간 주저하였다. 급창의 말이 과연 옳은 말이 아니냐. 그러나 이 보흠의 신세를 어찌 할꼬. 옳다, 이 보흠의 성명 삼자는 칼로 오려 버리자 하고 마음을 작정하였다.

김 효흡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격서를 소매 속에 집어 넣고 말에 올라 서울을 향하고 달아나려 할 적에 급창이 앞을 가로 막으며,

“사또, 소인은 어떻게 하랍쇼?”

“순흥으로 가려무나.”

“죽기는 누가 죽고요. 사또 귀히 되시거든 소인 공도 내세운다고 무슨 필적이라도 줍쇼.”

필적이란 말에 기천 현감은 열이 상투 끝까지 올라 말채찍을 높이 들어 급창을 후려갈기니 채찍 끝이 머리에서 귀통을 감싸고 돌아 뺨이 터져 피가 흐른다. 급창이 아파서 몸을 휘청하고 쓰러지는 틈을 타서 먼지를 차고 말을 달려 가버리고 말았다.

급창은 의기 양양하게 달려가는 기천 현감의 뒷모양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그는 안타까운 듯이 땅에 엎드리어 손으로 잔디 뿌리를 뜯다가 문득 벌떡 일어나며,

“옳다 되었다.”

하고 오던 길로 기천을 향하고 돌아섰다. 그는 아무런데서나 실망하고 자빠질 사람이 아니다. 발길에 채어서 죽는다 하면 그는 반드시 차는 사람의 발바닥이라도 매어 먹고 그러고 한 번 웃고야 죽을 사람이다.

그는 한 묘책을 얻은 것이다. 그것은 어려하다---

아무리 기천 현감이 말을 잘 탄다 하더라도 서울을 가려면 아직도 이튿날 가야 할 것이요, 서울서 기천 현감의 기별을 듣고 관병이 순흥부에 내려오려면 아무리 속하여도 칠팔일은 걸릴 것이다. 이 동안 급창이 근근이 안동(安東)으로 가서 안동 부사 한명진(韓明潛)에게 이 말을 하여 안동 군사를 가지고 불의에 순흥을 엄습하기는 나흘 안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리하면 격문을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간 기천 현감이 도리어 헛물을 켜고 금성 대군과 순흥 부사를 잡은 공은 도리어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급창은 김 효흡에게 얻어 맞아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기운을 다 내어 안동부로 향하였다.

김 효흡은 급창이가 말하던 경상 감사인 두영이 손에 잡힐 듯 잡힐 듯하여 몸이 피곤하는 줄도 모르고 말을 채치어 서울에 득달하였다. 그래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징석(李澄石)을 통하여 그 격문을 왕께 올리였다. 격문 끝에 쓰인 순흥부사 이 보흠의 이름은 칼로 도려내고 오직 금성 대군의 서명만이 있었다.

왕은 격문을 보시고 일변 놀라시고 일변 분하시어 기천 현감 김 효흡을 불러 이번 역모에 관한 자세한 말씀(그것을 김효흡은 본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되는 대로 지어서 아뢰었다)을 물으시고 그 일을 고하는 충성을 가상히 여긴다 하시었다. 그러고 즉시로 영의정 정인지 부르시와 금성 대군과 그 간련을 잡을 것을 명하시고 대사헌(大司憲) 김순(金淳), 판례빈사 김 수를 보내어 금성 대군을 국문하게 하시고 또 소윤(少尹)윤자(胤子), 우보덕(右輔德) 김지경(金之慶), 금부(禁府)진무(鎭撫) 권함 등으로 금성 대군 이외에 죄인을 국문하게 분부하시와 죽일로 출발하라 명하시었다. 안동(安東), 예천(醴泉) 군사로 하여금 순흥을 엄습하게 하고 한 명회의 중제되는 안동 부사 한명진으로 하여금 토적사(討賊使)의 중임을 맡게 하시었다.

이때에 금성 대군과 순흥 부사 이 보흠은 기천 현감의 회보를 기다렸으나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음을 보고 비로소 의아하기를 시작하였다. 만일 김 효흡이 그 격문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하면 (이 보함은 김 효흡이 그리하리라고 믿지는 아니하였다) 만사는 수포에 돌아갈뿐더러 금성 대군과 이 보함의 목숨은 부지를 못할 것이다.

써 놓았던 격문을 잃어버린 금성 대군은 새로 격문을 써 우선 예천 안동으로 띄웠다. 그러나 그 격문은 안동 지경을 다 돌기도 전에 밤중을 타서 안동, 예천 군사 오백여 명이 안동 부사 한 명진의 거느림을 받아 순흥부를 엄습하였다. 불의에 수많은 군사의 엄습함을 받은 순흥부는 미처 손 쓸 사이도 없이 개미 한 마리 셀 틈 없이 포위를 당하고 빗발 같은 시석이 성풍으로 쏟아지었다.

일변 한 명진은 순흥 부사 이 보함에게 사자를 보내어 속히 금성 대군을 잡아내어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중을 무찌르리라고 위협을 하였다.

본래 용병지재가 아닌 이 보함은 이 불의지변에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는 한낱 선비다. 격문은 지을 줄 알아도 실지로 싸울 줄은 몰랐다.

게다가 한 명진은 성중에 글을 던지어 누구나 항복하면 목숨을 용서하려니와 만일 관명을 거역하면 도륙을 면치 못하리라고 위협하고 또 사실상 약간 반항하는 언행이 있는 사람을 잡아 목을 베어서 높은 곳에 달아 백성들의 기운을 눌러서 성중 백성들은 오직 전전궁궁하고 군사들도 싸울 뜻이 없어 성문에서 도망할 틈만 엿보았다. 오직 어떤 중군(中軍) 한 명과 천총(千總) 한 명이 각각 백 명 가량의 군졸을 수습하여 가지고 동헌과 밋 사방을 지키어 죽기로써 안동군을 저항할 뿐이다.

이때에 금성 대군은 정히 잠이 들어 있다가 병마지성이 요란한 것을 보고 옷을 떨치어 입고 칼을 들고 뛰어나 동헌으로 향하였다. 얼마를 가지 아니하여서 뛰어오는 관노 하나를 만났다. 그는 부사의 심부름으로 금성궁으로 오는 길이었다---

“나으리마님입시오?”

“오, 누구냐?”

“소인이요. 돌쇠요. 큰일 났습니다. 안동, 예천 군사가 수없이 몰려와서 지금 부중을 겹겹이 에워싸고 나으리마님 잡아내라고 야단입니다. 사또께옵서는 소인더러 나으리마님 어서 피신하십시오. 여쭙고 오라 하시와 지금 뵈오러 가는 길입니다. 나으리마님, 시각이 바쁘니 어서 피신하십시오.”

하고 관노는 황황하게 재촉한다.

“사또는 어디 계시냐.”

“시방 군사를 모으라 하시는 모양이요. 군사들이 안동 군사가 무서워 더러는 도망하옵고 더러는 항복하옵고 또 죽기도 하였는지 알 수 없사오나 모여드는 군사는 얼마가 되지 못하는 듯하옵니다.”

이때에 ‘뚜우……뚜우……’하는 나발 소리와 북소리가 들린다.

“취군이요.”

하고 관노가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금성 대군도 귀를 기울이니 철철, 터벅터벅하고 군사들의 발이 땅을 차고 달리는 소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소리 모양으로 들린다.

동헌으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인기척은 요란하였으나 말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였다. 한참 동안 쫓던 개들도 너무도 쫓기에는 어마어마하다는 듯이 소리를 잠가버리고 말았다.

백성들은 모두 잘 수도 없고 뛰어 나오기도 무서워 덜덜 떨고 믿을 수 없는 문고리만 비끄러 매었다.

“어서 피신히십시오.”

하고 관노가 성화를 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고 금성 대군은 삼문 안까지 들어왔다.

삼문 안에는 한 오십 명 가량 되는 군사가 활을 메고 창을 들고 모여 섰다. 이것이 천춘 한 사람이 한 알갱이 두 알갱이 모아들인 군사다. 중군이 거느린 군사는 밖에서 동으로 달리고 서으로 달려 가장 수효나 많은 듯이 안동 군사를 엄포하고 있었다.

천충은 분명히 계상에 서 있는 부사 이 보흠의 명령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금성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사 이 보흠이 펄쩍뛰며,

“나으리 웬 일이시오? 왜 아직도 피신을 아니하시오?”

하고 심부름 보내었던 관노더러,

“이놈, 내 무어라고 이르더냐. 널더러 나으리 모시어 오라고 이르더냐.”

하고 호령을 한다.

“아니요.”

하고 금성 대군이 부사의 팔을 붙들고,

“아니요. 내가 피신할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불명해서 대사를 그르치었으니 나 혼자 피신하여 살기를 도모할 내가 아니요. 막비 운이어, 운이니까 내혼자 안동 부사를 만나 보고 무고한 목숨을 살해하지 말도록 말이나 하려고 하오. 날 잡으러 왔다 하니 나만 가면 무사할 것 아니요?”

하고 일어나 나가려 한다. 부사 이하로 여러 사람이 만류하고 사생을 같이하기를 원하였으나 금성 대군은,

“그대들은 살아 남아 상왕을 복위하시게 하라.”

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금성 대군은 안동 부사의 손에 붙들려 안동 옥에 가둠이 되었다.

금성 대군이 붙들리고 마침내 안동 옥에서 교살을 당하매 신 숙주는 이때야말로 노산군을 없이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주 왕께 노산군을 제하여 버리기를 청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거년에 이 개의 무리도 노산을 빙자하였삽고 이제 유(금성 대군)도 또한 노산을 끼고 난을 일으키려 하였사온즉 노산을 살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왕은 숙주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흔들시며,

“인제 의정부에서 또 무슨 말이 있겠지. 그때에 다시 의논해서 시해하지.”

하시었다. 숙주는 왕의 이 말씀을 의정부로 하여금 청하게 하라시는 뜻으로 해석하여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 창손, 이조 판서 한 명회 등에게 말하여 숙주와 함께 왕께 청하기를, --라 하였다. 노산군이 역적 금성 대군의 받든 바 되었으니 살려 둘 수 없다는 뜻이다.

왕은 침음양구에 붓을 들어 (왕은 말씀으로 하시기 어려운 때에는 흔히 글로 쓰시는 버릇이 있었다.)

--라고 써서 신 숙주를 보이시고 한참 있다가 또 붓을 드시어,

--라고 쓰시어 정 인지를 주시었다. 그 뜻은 삼가 그대들의 뜻(노산군을 죽여야 한다는)은 알거니와 내가 더할 수 없이 박덕하여 형제를 많이 죽였거든 또 어찌 감히 조카를 죽이랴. 노산군을 폐하여 못 백성이나 만들라 하심이다. 진실로 왕도 안평 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한남군, 영풍군 합하여 천동기를 다섯 분이나 죽이시었고 조카들은 헤일 것도 없이 죽였으므로 또 골육을 죽인다 하면 입에서 신물이 돌았다. 될 수만 있으면 노산군은 아니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신 숙주와 정인지---그 중에도 신 숙주가 주동이 되어 종친부(宗親府), 의정부(議政府), 충훈부(忠勳府), 육조 연명으로 계목을 올리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노산군을 죽이기로 조의가 확정이 되었다.

라고 정원 일기에 적히게 되었다. 시월이라 함은 정축년 시월이다.

이날 영월부에는 금부 도사가 내려왔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노산군을 모시는 시녀들과 종인들도 이 말을 들으며 자연 가슴이 두군거렸다. 순흥부에서 대재 하나 넘으면 영월이라 사흘 길이 다 되지 못하니 금성 대군 사건 일어난 소문이 영월에 들어온지가 벌써 수십일이 나 되고 금성 대군이 안동 옥에서 교살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온지도 오륙일은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에는 반드시 노산군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누구나 다 짐작하던 일이다.

금성 대군이 순흥서 잡히어 안동으로 이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날에 노산군은 하룻밤을 내려 우시었다.

“금성 숙부마저 돌아가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

하고 한탄하시고 느껴우시니 좌우가 다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런 뒤로는 노산군은 시녀들과 내시들과 제 소원으로 따라와서 수종 드는 오륙인 선비들에게 각기 돌아갈 곳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말씀하시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노산군을 사생간에 끝까지 따르기를 맹세하였다.

이러하던 판에 금부 도사가 내려온 것이다. 내려온 금부 도사는 작년에 노산군을 모시고 왔던 왕방연(王邦衍)이다. 그는 사약(賜藥)을 가지고 노산군 처소에 이르렀다. 이때에 노산군은 익선관, 곤룡포를 갖추시고 당중에 좌정하시어 정하에 부복한 방연을 보시며,

“무슨 일로 내려왔느냐. 상감 강녕하시냐.”

하고 물으시었다.

처음 왕 방연은 문전에 이르러 차마들어오지 못하여 머뭇거리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장이 시각이 늦는다고 발을 구르고 재촉하므로 부득이 들어간 것이다. 들어오기는 하였지마는 노산군의 위의를 뵈오매 차마 내려온 뜻(잡숫고 돌아가실 약을 가지고 내려왔다는)을 말을 만들어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서 다만 이마로 마당을 조이라고 느껴울 따름이었다.

노산군은 왕 방연이 차마 말을 못하는 양을 보시고 또 그가 엎드린 곁에 백지로 봉한 네 모난 조그마한 상자가 놓여 있음을 보아 그가 가지고 온 사명을 짐작하였다.

대문 밖에서는

“유시요! 유시요!”

하는 나장의 재촉이 들려온다. 유시(酉時)가 노산군이 사형을 받을 시간이다.

금부 도사 왕 방연이 울고만 엎드리어 인제 일이 끝날지 모를 때에 평소 노산군을 따라와 모시던 공생(貢生)한 놈이 활시위를 뒤에 감추어 들고 노산군의 등 뒤로 달려 와서 노산군의 목을 졸라매고 복창 밖으로 잡아당기었다. 노산군은 뒤로 넘어지시어 줄을 따라 끌려 가시다가 복창 문턱에 걸리어 절명하시었다. 그 동안에 소리도 아니 지르시고 몸도 움직이지 아니하시었다. 시녀들이 알고 달려들어 목맨 줄을 끄르고 애써 소생하시게 하려 하였으나 다시 소생하시지 아니하시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시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그때에도 수십명 되었다)도 통곡하였다.

공명을 이루려고 노산군을 목을 매어 죽인 공생은 대문을 나서지 못하여 피를 토하고 즉사하여버렸다.

금부 도사 왕 방언은 군사를 명하여 노산군의 시체를 금강(錦江)에 띄우게 하였다. 그는 만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시체도 온전치 못하시리라고 하였다.

노산군의 시체가 물에 들어가 둥둥 떠서 흐르지 아니하고 하얀 열 손가락이 떴다 잠겼다가 하는 것을 뵈옵고는 시녀들과 종자들이 모두 통곡하고 사랑하는 임금의 뒤를 따라 물에 뛰어 들어갔다.

밤에 영월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몰래 시체를 건지어 어머니 위하여 짜 두었던 관에 넣어 부중에서 복으로 오리 되는 곳에 평토장을 하고 돌을 얹어 표하여 두었다.

---끝---